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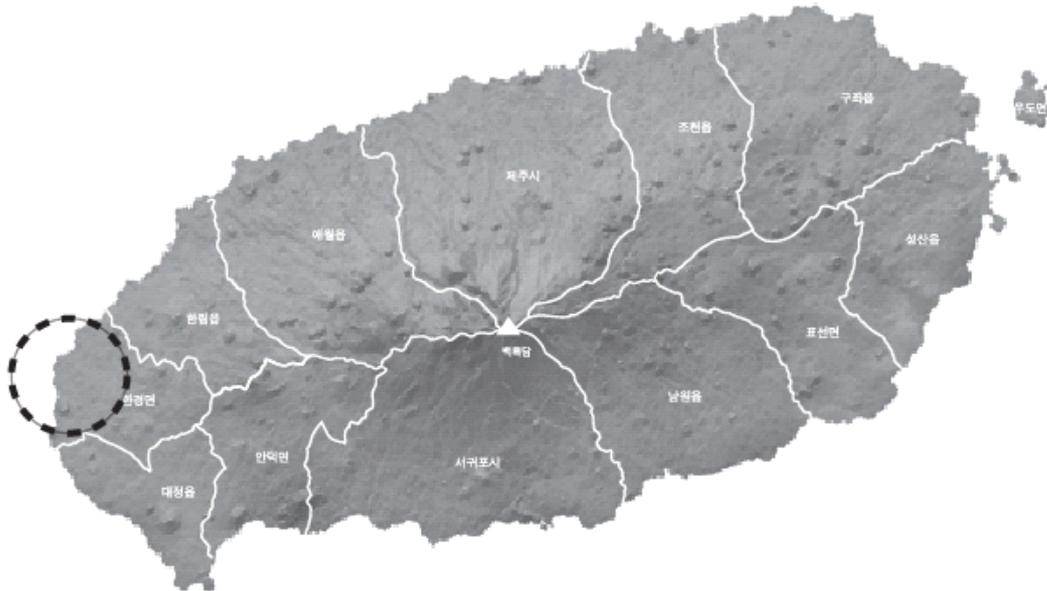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417-01

2017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한경면 고산리

구술: 김인세 이영형 이술색
전사·표준어대역: 신우봉

9



Jeju 제주특별자치도

JRI 제주학연구센터

2017년 제주어구술자료집(1-10)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기관 대행 사업을 수탁한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가 작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9

-한경면 고산리

목 차

I.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5
2. 사업 기간	5
3. 사업 참여자	5
4. 조사 지점과 제보자	6
5. 사업 추진 과정	7
6. 표준어 대역	8
7. 주석	8

II. 구술 자료

1. 조사 마을	9
2. 제보자 일생	39
3. 밭일	62
4. 들일	126
5. 바다일	146
6. 의생활	172
7. 식생활	194
8. 주생활	282
9. 신앙	302
10. 세시풍속	304
11. 놀이	318
12. 통과의례	340
13. 민간요법	379
14. 경험담, 속담, 금기어 듣기	400

1.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2017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 종료에 따른 구술 자료를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게 제주어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는 데 목적이 있다.

3개년에 걸친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1~36)는 현장에서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은 물론 어휘적 특색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보고서는 제주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서 보고서 활용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용의 제한을 극복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려면 제주어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다는 작업이 불가결한 일이다.

나아가 이 표준어 대역하고 주석을 달아 만든 《제주어구술자료집》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12조에도 부합한 일로, 소멸 위기의 제주어의 보전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에도 기여를 할 것이다.

2. 사업 기간

2017년 3월 ~ 2017년 12월 31일

3. 사업 참여자

이 ‘2017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는 2014년부터 시작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에 참여했던 연구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 담당자를 동일하게 배당함으로써 표준어 대역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리라는 판단에서다.

이렇게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을 동일인으로 담당하게 함으로써 조사할 때의 발화 상황은 물론 조사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서 원만한 표준어 대역 작업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다.

또 현지 조사자와 표준어 대역을 동일인으로 함으로써 조사할 때 미흡했던 내용이나 부족하거나 불충분한 부분을 보강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더불어 추가 조사의 편이성도 아울러 고려하였다.

사업 참여자의 소속과 전공, 연구 역할은 다음과 같다.

이름	소속과 전공	분야	참여 구분
박찬식	제주학연구센터	역사학	연구 책임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총괄, 제주시 도련1동 표선면 표선리
김미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조천읍 선흘1리
김선희	제주대학교 강사	고전문학(제주무속)	구좌읍 송당리
김승연	박사과정 수료	한국학(제주무속)	성산읍 고성리
허영선	제주대학교 강사	한국학(제주역사)	표선면 표선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남원읍 남원리
최연미	돈을양지책드르	국문학	서귀포시 보목동
김성용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안덕면 동광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경면 고산리
안민희	민요패 소리앗	한국학(제주민요)	한림읍 월령리
현혜림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	국어국문학	연구보조

4. 조사 지점과 제보자

‘2017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의 조사 지점과 구술 제보자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번호	조사 지점	구술 제보자	비고(담당자)
1	제주시 도련1동	양상수 이술생 이영숙 김옥순 이성철	김순자
2	조천읍 선흘1리	조수용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수생 김민순	김선희
4	성산읍 고산리	김두하 정계춘	김승연
5	표선면 표선리	고옥년 송봉휴	허영선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고영주 정갑선	김보향
7	서귀포시 보목동	강진우 김금전 양정상 이정선 현원후 한승옥	최연미
8	안덕면 동광리	홍춘호 신원홍 고희정	김성용
9	한경면 고산리	김인세 이영형 이술색	신우봉
10	한림읍 월령리	강춘량 고상춘 양창부 문국자	안민희

5. 사업 추진 과정

‘2017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총 9개월이 소요되었다. 본래 현지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부족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추가 채록을 실시하고 조사된 내용을 전사하도록 하였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모든 사업 참여자들이 모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의견을 모아 통일하였다. 매달 모임은 가급적 오류를 줄이고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회의를 거치며 통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개인정보는 숨김표로 표시하고, 청취불능인 경우는 음절수만큼 꽃표(**)를 사용한다.

-필요하지 않은 잡담은 삭제하기로 한다.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와 표준어의 띄어쓰기를 같게 한다.

-문장부호 가운데 마침표와 쉼표는 휴지(休止)와 문맥에 따라 표시한다.

-‘하다’의 경우 ‘ㅎ다’가 아닌 경우는 ‘허다’로 하고, ‘허는구나, 헛구나’ 등 ‘ㄱ’로 통일한다. 분명하게 ‘하다’로 발음한 경우에는 ‘하다’도 허용한다.

-표준발음과 달리 제보자의 발음이 된소리로 나는 경우는 원형을 밝히어 적되, 발음기호인 [] 속에 표기한다.

-보고서의 번호는 그대로 유지한다. 구술자료의 @는 조사사, #은 구술자라는 표시이다. 제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1, #2, #3 ...처럼 표시하였다.

-활자 크기는 11포인트로 하며, 첫 줄은 ‘들여쓰기’ 하기로 한다.

-장 구분을 할 때는 enter를 2회 치기로 한다.

한편 월별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추가 채록	■	■								
추가 전사			■	■						
표준어 대역			■	■	■	■	■			
자료집 편집·교열, 감수					■	■	■	■	■	
자료집 발간										■

6. 표준어 대역

표준어 대역의 근거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두었으며, 몇 가지 원칙을 정하여 통일을 기하려고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사된 모든 구술 자료는 표준어 대역을 한다.
- 조사된 내용에 따라 표준어 대역을 한다. 곧 조사자와 제보자를 번갈아 가며 조사했기 때문에 표준어 대역 또한 이에 따른다.
- 표준어 대역은 () 속에 넣는다.
- 표준어 대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한다. 문맥에 맞게 의역한 경우는 주석에 그 내용을 밝힌다.
-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는 제주어를 그대로 옮겨 ‘ ’로 표시하고, 주석으로 그 내용을 밝힌다.
- ‘에, 으’ 따위의 담화 표지에 해당하는 것은 가급적 그대로 둔다.
- 외래어인 경우는 번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외래어를 그대로 둔다.

7. 주석

주석은 원칙적으로 표준어로 바꿀 수 없는 경우,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쓰인 경우, 지명 등 부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모아진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주석은 각주로 하되, 제주어에 주 번호를 부여한다.
- 주석은 주어-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 주석의 대상은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 본래의 뜻과 달리 쓰인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경우로 한다.
- 지명인 경우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석을 간단하게 처리한다.
- 조사 과정의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한 경우에도 주석으로 처리한다.
- 동일한 내용이 주석으로 처리할 때는 면수(3~4면 간격)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II. 구술 자료

(@: 신우봉, #1: 김인세, #2: 이영형, #3: 이술색)

1. 조사 마을

101001 @ 어르신. 고산¹⁾에서 태어나신거마씨?(어르신. ‘고산’에서 태어나셨어요?)

101001 #1 태어나기는게 여기서 태어났어.(태어나기는 여기서 태어났어.)

101001 @ 여기서 몇 살 때까지 사셨마씨?(여기서 몇 살 때까지 사셨어요?)

101001 #1 내내 이때까지주.(내내 이때까지지.)

101001 @ 그럼 태어났을 때 고산 모습 약간 설명해주실 수 있어마씨? 기억나는 것만.(그럼 태어났을 때 ‘고산’ 모습 약간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 기억나는 것만.)

101001 #1 기억나는 거 고산 기억나는 것만?(기억나는 거 ‘고산’ 기억나는 것만?)

101001 @ 예.(예.)

101001 #1 기억나는 거. 마을 기억나는 거는 별로 잊어. 집은 초집 초담에 많았주게.(기억나는 거. 마을 기억나는 거는 별로 없어. 집은 초가집 처음에 많았지.)

101001 @ 예.(예.)

101001 #1 많았당 춤 박정희 때 당시부터 뭔가 그 쓰레트 집 짓기 시작했주게.(많았다가 참 박정희 때 당시부터 뭔가 그 슬레이트 집 짓기 시작했지.)

101001 @ 예.(예.)

101001 #1 켜 거기서 뭔가 내가 혼 그 후로 한장²⁾ 내려왔지 여기.(그리고 거기서 뭔가 내가 한 그 후로 ‘한장’ 내려왔지 여기.)

101001 @ 아 한장에.(아 ‘한장’에.)

101001 #1 여기 여기는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가 여기 있어놓니깐. 내가 본토, 본토가 여기이다 보니깐.(여기 여기는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가 여기 있었으니까. 내가 본토, 본토가 여기이다 보니깐.)

101001 @ 예.(예.)

101001 #1 여기 와가지고 농사짓기 시작했주게.(여기 와가지고 농사짓기 시작했지.)

101001 @ 마을 처음에 여기 생겼을 때 그 마을에 대해 알아줍서게.(마을 처음에 여기 생겼을 때 그 마을에 대해 얘기해 주십시오.)

1) ‘고산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의 행정리 가운데 하나이다.

2) ‘한장동’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의 지명 가운데 하나이다.

101001 #1 마을에 초담 여기 살 때 여기가 아니주게. 저 밑에 고새미³⁾엔 혼디 주게. 저 밑바닥에 바닷가에.(마을에 처음 여기 살 때는 여기가 아니지. 저 밑에 ‘고새미’라고 하는 곳이지. 저 밑바닥에 바닷가에.)

101001 @ 고쌌?(고쌌?)

101001 #1 고새미.(‘고새미’.)

101001 @ 고새미. 고새미가 뭐짱?(‘고새미’. ‘고새미’가 뭐예요?)

101001 #1 그 나도 모르켜. 동네 이름이 고새미여게.(그 나도 모르겠어. 동네 이름이 ‘고새미’이지.)

101001 @ 아, 예.(아, 예.)

101001 #1 으.(응.)

101001 @ 그럼 거기서 여기는, 여기는 언제 완마썸?(그럼 거기서 여기는, 여기는 언제 오셨나요?)

101001 #1 거기서 차츰, 차츰 올라오는 게.(거기서 차츰, 차츰 올라오는 게.)

101001 @ 예.(예.)

101001 #1 저 밑에 집으로부터 올라오는 게 이까지 올라왔주게. 동네가.(저 밑에 집으로부터 올라오는 게 여기까지 올라왔지. 동네가.)

101001 @ 그럼 그때는 동네 모습은 어떤마씨?(그럼 그때는 동네 모습은 어땠어요?)

101001 #1 동네 모습이야 뭐 여기저기 조금씩 조금씩 흠어정 살았주게.(동네 모습이야 뭐 여기저기 조금씩 조금씩 흠어져서 살았지.)

101001 @ 뭐 특별한 건 엇언마씨? 동네에.(뭐 특별한 건 없었나요? 동네에.)

101001 #1 동네 특별한 게 뭐.(동네 특별한 게 뭐.)

101002 @ 그럼 고산은 주로 무슨 성씨가 많아마씨?(그럼 ‘고산’은 주로 무슨 성씨가 많아요?)

101002 #1 고산 성씨는 이가가 많을 거라.(‘고산’ 성씨는 이가가 많을 거라.)

101002 @ 이가가 많아마씨? 그럼 어르신 젊으셨을 때부터 이씨가?(이가가 많아요? 그럼 어르신 젊으셨을 때부터 이씨가?)

101002 #1 으, 이씨가 제일 많주게.(응, 이씨가 제일 많지.)

101002 @ 또 다른 성씨는 엇언마씨?(또 다른 성씨는 없었어요?)

101002 #1 그 다음에는 김 씨가 많을 거라.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지 뭐.(그 다음에는 김 씨가 많을 거야.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지 뭐.)

101003 @ 고산에서 사람들은 뭐허면서 먹고 살안마씨?(‘고산’에서 사람들은 뭐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101003 #1 그 때야 다 농사지 뭐.(그 때야 다 농사지 뭐.)

101003 @ 어떤 농사 좀 주로 지언마씨?(어떤 농사 좀 주로 지었나요?)

101003 #1 보리, 조, 콩 또 뭐가 나록 이런 거.(보리, 조, 콩 또 뭐가 벼 이런

3) ‘고새미’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의 지명 가운데 하나이다.

거.)

101003 @ 어업은 안 헨마씨?(어업은 안 했어요?)

101003 #1 어업은 엇어. 배 델 데가 엇어.(어업은 없어. 배 델 데가 없어.)

101003 @ 근데 삼촌 옛날에 뱃일도 하셨잖아마씨?(근데 삼촌 옛날에 뱃일도 하셨잖아요?)

101003 #1 으. 뱃일도 헛지.(응. 뱃일도 했지.)

101003 @ 예.(예.)

101003 #1 헉기는. 쪼끌락흔 거. 테우 알아져?(하기는. 조그만한 거. 떼 알겠어?)

101003 @ 예.(예.)

101003 #1 테우 타 가지고 고기 나끄러 여기서 그냥 뭐 해가지고. 테우 하나 사다가 그거는 벨로 이 배 들어갈 때 엇어도 들어가거든. 들어가니까 그걸로 뭐 헉고.(떼 타 가지고 고기 낚으러 여기서 그냥 뭐 해가지고. 떼 하나 사다가 그거는 벨로 이 배 들어갈 때 없어도 들어가거든. 들어가니까 그걸로 뭐 하고.)

101003 @ 배에서 잡히는 거는 뭐, 뭐 잇언마씨?(배에서 잡히는 거는 뭐, 뭐 있었어요?)

101003 #1 뭐 바당서 가이니까 잡이는 거엔 헤빤자 불락, 우럭 뭐 여러 가지 잇는 거지. 그전에는 불바리 곶은 거 뭐 돛 곶은 거 갓돛 뭐 논쟁이 많았주게 많기야.(뭐 바다에서 가이니까 잡히는 거라고 해빤자 불락, 우럭 뭐 여러 가지 잇는 거지. 그전에는 불바리 곶은 거 뭐 돛 곶은 거 돌돛 뭐 아홉동가리 많았지 많기야.)

101004 @ 고산에서 좀 유명한 오름이나 산, 굴 등 그런 거 소개해 줘서.(‘고산’에서 좀 유명한 오름이나 산, 굴 등 그런 거 소개해 주십시오.)

101004 #1 웨정시대 절로 들어온 디 굴 좀 파놓은 거 잇는디. 그건 그렇게 깊으지 않아.(왜정시대 저기로 들어온 데 굴 좀 파놓은 거 잇는데. 그건 그렇게 깊지가 않아.)

101004 @ 그럼 그 굴 이름이 뭐마씨?(그럼 그 굴 이름이 뭐예요?)

101004 #1 이름 엇어.(이름 없어.)

101004 @ 그럼 오름은 뭐 수월봉⁴⁾이 제일 유명헤마씨?(그럼 오름은 뭐 ‘수월봉’이 제일 유명해요?)

101004 #1 아니 저 그거 저거는 고산선 당오름⁵⁾이라 헉주게.(아니 저 그거 저거는 ‘고산’에서는 ‘당오름’이라 하지.)

101004 @ 아 당오름.(아 ‘당오름’.)

101004 #1 당오름에 대해서는 뭐 별다르게 해 놓은 거 엇어. 글로 내려가면 자구내⁶⁾라고 잇주게.(‘당오름’에 대해서는 뭐 별다르게 해 놓은 거 없어. 그리로 내려가면 ‘자구내’라고 있지.)

4) ‘수월봉’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 있는 오름 이름 중 하나이다.

5) ‘당오름’은 당산봉이라고도 불리는 오름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 위치한다.

6) ‘자구내’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 있는 포구의 이름 중 하나이다.

101004 @ 어떤 거마씨?(어떤 거요?)

101004 #1 자구내.(‘자구내’.)

101004 @ 자구내.(‘자구내’.)

101004 #1 바닷가.(바닷가.)

101004 @ 예.(예.)

101004 #1 바닷가 자구내 내려가면은 글로 헤가지고 자구내로 가면은 글로 이쪽에 굴들 흔 몇 군데 잇주게.(바닷가 ‘자구내’ 내려가면 그리로 헤가지고 ‘자구내’로 가면 그리로 이쪽에 굴들 한 몇 군데 있지.)

101004 @ 그럼 당오름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잇어마씨?(그럼 ‘당오름’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잇어요?)

101004 #1 당오름에 대해 저쪽 저쪽 오름 이거는 수월봉이고. 당오름에 대해가지고 아는 거는 별로 잇어. 그 산 이름이나 당오름이랑 헝고 그 지역 어느 지역 어느 지역 그거밖에.(‘당오름’에 대해 저쪽 저쪽 오름 이거는 ‘수월봉’이고. ‘당오름’에 대해가지고 아는 거는 별로 없어. 그 산 이름이나 ‘당오름’이라고 하고 그 지역 어느 지역 어느 지역 그거밖에.)

101004 @ 옛날에도 거기 강 많이 놀았수짱?(옛날에도 거기 가서 많이 놀았습니까?)

101004 #1 응. 게고 거기서 풀이 많이 낫주게. 아는 게.(응. 그리고 거기서 풀이 많이 낫지. 아는 게.)

101004 @ 예.(예.)

101004 #1 풀 나는 게 딱 디서 안 나는 풀이 푼채순이라는 게 잇어.(풀 나는 게 딱 데서 안 나는 풀이 부처손이라는 게 잇어.)

101004 @ 뭐마씨?(뭐요?)

101004 #1 푼채순이라는 게 그 오름에 잇고. 이디에 나는 방풍이영 흔 거는 이디에 나는 거니깐 한경 그 저 수월봉으로 저 당오름으로 이쪽드레는 방풍이 나니깐 헝고. 또 그 아까 얘기한 그 푼채순이는 저 오름에밖에 잇어.(부처손이라는 게 그 오름에 잇고. 여기에 나는 갯기름나물이라고 한 거는 여기에 나는 거니깐 ‘한경’ 그 저 ‘수월봉’으로 저 ‘당오름’으로 이쪽으로는 갯기름나물이 나니깐 하고. 또 그 아까 얘기한 그 부처손은 저 오름에밖에 없어.)

101004 @ 그 자구내 옆에 잇잖아예.(그 ‘자구내’ 옆에 잇잖아요.)

101004 #1 어.(어.)

101004 @ 자구내 말앙 또 다른 거기 근처에 자구내 근처에 굴 잇다고 하지 않안마씨?(‘자구내’ 말고 또 다른 거기 근처에 ‘자구내’ 근처에 굴 잇다고 하지 않았어요?)

101004 #1 굴 저쪽에 굴 잇엇주. 전복도 길러다가 팔고 고기도 거기 들여놔서. 물들면 돌담 놔가지고 쌓아가지고 그 물만 드나들게 헝게끔 헤가지고 거기다가 구쟁기나 전복 같은 거 또 고기 같은 거. 자연굴이니까 자연굴이니까 거기서 키우다

가 팔거든.(굴 저쪽에 굴 있었지. 전복도 기르다가 팔고 고기도 거기 들여와서. 물 밑면 돌담 놔가지고 쌓아가지고 그 물만 드나들게 하게끔 해가지고 거기다가 소라나 전복 같은 거 또 고기 같은 거. 자연굴이니까 자연굴이니까 거기서 키우다가 팔거든.)

101004 @ 예.(예.)

101004 #1 파는디 그 초담 그 굴 입자 이름이 저 뭐다. 용찬이. 그게 용찬이고 냥⁷⁾ 용찬이고냥 했거든? 굴이 그 고양이 같이 앞에는 널러도 안에 들어가면 좁거든. 안에 들어가난 고양이라고 해주게.(파는데 그 처음 그 굴 입자 이름이 저 뭐다. 용찬이. 그게 ‘용찬이고냥’ ‘용찬이고냥’ 했거든? 굴이 그 구멍 같이 앞에는 넓어도 안에 들어가면 좁거든. 안에 들어가니까 구멍이라고 하지.)

101005 @ 그럼 여기 그 고산에는 고산리사무소 있잖아예?(그럼 여기 그 ‘고산’에는 고산리사무소 있잖아요?)

101005 #1 응.(응.)

101005 @ 그럼 고산 일리랑 이리랑 나누어져신디. 옛날 어르신 어렸을 때는 어땀마씨?(그럼 ‘고산’ 일리랑 이리랑 나누어졌는데. 옛날 어르신 어렸을 때는 어땀어요?)

101005 #1 나가 잇을 적에?(내가 잇을 적에?)

101005 @ 예.(예.)

101005 #1 삼리까지 잇었주게.(삼리까지 있었지.)

101005 @ 고산 삼리까지 잇언마씨?(‘고산’ 삼리까지 있었어요?)

101005 #1 으. 삼리까지 잇었는디 이리로 지와버렸주게.(응. 삼리까지 있었는데 이리로 지워버렸지.)

101005 @ 아, 기짱?(아, 그래요?)

101005 #1 으.(응.)

101005 @ 그럼 그 뭐 리사무소 말고 또 그런 것들은 몇 개 잇언마씨?(그럼 그 뭐 리사무소 말고 또 그런 것들은 몇 개 있었나요?)

101005 #1 그 땀 리사무소 웨에는 뭐 땀 관공 같은 건 엇었어.(그 땀 리사무소 외에는 뭐 다른 관공 같은 건 없었어.)

101005 @ 그럼 어르신 요즘 관공서는 뭐 잇어마씨?(그럼 어르신 요즘 관공서는 뭐 있나요?)

101005 #1 이 뭔가 한경면에서 복지회관 거기 놔 앓고 또 리사무실 잇고 또 그 웨에는 학교. 그것벳기 엇어.(이 뭔가 ‘한경면’에서 복지회관 거기 놔 앓고 또 리사무실 잇고 또 그 외에는 학교. 그것밖에 없어.)

101006 @ 어르신 젊으셨을 때 그 고산에도 어떤 계 같은 거 잇었수짱?(어르신 젊으셨을 때 그 ‘고산’에도 어떤 계 같은 거 있었습니까?)

101006 #1 계?(계?)

7) ‘용찬이고냥’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 있는 굴의 이름 중 하나이다.

101006 @ 그 모여가지고 돈 모으거나 계나 접.(그 모여가지고 돈 모으거나 계나 접.)

101006 #1 그 땀 어려워버리니까 그런 게 엇었어.(그 땀 어려워버리니까 그런 게 없었어.)

101006 @ 아 그런 거 엇언마씨?(아 그런 거 없었어요?)

101006 #1 요즘 간에 조금 삶이 편안했지.(요즘 간에 조금 삶이 편안했지.)

101007 @ 고산이나 이 한장동만의 어떤 풍습이 잇우광?('고산'이나 이 '한장동'만의 어떤 풍습이 있습니까?)

101007 #1 풍습 별로 엇어났어. 한장에서는 큰 동네 따라 나가기 때문에 별로 풍습이라는 게 다른 건 엇어.(풍습 별로 없었어. '한장'에서는 큰 동네 따라 나가기 때문에 별로 풍습이라는 게 다른 건 없어.)

101007 @ 고산 따라하는 건 뭐, 뭐 잇언마씨?('고산' 따라하는 건 뭐, 뭐 있었나요?)

101007 #1 고산 따라하는 건 고산서 지시나 내려오면 동네 발전을 위해가지고 얘기하고. 뭐 만드는 거나 나무나 심으는 거 그런 거나밖에. 농촌에 뭐 잇어야지. ('고산' 따라하는 건 '고산'에서 지시나 내려오면 동네 발전을 위해가지고 얘기하고. 뭐 만드는 거나 나무나 심는 거 그런 거나밖에. 농촌에 뭐 잇어야지.)

101008 @ 그럼 여기 특산물 같은 거 뭐 잇언마씨?(그럼 여기 특산물 같은 거 뭐 있었어요?)

101008 #1 특산물이야 뭐 여기 마늘하고 조, 늬들 하는 거 다 허주게.(특산물이야 뭐 여기 마늘하고 조, 남들 하는 거 다 하지.)

101008 @ 예전부터 그게 여기 특산물이언마씨?(예전부터 그게 여기 특산물이었어요?)

101008 #1 옛날부터.(옛날부터.)

101008 @ 예.(예.)

101008 #1 마늘도 특산물이라는 게 요즘 나왔주게. 옛날 우리 그 때는 어렵게 살았으니까.(마늘도 특산물이라는 게 요즘 나왔지. 옛날 우리 그 때는 어렵게 살았으니까.)

101008 @ 예.(예.)

101008 #1 보리나 뭔가 콩이나 전부 소, 소로 갈아가지고 했거든 그 때는. 쉼로 갈아가지고 농사를 지었주게.(보리나 뭔가 콩이나 전부 소, 소로 갈아가지고 했거든 그 때는. 소로 갈아가지고 농사를 지었지.)

101009 @ 어르신, 이 마을 그 자랑거리 잇으면 얘기해 줘서.(어르신, 이 마을 그 자랑거리 잇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101009 #1 이 마을이?(이 마을에?)

101009 @ 예.(예.)

101009 #1 이 마을이 자랑거리 엇어. 굴은 절로 돌양 굴은 흔 몇 군데 잇어.(이

마을에 자랑거리 없어. 굴은 저기로 돌아서 굴은 한 몇 군데 있어.)

101009 @ 그래도 뭐 살기 좋다? 아니면 뭐, 농사하기 편하다 뭐 그런 건 엇수
광?(그래도 뭐 살기 좋다? 아니면 뭐, 농사하기 편하다 뭐 그런 건 없습니까?)

101009 #1 농사는 편하지. 돌맹이가 엇어 놓니까.(농사는 편하지. 돌맹이가 엇어
놓으니까.)

101009 @ 무사 여기는 돌맹이가 벨로 엇어마씨?(왜 여기는 돌맹이가 벨로 엇어
요?)

101009 #1 돌맹이. 밭에 돌맹이가 엇어.(돌맹이. 밭에 돌맹이가 엇어.)

101009 @ 아, 딴 데보다 엇어마씨?(아, 다른 데보다 없어요?)

101009 #1 으 다른 데나 뭐나 밭에 돌맹이 봉글라면 힘들어.(응 다른 데나 뭐나
밭에 돌맹이 주으려면 힘들어.)

101009 @ 여기 한장동 잇잖아예?(여기 ‘한장동’ 잇잖아요?)

101009 #1 어.(어.)

101009 @ 여기 한장동 마을 자랑거리 잇인가마씨?(여기 ‘한장동’ 마을 자랑거리
있어요?)

101009 #1 마을 자랑거리?(마을 자랑거리?)

101009 @ 자랑거리도 좋고 아니면 뭐 좋은 점.(자랑거리도 좋고 아니면 뭐 좋
은 점.)

101009 #1 아직은 뭐 벨다르게 자랑거리가 뭐 엇어.(아직은 뭐 벨다르게 자랑거
리가 뭐 없어.)

101009 @ 예.(예.)

101009 #1 옛날부터 들어오는 게 아직 변허질 못했으니까.(옛날부터 들어오는
게 아직 변하지를 못했으니까.)

101009 @ 들어오는 게 변허지 못해마씨? 아, 뭐가 들어오는 게 변허지 못해마
씨?(들어오는 게 변하지 못해요? 아, 뭐가 들어오는 게 변하지 못해요?)

101009 #1 지금 저 검은모살 잇는 데. 뭐가 어디? 뭐?(지금 저 검은모래 잇는
데. 뭐가 어디? 뭐?)

101009 @ 한장동. 그러니까 좋은 점. 마을의 좋은 점.(‘한장동’. 그러니까 좋은
점. 마을의 좋은 점.)

101009 #1 여기 마을의 좋은 점은 벨로 엇어.(여기 마을의 좋은 점은 벨로 없
어.)

101009 @ 그럼 고산의 좋은 점은 뭐가 잇이까마씨?(그럼 ‘고산’의 좋은 점은 뭐
가 있을까요?)

101009 #1 고산의 고산의 좋은 점 벨로 엇어. 뭐가.(‘고산’의 ‘고산’의 좋은 점
벨로 없어. 뭐가.)

101009 @ 예.(예.)

101009 #1 변헌 게 뭐 잇어야주게.(변한 게 뭐 있어야지.)

101009 @ 아, 변한 게 그러니까 변한 게 뭐 었어도 여기 살면서 뭐 농사허기가 좋다. 아니면 뭐 옆에 사는 사람들이 좋다 뭐 이런 건 었어마씨? 좋았던 거.(아, 변한 게 그러니까 변한 게 뭐 없어도 여기 살면서 뭐 농사허기가 좋다. 아니면 뭐 옆에 사는 사람들이 좋다 뭐 이런 건 없어요? 좋았던 거.)

101009 #1 뭐 농사지으는 거야 벨 편하게 허야. 돈 좀 하영 나오는 게 좋은 거지 뭐.(뭐 농사지으는 거야 벨 편하게 허야. 돈 좀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거지 뭐.)

101009 @ 돌맹이가 었영 좋다고 헛잖아예? 저번에 밧에 돌맹이 별로 었는 거.(돌맹이가 없어서 좋다고 헛잖아요? 저번에 밧에 돌맹이 별로 었는 거.)

101009 #1 어.(어.)

101009 @ 돌맹이 었인 거 말고 밧의 특징 같은 거 었인가마씨?(돌맹이 었는 거 말고 밧의 특징 같은 거 없을까요?)

101009 #1 돌맹이 같은 거 었인 거 말고 벨로 었어.(돌맹이 같은 거 었는 거 말고 벨로 었어.)

101009 @ 그럼 여기 사는 사람들 줌 그 웨지에서도 여기에 사려고 내려와마씨? 한장동에?(그럼 여기 사는 사람들 줌 그 외지에서도 여기에 사려고 내려와요? ‘한장동’에?)

101009 #1 어. 살러 오주게.(어. 살러 오지.)

101009 @ 그럼 그 사람들은 뭐가 중앙 여기 오주마씨?(그럼 그 사람들은 뭐가 좋아서 여기 오지요?)

101009 #1 여기는, 이, 저기 벵뒤⁸⁾에 저기 신도까지 가는다.(여기는, 이, 저기 ‘벵뒤’에 저기 ‘신도’까지 가는데.)

101009 @ 예.(예.)

101009 #1 여기 비행장 험다고 헛거든.(여기 비행장 험다고 헛거든.)

101009 @ 뭐 허는 데마씨?(뭐 하는 데요?)

101009 #1 비행장.(비행장.)

101009 @ 비행장?(비행장?)

101009 #1 어. 비행장 생긴다고 허니까.(어. 비행장 생긴다고 하니까.)

101009 @ 예.(예.)

101009 #1 그걸 믿어가지고 왕 살려고 집 지엿주게.(그걸 믿어가지고 와서 살려고 집 지엿지.)

101009 @ 아, 비행장이 뭐마씨?(아, 비행장이 뭐예요?)

101009 #1 비행기 다니는 데.(비행기 다니는 데.)

101009 @ 아, 비행장.(아, 비행장.)

101009 #1 겐 집 지영 사는데, 그거 몇 사람 안 돼주게. 빈 집이 많아.(그래서 집 지어서 사는데, 그거 몇 사람 안 되지. 빈 집이 많아.)

101009 @ 그럼 옛날부터 한장동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았안마씨? 마을에?(그럼

8) ‘벵뒤’는 널따란 벌판 즉, 허허벌판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벵뒤.

옛날부터 ‘한장동’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마을에?)

101009 #1 한장동 사람 많지 안 허여. 빈 집이 많주게.(‘한장동’ 사람 많지 안 해. 빈 집이 많지.)

101009 @ 그럼 이 마을에서 유명해진 사람이나 유명한 거 뭐 잇어마씨? 마을 에.(그럼 이 마을에서 유명해진 사람이나 유명한 거 뭐 잇어요? 마을에.)

101009 #1 마을에 유명한 거 잇어. 유명한 거.(마을에 유명한 거 없어. 유명한 거.)

101009 @ 유명한 거 잇어마씨?(유명한 거 없어요?)

101009 #1 어.(어.)

101009 @ 그럼 고산에 유명한 거 잇어마씨? 고산에서.(그럼 ‘고산’에 유명한 거 없어요? ‘고산’에서.)

101009 #1 고산서도 유명한 거야. 별도로 현 게 체육관맞기 잇어.(‘고산’에서도 유명한 거야. 별도로 한 게 체육관밖에 없어.)

101009 @ 체육관? 그럼 그 체육관은 언제 만들언마씨?(체육관? 그럼 그 체육관은 언제 만들었어요?)

101009 #1 한 이 삼년 땀어.(한 이 삼년 땀어.)

101009 @ 아, 얼마 안 땀구나예. 가 봤수광?(아, 얼마 안 땀군요. 가 봤습니까?)

101009 #1 어?(어?)

101009 @ 거기 가 봤마씨?(거기 가 봤어요?)

101009 #1 어. 거기서 뭔가 회의 할 때나.(어. 거기서 뭔가 회의 할 때나.)

101009 @ 예.(예.)

101009 #1 또 체육대회 할 때나 거기 가주게.(또 체육대회 할 때나 거기 가지.)

101009 @ 아, 체육대회 할 때 그럴 때.(아, 체육대회 할 때 그럴 때.)

101009 #1 어.(어.)

101009 @ 그러면 그래도 마을하면, 그럼 이 마을하면 우리 마을하면 뭐가 좋다 허는 게 하나도 잇인가마씨? 마을 자랑할 거리.(그러면 그래도 마을하면, 그럼 이 마을하면 우리 마을하면 뭐가 좋다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을 자랑할 거리.)

101009 #1 자랑할 거로, 아주 구식이난 뭐. 뭐 마을 자랑이야 길 넓은 거 그런 거.(자랑할 거로, 아주 구식이니까 뭐. 뭐 마을 자랑이야 길 넓은 거 그런 거.)

101009 @ 뭐마씨?(뭐요?)

101009 #1 차 세울 디. 거 길이.(차 세울 데. 거 길이.)

101009 @ 예. 그러니까 차 세울 데가 많아마씨?(예. 그러니까 차 세울 데가 많아요?)

101009 #1 어.(어.)

101009 @ 아, 그게 좋아. 아니 경 해도 여기 수월봉 같은 데도 사람들 많이 왕 보잖아예?(아, 그게 좋아. 아니 그렇게 해도 여기 ‘수월봉’ 같은 데도 사람들 많이 와서 보잖아요?)

101009 #1 뭐 수월봉 같은 데 사람들 많이 왕 보긴 허주게. 차귀섬이엔 그거 죽도.(뭐 ‘수월봉’ 같은 데 사람들 많이 와서 보기는 하지. ‘차귀섬’이라고 그거 ‘죽도’.)

101009 @ 예.(예.)

101009 #1 그거 보고.(그거 보고.)

101009 @ 죽도?(‘죽도’?)

101009 #1 어. 또 헤지기⁹⁾.(어. 또 ‘헤지기’.)

101009 @ 헤지기? 헤지기가 뭐짱?(‘헤지기’? ‘헤지기’가 무엇입니까?)

101009 #1 해가 바닷 물 속에 내려가는 거.(해가 바닷 물 속에 내려가는 거.)

101009 @ 그걸 어디서 봐마씨?(그걸 어디서 봐요?)

101009 #1 수월봉에서.(‘수월봉’에서.)

101009 @ 아, 수월봉에서.(아, ‘수월봉’에서.)

101009 #1 수월봉에서 거기서 보는 디가. 해 내려가서 물 속에 들어가는 데는.(‘수월봉’에서 거기서 보는 데가. 해 내려가서 물 속에 들어가는 데는.)

101009 @ 예.(예.)

101009 #1 제주도에 몇 군데 잇일 거라.(제주도에 몇 군데 없을 거야.)

101009 @ 그럼 자랑거리 뉘주마씨. 아까도 여기 오면서 보난 여기 관광버스 많이 왔던데마씨.(그럼 자랑거리 되지요. 아까도 여기 오면서 보니까 여기 관광버스 많이 왔던데요.)

101009 #1 어?(어?)

101009 @ 여기 수월봉 앞에.(여기 ‘수월봉’ 앞에.)

101009 #1 어.(어.)

101009 @ 그 관광버스 많아마씨.(그 관광버스 많아요.)

101009 #1 관광버스 많이 들어오주게.(관광버스 많이 들어오지.)

101009 @ 예.(예.)

101009 #1 그거 보고. 저 죽도 섬. 그거 차귀섬 그 전에는 죽도엔 헛주만 그, 이.(그거 보고. 저 ‘죽도’ 섬. 그거 ‘차귀섬’ 그 전에는 ‘죽도’라고 했지만 그, 이.)

101009 @ 예.(예.)

101009 #1 보기가 좋아 경.(보기가 좋아 그렇게.)

101009 @ 죽도가 보기가 좋아마씨? 차귀도¹⁰⁾랑 죽도랑 다른 거짱?(‘죽도’가 보기가 좋아요? ‘차귀도’랑 ‘죽도’랑 다른 겁니까?)

101009 #1 아니, 차귀도엔도 허고 죽도엔도 허고.(아니, ‘차귀도’라고도 하고 ‘죽도’라고도 하고.)

101009 @ 무사 죽도라고 헨마씨?(왜 ‘죽도’라고 했어요?)

101009 #1 죽도엔 해서 옛날에 대나무가 많이 잇엇주게.(‘죽도’라고 해서 옛날에

9) ‘헤지기’는 일몰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0) ‘차귀도’는 제주도(濟州道) 서해(西海) 상(上)에 자리 잡고 있는 섬을 말한다. 와도(臥島)와 죽도(竹島)의 두 섬으로 이루어졌으며, 해녀들에 의하여 김, 굴, 전복, 미역 등이 많이 채집(採集)된다.

대나무가 많이 있었지.)

101009 @ 예.(예.)

101009 #1 경 해부난 죽도엔 헛어.(그렇게 해버리니까 ‘죽도’라고 헛어.)

101009 @ 아, 옛날엔 죽도라고 헛마씨? 지금은 차귀도라고 헛고?(아, 옛날엔 ‘죽도’라고 헛어요? 지금은 ‘차귀도’라고 헛고?)

101009 #1 어. 옛날 사람은 죽도엔 해야 알지. 지금도 차귀도라고 헛면 잘 모를 거라.(어. 옛날 사람은 ‘죽도’라고 해야 알지. 지금도 ‘차귀도’라고 헛면 잘 모를 거야.)

101009 @ 가 본 적은 잇어마씨? 그 안에.(가 본 적은 잇어요? 그 안에.)

101009 #1 어. 가 봤지.(어. 가 봤지.)

101009 @ 그럼 진짜 그 안에 대나무가 많아마씨?(그럼 진짜 그 안에 대나무가 많아요?)

101009 #1 대나무가 잇당 이제 사라져서 엇어져버렸지. 옛날은 뭐 헛 적에는 죽도에 대나무가 잇어부난 일름이 죽도라고 헛주게.(대나무가 잇다가 이제 사라져서 엇어져버렸지. 옛날은 뭐 할 적에는 ‘죽도’에 대나무가 잇어버리니까 이름이 ‘죽도’라고 헛지.)

101009 @ 얼마나 걸러마씨? 여기서. 죽도 가젠 헛민.(얼마나 걸러요? 여기서. ‘죽도’ 가려고 헛면.)

101009 #1 어? 뭔가 배로 한 오 분이면 갈 거라.(어? 뭔가 배로 한 오 분이면 갈 거야.)

101009 @ 가깝다예? 그럼 주변에 불 거는 죽도랑 수월봉?(가깝군요? 그럼 주변에 불 거는 ‘죽도’랑 ‘수월봉’?)

101009 #1 어.(어.)

101009 @ 수월봉에서 헛지기 보고. 그럼 그거 말고 또 불만헌 게 주변에 엇인가마씨? 고산 근처에.(‘수월봉’에서 일몰 보고. 그럼 그거 말고 또 불만헌 게 주변에 엇어요?)

101009 #1 불만헌 게. 벨로 엇어. 해 봤자 자구네포구 지은 거밖기 엇주게.(불만헌 게. 벨로 엇어. 해 봤자 ‘자구네’포구 지은 거밖에 없지.)

101009 @ 자구네포구. 그건 어디 잇주마씨?(‘자구네’포구. 그건 어디 잇지요?)

101009 #1 어?(어?)

101009 @ 자구네포구는 어디 잇어마씨?(‘자구네’포구는 어디 잇어요?)

101009 #1 자구네포구 거기에 잇주게. 자구네라고 헛 데.(‘자구네’포구 거기에 잇지. ‘자구네’라고 헛 데.)

101009 @ 아, 자구네라고 헛 데. 바로 옆에 잇지예?(아, ‘자구네’라고 헛 데. 바로 옆에 잇지요?)

101009 #1 어. 잘 모르냐?(어. 잘 모르냐?)

101009 @ 아니, 가 봤마씨. 옛날부터 자구네포구 잇엇지예?(아니, 가 봤어요. 옛

날부터 ‘자구네’포구 있었지요?)

101009 #1 옛날에는 쪼글락 헛주게. 옛날에는 돌담으로 해가지고.(옛날에는 작았었지. 옛날에는 돌담으로 해가지고.)

101009 @ 예.(예.)

101009 #1 그냥 배만 한 몇 척 들어왔는데. 이제는 크게 만들어 놓니까 큰 배도 들어오고.(그냥 배만 한 몇 척 들어왔는데. 이제는 크게 만들어서 큰 배도 들어오고.)

101009 @ 아, 그럼 죽도 옛날에 가젠 허면 자구네에서 간마씨?(아, 그럼 ‘죽도’ 옛날에 가려고 하면 ‘자구네’에서 갔어요?)

101009 #1 어.(어.)

101010 @ 삼춘 그러면 간단히 그 수월봉이랑 당산봉? 당산봉 맞아마씨?(삼춘 그러면 간단히 그 ‘수월봉’이랑 ‘당산봉’? ‘당산봉’ 맞아요?)

101010 #1 어. 맞아.(어. 맞아.)

101010 @ 수월봉이랑 당 뭐지마씨?(‘수월봉’이랑 당 뭐지요?)

101010 #1 당오름.(‘당오름’.)

101010 @ 아 당오름. 당오름 얘기 좀 해줍서.(아 ‘당오름’. ‘당오름’ 얘기 좀 해주십시오.)

101010 #1 수월봉이엔도 허고 수월산이라고도 허고.(‘수월봉’이라고도 하고 ‘수월산’이라고도 하고.)

101010 @ 예. 수월산? 무사 수월봉이라고 해마씨?(예. ‘수월산’? 왜 ‘수월봉’이라고 해요?)

101010 #1 수월산이엔 현 거는 뭔가 수월이가 떨어정 죽어나니깐 봉이 뉘불고.(‘수월산’이라고 한 거는 뭔가 수월이가 떨어져서 죽어나니까 봉이 되버리고.)

101010 @ 음.(음.)

101010 #1 평지는 수월산이랜 뉘불고.(평지는 ‘수월산’이라고 되버리고.)

101010 @ 아 수월이라 하는 사람은 누구광?(아 수월이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01010 #1 예전에 여기는 것도 옛날에는 옛날 소리니까 그거 누가 알아? 그냥 전설로 남았주게.(예전에 여기는 것도 옛날에는 옛날 소리니까 그거 누가 알아? 그냥 전설로 남았지.)

101010 @ 삼춘 그럼 다시 수월봉이랑 수월산 다시 한 번 얘기해 줘서.(삼춘 그럼 다시 ‘수월봉’이랑 ‘수월산’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101010 #1 왜 수월산이라 했냐면.(왜 ‘수월산’이라 했냐면.)

101010 @ 예.(예.)

101010 #1 옛날에 옛날에 아주 그 여자가 수월이라 허는 여자가 잇었다 이거야.(옛날에 옛날에 아주 그 여자가 수월이라 하는 여자가 있었다 이거야.)

101010 @ 예.(예.)

101010 #1 그 여자가.(그 여자가.)

101010 @ 예.(예.)

101010 #1 어머니가 아파서 죽게 되니 약초를 캐서.(어머니가 아파서 죽게 되니 약초를 캐서.)

101010 @ 음.(음.)

101010 #1 이제 수월산으로 왕 캬는디.(이제 ‘수월산’으로 와서 캬는데.)

101010 @ 예.(예.)

101010 #1 아흔 아홉 개를 캬는디.(아흔 아홉 개를 캬는데.)

101010 @ 예.(예.)

101010 #1 백 개를 채워 수월산에 와가지고 백 개를 채우니깐.(백 개를 채워 ‘수월산’에 와가지고 백 개를 채우니깐.)

101010 @ 예.(예.)

101010 #1 배 탕 내려가니깐 수월산에서 수월이라고 허는 여자가 떨어져버렸어.(배 타서 내려가니깐 ‘수월산’에서 ‘수월’이라고 허는 여자가 떨어져버렸어.)

101010 @ 예.(예.)

101010 #1 떨어져 죽어불고. 그 수월이가 떨어지니까 물 그 알로 물이 거기서 난다 헛주게.(떨어져 죽어버리고. 그 수월이가 떨어지니까 물 그 아래로 물이 거기서 난다 헛지.)

101010 @ 예.(예.)

101010 #1 게서 수월이가 떨어져 죽으니깐 거기서 물이 거기서 난다.(그래서 수월이가 떨어져 죽으니깐 거기서 물이 거기서 난다.)

101010 @ 그럼 삼춘이 아시는 걸로 고산 있잖아예. 고산리가 어떻 어떻 만들어지고 고산리 형성 아시는 거 잇어마씨?(그럼 삼춘이 아시는 걸로 ‘고산’ 있잖아요. 고산리가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고산리’ 형성 아시는 거 잇어요?)

101010 #1 고산리 초담 뭐 허는 거는 몰라.(‘고산’ 처음 뭐 하는 거는 몰라.)

101010 @ 몰라마씨?(몰라요?)

101010 #1 그건 옛날부터 산 사람들이야 알주게.(그건 옛날부터 산 사람들이야 알지.)

101010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1010 @ 삼춘 한장동에 계속 사셨잖아예? 이 마을에 대해서 좀 얘기해줍서. 옆에 집에는 누게가 살아신지. 마을에 큰 일은 뭐 뭐가 잇엇주마씨?(삼춘 ‘한장동’에 계속 사셨잖아요? 이 마을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십시오. 옆에 집에 누가 살았는지. 마을에 큰 일은 뭐 뭐가 잇엇지요?)

101010 #1 한장동이 뭐 얘기할 게 뭐 별로 엇어.(‘한장동’에 뭐 얘기할 게 뭐 별로 없어.)

101010 @ 별로 엇어마씨?(별로 없어요?)

101010 #1 별로 엇어. 고산이 몬져 나왔이니까.(별로 없어. ‘고산’이 먼저 나왔으

니까.)

101010 @ 아, 고산이 먼저 나왔어?(아, ‘고산’이 먼저 나왔어요?)

101010 #1 그렇지. 설계는 고산이 먼저 잊었주게, 설계됐주게.(그렇지. 설계는 ‘고산’이 먼저 있었지, 설계됐지.)

101010 @ 그럼 한장동 이거 몇 년도에 생겨마씨?(그럼 ‘한장동’ 이거 몇 년도에 생겼어요?)

101010 #1 어, 먼가 한장이 초담 사는 데는 저 바닷가.(어, 뭔가 ‘한장’이 처음 사는 데는 저 바닷가.)

101010 @ 예.(예.)

101010 #1 저 한경광 대정¹¹⁾광 경계. 그 저 살아났주게.(저 ‘한경’과 ‘대정’과 경계. 그 저 살았었지.)

101010 @ 예.(예.)

101010 #1 그 저 살당 차츰 차츰 올라오는 게 여까지 올라왔주게.(그 저 살다가 차츰 차츰 올라오는 게 여기까지 올라왔지.)

101010 @ 아, 여까지 올라왔마씨. 그럼 그 한장동에 처음에 누가 살았는지는 모르지예?(아, 여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그 ‘한장’동에 처음에 누가 살았는지는 모르지요?)

101010 #1 응?(응?)

101010 @ 처음에는 누가 살았인지 모르지예?(처음에는 누가 살았는지 모르지요?)

101010 #1 처음에?(처음에?)

101010 @ 예. 초담에.(예. 처음에.)

101010 #1 처음에 조** 아방인디 몰라 하르방 이름은.(처음에 조** 아버지인데 몰라 할아버지 이름은.)

101010 @ 예. 이름은 몰라.(예. 이름은 몰라.)

101010 #1 응. 이제 손자 저, 그 하르방 아덜은 조**. 또 그 사람, 또 또 아덜은 조**이.(응. 이제 손자 저, 그 할아버지 아들은 조**. 또 그 사람, 또 또 아들은 조**이.)

101010 @ 아아, 조**, 조**이.(아아, 조**, 조**이.)

101010 #1 응. 조**, **이는 일본 갔다데. 북한으로 강, 넘어가불고.(응. 조**, **이는 일본 갔다데. 북한으로 가서, 넘어가버리고.)

101010 @ 아, 기구나예. 그럼 할아버지 부모님도 다 여기서 살아신가마씨?(아, 그렇군요. 그러 할아버지 부모님도 다 여기서 살았어요?)

101010 #1 우리?(우리?)

101010 @ 예.(예.)

101010 #1 어 우리 부모도 살았어.(어 우리 부모도 살았어.)

11) ‘대정읍’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행정읍 가운데 하나이다.

101010 @ 한장동에?('한장동'에?)

101010 #1 어, 세 번째 들어왔어. 한장에.(어, 세 번째 들어왔어. '한장'에.)

101010 @ 아, 세 번째 들어왔어. 한장에.(아, 세 번째 들어왔어요. '한장'에.)

101010 #1 어. 두 번째는 강 집이. 세 번째는 우리 김 집이.(어. 두 번째는 강 집이. 세 번째는 우리 김 집이.)

101010 @ 아, 김 집이. 그럼 할아버지는 태어났을 때도 여기서 태어난 거지예?
(아, 김 집이. 그럼 할아버지는 태어났을 때도 여기서 태어난 거지요?)

101010 #1 어.(어.)

101010 @ 그럼 지금은 옆집에 누가 사는가마씨?(그럼 지금은 옆집에 누가 사는
가요?)

101010 #1 이 뒤?(이 뒤?)

101010 @ 예.(예.)

101010 #1 거 정, 강**이라고 죽어버렸어. 홀어멍 김**.(거 정, 강**이라고 죽어
버렸어. 홀어머니 김**.)

101010 @ 아 홀어멍.(아 홀어머니.)

101010 #1 응. 김** 살고 있고. 아들은 일본 가불고.(응. 김** 살고 있고. 아들은
일본 가버리고.)

101010 @ 일본 가불고. 그럼 옛날이랑 지금이랑 사는 사람은 다르잖아예.(일본
가버리고. 그럼 옛날이랑 지금이랑 사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101010 #1 옛날에?(옛날에?)

101010 @ 예.(예.)

101010 #1 옛날 우리야 같이 늙는, 거 이 집 짓기, 진 후에주게. 거 가의네가 가
의네라.(옛날 우리야 같이 늙는, 거 이 집 짓기, 지은 후에이지. 거 그 아이네가 그
아이네라.)

101010 @ 아, 그 아이네가 그 아이?(아, 그 아이네가 그 아이?)

101010 #1 또 그 앞에는 저 부**이라고 잇엇주게.(또 그 앞에는 저 부**이라고
있었지.)

101010 @ 예? 뭐마씨?(예? 뭐요?)

101010 #1 부**. 죽어버렸어.(부**. 죽어버렸어.)

101010 @ 아, 죽어버린마씨.(아, 죽어버렸어요.)

101010 #1 지금 현재 부**이, 아들 살고 잇지마는. 부**.(지금 현재 부**이, 아
들 살고 있지만. 부**.)

101010 @ 그럼 예전에는 사람도 많이 만났잖아예. 농사도 같이 지으멍. 요즘에
는 경 안 허지예?(그럼 예전에는 사람도 많이 만났잖아요. 농사도 같이 지으면서.
요즈음에는 그렇게 안 하지요?)

101010 #1 경 안 해. 그전에는 뭐 제사 때나 먹을, 먹을 때는.(그렇게 안 해. 그
전에는 뭐 제사 때나 먹을, 먹을 때는.)

101010 @ 예.(예.)

101010 #1 뭐 술도 영 끝이 먹고, 저 자식들하고 뭐 먹음도 떡도 나눠주고 그랬는디 요새는 안 해여.(뭐 술도 이렇게 같이 먹고, 저 자식들하고 뭐 먹음도 떡도 나눠주고 그랬는데 요새는 안 해.)

101010 @ 요즘은 안 해여.(요즘은 안 해.)

101010 #1 그러니까 인심은 점점 엇어져.(그러니까 인심은 점점 없어져.)

101010 @ 아, 인심은 점점 엇어져.(아, 인심은 점점 없어져.)

101010 #1 응.(응.)

101010 @ 옛날에는 한장동 마을에 큰 제사나 잇인가마씨?(옛날에는 ‘한장동’ 마을에 큰 제사나 있었어요?)

101010 #1 한장에서 벨다른 큰 제사는 엇었고. 비가 안 오민 기우제. 기우제 지낼 때 한장서도 헛주게. 또 제관.(‘한장’에서 벨다른 큰 제사는 없었고. 비가 안 오면 기우제. 기우제 지낼 때 ‘한장’에서도 했지. 또 제관.)

101010 @ 제관.(제관.)

101010 #1 제관. 거기 올라가주게.(제관. 거기 올라가지.)

101010 @ 예.(예.)

101010 #1 올라강 비 와줍서 혜근앵 기우제 지냈주게. 기우제.(올라가서 비 와 주십시오 해서 기우제 지냈지. 기우제.)

101010 @ 제관은 그럼 누가 완마씨? 고산에 잇언마씨?(제관은 그럼 누가 왔어요? ‘고산’에 있었어요?)

101010 #1 고산? 제관이?(‘고산’? 제관이?)

101010 @ 예.(예.)

101010 #1 제관이 잇기가 잇지마는 하르방네 지금 다 죽어부렀어.(제관이 잇기가 있지만 할아버지들 지금 다 죽어버렸어.)

101010 @ 그때에는 그럼 고산에 잇던 분들이 헨마씨?(그때에는 그럼 ‘고산’에 잇던 분들이 했어요?)

101010 #1 그러니까 그전에 잇던 제관이.(그러니까 그전에 잇던 제관이.)

101010 @ 예.(예.)

101010 #1 뭔가 헛주게. 다 죽어부니까 그 사람들 이름도 몰라.(뭔가 했지. 다 죽어버리니까 그 사람들 이름도 몰라.)

101010 @ 아, 이름은 몰라도 뉘는디 그런 사람 잇언마씨?(아, 이름은 몰라도 되는데 그런 사람 있었어요?)

101010 #1 응. 잇엇주게.(응. 잇엇지.)

101010 @ 아.(아.)

101010 #1 거기서 다 제관들 거기서도, 이제 고산서도 허고. 저 저지¹²⁾, 신창¹³⁾, 그 조수¹⁴⁾서도 다 여기 와.(거기서 다 제관들 거기서도, 이제 ‘고산’에서도

12) ‘저지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의 행정리 가운데 하나이다.

하고. 저 ‘저지’, ‘신창’, 그 ‘조수’에서도 다 여기 와.)

101010 @ 아, 신창이랑 어디마씨?(아, ‘신창’과 어디요?)

101010 #1 응?(응?)

101010 @ 신창이랑 어디?(‘신창’과 어디?)

101010 #1 저지.(‘저지’.)

101010 @ 아 저지.(아 ‘저지’.)

101010 #1 저지에서 영 갈라정 비가 안 오면은 또 저, 이, 조서영 낙천¹⁵⁾서 영 거 하나씩 와.(‘저지’에서도 이렇게 갈라져서 비가 안 오면 또 저, 이, ‘조서’와 ‘낙천’에서 이렇게 거 하나씩 와.)

101010 @ 아, 하나씩 와. 아. 그러면 한장동에서는 옛날에 기우제 말고 다른 건 지낸 거 엇언마씨?(아, 하나씩 와. 아. 그러면 ‘한장동’에서는 옛날에 기우제 말고 다른 건 지낸 거 없었어요?)

101010 #1 다른 건 엇어. 다른 제는 엇고, 뭐. 바다에서나 뭐나 그런 것도 엇고. 여기는 저 축관이 엇어부니까 아무것도 엇엇주게.(다른 건 없어. 다른 제는 없고, 뭐. 바다에서나 뭐나 그런 것도 없고. 여기는 저 축관이 없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었지.)

101010 @ 축관이 엇어부난.(축관이 없어버리니까.)

101010 #1 어.(어.)

101010 @ 축관 엇어부난 한장동에서는 보통 뭐 하면서. 다 밭농사 해신가마씨?(축관 없어버리니까 ‘한장동’에서는 보통 뭐 하면서. 다 밭농사 했어요?)

101010 #1 어. 배, 배도 엇어.(어, 배, 배도 없어.)

101010 @ 아.(아.)

101010 #1 배 타는 사람은 엇어.(배 타는 사람은 없어.)

101010 @ 아, 배 타는 사람은 엇언마씨?(아, 배 타는 사람은 없었어요?)

101010 #1 응.(응.)

101010 @ 그래도 삼촌은 배 일 많이 해보시지 않안마씨?(그래도 삼촌은 배 일 많이 해보시지 않았어요?)

101010 #1 무사 배 일, 하도 뭐, 잘 못 살아 놓으니까 다 헛주게. 그거 타가지고. 그냥 저 무신 화물선 같은 건 안 타보고.(왜 배 일, 하도 뭐, 잘 못 살아 놓으니까 다 했지. 그거 타가지고. 그냥 저 무슨 화물선 같은 건 안 타보고.)

101010 @ 아, 기구나예. 그럼 한장동 마을의 특징은 엇인가마씨?(아, 그렇군요. 그럼 ‘한장동’ 마을의 특징은 없었어요?)

101010 #1 마을에 특징 있는 게 뭔가 사람이 많이, 그때는 젊은 사람이 여기 저, 잇일 적에는 이 요 아래 가면 못이 잇어.(마을에 특징 있는 게 뭔가 사람이 많이, 그때는 젊은 사람이 여기 저, 잇을 적에는 이 요 아래 가면 못이 잇어.)

13) ‘신창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의 행정리 가운데 하나이다.

14) ‘조수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의 행정리 가운데 하나이다.

15) ‘낙천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의 행정리 가운데 하나이다.

101010 @ 못.(못.)

101010 #1 물 가두는 못. 거기까지 옛날 하르방 이름덜 다 잇는다.(물 가두는 못. 거기까지 옛날 할아버지 이름들 다 잇는데.)

101010 @ 예.(예.)

101010 #1 거기 그, 파, 파가지고 막주게.(거기 그, 파, 파가지고 막지.)

101010 @ 뭘 막아마씨?(뭘 막아요?)

101010 #1 그게 뭐냐면 여기서 저기 영, 어디 저, 뭘가 금악¹⁶⁾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제일 높으게 보여. 저기가 배가, 배 끝이 보여.(그게 뭐냐면 여기서 저기 이렇게, 어디 저, 뭘가 ‘금악’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제일 높게 보여. 저기가 배가, 배 끝이 보여.)

101010 @ 아, 금악 올라가면?(아, ‘금악’ 올라가면?)

101010 #1 어어. 금악으로 행, 저지리 올라가민, 높은 데 올라가서 더 크게 보여 거.(어어. ‘금악’으로 해서, ‘저지’리 올라가면, 높은 데 올라가서 더 크게 보여 거.)

101010 @ 아아.(아아.)

101010 #1 그니까 저걸로, 해가 비친다고 해가지고 우리 한장에서 그거 탕주게. 달을 막아, 막은 걸. 그거밖엔 없어.(그러니까 저걸로, 해가 비친다고 해가지고 우리 ‘한장’에서 그거 탕지. 달을 막아, 막은 걸. 그거밖에 없어.)

101010 @ 한장동 이름은 왜 한장동이주마씨?(‘한장’동 이름은 왜 ‘한장’동이지요?)

101010 #1 경계선이니까.(경계선이니까.)

101010 @ 경계.(경계.)

101010 #1 어. 한장이라는 게 저, 이, 몰라 나도 그거는. 잘. 경계라,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한장이라는 게 지금, 너, 그거, 이, 너, 몰르고.(어. ‘한장’이라는 게 저, 이, 몰라 나도 그거는. 잘. 경계라,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한장’이라는 게 지금, 너, 그거, 이, 너, 몰르고.)

101010 @ 네.(네.)

101010 #1 한장 이거, 널르니까. 그것을 놔 가지고 이름을 지은 모양이라.(‘한장’ 이거, 넓으니까. 그것을 놔 가지고 이름을 지은 모양이야.)

101010 @ 음, 그렇구나예. 그럼 한장에서는 배는 안 타고 주로 밧일 헛잖아예.(음, 그렇군요. 그럼 ‘한장’에서는 배는 안 타고 주로 밧일 헛잖아요.)

101010 #1 응. 밧일. 주로 밧일이지.(응. 밧일. 주로 밧일이지.)

101010 @ 그럼 옛날에는 밧일에서 뭐 뭐 키웠주마씨?(그럼 옛날에는 밧일에서 뭐 뭐 키웠지요?)

101010 #1 응?(응?)

101010 @ 옛날에 한장동에서 많이 키운 건 뭐가 잇언마씨?(옛날에 ‘한장동’에서 많이 키운 건 뭐가 있었어요?)

16) ‘금악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의 행정리 가운데 하나이다.

101010 #1 여기서 많이 키운 거?(여기서 많이 키운 거?)

101010 @ 예.(예.)

101010 #1 많이 키운 거야, 보리허고게 조, 감자 줌, 이제야 고구마 허고 감저도 키우고 그랬지마는.(많이 키운 거야, 보리하고 조, 감자 줌, 이제야 고구마 하고 감자도 키우고 그랬지만.)

101010 @ 예. 요즘에는 그럼 하는 건 뭐 잇인가마씨?(예. 요즘에는 그러 하는 건 뭐 있어요?)

101010 #1 요즘 허는 거?(요즘 하는 거?)

101010 @ 네.(네.)

101010 #1 요즘 허는 건 뭐, 뭐 그냥 잡곡이지 뭐. 무도 하고 뭐, 다마네기 곁은 거 그냥 그런, 뭐 나록 그런 거 곁은 거. 보리도 하고.(요즘 하는 건 뭐, 뭐 그냥 잡곡이지 뭐. 무도 하고 뭐, 양파 같은 거 그냥 그런, 뭐 벼 그런 거 같은 거. 보리도 하고.)

101010 @ 그럼 예전이랑 하는 건 비슷하다예.(그럼 예전이랑 하는 건 비슷하군요.)

101010 #1 응. 예전이랑 하는 건 비슷해여. 물건이 조금 다른 뿐이지. 일름이 다를 뿐이지.(응. 예전이랑 하는 건 비슷해. 물건이 조금 다른 뿐이지. 이름이 다를 뿐이지.)

101010 @ 그럼 예전에는 한장동에 사람들은 많이 살안마씨?(그러 예전에는 ‘한장동’에 사람들은 많이 살았어요?)

101010 #1 많이 살지 안 해 여기. 이거, 이거, 이거 돈 늘어나지 못 햄서.(많이 살지 안 해 여기. 이거, 이거, 이거 돈 늘어나지를 못 하고 있어.)

101010 @ 아, 늘어나지 못 햄서.(아, 늘어나지 못 하고 있어요.)

101010 #1 게고, 저 기상대 들어 갖기 때문에.(그러고, 저 기상대 들어 갖기 때문에.)

101010 @ 예.(예.)

101010 #1 발달이 안 돼여.(발달이 안 돼.)

101010 @ 무사 기상대 들어오민 발달이 안 돼마씨.(왜 기상대 들어오면 발달이 안 돼요.)

101010 #1 기상대 들어왕 고산이나 여기나 발달 안 돼.(기상대 들어와서 ‘고산’이나 여기나 발달 안 돼.)

101010 @ 저거 언제 들어왔주마씨?(저거 언제 들어왔지요?)

101010 #1 저거. 올. 저게 현, 십, 십 몇 년 텃인가.(저거. 올. 저게 한, 십, 십 몇 년 됐나.)

101010 @ 음. 십 몇 년 텃.(음. 십 몇 년 텃.)

101010 #1 응.(응.)

101010 @ 기구나예.(그렇군요.)

101001 @ 그뎨 그 고산이 마을이 어떻 형성되신지 어떻 만들어져신지 얘기해 줘서.(그러뎨 그 ‘고산’이 마을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101001 #2 고산은 만든 거는 뉼 마을 만든다는 말은 아니고 왜 고산이란 이름이 뉼는가.(‘고산’은 만든 거는 뉼 마을 만든다는 말은 아니고 왜 ‘고산’이란 이름이 뉼는가.)

101001 @ 예.(예.)

101001 #2 그것이 왜 높을고 뉼산을 썼느냐 이겨주게.(그것이 왜 높을고 뉼산을 썼느냐 이겨지.)

101001 @ 예.(예.)

101001 #2 그게 게니깐 제주도의 머리가 제주도를 거북이 형국으로 보는데 머리가 수월봉에서 에 바로 옆 마을에 잇는 신창리¹⁷⁾에 잇는 두모리¹⁸⁾까지 머리두자 털모자.(그게 그러니까 제주도의 머리가 제주도를 거북이 형국으로 보는데 머리가 ‘수월봉’에서 에 바로 옆 마을에 잇는 ‘신창리’에 잇는 ‘두모리’까지 머리두자 털모자.)

101001 @ 예.(예.)

101001 #2 지금 제주도 지도를 딱 놓고 자를 딱 그엇다면 수월봉에서 종달리¹⁹⁾에 잇는 지미봉²⁰⁾ 그니깐 에 딱 반이라 그까지가.(지금 제주도 지도를 딱 놓고 자를 딱 그엇다면 ‘수월봉’에서 ‘종달리’에 잇는 ‘지미봉’ 그러니까 에 딱 반이라 거기까지가.)

101001 @ 예.(예.)

101001 #2 반이란 말은 여기에는 또 깊은 뜻이 또 잇어.(반이란 말은 여기에는 또 깊은 뜻이 또 잇어.)

101001 @ 무슨 뜻 잇어마씨?(무슨 뜻이 잇나요?)

101001 #2 영등할망²¹⁾까지 나오는 데 게 우선 에 마을 역사부터 이야기하고.(영등신까지 나오는 데 그림 우선 에 마을 역사부터 이야기하고.)

101001 @ 예.(예.)

101001 #2 그래서 이제 마을을 고산이라고 한 거는 거북이 마을 머리에 잇는 마을이기 때문에 높을고 뉼산을 쓴 거야.(그래서 이제 마을을 ‘고산’이라고 한 거는 거북이 마을 머리에 잇는 마을이기 때문에 높을고 뉼산을 쓴 거야.)

101001 #2 그거 여 여기 두 번째 이 당 이제 당 당산이라고 이제 자꾸 이야기 하는데 당상이야.(그거 여 여기 두 번째 이 당 이제 당 당산이라고 이제 자꾸 이야

17) ‘신창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의 행정리 가운데 하나이다.

18) ‘두모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의 행정리 가운데 하나이다.

19) ‘종달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의 행정리 가운데 하나이다.

20) ‘지미봉’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의 오름 이름 가운데 하나이다.

21) ‘영등할망’은 음력 2월 1일에 입도(入道)하여 2월 15일에 나간다고 하는 신(神)의 이름이다.

기하는데 당상이야.)

101001 @ 음.(음.)

101001 #2 에 요디가 이 거북이 눈과 눈 사이를 이가 여기를 우리가 인당이라고 해, 사람이니까 인자를 붙여 당잔데, 잊어야 할 당자라. 인당 위에 봉이다 게서 따지고 보면 한라산보다도 높을 산이 웬다 이겨주게.(에 요기가 이 거북이 눈과 눈 사이를 이가 여기를 우리가 인당이라고 해, 사람이니까 인자를 붙여 당잔데, 잊어야 할 당자라. 인당 위에 봉이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한라산보다도 높을 산이 된다 이 거지.)

101001 @ 예.(예.)

101001 #2 당상봉이.(‘당상봉’이.)

101001 @ 예.(예.)

101001 #2 게고 예 지질 역사상 이제 그 과학자들이 이야기허는다. 제주도에서 제일 먼저 생긴 산이라.(그리고 예 지질 역사상 이제 그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제주도에서 제일 먼저 생긴 산이라.)

101001 @ 예.(예.)

101001 #2 저 용머리허고, 이 모슬포²²⁾에 있는 용머리허고 이제 이, 이게 당상봉이. 그래서 이제 고산, 고산 이제 하게 된 이유가 되고, 에 두 번째는 이제 당상봉에는 이 할망당이 있어.(저 용머리허고, 이 ‘모슬포’에 있는 용머리허고 이제 이, 이게 ‘당상봉’이. 그래서 이제 ‘고산’, ‘고산’ 이제 하게 된 이유가 되고, 에 두 번째는 이제 ‘당상봉’에는 이 할머니당이 있어.)

101001 @ 할망당²³⁾마씨?(‘할망당’이요?)

101001 #2 게서 그 할망당을 저걸 이제 자꾸 마을에다가 이야길 해도 안 듣는 게.(그래서 그 ‘할망당’을 저것을 이제 자꾸 마을에다가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 게.)

101001 @ 예.(예.)

101001 #2 문화가 발전할수록 신경화가 돼. 사람이. 내 집에 속상한 일 있으면 돌맹이 올려놓으면서 소원도 풀고.(문화가 발전할수록 신경화가 돼. 사람이. 내 집에 속상한 일 있으면 돌맹이 올려놓으면서 소원도 풀고.)

101001 @ 예.(예.)

101001 #2 그게 사람의 심리라.(그게 사람의 심리라.)

101001 @ 예.(예.)

101001 #2 그면 저 할망당은 에 병신 된 애를 고치고 애를 못 낳은 사람을 고쳤던 그런 거 기록이 있는 할망당, 제주도에서 제일 할망당이라. 그러면 그 소원을 빌어서 이루어진다는 것보다.(그러면 저 ‘할망당’은 병신 된 애를 고치고, 애를 못 낳은 사람을 고쳤던 그런 거 기록이 있는 ‘할망당’, 제주도에서 제일 ‘할망당’이라. 그러면 그 소원을 빌어서 이루어진다는 것보다.)

22) ‘모슬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포구의 이름 중 하나이다.

23) ‘할망당’은 아기를 분만한 다음 아기의 생육(生育)을 관장한다는 삼승할망을 모시는 당을 의미한다.

101001 @ 예.(예.)

101001 #2 내 마음을 푼다는 거주게. 것이 또 중요한 거.(내 마음을 푼다는 거지. 것이 또 중요한 거.)

101001 @ 예.(예.)

101001 #2 게고 또 이제 아까 이제 말한 크루저 물이 들어오는데, 크루저 물이 일월 달부터 들어와.(그리고 또 이제 아까 이제 말한 크루저 물이 들어오는데, 크루저 물이 일월 달부터 들어와.)

101001 @ 올해 일월 달마씨?(올해 일월 달이요?)

101001 #2 겨울. 그 일월 달부터 평균 들어와.(겨울. 그 일월 달부터 평균 들어와.)

101001 @ 예.(예.)

101001 #2 게서 이월 달 말까지 이제 그 크루저 물이 들어오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영등할망이 온다고 해주게, 영등할망. 그 말은 에 북쪽에서 아주 냉기류가 들어와서 보멸, 씨미역, 소라, 구쟁기, 전복 이런 씨앗을 뿌렸던 거야.(그래서 이월 달 말까지 이제 그 크루저 물이 들어오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영등신이 온다고 하지, 영등신. 그 말은 에 북쪽에서 아주 냉기류가 들어와서 곶동, 씨미역, 소라, 소라, 전복 이런 씨앗을 뿌렸던 거야.)

101001 @ 예.(예.)

101001 #2 그것이 에 고산으로 들어와서 딱 물이 한 바퀴 돌아서 만나는 장소가 바로 종달리에 있는 지미봉에서 만나.(그것이 에 ‘고산’으로 들어와서 딱 물이 한 바퀴 돌아서 만나는 장소가 바로 ‘종달리’에 있는 ‘지미봉’에서 만나.)

101001 @ 아, 기짱?(아, 그렇습니까?)

101001 #2 그것이 딱 십오일이라.(그것이 딱 십오일이라.)

101001 @ 예.(예.)

101001 #2 게서 물때를 맞춘 것이 아니냐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그래서 물때를 맞춘 것이 아니냐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101001 @ 예.(예.)

101001 #2 게서 종달리 지미봉에서 만나서 그 미자가 꼬리 미자거든?(그래서 ‘종달리’, ‘지미봉’에서 만나서 그 미자가 꼬리 미자거든?)

101001 @ 예.(예.)

101001 #2 꼴랭이라는 거야. 거북이 꼬리야. 그 지미봉에서 만나서 종달리에서 헤어진 거야 그 종달 글로 일본으로 들어가 그것이 바로 종자가 마칠종자거든.(꼬리라는 거야. 거북이 꼬리야. 그 ‘지미봉’에서 만나서 ‘종달리’에서 헤어진 거야 그 종달 거기로 일본으로 들어가 그것이 바로 종자가 마칠종자거든.)

101001 @ 예.(예.)

101001 #2 그래서 종달로 갔다는 뜻이야. 근데 거기는 이 여긴 또 깊은 역사가 있어.(그래서 ‘종달’로 갔다는 뜻이야. 근데 거기는 이 여긴 또 깊은 역사가 있어.)

101001 @ 무슨 역사마씨?(무슨 역사요?)

101001 #2 깊은 역사가 있는데 무슨 역사가 있느냐면, 그 크루저 물을 타고 온 사람이 제일은 서복이 들어왔어.(깊은 역사가 있는데 무슨 역사가 있느냐면, 그 크루저 물을 타고 온 사람이 제일은 서복이 들어왔어.)

101001 @ 서복이마씨?(서복이요?)

101001 #2 서복이라는 사람 몰라? 서귀포에 가면 서복 문화회관 그 서복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서복에 대해서 좀 골으카?(서복이라는 사람 몰라? 서귀포에 가면 서복 문화회관 그 서복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서복에 대해서 좀 얘기 할까?)

101001 @ 예.(예.)

101001 #2 서복. 이 김대건 신부와 서복이 들어왔는데 서복은 어떤 사람이나면,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니까 진시황의 오른손이라.(서복. 이 김대건 신부와 서복이 들어왔는데 서복은 어떤 사람이나면,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니까 진시황의 오른손이라.)

101001 @ 예.(예.)

101001 #2 서복이라는 사람이.(서복이라는 사람이.)

101001 @ 예. 알주마씨.(예. 알지요.)

101001 #2 근데 천하를 통일하고 나니까 제일 무서운 놈이 또 서복이라. 게서 세계 역사상 일개 나라에서 장군 오백 명과 마누라 오백 명, 군선 또 장인 백 명. 게면 약 천이백 명을 데리고 이제 불로초 캐러 온다고 했지만은.(근데 천하를 통일하고 나니까 제일 무서운 놈이 또 서복이라. 그래서 세계 역사상 일개 나라에서 장군 오백 명과 마누라 오백 명, 군선 또 장인 백 명. 그러면 약 천이백 명을 데리고 이제 불로초 캐러 온다고 했지만은.)

101001 @ 예.(예.)

101001 #2 나라를 설계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보낸 거라. 것이 세계 역사상 없는 그 역사라.(나라를 설계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보낸 거라. 것이 세계 역사상 없는 그 역사라.)

101001 @ 예.(예.)

101001 #2 게서 이제 일로 왔단 말이야. 게면 여기로 들어 온 거야 이 장안.(그래서 이제 여기로 왔다는 말이야. 그러면 여기로 들어 온 거야 이 ‘장안’.)

101001 @ 예.(예.)

101001 #2 용수리에 가면 장안이라고 있어. 요되 거 절부암²⁴⁾ 밧티가 장안이라.(‘용수리’에 가면 ‘장안’이라고 있어. 요기 거 ‘절부암’ 밑에가 ‘장안’이라.)

101001 @ 장안마씨?(‘장안’이요?)

101001 #2 장안 긴장자 편안한장자인데, 이 장안이라는 데가 바로 서복 고향이

24) ‘절부암’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 있는 바위이다. 마을의 절부 고씨의 절개를 기리며 기념하는 바위이다.

었어. 그때 그 당시 말을 타고 말을 배에 싣고 오다보니까 말이라는 것을 배에 둘
을 시켜야 돼.(장안 긴장자 편안한장자인데, 이 장안이라는 데가 바로 서북 고향이
었어. 그때 그 당시 말을 타고 말을 배에 싣고 오다보니까 말이라는 것을 배에 둘
을 실어야 돼.)

101001 @ 예.(예.)

101001 #2 삼분의 일 가라앉혀 놓고 말을 태우기 때문에. 타는데 그 돌들이 지
금 있어. 중국에서 온 돌들이.(삼분의 일 가라앉혀 놓고 말을 태우기 때문에. 타는
데 그 돌들이 지금 있어. 중국에서 온 돌들이.)

101001 @ 음.(음.)

101001 #2 하얀 돌들이, 근데 그 중국 용수 사람들이 저걸 원칙을 하면 여기다
가 집을 지어야 될 거야 원 원래는.(하얀 돌들이, 근데 그 중국 ‘용수’ 사람들이 저
걸 원칙을 하면 여기다가 집을 지어야 될 거야 원 원래는.)

101001 @ 근디마씨?(그런데요?)

101001 #2 근데 용수 놈들이 아주 무식해가지고 몰라 그건 마을에서 그건 저
못하는 거 지금도 그 돌들이 거기 있고 얼마든지 증빙자료가 있다 이거야.(근데 ‘용
수’ 놈들이 아주 무식해가지고 몰라 그건 마을에서 그건 저 못하는 거 지금도 그
돌들이 거기 있고 얼마든지 증빙자료가 있다 이거야.)

101001 @ 예.(예.)

101001 #2 게고 또 두 번째 김대건 신부데. 김대건 신부도 역사가 많아.(그리고
또 두 번째 김대건 신부인데. 김대건 신부도 역사가 많아.)

101001 @ 예.(예.)

101001 #2 아주 그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도 죽었고 이게 종교적인 뭐 문
제는 얘기해선 안 될 거주만은, 예, 김대건 신부도 크루저 물길이 흐르는 데까지 누가
배를 끄들러 준거야.(아주 그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도 죽었고 이게 종교적인 뭐
문제는 얘기해선 안 될 거지만, 예, 김대건 신부도 크루저 물길이 흐르는 데까지 누
가 배를 끌어 준거야.)

101001 @ 예.(예.)

101001 #2 노를 안 짓고 그냥 뒤집어쓰고 그냥 기도만 하고 이제 뭐 왔다는 십
육일 만에 용수로 들어온 거야. 예, 서북은 십삼일 만에 들어왔어. 근데 거 십육일
만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여기 있다가 이제 서울을 갔는데.(노를 안 짓고 그냥 뒤집
어쓰고 그냥 기도만 하고 이제 뭐 왔다는 십육일 만에 ‘용수’로 들어온 거야. 예, 서
북은 십삼일 만에 들어왔어. 근데 거 십육일 만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여기 있다가
이제 서울을 갔는데.)

101001 @ 예.(예.)

101001 #1 예 이거는 그 저 이조실록에 나온 건데 우리 그 풍수에서 나온 말인
데 어떤 식이냐면 풍물 두 바가지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은 거. 이만 명이 죽었어.
(예 이거는 그 저 이조실록에 나온 건데 우리 그 풍수에서 나온 말인데 어떤 식이

냐면 똥물 두 바가지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은 거. 이만 명이 죽었어.)

101001 @ 음.(음.)

101001 #2 김대건 신부가 에 서울을 갈 때 대원군이 무슨 일을 할 때냐면 에 안동 김 씨가 우리나라를 싹 장악해 잇었어. 무조건 안동 김 씨는 다 직장을 시켜 준거야. 근데 대원군으로선 그걸 굉장히 못마땅하게 이해했어.(김대건 신부가 에 서울을 갈 때 대원군이 무슨 일을 할 때냐면 에 안동 김 씨가 우리나라를 싹 장악해 잇었어. 무조건 안동 김 씨는 다 직장을 시켜 준거야. 근데 대원군으로선 그걸 굉장히 못마땅하게 이해했어.)

101001 @ 예.(예.)

101001 #1 게서 정권을 잡자마자 안동 김 씨를 척살시켜 버렸어. 죽이진 아니하고 관직에서 다 내려오게 만든 거야.(그래서 정권을 잡자마자 안동 김 씨를 척살시켜 버렸어. 죽이진 아니하고 관직에서 다 내려오게 만든 거야.)

101001 @ 음.(음.)

101001 #2 그래서 여기 사람 서로 골고루 채용을 한 거야. 그 당시 김대건 신부가 그때 올라간 거라. 게서 그 안동 김 씨들이 김대건 밑에 전부가 들어갔주게, 그 천주교.(그래서 여기 사람 서로 골고루 채용을 한 거야. 그 당시 김대건 신부가 그때 올라간 거라. 그래서 그 안동 김 씨들이 김대건 밑에 전부가 들어갔지, 그 천주교.)

101001 @ 예.(예.)

101001 #2 그 들어가 가지고 잇었는데 그 옛날 좋았던 생각이 나거든.(그 들어가 가지고 잇었는데 그 옛날 좋았던 생각이 나거든.)

101001 @ 어떤 생각마씨?(어떤 생각이요?)

101001 #2 그 높은 자리에 잇었을 때 그 안동 김 씨들이.(그 높은 자리에 잇었을 때 그 안동 김 씨들이.)

101001 @ 아.(아.)

101001 #2 그래서 그 안동 김 씨에서 누군가가, 에 대원군 아버지 묘를 이제 똥물을 부어버리면 발복을 안한다 해가지고 똥물 두 바가지 사건이라.(그래서 그 안동 김 씨에서 누군가가, 에 대원군 아버지 묘를 이제 똥물을 부어버리면 발복을 안한다 해가지고 똥물 두 바가지 사건이라.)

101001 @ 똥물 두 바가지 사건마씨?(똥물 두 바가지 사건이요?)

101001 #2 어. 그게 대원군은 그 자기 아버지 묘를 모시기 위해서 충청도 어디 저 뭐 속리산인가 그 어디 가서 묻었는데, 에 최고의 그 풍수사 대원군도 풍수사였어.(어. 그게 대원군은 그 자기 아버지 묘를 모시기 위해서 충청도 어디 저 뭐 속리산인가 그 어디 가서 묻었는데, 에 최고의 그 풍수사 대원군도 풍수사였어.)

101001 @ 풍수사마씨?(풍수사요?)

101001 #2 어 풍수사. 게서 대원군은 아주 모든 면에 아주 박식한 분이라. 게서 자기 아버지 뼈다귀를 일주일 동안 지고 가서 그 묻었던 자리야.(어 풍수사. 그래서

대원군은 아주 모든 면에 아주 박식한 분이야. 그래서 자기 아버지 뼈다귀를 일주일 동안 지고 가서 그 묻었던 자리야.)

101001 @ 아.(아.)

101001 #2 거기를 허 똥물을 두 바가지 부워뵈다하니까 대원군이 국수를 좋아했어. 국수를 먹은 채 기절을 해버렸어.(거기를 허 똥물을 두 바가지 부워버렸다하니까 대원군이 국수를 좋아했어. 국수를 먹은 채 기절을 해버렸어.)

101001 @ 예.(예.)

101001 #2 게서 그 이조실록에 눈을 뜨고 나니까 사람의 눈이 아니더라 했던 말이야.(그래서 그 이조실록에 눈을 뜨고 나니까 사람의 눈이 아니더라 했던 말이야.)

101001 @ 예.(예.)

101001 #2 계난 이제 제일 처음은 누가 했는가를 찾다보니까 잡진 못하고 찾김에 이제 죽이기 시작한 게, 똥물 두 바가지 때문에 이만 명이 죽어버려 마지막에 김대건 신부도 마지막에 거기서 죽었어.(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은 누가 했는가를 찾다보니까 잡진 못하고 찾김에 이제 죽이기 시작한 게, 똥물 두 바가지 때문에 이만 명이 죽어버려 마지막에 김대건 신부도 마지막에 거기서 죽었어.)

101002 @ 그럼 그 고산리는 보통 어떤 성씨가 많안마씨? 예전에는? 지금은 다 비슷비슷하지 않안마씨?(그럼 그 ‘고산리’는 보통 어떤 성씨가 많았나요? 예전에는? 지금은 다 비슷비슷하지 않안요?)

101002 #2 아니 그 이젠 거의 다 비슷비슷허주게.(아니 그 이젠 거의 다 비슷비슷하지.)

101002 @ 그런데 예전에는 뭐 어느 성씨가 많거나 그런 건 엇언마씨?(그런데 예전에는 뭐 어느 성씨가 많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101002 #2 겐디 여기도 그 마을 역사를 보면 여기가 비전비답이라. 비전비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그런데 여기도 그 마을 역사를 보면 여기가 비전비답이야. 비전비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101002 @ 예.(예.)

101002 #2 흙이 엇고 수로가 엇을 때는.(흙이 없고 수로가 없을 때는.)

101002 @ 예.(예.)

101002 #2 비가 왔을 땐 벵뒤가 다 이제 물바다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 제일 마을이 생긴 데는 두모나 한원 이쪽이 아주 높지 연대가.(비가 왔을 때는 벌판이 다 이제 물바다였다는 말이야. 그래서 그 제일 마을이 생긴 데는 ‘두모’나 ‘한원’ 이쪽이 아주 높지 연대가.)

101002 @ 한원리 두모리마씨?(‘한원리’ ‘두모리’요?)

101002 #2 음 ‘두모’ ‘두모’ 쪽이 높아 어 판포²⁵⁾ 이디가 높았는데 그 사람들 여기를 쉼 먹이러 왔어.(음 ‘두모’ ‘두모’ 쪽이 높아 어 ‘판포’ 여기가 높았는데 그 사

25) ‘판포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의 행정리 가운데 하나이다.

람들 여기를 소 먹이러 왔어.)

101002 @ 예.(예.)

101002 #2 쉼을 먹이다가 어떤 사람이 밭이 엷으니까 흙을 파고 밭을 경작하기 시작하니깐 밭이 좋거든.(소를 먹이다가 어떤 사람이 밭이 엷으니까 흙을 파고 밭을 경작하기 시작하니깐 밭이 좋거든.)

101002 @ 아.(아.)

101002 #2 여기는 수성 화산 지대가 돼가지고 그 판 데 보다 농토가 병비가 아주 좋아.(여기는 수성 화산 지대가 돼가지고 그 판 데 보다 농토가 병비가 아주 좋아.)

101002 @ 여기가마씨?(여기가요?)

101002 #2 아니 이쪽 말고 저쪽에.(아니 이쪽 말고 저쪽에.)

101002 @ 저쪽에?(저쪽에?)

101002 #2 으 벵뒤 쪽이 수성 화산 지대라서 굉장히 좋아. 게서 그 누가 그 그렇게 허다 보니까 이제 서로 흙 파고 밭을 갈아먹다가.(응 별관 쪽이 수성 화산 지대라서 굉장히 좋아. 그래서 그 누가 그 그렇게 허다 보니까 이제 서로 흙 파고 밭을 갈아먹다가.)

101002 @ 예.(예.)

101002 #2 이제는 농지정리를 이 칠십 년 칠십이 년도인가 삼 년도에 농지정리가 들어갓주게.(이제는 농지정리를 이 칠십 년 칠십이 년도인가 삼 년도에 농지정리가 들어갓지.)

101002 @ 음.(음.)

101002 #2 들어가서 노 그때 통일벼에 논을 고산서 제배해서 굉장한 그 통일벼가 잘 뻤어.(들어가서 노 그때 통일벼에 논을 ‘고산’에서 제배해서 굉장한 그 통일벼가 잘 뻤어.)

101003 @ 벼가마씨? 그럼 여기 고산리 사람들은 주로 그 벼농사 해마씨? 아님 보리농사 해마씨?(벼가요? 그럼 여기 ‘고산리’ 사람들은 주로 벼농사 했나요? 아니면 보리농사 했나요?)

101003 #2 아니 옛날 헛주게.(아니 옛날에 했었지.)

101003 @ 뭐 어떤 거 두 개 다마씨?(뭐 어떤 거 두 개 다요?)

101003 #2 제일 처음 여기서 헛던 건 벼농사 전에는.(제일 처음 여기서 헛던 건 벼농사 전에는.)

101003 @ 예.(예.)

101003 #2 절간고구마.(절간고구마.)

101003 @ 절간고구마?(절간고구마?)

101003 #2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소주 주당 원료가 뻤어.(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소주 주당 원료가 뻤어.)

101003 @ 예.(예.)

101003 #2 게서 그 그 절간고구마를 만약에 또 감자.(그래서 그 그 절간고구마를 만약에 또 감자.)

101003 @ 음.(음.)

101003 #2 감자는 고산 감자하면 지금도 최고로 쳐. 왜냐면 수성 화산 지대이기 때문에 감자가 맛이 좋아.(감자는 ‘고산’ 감자하면 지금도 최고로 쳐. 왜냐면 수성 화산 지대이기 때문에 감자가 맛이 좋아.)

101003 @ 그럼 어르신 그 어르신도 어렸을 때는 젊으셨을 때는 밭농사같은 거 했우짱?(그럼 어르신 그 어르신도 어렸을 때는 젊으셨을 때는 밭농사같은 거 했었습니까?)

101003 #2 어?(어?)

101003 @ 어르신 젊으셨을 때 보리농사나 뭐 밭농사.(어르신 젊으셨을 때 보리농사나 뭐 밭농사.)

101003 #2 어 보리 고구마 감자 어.(어 보리 고구마 감자 어.)

101004 @ 그 여기 그 고산 주변에 어르신 오름이나 바위나 굴 그런 거 좀 유명한 거 있어마씨? 수월봉이 제일 유명 유명하지마씨?(그 여기 그 ‘고산’ 주변에 어르신 오름이나 바위나 굴 그런 거 좀 유명한 거 있나요? ‘수월봉’이 제일 유명 유명하지요?)

101004 #2 뭐?(뭐?)

101004 @ 제일 유명한 오름이나 뭐 산이나 뭐.(제일 유명한 오름이나 뭐 산이나 뭐.)

101004 #2 오 오름은 수월봉이 제일 좋은 거는.(오 오름은 ‘수월봉’이 제일 좋은 거는.)

101004 @ 예.(예.)

101004 #2 아까 말했듯이 예 수월봉으로 두부까지 머리가 시작되는 부분이니까.(아까 말했듯이 예 ‘수월봉’으로 ‘두부’까지 머리가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101004 @ 예.(예.)

101004 #2 거기에다가 저 예 영산제나 기우제를 지내는 산이 제주도에 딱 두 군데밖에는 없어.(거기에다가 저 예 영산제나 기우제를 지내는 산이 제주도에 딱 두 군데밖에는 없어.)

101004 @ 어디 어디마씨?(어디 어디요?)

101004 #2 성판악²⁶⁾인가 어디서 하고 저기밖에 없어, 기우제를 지내는 데가.(‘성판악’인가 어디서 하고 저기밖에 없어, 기우제를 지내는 데가.)

101004 @ 예.(예.)

101004 #2 게서 왜 기우제를 지내느냐 머리가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우제를 지내주게.(그래서 왜 기우제를 지내느냐 머리가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우제를 지내지.)

26) ‘성판악’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봉우리이다.

101004 @ 음.(음.)

101004 #2 계고 당상봉은 제주도의 아버지 산이라.(그리고 ‘당상봉’은 제주도의 아버지 산이라.)

101004 @ 예.(예.)

101004 #2 아버지 비록 산은 뭐 구십 몇 메다밖에 안 돼지만은, 저 한라산 보다 높은 산이라는 뜻이주게. 또 또 뭐 물을 거 뭐 있어?(아버지 비록 산은 뭐 구십 몇 미터밖에 안 되지만, 저 한라산 보다 높은 산이라는 뜻이지. 또 또 뭐 물을 거 뭐 있어?)

101004 @ 굴 같은 건 엿수광?(굴 같은 건 없습니까?)

101004 #2 뭐 일본 시대에 많이 봤지. 저 저승굴²⁷⁾이라고 있어.(뭐 일본 시대에 많이 봤지. 저 저승굴이라고 있어.)

101004 @ 무슨 굴마씨?(무슨 굴이요?)

101004 #2 저승굴.(저승굴.)

101004 @ 저승굴?(저승굴?)

101004 #2 거, 거, 당상봉 바로 밑에 가면 그 자연굴인데 지금들도 가보지를 못해 봤어.(거, 거, ‘당상봉’ 바로 밑에 가면 그 자연굴인데 지금들도 가보지를 못해 봤어.)

101005 @ 그럼, 그 고산에는 그 기관은 뭐, 뭐가 있어마씨? 뭐, 리사무소 리사무소는 몇 개 잇우광? 두 개 잇우광?(그럼, 그 ‘고산’에는 그 기관은 뭐, 뭐가 있어요? 뭐, 리사무소 리사무소는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있습니까?)

101005 #2 거, 두 개. 일리, 이리.(거, 두 개. 일리, 이리.)

101005 @ 거 언제부터 일리, 이리 나뉘진 거마씨? 원래는 고산 하나 아니마씨?(거 언제부터 일 리, 이 리 나뉘진 거예요? 원래는 ‘고산’ 하나 아닌가요?)

101005 #2 원래는 하나였는데.(원래는 하나였는데.)

101005 @ 네.(네.)

101005 #2 그 행정적으로 이제 보통 이리가 썩어. 이리 사람들이 똑똑해, 등치도 좋고. 그래서 이제 일리, 이리 이제 갈라지는 건. 반으로 갈라볼자. 그거는 좀 오래됐어. 그래서, 오래. 가만있어보자. 몇 년쯤 됐을까. 그 전에는 고산리로 다 해났어. 구장으로.(그 행정적으로 이제 보통 이 리가 썩어. 이 리 사람들이 똑똑해, 등치도 좋고. 그래서 이제 일 리, 이 리 이제 갈라지는 건. 반으로 갈라버리자. 그거는 좀 오래됐어. 그래서, 오래. 가만있어보자. 몇 년쯤 됐을까. 그 전에는 ‘고산리’로 다 했었어. 구장으로.)

101006 @ 그럼 고산에 여기 어르신, 그 어르신 젊으셨을 때 뭐 계 같은 것들도 잇언마씨? 계?(그럼 ‘고산’에 여기 어르신, 그 어르신 젊으셨을 때 뭐 계 같은 것들도 있었어요? 계?)

27) ‘저승굴’은 ‘당상봉’ 북서쪽 벼랑에 있는 해식동(海蝕洞: 파도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해변 낭떠러지에 생긴 천연동굴)의 이름이다.

101006 #2 뭐?(뭐?)

101006 @ 모여가지고. 돈 모여가지고 계라고 하잖아요, 계나 접.(모여가지고. 돈 모여가지고 계라고 하잖아요, 계나 접.)

101006 #2 아, 그거 굉장히 많았주.(아, 그거 굉장히 많았지.)

101006 @ 옛날엔 뭐라고 헨마씨?(옛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101006 #2 뭇방제²⁸⁾.('뭇방제'.)

101006 @ 뭇방제?('뭇방제'?)

101006 #2 뭇방제가 제일이었고.('뭇방제'가 제일이었고.)

101006 @ 예.(예.)

101006 #2 뭇방제라는 말은 무슨 뜻이나. 지금 연좌방아가 있는데.('뭇방제'라는 말은 무슨 뜻이나. 지금 연자매가 있는데.)

101006 @ 예.(예.)

101006 #2 이걸 제로.(이걸 제로.)

101006 @ 아.(아.)

101006 #2 그러면 동네 사람이, 그 구역 사람이 이제 제를 해야만 그 돌을 다듬고 굴러 와야 뉘단 말이야. 끌어오던지.(그러면 동네 사람이, 그 구역 사람이 이제 제를 해야만 그 돌을 다듬고 굴러 와야 된다는 말이야. 끌어오던지.)

101006 @ 예.(예.)

101006 #2 계면 집을 짓고 이제 서로 이제 해먹는 거난. 날짜도 표시하고 뭐 어느 날은 누구네 거 어느 날은 누구.(그러면 집을 짓고 이제 서로 이제 해먹는 거니까. 날짜도 표시하고 뭐 어느 날은 누구네 거 어느 날은 누구.)

101006 @ 아, 그런 게 잇언마씨?(아, 그런 게 있었어요?)

101006 #2 으. 뭇방제가 잇엇고, 뭐,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염장제.(응. '뭇방제'가 잇엇고, 뭐,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염장제'.)

101006 @ 염장제?('염장제'?)

101006 #2 사람이 죽으면 그 모든 도구를 그 동네에서 딱 모아 뉘어. 게, 딴 동네사람들이 빌려 가면 돈을 받아.(사람이 죽으면 그 모든 도구를 그 동네에서 딱 모아 뉘어. 그래서, 딴 동네사람들이 빌려 가면 돈을 받아.)

101006 @ 그거 말고 그러면 고산에만 잇는 풍습 같은 거 잇어마씨? 다른 마을에 엇고 고산에만 잇는 거.(그거 말고 그러면 '고산'에만 잇는 풍습 같은 거 잇어요? 다른 마을에 없고 '고산'에만 잇는 거.)

101006 #2 고산에 잇는 거, 계메.('고산'에 잇는 거, 글썸.)

101008 @ 그러면 고산 특산물은 아까 고구마마씨? 고산 감자?(그러면 '고산' 특산물은 아까 고구마요? 고산 감자?)

101008 #2 감자 고구마엇고, 그건 이제 그거 해서는 누가 안 사먹으니까 돈이

28) '뭇방제'는 동네 사람들끼리 함께 쓰는 연자매를 운용하고 큰일이 있을 때에 서로 필요한 물자를 돕기 위하여 꾸민 계 조직을 의미한다. = 뭇방엇제, 말궤렛제, 뭇궤렛제, 뭇방엇제, 뭇방잇제, 뭇방잇제.

안 돼잖아.(감자 고구마였고, 그건 이제 그거 해서는 누가 안 사먹으니까 돈이 안 되잖아.)

101008 @ 예전에는 감자, 고구마. 그럼 요즘에는 특산물 뭐, 뭐 있어마씨?(예전에는 감자, 고구마. 그럼 요즘에는 특산물 뭐, 뭐 있어요?)

101008 #2 이제 마늘.(이제 마늘.)

101008 @ 마늘.(마늘.)

101008 #2 양파.(양파.)

101008 @ 아. 마늘이랑 양파.(아. 마늘이랑 양파.)

101008 #2 브로콜리. 콜라비 뭐 전부 다 이제 들어가.(양파. 브로콜리. 콜라비 뭐 전부 다 이제 들어가.)

101009 @ 그럼 어르신 고산 자랑거리 하나 잊이믄 좀, 고산 자랑을 해주시면 안 돼카마씨? 우리 고향 고산은 이걸로 좋다.(그럼 어르신 ‘고산’ 자랑거리 하나 있으면 좀, ‘고산’ 자랑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고향 고산은 이걸로 좋다.)

101009 #2 글썄, 뭐. 자랑이란 것은 어 다 이제 자기 지역이 좋다.(글썄, 뭐. 자랑이란 것은 어 다 이제 자기 지역이 좋다.)

101009 @ 네.(네.)

101009 #2 자기 지역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고산은 특히 자랑거리라든 농사 짓기가 좋다. 농사를 대농으로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면이 좋고. 이제 앞으로 이제 비행장이 나와 버리면 이제 끝이여.(자기 지역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고산’은 특히 자랑거리라든 농사짓기가 좋다. 농사를 대농으로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면이 좋고. 이제 앞으로 이제 비행장이 나와 버리면 이제 끝이여.)

101009 @ 비행장마씨?(비행장요?)

101009 #2 이번에 결정되면, 거, 요번에 방송에 나왔어. 이 시, 신공항처럼. 가면 신공항지로써 저 어디까지.(이번에 결정되면, 거, 요번에 방송에 나왔어. 이 시, 신공항처럼. 그러면 신공항지로써 저 어디까지.)

2. 제보자 일생

102001 @ 어르신 그럼, 태어나고 자란 얘기 잠깐만 해줄 수 있어마씨?(어르신 그럼, 태어나고 자란 얘기 잠깐만 해줄 수 있어요?)

102001 #1 태어나서 자란 거?(태어나서 자란 거?)

102001 @ 예. 자란 이야기.(예. 자란 이야기.)

102001 #1 자란 얘기야 무신 머 군에 갔다 와근엥 농사 지은 거밖에 엇어. 군에 가기 전에야.(자란 얘기야 무슨 뭐 군에 갔다 와서 농사 지은 거밖에 없어. 군에 가기 전에야.)

102001 @ 어르신 그럼 몇 년도에 여기서 태어나셨마씨?(어르신 그럼 몇 년도에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102001 #1 몇 년도 산지 이제 삼십 삼년 생이니깐.(몇 년도 산지 이제 삼십 삼년 생이니까.)

102001 @ 아, 삼십 삼년 생마씨. 그럼 삼십 삼년에 여기서 태어난 여기 살당, 군대는 어디 다녀왔마씨?(아, 삼십 삼년 생이요. 그럼 삼십 삼년에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 살다가, 군대는 어디 다녀오셨나요?)

102001 #1 군대는 나는 육지 안 나갔어.(군대는 나는 육지 안 나갔어.)

102001 @ 아, 제주도에 잇었마씨?(아, 제주도에 있었어요?)

102001 #1 모슬포 잇었어.(‘모슬포’ 있었어.)

102001 @ 아, 모슬포?(아, ‘모슬포’.)

102002 @ 그럼, 어르신 부모님은 무슨 일 하셨마씨?(그럼, 어르신 부모님은 무슨 일 하셨어요?)

102002 #1 우리 아버지는 나 얼굴도 몰라. 돌아가셨으니까.(우리 아버지는 나 얼굴도 몰라. 돌아가셨으니까.)

102002 @ 어머니는?(어머니는?)

102002 #1 어머니는 개가행 가불고.(어머니는 개가해서 가버리고.)

102002 @ 삼촌 어렸을 때 어머니랑 둘이 사셨마씨?(삼촌 어렸을 때 어머니랑 둘이 사셨나요?)

102002 #1 아니. 나는 본래 학교 공부도 못한 사람이야.(아니. 나는 본래 학교 공부도 못한 사람이야.)

102002 @ 무사마씨?(왜요?)

102002 #1 왜 그러냐면은 이 뭐냐면 남의 집 살림허러 다니지 않으나 저 뭐가 이. 소 벵이고 애기 들고. 그 때는 부자라야 밥 보리밥도 먹었거든.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밥도 못 먹어서. 등개영 혼 거 알아지나? 등개. 등개영 혼 거 보리 그 가루. 가루 그걸로 범벅 같은 것도 해 먹고 죽도 쭈어 먹고 그랬거든. 보리 해가지고 개역도 해가지고. 개역이라는 거 알지? 개역 해가지고 그것으로 주식으로 삼았주게. 그 때는 할머니랑 잇었주게.(왜 그러냐면 이 뭐냐면 남의 집 살림허러 다니지 않으나 저 뭐가. 소 먹이고 애기 데리고. 그 때는 부자라야 밥 보리밥도 먹었거든.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밥도 못 먹었어. 등겨라고 한 거 알아? 등겨. 등겨라고 한 거 보리 그 가루. 가루 그걸로 범벅 같은 것도 해 먹고 죽도 쭈어 먹고 그랬거든. 보리 해가지고 미숫가루도 해가지고. 미숫가루라는 거 알지? 미숫가루 해가지고 그것으로 주식으로 삼았지. 그 때는 할머니랑 있었지.)

102002 @ 그럼 할머니는 그 때 무슨 일 하셨마씨?(그럼 할머니는 그 때 무슨 일 하셨어요?)

102002 #1 할머니 일 허는 거야 밭 매고. 밭에 검질매고 또 그자 나무일도 허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주게.(할머니 일 하는 거야 밭 매고. 밭에 김매고 또 그자 나무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지.)

102003 @ 어머니 고향도 고산이광?(어머니 고향도 ‘고산’입니까?)
 102003 #1 아니, 우리 어머니 고향은 신도²⁹⁾이다.(아니, 우리 어머니 고향은 ‘신도’인데.)
 102003 @ 아 신도? 바로 옆에마씨?(아 ‘신도’? 바로 옆에요?)
 102003 #1 요 율 부락.(요 옆 부락.)
 102004 @ 어르신 어렸을 때 놀이헌 거 기억나는 거 잇어마씨?(어르신 어렸을 때 놀이헌 거 기억나는 거 잇어요?)
 102004 #1 놀이허는 거?(놀이하는 거?)
 102004 @ 예, 뭐 요즘 아이들은 오락하잖아예?(예, 뭐 요즘 아이들은 오락하잖아요?)
 102004 #1 그 때는 살기가 힘드니깐.(그 때는 살기가 힘드니까.)
 102004 @ 예.(예.)
 102004 #1 어려서 놀만한 게 없었어.(어려서 놀만한 게 없었어.)
 102004 @ 그럼 어렸을 때는 뭐하시면서 시간 보내셨마씨?(그럼 어렸을 때는 뭐하시면서 시간 보내셨나요?)
 102004 #1 밥 먹는 것도 바쁘니까.(밥 먹는 것도 바쁘니까.)
 102004 @ 예.(예.)
 102004 #1 어려서도 밥 먹영도 바쁘고 들에 나가서 일헐라면 노래 부르고 하 놀이 뭐니 그런 게 었어.(어려서도 밥 먹고도 바쁘고 들에 나가서 일하려면 노래 부르고 하 놀이 뭐니 그런 게 었어.)
 102004 @ 그럼, 점심 먹고 저녁 먹기 전까지 시간 있잖아예?(그럼, 점심 먹고 저녁 먹기 전까지 시간 있잖아요?)
 102004 #1 어.(어.)
 102004 @ 근데 그럼 좀 나이 먹었을 때는 그 밭에 강 일했을 건디 그것보다 어렸을 때는 뭐하셨는지 기억 안나마씨?(근데 그럼 좀 나이 먹었을 때는 그 밭에 가서 일했을 건디 그것보다 어렸을 때는 뭐하셨는지 기억 안나요?)
 102004 #1 어렸을 때야 노는 거야 뭐 뻘히 아는 거 뭐 테역밭에 가서 어린애들 그냥 뭔가 공 공 만들어가지고 찍으로 공 만들어가지고 놀고 뭐.(어렸을 때야 노는 거야 뭐 뻘히 아는 거 뭐 잔디밭에 가서 어린애들 그냥 뭔가 공 공 만들어가지고 짚으로 공 만들어가지고 놀고 뭐.)
 102005 @ 그럼 어르신 그 일제 강점기는 기억나겠다예?(그럼 어르신 그 일제 강점기는 기억나겠군요?)
 102005 #1 응?(응?)
 102005 @ 일제 강점기, 일제 시대마씨.(일제 강점기, 일제 시대요.)
 102005 #1 으 일제 시대.(응 일제 시대.)
 102005 @ 그럼 그 때 공출 같은 것도 있었잖아예?(그럼 그 때 공출 같은 것도

29) ‘신도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의 행정리 가운데 하나이다.

있었잖아요?)

102005 #1 그렇지 공출 잊었지.(그렇지 공출 잊었지.)

102005 @ 그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마씨?(그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102005 #1 그 때 공출은 그. 공출허는 거야 뭐 보리도 공출해나고 득새기 다 공출해나주게 왜정시대니깐.(그 때 공출은 그. 공출하는 거야 뭐 보리도 공출했었고 달걀 다 공출했었지 왜정시대니깐.)

102005 @ 예.(예.)

102005 #1 또 제일 뭐 헌 건 낫쇠, 낫 사발.(또 제일 뭐 한 건 낫쇠, 낫 사발.)

102005 @ 예.(예.)

102005 #1 그런 거 왜놈 새끼들 그냥 잇는 거.(그런 거 왜놈 새끼들 그냥 잇는 거.)

102005 @ 누가 공출헨마씨?(누가 공출했어요?)

102005 #1 동네에서. 그 면에서 나와 가지고.(동네에서. 그 면에서 나와 가지고.)

102005 @ 예.(예.)

102005 #1 그 다 해 갖주.(그 다 해 갔지.)

102005 @ 공출하는 거 보셨마씨?(공출하는 거 보셨어요?)

102005 #1 보리 공출?(보리 공출?)

102005 @ 아니, 어르신이 봤마씨?(아니, 어르신이 보셨어요?)

102005 #1 어.(어.)

102005 @ 공출해 가는 거?(공출해 가는 거?)

102005 #1 경 헛주게.(그렇게 했지.)

102005 @ 아.(아.)

102005 #1 낫쇠영 허는 건 집에서 그 전에 제사 때나 낫그릇에 담아나신디 경 허니깐 낫그릇이 나타나지 못했어. 잇는 건 다 감춰버렸지.(낫쇠라고 하는 건 집에서 전에 제사 때나 낫그릇에 담아났는데 그렇게 하니깐 낫그릇이 나타나지 못했어. 잇는 건 다 감춰버렸지.)

102006 @ 그럼 사삼 사건도 기억 좀 나서마씨?(그럼 사삼 사건도 기억 좀 나서 나요?)

102006 #1 사삼 사건은 폭도 사건.(사삼 사건은 폭도 사건.)

102006 @ 예, 그러니까 어르신 뭐 기억나는 거 있어마씨?(예, 그러니까 어르신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102006 #1 그 때야 뭐 기억나는 거야 여기서 그냥 고산에는 벨로 뭐 큰 것은 잊었지마는 폭도도 들어나주게. 고산도.(그 때야 뭐 기억나는 거야 여기서 그냥 고산에는 벨로 뭐 큰 것은 잊었지마는 폭도도 들었지. '고산'도.)

102006 @ 기억나는 장면이나 그런 거?(기억나는 장면이나 그런 거?)

102006 #1 기억나는 거야 뭐 쌀 툫아가고 사람 죽여불고 그거밖에.(기억나는 거

야 뭐 쌀 가져가고 사람들 죽여버리고 그거밖에.)

102006 @ 몇 살 때 그 일이 잇었마씨?(몇 살 때 그 일이 있었어요?)

102006 #1 그게 우리가 한 그건 나이가 뭐 열 서너 살 때 꺼라.(그게 우리가 한 그건 나이가 뭐 열 서너 살 때 꺼라.)

102006 @ 어르신 피해는 별로 없었지예?(어르신 피해는 별로 없었지요?)

102006 #1 으?(어?)

102006 @ 피해는 별로 안 입으셨지예?(피해는 별로 안 입으셨지요?)

102006 #1 으 피해는, 우리 고산이 피해는 덜 봤주게.(어. 피해는, 우리 ‘고산’이 피해는 덜 봤지.)

102006 @ 사삼 사건 때 저기 동쪽은 많이 사람들 죽었잖아예? 그 때 그런 소리 들었을 때 여기는 걱정하거나 그런 거 잇었마씨?(사삼 사건 때 저기 동쪽은 많이 사람들 죽었잖아요? 그 때 그런 소리 들었을 때 여기는 걱정하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102006 #1 뭔가 왜 걱정사 안 허여. 저쪽들엔 이 폭도들이 많았주게. 폭도엔 헛주게. 폭도 알아져? 거 산에 살면서 우린 양민이고 거기는 폭도이고 우리 심어당 죽여불고. 또 뭔가 때리고 뭐 해놔주게. 경찰관이영 싸움도 흥고.(뭔가 왜 걱정이야 안 해. 저쪽들에는 이 폭도들이 많았지. 폭도라고 했지. 폭도 알아져? 거 산에 살면서 우리 양민이고 거기는 폭도이고 우리 데려다 죽여버리고. 또 뭔가 때리고 뭐 했었지. 경찰관과 싸움도 하고.)

102007 @ 그럼 어르신 그 결혼하실 때 중매결혼을 하션마씨? 연애결혼 하션마씨?(그럼 어르신 그 결혼하실 때 중매결혼을 하셨나요? 연애결혼을 하셨나요?)

102007 #1 중매.(중매.)

102007 @ 몇 년도에 결혼 하션마씨?(몇 년도에 결혼 하셨어요?)

102007 #1 몰라 그 나가 스물여덟 살에 결혼했으니까 몇 년도인지.(몰라 그 나가 스물여덟 살에 결혼했으니까 몇 년도인지.)

102007 @ 중매 그럼 누구 통해 중매 하션마씨?(중매 그럼 누구 통하셔서 중매 하셨어요?)

102007 #1 동네 사람.(동네 사람.)

102007 @ 아 동네 사람, 할머니도 고산사람마씨?(아 동네 사람, 할머니도 ‘고산’ 사람인가요?)

102007 #1 어?(어?)

102007 @ 할머니도 고산사람마씨?(할머니도 ‘고산’사람이에요?)

102007 #1 어느 할망?(어느 할머니?)

102007 @ 할아버지 결혼하셨을 때.(할아버지 결혼하셨을 때.)

102007 #1 으. 여기 동네, 이 동네.(어. 여기 동네, 이 동네.)

102008 @ 결혼 하실 때 사주도 보션마씨?(결혼 하실 때 사주도 보셨어요?)

102008 #1 응?(응?)

102008 @ 사주.(사주.)

102008 #1 사주?(사주?)

102008 @ 예.(예.)

102008 #1 사주도 봐주게. 맞는가 안 맞는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 나이로 해가지고. 별 의미 잇는가 엇는가 보고.(사주도 봤지. 맞는가 안 맞는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 나이로 해가지고. 별 의미 잇는가 없는가 보고.)

102009 @ 그럼 어르신 결혼하셨을 때 혼수품이나 예물 같은 거 하신마씨?(그럼 어르신 결혼하셨을 때 혼수품이나 예물 같은 거 하셨어요?)

102009 #1 그 때 예물 같은 거 엇언.(그 때 예물 같은 거 없었어.)

102009 @ 예.(예.)

102009 #1 신랑이나 신부나 예물 같은 거 사다주는 건 엇엇주게. 원 어렵게 살았으니깐.(신랑이나 신부나 예물 같은 거 사다주는 건 없었지. 원 어렵게 살았으니 까.)

102009 @ 삼촌 저번에 결혼하셨을 때.(삼촌 저번에 결혼하셨을 때.)

102009 #1 응.(응.)

102009 @ 그 혼수품이나 이런 거 옛날에는 예물 같은 거 엇엇잖아예?(그 혼수품이나 이런 거 옛날에는 예물 같은 거 없었잖아요?)

102009 #1 어.(어.)

102009 @ 그럼 결혼했을 때 그냥 아무것도 주신 거 엇언마씨? 아니면 받은 거나?(그럼 결혼했을 때 그냥 아무것도 주신 거 없었어요? 아니면 받은 거나?)

102009 #1 지금?(지금?)

102009 @ 아니, 예전에.(아니, 예전에.)

102009 #1 예전에?(예전에?)

102009 @ 예. 삼촌 결혼했을 때.(예. 삼촌 결혼했을 때.)

102009 #1 뭔가 옛날에는 저 막펜지³⁰⁾라고 해가지고.(뭔가 옛날에는 저 ‘막펜지’라고 해가지고.)

102009 @ 뭐마씨?(뭐요?)

102009 #1 막펜지.(‘막펜지’.)

102009 @ 아, 막펜지.(아, ‘막펜지’.)

102009 #1 막펜지엔 해가지고 거기서 여기 여자가 있으면.(‘막펜지’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여기 여자가 있으면.)

102009 @ 예.(예.)

102009 #1 그 날짜도 알리곡.(그 날짜도 알리고.)

102009 @ 예.(예.)

102009 #1 그런 거밖고 엇언.(그런 거밖에 없었어.)

30) ‘막펜지’는 혼인하기 전에 신랑 쪽에서 정식으로 신부의 집을 찾아 갈 때에 가지고 가는 의례적인 문서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02009 @ 음. 따로 받거나 주거나 그런 건 엇어마씨?(음. 따로 받거나 주거나 그런 건 없어요?)

102009 #1 그때는 그런 건 엇언.(그때는 그런 건 없었어.)

102009 @ 그 다음에 그래도 삼촌 어, 결혼한 다음에 자식들 결혼할 때는 뭐 한 거 엇어마씨?(그 다음에 그래도 삼촌 어, 결혼한 다음에 자식들 결혼할 때는 뭐 한 거 없어요?)

102009 #1 자식들 결혼한다고 해봤자 갔다 왔다 양 사돈집에 돈으로 보내고 주고 받고.(자식들 결혼한다고 해봤자 갔다 왔다 양 사돈집에 돈으로 보내고 주고 받고.)

102009 @ 아, 그러면 예전에는 막펜지만 받고 따로 돈 받는 건 엇언마씨?(아, 그러면 예전에는 ‘막펜지’만 받고 따로 돈 받는 건 없었어요?)

102009 #1 어. 따로 돈 받는 건 엇언.(어. 따로 돈 받는 건 없었어.)

102009 @ 그럼 할머니 오셨을 때 할아버지가. 할머니 몸만 왓수광? 아니면 뭐 따로 가져온 건 뭐 엇언마씨?(그럼 할머니 오셨을 때 할아버지가. 할머니 몸만 왓습니까? 아니면 뭐 따로 가져온 건 뭐 없었어요?)

102009 #1 다른 거 가져온 거 해봤자 시집오면서 이불 께짜. 옛날에는 께엔 헌 거 좀 큰 거엿주께.(다른 거 가져온 거 해봤자 시집오면서 이불 께짜. 옛날에는 께라고 한 거 좀 큰 거였지.)

102009 @ 예.(예.)

102009 #1 그거하고 옛날은 못 살아놓니까 이불 두 채씩 그거밖기 안 가져오주께.(그거하고 옛날은 못 살았으니까 이불 두 채씩 그거밖에 안 가져오지.)

102009 @ 아.(아.)

102009 #1 어디든지 누구든지 못 살아놓니까.(어디든지 누구든지 못 살았으니까.)

102009 @ 아, 기구나예. 그럼 삼촌 결혼했을 때는 반지 같은 거 안 헨마씨?(아, 그렇군요. 그럼 삼촌 결혼했을 때는 반지 같은 거 안 했어요?)

102009 #1 그런 건 없었어.(그런 건 없었어.)

102009 @ 결혼반지도 엇언마씨?(결혼반지도 없었어요?)

102009 #1 그 옛날에는 반지 같은 거. 반지 주고 반지 받고 그런 뭇이 엇었주께.(그 옛날에는 반지 같은 거. 반지 주고 반지 받고 그런 뭇이 없었지.)

102009 @ 아. 다들 어렵게 살았으니까.(아. 다들 어렵게 살았으니까.)

102009 #1 다들 곤란하게 살아놓니까. 보리밥을 못 먹어가지곡 등게 ㄹ루 먹으멍 살 떼데 뭇.(다들 곤란하게 살았으니까. 보리밥을 못 먹어가지고 등겨가루 먹으면서 살 떼인데 뭇.)

102010 @ 그럼 그 결혼식은 어디서 하션마씨?(그럼 그 결혼식은 어디서 하셨어요?)

102010 #1 결혼식? 집이서.(결혼식? 집에서.)

102010 @ 여기마씨?(여기요?)

102010 #1 으. 여기서. 여기 이거 초집이었주.(오. 여기서. 여기 이거 초가집이었지.)

102010 @ 예전에 초집이언마씨?(예전에 초가집이었어요?)

102010 #1 어?(어?)

102010 @ 여기가 예전에 초집이언마씨?(여기가 예전에 초가집이었어요?)

102010 #1 으. 예전에 초집이었주. 여기 자리가.(오. 예전에 초가집이었지. 여기 자리가.)

102010 @ 그럼 사진도 찍으셨마씨?(그럼 사진도 찍으셨어요?)

102010 #1 예전에 사진 찍은 거 잇기야 잇지만.(예전에 사진 찍은 거 잇기야 잇지만.)

102010 @ 많이 찍었마씨?(많이 찍었어요?)

102010 #1 많이 안 찍었어. 사진 찍젠 하면 돈 든다고 무슨 찍어졌어. 무슨 한 몇 판.(많이 안 찍었어. 사진 찍으려 하면 돈 든다고 무슨 찍어졌어. 무슨 한 몇 판.)

102011 @ 그럼 신혼살림, 결혼행 신혼살림은 어디서 하셨마씨?(그럼 신혼살림, 결혼해서 신혼살림은 어디서 하셨나요?)

102011 #1 여기서 했주.(여기서 했지.)

102011 @ 아, 이 집에서 계속?(아, 이 집에서 계속?)

102011 #1 어, 이 집에서.(어, 이 집에서.)

102011 @ 그러면 신혼 결혼하신 다음에 신혼살림은 계속 고산에서?(그러면 신혼 결혼하신 다음에 신혼살림은 계속 '고산'에서?)

102011 #2 그때 신혼살림이 살림이여? 그냥 집 엮으면 명석으로 칸 막아서 자기도 하고 그래도 신혼이 좋긴 좋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그때 신혼살림이 살림이야? 그냥 집 없으면 명석으로 칸 막아서 자기도 하고 그래도 신혼이 좋긴 좋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102011 @ 예.(예.)

102011 #1 우리가 식생활을 해결 한 것이 약 칠십 이삼 년도부터 해결됐어. 그래서 밥 세끼를 먹은 거라.(우리가 식생활을 해결 한 것이 약 칠십 이삼 년도부터 해결됐어. 그래서 밥 세끼를 먹은 거라.)

102011 @ 예.(예.)

102011 #1 계난 우리가 밥 세끼를 못 먹어나니깐 이 사람이 인식이 배고파 난 사람은 돈 벌 생각도 안 나. 어떤 경우는 그냥 밥이나 배부르게 먹고 지금은 밥을 먹 어떻게 허민 돈을 벌고 어떻게 허민 돈을 벌어서 아이들 좋은 옷 입히고 공부시키고 나도 편안히 헐 건가. 이게 요즘 사람들 생각이고.(그러니까 우리가 밥 세끼를 못 먹으니깐 이 사람이 인식이 배고파 난 사람은 돈 벌 생각도 안 나. 어떤 경우는 그냥 밥이나 배부르게 먹고 지금은 밥을 먹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아이들 좋은 옷 입히고 공부시키고 나도 편안히 할 건가. 이게 요즘 사람들 생각이고.)

102011 @ 예.(예.)

102011 #1 우리, 우리가 그때 생각은 어떻 허민 어떻 허민 아이들 배 안 굶경 사는 거주게.(우리, 우리가 그때 생각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 배 안 굶겨서 사는 거지.)

102012 @ 그럼 아이들은 지금 몇 명 있어마씨?(그럼 아이들은 지금 몇 명 있어요?)

102012 #1 너이.(넷.)

102012 @ 너이.(넷.)

102012 #1 어.(어.)

102012 @ 그럼 손주들은?(그럼 손주들은?)

102012 #1 손지는 일곱인가.(손주는 일곱인가.)

102012 @ 일곱?(일곱?)

102012 #1 어.(어.)

102012 @ 많다예? 그럼 자식들은 몇 남 몇 녀마씨?(많군요? 그럼 자식들은 몇 남 몇 녀예요?)

102012 #1 사남매.(사남매.)

102012 @ 사남매?(사남매?)

102012 #1 어.(어.)

102012 @ 아 그럼 아들은?(아 그럼 아들은?)

102012 #1 아들 둘, 딸 둘.(아들 둘, 딸 둘.)

102012 @ 아 그럼 다 결혼하셤마씨?(아 그럼 다 결혼하셨나요?)

102012 #1 다 결혼헤. 손지들이 일곱 여덟 명인디.(다 결혼했어. 손자들이 일곱 여덟 명인디.)

102012 @ 그럼 아들들이영 딸들은 어디 살아마씨?(그럼 아들들과 딸들은 어디 사나요?)

102012 #1 부산.(부산.)

102012 @ 넷 다마씨?(넷 다요?)

102012 #1 응?(응?)

102012 @ 넷 다 부산에 살아마씨?(넷 다 부산에 살아요?)

102012 #1 둘 부산 살고 하나는 두 개는 충청도 강 잇고.(둘 부산 살고 하나는 두 개는 충청도 가서 잇고.)

102012 @ 어떻 하당 부산이랑 충청도에 잇우광?(어떻게 하다가 부산이랑 충청도에 잇습니까?)

102012 #1 부산 둘 잇주게.(부산 둘 잇지.)

102012 @ 계난 어떻 하당 부산에 잇어마씨?(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부산에 있

어요?)

102012 #1 거기 부산서, 부산서 학교 졸업했주게.(거기 부산에서, 부산에서 학교 졸업했지.)

102012 @ 아, 대학교마씨?(아, 대학교요?)

102012 #1 으 대학교를 부산서. 부산서 대학교 해근영, 거기서 큰 딸이 초담에 발 붙여가지고 거기 살아가니깐 동생들 다 글로 가가지고 고등학교는 여기서 마쳐가지고 글로 가서 대학교.(어 대학교를 부산에서. 부산에서 대학교 해서, 거기서 큰 딸이 처음에 발 붙여가지고 거기 살아가니깐 동생들 다 거기로 가가지고 고등학교는 여기서 마쳐가지고 그리로 가서 대학교.)

102012 @ 예.(예.)

102012 #1 뭐 서울 건국대 큰 아들 건국대 나오고 또 딸은 자기는 어느 학교선 지 대학교 나오고. 또 작은 아들은 금오공대인가 거기 나오고. 작은 딸은 간호대 텅기당 수술하는 거 뽕 무섭댄 행 떨어져불고.(뭐 서울 건국대 큰 아들 건국대 나오고 또 딸은 자기는 어느 학교인지 대학교 나오고. 또 작은 아들은 금오공대인가 거기 나오고. 작은 딸은 간호대 다니다가 수술하는 거 보고 무섭다고 해서 떨어져버리고.)

102014 @ 그럼 첫째 딸은 어떻게 시집가선마씨?(그럼 첫째 딸은 어떻게 시집갔어요?)

102014 #1 이제 사는 거야. 첫째 딸은 부산서 살주게. 알양 시집갔어. 나머지 결혼도 부산에서 했어. 할 때마다 부산에 올라갔주게.(이제 사는 거야. 첫째 딸은 부산에서 살지. 알아서 시집갔어. 나머지 결혼도 부산에서 했어. 할 때마다 부산에 올라갔지.)

102015 @ 며느리와 사위들은 다 뭐하면서 사시맨마씨?(며느리와 사위들은 다 뭐하면서 사시나요?)

102015 #1 어?(어?)

102015 @ 며느리들이랑 사위들은 얘기해 주실 수 있어마씨?(며느리들이랑 사위들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102015 #1 몇 년도?(몇 년도?)

102015 @ 며느리 며느리마씨.(며느리, 며느리요.)

102015 #1 어, 며느리.(어, 며느리.)

102015 @ 그 며느리 사위들은 다 뭐하시맨마씨?(그 며느리 사위들은 다 뭐하시나요?)

102015 #1 며느리 사우들 저 부산 저 며느리는 그냥 직장에 있고.(며느리 사우들 저 부산 저 며느리는 그냥 직장에 있고.)

102015 @ 예.(예.)

102015 #1 또 큰아들은 합동회사엔 한 디 지점장으로 있고.(또 큰아들은 합동회사라고 한 데 지점장으로 있고.)

102015 @ 그럼 손주랑 손녀들은 이제 몇 살이광?(그럼 손주랑 손녀들은 이제 몇 살입니까?)

102015 #1 지금 대학교 일학년 들어갈 있고 금년도 대학교 일학년 들어갈 거고.(지금 대학교 일학년 들어가 있고 금년도 대학교 일학년 들어갈 거고.)

102015 @ 아. 대학교 일학년마씨?(아. 대학교 일학년이요?)

102015 #1 어.(어.)

102015 @ 그럼 몇 명? 일곱 명?(그럼 몇 명? 일곱 명?)

102015 #1 어?(어?)

102015 @ 일곱 명마씨?(일곱 명이요?)

102015 #1 일곱 명.(일곱 명.)

102015 @ 그럼 손자가 몇 명이고 손녀는 몇 명마씨?(그럼 손자가 몇 명이고 손녀는 몇 명이에요?)

102015 #1 손자가 일곱 명.(손자가 일곱 명.)

102015 @ 아 손녀는 없고마씨?(아 손녀는 없어요?)

102015 #1 어?(어?)

102015 @ 다 남자손주마씨?(다 남자손주예요?)

102015 #1 어게.(어.)

102016 @ 삼촌 살면서 힘들었던 일 있었으면 말해 줘서.(삼촌 살면서 힘들었던 일 있었으면 말해 주십시오.)

102016 #1 힘든 거야게 제대로 밥 같은 거 얻어먹지 못 하고. 힘든 거야 놈의 눈치 보면서 밥 얻어먹는 게 그게 힘들었지. 일하는 거는 벨로 그 때 뭐. 힘이 부족 하지 않았으니깐.(힘든 거야 제대로 밥 같은 거 얻어먹지 못 하고. 힘든 거야 놈의 눈치 보면서 밥 얻어먹는 게 그게 힘들었지. 일하는 거는 벨로 그 때 뭐. 힘이 부족 하지 않았으니깐.)

102016 @ 그럼 언제 그렇게 눈치보고 밥 먹는 거 힘들었마씨?(그럼 언제 그렇게 눈치보고 밥 먹는 거 힘들었어요?)

102016 #1 눈치는 하여튼 뭔가 여덟 살 일고여덟 살 돼어가지고 애기 보러 땡기거나 소 맥이고 땡기거나 해 가면은 열여덟까지는 남의 눈치 봐야했주게.(눈치는 하여튼 뭔가 여덟 살 일고여덟 살 돼어가지고 애기 보러 다니거나 소 맥이고 다니거나 해 가면 열여덟까지는 남의 눈치 봐야했지.)

102016 @ 그럼 그 때 애기 보러 다니셨마씨?(그럼 그 때 애기 보러 다니셨어요?)

102016 #1 애기 보러 늑형 재와주고. 업어주고 울어 가면 달래주고. 그 때 여덟 때.(애기 보러 늑혀서 재워주고. 업어주고 울어 가면 달래주고. 그 때 여덟 살 때.)

102016 @ 삼촌 어렸을 때는 막 힘들었잖아예? 무슨 일 무슨 일 했었는지 하나씩 얘기해 보게마씨. 밧일 말앙 한 일 좀 골아줍서.(삼촌 어렸을 때는 많이 힘들었잖아요? 무슨 일 무슨 일 했었는지 하나씩 얘기해 보지요. 밧일 말고 한 일 좀 말

해주십시오.)

102016 #1 밭일 말양 벨로 한 일 엇어 여기서. 노동일이니까. 노동 역할이니까.
(밭일 말고 벨로 한 일 엇어 여기서. 노동일이니까. 노동 역할이니까.)

102016 @ 예.(예.)

102016 #1 우리 클 때는 뭐. 흙 날라주는 거. 그거밧킨 허는 거 엇어.(우리 클
때는 뭐. 흙 날라주는 거. 그거밖에는 하는 거 없어.)

102016 @ 그럼 몇 살 때부터 보통 일하십니까?(그럼 몇 살 때부터 보통 일하셨
어요?)

102016 #1 그거는 가늠 못 해야.(그거는 가늠 못 해.)

102016 @ 가늠 못 해마씨?(가늠 못 해요?)

102016 #1 뭔가 여덟 살부터 못 사는 사람은 일고여덟 나가면은 나강, 소도 맥
이러 땡기고, 밥 얻어먹을라면은. 게 커 가지고 그, 크면은 보리 곶은 거, 조 곶은
거, 감저 곶은 거 그런 거 심귀서 이제 입이 편해서 먹고 자랏주게.(뭔가 여덟 살부
터 못 사는 사람은 일고여덟 나가면 나가서, 소도 먹이러 다니고, 밥 얻어먹으려면.
커 가지고 그, 크면 보리 곶은 거, 조 곶은 거, 고구마 곶은 거 그런 거 심어서 이
제 입이 편해서 먹고 자랏지.)

102016 @ 아, 경 헛구나예. 그럼 그 어렸을 때 헛던 일 중에 제일 힘든 건 뭐였
주마씨?(아, 그렇게 헛군요. 그러 그 어렸을 때 헛던 일 중에 제일 힘든 건 뭐였지
요?)

102016 #1 제일 힘든 게?(제일 힘든 게?)

102016 @ 예.(예.)

102016 #1 어릴 때 힘든 거는 벨 차이가 엇어.(어릴 때 힘든 거는 벨 차이가 없
어.)

102016 @ 벨 차이가 엇어.(벨 차이가 없어.)

102016 #1 응. 힘든 거 허는 거는. 돈, 돈 번다 허면은 고구마 빼떼기나 하영 들
어졌다가 그거 주워 담는 게 그게 좀 힘들지.(응. 힘든 거 하는 거는. 돈, 돈 번다
하면 고구마 빼떼기나 많이 들어졌다가 그거 주워서 담는 게 그게 좀 힘들지.)

102016 @ 음. 고구마 빼떼기는 뭐주마씨?(음. 고구마 빼떼기는 뭐지요?)

102016 #1 응?(응?)

102016 @ 고구마 빼떼기?(고구마 빼떼기?)

102016 #1 응.(응.)

102016 @ 그건 뭐 얘기허는 거마씨?(그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102016 #1 그거 뭐 허는 건디?(그거 뭐 하는 건데?)

102016 @ 예. 그거 뭐 허는 거마씨? 고구마의 뭐 밑에 나오는 겨우짜? 아니면.
(예.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고구마의 뭐 밑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102016 #1 고구마 캐서.(고구마 캐서.)

102016 @ 예.(예.)

102016 #1 이만현 손기계가 잇주게.(이만한 손기계가 있지.)

102016 @ 뭐마씨?(뭐요?)

102016 #1 기계가.(기계가.)

102016 @ 예.(예.)

102016 #1 기계가 잇는디 거기 들이치멍 저, 빼떼기 만들야. 그래 가지고 칼 끝에 끊어 가지고, 그걸 물리거든?(기계가 잇는데 거기 들이쳐서 저, 빼떼기 만들어. 그래 가지고 칼 끝에 끊어 가지고, 그걸 말리거든?)

102016 @ 예.(예.)

102016 #1 밧에서 물리면은 그냥 간 밧에 뿌리면은 그걸 손으로 전부 줍주게. (밭에서 말리면 그냥 간 밧에 뿌리면 그걸 손으로 전부 줍지.)

102016 @ 아, 주워야 돼?(아, 주워야 돼?)

102016 #1 응.(응.)

102016 @ 거 줍는 게 힘들언마씨?(거 줍는 게 힘들었어요?)

102016 #1 그거 밤이라도 비움직허면 가서 주워야.(그거 밤이라도 비울 것 같으면 가서 주워야.)

102016 @ 아, 비움직허면 주워야 돼. 그면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차이가 나잖아 예.(아, 비울 것 같으면 주워야 돼. 그러면 어렸을 때와 지금과 차이가 나잖아요.)

102016 #1 그렇지.(그렇지.)

102016 @ 뭐가 좀 차이가 날까마씨?(뭐가 좀 차이가 날까요?)

102016 #1 모든 게 다 차이내주게. 뭐 농사짓는 것도. 그 농사 요새는 전부 기계화거든?(모든 게 다 차이내지. 뭐 농사짓는 것도. 그 농사 요새는 전부 기계화거든?)

102016 @ 예.(예.)

102016 #1 뭐 비루 곁은. 그전엔, 옛날은 비루도 손으로 뿌리고, 걸름도 손으로 뿌리고 헛지만은. 요즘은 기계가 다 뿌리거든. 걸름도 기계로, 비루도 기계로. 이제 뭐 심는 거까지 다 기계로 해 놓으니까 요즘 참 살기 좋주게, 농촌 살기 좋았어.(뭐 비료 같은. 그전엔, 옛날은 비료도 손으로 뿌리고, 거름도 손으로 뿌리고 했지만. 요즘은 기계가 다 뿌리거든. 거름도 기계로, 비료도 기계로. 이제 뭐 심는 거까지 다 기계로 해 놓으니까 요즘 참 살기 좋지, 농촌 살기 좋았어.)

102016 @ 음. 요즘 농촌 살기 좋아마씨. 그럼 삼촌 어렸을 때 사삼 사건 잇엇잖아예.(음. 요즘 농촌 살기 좋아요. 그럼 삼촌 어렸을 때 사삼 사건 잇엇잖아요.)

102016 #1 응?(응?)

102016 @ 삼촌 어렸을 때 사삼 사건 잇엇잖아예.(삼촌 어렸을 때 사삼 사건 잇엇잖아요.)

102016 #1 응.(응.)

102016 @ 저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그거 다시 좀, 그때 얘기 좀 골아 줍서.(저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그거 다시 좀, 그때 얘기 좀 말해 주십시오.)

102016 #1 사삼 사건이 하면, 우리가 저 뭐가, 나가 그때 열 몇 살이 사삼 사건 당해 놓으니까.(사삼 사건이 하면, 우리가 저 뭐가, 나가 그때 열 몇 살이 사삼 사건 당해 놓으니까.)

102016 @ 예.(예.)

102016 #1 그거 벨, 뭇이 었어. 폭두나 들어오는지 알고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걸.(그거 벨, 뭇이 없어. 폭도나 들어오는지 알고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걸.)

102016 @ 그럼 한장동에는 피해가 크거나 그러진 않안마씨?(그럼 ‘한장동’에는 피해가 크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102016 #1 그건 었어. 한장에는, 왜 한장에 질 가두는 게 토성.(그건 없어. ‘한장’에는, 왜 ‘한장’에 질 가두는 게 토성.)

102016 @ 토성.(토성.)

102016 #1 응. 토성 하나 쌓아 가지고 한 뭇 군데 지키는 것이 잇주게, 사삼 사건 당시에는.(응. 토성 하나 쌓아 가지고 한 뭇 군데 지키는 것이 있지, 사삼 사건 당시에는.)

102016 @ 토성이 어디 잇언마씨?(토성이 어디 있었어요?)

102016 #1 응?(응?)

102016 @ 토성이 뭐마씨? 토성?(토성이 뭐예요? 토성?)

102016 #1 토성이엔 현 게.(토성이라고 한 게.)

102016 @ 예.(예.)

102016 #1 거 흙 파 가지고.(거 흙 파 가지고.)

102016 @ 예.(예.)

102016 #1 호미³¹⁾허면 알지 모르지만은 저, 포크레인으로 파, 이제 현재는 포크레인으로 파 가지고, 이, 그때는 사람 손으로 팠지만은.(낫하면 알지 모르지만 저, 포크레인으로 파, 이제 현재는 포크레인으로 파 가지고, 이, 그때는 사람 손으로 팠지만.)

102016 @ 아, 손으로 판마씨?(아, 손으로 팠어요?)

102016 #1 어.(어.)

102016 @ 삽이나 그런 거 었엇수광?(삽이나 그런 거 없었습니까?)

102016 #1 삽으로, 삽으로도 팠는데. 요즘은 포크레인 이렇게 흙 파 가잖아.(삽으로, 삽으로도 팠는데. 요즘은 포크레인 이렇게 흙 파 가잖아.)

102016 @ 예.(예.)

102016 #1 그거같이 깊으게.(그거같이 깊게.)

102016 @ 예.(예.)

102016 #1 깊으게 힘껏 돌 담영 올려. 이렇게 올리민.(깊게 힘껏 돌 담아서 올려. 이렇게 올리면.)

102016 @ 예.(예.)

31) ‘호미’는 제주도에서 ‘낫’을 의미한다.

102016 #1 그게 막 올라가도 뭐 한 오 메다 사람 올라갈 수 없도록.(그게 막 올라가도 뭐 한 오 미터 사람 올라갈 수 없도록.)

102016 @ 예.(예.)

102016 #1 사람 올라가도 저 폭도가 닥치면 폭도가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끔 할 수 있게끔.(사람 올라가도 저 폭도가 닥치면 폭도가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끔 할 수 있게끔.)

102016 @ 예.(예.)

102016 #1 돌 가져가 이렇게 쌓주게. 뽕 하게.(돌 가져가서 이렇게 쌓지. 뽕 하게.)

102016 @ 음. 그게 토성.(음. 그게 토성.)

102016 #1 그게 토성.(그게 토성.)

102016 @ 이 근처에 그게 잇언마씨?(이 근처에 그게 있었어요?)

102016 #1 지금은 다 가, 다 부서졌주게.(지금은 다 가, 다 부서졌지.)

102016 @ 예. 지금은 엇인디 예전에 지엿을 때 그건 어디 잇언마씨?(예.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지엿을 때 그건 어디 있었어요?)

102016 #1 어?(어?)

102016 @ 토성 어디 잇엇마씨? 예전에.(토성 어디 있었어요? 예전에.)

102016 #1 예전에?(예전에.)

102016 @ 예.(예.)

102016 #1 예전에 그냥 동네 뽕 허게 잇어났주게.(예전에 그냥 동네 뽕 하게 있었지.)

102016 @ 아, 동네 이렇게 뽕?(아, 동네 이렇게 뽕?)

102016 #1 열로 바닷가로꺼지, 또 일로 또 바닷가로꺼지.(여기로 바닷가로까지, 또 이리로 또 바닷가까지.)

102016 @ 아아.(아아.)

102016 #1 영 뽕, 영 뽕주게. 영 뽕. 일로 홈을 파곡. 요기 파 가지고 죽창 들러 가지고 지키고. 또 여기 파 가지고 지키고. 게고 지키고.(이렇게 뽕, 이렇게 뽕었지. 이렇게 돼서. 이리로 홈을 파고. 요기 파 가지고 죽창 들어 가지고 지키고. 또 여기 파 가지고 지키고. 그러고 지키고.)

102016 @ 아, 지키고.(아, 지키고.)

102016 #1 게고 가운데다 또 한 삼, 가운데다 사 가지고 지키고. 그 양쪽에서 다 해근엿.(그러고 가운데다 또 한 삼, 가운데다 서 가지고 지키고. 그 양쪽에서 다 해서.)

102016 @ 삼촌도 그럼 그거 지킨 적 잇언마씨?(삼촌도 그럼 그거 지킨 적 있었어요?)

102016 #1 거 허주게. 해야주게.(거 하지. 해야지.)

102016 @ 아, 그른 얼마나 해야웁마씨? 오래 해야 웁마씨?(아, 그러면 얼마나

해야됐어요? 오래 해야 됐어요?)

102016 #1 어?(어?)

102016 @ 거기 서면 오래 있어야 똥마씨? 지키면?(거기 서면 오래 있어야 됐어요? 지키면?)

102016 #1 어?(어?)

102016 @ 한번 이렇게 지키러 들어가잖아예.(한번 이렇게 지키러 들어가잖아요.)

102016 #1 어.(어.)

102016 @ 그 토성에.(그 토성에.)

102016 #1 아이, 어. 지키는 거?(아이, 어. 지키는 거?)

102016 @ 예.(예.)

102016 #1 거 시간 교대.(거 시간 교대.)

102016 @ 아, 시간 교대?(아, 시간 교대?)

102016 #1 어.(어.)

102016 @ 한 두 시간.(한 두 시간.)

102016 #1 두 시간이면 두 시간, 한 시간이면 한 시간.(두 시간이면 두 시간, 한 시간이면 한 시간.)

102016 @ 예.(예.)

102016 #1 사람이 많으면은 한 시간도 사고, 사람이 적으면은 두 시간도 사고.(사람이 많으면 한 시간도 서고, 사람이 적으면 두 시간도 서고.)

102016 @ 그럼 삼촌 어렸을 때 한장동에는 여자분이 많안마씨? 남자분들이 많안마씨?(그럼 삼촌 어렸을 때 ‘한장’동에는 여자분이 많았어요? 남자분들이 많았어요?)

102016 #1 그저 동 돼지. 여자가 좀 많았주게.(그저 동 돼지. 여자가 좀 더 많았지.)

102016 @ 아, 왜냐면 제주도 삼다도라고 돌, 바람, 여자가 많다하잖아예.(아, 왜냐하면 제주도 삼다도라고 돌, 바람, 여자가 많다하잖아요.)

102016 #1 어.(어.)

102016 @ 근데 진짜 그때는 그랬는지. 요즘에는 여자가 더 많은데.(근데 진짜 그때는 그랬는지. 요즘에는 여자가 더 많은데.)

102016 #1 요즘도 남자가 많지 않아.(요즘도 남자가 많지 않아.)

102016 @ 아, 남자가 많지 않아마씨?(아, 남자가 많지 않아요?)

102016 #1 요즘이, 요즘이 여자가 더 많아. 여자가, 여자가 수명이 길거든.(요즘에, 요즘에 여자가 더 많아. 여자가, 여자가 수명이 길거든.)

102016 @ 아아.(아아.)

102016 #1 근데 그 한장동에 지금 젊은 사람 몇 있어.(근데 그 ‘한장동’에 지금 젊은 사람 몇 없어.)

102016 @ 젊은 사람 엇어마씨?(젊은 사람 없어요?)

102016 #1 어.(어.)

102016 @ 그럼 여기 경로당 잇잖아예. 경로당.(그럼 여기 경로당 잇잖아요. 경로당.)

102016 #1 어.(어.)

102016 @ 거기 가면 사람들 많이 와마씨?(거기 가면 사람들 많이 와요?)

102016 #1 그게이 부락이 커야 거기 많이 오주게.(그게 부락이 커야 거기 많이 오지.)

102016 @ 아아.(아아.)

102016 #1 겐디 많이 모이면 한 사십 명.(그런데 많이 모이면 한 사십 명.)

102016 @ 와, 많이 모인다예.(와, 많이 모이는군요.)

102016 #1 사십 명. 게민 이십 명. 이십오 명, 삼십 명.(사십 명. 그러면 이십 명. 이십오 명, 삼십 명.)

102016 @ 그럼 만나는 분들은 삼촌도 알겠다예.(그럼 만나는 분들은 삼촌도 알겠군요.)

102016 #1 어. 다 우리 연결돼니까. 우리보단 여자덜 나이 많은 사람 더 많주게.(어. 다 우리 연결되니까. 우리보다는 여자들 나이 많은 사람 더 많지.)

102016 @ 아.(아.)

102016 #1 나가 동네에서 지금 나이가 많다 하지만은 지금 아흔아홉 난 할망까지 다 잇주게.(내가 동네에서 지금 나이가 많다 하지만 지금 아흔아홉 난 할머니까지 다 있지.)

102016 @ 아, 아흔아홉 난 할망.(아, 아흔아홉 난 할머니.)

102016 #1 응.(응.)

102016 @ 그럼 남자분들 중엔 할아버지가 제일 연세가 많은가마씨?(그럼 남자분들 중에는 할아버지가 제일 연세가 많은가요?)

102016 #1 응. 지금 현재가.(응. 지금 현재가.)

102016 @ 삼촌 여기 팔에 잇는 문신은 뭐우파? 언제 한 거?(삼촌 여기 팔에 잇는 문신은 무엇입니까? 언제 한 거?)

102016 #1 무신 저, 이거, 저 친구들 모영 헛인디 그때 장난으로 술 꿩을 걸로 해가지고.(무신 저, 이거, 저 친구들 모여서 했는데 그때 장난으로 술 꿩을 걸로 해가지고.)

102016 @ 아아.(아아.)

102016 #1 니는 술 먹지 말고, 니는 당구 치지 말고이, 거 내, 머 해가지고 꿩어 불자 해가지고 그거, 약속 지키젠 헛 거지 그거.(나는 술 먹지 말고, 너는 당구 치지 말고, 거 내, 머 해가지고 꿩어버리자 해가지고 그거, 약속 지키려고 한 거지 그거.)

102016 @ 아, 언제 하신 거마씨?(아, 언제 하신 거예요?)

102016 #1 어?(어?)
102016 @ 몇 살 때?(몇 살 때?)
102016 #1 어?(어?)
102016 @ 몇 살 때 하신 거마씨? 젊었을 때 아니면.(몇 살 때 하신 거예요? 젊었을 때 아니면.)
102016 #1 젊었을 때라. 한 열대엿 살에, 열여덟 살 그때.(젊었을 때라. 한 열대여섯 살에, 열여덟 살 그때.)
102016 @ 아, 막 어렸을 때 했다예?(아, 막 어렸을 때 했군요?)
102016 #1 응.(응.)
102016 @ 어디서 하선마씨? 이거?(어디서 하셨어요? 이거?)
102016 #1 어?(어?)
102016 @ 어디서 하선마씨?(어디서 하셨어요?)
102016 #1 여기서 동네서.(여기서 동네서.)
102016 @ 동네에서.(동네에서.)
102016 #1 어. 동네에서 헛주게, 이거. 바늘로, 바늘로 먹, 글씨 썩 바늘로 먹 굴아근엿 적지 영 코콧콧콧 짜르멍.(어. 동네에서 헛지, 이거. 바늘로, 바늘로 먹, 글씨 써서 바늘로 먹 같아서 적지 이렇게 코콧콧콧 짜르면서.)
102016 @ 열다섯 때 그럼 술 먹고 담배 폼수광?(열다섯 때 그럼 술 먹고 담배 폼습니까?)
102016 #1 어?(어?)
102016 @ 열다섯.(열다섯.)
102016 #1 열다섯 살 장난들 허멍 경 허주게.(열다섯 살 장난들 하면서 그렇게 하지.)
102016 @ 하하. 그럼 같이 하신 분들은 여기 사선마씨? 아니면.(하하. 그럼 같이 하신 분들은 여기 사셨어요? 아니면.)
102016 #1 다 죽어부러터.(다 죽어버렸어.)
102016 @ 아.(아.)
102016 #1 나 혼자.(나 혼자.)
102016 @ 아.(아.)
102016 #1 남들은 다 죽어불고.(남들은 다 죽어버리고.)
102016 @ 그럼 할아버지 어렸을 때 친구분들은 많이 엇갓다예.(그럼 할아버지 어렸을 때 친구분들은 많이 없겠군요.)
102016 #1 응. 엇어. 엇어.(응. 없어. 없어.)
102016 @ 어렸을 때 여기 같이 살았던 여자분들도 엇어마씨?(어렸을 때 여기 같이 살았던 여자분들도 없어요?)
102016 #1 살았던 분?(살았던 분?)
102016 @ 예.(예.)

102016 #1 어땠?(어떻게?)

102016 @ 어렸을 때 봤던 사람들 지금도 있어마씨?(어렸을 때 봤던 사람들 지금도 있어요?)

102016 #1 예전에?(예전에?)

102016 @ 예.(예.)

102016 #1 어 있어.(어 있어.)

102016 @ 어렸을 때부터 봤던 분. 음.(어렸을 때부터 봤던 분. 음.)

102016 #1 나는 집, 본토백이주게.(나는 집, 본토박이지.)

102016 @ 아, 본토백이.(아, 본토박이.)

102016 #1 동네서 딴 데서 들어온 사람도 많지마는.(동네서 다른 데서 들어온 사람도 많지만.)

102016 @ 예.(예.)

102016 #1 본토백인 몇 명 안 돼여.(본토박이는 몇 명 안 돼.)

102016 @ 음, 그렇구나예.(음, 그렇군요.)

102001 @ 어르신 그러면 이번엔 고산 말고, 어르신에 대해서 물어볼 거거든요?
씨?(어르신 그러면 이번엔 ‘고산’ 말고, 어르신에 대해서 물어볼 거거든요?)

102001 #2 응.(응.)

102001 @ 그러니까 어르신 그냥 간단하게 태어나고 자란 얘기 간략하게만 해줄 수 잇어카마씨?(그러니까 어르신 그냥 간단하게 태어나고 자란 얘기 간략하게만 해줄 수 있으신가요?)

102001 #2 어떤 면에서 얘기를 해주카.(어떤 면에서 얘기를 해줄까.)

102001 @ 완전 간단하게라도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고. 여기서 뭐했다. 간단하게 일이 분만.(완전 간단하게라도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고. 여기서 뭐했다. 간단하게 일이 분만.)

102001 #2 여기서 태어난 거는 뭐 사사년생이니까.(여기서 태어난 거는 뭐 사사년생이니까.)

102001 @ 예.(예.)

102001 #2 해방 전에 여기서 태어났고, 내가 자랑이라면.(해방 전에 여기서 태어났고, 내가 자랑이라면.)

102001 예.(예.)

102001 #2 딴 데를 한 번도 안 갔고, 고산에만 이제까지 살았던 것 뿐이고. 그러당보난 손지도 일곱 개고.(딴 데를 한 번도 안 갔고, ‘고산’에만 이제까지 살았던 것 뿐이고. 그러다보니 손자도 일곱 개고.)

102004 @ 어르신 어렸을 때는 무슨 놀이 하명 자란마씨? 어렸을 때는.(어르신 어렸을 때는 무슨 놀이 하면서 자랐나요? 어렸을 때는.)

102004 #2 어렸을 때는 배고픈 것이 소원이기 때문에.(어렸을 때는 배고픈 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102004 @ 예.(예.)

102004 #2 늬의 고구마 파다가 구워먹고, 이제 보리 툇다가 구워먹고.(늬의 고구마 파다가 구워먹고, 이제 보리 파다가 구워먹고.)

102004 @ 아.(아.)

102004 #2 거 아주 좀 이제 말하면 아주 유치한 거지. 쟈디 배고픈 거 앞에서는 유치가 없어.(거 아주 좀 이제 말하면 아주 유치한 거지. 그런데 배고픈 거 앞에서는 유치가 없어.)

102006 @ 그럼 어르신 일제 시대는 잘 기억 안 나시겟다예?(그럼 어르신 일제 강점기는 잘 기억 안 나시지요?)

102006 #2 사삼 사건은 알아져.(사삼사건은 알지.)

102006 @ 아, 그럼 사삼 사건 얘기 좀 해주실 수 잇어마씨?(아, 그럼 사삼사건 얘기 좀 해주실 수 잇어요?)

102006 #2 어떤 거. 어떤 걸 이야기해?(어떤 거. 어떤 걸 이야기해?)

102006 @ 전반적으로 그 때는 어떻 살았고, 뭐가 어려웠고.(전반적으로 그 때는 어떻게 살았고, 뭐가 어려웠고.)

102006 #2 일종의 사삼 사건이란 것은.(일종의 사삼 사건이란 것은.)

102006 @ 예.

102006 #2 정치적인 싸움이라 난 이렇게 말하고 싶고.(정치적인 싸움이라 난 이렇게 말하고 싶고.)

102006 @ 예.(예.)

102006 #2 어, 그 당시 그 저 서북 청년 단장이란 늬이 잇엇거든.(어, 그 당시 그 저 서북 청년 단장이란 늬이 잇엇거든.)

102006 @ 예.(예.)

102006 #2 이북에서 쫓겨난 늬들이야. 이북에서 민주주의를 웨치다가 쫓겨난 사람을 예 우리 자유당 정권에서 이 사람들을 예 여기 반란을, 예, 사삼 사건, 군 폭동이 일어났다고 허니까 진압허는데 한 명씩을 차출. 배치 시켰어.(이북에서 쫓겨난 늬들이야. 이북에서 민주주의를 웨치다가 쫓겨난 사람을 예 우리 자유당 정권에서 이 사람들을 예 여기 반란을, 예, 사삼 사건, 군 폭동이 일어났다고 허니까 진압허는데 한 명씩을 차출. 배치 시켰어.)

102006 @ 예.(예.)

102006 #2 근데 이 사람들이 뭐야 사형권한을 준 거야.(근데 이 사람들이 뭐야 사형권한을 준 거야.)

102006 @ 예.(예.)

102006 #2 사형권한. 게 거, 우리 지역에는 그 사삼 사건에 많이 안 죽엇어. 웨 안 죽엇느냐. 여기 지역 출신이 그 당시 한림 청년 웨장이엇고, 단장.(사형권한. 그러니까 거, 우리 지역에는 그 사삼 사건에 많이 안 죽엇어. 왜 안 죽엇느냐. 여기

지역 출신이 그 당시 ‘한림’ 청년 회장이었고, 단장.)

102006 @ 예.(예.)

102006 #2 그리고 또 부단장도 잇었고.(그리고 또 부단장도 있었고.)

102006 @ 예.(예.)

102006 #2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 사람은 안 죽었는데, 그 사람들 또 판 데 사람들 많이 죽었어.(그래가지고 우리 지역 사람은 안 죽었는데, 그 사람들 또 판 데 사람들 많이 죽었어.)

102006 @ 예.(예.)

102006 #2 게 그 당시 사삼이 뭐고 공산당이 뭐라는 거 아는 사람이 없어. 그걸 알고 죽었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 좀 덜 억울하지. 모르고 죽었다 이거야. (그래서 그 당시 사삼이 뭐고 공산당이 뭐라는 거 아는 사람이 없어. 그걸 알고 죽었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 좀 덜 억울하지. 모르고 죽었다 이거야.)

102006 @ 예.(예.)

102006 #2 그러고 그 때 사람 죽이는 것을 아주 우습게 알았어. 게고 우리도 사람 죽인다는 어릴 때 기억하는 거야. 곱아서³²⁾, 숨어서 어떻게 죽이냐면, 뭐 빵빵 하면 그냥 자빠지는 거야. 그냥 피가 쏘. 튀어나오고, 에 그런 걸 많이 봤는데.(그리고 그 때 사람 죽이는 것을 아주 우습게 알았어. 그리고 우리도 사람 죽인다는 어릴 때 기억하는 거야. 숨어서, 숨어서 어떻게 죽이냐면, 뭐 빵빵 하면 그냥 자빠지는 거야. 그냥 피가 쏘. 튀어나오고, 에 그런 걸 많이 봤는데.)

102006 @ 예.(예.)

102006 #2 뭐 그런 사건은 다 두 번 다신 일어나선 안 돼고.(뭐 그런 사건은 다 두 번 다신 일어나서는 안 되고.)

102006 @ 예.(예.)

102006 #2 지금은 우리가 풍수학적으로 건의 세계, 건의 세계 그 전에 이천년도까지는 곤의 세계라 땅.(지금은 우리가 풍수학적으로 건의 세계, 건의 세계 그 전에 이천년도까지는 곤의 세계라 땅.)

102006 @ 땅.(땅.)

102006 #2 겐디 지금은 건의 세계라 하늘의 세계야. 건의 세계는 여자가 대권을 잡아야 돼. 게서 이천이 년도부터 법무부 장관 나왔고, 국무총리 나왔고, 이번에 대통령이 나왔다 말이야. 여자가.(그런데 지금은 건의 세계라 하늘의 세계야. 건의 세계는 여자가 대권을 잡아야 돼. 그래서 이천이 년도부터 법무부 장관 나왔고, 국무총리 나왔고, 이번에 대통령이 나왔다 말이야. 여자가.)

102006 @ 예.(예.)

102006 #2 게면 건의 세계란 말은 무슨 뜻이냐.(그러면 건의 세계란 말은 무슨 뜻이냐.)

102006 @ 예.(예.)

32) ‘곱다’는 숨다의 의미를 지닌 제주어이다.

102006 #2 요 핸드폰 하나만 가지면 모두가 선전할 수 있다 이거야. 게서 전쟁이 없다.(요 핸드폰 하나만 가지면 모두가 선전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전쟁이 없다.)

102007 @ 어르신 그럼 결혼은 중매 하신마씨? 연애결혼 하신마씨?(어르신 그럼 결혼은 중매 하셨나요? 연애결혼 하셨나요?)

102007 #2 중매.(중매.)

102007 @ 중매하신마씨? 아, 그럼 몇 년 도에 결혼하신마씨?(중매하셨어요? 아, 그럼 몇 년 도에 결혼하셨어요?)

102007 #2 나. 육십 육십 팔년 십이월 삼십 날 결혼헐.(나. 육십 육십 팔년 십이월 삼십 날 결혼했어.)

102007 @ 아 스물 다섯 살 때 헐었다예.(아 스물 다섯 살 때 헐었군요.)

102007 #2 십이 월 삼십 날.(십이 월 삼십 날.)

102007 @ 아, 십이 월 삼십 날.(아 ,십이 월 삼십 날.)

102008 @ 그 젊으셨을 때 그러면 사주도 보신마씨?(그 젊으셨을 때 그러면 사주도 보셨어요?)

102008 #2 아니 그런 거 안 허여. 나 사주 안 보고 풍수 공부만 허주. 나 그런 거 안 허여.(아니 그런 거 안 해. 나 사주 안 보고 풍수 공부만 하지. 나 그런 거 안 해.)

102008 @ 아 풍수 공부만.(아 풍수 공부만.)

102009 @ 그럼 그 결혼하실 때 혼수품이나 뭐 예물 같은 거 혹시 하신 거 잇언마씨? 어르신?(그럼 그 결혼하실 때 혼수품이나 뭐 예물 같은 거 혹시 하신 거 잇었나요? 어르신?)

102009 #2 여자한테?(여자한테?)

102009 @ 예.(예.)

102009 #2 으. 반지헐지게.(어. 반지헐지.)

102009 @ 반지마씨?(반지요?)

102009 #2 그 때 순금.(그 때 순금.)

102009 @ 순금으로?(순금으로?)

102009 #2 순금으로 보통 세 돈. 나도 세 돈 헐렀어.(순금으로 보통 세 돈. 나도 세 돈 헐렀어.)

102009 @ 아 그럼 그거는 어디서? 제주시강 헐우광?(아 그럼 그거는 어디서? 제주시 가서 헐습니까?)

102009 #2 시에 강 헐주.(시에 가서 헐지.)

102010 @ 그럼 결혼식은 어디서 하신마씨?(그럼 결혼식은 어디서 하셨어요?)

102010 #2 난, 난 법당에서 허연.(난, 난 법당에서 헐어.)

102010 @ 아 법당에서. 그럼 사진은 어떻 찍엇수광? 결혼사진.(아 법당에서. 그럼 사진은 어떻게 찍엇습니까? 결혼사진.)

102010 #2 으.(응.)

102011 @ 그럼 신혼 결혼하성 신혼살림은 계속 고산에서?(그럼 신혼 결혼하셔서 신혼살림은 계속 '고산'에서?)

102011 #2 그때 신혼살림이 살림이야 뭐 있어?(그때 신혼살림이 살림이야 뭐 있어?)

102011 @ 무사마씨?(왜요?)

102011 #2 그냥 집 엮이민 명석으로 칸 막아서 자기도 하고 그래도 신혼이 좋긴 좋았주만. 에 제일 중요한 게이. 우리가 식생활을 해결 한 것이. 약 칠십 이삼 년도부터 해결됐어. 그래서 밥 세끼를 먹은 거라.(그냥 집 없으면 명석으로 칸 막아서 자기도 하고 그래도 신혼이 좋긴 좋았지만. 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식생활을 해결 한 것이. 약 칠십 이삼 년도부터 해결됐어. 그래서 밥 세끼를 먹은 거라.)

102011 @ 예.(예.)

102011 #2 게난 우리가 밥 세끼를 못 먹어나니까. 이 사람이 인식이 배고파 난 사람은 돈 벌 생각도 안나. 어떻 허면 그냥 밥이나 배불리 먹고. 지금은 밥을 먹는 거 말양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 허면 돈을 벌어서 아이들 좋은 옷 입히고 공부시키고 나도 편안히 할고.(그러니까 우리가 밥 세끼를 못 먹었으니까. 이 사람이 인식이 배고파 난 사람은 돈 벌 생각도 안나. 어떻게 하면 그냥 밥이나 배부르게 먹고. 지금은 밥을 먹는 거 말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아이들 좋은 옷 입히고 공부시키고 나도 편안히 할고.)

102011 @ 예.(예.)

102011 #2 이게 요즘 사람들 생각이고. 우리, 우리가 그때 생각은 어떻 허든 아이들 배 안 굶경 사는 거주게.(이게 요즘 사람들 생각이고. 우리, 우리가 그때 생각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 배 안 굶기고 사는 거지.)

102012 @ 그럼 그 자녀분들은 몇 명 있어마씨? 자녀랑 손주는?(그럼 그 자녀분들은 몇 명 있어요? 자녀랑 손주는?)

102012 #2 난 아들 두 개, 딸 하나다.(난 아들 두 개, 딸 하나인데.)

102012 @ 예.(예.)

102012 #2 아들에 으섯. 딸에 흐나. 손지가 일곱.(아들에 여섯. 딸에 하나, 손주가 일곱.)

102012 @ 아, 손주가 일곱마씨? 그럼 아들, 딸들은 다 결혼하셴마씨?(아, 손주가 일곱이요? 그럼 아들, 딸들은 다 결혼하셨어요?)

102012 #2 으.(응.)

102015 @ 그럼 며느리나 사위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마씨?(그럼 며느리나 사위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102015 #2 근데 시대 차이가 너무 많아. 시대 차이를 이해하려고 해도. 옛날 사람들은.(근데 시대 차이가 너무 많아. 시대 차이를 이해하려고 해도. 옛날 사람들은.)

102015 @ 예.(예.)

102015 #2 좀 끈끈한 정으로 좀 살았거든. 돈이 엇어도 굶어도 그 끈끈한 정이 있는데.(좀 끈끈한 정으로 좀 살았거든. 돈이 없어도 굶어도 그 끈끈한 정이 있는데.)

102015 @ 예.(예.)

102015 #2 지금은 그 끈끈한 정이 도망가 버렸. 게고 너무 돈과 그런 관계에서 이야기허다 보니까 이야기허기가 싫어.(지금은 그 끈끈한 정이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너무 돈과 그런 관계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야기하기가 싫어.)

102015 @ 다 고산에 사시는 거마씨?(다 '고산'에 사시는 건가요?)

102015 #2 하난 고산 살고, 하난 어디 딴 디 가고.(하나는 '고산' 살고, 하나는 어디 다른 곳 가고.)

3. 밭일

103001 @ 어르신 그럼 이제 밭일에 대해서 좀 물어보쿠다예. 밭일, 밭일.(어르신 그럼 이제 밭일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밭일, 밭일.)

103001 #1 밭일?(밭일?)

103001 @ 예. 밭일에는 뭐, 뭐 잇어마씨?(예. 밭일에는 뭐, 뭐 잇어요?)

103001 #1 여기?(여기?)

103001 @ 예.(예.)

103001 #1 현재?(현재?)

103001 @ 예 아니 옛날 옛날 얘기해 줘도 됩마씨.(예 아니 옛날 옛날 얘기해 줘도 돼요.)

103001 #1 옛날에 저번도 골았지만 콩, 보리, 나뭇, 산디(옛날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콩, 보리, 벼, 밭벼.)

103001 @ 예.(예.)

103001 #1 고구마 또 감자 지실보고 감자엔 햐주 그거.(고구마 또 감자. '지실' 보고 감자라고 하지 그거.)

103001 @ 어르신, 그거 여기서 다 하셤마씨?(어르신, 그거 여기서 다 하셤어요?)

103001 #1 그거 다 허주게.(그거 다 하지.)

103001 @ 밭일에는 뭐, 뭐 잇어마씨? 밭일에는? 고산에서 주로 하는 밭일.(밭일에는 뭐, 뭐 잇어요? 밭일에는? '고산'에서 주로 하는 밭일.)

103001 #2 밭일이야, 밭 가는 거밖에 더 잇어게.(밭일이야, 밭 가는 거밖에 더 잇어.)

103001 @ 그럼 뭐, 뭐 있어마씨?(그럼 뭐, 뭐 있어요?)

103001 #2 아 철마다 이 이제는 옛날치고 틀령.(아 철마다 이 이제는 옛날하고 틀려서.)

103001 @ 계난 옛날 얘기 해주면.(그러니까 옛날 얘기 해주면.)

103001 #2 옛날 얘기. 참 그 말을 해야겠구나.(옛날 얘기. 참 그 말을 해야겠구나.)

103001 @ 예.(예.)

103001 #2 옛날에는 이 남자들이 수명이 굉장히 짧았어. 왜 짧았느냐. 못 먹꼭 어쩌다 걸렸다면 술 복삭 먹어분다말이야. 게민 어디 누구네 집이 큰일 났다. 큰일이 있다면 마 지금은 그런 세상 구경 못 허겟주만은.(옛날에는 이 남자들이 수명이 굉장히 짧았어. 왜 짧았느냐. 못 먹고 어쩌다 걸렸다면 술 많이 먹어버린다 말이야. 그러면 어디 누구네 집에 큰일 났다. 큰일이 있다면 마 지금은 그런 세상 구경 못 하겠지만.)

103001 @ 예.(예.)

103001 #2 삼사십 명 정도는 큰 일 해난 그 옆에 걸어 나오지 못 허여가지고 자빠져. 술에 취해 가지구. 술을 술을 그렇게 술값이 비쌌어. 게민 큰 일 할 때밭기 술 먹을 뭐가 없었던 말이야.(삼사십 명 정도는 큰 일 하고 그 옆에 걸어 나오지 못 해가지고 자빠져. 술에 취해 가지구. 술을 술을 그렇게 술값이 비쌌어. 그러면 큰 일 할 때밖에 술 먹을 뭐가 없었던 말이야.)

103001 @ 예.(예.)

103001 #2 게면 이제 본 김에 좀 혼잔 더 먹다 보면 다 취해가지고 뱃속에 기름기가 었이 오당 다 자빠져버려.(그러면 이제 본 김에 좀 한잔 더 먹다 보면 다 취해가지고 뱃속에 기름기가 었이 오다가 다 자빠져버려.)

103001 @ 예.(예.)

103001 #2 계난 그 그러다보니까 남자들이 빨리 죽어버렸지. 게면 여자는 제일 문제가 비가 왔을 때 비 금방 끝날 밧이 물 맞을 때 밧을 갈앙 좀 씨를 뿌려야 먹고 산다 말이야. 여자가.(그러니까 그 그러다보니까 남자들이 빨리 죽어버렸지. 그러면 여자는 제일 문제가 비가 왔을 때 비 금방 끝나서 밧에 물 맞을 때 밧을 갈아서 좀 씨를 뿌려야 먹고 산다 말이야. 여자가.)

103001 @ 예.(예.)

103001 #2 여자가 그 밧을 못 가니까 쉼로 갈 때니까.(여자가 그 밧을 못 가니까 쇠로 갈 때니까.)

103001 @ 예.(예.)

보리 농사

103002 @ 그럼 이제 보리농사 좀 물어보쿠다예.(그럼 이제 보리농사 좀 물어볼게요.)

103002 #1 어.(어.)

103002 @ 보리농사 맨 처음에 지을 때 뭐 필요해마씨? 준비하잔 하든?(보리농사 맨 처음에 지을 때 뭐 필요해요? 준비하려고 하면요?)

103002 #1 준비할 때 필요한 거야 거름. 지금 지금은 비료를 줘 가지고 허지만은 그 때는 통지라고 한 거 알아져? 돼지 집인 디.(준비할 때 필요한 거야 거름. 지금 지금은 비료를 줘 가지고 허지만 그 때는 변소라고 한 거 알아져? 돼지 집인데.)

103002 @ 예.(예.)

103002 #1 돼지 집인디 거 보리 막 담아놔 췌겨가지고. 것도 여러 가지주게. 골보리³³⁾라고 허여.(돼지 집인데 거 보리 막 담아놔서 췌겨가지고. 것도 여러 가지지. ‘골보리’라고 해.)

103002 @ 골보리?(‘골보리’?)

103002 #1 고랑으로 골로만 가는 데는. 그걸로 내 놔가지고 씨 섞여가지고 췌로나 뭐나 막 뽕려 뽕려 가지고 씨를 붙으게. 경 해서 이젠 막 뽕려지면 그걸로 이제 저 그 댐 구루마도 없었어. 등짐으로 췌도 싣고 사람을 싣기도 허고, 해가지고 밭디가 놔서 밭 갈아 놓면 그 췌로 행 밭 갈아 놓면 고냥드레 그 걸음을 놔.(고랑으로 골로만 가는 데는. 그걸로 내 놔가지고 씨 섞여가지고 쇠로나 뭐나 막 밟아 밟아 가지고 씨를 붙게. 그렇게 해서 이젠 막 밟아지면 그걸로 이제 저 그 댐 구루마도 없었어. 등짐으로 쇠도 싣고 사람을 싣기도 허고, 해가지고 밭에가 놔서 밭 갈아 놓으면 그 쇠로 해서 밭 갈아 놓으면 구멍에다 그 걸음을 놔.)

103002 @ 예.(예.)

103002 #1 게민 놔 가지고 밭로 뽕는 데도 있고, 또 췌로 가운데만 골만 영 트는 데도 있고.(그러면 놔 가지고 밭로 밟는 데도 있고, 또 쇠로 가운데만 골만 이렇게 트는 데도 있고.)

103003 @ 그럼 거름은 어떻게 준비해마씨? 보리밭 거름.(그럼 거름은 어떻게 준비해요? 보리밭 거름.)

103003 #1 아까 얘기했잖아. 통제³⁴⁾에서 난 걸로. 그게 씨영 곶이 붙어잇주게.(아까 얘기했잖아. 돼지우리에서 난 걸로. 그게 씨와 곶이 붙어잇지.)

103003 @ 통제에서 난 걸로 어떻 거름을 만들어마씨?(돼지우리에서 난 걸로 어떻게 거름을 만들어요?)

103003 #1 그게 통제에서 일단 걸름을 어디서 들어가냐면은. 췌 질르거든. 췌 질르면은 거기서 췌 먹던 거나 췌똥이영 그 췌 맥인 데서는 췌지 않거든 그게. 그 거를 통제에 담아놔.(그게 돼지우리에서 일단 거름을 어디서 들어가냐면. 소 기르거든. 소 기르면 거기서 소 먹던 거나 쇠똥과 그 쇠 먹인 데서는 췌지 않거든 그게. 그거를 돼지우리에 담아놔.)

33) ‘골보리’는 보리 파종법 중 줄뿌림(밭에 고랑을 내어 줄이 지게 씨를 뿌리는 일. 또는 그런 방법)의 제주어이다.

34) ‘통제’는 돼지우리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돛통, 돛통시, 돼야지통, 통시, 통지.

103003 @ 예.(예.)

103003 #1 담아놔근엥 도새기 고기 저 구정물도 먹고 허면은 그게 썩거든.(담아 놔서 돼지 고기 저 구정물도 먹고 하면 그게 썩거든.)

103003 @ 예.(예.)

103003 #1 썩으면은 이제 나무일 허는 사람들이 많이 해서. 걸름 낸다고 허여. 통제 걸름 낸다고.(썩으면 이제 나무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해서. 거름 낸다고 해. 돼지우리 거름 낸다고.)

103003 @ 예.(예.)

103003 #1 걸름 내가지고 마당에 짹 깔아근엥 보리씨를 뿌려. 걸름 위에. 거기 다. 영.(거름 내가지고 마당에 짹 깔아서 보리씨를 흩뿌려. 거름 위에. 거기다가 이렇게.)

103003 @ 거름 위에마씨?(거름 위에요?)

103003 #1 그럼 쉼로 이제 뽕려. 그거 저 붙으라고 걸름에 붙으라고. 거름에 이제 뭔가 발려서 딱 문뚝 발려지면은 붙을 거 아냐? 게면 이제 그걸 데머³⁵⁾. 이만큼 허게. 데미면은 물 빠져버리거든 알로. 그 다음엔 멩텅이³⁶⁾ 알아져? 멩텅이에 그걸 요만한 작은 멩텅이 그것에 담아서 이제 푹푹 발라서.(그럼 소로 이제 뽕아. 그거 저 붙으라고 거름에 붙으라고. 거름에 이제 뭔가 발려서 딱 전부 발려지면 붙을 거 아냐? 그러면 이제 그걸 썩어. 이만큼하게. 썩으면 물 빠져버리거든 아래로. 그 다음에는 망태기 알아져? 망태기에 그걸 요만한 작은 망태기 그것에 담아서 이제 푹푹 발라서.)

103003 @ 예.(예.)

103003 #1 그 때는 쉼로 양쪽에 하나씩 두 개 또 사람 잇이민 세 개. 경 해가지고 밭에 그걸 가져가. 밭에 가서 이제 그 쪽 하게 널어놔 그걸. 여기도 한 망텅이 저기도 한 망텅이 널면은. 그 밭에 갈 거 얼마 들어가는 거 그건 이제 허영으녕 그걸 이제 손으로 여자들이 뿌려.(그 때는 소로 양쪽에 하나씩 두 개 또 사람 있으면 세 개. 그렇게 해가지고 밭에 그걸 가져가. 밭에 가서 이제 그 쪽 하게 널어놔 그걸. 여기도 한 망태기 저기도 한 망태기 널면. 그 밭에 갈 거 얼마 들어가는 거 그건 이제 해서 그걸 이제 손으로 여자들이 뿌려.)

103003 @ 예.(예.)

103003 #1 뿌리면 남자들 쉼로 그걸 걸름을 덮어줘. 경 허는 게 그게 보리밭 걸름이주게. 경 해근엥 보리 비어가지고 보리 나면은 비료가 엇엇거든 그 때는. 그냥 난 대로 크면은 요만큼 하면은 손으로 비어서 기계로 훑아. 훑아가지고 양식을 장만허여 그걸로.(뿌리면 남자들 소로 그걸 거름을 덮어줘.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보리밭 거름이지. 그렇게 해서 보리 비어가지고 보리 나면 비료가 없엇거든 그 때는. 그냥 난 대로 크면 요만큼 하면 손으로 베어서 기계로 훑아. 훑아가지고 양식을 장만

35) ‘데미다’는 ‘짙다’의 제주어이다. 예) 옛날엔 메역도 하영 데명 놔뒀저.(옛날에는 미역도 많이 썩어 놔뒀었다.)

36) ‘멩텅이’는 ‘망태기’의 제주어이다. = 망텅이, 멩텅이.

해 그걸로.)

103004 @ 그러면 보리는 언제 보통 갈아마씨?(그러면 보리는 언제 보통 갈아요?)

103004 #1 시월.(시월.)

103004 @ 시월.(시월.)

103004 #1 음력 시월 달.(음력 시월 달.)

103004 @ 보통 그럼 누가 어떻게 갈아마씨? 남자들이 행 다 이렇게 막 헤마씨?(보통 그럼 누가 어떻게 갈아요? 남자들이 해서 다 이렇게 막 해요?)

103004 #1 남자가 허주게. 췌 췌가 잠데³⁷⁾ 메어가지고.(남자가 하지. 쇠 쇠가 쟁기 메어가지고.)

103004 @ 예.(예.)

103004 #1 보통 잠데 메어가지고 남자가 허주게.(보통 쟁기 메어가지고 남자가 하지.)

103004 @ 잠데 메어마씨?(쟁기 메어요?)

103004 #1 잠데라는 거 모르지?(쟁기라는 거 모르지?)

103004 @ 예.(예.)

103004 #1 영 밭 가는 거 있어. 영 손 심영 옛날 밭 가는 거 있어. 췌 먹영 그것에 헤가지고 췌 가르친 췌로 그걸로 허주게.(이렇게 밭 가는 거 있어. 이렇게 손 붙잡아서 옛날 밭 가는 거 있어. 소 먹이고 그것에 헤가지고 소 가르친 소로 그걸로 하지.)

103005 @ 그럼 보리 씨도 뿌리잖아예? 보리 농사 허기 전에.(그럼 보리 씨도 뿌리잖아요? 보리 농사 하기 전에.)

103005 #1 보리 씨 농사 허기 전에 그건 또 따로 허주게. 산파³⁸⁾라고.(보리씨 농사 하기 전에 그건 또 따로 하지. 산파라고.)

103005 @ 산파마씨?(산파요?)

103005 #1 산파.(산파.)

103005 @ 그게 뭐마씨?(그게 뭐예요?)

103005 #1 그거는 췌로 그냥 갈아 놔가지고 그냥 위 씨 빼어.(그거는 소로 그냥 갈아 놔가지고 그냥 위에 씨 뿌려.)

103005 @ 아.(아.)

103005 #1 경 행 걸름도 그냥 놓고.(그렇게 해서 거름도 그냥 놓고.)

103005 @ 예.(예.)

103005 #1 걸름도 이 돼지, 통시 걸름을 그냥 밭에 손으로 뿌리주게.(거름도 이 돼지, 돼지우리 거름을 그냥 밭에 손으로 뿌리지.)

103005 @ 그럼 손으로 그냥 뿌려마씨?(그럼 손으로 그냥 뿌려요?)

37) '잠데'는 '쟁기'의 제주어이다. = 잠대.

38) '산파'는 경지(耕地) 전면에 여기저기 흩어지게 씨를 뿌리는 일(=노가리)을 의미한다.

103005 #1 응.(응.)

103006 @ 그럼 보리 종류에는 뭐, 뭐 있어마씨?(그럼 보리 종류에는 뭐, 뭐 있어요?)

103006 #1 살보리, 맥주보리, 걸보리 세 가지.(쌀보리, 맥주보리, 걸보리 세 가지.)

103006 @ 세 가지.(세 가지.)

103006 #1 어.(어.)

103006 @ 그럼 어르신도 세 가지 다 하신마씨?(그럼 어르신도 세 가지 다 하셨어요?)

103006 #1 어.(어.)

103006 @ 어르신, 그럼 그것들 차이가 뭐짱?(어르신, 그럼 그것들 차이가 무엇입니까?)

103006 #1 차이가 이 살보리랜 흐는 거는 뭔가 거 꺾데기 예우면 쌀이고.(차이가 이 쌀보리라고 하는 거는 뭔가 거 꺾데기 예우면 쌀이고.)

103006 @ 예.(예.)

103006 #1 그니깐 살보리랜 흔 거고.(그러니까 쌀보리라고 한 거고.)

103006 @ 예.(예.)

103006 #1 걸보리랜 흐는 거는 또 붙어 있고 저 그 꼭대기가 다섯 줄이라 그게. 줄로 영 올라간 게 걸보리고, 또 골보리랜 흔 거는 두 줄만 올라간 거. 게서 두 줄만 대 나오면 양 옆으로 그게 올라가는 게 골보리.(걸보리하고 하는 거는 또 붙어 있고 저 그 꼭대기가 다섯 줄이라 그게. 줄로 이렇게 올라간 게 걸보리고, 또 골보리하고 한 거는 두 줄만 올라간 거. 그래서 두 줄만 대 나오면 양 옆으로 그게 올라가는 게 골보리.)

103007 @ 그럼 그 보리 뿌린 다음에 밭에 밟잖아예?(그럼 그 보리 뿌린 다음에 밭에 밟잖아요?)

103007 #1 어.(어.)

103007 @ 보리밭, 보리밭 밟기는 어떻 해마씨?(보리밭, 보리밭 밟기는 어떻게 해요?)

103007 #1 사람으로.(사람으로.)

103007 @ 아. 사람으로.(아. 사람으로.)

103007 #1 그 때는 뭐 었이난 사람으로 밟았어.(그 때는 뭐 없으니까 사람으로 밟았어.)

103007 @ 막 그냥 사람이 밟아마씨?(막 그냥 사람이 밟아요?)

103007 #1 겐디 막 밟아지면 좋지만 막 밟아지나.(그런데 막 밟아지면 좋지만 막 밟아지나.)

103007 @ 삼촌, 근데 그거는 무사 밟는 거마씨?(삼촌, 근데 그거는 왜 밟는 거예요?)

103007 #1 그거 바람, 바람 불고 눈 묻으면 굳지 말라고.(그거 바람, 바람 불고 눈 쌓이면 굳지 말라고.)

103007 @ 그럼 어르신도 막 계속 그러니까 밭이 넓잖아예?(그럼 어르신도 막 계속 그러니까 밭이 넓잖아요?)

103007 #1 어.(어.)

103007 @ 넓으면 넓은데 그냥 혼자 다 헤마씨?(넓으면 넓은데 그냥 혼자 다 해요?)

103007 #1 그렇지. 어떻 해.(그렇지. 어떻게 해.)

103007 @ 그럼 막 같이 이렇게 도와가지고 오늘은 이 밭 오늘은 저 밭 그렇게 안헐마씨?(그럼 막 같이 이렇게 도와가지고 오늘은 이 밭 오늘은 저 밭 그렇게 안했어요?)

103007 #1 경 못 허여. 그 때는 경 못 헐어.(그렇게 못 해. 그 때는 그렇게 못 했어.)

103008 @ 그럼 보리밭 김매기는 몇 번 헤마씨?(그럼 보리밭 김매기는 몇 번 해요?)

103008 #1 김매기?(김매기?)

103008 @ 예.(예.)

103008 #1 한 번.(한 번.)

103008 @ 한 번?(한 번?)

103008 #1 옛날에는 한 번 김매면 땀어.(옛날에는 한 번 김매면 땀어.)

103008 @ 아.(아.)

103008 #1 보리가 요만큼씩 올라올 때면 매는 거니까.(보리가 요만큼씩 올라올 때면 매는 거니까.)

103008 @ 예.(예.)

103008 #1 밭매면은 그 다음에 보리가 싹 올라와볼주게.(밭매면 그 다음에 보리가 싹 올라와버리지.)

103009 @ 보리밭에는 검질들이 뭐, 뭐 있어마씨?(보리밭에는 김들이 뭐, 뭐 있어요?)

103009 #1 검질? 보리밭에는 보통 대우리³⁹⁾라는 게 있어.(김? 보리밭에는 보통 귀리라는 게 있어.)

103009 @ 대우리?(귀리?)

103009 #1 어.(어.)

103009 @ 아.(아.)

103009 #1 보리 닳은 거 잇주게.(보리 닳은 거 있지.)

103009 @ 예.(예.)

103009 #1 보리 닳은 거 잇고, 뭐 진풀⁴⁰⁾ 이런 것도 잇고, 난쟁이⁴¹⁾ 같은 것들

39) '대우리'는 '귀리'의 제주어로, '대오리'로도 실현된다.

도 있고. 뭐 풀은 여러 가지주 뭐.(보리 닮은 거 있고, 뭐 별꽃 이런 것도 있고, 냉이 같은 것들도 있고. 뭐 풀은 여러 가지지 뭐.)

103009 @ 보통 많이 나는 게?(보통 많이 나는 게?)

103009 #1 보통 많이 나는 게 진풀.(보통 많이 나는 게 별꽃.)

103009 @ 진풀.(별꽃.)

103010 @ 그럼 그 때 보리 수확은 어떻 헨마씨?(그럼 그 때 보리 수확은 어떻게 했어요?)

103010 #1 수확?(수확?)

103010 @ 예.(예.)

103010 #1 수확은 손으로 비어서.(수확은 손으로 베어서.)

103010 @ 예.(예.)

103010 #1 옛날엔 손으로.(옛날엔 손으로.)

103010 @ 그럼 옛날에 빌 때 뭘로 비언마씨?(그럼 옛날에 벨 때 무엇으로 베었어요?)

103010 #1 호미, 낫 알아지지?(낫, 낫 알지?)

103010 @ 예.(예.)

103010 #1 그걸로 비어서.(그걸로 베어서.)

103010 @ 예.(예.)

103010 #1 말려서 이제 묶어.(말려서 이제 묶어.)

103010 @ 예.(예.)

103010 #1 묶어근영 집에 들여와.(묶어서 집에 들여와.)

103010 @ 예.(예.)

103010 #1 집에 들어가서 또 그걸 누벼.(집에 들어가서 또 그걸 누벼.)

103010 @ 예.(예.)

103010 #1 누벼가지고 이제 날 좋은 날 봐가지고 이렇게 뒤편가지고 그 홀트는 기계가 있어.(누벼가지고 이제 날 좋은 날 봐가지고 이렇게 되가지고 그 훑으는 기계가 있어.)

103010 @ 그 기계 이름이 뭐짱?(그 기계 이름이 뭐예요?)

103010 #1 어?(어?)

103010 @ 홀트는 기계 이름이?(훑으는 기계 이름이?)

103010 #1 그게 이름이 잊어버려 알아지크냐.(그게 이름이 잊어버려서 알아지겠냐.)

103010 @ 예.(예.)

103010 #1 그 그게 다리 네 개 막 영 놔가지고 홀트어 놔 헛주. 그전에는 뭐 쉼로도 불리고 들로도 불리고 헛는디 지금은 다 뭐가.(그 그게 다리 네 개 막 이렇게

40) '진풀'은 '별꽃'의 제주어이다.

41) '난쟁이'는 '냉이'의 제주어로, '나시, 난상이, 난시, 난쟁이, 난지' 등으로 실현된다.

놔가지고 훑어 놔서 했지. 그전에는 뭐 소로도 밟고 말로도 밟고 했는데 지금은 다 뭐가.)

103010 @ 기계로.(기계로.)

103010 #1 이 기계로 해볼주.(이 기계로 해버리지.)

103011 @ 지금 말양 옛날에 어르신 하셨을 때 방식으로 설명해주면 뭐마씨.(지금 말고 옛날에 어르신 하셨을 때 방식으로 설명해주면 돼요.)

103011 #1 방식은.(방식은.)

103011 @ 그냥 보리 벤 다음에 묶은 다음에.(그냥 보리 벤 다음에 묶은 다음에.)

103011 #1 집이 일단 들어와.(집에 일단 들어와.)

103011 @ 예.(예.)

103011 #1 집에 들어와 일기를 봐가지고 또 그걸 또 손으로 훑타.(집에 들어서 일기를 봐가지고 또 그걸 또 손으로 훑아.)

103011 @ 예. 훑아.(예. 훑아.)

103011 #1 훑타가지고 말이 있으면은 그걸 날 좋으면은 다 헤쳐가지고 그 때는 농사가 얼마 안 돼주게. 손으로만 해 놓으니깐.(훑아가지고 말이 있으면 그거를 날 좋으면 다 헤쳐가지고 그 때는 농사가 얼마 안 되지. 손으로만 해 놓으니까.)

103011 @ 예.(예.)

103011 #1 그래가지고 도끼로 이제.(그래가지고 도리깨로 이제.)

103011 @ 예. 도끼.(예. 도리깨)

103011 #1 도끼라는 거 알아져? 그걸로 해볼주게.(도리깨라는 거 알아져? 그걸로 해버리지.)

103011 @ 예. 도리깨질 하는 거 아니마씨?(예. 도리깨질 하는 거 아닌가요?)

103011 #1 어 도끼, 그걸로 대부분 하영 허여.(어 도리깨, 그걸로 대부분 많이 해.)

103012 @ 그럼 그렇게 해서 보리쌀은 어떻게 마련해마씨?(그럼 그렇게 해서 보리쌀은 어떻게 마련해요?)

103012 #1 쌀은 이제 그거 허면은 불리거든.(쌀은 이제 그거 하면 불리거든.)

103012 @ 예.(예.)

103012 #1 불리면 보리 나오거든, 보리 나오면은 방 방에엔 헌 거 알아져?(불리면 보리 나오거든, 보리 나오면 방 방아라고 한 거 알아져?)

103012 @ 들방에마씨?(연자매요?)

103012 #1 어, 들방에라고.(어, 연자매라고.)

103012 @ 다시 한번 어디마씨?(다시 한번 어디요?)

103012 #1 들방에라고. 들로 돌령 뱅뱅 돌령 그 이만큼하면 돌 있지 않아?(연자매라고. 말로 돌려서 뱅뱅 돌려서 그 이만큼한 돌 있지 않아?)

103012 @ 예.(예.)

103012 #1 그걸로 하면 뱅뱅 돌아가면 그러면 이제 벗겨지주게.(그걸로 하면 뱅뱅 돌아가면 그러면 이제 벗겨지지.)

103012 @ 그럼 그 보리쌀 그렇게 몰방 강 바로 나와마씨? 쌀이?(그럼 그 보리쌀 그렇게 연자맷간 가서 바로 나와요? 쌀이?)

103012 #1 아니지. 그게 또 해가지고 또 젓어근엥 또 그거 문딱 걸어내서 사람 손으로 쳐야 돼.(아니지. 그게 또 해가지고 또 저어서 또 그거 전부 걸어내서 사람 손으로 쳐야 돼.)

103012 @ 뭘로 쳐야 돼마씨?(뭘로 쳐야 돼요?)

103012 #1 채가 있어. 요만한 채가.(채가 있어. 요만한 채가.)

103012 @ 채 이름은 뭐짱?(채 이름은 무엇입니까?)

103012 #1 대체.(대체)

103012 @ 대체. 아.(대체. 아.)

103012 #1 또 불러42).(또 밟아.)

103012 @ 예.(예.)

103012 #1 불러면은 쌀 나오면은 그걸 또 불러와.(밟으면 쌀 나오면 그걸 또 말려.)

103012 @ 예.(예.)

103012 #1 들러왕 항에 걸어 낚다가 밥을 허게 되면은 걸어내가지고 씻어서 밥을 허주게.(말려와서 항에 걸어 낚다가 밥을 하게 되면 걸어내가지고 씻어서 밥을 하지.)

103013 @ 밥 말고 또 뭐 다른 것도 해마씨? 그걸로 미숫가루나 뭐 그런 거 떡이나.(밥 말고 또 뭐 다른 것도 해요? 그걸로 미숫가루나 뭐 그런 거 떡이나.)

103013 #1 그렇지. 미숫가루는 그냥 보리로.(그렇지. 미숫가루는 그냥 보리로.)

103013 @ 예.(예.)

103013 #1 보리로 볶아서.(보리로 볶아서.)

103013 @ 음.(음.)

103013 #1 볶아서 집에서 ㄹ레로. ㄹ레로 ㄹ는 걸로 그거 나오민 그게.(볶아서 집에서 맷들로. 맷들로 가는 걸로 그거 나오면 그게.)

103014 @ 그럼 보리농사에 그 보리 말고 남는 것들 있잖아예? 그 남는 것들 뭐 까끄라기나 아니면 보릿겨나 보릿짚 같은 거.(그럼 보리농사에 그 보리 말고 남는 것들 있잖아요? 그 남는 것들 뭐 까끄라기나 아니면 보릿겨나 보릿짚 같은 거.)

103014 #1 어?(어?)

103014 @ 그러니까 보리 있고 나머지 것들 있잖아예?(그러니까 보리 있고 나머지 것들 있잖아요?)

103014 #1 어.(어.)

103014 @ 보리 말양 그 나머지 것들로 뭐해마씨?(보리 말고 그 나머지 것들로

42) '불리다'는 조를 파종한 밭을 밟다는 뜻의 제주어이다.

뭐해요?)

103014 #1 아 보릿대.(아 보릿대.)

103014 @ 예.(예.)

103014 #1 그 보릿대, 보릿대 걸름으로 허주게.(그 보릿대, 보릿대 거름으로 하지.)

103014 @ 거름으로?(거름으로?)

103014 #1 걸름으로 저 돼지 잇는 통제엔 한 데서 그래 그걸 들여놓고. 췌 잇는 집에는 췌가 풀 먹어나면 또 이 막 뭐 이상헌 거 싸주게.(거름으로 저 돼지 잇는 돼지우리라고 한 데서 그래 그걸 들여놓고. 소 잇는 집에는 소가 풀 먹어나면 또 이 막 뭐 이상헌 거 싸지.)

103014 @ 예.(예.)

103014 #1 췌에서 발리고, 췌에서 발린 것을 통제에 담아 놓면은 거기서 썩으면은 그게 걸름이주게.(소에서 발리고, 소에서 발린 것을 통제에 담아 놓면 거기서 썩으면 그게 거름이지.)

103014 @ 그럼 보리 말고 보리 그 남은 것들은 뭐라고 해마씨? 보릿대?(그럼 보리 말고 보리 그 남은 것들은 뭐라고 해요? 보릿대?)

103014 #1 어?(어?)

103014 @ 그 보리 있잖아예.(그 보리 있잖아요.)

103014 #1 어.(어.)

103014 @ 그 보리 보리만 딱 떼서 남은 것들.(그 보리 보리만 딱 떼서 남은 것들.)

103014 #1 어.(어.)

103014 @ 그걸 한꺼번에 뭐라고 해마씨?(그걸 한꺼번에 뭐라고 해요?)

103014 #1 보리낭.(보릿짚.)

103014 @ 아 보리낭.(아 보릿짚.)

103014 #1 어.(어.)

103015 @ 아, 그럼 어르신 보리농사 허다가 기억나는 거 잇어마씨?(아, 그럼 어르신 보리농사 허다가 기억나는 것 잇어요?)

103015 #1 보리농사? 기억나는 거 벨로 잇어.(보리농사? 기억나는 거 벨로 없어.)

103015 @ 그럼 몇 살 때부터 보리농사 헨마씨?(그럼 몇 살 때부터 보리농사 했어요?)

103015 #1 뭐 열 서너 살 때 돌아댁길 때부터 헛주게. 밭에서 여덟 살이민 돌아다녔주게.(뭐 열 서너 살 때 돌아다닐 때부터 했지. 밭에서 여덟 살이면 돌아다녔지.)

103015 @ 보리농사 하명 크게 잘된 적은 잇수짱?(보리농사 하면서 크게 잘된 적은 없습니까?)

103015 #1 잘된 적이나마나 그 때도 이 자본주의는 살기가 편했고.(잘된 적이나마나 그 때도 이 자본주의는 살기가 편했고.)

103015 @ 예.(예.)

103015 #1 옛인 사람은 만날 그자 남의 집에 돌아다니명. 게 사람 살아가는 근본이었주게. 농사 안 된 적도 뭐 좋은 거 엇고 남의 집에서 살았으니깐.(없는 사람은 만날 그저 남의 집에 돌아다니면서. 그게 사람 살아가는 근본이었지. 농사 안 된 적도 뭐 좋은 거 없고 남의 집에서 살았으니깐.)

103015 @ 예전에 몇 살 때까지 밭일 했주마씨?(예전에 몇 살 때까지 밭일 했지요?)

103015 #1 몇 살 때까지?(몇 살 때까지?)

103015 @ 예. 한 몇 년 전까지 하셧마씨?(예. 한 몇 년 전까지 하셧어요?)

103015 #1 밭일?(밭일?)

103015 @ 예.(예.)

103015 #1 밭일은, 현재도 밭일이야 허고 잇주게. 기계로 해도.(밭일은, 현재도 밭일이야 하고 있지. 기계로 해도.)

103015 @ 아아.(아아.)

103015 #1 현재도 기계로만 다 무신 그걸, 허는 것이 아이라. 기계 장만 해 놓으면 가져오는 것도 있고, 기계로 파 놓으면 주워근영 담는 것도. 요즘 농촌에는 밭일밭기 엇어.(현재도 기계로만 다 무슨 그걸, 하는 것이 아니야. 기계 장만 해 놓으면 가져오는 것도 있고, 기계로 파 놓으면 주워서 담는 것도. 요즘 농촌에는 밭일밖에 없어.)

103015 @ 예전에 삼촌 보리농사 하셧는데 남의 집에 살명 한 적도 있고, 그냥 한 적도 잇잖아예? 그거 좀 얘기해 보게마씨.(예전에 삼촌 보리농사 하셧는데 남의 집에 살면서 한 적도 있고, 그냥 한 적도 잇잖아요? 그거 좀 얘기해 보지요.)

103015 #1 그치. 농사지을 때, 품팔이 해근영, 품팔이로 거 하루 일당 보리쌀은 얼마, 줍쌀은 얼마 해가지고. 그거 해다가 옛인 사람은 그걸로 자식들 키웠주게.(그렇지. 농사지을 때, 품팔이 해서, 품팔이로 거 하루 일당 보리쌀은 얼마, 줍쌀은 얼마 해가지고. 그거 해다가 없는 사람은 그걸로 자식들 키웠지.)

103015 @ 아, 그럼 남의 집에 사신 적도 잇고?(아, 그럼 남의 집에 사신 적도 잇고?)

103015 #1 응.(응.)

103015 @ 아. 그건 한 스무 살, 서른 살 그때쯤엔.(아. 그건 한 스무 살, 서른 살 그때쯤에.)

103015 #1 그렇지. 스물, 서른 이때쯤에. 그 거기는 남에 일 아니 텅기른 스물다섯, 그때 결혼할 때는.(그렇지. 스물, 서른 이때쯤에. 그 거기는 남에 일 아니 다니면 스물다섯, 그때 결혼할 때는.)

103015 @ 예.(예.)

103015 #1 결혼한 사람들은, 뭐 스물대여섯, 스물일곱여덟 나가면, 늙은이 일 하면서, 해야 자식들 맥이고 가족도 맥이고. 또 가서, 여기서 물질들 배우니까.(결혼한 사람들은, 뭐 스물대여섯, 스물일곱여덟 나가면, 남편의 일 하면서, 해야 자식들 먹이고 가족도 먹이고. 또 가서, 여기서 물질들 배우니까.)

103015 @ 예.(예.)

103015 #1 지 먹을 것도 허지마는 아무래도 남자가 뛰어대녀야 벌어다가 맥일 거 아니냐.(제 먹을 것도 하지만 아무래도 남자가 뛰어대녀야 벌어다가 먹일 거 아니냐.)

103015 @ 음. 그럼 삼촌 밭 처음에 밭 샀을 때는 그거 어디서 산마씨? 이 동네에서 산마씨?(음. 그럼 삼촌 밭 처음에 밭 샀을 때는 그거 어디서 샀어요? 이 동네에서 샀어요?)

103015 #1 응. 저 요디 나가 가지고.(응. 저 요기 나가 가지고.)

103015 @ 아.(아.)

103015 #1 이 위에도 있고.(이 위에도 있고.)

103015 @ 그럼 기억나겠냐? 처음 밭 샀을 때.(그럼 기억나겠군요? 처음 밭 샀을 때.)

103015 #1 응. 이 기억나고말고 뭐, 밭.(응. 이 기억나고말고 뭐, 밭.)

103015 @ 그래도 좀 기쁘지 않안마씨? 처음으로.(그래도 좀 기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103015 #1 기쁘지개.(기쁘지.)

103015 @ 어느 정도 산마씨?(어느 정도 샀어요?)

103015 #1 그때 초담 밭 사니까 뭔가 고단하게 사니까 성공하기가 힘들었어.(그때 처음 밭 사니까 뭔가 고단하게 사니까 성공하기가 힘들었어.)

103015 @ 예.(예.)

103015 #1 힘들어 가지고 부지런히 뛰어다니다가 마 한, 뭔가 군인 갔다와서.(힘들어 가지고 부지런히 뛰어다니다가 마 한, 뭔가 군인 갔다와서.)

103015 @ 예.(예.)

103015 #1 산 게 내가 몇 살에. 헌 서른아홉쯤이지.(산 게 내가 몇 살에. 헌 서른아홉쯤이지.)

103015 @ 서른, 몇 살마씨?(서른, 몇 살이요?)

103015 #1 마흔.(마흔.)

103015 @ 마흔 다 댜 산마씨?(마흔 다 돼서 샀어요?)

103015 #1 응. 마흔 즈음.(응. 마흔 즈음.)

103015 @ 근데 군대 갔다 온 거는 한 이십 갔다 왔잖아에.(근데 군대 갔다 온 거는 한 이십대 때 갔다 왔잖아요.)

103015 #1 응.(응.)

103015 @ 그럼 그때 군대 갔다 온 다음에 계속 좀 남편 밭 일하다가.(그럼 그

때 군대 갔다 온 다음에 계속 좀 남의 밭 일하다가.)

103015 #1 일하고 거기서 돈 쪼끔 벌어 가지고.(일하고 거기서 돈 조금 벌어 가지고.)

103015 @ 예.(예.)

103015 #1 투자 붙이는 게, 밭 한, 밭 사고 또 사고.(투자 붙이는 게, 밭 한, 밭 사고 또 사고.)

103015 @ 예.(예.)

103015 #1 조금씩 조금씩 사는 게 내중은 사다가.(조금씩 조금씩 사는 게 내중은 사다가.)

103015 @ 그럼 밭 지금 산 것도 저기 잇인가마씨?(그럼 밭 지금 산 것도 저기 잇어요?)

103015 #1 그거 아들들 주엇인디 다 팔아먹엇어.(그거 아들들 주었는데 다 팔아먹엇어.)

103015 @ 아들들이 다 팔아먹엇어?(아들들이 다 팔아먹엇어요?)

103015 #1 응. 하나도 엇어.(응. 하나도 없어.)

103015 @ 지금은 하나도 엇고.(지금은 하나도 없고.)

103015 #1 응.(응.)

103015 @ 그럼 삼촌 지금 밭 농사는 어디서 헤마씨? 지금은 그래도 쪼끔은 잇인가마씨?(그럼 삼촌 지금 밭 농사는 어디서 해요? 지금은 그래도 쪼끔은 있으신가요?)

103015 #1 나?(나?)

103015 @ 예.(예.)

103015 #1 엇어.(없어.)

103015 @ 아, 지금은 엇어?(아, 지금은 없어?)

103015 #1 아예, 아예 농사 안 쳐.(아예, 아예 농사 안 쳐.)

103015 @ 아, 아예 안 해.(아, 아예 안 해.)

103015 #1 해도 못 허고 거의, 거름도 지금 하나 못 거르는데 뭐.(해도 못 하고 거의, 거름도 지금 하나 못 거르는데 뭐.)

103015 @ 그럼 처음에 남의 집에서 일허다가 돈 쪼금씩 벌고.(그럼 처음에 남의 집에서 일허다가 돈 쪼금씩 벌고.)

103015 #1 응.(응.)

103015 @ 경 헤가지고 밭 산 다음에 그걸로 여러 가지 농사하신 거잖아예.(그렇게 헤가지고 밭 산 다음에 그걸로 여러 가지 농사하신 거잖아요.)

103015 #1 그렇지.(그렇지.)

조 농사

103016 @ 그럼 어르신 예전에 조 농사도 헐마씨?(그럼 어르신 예전에 조 농사

도 했어요?)

103016 #1 그렇지. 옛날에 조 농사도 헛주게. 무사?(그렇지. 옛날에 조 농사도 했지. 왜?)

103016 @ 그럼 조 농사 할 때 뭘 준비해야 돼마씨?(그럼 조 농사 할 때 뭘 준비해야 돼요?)

103016 #1 조 농사는 벨로 준비하는 게 엇어.(조 농사는 별로 준비하는 게 없어.)

103016 @ 보리 농사도 아까 별로 준비하는 게 없었잖아예?(보리 농사도 아까 별로 준비하는 게 없었잖아요?)

103016 #1 보리 농사도 그거고.(보리 농사도 그거고.)

103016 @ 아, 그럼 조 농사는?(아, 그럼 조 농사는?)

103016 #1 조 농사는 손이 덜 가. 보리 농사보다.(조 농사는 손이 덜 가. 보리 농사보다.)

103016 @ 아, 기팡?(아, 그렇습니까?)

103016 #1 그냥 밭에 저 뭔가 잠데로 예쁘게 갈아 놔가지고 그냥 씨 뿌려가지고 쉼로 밍러블거든.(그냥 밭에 저 뭔가 쟁기로 예쁘게 갈아 놔가지고 그냥 씨 뿌려가지고 소로 밍아버리거든.)

103017 @ 그럼 조밭에 잇는 거름은 어떻게 준비해마씨?(그럼 조밭에 잇는 거름은 어떻게 준비해요?)

103017 #1 조밭에 걸름 엇엇어.(조밭에 거름 없엇어.)

103018 @ 그럼 조는 언제 갈아마씨?(그럼 조는 언제 갈아요?)

103018 #1 그 때 유월 달에 갈아.(그 때 유월 달에 갈아.)

103018 @ 유월?(유월?)

103018 #1 보리는 시월에 하고마씨?(보리는 시월에 하고요?)

103018 @ 어.(어.)

103018 @ 그럼 어떻게 갈아마씨?(그럼 어떻게 갈아요?)

103018 #1 가는 거야게. 저 뭔가 쉼로 갈아 놔근영 그거 이제 씨 뿌려놔 쉼로 불리고 또 꺾고 그러주게.(가는 거야. 저 뭔가 소로 갈아 놔서 그거 이제 씨 뿌려서 소로 밍고 또 끌고 그러지.)

103019 @ 그럼 줍씨⁴³⁾는 어뎡 뿌려마씨?(그럼 ‘줍씨’는 어떻게 뿌려요?)

103019 #1 손으로.(손으로.)

103019 @ 손으로?(손으로?)

103019 #1 어.(어.)

103019 #1 보리랑 비슷하다예?(보리랑 비슷하군요?)

103019 #1 보리랑 비슷허여.(보리랑 비슷해.)

103020 @ 그러면 조밭도 다른 데랑 비슷하게 밍아마씨?(그러면 조밭도 다른 데

43) ‘줍씨’는 파종용 줍살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랑 비슷하게 밟아요?)

103020 #1 조밭도 밟아줘야주게.(조밭도 밟아줘야지.)

103020 @ 그럼 조밭은 어떻 밟아마씨?(그럼 조밭은 어떻게 밟아요?)

103020 #1 계난 보리랑 비슷해. 쉼 잇이믄 쉼로 허고 잇이믄 사람으로 밟고.(그러니까 보리랑 비슷해. 소 있으면 소로 하고 없으면 사람으로 밟고.)

103020 @ 말로는 안 헤마씨?(말로는 안 해요?)

103020 #1 무사? 들로도 밟아.(왜? 말로도 밟아.)

103020 @ 그거 말로 밟을 때 기계 같은 거 잇언마씨?(그거 말로 밟을 때 기계 같은 없었어?)

103020 #1 들 잇이믄 들 두 개랑 어울러가지고 헐 적에는 묶어근앵.(말 있으면 말 두 개랑 어울러가지고 할 적에는 묶어서.)

103020 @ 예.(예.)

103020 #1 계면 한 사람만 돌아댕기멍 이제 아니 가는 거 때리면서 돌아댕기주게. 들 모는 소리허멍. 요즘 듣지 안 헨? 텔레비전에 들 모는 소리 허는 거.(그러면 한 사람만 돌아다니면서 이제 안 가는 거 때리면서 돌아다니지. 말 모는 소리하면서. 요즘 듣지 않아? 텔레비전에 말 모는 소리 하는 거.)

103020 @ 예.(예.)

103020 #1 들 모는 소리가 아마 그 때 나온 거라.(말 모는 소리가 아마 그 때 나온 거라.)

103021 @ 그럼 어르신 조밭은 김매기 몇 번 헤마씨?(그럼 어르신 조밭은 김매기 몇 번 해요?)

103021 #1 김매기?(김매기?)

103021 @ 예.(예.)

103921 #1 조밭은 헨 적이 잇어.(조밭은 한 적이 없어.)

103021 @ 김매기 안 헤마씨?(김매기 안해요?)

103021 #1 아니, 세 번 네 번 매야해.(아니, 세 번 네 번 매야해.)

103021 @ 아 많이 매야한다예?(아 많이 매야하는군요?)

103021 # 1 거긴 왜 그러냐면 조 초벌 초벌로 뽑으민 다 못 뽑거든.(거긴 왜 그러냐면 조 초벌 초벌로 뽑으면 다 못 뽑거든.)

103021 @ 예.(예.)

103021 #1 뽑아근에, 뽑아근에 그 이 간격을 두려면.(뽑아서, 뽑아서 그 이 간격을 두려면.)

103021 @ 예.(예.)

103021 #1 못 뽑으니까 두 시 번 뽑아야 그게 골호로 서주게. 씨가.(못 뽑으니까 두 세 번 뽑아야 그게 골고루 서지. 씨가.)

103022 @ 그면 조밭에는 어떤 검질들이 잇어마씨?(그러면 조밭에는 어떤 검질이 잇어요?)

103022 #1 그 땀 제완제⁴⁴영 헌 거.(그 땀 바랭이라고 한 거.)
 103022 @ 아, 제완제.(아, 바랭이.)
 103022 #1 보통 제완지가 많이 나. ㄹ라지⁴⁵엔 허는 것도 있고.(보통 바랭이가 많이 나. 가라지라고 하는 것도 있고.)
 103022 @ 고라지?(가라지?)
 103022 #1 ㄹ랏, ㄹ랏(가라지, 가라지.)
 103022 @ 보리 검질이랑 다르다예?(보리 김이랑 다르군요?)
 103022 #1 달라.(달라.)
 103022 @ 아.(아.)
 103022 #1 보리는 겨울에만 나고.(보리는 겨울에만 나고.)
 103022 @ 예.(예.)
 103022 #1 겨울에만 검질 나고.(겨울에만 김 나고.)
 103022 @ 예.(예.)
 103022 #1 조는 여름에 헛주게.(조는 여름에 했지.)
 103022 @ 음.(음.)
 103022 #1 여름에 검질 나고.(여름에 김 나고.)
 103022 @ 아 경 해부난 세 네 번?(아 그렇게 해버려서 세 네 번?)
 103022 #1 어.(어.)
 103023 @ 그럼 예전에 조는 수확은 어떻 헨마씨?(그럼 예전에 조는 수확은 어떻게 했어요?)
 103023 #1 조 수확?(조 수확?)
 103023 @ 예.(예.)
 103023 #1 조 수확은 비영.(조 수확은 베어서.)
 103023 @ 예.(예.)
 103023 #1 호미로 따. 이렇게 잡으면서 문딱 뜯어 놓으면.(낫으로 따. 이렇게 잡으면서 전부 뜯어 놓으면.)
 103023 @ 예.(예.)
 103023 #1 것도 도깨질 해야 해.(것도 도리깨질 해야 해.)
 103024 @ 도깨질 해야 돼마씨? 타작은 도깨질로 하는 거마씨?(도리깨질 해야 돼요? 타작은 도리깨질로 하는 거예요?)
 103024 #1 으. 타작은 도깨질.(오. 타작은 도리깨질.)
 103025 @ 그면 좁쌀은 어떻 만들어마씨? 거기서 이제.(그러면 이제 좁쌀은 어떻게 만들어요? 거기서 이제.)
 103025 #1 좁쌀?(좁쌀?)
 103025 @ 예.(예.)

44) '제완제'는 '바랭이'의 제주어로, '제와니, 절와니, 절완지, 제환지'로도 나타난다.

45) 'ㄹ라지'는 '가라지'의 제주어로, 'ㄹ라지, ㄹ랏, ㄹ라조'로도 나타난다.

103025 #1 그 때는 방에는 많지 않았주게. 방에 가야 채우주게.(그 때는 방아는 많지 않았지. 방앗간 가야 채우지.)

103025 @ 아. 그럼 그 다음에 물방 가야 돼마씨?(아. 그럼 그 다음에 연자땀간 가야 돼요?)

103025 #1 물방 아니고 그냥 저 이 그 그제도 영 물방아도 저 그 물방에라고 잊지 않아? 보리도 거기서 거죽 벗기고.(연자매 아니고 그냥 저 이 그 그제도 이렇게 물방아도 저 그 연자땀간이라고 잊지 않아?)

103025 @ 예.(예.)

103025 #1 조도 거기서 거죽 벗기고 경 해.(조도 거기서 가죽 벗기고 그렇게 해.)

103025 @ 아, 똑같은 거마씨?(아, 똑같은 거예요?)

103025 #1 어. 똑같주게.(어. 똑같지.)

103026 @ 좁쌀로는 뭐해마씨? 이제 딱 좁쌀 가져오면.(좁쌀로는 뭐해요? 이제 딱 좁쌀 가져오면.)

103026 #1 좁쌀로는 가정 가문 풀이 엇거든.(좁쌀로는 가져서 가면 풀이 없거든.)

103026 @ 예.(예.)

103026 #1 밥을 만들면은.(밥을 만들면.)

103026 @ 예.(예.)

103026 #1 가다가 떨어져.(가다가 떨어져.)

103026 @ 예.(예.)

103026 #1 좁쌀이랑 넣으면은 같이 풀이 붙어가지고 밥이 돼주게.(좁쌀이랑 넣으면 같이 풀이 붙어가지고 밥이 되지.)

103027 @ 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조짚 있잖아예?(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조짚 있잖아요?)

103027 #1 어.(어.)

103027 @ 그건 뭘로?(그건 뭘로?)

103027 #1 조짚은 쉼, 밀 맥이주게.(조짚은 소, 말 먹이지.)

103027 @ 아, 맥여마씨?(아, 떡여요?)

103027 #1 어. 그게 쉼하고 들은 그게 양식이라.(어. 그게 소하고 말은 그게 양식이라.)

103027 @ 아, 그게 조짚마씨?(아, 그게 조짚이요?)

103027 #1 어. 조짚.(어. 조짚.)

103028 @ 그럼 처음에 조 농사는 언제 하신마씨?(그럼 처음에 조 농사는 언제 하셨어요?)

103028 #1 그것도 나와 보니까 조 농사를 하고 잇대. 언제 초담인지는 모르고. 조 농사도 씨 빠리고 나면은 이제 복삭 나면은 그거 이 부인들이 들어가서 뽑아서

하거든? 그냥 키워가지고 헛주게.(그것도 나와 보니까 조 농사를 하고 있대. 언제 처음인지는 모르고. 조 농사도 씨 뿌리고 나면 이제 많이 나면 그거 이 부인들이 들어가서 뽑아서 하거든? 그냥 키워가지고 했지.)

103028 @ 그럼 거기서 처음에는 보리 농사 하고, 이제 조 농사도 헛잖아예.(그럼 거기서 처음에는 보리 농사 하고, 이제 조 농사도 헛잖아요.)

103028 #1 응.(응.)

103028 @ 그럼 조 농사 할 때 삼촌 혼자 헛수광? 아니면 할 때 도와준 사람은 엇언마씨?(그럼 조 농사 할 때 삼촌 혼자 했습니까? 아니면 할 때 도와준 사람은 없었어요?)

103028 #1 가족계.(가족.)

103028 @ 예?(예?)

103028 #1 집에 가족, 집에서 집이 아이들.(집에 가족, 집에서 집에 아이들.)

103028 @ 아, 가족.(아, 가족.)

103028 #1 가, 가족끼리 이거 허주게.(가, 가족끼리 이거 하지.)

103028 @ 가족끼리.(가족끼리.)

103028 #1 응, 가족끼리. 가족끼리 애이들도 국민학교 이삼학년 나가면은 그것들도 들양 나가 가지고 고구마도 주워라 뭐허라 하면서. 남에 일 허는 사람 엇어.(응, 가족끼리. 가족끼리 아이들도 국민학교 이삼학년 나가면 그것들도 데리고 나가 가지고 고구마도 주워라 뭐하라 하면서. 남의 일 하는 사람 엇어.)

103028 @ 아, 기구나예. 그러면 그, 보리 농사랑 조 농사를 처음부터 같이 하신 마씨? 아니면.(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보리 농사와 조 농사를 처음부터 같이 하셨어요? 아니면.)

103028 #1 응.(응.)

103028 @ 처음부터 같이?(처음부터 같이?)

103028 #1 처음부터.(처음부터.)

103028 @ 그럼 뭐가 더 힘들거나 그런 건 없겠다예? 비슷비슷한.(그럼 뭐가 더 힘들거나 그런 건 없겠군요? 비슷비슷한.)

103028 #1 막 그땐 이렇게 손으로, 막 호미로 비었으니까.(막 그때는 이렇게 손으로, 막 낫으로 베었으니까.)

103028 @ 예.(예.)

103028 #1 힘이 많이 들주게.(힘이 많이 들지.)

103028 @ 예. 다 힘들기는 한데, 어느 게 더 힘든 건 엇지예?(예. 다 힘들기는 한데, 어느 게 더 힘든 건 없지요?)

103028 #1 그런 건 엇고. 다 마찬가지로.(그런 건 없고. 다 마찬가지.)

103028 @ 다 마찬가지.(다 마찬가지.)

103028 #1 이 뭐가 잡풀 비는 것도 마찬가지. 뭐 하여간 고구마 캐는 것도 마찬가지, 뭐. 꼭 그 일이 그 일이니까. 농촌엔 벨다른 일은 엇어.(이 뭐가 잡풀 베는 것

도 마찬가지로. 뭐 하여간 고구마 캐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 꼭 그 일이 그 일이니까. 농촌에는 별다른 일은 없어.)

103028 @ 그럼 조 농사 할 때도 가족끼리 많이 도와주고. 할머니가 많이 도와줬겠냐?(그럼 조 농사 할 때도 가족끼리 많이 도와주고. 할머니가 많이 도와줬겠군요?)

103028 #1 응. 어머니 잇엇주게.(응. 어머니 있었지.)

103028 @ 아, 어머니 잇언마씨? 그때는?(아, 어머니 있었어요? 그때는?)

103028 #1 어머니 잇엇다가 돌아간 지 한 삼십 년.(어머니 있었다가 돌아간 지 한 삼십 년.)

103028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콩 농사

103029 @ 그럼 어르신, 그 콩 농사도 하셧마씨?(그럼 어르신, 그 콩 농사도 하셨어요?)

103029 #1 어?(어?)

103029 @ 콩, 콩 농사(콩, 콩 농사.)

103029 #1 콩, 콩도 허주게.(콩, 콩도 하지.)

103029 @ 아, 그럼 콩 농사는 뭐 준비해야 됩마씨?(아, 그러면 콩 농사는 뭐 준비해야 되요?)

103029 #1 콩 농사는 벨루 준비할 거 잇어. 콩씨만 준비허면은.(콩 농사는 별로 준비할 거 없어. 콩씨만 준비하면.)

103030 @ 아, 그럼 콩은 언제 갈아마씨?(아, 그러면 콩은 언제 갈아요?)

103030 #1 콩은 유월 달에.(콩은 유월 달에.)

103030 @ 유월?(유월?)

103030 #1 어.(어.)

103030 @ 그럼 조도 유월마씨?(그럼 조도 유월요?)

103030 #1 그렇지.(그렇지.)

103030 @ 아, 그럼 조는 밧 농사행 그 다음에.(아, 그럼 조는 밧 농사해서 그 다음에.)

103030 #1 어. 조허고 콩허고 같이 허는 거니깐.(어. 조하고 콩하고 같이 하는 거니깐.)

103030 @ 아, 조하고 콩이랑.(아, 조하고 콩이랑.)

103030 #1 어.(어.)

103031 @ 그럼 콩밭에는 거름 뭐, 뭐 뿌련마씨?(그럼 콩밭에는 거름 뭐, 뭐 뿌렸어요?)

103031 #1 콩밭에는 걸름 잇어.(콩밭에는 거름 없어.)

103031 @ 보리 농사 다행 이제 조랑 콩 들 중에 하나 하는 거지예?(보리 농사

다해서 이제 조랑 콩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지요?)

103031 #1 어.(어.)

103031 @ 그럼 보리 농사 행 남은 거 다 거름되는 거 아니마씨? 아닌가?(그럼 보리 농사 해서 남은 거 다 거름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103031 #1 아니, 보리 헤영 그 남은 거 걸름으로(아니, 보리 해서 그 남은 거 거름으로)

103031 @ 예.(예.)

103031 #1 그건 보리 허기가 바빠.(그건 보리 하기가 바빠.)

103031 @ 아.(아.)

103031 #1 보리, 보리가 걸름이 들어야 보리가 돼주게.(보리, 보리가 거름이 들어야 보리가 되지.)

103031 @ 예.(예.)

103031 #1 탄 거 탄 거 콩, 조 같은 거는 그렇게 이 걸름을 탐내지 않주게.(다른 거 다른 거 콩, 조 같은 거는 그렇게 이 거름을 탐내지 않지.)

103031 @ 음.(음.)

103031 #1 그건 걸름 엷어도 크니깐.(그건 거름 없어도 크니깐.)

103031 @ 예.(예.)

103031 #1 보리는 걸름 엷이든 안 되여.(보리는 거름 없으면 안 돼.)

103031 @ 아, 조나 콩은 거름 엷어도 되니깐.(아, 조나 콩은 거름 없어도 되니깐.)

103031 #1 어.(어.)

103032 @ 그면 콩씨는, 콩씨는 어떻 뿌려마씨?(그러면 콩씨는, 콩씨는 어떻게 뿌려요?)

103032 #1 콩씨?(콩씨?)

103032 @ 예.(예.)

103032 #1 콩씨. 손으로. 똑같어.(콩씨? 손으로, 똑같아.)

103033 @ 그럼 콩씨는 김매기는 몇 번 헤마씨?(그럼 콩씨는 김매기는 몇 번 해요?)

103033 #1 한 번. 두 번.(한 번. 두 번.)

103033 @ 아. 콩씨는. 이거는 세 네 번 안 헤마씨?(아. 콩씨는. 이거는 세 네 번 안 해요?)

103033 #1 응?(응?)

103033 @ 그 아까 조는 세 번 네 번 헛잖아예?(그 아까 조는 세 번 네 번 헛잖아요?)

103033 #1 응.(응.)

103033 @ 콩은?(콩은?)

103033 #1 경 안 허여. 콩은 검질만 매는 거고.(그렇게 안 해. 콩은 김만 매는

거고.)

103033 @ 예.(예.)

103033 #1 조는 그 이렇게 복삭 난 데가 잇거든. 그거는 이렇게 간격 주면서 허거든.(조는 그 이렇게 많이 난 데가 잇거든, 그거는 이렇게 간격 주면서 하거든.)

103034 @ 그럼 콩밭에서는 어떤 검질들이 나와마씨?(그럼 콩밭에서는 어떤 검들이 나와요?)

103034 #1 응?(응?)

103034 @ 콩밭, 콩밭에는 검질들 어떤 거 잇어마씨?(콩밭, 콩밭에는 검들 어떤 거 잇어요?)

103034 #1 콩밭에도 마찬가지로. 제완제 같은 거.(콩밭에도 마찬가지로. 바랭이 같은 거.)

103034 @ 아, 콩밭에도 제완제가 제일 많아마씨?(아. 콩밭에도 바랭이가 제일 많아요?)

103034 #1 제완제가 제일 많이 나누게. 콩밭에나 저 저 이 여름 농사에는. 산디도 잇고.(바랭이가 제일 많이 나지. 콩밭에나 저 저 이 여름 농사에는. 밭벼도 잇고.)

103035 @ 그럼 예전에 콩 수확은 어떻게 하션마씨?(그럼 예전에 콩 수확은 어떻게 하셨어요?)

103035 #1 예전에?(예전에?)

103035 @ 예.(예.)

103035 #1 그거 콩 수확도 그것도 비여근엥 이제.(그거 콩 수확도 그것도 베어서 이제.)

103035 @ 예.(예.)

103035 #1 묶어서 집에 가져가서 타작해야 돼.(묶어서 집에 가져가서 타작해야 돼.)

103035 @ 그럼 콩으로는 좀 타작하면 끝나는 거마씨? 타작하면 콩 나와마씨?(그럼 콩으로는 좀 타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타작하면 콩 나와요?)

103035 #1 그렇지.(그렇지.)

103035 @ 아.(아.)

103035 #1 타작하면 경 안 허민 이 도깨질로 때리면은.(타작하면 그렇게 안 하면 이 도리깨질로 때리면.)

103035 @ 예.(예.)

103035 #1 콩은 콩대로, 콩대는 대 대로 허주게.(콩은 콩대로, 콩대는 대 대로 하지.)

103035 @ 음.(음.)

103035 #1 탁탁 털면서 내쳤다가 그것도 뭔가 풀을 때던지. 그 때는 이 뭔가 장작 굶은 것도 벨루 엇엇주게. 콩대 것도 쉼 뻘이면 쉼도 뻘이고.(탁탁 털면서 내쳤

다가 그것도 뭔가 풀을 때던지. 그 때는 이 뭔가 장작 같은 것도 별로 없었지. 콩대
것도 소 먹이면 소도 먹이고.)

103036 @ 그럼 콩으로는 보통 뭐 하신마씨? 딱 수확하면.(그럼 콩으로는 보통
뭐 하셨어요? 딱 수확하면.)

103036 #1 수확하면 콩? 죽 쑤어 먹주게.(수확하면 콩? 죽 쑤어 먹지.)

103036 @ 죽 쑤어 먹어마씨?(죽 쑤어 먹어요?)

103036 #1 누구 끝지 않아서 그 날 밥 먹기가 바쁘디.(누구 같지 않아서 그 날
밥 먹기가 바쁘네.)

103036 @ 메주나 뭐 그 웬장은 안해마씨?(메주나 뭐 그 된장은 안해요?)

103036 #1 왜 안 하여. 그걸로 메주도 허고, 된장이 그 메주에서 나오는 거주
게.(왜 안 해. 그걸로 메주도 하고, 된장이 그 메주에서 나오는 거지.)

103036 @ 음.(음.)

103036 #1 거기서 간장도 거기서 나오고.(거기서 간장도 거기서 나오고.)

103037 @ 콩행 남은 콩짚 있잖아예?(콩해서 남은 콩짚 있잖아요?)

103037 #1 응?(응?)

103037 @ 콩짚, 콩짚은 예전에 뭘로 쓰신마씨?(콩짚, 콩짚은 예전에 뭘로 쓰셨
어요?)

103037 #1 콩찍은 거 나무 콩 대가리로 쉼도 맥이고 아까 근지 안했어.(콩짚은
거 나무 콩 대가리로 소도 먹이고 아까 말하지 안했어.)

103037 @ 아, 조랑 똑같아마씨?(아, 조랑 똑같아요?)

103037 #1 어 쉼, 쉼도 맥이고, 불도 때고.(어 소, 소도 먹이고, 불도 때고.)

103037 @ 불도 때마씨?(불도 때요?)

103037 #1 어. 불도 때주게.(어. 불도 때지.)

103037 @ 아, 그럼 아까 조짚도 쉼 맥이고. 경 해마씨?(아, 그럼 아까 조짚도
소 먹이고. 그렇게 해요?)

103037 #1 어. 조짚도 콩도 쉼 맥여.(어. 조짚도 콩도 소 먹여.)

103038 @ 콩 농사할 때 추억이나 경험 곱아 줘서.(콩 농사할 때 추억이나 경험
얘기해 주십시오.)

103038 #1 추억?(추억?)

103038 @ 예.(예.)

103038 #1 그런 거 벨로 다를 게 엇언.(그런 거 벨로 다를 게 없었어.)

103038 @ 그럼 콩 농사 하면서 재미있던 경험들도 엇언마씨?(그럼 콩 농사 하
면서 재미있던 경험들도 없었어요?)

103038 #1 콩 농사도 벨로 재미난 거 엇언. 왜 그러냐면은 그냥 그 지금 보리
클⁴⁶⁾에 콩 갈거든? 콩 갈앙 뿌리면은 콩이 나면 잘 익으면 손으로 그걸 꺾어서 뭘
가 장만하면은 그게 콩이 나오거든. 벨다른 거 엇어.(콩 농사도 벨로 재미난 거 없

46) '보리클'은 보리를 떠는 농기구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었어. 왜 그러냐면 그냥 그 지금 ‘보리쿨’에 콩 같거든? 콩 갈아서 뿌리면 콩이 나면 잘 익으면 손으로 그걸 꺾어서 뭔가 장만하면 그게 콩이 나오거든. 별다른 거 없어.)

103038 @ 콩 농사는 그럼 언제부터 하신마씨?(콩 농사는 그럼 언제부터 하셨어요?)

103038 #1 콩 농사?(콩 농사?)

103038 @ 예.(예.)

103038 #1 콩 농사는 나는 그게, 그게 잡곡으로 들어가주게.(콩 농사는 나는 그게, 그게 잡곡으로 들어가지.)

103038 @ 예.(예.)

103038 #1 콩이나 보리나 조나 잡곡으로 들어가.(콩이나 보리나 조나 잡곡으로 들어가.)

103038 @ 예.(예.)

103038 #1 그러니까 감자, 고구마 할 때 그 콩 농, 콩 농사가 같이 들어가주게.(그러니까 감자, 고구마 할 때 그 콩 농, 콩 농사가 같이 들어가지.)

103038 @ 보통 보리 간 다음에 그 콩 하잖아예?(보통 보리 간 다음에 그 콩 하잖아요?)

103038 #1 보리 간 다음에, 보리 행 다음에 그때 콩이 허주게.(보리 간 다음에, 보리 해서 다음에 그때 콩이 하지.)

103038 @ 예, 그믐.(예. 그러면.)

103038 #1 보리 행 다음에 그때, 고구마도 심그곡.(보리 해서 다음에 그때, 고구마도 심고.)

103038 @ 그럼 보리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콩만 허는 게 아니라 콩도 허고 고구마도 허고.(그럼 보리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콩만 하는 게 아니라 콩도 하고 고구마도 하고.)

103038 #1 고구마도 허고.(고구마도 하고.)

103038 @ 뭐 다른 거.(뭐 다른 거.)

103038 #1 조도 허고.(조도 하고.)

103038 @ 아, 조도 허고.(아, 조도 하고.)

103038 #1 어.(어.)

103038 @ 아아.(아아.)

103038 #1 나록, 그때 나록은 엇엇거든. 산디도, 산디 같은 것도 허고.(벼, 그때 벼는 없엇거든. 밭벼도, 밭벼 같은 것도 하고.)

103038 @ 산디 같은 거 하고.(밭벼 같은 거 하고.)

103038 #1 산디는 많이 못 했어.(밭벼는 많이 못 했어.)

103038 @ 아아.(아아.)

103038 #1 먹기가 귀해 놓으니까.(먹기가 귀해 놓으니까.)

103038 @ 예.(예.)

103038 #1 탄 농사를 많이 지어 가지고.(다른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103038 @ 예.(예.)

103038 #1 먹어야 될 거니까.(먹어야 될 거니까.)

103038 @ 그럼 밭이 한 개 있으면 보리 농사 전부 다 한 다음에.(그럼 밭이 한 개 있으면 보리 농사 전부 다 한 다음에.)

103038 #1 응.(응.)

103038 @ 그다음에 보리 다 간 다음에 산디나 콩이나 고구마나 조금씩 하선마 씨?(그다음에 보리 다 간 다음에 밭벼나 콩이나 고구마나 조금씩 하셨어요?)

103038 #1 그거 허영 밭 갈아 가지고 거두어 들면은.(그거 해서 밭 갈아 가지고 거두어 들면.)

103038 @ 예.(예.)

103038 #1 콩 갈 사람은 콩 갈고, 또 산디 헐 사람은 산디 헐고, 조 헐 사람은 조 헐고, 이렇게 해주게.(콩 갈 사람은 콩 갈고, 또 밭벼 할 사람은 밭벼 하고, 조 할 사람은 조 하고, 이렇게 하지.)

103038 @ 삼촌은 그럼 뭐 더 많이 하선마씨? 똑같이 조금씩 하선마씨?(삼촌은 그럼 뭐 더 많이 하셨어요? 똑같이 조금씩 하셨어요?)

103038 #1 똑같은 거, 그 당시 나오는 거야 고구마가 제일 많이 했지.(똑같은 거, 그 당시 나오는 거야 고구마가 제일 많이 했지.)

103038 @ 아, 고구마가 제일 많안마씨?(아, 고구마가 제일 많았어요?)

103038 #1 고구마가 제주시에 그, 풀 공장이 있어났어.(고구마가 제주시에 그, 풀 공장이 있었어.)

103038 @ 예.(예.)

103038 #1 잇었지.(있었지.)

103038 @ 예.(예.)

103038 #1 그때 곶은 건데.(그때 말한 건데.)

103038 @ 예.(예.)

103038 #1 거기서 받기 때문에 고구마가 많이 했어. 고구마 많이 해야, 많이 팔아야 돈이 나오니까.(거기서 받기 때문에 고구마가 많이 했어. 고구마 많이 해야, 많이 팔아야 돈이 나오니까.)

103038 @ 아, 그러니까.(아, 그러니까.)

103038 #1 탄 거는 이, 보리 곶은 거, 조 곶은 거 사가는 버릇 었었어.(다른 거는 이, 보리 같은 거, 조 같은 거 사가는 버릇 없었어.)

103038 @ 먹을 만큼만 그때는?(먹을 만큼만 그때는?)

103038 #1 먹을 만큼보단도.(먹을 만큼보다도.)

103038 @ 예.(예.)

103038 #1 그땐 조합이 었었거든. 아무것도. 조합, 조합 었었어.(그때는 조합이

없었거든. 아무것도. 조합, 조합 없었어.)

103038 @ 조합은 그럼 언제 만들었주마씨? 대략?(조합은 그럼 언제 만들었지요? 대략?)

103038 #1 조합이, 조합이 그거는.(조합이, 조합이 그거는.)

103038 @ 예.(예.)

103038 #1 언제 태어났는지 그거는 몰라.(언제 태어났는지 그거는 몰라.)

103038 @ 아.(아.)

103038 #1 나 낳기. 난 후에 나오긴 나왔는데.(나 낳기. 난 후에 나오기는 나왔는데.)

103038 @ 예. 그럼 한장동에도 그런 조합 같은 거.(예. 그럼 ‘한장동’에도 그런 조합 같은 거.)

103038 #1 조합 같은 건 없고. 고산에서 구하니까. 고산에서 이거 일이주게. 이 건에도 일리라.(조합 같은 건 없고. ‘고산’에서 구하니까. ‘고산’에서 이거 일이지. 이 건에도 일리야.)

103038 @ 고산 일리주마씨.(‘고산’ 일리지요.)

밭벼 농사

103039 @ 그럼 어르신 벼, 밭벼, 밭벼 농사도 하신마씨?(그럼 어르신 벼, 밭벼, 밭벼 농사도 하셨어요?)

103039 #1 그 때는 밭벼 농사는 었었어.(그 때는 밭벼 농사는 없었어.)

103039 @ 밭벼 농사 었언마씨?(밭벼 농사 없었어요?)

103039 #1 논밭기.(논밭에.)

103039 @ 아, 논밭에.(아, 논밭에.)

103039 #1 어. 논밭기. 논도 쪼만한 냇고랑창이⁴⁷⁾에 그냥 그 물 들어가는 다만.(어. 논밭에. 논도 쪼그만한 ‘냇고랑창이’에 그냥 그 물 들어가는 데만.)

103039 @ 음.(음.)

103039 #1 비왕 내 내리면 물이 밭에 좀 들어가주게.(비와서 내 내리면 물이 밭에 좀 들어가지.)

103039 @ 예.(예.)

103039 #1 들어가는데 그되가 논이주게. 논밭이라고.(들어가는데 거기가 논이지. 논밭이라고.)

103039 @ 아, 논밭마씨. 그럼 밭벼 농사는 고산에서 안하신마씨?(아, 논밭이요. 그럼 밭벼 농사는 ‘고산’에서 안하셨어요?)

103039 #1 그 때는 안했어.(그 때는 안했어.)

103039 @ 그럼 어르신은 한 적은 잇어마씨? 어르신?(그럼 어르신은 한 적은 있어요? 어르신?)

47) 내(川)에 우뚝하게 패인 고랑창의 제주어이다. = 냇고랑챙이, 냇골챙이, 냇고랑치

103039 #1 응?(응?)

103039 @ 그럼 밭벼 농사 하신 적은 잇어마씨?(그럼 밭벼 농사 하신 적은 잇어
요?)

103039 #1 밭에?(밭에?)

103039 @ 아, 밭벼 농사마씨. 밭벼 농사.(아, 밭벼 농사요. 밭벼 농사.)

103039 #1 요 저기 지금 밭벼 농사꺼지 끝났주게.(요 저기 지금 밭벼 농사까지
끝났지.)

103039 @ 그럼 밭벼 농사는 언제하셧마씨?(그럼 밭벼 농사는 언제하셧어요?)

103039 #1 그건 나온 지가 얼마 오래지 안 했어. 이거는 밭벼 나온 지가 한 이
십년쯤 됐어.(그건 나온 지가 얼마 오래지 안 했어. 이거는 밭벼 나온 지가 한 이십
년쯤 됐어.)

103039 @ 그럼 밭벼 농사 하려면 뭐, 뭐 필요헤마씨? 준비하려면.(그럼 밭벼 농
사 하려면 뭐, 뭐 필요헤요? 준비하려면.)

103039 #1 밭벼 농사 여기 요즈음에 요즘 나온 거?(밭벼 농사 여기 요즈음에 요
즘 나온 거?)

103039 @ 예.(예.)

103039 #1 요즘 나온 거야 뭐 벨거 었어. 그건 수월허여.(요즘 나온 거야 뭐 벨
거 었어. 그건 수월해.)

103039 @ 수월헤마씨? 그럼 어르신 해 보신 적 잇우광?(수월해? 그럼 어르신
해 보신 적 잇습니까?)

103039 #1 그렇지.(그렇지.)

103040 @ 그럼 그 밭벼 농사는 어떻 헤마씨?(그럼 그 밭벼 농사는 어떻게 해
요?)

103040 #1 그건 수월허여. 그건 그냥 씨 뿌려가지고. 지금 기계가 나오니까 기
계가 싹 들르면은. 초담은 거 냇물 옛날은 내라고 했거든 또랑을. 그 물을 그 논 데
로 담아지면 그걸 갈아서 이제 쉼로 눈을 편편히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일일이 손
으로 심었거든. 나록을 빵아서 하나하나 심어주면은 그거 장성하거든. 커. 크면은
그게 나록이 되는 거주게.(그건 수월해. 그건 그냥 씨 뿌려가지고. 지금 기계가 나
오니까 기계가 싹 들면. 처음에는 거 냇물 옛날은 내라고 했거든 또랑을. 그 물을
그 논 데로 담으면 그걸 갈아서 이제 소로 눈을 편편히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일
일이 손으로 심었거든. 벼를 빵아서 하나하나 심어주면 그거 장성하거든. 커. 크면
그게 벼가 되는 거지.)

103040 @ 예.(예.)

103040 #1 게면 나면은 그냥 검질이나 매러 덩기고. 그러지 뭐.(그러면 나면 그
냥 김이나 매러 다니고. 그러지 뭐.)

103040 @ 그럼 밭벼 농사 예전에는 그럼 밭벼 농사 말앙 뭐 했우광? 예전에는
안헨마씨?(그럼 밭벼 농사 예전에는 그럼 밭벼 농사 말고 뭐 했습니까? 예전에는

안했어요?)

103040 #1 안했어.(안했어.)

103041 @ 그럼 밧벼 키울 때도 거름 쓰잖아예?(그럼 밧벼 키울 때도 거름 쓰잖아요?)

103041 #1 밧벼에는 걸름 었어.(밧벼에는 거름 없어.)

103041 @ 아무 것도 안 써마씨?(아무 것도 안 써요?)

103041 #1 밧벼에는 걸름 었어. 밧벼에는 걸름 었고 나면은 크면은 밧에 가.(밧벼에는 거름 없어. 밧벼에는 거름 없고 나면 크면 밧에 가.)

103041 @ 예.(예.)

103041 #1 쓰러지면 안 돼거든 뿔구가 많으니깐.(쓰러지면 안 되거든 뿔구가 많으니깐.)

103041 @ 예.(예.)

103041 #1 뿔구약을 줄라면은 좀 골치 아프니까 쓰러지지 않도록 해야주게. 막 크면은 이만큼 크면은.(뿔구약을 주려면 좀 골치 아프니까 쓰러지지 않도록 해야지. 막 크면 이만큼 크면.)

103042 @ 밧벼씨는 어떻 뿌려마씨?(밧벼씨는 어떻게 뿌려요?)

103042 #1 그냥 사람 손으로 뿌리주게. 이렇게.(그냥 사람 손으로 뿌리지. 이렇게.)

103042 @ 기계 같은 거는 안 쓰션마씨?(기계 같은 거는 안 쓰셨어요?)

103042 #1 기계. 이제 현재는 기계지. 그 때는 기계가 었었주게. 뭐 기계로 뿌리는 게 몇 년 안됐거든. 불과 한 칠, 팔 년 돼신가?(기계. 이제 현재는 기계지. 그 때는 기계가 없었지. 뭐 기계로 뿌리는 게 몇 년 안됐거든. 불과 한 칠, 팔 년 되신가?)

103043 @ 그럼 밧벼 검질은 몇 번 매마씨?(그럼 밧벼 김은 몇 번 매요?)

103043 #1 세 번 매야 밧벼라고 허주게.(세 번 매야 밧벼라고 하지.)

103043 @ 그럼 언제, 언제 세 번 매마씨?(그럼 언제, 언제 세 번 매요?)

103043 #1 나룩 커가지고 요만큼 한 때 혼 번. 또 요만이 허면 두 번. 또 요만이 허면 굽영 텅기면서 매면은 그게 마지막이니까 막풀맨다고.(벼 커가지고 요만큼 한 때 한 번. 또 요만이 허면 두 번. 또 요만이 허면 굽어서 다니면서 매면 그게 마지막이니까 막풀맨다고.)

103044 @ 그럼 밧벼 밧에는 검질들 뭐 잇어마씨?(그럼 밧벼 밧에는 김이 뭐 있어요?)

103044 #1 밧벼에 검질이야 안 나는 검질 었지. 나는 거 다 나지.(밧벼에 김이야 안 나는 김 없지. 나는 거 다 나지.)

103044 @ 그럼 어떤 것들 잇언마씨?(그럼 어떤 것들 있었어요?)

103044 #1 뭐 제완지 같은 거나 잡풀들 나면 그거 부인들이 전부 매어.(뭐 바랭이 같은 거나 잡풀들 나면 그거 부인들이 전부 매.)

103045 @ 그럼 밧벼 수확하는 거 얘기해 줘서.(그럼 밧벼 수확하는 거 얘기해 주십시오.)

103045 #1 수확하는 거?(수확하는 거?)

103045 @ 예.(예.)

103045 #1 이 뭔가 이 나뭇이 익으면.(이 뭔가 이 벼가 익으면.)

103045 @ 예.(예.)

103045 #1 익으면 이제 사람들이 호미로 그 벼를 나뭇 비거든.(익으면 이제 사람들이 낫으로 그 벼를 벼 베거든.)

103045 @ 예.(예.)

103045 #1 비면은 이제 묶어근엥 한 군데에 데며놔.(베면 이제 묶어서 묶어서 한 군데에 쌓아놔.)

103045 @ 데며놔마씨?(쌓아놔요?)

103045 #1 어. 게면 옛날은 나뭇 일으켜 저 쌀 흘트는 기계가 있었어.(어. 그러면 옛날은 벼 일으켜서 저 쌀 훑는 기계가 있었어.)

103045 @ 예.(예.)

103045 #1 밧 이리 들고 이리 들고 현 게. 초담 나올 때 그거 허여. 옛날부터 나온 게 그것에서 현 사람은 아자서 그거 떼어서 이렇게 이 한 줌 허면.(밧 이리 들고 이리 들고 한 게. 처음 나올 때 그거 해. 옛날부터 나온 게 그것에서 한 사람은 앉아서 그거 떼어서 이렇게 이 한 줌 하면.)

103045 @ 예.(예.)

103045 #1 또 거기 선 사람은 그걸 흘타. 그걸 흘튼다고 허여. 나뭇 흘튼다고. 흘트면은 짝은 일로 내치고 또 자꾸 그걸 받으면서 나뭇 흘타불면은. 이제 문딱 하면은 이제 그것을 불러 현 번.(또 거기 선 사람은 그걸 훑아. 그걸 훑는다고 해. 벼 훑는다고. 훑으면 짝은 여기로 내치고 또 자꾸 그걸 받으면서 벼 훑아버리면. 이제 전부 하면 이제 그것을 밟아 한 번.)

103045 @ 예.(예.)

103045 #1 불리면은 그거 나뭇에 뭐 도깨질이나 뭐 헐 건 엇거든. 이런 쌀로만 이렇게 흘타 진 거니까. 이 알맹이만 떨어지니까. 이제 그것을 널어.(밟으면 그거 벼에 뭐 도리깨질이나 뭐 할 건 없거든. 이런 쌀로만 이렇게 훑아 지는 거니까. 이 알맹이만 떨어지니까. 이제 그것을 널어.)

103045 @ 예.(예.)

103045 #1 널면은 돼. 마당이라 허거든 이게. 옛날도 마당 현재도 마당이라 허지만 마당에 가빠나 명석 그때는 가빠도 엇엇거든. 명석에 널어서 물러가지고 그걸 어디다 어디 가서 쌀을 만드냐면 돌방에라고 허거든. 내 굴아졌지?(널면 돼. 마당이라 허거든 이게. 옛날도 마당 현재도 마당이라 허지만 마당에 가빠나 명석 그때는 가빠도 없엇거든. 명석에 널어 말려가지고 그걸 어디다 어디 가서 쌀을 만드냐면 연자맷간이라고 허거든. 내 말해졌지?)

103045 @ 예.(예.)

103045 #1 방에 방에서 그것을 뱅뱅 돌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것에 이제 찍어서 쌀이 나오거든.(방아 방아에서 그것을 뱅뱅 말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것에 이제 찍어서 쌀이 나오거든.)

103046 @ 그럼 밥벼 쌀로는 주로 뭐해서 드션마씨?(그럼 밥벼 쌀로는 주로 뭐해서 드셨어요?)

103046 #1 밧벼, 쌀로?(밭벼, 쌀로?)

103046 @ 예. 쌀로.(예. 쌀로.)

103046 #1 쌀로 보통 큰 일 때는 부주. 이 결혼식 때. 결혼식 때나 또 이 저 영장 난 때나 그거 보탸어. 씨라고 저 요만한 뉘로 두 뉘 어. 또 진죽은 한 말. 네 개가 한 말이거든.(쌀로 보통 큰 일 때는 부주. 이 결혼식 때. 결혼식 때나 또 이 저 초상 난 때나 그거 보탸어. 씨라고 저 요만한 뉘로 두 뉘 어. 또 진죽은 한 말. 네 개가 한 말이거든.)

103046 @ 네 개가 한 말마씨?(네 개가 한 말이에요?)

103046 #1 어. 네 개가 한 말이거든. 그걸 이젠 큰일 치른 집들에 그걸 쥐. 나락을 해가지고 그것을 주면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잔치도 허고 영장도 허고 그러지.(어. 네 개가 한 말이거든. 그걸 이젠 큰일 치른 집들에 그걸 쥐. 벼를 해가지고 그것을 주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잔치도 하고 장사도 하고 그러지.)

103046 @ 밥이나 떡도 해 먹지예?(밥이나 떡도 해 먹지요?)

103046 #1 어. 떡도 해 먹고. 밥도 해 먹어. 그때는 옛날은 그게 하도 귀한 쌀이거든. 쌀이라는 게 곤밥 곤밥 현단 말이여.(어. 떡도 해 먹고, 밥도 해 먹어. 그 때는 옛날은 그게 하도 귀한 쌀이거든. 쌀이라는 게 쌀밥 쌀밥 한다 말이야.)

103046 @ 예.(예.)

103046 #1 옛날은 곤밥. 곤밥인디 곤밥 먹젠 하면은 힘들어. 일년에 두 번밖에 멩질 때. 팔월 멩질이랑 정월 멩질이랑 두 번. 또 제사나 잇으면 제사나 한두 번 할 때 그때나밖에 곤밥을 못 얻어먹어.(옛날은 쌀밥. 쌀밥인데 쌀밥 먹으려 하면 힘들어. 일년에 두 번밖에 멩질 때. 팔월 멩질이랑 정월 멩질이랑 두 번. 또 제사나 잇으면 제사나 한두 번 할 때 그때나밖에 쌀밥을 못 얻어먹어.)

103047 @ 그럼 밧벼쩍 남으면 그거로는 뭐해마씨?(그럼 밧벼짚 남으면 그거로는 뭐해요?)

103047 #1 그거는? 그걸로는 쉼도 맥이고 쉼 이 썰어가지고 작두로 썰어가지고 이제 이 보리쩍, 등개⁴⁸⁾ 가루 그런 거 있으면은 섞여가지고.(그거는? 그거로는 소도 먹이고 소 이 썰어가지고 작두로 썰어가지고 이제 이 보릿짚, 등개 가루 그런 거 있으면 섞여가지고.)

103047 @ 등개 가루가 뭐마씨?(등개 가루가 뭐예요?)

103047 #1 보리 찼으면 보리 이제 방에 찼을 거 아니냐. 찼으면 그 거기서 나락

48) '등개'는 정미소에서 보리를 도정할 때 나오는 찌꺼기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등게.

나오지 않으나. 꺾데기 벗겨지믄.(보리 쪼으면 보리 이제 방아에 쪼을 거 아니냐. 쪼으면 그 거기서 벼 나오지 않으나. 꺾데기 벗겨지면.)

103047 @ 예.(예.)

103047 #1 그거 섞어가지고 주는 게 그게 쇠의 주식이라.(그거 섞어가지고 주는 게 그게 소의 주식이라.)

103048 @ 삼촌도 예전에 밭벼 농사 하셨지예?(삼촌도 예전에 밭벼 농사 하셨지요?)

103048 #1 밭벼도 허고 논벼도 허고. 험다는 거 놈 험다는 거 다 해봤어.(밭벼도 하고 논벼도 하고. 한다는 거 놈 한다는 거 다 해봤어.)

103048 @ 그럼 밭벼랑 논벼 할 때 다른 거 있어마씨?(그럼 밭벼랑 논벼 할 때 다른 거 있어요?)

103048 #1 밭벼야 논벼는 허기가 좀 힘들지 논벼는. 그게 사람 손으로 일일이 심으니깐. 밭벼는 씨만 뿌려가지고 기계로 한 번 싹 참 그때는 뭔가 쉼로라도 같았다가 불리면은 마는 거지만은. 그게 아니면은 논에서는 힘들었어.(밭벼야 논벼는 허기가 좀 힘들지 논벼는. 그게 사람 손으로 일일이 심으니깐. 밭벼는 씨만 뿌려가지고 기계로 한 번 싹 참 그때는 뭔가 소로라도 같았다가 밟으면 마는 거지만. 그게 아니면 논에서는 힘들었어.)

고구마 농사

103049 @ 어르신, 고구마 농사에는 뭐 필요해마씨?(어르신, 고구마 농사에는 뭐 필요해요?)

103049 #1 고구마?(고구마?)

103049 @ 예.(예.)

103049 #1 고구마 농사 준비허는 게 종자.(고구마 농사 준비하는 게 종자.)

103049 @ 종자?(종자?)

103049 #1 어. 종자가 많이 썩어버리지 놔두면.(어. 종자가 많이 썩어버리지 놔두면.)

103050 @ 그럼 고구마는 언제 언제 갈아마씨?(그럼 고구마는 언제 언제 갈아요?)

103050 #1 저 심는 게?(저 심는 게?)

103050 @ 예.(예.)

103050 #1 심는 게 것도 보리 끝나믄 심으니깐.(심는 게 것도 보리 끝나면 심으니깐.)

103050 @ 아, 우선 보리는 허고?(아, 우선 보리는 하고?)

103050 #1 어.(어.)

103050 @ 그럼 그 다음에 조나 콩이나 헛구나예?(그럼 그 다음에 조나 콩이나 했군요?)

103050 #1 어.(어.)

103051 @ 그럼 고구마도 거름은 뭐 어떻?(그럼 고구마도 거름은 뭐 어떻게?)

103051 #1 엇어 것도.(엇어 것도.)

103052 @ 그러면 어떻 어떻 심어마씨? 고구마는?(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심어요? 고구마는?)

103052 #1 그냥 이렇게 갈아 놔가지고. 고지⁴⁹엔 현 게 있어.(그냥 이렇게 갈아 놔가지고. 이랑이라고 한 게 있어.)

103052 @ 예.(예.)

103052 #1 한 고지에 낱. 그냥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똑똑 찢러 나가주게.(한 이랑에 놔서. 그냥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똑똑 찢러 나가지.)

103052 @ 한 고지에 한 몇 개 심어마씨?(한 이랑에 한 몇 개 심어요?)

103052 #1 한 고지에 몇 개 심는지 그거 알아져? 요만씩 잘라서 심엉 한 오십 메다 이상 나가니깐.(한 이랑에 몇 개 심는지 그거 알아져? 요만씩 잘라서 심어서 한 오십 미터 이상 나가니깐.)

103052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3052 #1 응.(응.)

103053 @ 그럼 고구마 밭에서는 김매기는 몇 번 헤마씨?(그럼 고구마 밭에서는 김매기는 몇 번 해요?)

103053 #1 고구마 밭에는 김매기 김매기 벨루 엇어.(고구마 밭에는 김매기 김매기 별로 엇어.)

103053 @ 아.(아.)

103053 #1 왜 그러냐면 추위 나가지고 더꺼져 버리니깐 풀이 경 안나주게.(왜 그러냐면 추위 나가지고 덮어져 버리니까 풀이 그렇게 안나지.)

103053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3053 #1 어.(어.)

103054 @ 그럼 검질들도 별로 나는 거 엇어마씨?(그럼 김들도 별로 나는 거 없어요?)

103054 #1 그 검질도 잘 엇고.(그 김들도 잘 없고.)

103054 @ 아, 그나마 있는 게 뭐 남아 있는 게?(아, 그나마 있는 게 뭐 남아 있는 게?)

103054 #1 남아 있는 게 제완지.(남아 있는 게 바랭이.)

103054 @ 아, 제완지. 그건 다 있다예?(아, 바랭이. 그건 다 있군요?)

103054 #1 어. 다 있어. 남아 있는 거 벌레⁵⁰ 벌레라고 허주게.(어. 다 있어. 남아 있는 게 ‘벌레’ ‘벌레’라고 하지.)

103054 #1 예.(예.)

49) ‘고지’는 ‘이랑’의 제주어로, 한 두둑과 그에 따른 고랑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밭파니, 파니.

50) ‘벌레’는 밭을 갈 적에 일어나는 엉클어진 풀포기, 한 번 매어졌다가 다시 엉켜 붙은 풀포기를 말하는 제주어이다. = 벌레기, 벌헤기

103054 @ 고구마 심어가지고 저 갈면은 트명에 풀이 그냥 아니 묻어진 게 있어. 이거 같아도. 그게 벌레라고 허주게.(고구마 심어가지고 저 갈면 트에 풀이 그냥 안 묻어진 게 있어. 이거 같아도. 그게 ‘벌레’라고 하지.)

103054 @ 예.(예.)

103054 #1 벌레 그거 고구마 심어 놔근엔 이만씩 크면은 그거 돌아다니면서 메블주게.(‘벌레’ 그거 고구마 심어 놔가지고 이만씩 크면 그거 돌아다니면서 메버리지.)

103055 @ 그럼 고구마 수확은 어떻 헤마씨? 어르신?(그럼 고구마 수확은 어떻게 해요? 어르신?)

103055 #1 수확 수확은?(수확 수확은?)

103055 @ 예. 다 나오면 이제 어떻?(예. 다 나오면 이제 어떻게?)

103055 #1 수확할 때는 쉼로 갈아서. 쇠로 이렇게 갈면은 가운데 가운데로 이젠 그 고구마 허주게.(수확할 때는 소로 갈아서. 소로 이렇게 갈면 가운데 가운데로 이젠 그 고구마 하지.)

103055 @ 예.(예.)

103055 #1 주워 놓으면 그게 나중에 다 해서. 절간 만들 사람은 절간 만들고.(주워 놓으면 그게 나중에 다 해서. 절간 만들 사람은 절간 만들고.)

103055 @ 예.(예.)

103055 #1 또 종자로 놔들 사람은 종자로 놔두고. 또 그 때는 뭐냐면은 주식이 고구마거든.(또 종자로 놔들 사람은 종자로 놔두고. 또 그 때는 뭐냐면 주식이 고구마거든.)

103055 @ 아.(아.)

103055 #1 이만씩 통 파가지고 그 속에 묻어 두었다가 겨울 되면은 그것을 뽑아. 뽑양 삶아도 먹고 뭐 허주게.(이만씩 통 파가지고 그 속에 묻어 두었다가 겨울 되면 그것을 뽑아. 뽑아서 삶아도 먹고 뭐 하지.)

103055 @ 그럼 절간, 절간고구마마씨?(그럼 절간, 절간고구마요?)

103055 #1 절간고구마.(절간고구마.)

103055 @ 그게 뭐짱?(그게 뭐예요?)

103055 #1 빼때기 무사 저 제주시에 주정공장 생겨나지 않아서? 모를 건가?(빼때기 왜 저 제주시에 주정공장 생겨나지 않았어? 모를 건가?)

103055 @ 예.(예.)

103055 #1 주정공장 그 술 만들주게.(주정공장 그 술 만들지.)

103055 @ 아.(아.)

103055 #1 경 행 그걸 저 그 기계, 기계 그 때는 요만한 게 나왔어.(그렇게 해서 그걸 저 그 기계, 기계 그 때는 요만한 게 나왔어.)

103055 @ 예.(예.)

103055 #1 그걸 사다근엔 늘 늘 두 개 들은 걸 그걸로 손으로 두들명 그걸로

썰명 몰려. 몰려가지고 키로에 얼마 해근엥 풀주게.(그걸 사서 날 날 두 개 돈은 걸 그걸로 손으로 두드리면서 그걸로 썰면서 말려. 말려가지고 킬로에 얼마 해서 팔지.)

103056 @ 그럼 고구마는 이렇게 수확행 보관은 어떻 헤마씨?(그럼 고구마는 이렇게 수확해서 보관은 어떻게 해요?)

103056 #1 보관은 농협으로, 농협으로 들어가주게.(보관은 농협으로, 농협으로 들어가지.)

103056 @ 옛날에. 옛날에.(옛날에. 옛날에.)

103056 #1 옛날에?(옛날에?)

103056 @ 예.(예.)

103056 #1 옛날에 고구마 저 뭐가 엇엇어.(옛날에 고구마 저 뭐가 없었어.)

103056 @ 예전에 감젓눌⁵¹⁾이라는 거 엇엇수광?(예전에 ‘감젓눌’이라는 거 없었습니까?)

103056 #1 응?(응?)

103056 @ 감젓눌? 감젓눌.(‘감젓눌’? ‘감젓눌’.)

103056 #1 감젓눌?(‘감젓눌’?)

103056 @ 예.(예.)

103056 #1 감젓눌 감젓눌이란 게 그 저 밭에서.(‘감젓눌’ ‘감젓눌’이라는 게 그 저 밭에서.)

103056 @ 예.(예.)

103056 #1 고구마 허여 들어오면은.(고구마 해 들어오면.)

103056 @ 예.(예.)

103056 #1 감젓눌이라는 게 밭이 강 이만큼 파.(‘감젓눌’이라는 게 밭에 가서 이만큼 파.)

103056 @ 예.(예.)

103056 #1 이만큼 행 파가지고.(이만큼 해서 파가지고.)

103056 @ 예.(예.)

103056 #1 그레 고구마 감저를 집어넣으면은.(그리 고구마 고구마를 집어넣으면.)

103056 @ 예.(예.)

103056 #1 윽으로 이젠 이렇게 짚 같은 거나 뭐 이 조쪽으로 이렇게 세워서.(옆으로 이젠 이렇게 짚 같은 거나 뭐 이 조짚으로 이렇게 세워서.)

103056 @ 예.(예.)

103056 #1 이만큼 올라오면 흙 씨와. 그거 뭐가 겨울에 들면 먹을라고.(이만큼 올라오면 흙 씨워. 그거 뭐가 겨울에 들면 먹으려고.)

51) ‘감젓눌’은 고구마를 썰어 말린 것을 푸대 따위에 담아 쌓아 비, 바람을 막을 수 있게 쌓아놓은 큰 더미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감저눌, 감젓눌.

103056 @ 아 그런 그런 거. 그런 것도 여기서 해마씨?(아 그런 그런 거. 그런 것도 여기서 해요?)

103056 #1 해낫주게.(했었지.)

103056 @ 그거 말고 다른 건 엇엇수광?(그거 말고 다른 건 없었습니까?)

103056 #1 다른 건 엇고.(다른 건 없고.)

103058 @ 그럼 고구마 줄기는 뒤에 이용해마씨?(그럼 고구마 줄기는 뒤에 이용해요?)

103058 #1 쉼. 쉼 맥엇어. 그게 꼭삭 말리면은 전부 다 묶어.(소. 소 먹엇어. 그게 바삭 마르면 전부 다 묶어.)

103058 @ 예.(예.)

103058 #1 묶어근엥 이제 그 겨울 때 쉼 맥이려고 이제 뭔가 자꾸 쉼나 사람이나 한 가지만 먹으면은 입맛이 떨어정 잘 안 먹거든.(묶어서 이제 그 겨울 때 소 먹이려고 이제 뭔가 자꾸 소나 사람이나 한 가지만 먹으면 입맛이 떨어져서 잘 안 먹거든.)

103058 @ 예.(예.)

103058 #1 여러 가지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하니깐. 쉼 맥이는 것도 조쪽, 새꿀, 감젓줄, 콩고질 네 가지를 섞어놔야 쉼을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허거든.(여러 가지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하니깐. 소 먹이는 것도 조짚, 띠, 고구마 덩굴, 콩깍지 네 가지를 섞어놔야 소를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거든.)

103059 @ 고구마 농사하면서 재미있던 일 잇언마씨?(고구마 농사하면서 재미있던 일 있었어요?)

103059 #1 뭐, 농사 허는 거야 별다른 게 잇어?(뭐, 농사 하는 거야 별다른 게 잇어?)

103059 @ 그럼 예전에 좀 특이한 거는 엇언마씨?(그럼 예전에 좀 특이한 거는 없었어요?)

103059 #1 특이한 거야 저 고구마도 저기 웨국서 들어왔주게. 종자가.(특이한 거야 저 고구마도 저기 외국서 들어왔지. 종자가.)

103059 @ 예.(예.)

103059 #1 게고 모든 종자들이 여기 엇엇어. 종자들이 옛날은. 다 나륙도 다 어디 육지 근방으로 어디 웨국서 들어와가지고 허고. 그랫주게.(그리고 모든 종자들이 여기 없엇어. 종자들이 옛날은. 다 벼도 다 어디 육지 근방으로 어디 외국서 들어와가지고 하고. 그랬지.)

103059 @ 그럼 고구마 농사했었을 때 기억나는 거 엇어마씨?(그럼 고구마 농사했었을 때 기억나는 거 없어요?)

103059#1 고구마 농사 할 때야 기억나는 거야 뭐 별다른 게 잇나. 고구마 그 때 옛날도 썰어가지고 그 때 기계가 손으로 이렇게 허는 기계가 나왔지. 썰어가지고

밭에 넘어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그거 주우러 돌아다녔주.(고구마 농사 할 때야 기억나는 거야 뭐 별다른 게 있나. 고구마 그 때 옛날도 썰어가지고 그 때 기계가 손으로 이렇게 하는 기계가 나왔지. 썰어가지고 밭에 넘어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그거 주우러 돌아다녔지.)

기타 농사

103060 @ 뭐 어르신 수박이나 참위는 안 했지예?(뭐 어르신 수박이나 참위는 안 했지요?)

103060 #1 무사 수박이나 참위 같은 거 했어.(왜 수박이나 참위 같은 거 했어.)

103060 @ 아, 하선마씨?(아, 하셨어요?)

103060 #1 아, 참위는 허고 수박은 엇엇어.(아, 참위는 하고 수박은 없었어.)

103060 @ 아 그럼 수박은 없었고, 참위는 어떻 하선마씨?(아 그럼 수박은 없었고, 참위는 어떻게 하셨어요?)

103061 #1 참위? 큰밭에 밭 갈면은 영 영 구덩이 만들어.(참위? 큰밭에 밭 갈면 이렇게 이렇게 구덩이 만들어.)

103061 @ 예.(예.)

103061 #1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툼툼이 만들어서 그딤에 이제 웨씨를 찢러.(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툼툼이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웨씨를 찢러.)

103061 @ 예.(예.)

103061 #1 그게 찢르면 그게 나면은 참위가 돼주게.(그게 찢르면 그게 나면 참위가 되지.)

103061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3062 @ 그럼 어르신 고추 농사도 하선마씨?(그럼 어르신 고추 농사도 하셨어요?)

103062 #1 이 동네에는 고추 농사는 안 했어.(이 동네에는 고추 농사는 안 했어.)

103063 @ 그럼 배추는?(그럼 배추는?)

103063 #1 배추 농사도 못 허여. 여기.(배추 농사도 못 해. 여기.)

103063 @ 아, 무는?(아, 무는?)

103063 #1 그냥 배추 농사 해봤자.(그냥 배추 농사 해봤자.)

103063 @ 예.(예.)

103063 #1 이년 먹을 거 갈양. 풀 걸로는 안 돼어 여기.(이년 먹을 거 갈아서. 팔 걸로는 안 돼 여기.)

103063 @ 그냥 먹을 거?(그냥 먹을 거?)

103063 #1 먹을 거는 이제 그냥 밭 한 쪽에 남은 씨 뿌려서.(먹을 거는 이제 그냥 밭 한 쪽에 남은 씨 뿌려서.)

103063 @ 예.(예.)

103063 #1 그거 크면은 뽑아다 먹주게.(그거 크면 뽑아다 먹지.)

103064 @ 그럼 무 농사는 하선마씨?(그럼 무 농사는 하셨어요?)

103064 #1 그 때 무 농사 해봤자 먹을 건 헛주.(그 때 무농사 해봤자 먹을 건 헛지.)

103064 @ 아, 먹을 거만?(아, 먹을 거만?)

103064 #1 어. 이년 집이서 먹을 거만. 그자 저 밭에 줌. 돈이 안 되니까 그건.
(어. 이년 집에서 먹을 거만. 그저 저 밭에 줌. 돈이 안 되니까 그건.)

103065 @ 그럼 지실 지실 농사는 안 헛우광? 지실?(그럼 감자 감자 농사는 안 헛습니까? 감자?)

103065 #1 무사 지실 농사 예전도 지금도 헛주게.(왜 감자 농사 예전도 지금도 하지.)

103065 @ 아, 지금도 해마씨?(아, 지금도 해요?)

103065 #1 지실 농사 그 전에는.(감자 농사 그 전에는.)

103065 @ 예.(예.)

103065 #1 비닐을 못 썩웠어. 지금은 비닐 썩우고 잇주게.(비닐을 못 썩웠어. 지금은 비닐 썩우고 있지.)

103065 @ 예.(예.)

103065 #1 비닐 썩우면 비닐 썩우면은 수확도 많이 나고.(비닐 썩우면 비닐 썩우면 수확도 많이 나고.)

103065 @ 예.(예.)

103065 #1 검질도 아니 나고.(검도 안 나고.)

103065 @ 예.(예.)

103065 #1 경 허면 일년에 여름에 여 이 한장 부락 일 년에 두 번 허맨. 지실.
(그렇게 하면 일 년에 여름에 여 이 ‘한장’ 부락 일 년에 두 번 해. 감자.)

103066 @ 그럼 뭐 피 농사나 메밀은 안 하지예?(그럼 뭐 피 농사나 메밀은 안 하지요?)

103066 #1 메밀도 요즘에 시작했어.(메밀도 요즘에 시작했어.)

103066 @ 아, 요즘에 시작헨마씨?(아, 요즘에 시작했어요?)

103066 #1 어.(어.)

103066 @ 예전엔 안 하고?(예전에는 안 하고?)

103066 #1 응. 한 삼 년 똥구나.(응. 한 삼 년 똥구나.)

103066 @ 아 삼 년마씨?(아, 삼년이요?)

103066 #1 어.(어.)

103067 @ 그럼 그 메밀 농사는 어떻 해마씨?(그럼 그 메밀 농사는 어떻게 해요?)

103067 #1 메밀 농사나 조 농사나 마찬가지로. 그냥 씨 뿌려가지고 그건 검질도 땀 것 엇고.(메밀 농사나 조 농사나 마찬가지로. 그냥 씨 뿌려가지고 그건 검도 땀 것

없고.)

103068 @ 그럼 담배 농사도 하신마씨?(그럼 담배 농사도 하셨어요?)

103068 #1 담배?(담배?)

103068 @ 예.(예.)

103068 #1 담배 안 했어.(담배 안 했어.)

103068 @ 그다음에 여러 가지 농사하는데 고산에서는 주로 보리 농사 해신가마씨?(그다음에 여러 가지 농사하는데 ‘고산’에서는 주로 보리 농사 했었나요?)

103068 #1 응. 밭농사에?(응. 밭농사에?)

103068 @ 고산에서 제일 많이 한 농사는 무슨 농사인가마씨?(‘고산’에서 제일 많이 한 농사는 무슨 농사인가요?)

103068 #1 제일 많이 허는 게?(제일 많이 하는 게?)

103068 @ 예.(예.)

103068 #1 보리. 보리 농사, 그거는 벨로, 벨 차이 엇어. 많이 하나 뭐 적게 하나.(보리. 보리 농사, 그거는 벨로, 벨 차이 없어. 많이 하나 뭐 적게 하나.)

103068 @ 벨 차이 엇어마씨?(벨 차이 없어요?)

103068 #1 응응. 벨 차이 엇어.(응응. 벨 차이 없어.)

103068 @ 그럼 지금이랑도 비슷한가마씨? 농사허는 거?(그럼 지금이랑 비슷한가요? 농사하는 거?)

103068 #1 그렇지. 농사허는 게 비슷한다, 기계화되기 때때 사람이 편한 거 뿐이지.(그렇지. 농사하는 게 비슷한데, 기계화되기 때문에 사람이 편한 거 뿐이지.)

103068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3068 #1 전부 다 기계화되니까. 가는 거나 캐는 거나 뭐 심는 거나. 옛날엔 그냥 손으로 전부 허니까.(전부 다 기계화되니까. 가는 거나 캐는 거나 뭐 심는 거나. 옛날에는 그냥 손으로 전부 하니까.)

103068 @ 그럼 심는 거 종류는 달라진 거 엇인가마씨?(그럼 심는 거 종류는 달라진 거 없어요?)

103068 #1 달라진 거?(달라진 거?)

103068 @ 예.(예.)

103068 #1 지금 달라진 거야 많주게. 지금은 지금 뭐가.(지금 달라진 거야 많지. 지금은 지금 뭐가.)

103068 @ 예.(예.)

103068 #1 지금 뭐 또, 밭 허는 것도 기계로 밭 허니까 거기서 심어 가지고 캐는 것도 기계로 캐주게.(지금 뭐 또, 밭 하는 것도 기계로 밭 하니까 거기서 심어 가지고 캐는 것도 기계로 캐지.)

103068 @ 예.(예.)

103068 #1 감, 저 감저도 그전에 감저도 기계로 캐고 이, 지실 끝은 것도 기계로 캐났주게.(감, 저 고구마도 그전에 고구마도 기계로 캐고 이, 감자 같은 것도 기

계로 갔었지.)

103068 @ 그럼 예전이랑 비교하면 기계가 제일.(그럼 예전과 비교하면 기계가 제일.)

103068 #1 기계, 기계. 기계 나오니까 농촌이 살기 좋을 뿐이지. 별다른 것 없어. 에 뭐 별다른 거나 얻어 먹을 게 뭐 있나.(기계, 기계. 기계 나오니까 농촌이 살기 좋을 뿐이지. 별다른 것 없어. 에 뭐 별다른 거나 얻어 먹을 게 뭐 있나.)

103068 @ 그럼 기계도 처음 산 거 기억나마씨?(그럼 기계도 처음 산 거 기억나요?)

103068 #1 나?(나?)

103068 @ 예.(예.)

103068 #1 나, 처음 살 적에 그거 뭐, 트랙터 하나 샀주게.(나, 처음 살 적에 그거 뭐, 트랙터 하나 샀지.)

103068 @ 트랙터 하나?(트랙터 하나?)

103068 #1 응.(응.)

103068 @ 그럼 그 트랙터 하나로 밭 갈안마씨?(그럼 그 트랙터 하나로 밭 갈았어요?)

103068 #1 트랙터로 그냥 그걸로 벌어. 부지런히 뛰면은 하영 버는 거고.(트랙터로 그냥 그걸로 벌어. 부지런히 뛰면 많이 버는 거고.)

103068 @ 으음.(으음.)

103068 #1 느긋하게 해서 농땡이 부리면 못 버는 거고.(느긋하게 해서 농땡이 부리면 못 버는 거고.)

103068 @ 손으로 허는 것보다 확실히 트랙터로 허는 게 빠르지예?(손으로 하는 것보다 확실히 트랙터로 하는 게 빠르지요?)

103068 #1 그치. 음.(그렇지. 음.)

103068 @ 그럼 처음 기계는 고산에서 샀수광?(그럼 처음 기계는 '고산'에서 샀습니까?)

103068 #1 응, 농협에서.(응, 농협에서.)

103068 @ 아, 농협에서.(아, 농협에서.)

103068 #1 그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저 대정까지 막 나가놔주게.(그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저 '대정'까지 막 나갔었지.)

103068 @ 대정까지?('대정'까지?)

103068 #1 어어. 그때가 기계 산 사람이 몇 사람 안 됐니까.(어어. 그때가 기계 산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니까.)

103068 @ 아아.(아아.)

103068 #1 뭔가 자꾸 거기서 요, 요청 들어와. 요청이.(뭔가 자꾸 거기서 요, 요청 들어와. 요청이.)

103068 @ 아.(아.)

103068 #1 그제 또 그때가 돼 가니까 상인들이.(그제 또 그때가 돼 가니까 상인들이.)

103068 @ 예.(예.)

103068 #1 육지 상인들이 들어, 많이 들어왔거든. 작, 저 이 지실.(육지 상인들이 들어, 많이 들어왔거든. 작, 저 이 감자.)

103068 @ 예.(예.)

103068 #1 우리 좀, 농촌에서 가꾼 지실. 밭때기로 사 가지고.(우리 좀, 농촌에서 가꾼 감자. 밭때기로 사 가지고.)

103068 @ 네.(네.)

103068 #1 그걸 갈아 달라, 갈아 달라고 허던지 줄 끊어달라 허든지 자꾸 주인이 들어왔주게.(그걸 갈아 달라, 갈아 달라고 하던지 줄 끊어달라 하든지 자꾸 주인이 들어왔지.)

103068 @ 예.(예.)

103068 #1 게고 그거 허러 탕기고.(그리고 그거 하러 다니고.)

103068 @ 아, 기구나예. 그문 경운기도 사선마씨?(아, 그렇군요. 그러면 경운기도 사셨어요?)

103068 #1 어 경운기도 사고. 경운기가 먼저 샀지.(어 경운기도 사고. 경운기가 먼저 샀지.)

103068 @ 아, 먼저 산 게 트랙터가 아니라 경운기를 먼저?(아, 먼저 산 게 트랙터가 아니라 경운기를 먼저?)

103068 #1 응. 경운기를 먼저 사 가지고 허다가 내가 트랙터 샀주게.(응. 경운기를 먼저 사 가지고 하다가 내가 트랙터 샀지.)

103068 @ 몇 년도. 한 칠십 년대에 사신가마씨?(몇 년도. 한 칠십 년대에 사셨어요?)

103068 #1 뭐? 경운기 산 때가?(뭐? 경운기 산 때가?)

103068 @ 예.(예.)

103068 #1 음. 많이 됐어. 한 오십 년?(음. 많이 됐어. 한 오십 년?)

103068 @ 아, 오십 년. 그럼 천구백오십 년마씨?(아, 오십 년. 그럼 천구백오십 년이요?)

103068 #1 응.(응.)

103068 @ 진짜 옛날에 샀다예.(진짜 옛날에 샀군요.)

103068 #1 응?(응?)

103068 @ 진짜 옛날에 사선마씨.(진짜 옛날에 사셨어요.)

103068 #1 응. 경운기를. 또 그거에 또 먼가, 트랙터를 한 사십 년. 그정도 됐주게.(응. 경운기를. 또 그거에 또 뭐가, 트랙터를 한 사십 년. 그정도 됐지.)

103068 @ 그때 물어보젠 헛던 건데. 사삼 사건도 알고, 그때 한국전쟁도 잇엇잖아예, 육이오.(그때 물어보려고 헛던 건데. 사삼 사건도 알고, 그때 한국전쟁도 잇엇

잡아요. 육이오.)

103068 #1 응.(응.)

103068 @ 그때는 뭐 제주도 별다른 거.(그때는 뭐 제주도 별다른 거.)

103068 #1 폭도 엇어.(폭도 없어.)

103068 @ 아아.(아아.)

103068 #1 제주도야 깨끗허고.(제주도야 깨끗하고.)

103068 @ 그때 소식은 들언마씨? 막 북한이 왔다고?(그때 소식은 들었어요? 막

103068 #1 아 이 동네, 우리만, 이 동네는 안 들어왔어.(아 이 동네, 우리만, 이 동네는 안 들어왔어.)

103068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3001 @ 할머니 옛날에 밭일 헛지예?(할머니 옛날에 밭일 했지요?)

103001 #3 예?(예?)

103001 @ 밭일, 밭일.(밭일, 밭일.)

103001 #3 밭일이 뭐고?(밭일이 뭐고?)

103001 @ 밭에서 일헛지예?(밭에서 일했지요?)

103001 #3 아이고 일 허고말고.(아이고 일 하고말고.)

103001 @ 예.(예.)

103001 #3 밭이 가민 어두웁 오고 붉으민 나가곡 헛어.(밭에 가면 어두워서 오고 밝으면 나가고 헛어.)

103001 @ 밭에서 무슨 일 하션마씨? 옛날엔?(밭에서 무슨 일 하셨어요? 옛날엔?)

103001 #3 옛날에 게 감저도 고구마도 싱그곡.(옛날에 게 고구마 고구마도 심고.)

103001 @ 예.(예.)

103001 #3 지실도 싱그곡.(감자도 심고.)

103001 @ 예.(예.)

103001 #3 보리도 갈민 비고.(보리도 갈면 베고.)

103001 @ 예.(예.)

103001 #3 서숙도 허면 비고. 메밀도 갈아 놓민 타고. 벨거 다 해주게.(조도 하면 베고, 메밀도 갈아 놓으면 타고. 벨거 다 하지.)

103001 @ 아, 벨거 다 하션마씨?(아, 벨거 다 하셨어요?)

103001 #3 안 허는 거 엇이 다 해주게.(안 하는 거 없이 다 하지.)

103001 @ 안 하는 거 엇이 다 헨마씨?(안 하는 거 없이 다 했어요?)

103001 #3 그러, 옛날은.(그래, 옛날은.)

103001 @ 그른 보리, 보리도 헛언마씨?(그러면 보리, 보리도 헛었어요?)

103001 #3 보리도 비고.(보리도 베고.)

103001 @ 예.(예.)

103001 #3 서숙, 조도 허고.(조, 조도 하고.)

103001 @ 예.(예.)

103001 #3 고구마도 싱그고. 솜 허는 멘네도 같고.(고구마도 싱고, 솜 하는 솜도 같고.)

103001 @ 멘네도 허고.(솜도 하고.)

103001 #3 예.(예.)

103001 @ 아, 할머니도 다 하션마씨?(아, 할머니도 다 하셨어요?)

103001 #3 다 허여. 다 헛어. 옛날 다. 이젠 늙으니까 아니 허지. 다 허연.(다 해. 다 했어. 옛날 다. 이젠 늙으니까 안 하지. 다 했어.)

보리농사

103002 @ 그믐 보리농사 하실라면 그 뭐, 뭐 필요헤마씨?(그러면 보리농사 하 시려면 그 뭐, 뭐 필요했어요?)

103002 #3 이제 그 보리농사 허젠 하민. 비료.(이제 그 보리농사 하려고 하면. 비료.)

103002 @ 비료 그 다음엔.(비료 그 다음엔.)

103002 #3 비료, 걸름.(비료, 거름.)

103002 @ 걸름.(거름.)

103002 #3 어.(어.)

103002 @ 그거 두 개만 잇이민 뉘마씨?(그거 두 개만 있으면 되요?)

103002 #3 그거만 잇이민 걸름 낄양 보리 낄양 비료를 팍팍 줘.(그것만 있으면 거름 깔아서 보리 깔아서 비료를 팍팍 줘.)

103003 @ 그럼 옛날에 거름은 어떻게 준비헤마씨?(그럼 옛날에 거름은 어떻게 준비했어요?)

103003 #3 걸름은 소 메여. 소 메영 풀 뜯어당 저 산에 강 풀 뜯어당, 소들 메 영 풀 뜯어 강 풀 맥영 그 먹으난 거 소가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그래 밧으민 그 걸로 걸름 헤근영 그걸 허연.(거름은 소 메어. 소 메어서 풀 뜯어다가 저 산에 가서 풀 뜯어다가 소들 메어서 풀 뜯어 가서 풀 먹여서 그 먹으니까 거 소가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그래 밧으면 그걸로 거름 해서 그걸 했어.)

103003 @ 아, 그걸로 걸름을 헤마씨?(아, 그걸로 거름을 했어요?)

103003 #3 그걸로 걸름 허영, 보리 같고, 서숙 같고, 콩 같고, 고구마 싱그곡 그 거 다 허는 거라.(그걸로 거름 해서, 보리 같고, 조 같고, 콩 같고, 고구마 싱고 그 거 다 하는 거라.)

103003 @ 그러니까 요즘에는 막 그 거름 사오는데, 옛날에는 사온 걸로 안 헤 마씨? 옛날에는?(그러니까 요즘에는 막 그 거름 사오는데, 옛날에는 사온 걸로 안 했어요? 옛날에는?)

103003 #3 어이?(어이?)

103003 @ 옛날에는. 요즘에는 막 비료, 거름 사오잖아예.(옛날에는. 요즘에는 막 비료, 거름 사오잖아요.)

103003 #3 옛날에는 그래, 걸름허고, 비료 잇으민 주고 허는디, 요샌 걸름을 안 허여. 비료, 비료만 하영 허연.(옛날에는 그래, 거름하고, 비료 잇으면 주고 하는데, 요새는 거름을 안 해. 비료, 비료만 많이 했어.)

103003 @ 아 경 헨마씨.(아 그렇게 했어요.)

103003 #3 옛날은 돈이 엇이난, 비료 살 돈이 엇이난, 걸름을 자꾸 멘들앗지마는 이젠 농서 지으멍 여유가 좀 잇이난, 비료 많이 사난, 걸름 그래 아니 허여.(옛날은 돈이 없으니까, 비료 살 돈이 없으니까, 거름을 자꾸 만들었지만 이제는 농사 지으면서 여유가 좀 있으니까, 비료 많이 사니까, 거름 그래 안 해.)

103003 @ 아, 경 아니 해마씨?(아, 그렇게 안 해요?)

103003 #3 어.(어.)

103004 @ 그믐 보리는 언제 갈안마씨?(그러면 보리는 언제 갈았어요?)

103004 #3 보리?(보리?)

103004 @ 예.(예.)

103004 #3 보리 이제 캐서.(보리 이제 캐서.)

103004 @ 음. 그러니까 몇 월 달에?(음. 그러니까 몇 월 달에?)

103004 #3 여, 여, 옛날에?(여, 여, 옛날에?)

103004 @ 예. 옛날에.(예. 옛날에.)

103004 #3 옛날에도 거 이때주게.(옛날에도 거 이때이지.)

103004 @ 아, 이때 헨마씨?(아, 이때 했어요?)

103004 #3 다 이때야. 농서 그건 그거 혼 철이라. 이때.(다 이때야. 농사 그건 그거 한 철이라. 이때.)

103004 @ 아.(아.)

103004 #3 서숙도 유월 뒤민 갈고, 그자, 보리도 오유월 뒤민 갈고, 경 허면서 가.(조도 유월 되면 갈고, 그저, 보리도 오유월 되면 갈고, 그렇게 하면서 가.)

103004 @ 아, 오유월에 갈안마씨?(아, 오유월에 갈았어요?)

103004 #3 예, 보리. 보리 갈고말고.(예, 보리. 보리 갈고말고.)

103004 @ 그럼 그때 보리 갈 때는. 할머니도 보리 갈안마씨?(그럼 그때 보리 갈 때는. 할머니도 보리 갈았어요?)

103004 #3 옛날 우리 다, 보리 갈고 살안. 보리 갈고 그걸로 밥 해 먹엇주게. 어뎡 돈이 잇영 쌀 받아 먹을 거라. 이젠 농사 짓어근엥 그걸로 이젠 옛날엔 들뱅이가 잇엇어. 들뱅이가 잇엇어.(옛날 우리 다, 보리 갈고 살았어. 보리 갈고 그걸고 밥 해 먹엇지. 어떻게 돈이 잇어서 살 받아 먹을 거라. 이젠 농사 지어서 그걸로 이젠 옛날에는 연자매가 잇엇어. 연자매가 잇엇어.)

103004 @ 들뱅이?(연자매?)

103004 #3 들뱅이.(연자매.)
 103004 @ 그게 뭐짱?(그게 무엇입니까?)
 103004 #3 들뱅이가.(연자매가.)
 103004 @ 예.(예.)
 103004 #3 돌로 헤근엥 쉼 메왕 그 그것에 보리 저.(돌로 해서 소 메어서 그 그것에 보리 저.)
 103004 @ 예.(예.)
 103004 #3 꺼풀을 벗겨야 먹을 거 아니냐. 그것에 이제 저, 보리 짱어.(꺼풀을 벗겨야 먹을 거 아니냐. 그것에 이제 저, 보리 짱어.)
 103004 @ 예.(예.)
 103004 #3 거 들뱅이라고 뱅, 뱅, 뱅, 뱅, 뱅 이만헌 도로기에 이제 그 쉼 메어 근엥 그래 뱅뱅 돌면 그거 꺼풀 벗겨. 꺼풀 채 못 먹거든?(거 연자매라고 뱅, 뱅, 뱅, 뱅, 뱅 이만한 바퀴에 이제 그 소 메어서 그래 뱅뱅 돌면 그거 꺼풀 벗겨. 꺼풀 채 못 먹거든?)
 103004 @ 예.(예.)
 103004 #3 꺼풀 벗겨서 그걸로 이제 물러근엥, 굴앙 그걸로 밥도 행 먹고. 죽도 썬 먹곡 경 행 살았어.(꺼풀 벗겨서 그걸로 이제 말려서, 갈아서 그걸로 밥도 해서 먹고. 죽도 썬 먹고 그렇게 해서 살았어.)
 103005 @ 그 보리 농사할 때 요즘에는 씨 기계로 뿌리잖아예?(그 보리 농사할 때 요즘에는 씨 기계로 뿌리잖아요?)
 103005 #3 어.(어.)
 103005 @ 그럼 옛날에는 보리 씨 어떻 뿌려마씨?(그럼 옛날에는 보리 씨 어떻게 뿌렸어요?)
 103005 #3 손으로 담아 앉앙 그냥 손으로 이레 이레.(손으로 담아 앉아서 그냥 손으로 이리 이리.)
 103005 @ 아, 손으로 이레 이레 뿌려마씨?(아, 손으로 이리 이리 뿌렸어요?)
 103005 #3 어.(어.)
 103005 @ 그럼 그거 담은 거는 뭐에다가 담안마씨?(그럼 그거 담은 거는 뭐에다가 담았어요?)
 103005 #3 멩텅이라고 잇엇어.(망태기라고 잇엇어.)
 103005 @ 아, 멩텅이.(아, 망태기.)
 103005 #3 예. 멩텅이라고.(예. 망태기라고.)
 103005 @ 예.(예.)
 103005 #3 짝으로 헤영 이제 박 저 바구니 끝이 요래 옛날 하르방들 짜주게 요래 짜민 그것에 담앙 강 어깨에 들어 메서 요래 요래.(짚으로 해서 이제 박 저 바구니 같이 요래 옛날 할아버지들 짜지. 요리 짜면 그것에 담아서 가서 어깨에 들어 메서 요리 요리.)

103005 @ 그믐 할머니도 멥텅이 잇엇수광?(그러면 할머니도 망태기 잇엇습니까?)

103005 #3 어?(어?)

103005 @ 할머니도 그 멥텅이 많이 사용헤마씨?(할머니도 그 망태기 많이 사용헤어요?)

103005 #3 멥텅이 그거 나가 많이 들어멘 땡졌지.(망태기 그거 내가 많이 들어메서 다녔지.)

103005 @ 아, 많이 들어멘마씨.(아, 많이 들어땡어요.)

103005 #3 이젠 늙은이엔 헤도 옛날엔 그걸로 다 사용헤어.(이제는 늙은이라고 헤도 옛날에는 그걸로 다 사용헤어.)

103005 @ 그믐 그건 누가 만들언마씨? 누가 만들어쥬마씨? 멥텅이?(그러면 그건 누가 만들엇어요? 누가 만들어쥬어요? 망태기?)

103005 #3 옛날엔 늙은 어른들. 우리 시하르방. 시아바이네.(옛날에는 늙은 어른들. 우리 시할아버지. 시아버지네.)

103005 @ 아.(아.)

103005 #3 우리 시하르방 시아바니 그런 거 영 멥텅이 즐라근엥 거 돈이 잇어야 뭐 사지. 그릇도 살 거 엇언. 그것에 멥텅이 즐앙 그걸로 보리도 담곡 서숙도 담곡 그걸로 다 하는 거라.(우리 시할아버지 시아버지 그런 거 이렇게 망태기 잘라매서 거 돈이 잇어야 뭐 사지. 그릇도 살 거 없엇지. 그것에 망태기 잘라서 그걸로 보리도 담고 조도 담고 그걸로 다 하는 거라.)

103006 @ 그믐 보리도 뭐 종류가 잇언마씨? 보리?(그러면 보리도 뭐 종류가 잇엇어요? 보리?)

103006 #3 보리?(보리?)

103006 @ 예.(예.)

103006 #3 중, 종류가 보리뿐이라.(중, 종류가 보리뿐이라.)

103006 @ 종내기가 거 하나밖에 엇언마씨?(종내기가 거 하나밖에 없엇어요?)

103006 #3 어.(어.)

103006 @ 뭐 쌀보리 맥주보리 따로 잇지 앓안마씨?(뭐 쌀보리 맥주보리 따로 잇지 앓았어요?)

103006 #3 그거 다 혼 가진디. 일름을 그래 지우난.(그거 다 한 가지인데. 이름을 그렇게 지니까.)

103006 @ 예.(예.)

103006 #3 맥주보리.(맥주보리.)

103006 @ 예.(예.)

103006 #3 즐보리.(쌀보리.)

103006 @ 예.(예.)

103006 #3 걸보리.(겉보리.)

103006 @ 예.(예.)

103006 #3 경 허는 거라.(그렇게 하는 거야.)

103006 @ 아 원래는 혼 가지.(아 원래는 한 가지.)

103006 #3 어. 원래 그 보리가 혼 가진디 이름을 그래 지언.(어. 원래 그 보리가 한 가지인데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

103006 @ 예.(예.)

103006 #3 슬보리. 슬보리는.(쌀보리. 쌀보리는.)

103006 @ 예.(예.)

103006 #3 꺼풀 잇이 밀 끝이 뺀 거라. 밀 같은 거고. 이제 맥주보리.(꺼풀 없 이 밀 같이 뺀 거라. 밀 같은 거고. 이제 맥주보리.)

103006 @ 예.(예.)

103006 #3 곁보리, 슬보리.(곁보리, 쌀보리.)

103006 @ 예.(예.)

103006 #3 경 행 이름.(그렇게 해서 이름.)

103006 @ 아.(아.)

103006 #3 경 행 이름 지은 거라.(그렇게 해서 이름 지은 거라.)

103007 @ 그믐 보리농사 할 때 보리밭에 가면 밭 밟잖아예?(그러면 보리농사 할 때 보리밭에 가면 밭 밟잖아요?)

103007 #3 어.(어.)

103007 @ 그거 밭 밟기는 몇 번 험마씨? 어떻게 허는 거마씨?(그거 밭 밟기는 몇 번 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3007 #3 그레 보리 풀 아니 나게.(그리 보리 풀 안 나게.)

103007 @ 예.(예.)

103007 #3 자꾸 갈았다 갈앙 보리 갈 때는 비료.(자꾸 갈았다 갈아서 보리 갈 때는 비료.)

103007 @ 예.(예.)

103007 #3 비료 빼고 걸름 잇이믄 걸름도 끌고 그래서 보리씨 빼어근엥 갈아 내불믄 돼주게.(비료 뿌리고 거름 잇으면 거름도 깔고 그래서 보리씨 뿌려서 갈아 내버리면 되지.)

103007 @ 아, 그럼 보리밭 밟기도 안 험마씨? 보리밭 밟는 거?(아, 그럼 보리밭 밟기도 안 했어요? 보리밭 밟는 거?)

103007 #3 어?(어?)

103007 @ 보리밭 밟지 앙안마씨? 보리밭 밟는 거?(보리밭 밟지 앙았어요? 보리 밟는 거?)

103007 #3 보리밥 행 먹어. 보리밥 행 먹어.(보리밥 해서 먹어. 보리밥 해서 먹 어.)

103007 @ 아니 밥 말앙. 보리밭에 가가지고 그 쉼나 몰이나 같이 끌고 간 다음

에 밭 밟지 았안마씨? 안 밟안마씨?(아니 밭 말고. 보리밭에 가가지고 그 소나 말이 나 같이 끌고 간 다음에 밭 밟지 았았어요? 안 밟았어요?)

103007 #3 경 허연.(그렇게 했어.)

103007 @ 무사 ,무사 밟안마씨?(왜, 왜 밟았어요?)

103007 #3 보리. 아들들게. 손지도 크면 허고 아들도 크면 허고. 하르방은 이제 옛날은 하르방 잇이면 하르방도 허고.(보리 아들들. 손자도 크면 하고 아들도 크면 하고. 할아버지는 이제 옛날은 할아버지 잇으면 할아버지도 하고.)

103008 @ 그럼 보리밭 검질도 메잖아예.(그럼 보리밭 김도 매잖아요?)

103008 #3 검질 다 메야주게.(김 다 매야지.)

103008 @ 검질은 몇 번 메마씨? 보리밭은?(김은 몇 번 매요? 보리밭은?)

103008 #3 두 번 메여.(두 번 매.)

103008 @ 아 두 번.(아, 두 번.)

103008 #3 예.(예.)

103008 @ 언제, 언제 메마씨?(언제, 언제 매요?)

103008 #3 보리, 보리 요래 커 가민 검질도 이제 이레 뽕족 뽕족 나잖아.(보리, 보리 요리 커 가면 김도 이제 이리 뽕족 뽕족 나잖아.)

103008 @ 예.(예.)

103008 #3 요래 나민 두 번은 메야.(요리 나면 두 번은 매야.)

103009 @ 두 번은 메야 해요? 아 그러면 검질메는 거 검질 종류도 잇우광? 뭐, 뭐 나마씨?(두 번은 메야 해요? 아 그러면 김매는 거 김 종류도 잇습니까? 뭐, 뭐 나요?)

103009 #3 검질 종류는 진풀 췌비눔 이제 그냥 머 거 이제 대우리.(검질 종류는 별꽃 쇠비름 이제 그냥 머 거 이제 귀리.)

103009 @ 예. 대우리.(예. 귀리.)

103009 #3 보리말고 대우리.(보리말고 귀리.)

103009 @ 예.(예.)

103009 #3 그런 것들.(그런 것들.)

103009 @ 아, 그런 것들.(아, 그런 것들.)

103009 #3 그런 것들 메어 주고 이제.(그런 것들 매어 주고 이제.)

103009 @ 아, 그런 것들 구분이 똤마씨?(아, 그런 것들 구분이 되요?)

103009 #3 어.(어.)

103009 @ 어떻 구별헤마씨 그런 건?(어떻게 구별해요 그런 건?)

103009 #3 어?(어?)

103009 @ 어떻 구별헤마씨? 대우리 췌비눔 이런 거.(어떻게 구별해요? 귀리 쇠비름 이런 거.)

103009 #3 대우리 보리허고 곶이 올라 와. 곶이 올라 왕 이레 잇어도. 대우리 씨가 또 나.(귀리는 보리하고 같이 올라 와. 같이 올라 와서 이리 잇어도. 귀리는

씨가 또 나.)

103009 @ 아, 씨가?(아, 씨가?)

103009 #3 어. 씨가 또 낱. 보리허고 대우리허고 놔두민 보린 보리대로 케거든?(어. 씨가 또 나서. 보리하고 귀리하고 놔두면 보리는 보리대로 케거든?)

103009 @ 예.(예.)

103009 #3 대우린 대우리대로 캐민 환하게 알아져.(귀리는 귀리대로 캐면 환하게 알아져.)

103009 @ 아 환하게 알아져마씨?(아 환하게 알아져요?)

103009 #3 으응. 다 구별이 있어.(으응. 다 구별이 있어.)

103009 @ 뭐 감부기는 엇엇수광?(뭐 감부기는 없었습니까?)

103009 #3 어?(어?)

103009 @ 감부기는 엇엇수광? 검질 중에 감부기. 감부기는 안 들어받마씨?(감부기는 없었습니까? 김 중에 감부기. 감부기는 안 들어보셨어요?)

103009 #3 감부기는 안 들었어.(감부기는 안 들었어.)

103009 @ 아니 감부기. 감부기.(아니 감부기. 감부기.)

103009 #3 감부기?(감부기?)

103009 @ 감부기 감부기.(감부기 감부기.)

103009 #3 거 뭐라?(거 뭐라?)

103009 @ 아 검질 중에 감부기 같은 거 엇엇수광?(아 김 중에 감부기 같은 거 없었습니까?)

103009 #3 그런 거 거 췌비눔 참비눔 대우리 제완지 복쿨.(그런 거 거 쇠비름 참비름 귀리 바랭이 깨풀.)

103009 @ 아, 제완지.(아, 바랭이.)

103009 #3 어, 제완지. 복쿨 췌비눔 참비눔 그런 거 다 잇어.(어, 바랭이. 깨풀 쇠비름 참비름 그런 거 다 잇어.)

103009 @ 많이 알았신게마씨. 그 중에 뭐가 제일 많이 나타마씨?(많이 알고 있어요. 그 중에 뭐가 제일 많이 나요?)

103009 #3 그거 다 나는 거라. 그거 다 우리 손으로 매는 거라.(그거 다 나는 거라. 그거 다 우리 손으로 매는 거라.)

103009 @ 다 손으로 매?(다 손으로 매?)

103009 #3 예.(예.)

103010 @ 그른 보리 수확하잖아예.(그러면 보리 수확 하잖아요.)

103010 #3 예.(예.)

103010 @ 보리 수확은 어떻 헤마씨? 처음부터 이렇게 베는 거부터 좀 설명 해 줄 수 잇어마씨?(보리 수확은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베는 거부터 좀 설명 해 줄 수 잇어요?)

103010 #3 그래 이제 캐영 뿌리 잡앙 캐영 올라 왕 익으면 그거 이제 저 영 현

쇠 글갱이 닭은 거 잇영 그것을 이레 훑은. 훑으주게.(그래 이제 캐서 뿌리 잡아서 캐서 올라 와서 익으면 그거 이제 저 이렇게 한 쇠 호미 닭은 거 있어서 그것을 이리 훑는. 훑으지.)

103010 @ 예.(예.)

103010 #3 훑으른 알만 떨어지고 꺼풀은 내불고 경 허영 장만허는 거라.(훑으면 알만 떨어지고 꺼풀은 내버리고 그렇게 해서 장만하는 거라.)

103010 @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확할 때는 벤 다음에 묶잖아예.(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확할 때는 벤 다음에 묶잖아요.)

103010 #3 묶어야지.(묶어야지.)

103010 @ 왜 묶어마씨?(왜 묶어요?)

103010 #3 거 아이 묶으면 안양 텅기븐 흘러버리고 허곡. 세 비여 세.(그거 안 묶으면 안아서 다니면 흘러버리고 하고. 새 베어. 새.)

103010 @ 예.(예.)

103010 #3 세 가지곡. 세 비영 이리 세 세 세 비영 이레 이레 맨드라근앵 그걸로 묶으주게.(새 가지고. 새 베어서 이리 새 새 새 베어서 이리 이리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묶지.)

103011 @ 아아. 그럼 아까 훑은다고 헛잖아예. 그거 뭘로 훑어마씨?(아아. 그럼 아까 훑은다고 헛잖아요. 그거 뭘로 훑어요?)

103011 #3 그거 틀이엔 글아. 거 보리 훑으는 틀.(그거 틀이라고 말하지. 거 보리 훑으는 틀.)

103011 @ 틀?(틀?)

103011 #3 예.(예.)

103011 @ 보리 훑으는 틀.(보리 훑으는 틀.)

103011 #3 그걸로 이레 행 훑어야 보리알만 빠지주게.(그걸로 이리 해서 훑어야 보리알만 빠지지.)

103011 @ 음. 글림 버린 걸론 뭐 헨마씨?(음. 그럼 버린 걸로는 뭐 했어요?)

103011 #3 버린 건. 그걸 허영 놀영 낫당 그걸로 불 때.(버린 건. 그걸 해서 쌓아서 낫다가 그걸로 불 때.)

103011 @ 아, 불 땀마씨?(아, 불 땀어요?)

103011 #3 예. 옛날엔 빛이 엇으민 그걸로 밥도 허곡 국도 끓이고. 불 때.(예. 옛날에는 빛이 없으면 그걸로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불 때.)

103012 @ 아. 그럼 이제 그 막 알 나오면 그걸로 이제 쌀 만들잖아예. 보리쌀.(아. 그럼 이제 그 막 알 나오면 그걸로 이제 쌀 만들잖아요. 보리쌀.)

103012 #3 그거 알 나오민 그거 이제. 저 기계 옛날엔 엇이난.(그거 알 나오면 그거 이제. 저 기계 옛날에 없으니까.)

103012 @ 예.(예.)

103012 #3 소 허영 메왕 방에라고 잇어. 들방, 들방 허는 거.(소 해서 매어서 방

아라고 있어. 연자매, 연자매 하는 거.)

103012 @ 물방 하는 거?(연자매 하는 거?)

103012 #3 어. 물방 허는 거. 그거 이제 이만한 도르기 메공 소 메왕 그것에 영 꺼풀 벗겨 먹어.(어. 연자매 하는 거. 그거 이제 이만한 바퀴 매고 소 매어서 그것에 이렇게 꺼풀 벗겨 먹어.)

103012 @ 아 꺼풀 벗겨 먹어. 이렇게 돌리는 것도 잇엇수광?(아 꺼풀 벗겨 먹어. 이렇게 돌리는 것도 잇엇습니까?)

103012 #3 그걸로 돌리는 거주게. 그계.(그걸로 돌리는 거지. 그계.)

103012 @ 아 그걸로 돌리는 거.(아 그걸로 돌리는 거.)

103012 #3 그걸로 뱅뱅 돌. 소 메우민 그거 큰 이거 이거만한 도르기가 동그란게 있어. 그거 허영 이제 저 머고 나무허영 메왕 그걸로 뱅뱅 그레 돌령 그레 꺼풀 벗겨 먹언. 꺼풀 채 못 먹주게.(그걸로 뱅뱅 돌. 소 매면 그거 큰 이거 이거만한 바퀴가 동그란게 있어. 그거 해서 이제 저 뭐고 나무해서 매어서 그걸로 뱅뱅 그리 돌려서 그리 꺼풀 벗겨 먹었어. 꺼풀 채 못 먹지.)

103012 @ 그주마씨.(그렇지요.)

103012 #3 어. 보리 꺼풀 그거를 뱅뱅 돌리멍 꺼풀 벗겨.(아. 보리 꺼풀 그거를 뱅뱅 돌리면서 꺼풀 벗겨.)

103013 @ 그든 보리쌀로는 뭐 헨마씨? 옛날엔.(그러면 보리쌀로는 뭐 했어요? 옛날엔.)

103013 #3 보리쌀, 보리 그계 정 보리쌀 멘들영.(보리쌀, 보리 그계 찢어서 보리쌀 만들어서.)

103013 @ 예.(예.)

103013 #3 그걸로 보리밥도 허곡 떡도 허곡.(그걸로 보리밥도 하고 떡도 하고.)

103013 @ 음.(음.)

103013 #3 밥도 허곡. 경 해 먹어.(밥도 하고. 그렇게 해서 먹어.)

103013 @ 개역도 허고?(미숫가루도 하고?)

103013 #3 개역도 허고. 개역을 잘 알암신게.(미숫가루도 하고. 미숫가루 잘 알고 있네.)

103014 @ 그 아까 그 까끄라기 그런 거 그 불 불 때는 데 사용헨마씨? 남은 거는?(그 아까 그 까끄라기 그런 거 그 불 불 때는 데 사용했어요? 남은 거는?)

103014 #3 그 대는 불 때여.(그 대는 불 때.)

103014 @ 대는 불 때여.(대는 불 때.)

103014 #3 그걸로 불 때영 밥도 허곡 국도 끓이곡 죽도 썬 먹곡. 그걸로 불 때영. 보릿쪽으로.(그걸로 불 때어서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죽도 썬 먹고. 그걸로 불 때어서. 보리짚으로.)

103015 @ 아 보릿쪽으로.(아 보리짚으로.)

103015 #3 예.(예.)

103015 @ 할머니 그러면 옛날에 보리농사 하면서 재미있던 거나 기억나는 거 있수광? 옛날이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마씨? 보리농사.(할머니 그러면 옛날에 보리농사 하면서 재미있던 거나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옛날이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요? 보리농사.)

103015 #3 거 아까 곧듯이 예전 그거베틀는. 옛날은 그저 그 하도 어렵게 살안.(거 아까 말했듯이 예전 그거밖에는. 옛날은 그저 그 하도 어렵게 살았어.)

103015 @ 예.(예.)

103015 #3 어려왕 엿이니까 참 동네 댕기든 동냥도 다 허고 싶은 마음도 있고. 먹젠 허난. 그레 보리 첨엔 좀 잇영 나니깐 그건 이제 곶앙.(어려워서 없으니까 참 동네 다니면서 동냥도 다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먹으려고 하니까. 그리 보리 처음에는 좀 있어서 나니까 그건 이제 같아서.)

103015 @ 예.(예.)

103015 #3 죽 썬 먹었어.(죽 썬 먹었어.)

103015 @ 죽 썬 먹었어마씨?(죽 썬 먹었어요?)

103015 #3 어. 밥 할 거 엿이난 그거 곶앙 죽 썬 떡꼭 허당. 차츰 차츰 이제 흐썰 늘어가난 그거 이제 저 물뱅이 메왕. 물뱅이 메멍 방에에 이젠 뱅뱅 돌려근엿 그거 꺼풀 베틀 이제 보리쌀 톨들어 먹었주게 이제.(어. 밥 할 거 없으니까 그거 같아서 죽 썬 먹고 하다가. 차츰 차츰 이제 조금 늘어가니까 그거 이제 저 연자매 매워서 방아에 이젠 뱅뱅 돌려가지고 그거 꺼풀 벗겨서 이제 보리쌀 만들어 먹었지 이제.)

103015 @ 언제까지 하신마씨 보리농사? 할머니.(언제까지 하셨어요 보리농사? 할머니.)

103015 #3 아이고 옛날 허난 이젠 몇 해 뵈주게.(아이고 옛날 하니까 이젠 몇 해 뵈지.)

103015 @ 아, 몇 해 뵈마씨?(아, 몇 해 뵈어요?)

103015 #3 예. 세월이 돌아오난 그런 거 엿엿주게 이제. 기계 기계가 나난 기계 강 보리도 강 꺼풀 벗겨당 먹고. 경 헛주게.(예. 세월이 돌아오니까 그런 거 없었지 이제. 기계 기계가 나니까 기계에 가서 보리도 가서 꺼풀 벗겨다가 먹고. 그렇게 했지.)

103015 @ 그럼 그 옛날엔 기계 엿이난 힘들었지예?(그럼 그 옛날에는 기계 없으니까 힘들었지요?)

103015 #3 아이고 경 허난 물뱅이 뱅뱅 돌리멍 꺼풀 벗겨 먹었어.(아이고 그렇게 하니까 연자매 뱅뱅 돌리면서 꺼풀 벗겨 먹었어.)

조 농사

103016 @ 아 그럼 예전에 조 농사도 하신마씨?(아 그럼 예전에 조 농사도 하셨

어요?)

103016 #3 조 농사 허고말고.(조 농사 하고말고.)

103016 @ 그럼 조 농사 헐려면 뭐, 뭐 준비헨마씨?(그럼 조 농사 하려면 뭐, 뭐 준비했어요?)

103016 #3 어?(어?)

103016 @ 조 농사 허젠 허민 뭐 필요한 거 엇수광?(조 농사 하려고 하면 뭐 필요한 거 없었습니까?)

103016 #3 조 농사 헐라 허면 필요 엇는 거 엇어. 그자 비료 뼈여근엥 줍씨 뼈영 허민 되는 거.(조 농사 하려고 하면 필요 없는 거 없어. 그자 비료 뿌려서 ‘줍씨’ 뿌려서 하면 되는 거.)

103016 @ 그럼 줍씨는 어디서 사완마씨?(그럼 ‘줍씨’는 어디서 사왔어요?)

103016 #3 줍씨 거 어디서 나는 그 씨가 잇엇주게.(‘줍씨’ 거 어디서 나는 그 씨가 있었지.)

103016 @ 아.(아.)

103016 #3 잇영 그 줍씨 뼈여근엥 조 글아근엥 이제 저 조 글양 익영 이제 이레 익으민 그거 이제 알로 이제 호미로 비어근엥 이런 거 고고리만.(잇어서 그 ‘줍씨’ 뿌려서 조 갈아서 이제 저 조 갈아서 익어서 이제 이리 익으면 그거 이제 아래로 이제 낮으로 베어서 이런 거 이삭만.)

103016 @ 예.(예.)

103016 #3 고고리만 이제 뜯어근엥 그거 이제 들벙이에 둥그리고 안 그러민 도께. 도께로 이레 두드리는 것도 잇어. 이레.(이삭만 이제 뜯어서 그거 이제 연자매에 굴려서 안 그러면 도리께, 도리께로 이리 두드리는 것도 잇어. 이리.)

103016 @ 예. 도께로 두드리는 거 잇지예.(예. 도리께로 두드리는 거 잇지요.)

103016 #3 도께 도께. 그걸로도 두드리고 경 헤연.(도리께 도리께. 그걸로도 두드리고 그렇게 했어.)

103017 @ 그럼 조, 조밭에도 거름 필요하잖아예. 걸름.(그럼 조, 조밭에도 거름 필요하잖아요. 거름.)

103017 #3 뭐?(뭐?)

103017 @ 조밭에 걸름.(조밭에 거름.)

103017 #3 걸름사 필요허고말고. 걸름이 그래 많이 잇어야지게. 많이 엇이난.(거름이야 필요허고말고. 거름이 그래 많이 잇어야지. 많이 없으니까.)

103017 @ 많이 엇어마씨?(많이 없어요?)

103017 #3 어. 조도 갈젠 허민 비료 비싸도 비료 상 흥폼씩 허주게.(어. 조도 가려고 하면 비료 비싸도 비료 사서 조금씩 하지.)

103017 @ 그면 보리 헐 때랑 조 헐 때랑 걸름은 똑같은 거 사용헨마씨?(그러면 보리 할 때랑 조 할 때랑 거름은 똑같은 거 사용했어요?)

103017 #3 걸름 다 넣어야지게.(거름 다 넣어야지.)

103017 @ 그니까 다 똑같은 거마씨?(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103017 #3 똑같아 걸름은. 걸름은 똑같아.(똑같아 거름은. 거름은 똑같아.)

103018 @ 그든 조는 언제 갈안마씨?(그러면 조는 언제 갈았어요?)

103018 #3 조. 보리 비어 텅 같아.(조. 보리 베어 두어서 같아.)

103018 @ 보리 비어 텅? 보리 끝난 다음에?(보리 베어 뒤서? 보리 끝난 다음에?)

103018 #3 어. 끝난 다음에 조 같아.(어. 끝난 다음에 조 같아.)

103018 @ 그건 어떻 갈아마씨?(그건 어떻게 갈아요?)

103018 #3 밀에 비료 빼영 그자 줍씨만 빼영 내불른 그레 나오민 넘으면 딱 차게 비좁으면 줍 그거 줍 트멍으로 메어불고 걸렁 김질메고 경 헤영 고고리 올라오민 익으면 그저 조낭 비어근영 고고리 그거 이제 들뱅이에 뱅뱅 돌렁 허민 이제 알맹이만 떨어지민 알맹이만 줏어불고.(밀에 비료 뿌려서 그저 ‘줍씨’만 뿌려서 내버리면 그리 나오면 넘으면 딱 차게 비좁으면 줍 그거 줍 트멍으로 매어버리고 걸려서 김매고 그렇게 해서 이삭 올라오면 익으면 그저 조짚 베어서 이삭 그거 이제 연자매에 뱅뱅 돌려서 하면 이제 알맹이만 떨어지면 알맹이만 주어버리고.)

103019 @ 그럼 이제 줍씨는 어떻 뿌려마씨?(그럼 이제 ‘줍씨’는 어떻게 뿌렸어요?)

103019 #3 줍씨 이제. 이제 이게 매어근영 잡아서 이레 빼주게.(‘줍씨’ 이제. 이제 이게 매어서 잡아서 이리 뿌리지.)

103019 @ 그럼 이렇게 사이사이에 뿌려야 되잖아예. 그냥 막 뿌려마씨?(그럼 이렇게 사이사이에 뿌려야 되잖아요. 그냥 막 뿌렸어요?)

103019 #3 이거 흔 고지민 그냥 막 빼어.(이거 한 이랑이면 그냥 막 뿌려.)

103019 @ 아, 막 빼어.(아, 막 뿌려.)

103019 #3 예?(예?)

103019 @ 흔 고지가 어느 정도지마씨?(한 이랑이 어느 정도지요?)

103019 #3 예?(예?)

103019 @ 한 고지가 어느 정도마씨? 한 고지가?(한 이랑이 어느 정도예요? 한 이랑이?)

103019 #3 한 고지가 요만큼씩 허지.(한 이랑이 요만큼씩 하지.)

103019 @ 아 요만큼.(아 요만큼.)

103019 #3 예 요만큼씩 허면 그저.(예 요만큼씩 하면 그저.)

103020 @ 그럼 조밭도 조밭도 밟아마씨? 보리밭처럼?(그럼 조밭도 조밭도 밟아요? 보리밭처럼?)

103020 #3 조밭을 밟아야지.(조밭을 밟아야지.)

103020 @ 아, 뭤로 어떻 밟아마씨?(아, 뭤로 어떻게 밟아요?)

103020 #3 소영 들이 잇이민 그거 이제 이레 모가지 메어근영. 이레 땡기멍 막 밟주.(소와 말이 있으면 그거 이제 이리 모가지 매어서. 이리 당기면서 막 밟지.)

103020 @ 아. 무사 뽀아마씨?(아. 왜 뽀아요?)
103020 #3 거 씨 물어지랜게.(거 씨 물어지라고.)
103020 @ 아, 씨 물어지래.(아, 씨 물어지라고.)
103020 #3 씨가 꼭 꼭 뽀여야 나오주게. 씨 물어지래.(씨가 꼭 꼭 뽀혀야 나오지. 씨 물어지라고.)
103021 @ 그럼 조밭도 검질메잖아예.(그럼 조밭도 김매잖아요.)
103021 #3 아이구 메고말구.(아이구 매고말고.)
103021 @ 몇 번 메마씨?(몇 번 매요?)
103021 #3 세 번 메여.(세 번 매.)
103021 @ 아. 세 번. 보리밭은 두 번인데 조는 세 번. 무사 세 번 메마씨?(아. 세 번. 보리밭은 두 번인데 조는 세 번, 왜 세 번 매요?)
103021 #3 어?(어?)
103021 @ 무사 세 번 메마씨? 그냥 많이 나니까 세 번 메야 뽀마씨?(왜 세 번 매요? 그냥 많이 나니까 세 번 매야 되요?)
103021 #3 몰라.(몰라.)
103022 @ 그럼 조밭에도 검질 나잖아예?(그럼 조밭에도 김 나잖아요?)
103022 #3 많이 나지.(많이 나지.)
103022 @ 종류는 뽀, 뽀 난마씨?(종류는 뽀, 뽀 뽀어요?)
103022 #3 검질게, 이제 고랑 저거 검질은 그냥 검질이 그 검질로 나. 췌비눔 춤비눔 머 이레 질레 나는 풀. 그런 거 다 나는 거라.(김, 이제 고랑 저거 김은 그냥 김이 그 김으로 나. 쇠비름 참비름 머 이리 길에 나는 풀. 그런 거 다 나는 거라.)
103022 @ 질레 나는 풀도 다 나마씨?(길에 나는 풀도 다 나오요?)
103022 #3 예. 다 나는 거라.(예. 다 나는 거라.)
103022 @ 경 헤부난 많이 검질메야겠다예.(그렇게 헤버리니까 많이 김매야겠군요.)
103022 #3 메민 허민 막 오래주게.(매면 하면 막 오래이지.)
103023 @ 그럼 이렇게 조도 수확하잖아예?(그럼 이렇게 조도 수확하잖아요?)
103022 #3 예.(예.)
103023 @ 다 나면 어떻 수확헨마씨?(다 나면 어떻게 수확했어요?)
103023 #3 수확 잘 뽀면 수확 많이 허고. 열 말 날 때 흥 섬도 나곡. 수확 그 저 조가 안 뽀면 얼마 안 뽀고 경 허지.(수확 잘 뽀면 수확 많이 하고. 열 말 날 때 흥 섬도 나고. 수확 그 저 조가 안 뽀면 얼마 안 뽀고 그렇게 하지.)
103023 @ 그럼 조도 이렇게 베어서.(그럼 조도 이렇게 베어서.)
103023 #3 비어. 호미로.(베어. 낫으로.)
103023 @ 예.(예.)
103023 #3 호미로 비영.(낫으로 베어서.)

103023 @ 예.(예.)

103023 #3 이거 조 나면 이거 고고리민 고고리로 때려 따고.(이거 조 나면 이거 이삭이면 이삭으로 때려 따고.)

103023 @ 예.(예.)

103023 #3 이제 남은 거는 묶으어 낫당 소 맥이고.(이제 남은 거는 묶어 낫다가 소 먹이고.)

103023 @ 아 소 맥이고.(아 소 먹이고.)

103023 #3 거 나면 소 맥이고.(거 나면 소 먹이고.)

103023 @ 그 호미를 옛날에도 호미라고 헨마씨?(그 낫을 옛날에도 낫이라고 했어요?)

103023 #3 그거 호미라. 옛날도 그거 호미라.(그거 낫이라. 옛날도 그거 낫이라.)

103023 @ 여기는 굴갱이라 안 헛수광?(여기는 ‘굴갱이’라 안 했습니까?)

103023 #3 굴갱이 다르고 호미 다르주게.(호미 다르고 낫 다르지.)

103023 @ 뭐 어떻 달라마씨?(뭐 어떻게 달라요?)

103023 #3 호미는 이레 이레 이만치 들영 곱아진 거라서 이레 이 손으로 췌민 이레 이레 베고. 굴갱이는 영 오그라지니 검질만 이레 이레 베고.(낫은 이리 이리 이만큼 들여서 곱은 거여서 이리 이 손으로 쥐면 이리로 이리 베고. 호미는 이렇게 오그라지니까 김만 이리 이리 베고.)

103023 @ 아 검질멜 땀 굴갱이 허고.(아 김멜 때는 호미하고.)

103023 #3 응.(응.)

103024 @ 그럼 조 벤 다음에 그것도 타작해야 되잖아예?(그럼 조 벤 다음에 그것도 타작해야 되잖아요?)

103024 #3 타작해야지.(타작해야지.)

103024 @ 어떻 타작헨마씨?(어떻게 타작했어요?)

103024 #3 조 고고리 탕.(조 이삭 따서.)

103024 @ 예.(예.)

103024 #3 고고리 탕 거 물벙이에 잇으니까 그것에 뱅뱅 들렁 거 저 알맹이 빼 주게.(이삭 따서 거 연자매에 잇으니까 그것에 뱅뱅 둘러서 거 저 알맹이 빼지.)

103024 @ 그럼 그 보리랑 조랑 비슷해마씨?(그럼 그 보리랑 조랑 비슷해요?)

103024 #3 아니, 다르지.(아니, 다르지.)

103024 @ 어떻 달라마씨? 살짝 설명해 줘서.(어떻게 달라요? 살짝 설명해 주십시오.)

103024 #3 보린게.(보리는.)

103024 @ 예.(예.)

103024 #3 낱알이 굵고 조는 쫌쫌허주게. 경 허믄 보리 이제 해 난 다음에 그때 조 가는 거라.(낱알이 굵고 조는 자잘하지. 그렇게 하면 보리 이제 해 난 다음에 그

때 조 가는 거라.)

103024 @ 아. 타작 보리도 타작하고 조도 타작허잖아예?(아. 타작 보리도 타작하고 조도 타작하잖아요?)

103024 #3 어.(어.)

103024 @ 그럼 타작허는 거는 똑같아마씨?(그럼 타작하는 거는 똑같아요?)

103024 #3 타작허는 거?(타작하는 거?)

103024 @ 예.(예.)

103024 #3 보리도 타작하고 조도 타작하고 곱아.(보리도 타작하고 조도 타작하고 곱아.)

103024 @ 곱아마씨? 그거는? 기계도 똑같은 걸로 하고?(같아요? 그거는? 기계도 똑같은 걸로 하고?)

103024 #3 기계로도 하고 도께.(기계로도 하고 도리께.)

103024 @ 아. 도께.(아. 도리께.)

103024 #3 예. 도께로. 도께질 허는 거 알지? 도께.(예. 도리께로. 도리께질 하는 거 알지? 도리께.)

103024 @ 도께는 아는디 그것 좀 얘기해 줘서. 도께질 허는 거. 어떻 해야 돼마씨?(도리께는 아는데 그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도리께질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요?)

103024 #3 도께 이제.(도리께 이제.)

103024 @ 예.(예.)

103024 #3 요래 요래 요래 헤여. 요래 헤영 요만허게 헤영.(요리 요리 요리 해. 요리 해서 요만허게 해서.)

103024 @ 이렇게 췌 거마씨?(이렇게 췌 거요?)

103024 #3 어. 그런 거 헤영 이제 요런 나무에 붙잡앙 허주게.(어. 그런거 해서 이제 요런 나무에 붙잡아서 하지.)

103024 @ 아아. 그렇구나예. 그럼 거기서 이렇게 도께질 한 다음에 줍쌀 나오겠다예?(아아. 그렇군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도리께질 한 다음에 줍쌀 나오겠군요?)

103024 #3 어. 다 줍쌀 떨어지민 그래 담아근앵 줍쌀을 이제 다 이제 벌에 몰렁 또 방에 강 행 먹주게.(어. 다 줍쌀 떨어지면 그래 담아가지고 줍쌀을 이제 다 이제 벌에 말려서 또 방아 가서 해서 먹지.)

103024 @ 아. 벌에 말렸다가.(아. 벌에 말렸다가.)

103024 #3 몰려야지 돼주게. 안 몰리면 아니 돼주게.(말려야지 되지. 안 말리면 안 되지.)

103024 @ 안 말리면 안 돼마씨?(안 말리면 안 되요?)

103024 #3 거 방에 돌방에에 고고리 하민 떡 돼불어. 아니 말리면.(거 방아 돌방아에 이삭 하면 떡 돼버려. 안 말리면.)

103024 @ 아. 얼마나 말려야 돼마씨?(아. 얼마나 말려야 되요?)

103024 #3 한 스홀 몰려.(한 사홀 말려.)
103024 @ 사홀이나.(사홀이나.)
103024 #3 어.(어.)
103024 @ 중간에 비오면 어떻 해마씨?(중간에 비오면 어떻게 해요?)
103024 #3 비 오기 전 비 오면 아니 허고. 비 안 오면 널곡.(비 오기 전 비 오면 안 하고. 비 안 오면 널고.)
103024 @ 막 널엇인디 비 오면 어떻 헨마씨? 걷어야 돼나?(막 널엇는데 비 오면 어떻게 했어요? 걷어야 되나?)
103024 #3 비 오니까 얼른 강 뒤어야주게.(비 오니까 얼른 가서 덮어야지.)
103026 @ 그믄 그 좁쌀 방에 가가지고 가져오면 그걸로 뭐 해 먹언마씨?(그러면 그 좁쌀 방아 가가지고 가져오면 그걸로 뭐 해 먹었어요?)
103026 #3 밥 해먹주게.(밥 해먹지.)
103026 @ 그럼 그 밥 말앙 또 허는 거 엇수광?(그럼 그 밥 말고 또 하는 거 없습니까?)
103026 #3 떡도 해 먹고.(떡도 해 먹고.)
103026 @ 그믄 좁쌀로 허는 떡은 무슨 떡마씨? 그냥 떡?(그러면 좁쌀로 하는 떡은 무슨 떡이에요? 그냥 떡?)
103026 #3 여기 저 시리떡 여기 저 나오잖아.(여기 저 시루떡 여기 저 나오잖아.)
103026 @ 예.(예.)
103026 #3 그거 다 좁쌀로 맨든 떡이여.(그거 다 좁쌀로 만든 떡이야.)
103026 @ 아, 시리떡 좁쌀로 헨 거.(아, 시루떡 좁쌀로 한 거.)
103026 #3 어.(어.)
103026 @ 술은 안 만들언마씨?(술은 안 만들었어요?)
103026 #3 술도 멘들어.(술도 만들어.)
103026 @ 무슨 술마씨?(무슨 술이요?)
103026 #3 그거 멘들엉 소주도 허고 막걸리도 해 먹주게.(그거 만들어서 소주도 하고 막걸리도 해 먹지.)
103026 @ 그럼 술은 어떻 만들어마씨? 좁쌀로.(그럼 술은 어떻게 만들어요? 좁쌀로.)
103026 #3 그거 밥 허영 누룩 섞어게.(그거 밥 해서 누룩 섞어서.)
103026 @ 아 누룩 섞어서.(아 누룩 섞어서.)
103026 #3 누룩 누룩.(누룩 누룩.)
103026 @ 예.(예.)
103026 #3 누룩 섞어야 술이 돼주게.(누룩 섞어야 술이 되지.)
103026 @ 할머니도 만들어 보셤마씨?(할머니도 만들어 보셨어요?)
103026 #3 나도 멘들어 봤어. 옛날에.(나도 만들어 봤어. 옛날에.)

103026 @ 지금은 안 만들고?(지금은 안 만들고?)

103026 #3 지금은 이제 늙어부난 헐 수 엇주게.(지금은 이제 늙어버리니까 할 수 없지.)

103027 @ 그럼 조 타작한 다음에 조찍 남잖아예. 조찍.(그럼 조 타작한 다음에 조짚 남잖아요. 조짚.)

103027 #3 조찍은 게 요래 요래 요만큼씩 묶어 낫당 쉼 맥여.(조짚은 요리 요리 요만큼씩 묶어 낫다가 소 먹여.)

103027 @ 아. 쉼 맥여.(아. 소 먹여.)

103027 #3 응. 쉼 맥여. 쉼 쉼들 옛날엔 다 쉼들 질러 놓난 그거 쉼출이주게. (응. 소 먹여. 소 소들 옛날엔 다 소들 길러 놓으니까 그거 쇠끝이지.)

103027 @ 아 예.(아 예.)

103027 #3 쉼출.(쇠끝.)

103027 @ 쉼출.(쇠끝.)

103027 #3 예.(예.)

103027 @ 쉼출은 다른 출밭⁵²⁾에 강.(쇠끝은 다른 풀밭에 가서.)

103027 #3 출밭이 강 그 새 곱은 거 잇지?(풀밭에 가서 그 새 곱은 거 잇지?)

103027 @ 예.(예.)

103027 #3 그거 비영 혼 스홀 물렁 묶영 그걸로 소 맥여.(그거 베어서 한 사홀 말려서 묶어서 그걸로 소 먹여.)

103027 @ 아. 소 맥여.(아. 소 먹여.)

103027 #3 어.(어.)

103027 @ 그럼 할머니도 옛날에 조 농사 헛수광?(그럼 할머니도 옛날에 조 농사 했습니까?)

103028 #3 다 나가 헛주게.(다 내가 했지.)

103028 @ 그럼 조 농사 헛던 거 기억나는 거 뭐 엇어마씨?(그럼 조 농사 헛던 거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103028 #3 기억 나는 거 그거 하나밭과 뭐 기억나는 거 잇어?(기억 나는 거 그거 하나밖에 뭐 기억나는 거 잇어?)

103028 @ 조 농사 어디 이 동네에서 헛수광? 할머니?(조 농사 어디 이 동네에서 했습니까? 할머니?)

103028 #3 이 동네 살안.(이 동네 살았어.)

103028 @ 이 동네?(이 동네?)

103028 #3 어. 이딴 즈갓이 요딴 집이여.(어. 여기 곁에 요기 집이야.)

103028 @ 아 즈갓이 여기 뒤. 그럼 밭도 이 근처에?(아 곁에 여기 뒤. 그럼 밭도 이 근처에?)

103028 #3 예.(예.)

52) '출밭'은 마소의 사료인 풀을 가꾸는 밭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출왓

103028 @ 아.(아.)

103028 #3 밧도 여기 잇고 여기서 밧고. 요기서 나고 요기서 크고.(밭도 여기 잇고 여기서 밧고. 요기서 나고 요기서 크고.)

103028 @ 어디 안 갖구나예?(어디 안 잤군요?)

103028 #3 안 가고 그저 여기서 나고 여기서 크고 여기서 살았어.(안 가고 그저 여기서 나고 여기서 크고 여기서 살았어.)

콩 농사

103029 @ 아, 기구나예. 그믐 혹시 할머니 콩 농사도 하셧마씨?(아,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할머니 콩 농사도 하셧어요?)

103029 #3 어?(어?)

103029 @ 콩 농사. 콩.(콩 농사. 콩.)

103029 #3 콩도 갈주게.(콩도 갈지.)

103029 @ 콩 농사 하려면 뭐 준비해야 됩마씨?(콩 농사 하려면 뭐 준비해야 되요?)

103029 #3 콩 갈앙 누렇게 익으면 비영 그거 이제 도께로 이레 두드리주게.(콩 갈아서 누렇게 익으면 베어서 그거 이제 도리께로 이리 두드리지.)

103029 @ 그럼 콩 농사 하려면 콩 씨만 잇으면 됩마씨?(그럼 콩 농사 하려면 콩 씨만 있으면 되요?)

103029 #3 어.(어.)

103029 @ 콩은 언제 갈아마씨?(콩은 언제 갈아요?)

103029 #3 콩도.(콩도.)

103029 @ 예.(예.)

103029 #3 밧에 풀 나민 그거 풀 아이 나게 갈아당 콩 갈젠 허민 비료 빼영 콩 씨 비료 빼어 낱 콩 씨 빼영 갈주게.(밭에 풀 나면 그거 풀 안 나게 갈아다가 콩 갈려고 하면 비료 뿌려서 콩 씨 비료 뿌려 놔서 콩 씨 뿌려서 갈지.)

103030 @ 그럼 보리 한 다음에 조 하잖아예.(그럼 보리 한 다음에 조 하잖아요.)

103030 #3 예.(예.)

103030 @ 그 다음에 콩은 언제 해마씨?(그 다음에 콩은 언제 해요?)

103030 #3 콩은 조 갈 때 끝이 갈아.(콩은 조 갈 때 같이 갈아.)

103030 @ 아, 조랑 같이 갈아마씨?(아, 조랑 같이 갈아요?)

103030 #3 예.(예.)

103030 @ 옆에 밧에 조금씩?(옆에 밧에 조금씩?)

103030 #3 예. 경 해영 조 갈명 콩도 갈곡.(예. 그렇게 해서 조 갈면서 콩도 갈고.)

103031 @ 그럼 콩밭에도 걸름 뿌리잖아예.(그럼 콩밭에도 거름 뿌리잖아요.)

103031 #3 걸름이 어디 경 시. 콩밭에 갈당. 콩은 그냥 갈아.(거름이 어디 그렇게 있어. 콩밭에 갈다가. 콩은 그냥 갈아.)

103031 @ 아, 콩은 걸름 안 써?(아, 콩은 거름 안 써?)

103031 #3 어. 어디 걸름이 경 잇어게.(어. 어디 거름이 그렇게 있어.)

103031 @ 옛날에 걸름 많이 엇엇수광?(옛날에 거름 많이 없었습니까?)

103031 #3 많이 허여도 돼지 키왕 허고 소 메영 허곡 허여도 그게 모지레여.(많이 해도 돼지 키워서 하고 소 매어서 하고 해도 그게 모자라.)

103032 @ 그럼 콩 씨는 어떻 뿌려마씨?(그럼 콩 씨는 어떻게 뿌려요?)

103032 #3 콩 씨 이레 이레.(콩 씨 이리 이리.)

103032 @ 멩텅이에 담양 뿌려마씨?(망태기에 담아서 뿌려요?)

103032 #3 어. 멩텅이에 담아근앵.(어. 망태기에 담아서.)

103032 @ 그럼 보리나 조나 콩이나 뿌리는 건 다 비슷해마씨?(그럼 보리나 조나 콩이나 뿌리는 건 다 비슷해요?)

103032 #3 다 다 곱아.(다 다 갈아.)

103032 @ 다 갈아.(다 갈아.)

103032 #3 어.(어.)

103033 @ 그럼 콩밭에도 김매기 헛엇수광?(그럼 콩밭에도 김매기 헛엇습니까?)

103033 #3 예?(예?)

103033 @ 김매기. 아니 검질멘마씨? 콩밭에도.(김매기. 아니 김매셨어요? 콩밭에도.)

103033 #3 아이고 두벌 시벌 메야 돼. 콩밭에도.(아이고 두벌 세벌 매야 돼. 콩밭에도.)

103033 @ 아 두벌 시벌.(아 두벌 세벌.)

103033 #3 예. 검질은 두불 시불 다. 보리고 조고 콩이고 다 경 메여야 돼어.(예. 김은 두벌 세벌 다. 보리고 조고 콩이고 다 그렇게 매야 돼.)

103033 @ 그럼 처음 검질메는 걸 무슨 검질이라고 헨마씨?(그럼 처음 김매는 걸 무슨 김이라고 했어요?)

103033 #3 다 이 질레 나는 게 검질이라.(다 이 길에 나는 게 김이라.)

103033 @ 아까 두 번 허면 두불 검질.(아까 두 번 하면 두벌 김.)

103033 #3 뭐 췌비눔이고 진쿨이고 뭐 나는 건 질레 나는 건 다 나는 거라.(뭐 쇠비름이고 별꽃이고 뭐 나는 건 길에 나는 건 다 나는 거라.)

103033 @ 그면 아까 검질 세 번 멘다고 헛자나예.(그러면 아까 김 세 번 맨다고 헛잖아요.)

103033 #3 어?(어?)

103033 @ 검질 세 번 메마씨?(김 세 번 매요?)

103033 #3 세 번 메여.(세 번 매.)

103033 @ 그면 두 번 매는 건 두벌검질이라고 헛수광?(그러면 두 번 매는 건

두벌김이라고 했습니까?)

103033 #3 두벌김질. 시불허민 시불김질.(두벌김. 세벌하면 세벌김.)

103033 @ 처음은?(처음은?)

103033 #3 처음은 초벌김질.(처음은 초벌김.)

103033 @ 아 그렇게 헨마씨?(아 그렇게 했어요?)

103033 #3 예 초불 두불 세불.(예 초벌 두벌 세벌.)

103035 @ 아 그럼 콩도 수확하잖아예.(아 그럼 콩도 수확하잖아요)

103035 #3 예.(예.)

103035 @ 그럼 어땜 이렇게 꺾어서마씨? 골갱이로?(그럼 어떻게 이렇게 꺾어서요? 호미로?)

103035 #3 호미로.(낫으로.)

103035 @ 호미로?(낫으로?)

103035 #3 호미로 이레 이레 꺾어서.(낫으로 이리 이리 꺾어서.)

103035 @ 예.(예.)

103035 #3 그래서 이제 도끼로 두드리거든.(그래서 이제 도리개로 두드리거든.)

103035 @ 아, 도끼로.(아, 도리개로.)

103035 #3 예.(예.)

103035 @ 그것도 도끼로.(그것도 도리개로.)

103035 #3 이 이제 명석 낄앙 이제 두드리주게.(이 이제 명석 깔아서 이제 두드리지.)

103035 @ 명석 낄앙.(명석 깔아서.)

103035 #3 그래야 콩을 담주게. 어디 땅에 헤저게.(그래야 콩을 담지. 어디 땅에 할 수 있어.)

103035 @ 음.(음.)

103035 #3 명석 깔아야. 그 먹을 거난게.(명석 깔아야. 그 먹을 거니까.)

103035 @ 그것도 좀 말려마씨?(그것도 좀 말려요?)

103035 #3 아이고 물리고말고.(아이고 말리고말고.)

103035 @ 그건 또 며칠 말려야 돼마씨? 그것도 한 사흘.(그건 또 며칠 말려야 되요? 그것도 한 사흘.)

103035 #3 스흘 물려.(사흘 말려.)

103035 @ 사흘 말려.(사흘 말려.)

103035 #3 아니 물리멘 썩어불어.(안 말리면 썩어버려.)

103035 @ 아, 썩어불어.(아, 썩어버려.)

103035 #3 예. 바삭 물려야 돼. 그것도.(예. 바삭 말려야 돼. 그것도.)

103036 @ 그럼 그거 가져왕 막 먹잖아예. 뭐 행 먹언마씨? 콩으론.(그럼 그거 가져와서 막 먹잖아요. 뭐 해서 먹었어요? 콩으로는.)

103036 #3 뭐?(뭐?)

103036 @ 콩으로는 뭐 행 먹언마씨?(콩으로는 뭐 해서 먹었어요?)

103036 #3 콩?(콩?)

103036 @ 예.(예.)

103036 #3 그거 밥에도 낱 먹고 곶양 죽도 썬 먹고.(그거 밥에도 낱 먹고 갈아서 죽도 썬 먹고.)

103036 @ 곶양 죽도 썬 먹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엿수광?(갈아서 죽도 썬 먹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없었습니까?)

103036 #3 밥에도 낱 먹고.(밥에도 낱 먹고.)

103036 @ 아아. 메주 장도 담고.(아아. 메주 장도 담고.)

103036 #3 그거 콩으로 메주 썰 장 담그주게.(그거 콩으로 메주 썰서 장 담그지.)

103036 @ 그 다음에 두부도 만들지예?(그 다음에 두부도 만들지요?)

103036 #3 응. 두부도 허고. 두부도 콩으로 멘들고.(응. 두부도 하고. 두부도 콩으로 만들고.)

103036 @ 두부도 콩으로 멘들고.(두부도 콩으로 만들고.)

103037 @ 그럼 콩씩 잇잖아예.(그럼 콩질 잇잖아요.)

103037 #3 예.(예.)

103037 @ 도리깨질 한 다음에 남은 거. 그건 뭤로 써마씨?(도리깨질 한 다음에 남은 거. 그건 뭤로 써요?)

103037 #3 콩 씨 빼주게.(콩 씨 뿌리지.)

103037 @ 아니 콩질 잇잖아예.(아니 콩질 잇잖아요.)

103037 #3 어.(어.)

103037 @ 콩 다 해가지고 가져온 다음에 도리깨질 한 다음에.(콩 다 해가지고 가져온 다음에 도리깨질 한 다음에.)

103037 #3 도께.(도리깨.)

103037 @ 도께질 한 다음에 콩은 먹잖아예.(도리깨질 한 다음에 콩은 먹잖아요.)

103037 #3 어.(어.)

103037 @ 그럼 줄기 같은 거 콩질 남은 거 잇잖아예. 그걸로 뭐 헨마씨? 그것도 불 때는 데 써마씨?(그럼 줄기 같은 거 콩질 남은 거 잇잖아요. 그걸로 뭐 했어요? 그것도 불 때는 데 써요?)

103037 #3 소 맥여.(소 먹여.)

103037 @ 아, 소 맥여 그걸로.(아, 소 먹여 그걸로.)

103037 #3 예. 이레 헛당 이레 데명 이레 혼쪽에 이레 차박차박 제거 낫당 그걸로 소 맥여.(예. 이리 했다가 이리 쌓아서 이리 한쪽에 이리 자박자박 축적해 냐다가 그걸로 소 먹여.)

103038 @ 아. 그럼 콩 농사 예전에 헛던 거 다른 거 얘기할 것 잇어마씨?(아.

그럼 콩 농사 예전에 했던 거 다른 거 얘기할 것 있어요?)

103038 #3 엇어게 이젠.(없어 이제는.)

103038 @ 무사. 잘 굴암신게마씨.(왜. 잘 말하고 있어요.)

밭벼 농사

103039 @ 그 밭벼 농사도 하신마씨?(그 밭벼 농사도 하셨어요?)

103039 #3 어?(어?)

103039 @ 밭벼 농사?(밭벼 농사?)

103039 #3 무신 농사?(무슨 농사?)

103039 @ 밭벼 농사. 밭벼. 산디.(밭벼 농사. 밭벼. 밭벼.)

103039 #3 산디도 조 갈 때 같이 갈양.(밭벼도 조 갈 때 같이 갈아서.)

103039 @ 아 조 갈 때 같이 갈양.(아 조 갈 때 같이 갈아서.)

103039 #3 예. 것도 밑에 비료 빼고 그레가지고 검질도 시불씩 메고.(예. 것도 밑에 비료 뿌리고 그레가지고 김도 세벌씩 매고.)

103043@ 음 그건 세 번 메마씨?(음 그건 세 번 매요?)

103043 #3 예. 세 번 메여.(예. 세 번 매.)

103043 @ 그것도 언제? 조 할 때 같이 가는 거고?(그것도 언제? 조 할 때 같이 가는 거고?)

103043 #3 예.(예.)

103044 @ 그면 거기서는 무슨, 무슨 검질 나마씨?(그러면 거기서는 무슨, 무슨 김이 나요?)

103044 #3 이 질레 나는 풀 거의 나.(이 길에 나는 풀 거의 나.)

103044 @ 어떤 검질마씨?(어떤 김이요?)

103044 #3 췌비눔 진풀 뒤 이름을 무신 이름 다 몰라. 이 질레 나는 풀은 다 나. 밭에.(쇠비름 별꽃 뒤 이름을 무슨 이름 다 몰라. 이 길에 나는 풀은 다 나. 밭에.)

103044 @ 질레 나는 거?(길에 나는 거?)

103044 #3 어. 질레 나는 거 밭에 다 나.(어. 길에 나는 거 밭에 다 나.)

103045 @ 그럼 수확은 어떻 헤마씨?(그럼 수확은 어떻게 해요?)

103045 #3 수확 잘 댜면 많이 나고 아니 댜면 영 아니 나고 허는 거주게.(수확 잘 되면 많이 나고 안 되면 영 안 나고 하는 거지.)

103045 @ 그것도 베영 가지고 가져 오지예?(그것도 베어서 가지고 가져 오지요?)

103045 #3 어. 호미로 베어 가지고.(어. 낫으로 베어 가지고.)

103045 @ 그것도 이렇게 어 도께질 헤마씨?(그것도 이렇게 어 도리깨질 해요?)

103045 #3 예 도께질 허여.(예 도리깨질 해.)

103045 @ 그것 좀 알아 줘서.(그것 좀 말해 주십시오.)

103045 #3 그거 비영 몰려 왕.(그거 베어서 말려 와서.)

103045 @ 예.(예.)

103045 #3 밧에서 그냥 혼 사흘 몰령 몰르면 거뒤서 멍석 꿰우고 허영 도끼질 허영 그걸 털어. 털어 그 대는 이리 제겨 낫당 저래 소, 들 맥이고. 그거.(밭에서 그냥 한 사흘 말려서 마르면 거뒤서 멍석 피고 해서 도리깨질 해서 그걸 털어. 털어 그 대는 이리 쌓아 낫다가 저리 소, 말 먹이고. 그거.)

103045 @ 그거 수확해가지고 뭐 행 먹어마씨?(그거 수확해가지고 뭐 해서 먹었어요?)

103045 #3 그걸로 저 이제 풀앙 콩 허영 메주도 메주도 맨들고. 콩 골앙 죽도 췌 먹고. 그거 메주 췌주게 메주.(그걸로 저 이제 팔아서 콩 해서 메주도 메주도 만 들고. 콩 갈아서 죽도 췌서 먹고. 그거 메주 췌지. 메주.)

103045 @ 메주.(메주.)

103045 #3 어. 장 담는 거. 웬장 허는 거. 이런 거 콩으로 헛주게.(어. 장 담는 거. 된장 하는 거. 이런 거 콩으로 했지.)

103048 @ 그럼 산디 농사는 많이 헛마씨?(그럼 밧벼 농사는 많이 했어요?)

103048 #3 어?(어?)

103048 @ 산디는 많이 농사 지언마씨?(밭벼는 많이 농사 지었어요?)

103048 #3 산디?(밭벼?)

103048 @ 예.(예.)

103048 #3 산디 그거 허영 많이 허영 낫당 아덜들 풀 때 잔치 허곡 떡 허고. 경 허는 거지 이제.(밭벼 그거 해서 많이 해서 낫다가 아들들 장가갈 때 잔치 하고 떡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제.)

103048 @ 산디는 조보다는 더 많이 하션마씨?(밭벼는 조보다는 더 많이 하셨어요?)

103048 #3 많이 해야 그거 저 필요허주게. 잔치 때 밥 허곡 멧질 때 다 그걸로.(많이 해야 그거 저 필요하지. 잔치 때 밥 하고 멧질 때 다 그걸로.)

103048 @ 그걸로 하나까.(그걸로 하나까.)

103048 #3 어. 멧질 때 밥 허곡 그거. 떡 허고.(어. 멧질 때 밥 하고 그거. 떡 하고.)

103049 @ 할머니 그럼 고구마 농사도 하션마씨?(할머니 그럼 고구마 농사도 하셨어요?)

103049 #3 고구마?(고구마?)

103049 @ 예.(예.)

103049 @ 고구마도 싱그션마씨?(고구마도 심으셨어요?)

103049 #3 예. 고구마도 심언.(고구마도 심었어.)

103053 @ 고구마는 몇 번 검질을 메마씨?(고구마는 몇 번 김을 매요?)

103053 #3 어.(어.)

103060 @ 이거 말양 다른 농사 한 거 잇수광?(이거 말고 다른 농사 한 거 잇습니까?)

103060 #3 엇어. 다른 건.(없어. 다른 건.)

103060 @ 다른 거 엇어마씨? 무사? 그럼 산디랑 조랑 콩이랑 보리.(다른 거 없어요? 왜? 그럼 밭벼랑 조랑 콩이랑 보리.)

103060 #3 그거 다 골앗잖아.(그거 다 말했잖아.)

103060 @ 예. 그거 말고 다른 거 한 거 엇수광? 요즘에 하는 건 뭐 잇수광?(예. 그거 말고 달느 거 한 거 없습니까? 요즘에 하는 건 뭐 잇습니까?)

103060 #3 뭐 엇어 이제.(뭐 없어 이제.)

4. 들일

소 기르기

104001 @ 소는 어떻 길르맨마씨? 어떻 길러야 돼마씨?(소는 어떻게 기르나요? 어떻게 길러야 되나요?)

104001 #1 이 겨울에는.(이 겨울에는.)

104001 @ 예.(예.)

104001 #1 쉼막이라는 게 잇어. 집에 하나씩은.(외양간이라는 게 잇어. 집에 하나씩은.)

104001 @ 예.(예.)

104001 #1 겨울에는 들여 매고. 들여 매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조쪽.(겨울에는 들여 매고. 들여 매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조짚.)

104001 @ 예.(예.)

104001 #1 콩고질, 감젓줄 같은 걸로 이제 그 쉼 물 주식이 되는 거주게.(콩깍지, 고구마 덩굴 같은 걸로 이제 그 소 말 주식이 되는 거지.)

104001 @ 예.(예.)

104001 #1 그리 여름 때는 그냥 어디 빈 방 또 사람 하나씩 땅 사가지고 밧두렁 같은 데서 이렇게 맥인다고.(그리 여름 때는 그냥 어디 빈 방 또 사람 하나씩 땅 사가지고 밧두렁 같은 데서 이렇게 먹인다고.)

104002 @ 소 종류 어르신 아시는 거 잇어마씨?(소 종류 어르신 아시는 거 잇어요?)

104002 #1 소 종류 예전도 지금이랑 마찬가지로.(소 종류 예전도 지금이랑 마찬가지로.)

104002 @ 그럼 그 때 당시에는 어떻 구별해마씨? 털 색깔이나 뿔 모양?(그럼 그 때 당시에는 어떻게 구별해요? 털 색깔이나 뿔 모양?)

104002 #1 털 색깔이라 허는 거는 저 무신 색은 안 나서. 거 나도 잊어버렸다

하나. 이름은 잊어버렸어.(털 색깔이라 하는 거는 저 무슨 색은 안 나서. 거 나도 잊어버렸다 하나. 이름은 잊어버렸어.)

104002 @ 그럼 뿔 모양에 따라서 소 종류 몰라마씨?(그럼 뿔 모양에 따라서 소 종류 몰라요?)

104002 #1 아니. 암소는 이렇게 뒤에 이렇게 나고, 숫소는 지금이나 마찬가지로.(아니 암소는 이렇게 뒤에 이렇게 나고, 수소는 지금이나 마찬가지.)

104002 @ 보통 소는 다 무슨 색깔마씨? 털색깔.(보통 소는 다 무슨 색깔이에요? 털색깔.)

104002 #1 어?(어.)

104002 @ 보통 소는 색깔이.(보통 소는 색깔이.)

104002 #1 색깔이. 색깔이 색깔 저 흰 색깔은 잊었어.(색깔이. 색깔이 색깔 저 흰 색깔은 없었어.)

104002 @ 다 황토색마씨?(다 황토색이에요?)

104002 #1 다 검은색 노란색.(다 검은색 노란색.)

104002 @ 다 검은색 노란색. 어르신 가지고 있던 소는?(다 검은색 노란색. 어르신 가지고 있던 소는?)

104002 #1 나는 노란색을 가졌주게.(나는 노란색을 가졌지.)

104003 @ 그럼 소는 딱 가져오면 뒤에 이용해마씨?(그럼 소는 딱 가져오면 뒤에 이용해요?)

104003 #1 췌?(소?)

104003 @ 예.(예.)

104003 #1 밧 가는데 허주게. 그게 기계라 췌가.(밭 가는데 하지. 그게 기계라 소가.)

104004 @ 그럼 처음에는 좀 길들여야 되잖아예?(그럼 처음에는 좀 길들여야 되잖아요?)

104004 #1 그렇지.(그렇지.)

104004 @ 어떻 길들여마씨?(어떻게 길들여요?)

104004 #1 초담은 췌 친다고 해가지고 목을 메와가지고 돌맹이 이만한 거 가르치는 거 있어. 돌맹이 고양이 뿔라진 거. 그 속에 매와가지고 이 밧으로 이런 대로 몰명 돌아댕겨. 돌아 돌아댕기명 내중은 또 밧에 들어가가지고 밧고랑 고양이 내는 식으로 이젠 그 밧고지를 또 이렇게 돌아댕기주게.(처음은 소 친다고 해가지고 목을 메워가지고 돌맹이 이만한 거 가르치는 거 있어. 돌맹이 구멍 뚫어진 거. 그 속에 매워가지고 이 밧으로 이런 대로 몰면서 돌아다니. 돌아 돌아다니면서 나중은 또 밧에 들어가가지고 밧이랑 고양이 내는 식으로 이젠 그 밧이랑을 또 이렇게 돌아다니지.)

104004 @ 아, 밧고지? 밧고지라고 해마씨?(아, 밧이랑? 밧이랑이라고 해요?)

104004 #1 어, 여기서 그거를 밧고지라고 허여.(어, 여기서 그거를 밧이랑이라고

해.)

104004 @ 아.(아.)

104004 #1 그걸 그걸 만드는 식으로 쉼을 가르치주게.(그걸 그걸 만드는 식으로 소를 가르치지.)

104004 @ 예.(예.)

104004 #1 이추룩 해서 너가 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가르치주게. 그게 우리 농촌의 기계주게.(이처럼 해서 네가 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가르치지. 그게 우리 농촌의 기계지.)

104004 @ 어르신도 그럼 소 길들인 적 있어마씨?(어르신도 그럼 소 길들인 적 있어요?)

104004 #1 그렇주게.(그렇지.)

104004 @ 그럼 사오자마자 어린 소를 길들여마씨?(그럼 사오자마자 어린 소를 길들여요?)

104004 #1 어. 어린 쉼.(어. 어린 소.)

104005 @ 소도 딱 보면 나이가 보여마씨? 어르신?(소도 딱 보면 나이가 보여요? 어르신?)

104005 #1 나이는 너빨로 허여.(나이는 이빨로 해.)

104005 @ 아, 어땡?(아, 어떻게?)

104005 #1 너빨로 혼 혼 살 두 살짜리는 너빨 두 개맞기 엇어.(이빨로 한 한 살 두 살짜리는 이빨 두 개밖에 없어.)

104005 @ 어르신도 그럼 소 이빨 보면 나이 알아마씨?(어르신도 그럼 소 이빨 보면 나이 알아요?)

104005 #1 어.(어.)

104005 @ 그럼 세 살 네 살 때부터는 막 많이 있어마씨?(그럼 세 살 네 살 때부터는 막 많이 있어요?)

104005 #1 그렇지.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많주게.(그렇지.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많지.)

104005 @ 그럼 어르신 보통 소는 몇 년 살아마씨?(그럼 어르신 보통 소는 몇 년 살아요?)

104005 #1 잡아먹지 않으면은 오래 살지. 잡아먹어불면 오래 못 사는 거지.(잡아 먹지 않으면 오래 살지. 잡아먹어버리면 오래 못 사는 거지.)

104006 @ 소로 밭 갈 때, 소 할 때 쟁기 잇잖아예?(소로 밭 갈 때, 소 할 때 쟁기 잇잖아요?)

104006 #1 어.(어.)

104006 @ 쟁기. 쟁기 어르신 알아마씨?(쟁기. 쟁기 어르신 알아요?)

104006 #1 어. 쟁기 알아.(어 쟁기 알아.)

104006 @ 쟁기 어땡 생견마씨?(쟁기 어떻게 생겼어요?)

104006 #1 쟁기 좀 일찍도 골앗주만은 쟁기가 무클⁵³), 성에.(쟁기 좀 일찍도 말
했지만 쟁기가 쟁깃술, 성에.)

104006 @ 예.(예.)

104006 #1 그게 잊주게 두 가지. 가운데 거는 또 잊어버렸다. 가운데 영 하나
세우는 거.(그게 있지 두 가지. 가운데 거는 또 잊어버렸다. 가운데 이렇게 하나 세
우는 거.)

104006 @ 예.(예.)

104006 #1 그것에 잠데⁵⁴)를 만들어서.(그것에 쟁기를 만들어서.)

104006 @ 예.(예.)

104006 #1 이제 메우면 포섭 보섭이라는 게 있어. 영 웬 거.(이제 메우면 보습
보섭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된 거.)

104006 @ 예.(예.)

104006 #1 벧⁵⁵), 벧은 흘쪽 들어 넘어가야 만이 밧고지가 돼니까.(벧, 벧은 한
쪽 들어 넘어가야 만이 밧이랑이 되니까.)

104006 @ 예.(예.)

104006 #1 벧에 헤영 그게 메워가지고 췌에 메우민 그게 기계라.(벧에 해서 그
게 메워가지고 소에 메우면 그게 기계라.)

104006 @ 그게 쟁기마씨?(그게 쟁기에요?)

104006 #1 어. 쟁기.(어. 쟁기.)

104006 @ 방금 얘기한 게 쟁기 부분 부분 이렇게 얘기해 준 거지요.(방금 얘기
한 게 쟁기 부분 부분 이렇게 얘기해 준 거지요.)

104006 #1 어.(어.)

104007 @ 그럼 길마도 알아마씨?(그럼 길마도 알아요?)

104007 #1 어?(어?)

104007 @ 길마?(길마?)

104007 #1 길마엔 현 거는 뭐라.(길마라고 한 거는 뭐라?)

104007 @ 그럼 질메는 알지예?(그럼 길마는 알지요?)

104007 #1 알지. 질메.(알지. 길마.)

104007 @ 예. 그럼 삼춘 질메 좀 얘기해 줘씨? 질메.(예. 그럼 삼춘 길마 좀 얘
기해 주십시오. 길마.)

104007 @ 질메?(길마?)

104007 #1 예.(예.)

104007 #1 지금은 이제는 지금은 췌로 허는디.(지금은 이제는 지금은 쇠로 하는
데.)

104007 @ 예.(예.)

53) '무클'은 '쟁깃술'의 제주어이다. = 몽클.

54) '잠데'는 '쟁기'의 제주어이다.

55) '벧'은 '벧(쟁기의 보습 위에 대는 조각)'의 제주어이다.

104007 #1 옛날에는 그거 나무로 헛주게.(옛날에는 그거 나무로 했지.)
 104007 @ 예.(예.)
 104007 #1 나무로 나무 네모나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대여.(나무로 나무 네모나
 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대여.)
 104007 @ 예.(예.)
 104007 #1 이렇게 영 두 개를 만들어. 두 개를 만들영 이디 그 가로 쇠를 나무
 로 박주게.(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두 개를 만들어서 여기 그 가로 쇠를 나
 무로 박지.)
 104007 @ 예.(예.)
 104007 #1 박으면은 그 위에 쇠가 요만이 넓은 거. 일루도 하나 일루도 하나 해
 근영 그 때 오그리주게. 달구지랜 허지.(박으면 그 위에 쇠가 요만이 넓은 거. 여기
 도 하나 여기도 하나 해서 그 때 오그리지. 달구지하고 하지.)
 104007 @ 예.(예.)
 104007 #1 그거 또 끼워 썩와근영 쇠에다가 만들주게.(그거 또 끼워 썩워서 소
 에다가 만들지.)
 104007 @ 아, 그럼 질메 뭐 그 이름은 따로 잇어마씨? 그거? 하나하나? 질메
 이름은?(아, 그럼 길마 뭐 그 이름은 따로 잇어요? 그거? 하나하나 길마 이름은?)
 104007 #1 따로 엇어.(따로 없어.)
 104007 @ 아 그냥 한꺼번에?(아 그냥 한꺼번에?)
 104007 #1 어. 그냥 그게 질메 전부.(어. 그냥 그게 길마 전부.)
 104008 @ 멩에는 알아마씨?(멩에는 알아요?)
 104008 #1 어. 멩에 알아.(어. 멩에 알아.)
 104008 @ 멩에는 뭐짱?(멩에는 뭐예요?)
 104008 #1 쇠 멩에라는 게 잇어.(소 멩에라는 게 잇어.)
 104008 @ 예.(예.)
 104008 #1 이디 영 해가지고 줄 이렇게 맨 거. 이렇게 잠테에 돌아가는 거.(여
 기 이렇게 해가지고 줄 이렇게 맨 거. 이렇게 길마에 돌아가는 거.)
 104008 @ 아, 소에다가 이렇게.(아, 소에다가 이렇게.)
 104008 #1 어. 쇠에 영 멘들어가지고 쇠에 영 썩왕.(어. 소에 이렇게 만들어가지
 고 소에 영 썩워서.)
 104008 @ 예.(예.)
 104008 #1 좁게⁵⁶⁾엔 현 게 잇어. 좁게.(‘좁게’라고 한 게 잇어. ‘좁게’.)
 104008 @ 좁게.(‘좁게’.)
 104008 #1 어.(어.)
 104008 @ 어.(어.)

56) ‘좁게’는 멩에 양편에 각각 꿰어서 목 아래로 휘어다가 매게 된 나뭇가지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적괘, 적괘, 접괘, 직괘, 집괘, 집괘, 즉괘, 좁괘, 좁괘, 좁작괘.

104008 #1 좁게라는 거 영 널어 오면 노로 감양 딱 묶어.(‘좁게’라는 거 이렇게 널어 오면 노로 감아서 딱 묶어.)

104008 @ 예.(예.)

104008 #1 묶으면 뒤에서 잠테 메왕 가면은 그게 기계라.(묶으면 뒤에서 길마 메워서 가면 그게 기계라.)

104008 @ 아, 그게 명에마씨?(아, 그게 명에예요?)

104008 #1 어. 그게 췌에나 들에나 그게 그거라 옛날에 뭐.(어. 그게 소에나 말에나 그게 그거라 옛날에 뭐.)

104009 @ 그럼 소 처음에 데려오면 소가 있는 데를 뭐라고 해마씨?(그럼 소 처음에 데려오면 소가 있는 데를 뭐라고 해요?)

104009 #1 어? 췌막.(어? 외양간.)

104009 @ 예. 췌막은 어떻 관리해마씨?(예. 외양간은 어떻게 관리해요?)

104009 #1 췌막은 우리도 저기 췌막 췌막 뭔가 창고 만들었지만. 그딴 췌 들어 가게 이만큼 하게 췌 가서 눕고 앉고 출 먹고 하게끔 행 만드는데.(외양간은 우리도 저기 외양간 외양간 뭔가 창고 만들었지만. 거기 소 들어가게 이만큼 하게 소 가서 눕고 앉고 풀 먹고 하게끔 해서 만드는데.)

104009 @ 예.(예.)

104009 #1 어느 집을 막론하고 하나 씩은 잇어.(어느 집을 막론하고 하나 씩은 잇어.)

104009 @ 아. 그럼 아침마다 좀 청소도 해주신마씨?(아. 그럼 아침마다 좀 청소도 해주셨어요?)

104009 #1 청소 안 해줘.(청소 안 해줘.)

104009 @ 청소 안 해줘마씨?(청소 안 해줘요?)

104009 #1 어. 청소 쪽 안 해. 걸름이 그 먹은 것이 이만큼 올라가야 췌가 좀 못 견디는 줄 알면 그걸 밖으로 끄집어내영 또 그걸 드야지 지르는 통제로 그거를 담아놔.(어. 청소 쪽 안 해. 거름이 그 먹은 것이 이만큼 올라가야 소가 좀 못 견디는 줄 알면 그걸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또 그걸 돼지 기르는 돼지우리로 그거를 담아놔.)

104009 @ 아.(아.)

104009 #1 담아놔서 그것을 걸름 내어가지고 이제 보리씨를 거기다 뿌려가지고 췌로 뽏주게.(담아놔서 그것을 거름 내어가지고 이제 보리씨를 거기다 뿌려가지고 소로 뽏지.)

104009 @ 아.(아.)

104009 #1 뽏아가지고 그거를 걸름에 붙으게끔 헌단 말이야.(뽏아가지고 그거를 거름에 붙게끔 한다는 말이야.)

104010 @ 어르신 그럼 소는 지금까지 몇 마리 키우고. 소 키우는 거 추억 같은 거 잇어마씨?(어르신 그럼 소는 지금까지 몇 마리 키우고. 소 키우는 거 추억 같은

거 있어요?)

104010 #1 쉼 키운 거야. 뭐 암췌도 키워보고 새끼도 하영 봤지만.(소 키운 거야. 뭐 암소도 키워보고 새끼도 많이 봤지만.)

104010 @ 예.(예.)

104010 #1 여기는 새끼를 많이 못 내우주게. 왜 그러냐 허면 돌밭이 아니니깐.(여기는 새끼를 많이 못 나오게 하지. 왜 그러냐 하면 돌밭이 아니니깐.)

104010 @ 아.(아.)

104010 #1 돌이 엇어가지고 나갓다허민 놈의 곡식을 다 뵤아버린다고.(돌이 없어가지고 나갓다하면 남의 곡식을 다 뵤아버린다고.)

104010 @ 그럼 보통 옛날에는 몇 마리 키워마씨?(그럼 보통 옛날에는 몇 마리 키웠어요?)

104010 #1 췌는 여기는 농촌에는 저 웃드르⁵⁷⁾ 가면은 췌를 새끼 내고 새끼 내서 여러 마리 키우지만은 우리 고산에서는 소 방목허영 가들 데가 엇엇주게.(소는 여기는 농촌에는 저 ‘웃드르’ 가면 소를 새끼 내고 새끼 내서 여러 마리 키우지만 우리 ‘고산’에서는 소 방목해서 가들 데가 없었지.)

104010 @ 예.(예.)

104010 #1 가들 데가 엇이니까 췌 하나에 사람 하나. 그래서 맥이면서 그게 크면 이젠 췌 가르친단말이야.(가들 데가 없으니까 소 하나에 사람 하나. 그래서 먹이면서 그게 크면 이젠 소 가르친단말이야.)

104010 @ 예.(예.)

104010 #1 이제 밧 갈젠. 밧 갈젠 가르치면 명에영 혼 거 알지?(이제 밧 갈려고, 밧 갈려고 가르치면 명에라고 한 거 알지?)

104010 @ 예.(예.)

104010 #1 명에 췌어서 이제 돌아매어가지고 한참 막 그게 췌 만들려고. 자꾸 운동시킨단 말이야. 운동시경 그게 끝나면은 이제 이만하면 뵤갓다허민 끝나면은 잠대를 메운단 말이야.(명에 췌어서 이제 돌아매어가지고 한참 막 그게 소 만들려고. 자꾸 운동시킨단 말이야. 운동시켜서 그게 끝나면 이제 이만하면 뵤갓다하면 끝나면 길마를 메운단 말이야.)

104010 @ 예.(예.)

104010 #1 잠데 알지?(길마 알지?)

104010 @ 예.(예.)

104010 #1 잠데 메면은 남자는 뒤에 양주머리에 심어근영.(길마 메면 남자는 뒤에 양지머리에 심어서.)

104010 @ 예.(예.)

104010 #1 밧을 갈고 여자는 췌를 이끌어줘야 돼어.(밭을 갈고 여자는 소를 이

57) ‘웃드르’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 근처의 들, 또는 그런 곳에서 이루어진 마을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끌어줘야 돼.)

104010 @ 예.(예.)

104010 #1 이끌어주면은 췌가 막 익숙허민 그때는 사람 엇어도 밧을 갈아. 그때 꺼지는 사람 잇어서 췌 뭐 헐 때까지는 두 사람이 데려가.(이끌어주면 소가 막 익숙 하면 그때는 사람 엇어도 밧을 갈아. 그때까지는 사람 잇어서 소 뭐 할 때까지는 두 사람이 데려가.)

104010 @ 그럼 소는 밧 가는데 말양 탄 데는 어디에다 이용헤마씨?(그럼 소는 밧 가는데 말고 다른 데는 어디에다 이용해요?)

104010 #1 구루마. 지금은 뭐 경운기니 뭐니 헛주만은. 그때는 구루마 헐 때도 부자집이나 잇엇어.(수레. 지금은 뭐 경운기니 뭐니 헛지만. 그때는 수레 할 때도 부자집이나 잇엇지.)

104010 @ 예.(예.)

말 기르기

104011 @ 말도 그럼 혹시 어르신 키워보션마씨?(말도 그럼 혹시 어르신 키워보 션어요?)

104011 #1 들은 췌랑 마찬가지로. 들은 밤낮 바깥에 줄 줄이라는 거 잇어. 배.(말은 소와 마찬가지로이지. 말은 밤낮 바깥에 줄 줄이라는 게 잇어. 참바.)

104011 @ 배.(참바.)

104011 #1 그걸 들 목에 헤가지고 빈 밧이나 어디 뛰왔에나.(그걸 말 목에 헤가 지고 빈 밧에나 어디 띠밧에나.)

104012 @ 그면 삼춘 말 종류는 잘 모르지예?(그러면 삼춘 말 종류는 잘 모르지 요?)

104012 #1 들 종류는 잘 몰라.(말 종류는 잘 몰라.)

104013 @ 소는 밧에서 일할 때 이용하는데. 말은 뭐 할 때 이용헤마씨?(소는 밧에서 일할 때 이용하는데. 말은 뭐 할 때 이용해요?)

104013 #1 들 밧 밧을 때.(말 밧 밧을 때.)

104013 @ 밧 밧을 때마씨?(말 밧을 때요?)

104013 #1 어. 밧. 곡식 헤가지고 조 헐 때.(어. 밧. 곡식 헤가지고 조 할 때.)

104013 @ 조 할 때.(조 할 때.)

104013 #1 산뒤 헐 때 조 헐 때. 밧일 할 때. 밧으면서 돌아헛기주게.(밭벼 할 때 조 할 때. 밧일 할 때. 밧으면서 돌아다니지.)

104014 @ 그럼 소는 이빨보고 나이 알고 말은 나이 어떻게 알아마씨?(그럼 소는 이빨보고 나이 알고 말은 나이 어떻게 알아요?)

104014 #1 들은 잘 안 길르니깐 캄캄허여.(말은 잘 안 기르니까 캄캄해.)

104015 @ 그럼 예전에 삼춘 말 키워마씨?(그럼 예전에 삼춘 말 키웠어요?)

104015 #1 들?(말?)

104015 @ 예, 뭘.(예, 말.)

104015 #1 뭘 아이 키워봤어.(말 안 키워봤어.)

104015 @ 아, 안 키워봤마씨?(아, 안 키워봤어요?)

104015 #1 소뽕에.(소뽕에.)

104015 @ 아, 소뽕에.(아, 소뽕에.)

104015 #1 소.(소.)

104015 @ 아, 그럼 말 키우는 거 보신 적은 잇어마씨? 말?(아, 그럼 말 키우는 거 보신 적은 잇어요? 말?)

104015 #1 거, 동네에서 말 키워났어.(거, 동네에서 말 키웠었어.)

104015 @ 아, 동네에서 말 키우는 거는 뽕마씨?(아, 동네에서 말 키우는 거는 뽕마씨?)

104015 #1 어. 뭘 헐라면 여기는 뽕뽕⁵⁸⁾이 아니니까.(어. 말 하려면 여기는 ‘뽕뽕’이 아니니까.)

104015 @ 무슨 뽕? 뽕뽕?(무슨 뽕? ‘뽕뽕’?)

104015 #1 어. 뽕 아, 뽕이 엇어 노니까.(어. 뽕 아, 뽕이 없어 놓으니까.)

104015 @ 아아, 뽕.(아아, 뽕.)

104015 #1 그렇게 뽕서는 못 질렀어.(그렇게 뽕서는 못 질렀어.)

104015 @ 아.(아.)

104015 #1 줄, 줄.(줄, 줄.)

104015 @ 줄이 머우뽕?(줄이 무엇입니까?)

104015 #1 그게.(그게.)

104015 @ 예.(예.)

104015 #1 뽕 매어 가지고.(말 매어 가지고.)

104015 @ 네.(네.)

104015 #1 말뽕에 박아 가지고 난, 뽕 뽕에 곡식 못 먹게끔 빈 뽕에 가서 목 매어. 그걸.(말뽕에 박아 가지고 난, 뽕 뽕에 곡식 못 먹게끔 빈 뽕에 가서 목 매어. 그걸.)

104015 @ 아아, 그래서 줄을 이렇게 해 뽕야 뽕마씨?(아아, 그래서 줄을 이렇게 해 뽕야 뽕마씨?)

104015 #1 응, 응.(응, 응.)

104015 @ 아.(아.)

104015 #1 그것이 줄이주게.(그것이 줄이지.)

104015 @ 아아, 그게 줄. 그럼 말 기르는 사람들은 줄로 이렇게 해 뽕야겠다 예?(아아, 그게 줄. 그럼 말 기르는 사람들은 줄로 이렇게 해 뽕야겠군요?)

104015 #1 응. 그리고 우리 이 한장리 놈들은.(응. 그리고 우리 이 ‘한장리’ 놈들은.)

58) ‘뽕뽕’은 마소들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하려고 뽕을 쌓은 밭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04015 @ 네.(네.)

104015 #1 고산이나 한장이나.(‘고산’이나 ‘한장’이나.)

104015 @ 네.(네.)

104015 #1 돌담이 얼마 엇이니까.(돌담이 얼마 없으니까.)

104015 @ 예예.(예예.)

104015 #1 그 그렇게 몰 질르는 사람이 엇었어.(그 그렇게 말 기르는 사람이 없었어.)

104015 @ 아, 돌담이 별로 엇이난?(아, 돌담이 별로 없으니까?)

104015 #1 응. 저기에 올라가면, 저기 가면 몰 좀 질르지만은.(응. 저기에 올라가면, 저기 가면 말 좀 기르지만.)

104015 @ 예.(예.)

104015 #1 여기는 한두 사람.(여기는 한두 사람.)

104015 @ 아아.(아아.)

104015 #1 이녀 타는 몰 그자, 이 농사 지으멍 그 옛날엔 밭 밍으려고이.(이녀 카는 말 그저, 이 농사 지으면서 그 옛날에는 밭 밍으려고.)

104015 @ 예.(예.)

104015 #1 조 갈아 가지고 밭 밍으려고.(조 갈아 가지고 밭 밍으려고.)

104015 @ 예.(예.)

104015 #1 그런 거 한 몇 마리씩 그저 사서 질렀주, 질렀다가 남이 밭도 좀 밍아주고. 그런 거밖에 엇어.(그런 거 한 몇 마리씩 그저 사서 길렀지. 길렀다가 남의 밭도 좀 밍아주고. 그런 거밖에 없어.)

104015 @ 아아. 그럼 그래도 동네에 한 몇 명은 말 키운 사람.(아아. 그럼 그래도 동네에 한 몇 명은 말 키운 사람.)

104015 #1 그 어.(그 어.)

104015 @ 그럼 키운 사람들은 말 사오젠 허면 어디서 사완마씨?(그럼 키운 사람들은 말 사오려고 하면 어디서 사왔어요?)

104015 #1 응?(응?)

104015 @ 말 예전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서 말 사완마씨? 고산에서 사신가마씨?(말 예전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서 말 사왔어요? ‘고산’에서 샀나요?)

104015 #1 몰?(말?)

104015 @ 예.(예.)

104015 #1 저 웃드르 올라가서.(저 ‘웃드르’ 올라가서.)

104015 @ 웃드르? 어디?(‘웃드르’? 어디?)

104015 #1 지금 저지.(지금 ‘저지’.)

104015 @ 예.(예.)

104015 #1 저지썸에 올라가민 돌밭이 많으니까.(‘저지’썸에 올라가면 돌밭이 많으니까.)

104015 @ 예.(예.)

104015 #1 말 기르는 사람이 많거든. 말도 많고.(말 기르는 사람이 많거든. 말도 많고.)

104015 @ 아, 저지에는. 그쪽에.(아, ‘저지’에는. 그쪽에.)

104015 #1 응. 저지레, 이 젓소 금악에 금악에는 이 먼가.(응. 저지에, 이 젓소 ‘금악’에 ‘금악’에는 이 먼가.)

104015 @ 예.(예.)

104015 #1 이런 산에도 목장이 있으니까.(이런 산에도 목장이 있으니까.)

104015 @ 예.(예.)

104015 #1 말이 많아. 현재도 그거주게, 현재도.(말이 많아. 현재도 그거이지, 현재도.)

104015 @ 아, 현재도.(아, 현재도.)

104015 #1 현재도 말 기르는 사람 마찬가지로.(현재도 말 기르는 사람 마찬가지로.)

104015 @ 그럼 거기 가서 사와마씨?(그럼 거기 가서 사와요?)

104015 #1 응.(응.)

104015 @ 얼마 정도 헛인가마씨? 말이.(얼마 정도 했어요? 말이.)

104015 #1 응?(응?)

104015 @ 말이 더 비싼가마씨? 소보다?(말이 더 비쌌어요? 소보다?)

104015 #1 응?(응?)

104015 @ 말이 더 비싸마씨?(말이 더 비싸요?)

104015 #1 아니. 소가 더 비싸.(아니. 소가 더 비싸.)

104015 @ 아, 소가 더 비싸마씨?(아, 소가 더 비싸요?)

104015 #1 아, 지금은, 지금은 타는 말 정도는 소보단 비싸지.(아, 지금은, 지금은 타는 말 정도는 소보다는 비싸지.)

104015 @ 예. 예전에는.(예. 예전에는.)

104015 #1 예전에는 소가, 소가 비싸.(예전에는 소가, 소가 비싸.)

104015 @ 아, 경 해부난 굳이, 말 살 필요 없었겠군요.(아, 그렇게 해버리니까 굳이, 말 살 필요 없었겠군요.)

104015 #1 응. 사, 소, 소는.(응. 사, 소, 소는.)

104015 @ 예.(예.)

104015 #1 그게 농사를 다 허니까.(그게 농사를 다 하니까.)

104015 @ 예.(예.)

104015 #1 자기가 자기 힘. 밭도 갈고 밭도 밟고 새끼도 나고 다 허니까.(자기가 자기 힘. 밭도 갈고 밭도 밟고 새끼도 나고 다 하니까.)

104015 @ 예.(예.)

104015 #1 들은 흔 가지밖에 허는 거 없거든. 타고 다니는 거.(말은 한 가지밖에 허는 거 없거든. 타고 다니는 거.)

104015 @ 타고 땡기는 거밖에 엇이난.(타고 다니는 거밖에 없으니까.)
 104015 #1 어.(어.)
 104015 @ 음. 경 해부난 삼촌도 소만 사고 물은 안 산마씨?(음. 그렇게 해버리니까 삼촌도 소만 사고 말은 안 샀어요?)
 104015 #1 응응. 물 상 기르고 싶어도 간수가 어려워. 간수가.(응응. 말 사서 기르고 싶어도 간수가 어려워. 간수가.)
 104015 @ 아, 간수가.(아, 간수가.)
 104015 #1 응.(응.)
 104015 @ 아. 하긴 줄 매달고 또 해야 돼니까예.(아. 하기는 줄 매달고 또 해야 돼니까요.)
 104015 #1 그걸 매일 아침 또 뭔가 뜯 밧을 매고.(그걸 매일 아침 또 뭔가 다른 밧을 매고.)
 104015 @ 음. 힘들겠구나예.(음. 힘들겠군요.)

떡이

104016 @ 그럼 어 떡이 그러니까 말이나 소는 떡이는 보통.(그럼 어 떡이 그러니까 말이나 소는 떡이는 보통.)
 104016 #1 마찬가지로.(마찬가지.)
 104016 @ 마찬가지로. 뭐 잇어마씨?(마찬가지. 뭐 있어요?)
 104016 #1 아까 얘기했잖아. 조쩍.(아까 얘기했잖아. 조짚.)
 104016 @ 음. 조짚.(음. 조짚.)
 104016 #1 또 고구마 저 텡가리⁵⁹.(또 고구마 저 줄거리.)
 104016 @ 텡가리?(줄거리?)
 104016 #1 어.(어.)
 104016 @ 콩나물.(콩나물.)
 104016 @ 고구마 텡가리가 뭐마씨?(고구마 줄거리가 뭐예요?)
 104016 #1 고구마 심으면.(고구마 심으면.)
 104016 @ 예.(예.)
 104016 #1 그 줄이 나지 않느냐?(그 줄이 나지 않느냐?)
 104016 @ 예.(예.)
 104016 #1 웨줄 모양으로.(외줄 모양으로.)
 104016 @ 예.(예.)
 104016 #1 그걸 호미로 허여가지고 물러와.(그걸 낫으로 해가지고 말려.)
 104016 @ 예.(예.)
 104016 #1 물러가지고 요만씩 해가지고 묶어.(말려가지고 요만씩 해가지고 묶어.)

59) '텡가리'는 채소의 뿌리에서 줄기를 자른 후 그 밑동 부분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둥가리.

104016 @ 예.(예.)
 104016 #1 묶어가지고 집어서 널영. 그 때는 놀이라고 하지. 놀.(묶어가지고 집에서 널어서. 그 때는 가리라고 하지. 가리.)
 104016 @ 음.(음.)
 104016 #1 하나씩 빵으면서 줘.(하나씩 빵으면서 줘.)
 104017 @ 어르신 꿀은 꿀은 어떻 마련해마씨?(어르신 꿀은 꿀은 어떻게 마련해요?)
 104017 #1 어?(어?)
 104017 @ 여물 있잖아예?(여물 있잖아요?)
 104017 #1 어. 여물.(어. 여물.)
 104017 @ 그럼 여물은 예전에 어떻 만들어마씨?(그럼 여물은 예전에 어떻게 만드어요?)
 104017 #1 췌여물?(소여물?)
 104017 @ 예.(예.)
 104017 #1 췌여물 만드는 거야게. 그 뭔가 췌로 일 나가려면.(소여물 만드는 거야. 그 뭔가 소로 일 나가려면.)
 104017 @ 예.(예.)
 104017 #1 작두랜 현 거 있어. 작두 알지?(작두라고 한 거 있어. 작두 알지?)
 104017 @ 작두 알지마씨.(작두 알지요.)
 104017 #1 그것에 보리를 썰어.(그것에 보리를 썰어.)
 104017 @ 예.(예.)
 104017 #1 썰어가지고 보리 보리 해가지고 삶아.(썰어가지고 보리 보기 해가지고 삶아.)
 104017 @ 예.(예.)
 104017 #1 큰 가마솥에 놔가지고.(큰 가마솥에 놔가지고.)
 104017 @ 아, 삶아마씨?(아, 삶아요?)
 104017 #1 어.(어.)
 104017 @ 그냥 주는 거 아니마씨?(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104017 #1 그냥 안줘.(그냥 안줘.)
 104017 @ 아.(아.)
 104017 #1 삶아서 줘야. 삶아근엥 그냥 그거 식혀근엥. 뜨거운 거 못 먹으니까. 그걸 먹여서 일 허라 나가주게.(삶아서 줘야. 삶아서 그냥 그거 식혀서. 뜨거운 거 못 먹으니까. 그걸 먹여서 일 하러 나가지.)
 104017 @ 그럼 어르신 여물 말앙 말이나 소한테 먹이는 거 뭐라고 해마씨?(그럼 어르신 여물 말고 말이나 소한테 먹이는 거 뭐라고 해요?)
 104017 #1 췌출⁶⁰⁾게. 꿀이 아니고 출.(쇠꿀. 꿀이 아니고 ‘출’.)

60) ‘췌출’은 ‘쇠떡이로 쓰이는 꿀’의 제주어이다.

104017 @ 말이나 소나 그럼 똑같은 거 먹여마씨?(말이나 소나 그럼 똑같은 거 먹여요?)

104017 #1 똑같주게. 똑같이 출 맥이주게.(똑같지. 똑같이 꼴 먹이지.)

104017 @ 그럼 출은 예전에 어떻 마련해마씨?(그럼 꼴은 예전에 어떻게 마련해요?)

104017 #1 저 출밭이라는 게 있주게.(저 꼴밭이라는 게 있지.)

104017 @ 예.(예.)

104017 #1 이 수월봉이 거기가면 출밭이라는 게 있어.(이 ‘수월봉’에 거기가면 꼴밭이라는 게 있어.)

104017 @ 예.(예.)

104017 #1 출밭 그거 잇는 사람도 잇고 잇인 사람도 잇고. 거기서 팔월 바람 두세⁶¹⁾가 터지면은 음력 팔월 두세 터지면은.(꼴밭 그거 잇는 사람도 잇고 없는 사람도 잇고. 거기서 팔월 바람 ‘두세’가 터지면 음력 팔월 ‘두세’ 터지면.)

104017 @ 예.(예.)

104017 #1 두세영 혼 게 하늬바람. 하늬바람 터지면은 넷 다섯 많은 사람은 한 일곱 여덟씩 빌려서 하지.(‘두세’라고 한 게 하늬바람. 하늬바람 갑자기 불면 넷 다섯 많은 사람은 한 일곱 여덟씩 빌려서 하지.)

104017 @ 예.(예.)

104017 #1 출을 비어서 돌려서 돌려가지고 그걸 일단 묶어가지고 들어올리면 그거 쉼출.(꼴을 베어서 말려서 말려가지고 그걸 일단 묶어가지고 들어올리면 그거 쇠꼴.)

104017 @ 예.(예.)

104017 #1 또 다음은 이제 감저 팔 거 아니냐?(또 다음은 이제 고구마 팔 거 아니냐?)

104017 @ 예.(예.)

104017 #1 감저 파면 감저줄 돌려서 묶으면은 그거 쉼출.(고구마 파면 고구마 줄거리 말려서 묶으면 그거 쇠꼴.)

104017 @ 예.(예.)

104017 #1 또 콩도 콩도 그냥 늘어서 글갱이로 빵아서 쉼 맥이고. 게난 그게 쉼출이주게.(또 콩도 콩도 그냥 가려서 호미로 빵아서 소 먹이고. 그러니까 그게 쇠꼴이지.)

104017 @ 예.(예.)

104017 #1 짝도 쉼 맥이고. 산디라는 게 있어. 나록 닭은 거. 그거도 쉼출로 들어가주게.(짚도 소 먹이고. 밭벼라는 게 있어. 벼 닭은 거. 그거도 쇠꼴로 들어가지.)

61) ‘두세브름’은 바람 방향이 바뀌질 무렵, 간간히 양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어부들이 배를 부리어 바다에서 일하기는 어려운 바람으로 ‘두셋브름, 양두세, 양도세’ 등으로도 나타난다.

104018 @ 그럼 출 베어서 모은 다음에 가져오잖아예?(그럼 풀 베어서 모은 다음에 가져오잖아요?)

104018 #1 어.(어.)

104018 @ 그럼 출 베기는 예전에 어떻 해마씨?(그럼 풀 베기는 예전에 어떻게 해요?)

104018 #1 이제 출 벨 때주게.(이제 풀 벨 때지.)

104018 @ 지금마씨?(지금이요?)

104018 #1 어, 지금 칠팔월에. 팔월에 출을 허러 가주게.(어, 지금 칠팔월에. 팔월에 풀을 하러 가지.)

104018 @ 예.(예.)

104018 #1 지금 낮이엔 허는다. 그 땐 호미주게. 호미.(지금 낮이라고 하는데. 그 땐 낮이지. 낮.)

104018 @ 예. 호미.(예. 낮.)

104018 #1 호미로 이제 그 밭에 강 앉아가지고 조근조근 비어서 이래 놓으면은 그게 물르거든.(낮으로 이제 그 밭에 가서 앉아가지고 차근차근 베어서 이렇게 놓으면 그게 마르거든.)

104018 @ 예.(예.)

104018 #1 물리면은 그 무생이⁶²로. 무생이영 허는 거는 출 묶으는 거.(말리면 그 매끼로. 매끼라고 하는 거는 풀 묶는 거.)

104018 @ 예.(예.)

104018 #1 그거 새로 태워서 만들어가지고 출을 묶으주게. 묶영 모다서 췌 잇는 사람은 췌로 가져오고 아니면 등짐으로 가져오주게.(그거 띠로 태워서 만들어가지고 풀을 묶지. 묶어서 모아서 소 잇는 사람은 소로 가져오고 아니면 등짐으로 가져오지.)

104019 @ 출 많이 잇이믄 그거 어떻 움직여마씨?(풀 많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움직여요?)

104019 #1 내 얘기허지 않아서. 움직이는 게. 사람이 움직여서 가져오주게. 여기는 췌로는 못 가져 오거든.(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움직이는 게. 사람이 움직여서 가져오지. 여기는 소로는 못 가져 오거든.)

104019 @ 무사 못 가져와마씨? 소로는.(왜 못 가져와요? 소로는.)

104019 #1 췌로 가젠 하면은 절로 돌아야 돼. 게서 질메라고 했지? 양쪽에 시꺼서 췌 우에. 췌 우에 씨꺼서 돌아가지고 일로 가져오주게.(소로 가려고 하면 저기로 돌아야 돼. 그래서 길마라고 했지? 양쪽에 실어서 소 위에. 소 위에 실어서 돌아가지고 이리로 겨져오지.)

104019 @ 가지고 온 다음에 어디다가 어떻 저장해마씨?(가지고 온 다음에 어디다가 어떻게 저장해요?)

62) ‘무생이’는 못이나 단 따위를 묶는데 쓰는 줄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무세, 무생이.

104019 #1 여기 저기 보민 놀굽⁶³)이라는 게 있어.(여기 저기 보면 ‘놀굽’이라는 게 있어.)

104019 @ 예.(예.)

104019 #1 보리도 놀고 아무거나라도 놀르는 짝이 있어.(보리도 가리고 아무거나라도 가리는 짝이 있어.)

104019 @ 예.(예.)

104019 #1 놀르는 게 있으면은 느람지⁶⁴) 더끄면 비오면 안 젖거든. 놀르는 게 잇이민.(가리는 게 있으면 ‘느람지’ 덮으면 비 오면 안 젖거든. 가리는 게 있으면.)

104019 @ 그럼 그건 얼마나 저장할 수 잇어마씨?(그럼 그건 얼마나 저장할 수 잇어요?)

104019 #1 저장허는 거는 한도가 엇지. 많으면 많게 만들고 족으면은 족게 만들고.(저장하는 거는 한도가 없지. 많으면 많게 만들고 적으면 적게 만들고.)

104021 @ 출 벨 때 힘든 일이나 기억나는 일 잇어마씨?(풀 벨 때 힘든 일이나 기억나는 일 잇어요?)

104021 #1 힘든 거 뭐 그거 벨다른 거 기억나는 거 엇어.(힘든 거 뭐 그거 벨다른 거 기억나는 거 없어.)

멜감

104022 @ 그럼 어르신 멜감도 옛날에 햇우광?(그럼 어르신 멜감도 옛날에 했습니까?)

104022 #1 어?(어?)

104022 @ 멜감. 그 따듯하게 할 때. 나무도 하션마씨?(멜감. 그 따듯하게 할 때. 나무도 하셨어요?)

104022 #1 어.(어.)

104022 @ 초가집 살 때?(초가집 살 때?)

104022 #1 그렇지 밧에 가가지고.(그렇지 밧에 가가지고.)

104022 @ 예.(예.)

104022 #1 저 소나무 밧에 가가지고 솔썸이라는 게 잇어.(저 소나무 밧에 가가지고 솔잎이라는 게 잇어.)

104022 @ 솔썸?(솔잎?)

104022 #1 솔썸.(솔잎.)

104022 @ 그게 뭐마씨?(그게 뭐예요?)

104022 #1 그 저 소나무에 소나무에 붙은 뭐 잇잖아게.(그 저 소나무에 소나무에 붙은 뭐 잇잖아.)

104022 @ 아, 솔썸.(아, 솔잎.)

63) 짝이나 풀 따위를 둥그렇게 쌓은 자리의 밑바닥.

64) ‘느람지’는 이영과 비슷한 것으로 날가리 위에 덮는 물건이다. = 느래미, 느라미, 느람쥐, 느래, 놀래

104022 #1 어.(어.)

104022 @ 그럼 어르신 땀감 종류는 뭐, 뭐 있어마씨?(그럼 어르신 땀감 종류는 뭐, 뭐 있어요?)

104022 #1 땀감 종류는 소나무.(땀감 종류는 소나무.)

104022 @ 소나무. 그거 하나마씨?(소나무. 그거 하나요?)

104022 #1 그거 하나. 여기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그거 하나. 여기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

104023 @ 그럼 소똥이나 말똥으로 이렇게 불 지필 때 뭐 허지 않아마씨?(그럼 소똥이나 말똥으로 이렇게 불 지필 때 뭐 하지 않아요?)

104023 #1 그건 안 했어. 그건 엇엇어.(그건 안 했어. 그건 없엇어.)

104023 @ 음.(음.)

104023 #1 그건 우리 세대에는 쉼똥으로 불 때거나 뭐 똥똥으로 불 때거나 안 했어 그 때는.(그건 우리 세대에는 소똥으로 불 때거나 뭐 말똥으로 불 때거나 안 했어. 그 때는.)

104023 @ 아.(아.)

104023 #1 방에 잇는 그 때는 굴목⁶⁵⁾이라허여 집에 굴목.(방에 잇는 그 때는 ‘굴목’이라해. 집에 ‘굴목’.)

104023 @ 굴목.(‘굴목’.)

104023 #1 게서 거기다가 저 방 뜨시라고 방 때는 거는 쉼똥 똥똥 몰려 낫다가 썼어.(그래서 거기다가 저 방 따뜻하라고 방 때는 거는 소똥 말똥 말려 낫다가 썼어.)

104023 @ 아, 쉼똥 똥똥 몰려 험마씨?(아, 소똥 말똥 말려서 했어요?)

104023 #1 어.(어.)

104024 @ 삼촌 혹시 솔가리 걸기라고 들어봐마씨?(삼촌 혹시 솔가리 걸기라고 들어봤어요?)

104024 #1 그건 안 들어봤어.(그건 안 들어봤어.)

104024 @ 그럼 옛날 땀감으로 소나무 가지 쓰셨지예?(그럼 옛날 땀감으로 소나무 가지 쓰셨지요?)

104024 #1 어.(어.)

104024 @ 그거 굴아 줍서.(그거 말해 주십시오.)

104024 #1 그거 삭다리영도 헝고. 나무에서 죽은 게. 죽어가민 사람이 손으로 강 영 꺾어오면은 그게 삭다리여. 삭앗다고 삭다리.(그거 삭정이라고도 하고. 나무에서 죽은 게. 죽어가면 사람이 손으로 가서 이렇게 꺾어오면 그게 삭정이야. 삭앗다고 삭정이.)

104024 @ 예.(예.)

65) ‘굴목’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굴목.

104024 #1 빨감이라고 그게.(빨감이라고 그게.)
 104024 @ 그럼 그건 언제하선마씨?(그럼 그건 언제 하셨어요?)
 104024 #1 그건 언제나 있지. 나무 잇인데 가면은.(그건 언제나 있지. 나무 있는 데 가면.)
 104024 @ 예.(예.)
 104024 #1 나무가 춘하추동 그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거는 소나무는 죽는 건 밑으로 가고 잇는 거니깐.(나무가 춘하추동 그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거는 소나무는 죽은 건 밑으로 가고 잇는 거니깐.)
 104025 @ 그럼 어르신 예전에 나무도 하선마씨?(그럼 어르신 예전에 나무도 하셨어요?)
 104025 #1 나무도 헛주게.(나무도 했지.)
 104026 @ 솥도 구웠마씨?(솥도 구웠어요?)
 104026 #1 여기서 그런 거 안 한다.(여기선 그런 거 안 한다.)
 104027 @ 그럼 어르신 빨감은 어떻 마련헛마씨?(그럼 어르신 빨감은 어떻게 마련해요?)
 104027 #1 그것도 여러 가지주게.(그것도 여러 가지이지.)
 104027 @ 예.(예.)
 104027 #1 나무가 저 톱 가져가서 그거 싸서 끊어가지고 가져오는 수도 있고.(나무가 저 톱 가져가서 그거 켜서 끊어가지고 가져오는 수도 있고.)
 104027 @ 예.(예.)
 104027 #1 또 그렇지 않으면 나대⁶⁶⁾ 나대라는 거 잇어.(또 그렇지 않으면 ‘나대’ ‘나대’라는 거 잇어.)
 104027 @ 예.(예.)
 104027 #1 나대로 찍어가지고 그 가생이 묶어서 빨감으로 가져오는 수도 있고.(‘나대’로 찍어가지고 그 가장자리 묶어서 빨감으로 가져오는 수도 있고.)
 104027 @ 그럼 빨감도 옛날에는 만들엇잖아예. 빨감.(그럼 빨감도 옛날에는 만들엇잖아요. 빨감.)
 104027 #1 빨감?(빨감?)
 104027 @ 예. 그때 얘기해 주신 게 나대나 톱으로 해 가지고 빨감허잖아예.(예. 그때 얘기해 주신 게 ‘나대’나 톱으로 해 가지고 빨감하잖아요.)
 104027 #1 응. 응.(응. 응.)
 104027 @ 그럼 그 나대는 뭐마씨? 나대.(그럼 그 ‘나대’는 뭐예요? ‘나대’.)
 104027 #1 나대?(‘나대’?)
 104027 @ 예.(예.)
 104027 #1 나대. 나대 마찬가지로. 나대는.(‘나대’. ‘나대’ 마찬가지로. ‘나대’는.)
 104027 @ 나대.(‘나대’.)

66) ‘나대’는 찍어서 나무 따위를 자르는 낫 비슷한 연장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메호미, 미호미.

104027 #1 옛날, 옛날 말이나 현재 말이나 마찬가지로.(옛날, 옛날 말이나 현재 말이나 마찬가지로.)

104027 @ 예.(예.)

104027 #1 나대, 자귀, 톱은 마찬가지로.(‘나대’, 자귀, 톱은 마찬가지로.)

104027 @ 그럼 나대는 어떻 생긴 거마씨?(그럼 ‘나대’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104027 #1 쇠로.(쇠로.)

104027 @ 예.(예.)

104027 #1 이러,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허주게.(이러,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하지.)

104027 @ 예.(예.)

104027 @ 그게 뭐 도끼랑은 다른 거우짱?(그게 뭐 도끼와는 다른 겁니까?)

104027 #1 도끼 다르지게.(도끼 다르지.)

104027 @ 아.(아.)

104027 #1 도끼는 뭔가 이만한 나무를 행 오면.(도끼는 뭔가 이만한 나무를 해서 오면.)

104027 @ 예.(예.)

104027 #1 깨는 거. 반쪽으로 쪼개는 거. 쪼개는 거고. 톱은 싸는 거.(깨는 거. 반쪽으로 쪼개는 거. 쪼개는 거고, 톱은 켜는 거.)

104027 @ 예.(예.)

104027 #1 그거뵈긔 엇어.(그거밖에 없어.)

104027 @ 나대는 어떻 하는 거마씨?(‘나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4027 #1 나대?(‘나대’?)

104027 @ 예.(예.)

104027 #1 나대는 이렇게 나무, 산나무를 자르는 거.(‘나대’는 이렇게 나무, 산나무를 자르는 거.)

104027 @ 아, 자르는 거.(아, 자르는 거.)

104027 #1 톱도 자르지만 그거는 가지 같은 거.(톱도 자르지만 그거는 가지 같은 거.)

104027 @ 예.(예.)

104027 #1 톱으로 자르기 경 허민 나대로 전부 찍주게.(톱으로 자르기 그렇게 하면 ‘나대’로 전부 찍지.)

104027 @ 그럼 뭇감은 보통 언제 준비하셧마씨?(그럼 뭇감은 보통 언제 준비하셧어요?)

104027 #1 가을에.(가을에.)

104027 @ 가을에. 이 동네에서는 뭇감 준비하셧 하면 어디서 헨마씨?(가을에. 이 동네에서는 뭇감 준비하려고 하면 어디서 했어요?)

104027 #1 여기서는 그 당시는 솔나무 뵈이 엇엇주게.(여기서는 그 당시는 솔나무

무 발이 없었지.)

104027 @ 예.(예.)

104027 #1 솔나무 밭 었는데. 저 우리 커울 때는.(솔나무 밭 없는데. 저 우리 커울 때는.)

104027 @ 예.(예.)

104027 #1 뭔가 유채 같은 것도 좀 갈았주게. 유채 나무.(뭔가 유채 같은 것도 좀 갈았지. 유채 나무.)

104027 @ 유채 같은 거마씨?(유채 같은 거요?)

104027 #1 응. 갈았는데.(응. 갈았는데.)

104027 @ 예.(예.)

104027 #1 그거, 그걸로도 때고.(그거, 그걸로도 때고.)

104027 @ 예.(예.)

104027 #1 보릿대.(보릿대.)

104027 @ 아, 보릿대.(아, 보릿대.)

104027 #1 보릿대도 따고, 때고. 그랫주게.(보릿대도 따고, 때고. 그랬지.)

104027 @ 가을에 보통 헛구나예.(가을에 보통 헛군요.)

104027 #1 어, 다 가을에. 보통 가을 돼 가면은 거의 농사가 끝나가주게.(어, 다 가을에. 보통 가을 돼 가면 거의 농사가 끝나가지.)

104027 @ 아, 농사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 땀감 준비하는 거.(아, 농사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 땀감 준비하는 거.)

104027 #1 아니 그땐 음력 십일월 달 돼가민. 그 이후에 나무 허주게.(아니 그 때는 음력 십일월 달 되가면. 그 이후에 나무 하지.)

104027 @ 그럼 여기서도 삼촌 나무 하섯겠다예.(그럼 여기서도 삼촌 나무 하섯 겠군요.)

104027 #1 응. 불 때고 방도 때고 헛주게.(응. 불 때고 방도 때고 헛지.)

104027 @ 방도 때고. 아. 그럼 땀감 좀 많이 저장해야 돼잖아예. 창고에다 저장 헛인가마씨?(방도 때고. 아. 그럼 땀감 좀 많이 저장해야 되잖아요. 창고에다 저장 헛었나요?)

104027 #1 아니, 밖에 저장.(아니, 밖에 저장.)

104027 @ 아, 바깥에.(아, 바깥에.)

사냥

104028 @ 어르신 사냥 같은 거는 여기서 안 하지예?(어르신 사냥 같은 거는 여기서 안 하지요?)

104028 #1 여기서 사냥은 안 헛어.(여기서 사냥은 안 헛어.)

104028 @ 그럼 고산에서도 그 사냥 안 헛마씨?(그럼 '고산'에서도 그 사냥 안 헛어요?)

104028 #1 고산에서는 사냥 벨로 엇어.(‘고산’에서는 사냥 별로 없어.)
 104029 @ 삼촌 사냥 하신 적은 엇잖아예.(삼촌 사냥 하신 적은 없잖아요.)
 104029 #1 사냥은 엇어.(사냥은 없어.)
 104029 @ 사냥은 엇어. 근데 엇엇인디, 그럼 사냥 헛다고 들어본 적도 엇언마
 씨?(사냥은 없어. 근데 없었는데, 그럼 사냥 헛다고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104029 #1 그런, 그것도 엇어.(그런, 그런 것도 없어.)
 104029 @ 아예 사람들이 다 사냥은.(아예 사람들이 다 사냥은.)
 104029 #1 사냥 안 허니까.(사냥 안 하니까.)
 104029 @ 예.(예.)
 104029 #1 지금 사냥도 뭔가 조수 그 근방, 저지리 올라가야 사냥허는 사람들
 잇지.(지금 사냥도 뭔가 ‘조수’ 그 근방, ‘저지리’ 올라가야 사냥하는 사람들 잇지.)
 104029 @ 예.(예.)
 104029 #1 이 저, 해안 부락엔 엇어. 그걸, 그걸 헐려고 허나. 농사저 가지고 돈
 벌라고 허지.(이 저, 해안 부락에는 없어. 그걸, 그걸 하려고 하나. 농사지어 가지고
 돈 벌고 하지.)
 104029 @ 아, 농사저 가지고 돈 벌려고 헤마씨?(아, 농사지어 가지고 돈 버려고
 해요?)
 104029 #1 응.(응.)
 104030 @ 그럼 중산간 마을, 웃드르 마을 가면 노루 같은 거 잘 보이잖아예. 노
 루.(그럼 중산간 마을, ‘웃드르’ 마을 가면 노루 같은 거 잘 보이잖아요. 노루.)
 104030 #1 응?(응?)
 104030 @ 노루 같은 거 잘 보이잖아예.(노루 같은 거 잘 보이잖아요.)
 104030 #1 응.(응.)
 104030 @ 겨울 뉘면 한라산에.(겨울 되면 한라산에.)
 104030 #1 노루, 나도 여기 온 거 잡아봤다.(노루, 나도 여기 온 거 잡아봤다.)
 104030 @ 아, 그거 사냥 아니우팡?(아, 그거 사냥 아닙니까?)
 104030 #1 그거 사냥이 아이지. 그거는.(그거 사냥이 아니지. 그거는.)
 104030 @ 예.(예.)

5. 바다일

105001 @ 바다에서 하는 건 보통 어떤 어떤 일 잇어마씨? 고산서?(바다에서 하
 는 건 보통 어떤 어떤 일 잇어요? ‘고산’에서?)
 105001 #1 고산서?(‘고산’에서?)
 105001 @ 예.(예.)
 105001 #1 이 바당에 나는 건 거의 엇다. 고기 종내기도 다 같으고.(이 바다에

나는 건 거의 없다. 고기 종내기도 다 같고.)

105001 @ 예.(예.)

105001 #1 뭐 벨로 고기는 그거는 뭐 잊었주게.(뭐 벨로 고기는 그거는 뭐 없었지.)

105001 @ 그럼 예전에 주로 잡히는 생선은 뭐광?(그럼 예전에 주로 잡히는 생선은 무엇입니까?)

105001 #1 어?(어?)

105001 @ 주로 잡히는 것들이 뭐가 있어마씨?(주로 잡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105001 #1 여기?(여기?)

105001 @ 예.(예.)

105001 #1 가에서?(가에서?)

105001 @ 가에서.(가에서.)

105001 #1 가에서 춤대로 낚으는 거.(가에서 낚싯대로 낚는 거.)

105001 @ 예.(예.)

105001 #1 춤대로 낚으는 거야 뭐 크고 작은 거 뿐이지. 뭐 똑같아. 별거 없어.(낚싯대로 낚는 거야. 뭐 크고 작은 거 뿐이지. 뭐 똑같아. 별거 없어.)

105001 @ 어르신 그럼 뭐, 뭐 보통 잡으셨마씨?(어르신 그럼 뭐, 뭐 보통 잡으셨어요?)

105001 #1 나는 우리도 꽤 잡아서. 우럭 같은 거.(나는 우리도 꽤 잡아서. 우럭 같은 거.)

105001 @ 우럭.(우럭.)

105001 #1 불락.(불락.)

105001 @ 불락.(불락.)

105001 #1 이 어랭이, 고생이 그런 것들이주게.(이 황놀래기, 용치놀래기 그런 것들이지.)

105001 @ 아, 많이 잡았다예?(아, 많이 잡았군요?)

105002 #1 많이 잡았주게. 낚시로 행 낚았주게.(많이 잡았지. 낚시로 해서 낚았지.)

105002 @ 그럼 어르신 듬북, 감태도 잡안마씨?(그럼 어르신 뜸부기, 감태도 잡았어요?)

105002 #1 어. 듬북, 감태.(어. 뜸부기, 감태.)

105002 #1 그거는 뭐 어떻 각자 개인이 헤마씨? 아니면 다같이 헤마씨?(그거는 뭐 어떻게 각자 개인이 해요? 아니면 다같이 해요?)

105002 #1 감태 같은 거 듬북 같은 거 다 개인이 허여.(감태 같은 거 뜸부기 같은 거 다 개인이 해.)

105002 @ 개인별로?(개인별로?)

- 105002 #1 해녀 엮는 데는.(해녀 엮는 데는.)
- 105002 @ 예.(예.)
- 105002 #1 감태도 허기가 쉽고.(감태도 하기가 쉽고.)
- 105002 @ 음.(음.)
- 105002 #1 듬복도.(뜸부기도.)
- 105002 @ 예.(예.)
- 105002 #1 해녀 엮는 데는 가로 가뉘 두엇다가.(해녀 엮는 데는 가로 가뉘 두엇다가.)
- 105002 @ 예.(예.)
- 105002 #1 해경⁶⁷⁾ 허민 비어다가 하고. 물러왕 그거 걸름도 허고.(‘해경’하면 비어다가 하고. 말려와서 그거 거름도 하고.)
- 105003 @ 그럼 어르신 고동 고동과 게도 잡안마씨?(그럼 어르신 고동 고동과 게도 잡았어요?)
- 105003 #1 고동도 이 아래 가근에 고동 잡주게.(고동도 이 아래 가서 고동 잡지.)
- 105003 @ 음.(음.)
- 105003 #1 게는 큰 게는 엮어 쟤쟤한 것밖에는.(게는 큰 게는 없어. 작은 것밖에는.)
- 105003 @ 고동이랑 갱이는 그럼 어디서 잡안마씨?(고동이랑 게는 그럼 어디서 잡아요?)
- 105003 #1 갱이는 이 가에서 가에서 돌 일러서 그 돌 속에서 겨울에는 항상 돌 속에서 살주게. 갱이가. 또 고동이엔 흔 거는 겨울에는 깊은디 내려가고 또 물 뜨사 가면 날이 뜨사가면 우에 올라오고 갱 허주게. 손으로 잡주게.(게는 이 가에서 가에서 돌 일러서 그 돌 속에서 겨울에는 항상 돌 속에서 살지. 게가. 또 고동이라고 한 거는 겨울에는 깊은디 내려가고 또 물 따뜻해지면 날이 따뜻해지면 위에 올라오고 그렇게 하지. 손으로 잡지.)
- 105004 @ 그럼 그 고동 종류는 뭐, 뭐 잇어마씨?(그럼 그 고동 종류는 뭐, 뭐 잇어요?)
- 105004 #1 구쟁기 그거주게.(소라 그거이지.)
- 105005 @ 어르신 그럼 게도 혹시 종류가 잇어마씨?(어르신 그럼 게도 혹시 종류가 잇어요?)
- 105005 #1 게도 식킹이⁶⁸⁾니 모살갱이니 잇주게.(게도 ‘식킹이’니 ‘모살갱’니 잇지.)
- 105006 @ 할아버지 그럼 이제 그 바다일 다시 물어볼게예? 횡불 이용해 뭐 물고기 잡아본 적 잇수광?(할아버지 그럼 이제 그 바다일 다시 물어볼게요? 횡불 이

67) ‘해경’은 해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채취를 금하였다가 합의된 날짜에 그 금지를 풀고 해산물을 캐기 시작하는 일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68) ‘식킹이’는 등어리에 검정과 갈색 무늬가 있는 게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용해서 뭐 물고기 잡아본 적 있습니까?)

105006 #1 어.(어.)

105006 @ 아, 그걸로 어떻마씨? 뭐 잡안마씨?(아, 그걸로 어떻게요? 뭐 잡았어요?)

105006 #1 저 기름을.(저 기름을.)

105006 @ 예.(예.)

105006 #1 요만한 그 뭔가 파이프 잇잖아. 영 행 고냥 잇인 거.(요만한 그 뭔가 파이프 잇잖아. 이렇게 해서 구멍 잇는 거.)

105006 @ 예.(예.)

105006 #1 알로 막아 들랜 하면, 막아달라고 허면 막아주매. 막아지면 거기에 기름을 비워.(아래로 막아 달라고 하면. 막아달라고 하면 막아줘. 막으면 거기에 기름을 비워.)

105006 @ 예.(예.)

105006 #1 기름을 비왕 그 험벽으로 막 감아. 이렇게이.(기름을 비워서 그 형겅으로 막 감아. 이렇게.)

105006 @ 예.(예.)

105006 #1 요만큼 감앙. 거기에 찢러. 찢러근앵 기름 영 생기면. 그 험벽에 강기름 그것에 불을 붙여가지고. 안 잡는 거 엇어. 소라도 잡곡 해삼도 잡곡 문어도 잡곡 또 저 이 뭐 낙지.(요만큼 감아서. 거기에 찢러. 찢러서 기름 이렇게 생기면. 그 형겅에 가서 기름 그것에 불을 붙여가지고. 안 잡는 거 엇어. 소라도 잡고 해삼도 잡고 문어도 잡고 또 저 이 뭐 낙지.)

105006 @ 어떻 잡아마씨? 어떻?(어떻게 잡아요? 어떻게?)

105006 #1 거 나와. 그냥.(거 나와. 그냥.)

105006 @ 담그면 나와마씨?(담그면 나와요?)

105006 #1 아니, 아니 그냥. 불만 비취가지고 허면은. 밤에는 그것이 다 나오게 돼 잇어. 아무거나.(아니, 아니 그냥. 불만 비취가지고 하면. 밤에는 그것이 다 나오게 돼 잇어. 아무거나.)

105006 @ 그냥 손으로 잡아마씨? 아니면 다른 걸로 잡아마씨?(그냥 손으로 잡아요? 아니면 다른 걸로 잡아요?)

105006 #1 어. 그냥 손으로 잡아.(어. 그냥 손으로 잡아.)

105006 @ 아.(아.)

105006 #1 게서 뭐 험직허면 자기가 이상하다 허면 작살질 허여. 작살로 찍영. 서울에서는 작살을 뭐라고 허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소살⁶⁹)이라고 허여.(그래서 뭐 하려하면 자기가 이상하다 하면 작살질 해. 작살로 찍어서. 서울에서는 작살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소살’이라고 해.)

105006 @ 아, 소살?(아, ‘소살’?)

69) ‘소살’은 작살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05006 #1 어. 소살.(어. ‘소살’.)

105007 @ 그 갯담⁷⁰⁾이나 원담 잇잖아예?(그 ‘갯담’이나 ‘원담’ 잇잖아요?)

105007 #1 어.(어.)

105007 @ 거기게 들어온 물고기도 잡잖아예.(거기에 들어온 물고기도 잡잖아
요.)

105007 #1 어.(어.)

105007 @ 그 물고기들 그거는 뭘로 잡아마씨?(그 물고기들 그거는 뭘로 잡아
요?)

105007 #1 그거는 보통 밖에 돌담 이렇게 잇주게.(그거는 보통밖에 돌담 이렇게
있지.)

105007 @ 예.(예.)

105007 #1 바닷물은 일로 바닷물 일로 이렇게 올라오민 물이 물이 이만큼 올라
오주게.(바닷물은 이리로 바닷물 이리로 이렇게 올라오면 물이 물이 이만큼 올라오
지.)

105007 @ 예.(예.)

105007 #1 올라오민 이것도 이젠 즈물아져불어 물이. 게민 그 위로 뭐가 들어오
냐 허면 뭇. 뭇 알아져?(올라오면 이것도 이젠 잠겨져버려 물이. 그러면 그 위로 뭐
가 들어오냐 하면 멸치. 멸치 알아져?)

105007 @ 예.(예.)

105007 #1 뭇 들어오면은 여기서 족바지라는 게 있어. 족바지.(멸치 들어오면
여기서 쪽박이라는 게 있어. 쪽박.)

105007 @ 족바지.(쪽박.)

105007 #1 요만큼 헤가지고 이렇게 뒤편은 그거 몰아다가 한 쪽에다 몰아다가
그 걸어가지고 이제 그 바구니에 넣주게.(요만큼 헤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거 몰아다
가 한 쪽에다 몰아다가 그 걸어가지고 이제 그 바구니에 넣지.)

105007 @ 아, 그럼 무슨 무슨 물고기 있어마씨?(아, 그럼 무슨 무슨 물고기 있
어요?)

105007 #1 큰 고기는 안 들어와. 물 싸 가면 도망가불어.(큰 고기는 안 들어와.
물 싸 가면 도망가버려.)

105008 @ 그거 막 무너질 때 보수도 허지 았아마씨?(그거 막 무너질 때 보수도
하지 았아요?)

105008 #1 그렇지.(그렇지.)

105008 @ 그건 어뎡 고쳐마씨?(그건 어떻게 고쳐요?)

105008 #1 사람 손으로.(사람 손으로.)

105008 @ 사람 손으로?(사람 손으로?)

70) ‘갯담’은 해변 조간대(潮間帶)에 만(灣)을 이루는 듯한 곳에 돌담을 축조해 놓고 밀물을 따라 몰려
든 고기떼를 썰물이 나면 그 안에 가둬 놓아 쉬 잡을 수 있게 장치해 둔 곳을 의미하는 제주어이
다. = 원, 갯담, 원담

105008 #1 사람 손으로. 파도가 썰 나면 돌이 밀어지주게. 밀어지면 그걸 사람 손으로 영 가져다가 원래대로 고쳐줘야. 고기 들어오면 거기서 잡아 먹주게.(사람 손으로, 파도가 썰면 돌이 밀어지지. 밀어지면 그걸 사람 손으로 이렇게 가져다가 원래대로 고쳐줘야. 고기 들어오면 거기서 잡아 먹지.)

105008 @ 그거 고치는 거는 언제, 언제 헨마씨?(그거 고치는 거는 언제, 언제 했어요?)

105008 #1 어?(어?)

105008 @ 언제 헨마씨? 삼촌 그거?(언제 했어요? 삼촌 그거?)

105008 #1 그거는 어린 적부터 나오고.(그거는 어릴 적부터 나오고.)

105008 @ 예.(예.)

105008 #1 지금은 그거 안 잡아.(지금은 그거 안 잡아.)

105009 @ 그럼 벨은 어떻 잡아마씨? 벨은?(그럼 멸치는 어떻게 잡아요? 멸치는?)

105009 #1 벨?(멸치?)

105009 @ 예.(예.)

105009 #1 족바지엔 현 거 아까 굳지 안 했냐.(쪽박이라고 한 거 아까 얘기 안 했냐.)

105009 @ 예.(예.)

105009 #1 족바지엔 현 거. 이제 물이 있는 데 잇고 아닌 데 잇거든.(쪽박이라고 한 거. 이제 물이 있는 데 잇고 아닌 데 잇거든.)

105009 @ 예.(예.)

105009 #1 게면 물이 막 깊은 쪽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라. 한쪽들이. 또 또 만들면 또 벨 들어오는 데는 이거 그 좁고.(그러면 물이 막 깊은 쪽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라. 한쪽으로. 또 또 만들면 또 멸치 들어오는 데는 이거 그 좁고.)

105009 @ 예.(예.)

105009 #1 나가는 데도 좁고 허니깐 영 막주게.(나가는 데도 좁고 하니까 이렇게 막지.)

105009 @ 예.(예.)

105009 #1 그럼 거기로 들어와.(그럼 거기로 들어와.)

105009 @ 아. 많이 잡아마씨?(아. 많이 잡아요?)

105009 #1 어. 많이 잡아. 옛날에 그걸로 다 먹고 그랫주게.(어. 많이 잡아. 옛날에 그걸로 다 먹고 그랬지.)

105010 @ 그럼 그 물고기는 낚을 때는 어떻 낚아마씨?(그럼 그 물고기는 낚을 때는 어떻게 낚아요?)

105010 #1 여기서? 가로?(여기서? 가로?)

105010 @ 예.(예.)

105010 #1 가로는 저 춤대라고 허여.(가로는 저 낚싯대라고 해.)

105010 @ 춤대.(낙싯대.)

105010 #1 어. 춤대에 그 뭔가 알이란 것을 묶으주게.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 그 때에는 알 묶으고 밑에 또 뽕돌이라는 거 돌아매가지고 낙시 이렇게 행 묶어가지고 갯지랭이.(어. 낙싯대에 그 뭔가 알이란 것을 묶지.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 그 때에는 알 묶고 밑에 또 낙싯봉이라는 거 돌아매가지고 낙시 이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갯지랭이.)

105010 @ 예.(예.)

105010 #1 갯지랭이 꿰어 가지고 그에서 낙으면 뭐 여러 가지 물주게.(갯지랭이 꿰어가지고 가에서 낙으면 뭐 여러 가지 물지.)

105010 @ 아.(아.)

105010 #1 우럭, 발락, 감팍이 뭐 그리고 노랭이 그거 물주게.(우럭, 볼락, 솜뱅이 뭐 그리고 노랭이 그거 물지.)

105011 @ 그럼 아까 뽕돌말양 낙싯대는 뭐라고 헤마씨? 그 대를 뭐라고 헤마씨?(그럼 아까 낙싯봉말고 낙싯대는 뭐라고 해요? 그 대를 뭐라고 해요?)

105011 #1 춤대.(낙싯대.)

105011 @ 춤대?(낙싯대?)

105011 #1 어.(어.)

105011 @ 아, 그럼 어르신 춤대랑 그 줄도 잇잖아예?(아, 그럼 어르신 낙싯대와 그 줄도 잇잖아요?)

105011 #1 그 줄 메어야주.(그 줄 메어야지.)

105011 @ 그럼 그 줄은 그냥 낙싯줄이라고 헤마씨?(그럼 그 줄은 그냥 낙싯줄이라고 해요?)

105011 #1 어. 줄은 낙싯줄이랜 허고.(어. 줄은 낙싯줄이라고 하고.)

105011 @ 그럼 그건 어떻게 만들어마씨?(그럼 그건 어떻게 만드어요?)

105011 #1 그거는 줄 이렇게 내려오면은.(그거는 줄 이렇게 내려오면.)

105011 @ 예.(예.)

105011 #1 그 물 속에 들어가 있는데 뽕돌 알아져?(그 물 속에 들어가 있는데 낙싯봉 알아?)

105011 @ 예. 뽕돌.(예. 낙싯봉.)

105011 #1 뽕돌 보민 이렇게 고양이 두 개거든?(낙싯봉 보민 이렇게 구멍이 두 개거든?)

105011 @ 예.(예.)

105011 #1 하나는 줄에 묶으고.(하나는 줄에 묶고.)

105011 @ 예.(예.)

105011 #1 하나는 요만큼 헤가지고 낙시 묶어가지고 가운데만이 그 낙시와 낙시 사이 가운데만이 또 한 번 묶어. 묶영 뽕돌에 이제 그 고양이 집어넣어가지고 낙시 그걸로 집어넣 또 낙싯줄 빼어. 게면 영 영 뒤텔주게. 영 되면 여기 여기 꿰

가지고 이제 들이청 낚으는 거주게.(하나는 요만큼 해가지고 낚시 묶어가지고 가운데 그 낚시와 낚시 사이 가운데 또 한 번 묶어. 묶어서 낚싯봉에 이제 그 구멍에 집어넣어가지고 낚시 그걸로 집어놔서 또 낚싯줄 빼.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되버리지. 이렇게 되면 여기 여기 꿰어 가지고 이제 들이뜨려서 낚는 거지.)

105011 @ 지금은 그런 거 사는데 삼촌 어렸을 때는 그거 직접 만들었마씨?(지금은 그런 거 사는데 삼촌 어렸을 때는 그거 직접 만들었나요?)

105011 #1 대나무 끌어왕.(대나무 끌어와서.)

105011 @ 대나무 끌어왕?(대나무 끌어와서?)

105011 #1 어.(어.)

105011 @ 그럼 그 뽕들은 필로 만들었마씨?(그럼 그 낚싯봉은 필로 만들었어 요?)

105011 #1 뽕들은 옛날에 그 옛날 뭔가 허면은 거 왜정 시대에 뭐 해놓으니까 그 총부리 주어가지고 녹이면 거기서 연철이 나오거든.(낚싯봉은 옛날에 그 옛날 뭔가 하면 거 왜정 시대에 뭐 해놓으니까 그 총부리 주어가지고 녹이면 거기서 연철이 나오거든.)

105011 @ 예.(예.)

105011 #1 연철 나오면은 그걸 이제 쇠망치로 때렸어. 때리면 납작하면 그걸 몰아.(연철 나오면 그걸 이제 쇠망치로 때렸어. 때리면 납작하면 그걸 몰아.)

105011 @ 예.(예.)

105011 #1 돌면 툭툭툭 두드리면 예쁘게 나와.(말면 툭툭툭 두드리면 예쁘게 나와.)

105011 @ 그럼 어르신 직접 그거 만들었마씨?(그럼 어르신 직접 그거 만들었어 요?)

105011 #1 어. 만들었어.(어. 만들었어.)

105011 @ 그러면 낚싯줄은 필로 만들었마씨?(그러면 낚싯줄은 무엇으로 만들었어 요?)

105011 #1 알⁷¹⁾이엔 현 거 잊지 않냐.(‘알’이라고 한 거 잊지 않냐.)

105011 @ 알?(‘알’?)

105011 #1 아, 옛날에는 노로 해놨다.(아, 옛날에는 노로 했었다.)

105011 @ 노?(노?)

105011 #1 아주 가는 노. 옛날은 그 알이라는 거 엇엇주게.(아주 가는 노. 옛날은 그 ‘알’이라는 거 없었지.)

105011 @ 아, 기구나예. 그럼 작살로 아까 고기 그 춤대?(아, 그렇군요. 그럼 작살로 아까 고기 그 낚싯대?)

105011 #1 어. 춤대.(어. 낚싯대.)

71) ‘알’은 초가지붕을 일 때 비바람에 삭아 축 늘어진 처마 끝을 바로잡아 주려고 우겨 넣는 띠나 억새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05011 @ 작살이 춤대마씨?(작살이 낚싯대예요?)
105011 #1 아니.(아니.)
105011 @ 아, 춤대는 낚싯대이지예?(아, ‘춤대’는 낚싯대이지요?)
105011 #1 어.(어.)
105012 @ 그럼 작살은 뭐랜 헤마씨?(그럼 작살은 뭐라고 해요?)
105012 #1 작살은 소살.(작살은 ‘소살’)
105012 @ 아, 소살.(아, ‘소살’.)
105012 #1 어.(어.)
105012 @ 소살로 고기를 어떻 잡아마씨? 그냥 확 찢렁 잡아마씨?(‘소살’로 고기를 어떻게 잡아요? 그냥 확 찢러서 잡아요?)
105012 #1 그냥 물에 물에 가서 잡는 거 잇고 낚아서 잡는 거 잇고. 자기가 만약에 독성 잇는 고기가 잇어.(그냥 물에 물에 가서 잡는 거 잇고 낚아서 잡는 거 잇고. 자기가 만약에 독성 잇는 고기가 잇어.)
105012 @ 예.(예.)
105012 #1 영 우에서 보면은.(이렇게 위에서 보면.)
105012 @ 예.(예.)
105012 #1 그게 위험하면 작살로 사용허주게. 손으로 못 잡을 정도 뉘면 작살을 사용허여.(그게 위험하면 작살로 사용하지. 손으로 못 잡을 정도 되면 작살을 사용해.)
105013 @ 그럼 고깃배 종류도 좀 알아마씨? 어르신?(그럼 고깃배 종류도 좀 알아요? 어르신?)
105013 #1 고깃배 종류?(고깃배 종류?)
105013 @ 네.(네.)
105013 #1 어.(어.)
105013 @ 뭐, 뭐 잇우광?(뭐, 뭐 잇습니까?)
105013 #1 우리 여기는 뭐 제주도에서 제일 남쪽에서 개 개발이엔 허주게.(우리 여기는 뭐 제주도에서 제일 남쪽에서 개 개발이라고 하지.)
105013 @ 개발?(개발?)
105013 #1 어. 보통 배 들어오고 나가는 디가.(어. 보통 배 들어오고 나가는 데가.)
105013 @ 예.(예.)
105013 #1 개발 잇어. 무슨 배가 나가면 뭐 낚베.(개발 잇어. 무슨 배가 나가면 뭐 ‘낚베’.)
105013 @ 낚베.(낚싯배.)
105013 #1 또 테우⁷².(또 ‘테우’.)
105013 @ 테우.(‘테우’.)

72) ‘테우’는 ‘테’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테, 터베, 터위, 테베, 테위

105013 #1 그거 두 가지밖엔 없어 이 부락에는. 딴 데는 딴 데도 옛날에 전부 낚배였주게. 노 젓는 거.(그거 두 가지밖에는 없어 이 부락에는. 다른 데는 다른 데도 옛날에 전부 낚배였지. 노 젓는 거.)

105013 @ 아. 삼촌 낚배영 테우 그거 하시지 았안마씨?(아. 삼촌 낚배와 ‘테우’ 그거 하시지 았았어요?)

105013 #1 해났어.(했었어.)

105013 @ 그럼 어르신 그거 얘기 좀 해 줘서.(그럼 어르신 그거 얘기 좀 해 주십시오.)

105013 #1 그거?(그거?)

105013 @ 예.(예.)

105013 #1 어떻 얘기허면 돼?(어떻게 얘기하면 돼?)

105013 @ 어떻 낚배는 어떻 운전하고. 테우도 하셨지예?(어떻게 낚배는 어떻게 운전하고. ‘테우’도 하셨지요?)

105013 #1 어.(어.)

105013 @ 테우는 어떻 운전하는지 좀 얘기해 줘서.(‘테우’는 어떻게 운전하는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105013 #1 낚배는 낚배는 그 배 위에 배 코거리라는 게 있어.(낚배는 낚배는 그 배 위에 배 올라미라는 게 있어.)

105013 @ 코거리?(올가미?)

105013 #1 어. 이렇게 요만큼 허게. 저 그 올려가지고 그 때는 전부 짝으로 꼬아가지고 했거든. 이만큼 올리면 그거는 그 요만큼 젓는 데에.(어. 이렇게 요만큼 하게. 저 그 올려가지고 그 때는 전부 짚으로 꼬아가지고 했거든. 이만큼 올리면 그거는 그 요만큼 젓는 데에.)

105013 @ 예.(예.)

105013 #1 요만한 것이 낚배에 잇주게.(요만한 것이 낚배에 있지.)

105013 @ 예.(예.)

105013 #1 그것을 배에 끼워. 낚배는 이렇게 젓고. 물 많이 썰영 탱기면은 이레 가고. 저 앞에 바다 쪽으로 가게 돼고. 또 영 탱기면은 안쪽들이 들어오고. 그렇게 허주게. 또 낚배 큰 거는 풍선. 그 돛대?(그것을 배에 끼워. 낚배는 이렇게 젓고. 물 많이 세어서 다니면 이리로 가고. 저 앞에 바다 쪽으로 가게 되고. 또 이렇게 당기면 안쪽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하지. 또 낚배 큰 거는 풍선. 그 돛대?)

105013 @ 예.(예.)

105013 #1 그 큰 거 잇잖아.(그 큰 거 잇잖아.)

105013 @ 예.(예.)

105013 #1 그거 헤가지고 또 키 잡아가지고 그걸로 뭇가 돌아댱겼어.(그거 헤가지고 또 키 잡아가지고 그걸로 뭇가 돌아다녔어.)

105013 @ 아.(아.)

105013 #1 머구리배 종류는. 난 머구리배도 타났어.(머구리배 종류는. 난 머구리배도 탔었어.)

105013 @ 그게 뭐마씨?(그게 뭐예요?)

105013 #1 그거 물속에.(그거 물속에.)

105013 @ 아, 머구리배.(아, 머구리배.)

105013 #1 어.(어.)

105014 @ 그면 그 잠녀들 있잖아예?(그러면 그 해녀들 있잖아요?)

105014 #1 어. 잠수.(어. 해녀.)

105014 @ 그 잠녀들이 해산물도 가져오잖아예?(그 해녀들이 해산물도 가져오잖아요?)

105014 #1 그렇지.(그렇지.)

105014 @ 그럼 그건 종류가 뭐, 뭐 잇어마씨? 어르신?(그럼 그건 종류가 뭐, 뭐 잇어요? 어르신?)

105014 #1 거기 잇는 거?(거기 잇는 거?)

105014 @ 예.(예.)

105014 #1 다 잇어.(다 잇어.)

105014 @ 다 잇어마씨?(다 잇어요?)

105014 #1 전복, 소라, 문어.(전복, 소라, 문어.)

105014 @ 예.(예.)

105014 #1 구살.(성게.)

105014 @ 음.(음.)

105014 #1 뭐 그런 거 다 잇어.(뭐 그런 거 다 잇어.)

105015 @ 그럼 어르신 잠녀들 물질하러 갈 때.(그럼 어르신 해녀들 물질하러 갈 때.)

105015 #1 응.(응.)

105015 @ 도구를 뭐, 뭐 챙겨가마씨?(도구를 뭐, 뭐 챙겨가요?)

105015 #1 요만이 한 두룽박⁷³⁾.(요만이 한 ‘두룽박’.)

105015 @ 두룽박.(‘두룽박’.)

105015 #1 두룽박 하나하고이. 또 요렇게 나무로 오그라진 그것에 저 구물.(‘두룽박’ 하나하고. 또 요렇게 나무로 오그라진 그것에 저 그물.)

105015 @ 구물.(그물.)

105015 #1 망사리⁷⁴⁾를 만들어.(‘망사리’를 만들어.)

105015 @ 예.(예.)

105015 #1 망사리를 멘들영 그것 하고, 지금은 현재는 물웃을 입고 허지마는 옛

73) ‘두룽박’은 박의 씨 통을 파내고 구멍을 막아서 해녀들이 작업할 때 바다에 가지고 가서 타는 물건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테왁

74) ‘망사리’는 바다에서 해녀가 해산물을 채취하고서 담아 넣는 것으로, 그물로 엮어 만든 물건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망시리, 망아리

날엔 속곳⁷⁵)이엔 헌 거 있어.(‘망사리’를 만들어서 그것 하고, 지금은 현재는 물옷을 입고 하지만 옛날에는 ‘속곳’이라고 한 거 있어.)

105015 @ 속곳?(‘속곳’?)

105015 #1 어. 속곳을 한 쪽에만 이 뭔가 이꺼지 저 들마귀 들마귀 끝이 그 댜 단초도 었었어. 들마귀 저 험벽으로 그늘게 해가지고 막 꼬매가지고 단단하게 행 그것도 만드는 식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 뭔가 단초 해가지고 메어가지고 그거 입고 바다에 들어갔어.(어. ‘속곳’을 한 쪽에만 이 뭔가 여기까지 저 매듭단추 매듭단추 같이 그 때는 단추도 없었어. 매듭단추 저 형질으로 가늘게 해가지고 막 꿰매가지고 단단하게 해서 그것도 만드는 식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 뭔가 단추 해가지고 메어가지고 그거 입고 바다에 들어갔어.)

105015 @ 그럼 켈 때 쓰는 거 뭐 가져가지 았안마씨?(그럼 켈 때 쓰는 거 뭐 가져가지 았아요?)

105015 #1 무사 안 가져가.(왜 안 가져가.)

105015 @ 뭐 가져가마씨?(뭐 가져가요?)

105015 #1 빗창⁷⁶.(‘빗창’.)

105015 @ 뭐마씨?(뭐요?)

105015 #1 빗창.(‘빗창’.)

105015 @ 빗창. 그거 하나만 들고 바다에 가마씨?(‘빗창’. 그거 하나만 들고 바다에 가요?)

105015 #1 그거 하나. 그건 시기에 따라가지고.(그거 하나. 그건 시기에 따라가지고.)

105015 @ 예.(예.)

105015 #1 그거 하나만 가져갈 때도 있고. 물 속에 들어가 봐가지고 그걸 하나로 안 될 거면 올라와서 그 호미나 까꾸리⁷⁷)나.(그거 하나만 가져갈 때도 있고. 물 속에 들어가 봐가지고 그걸 하나로 안 될 거면 올라와서 그 낫이나 ‘까꾸리’나.)

105015 @ 아, 호미나 까꾸리.(아, 낫이나 ‘까꾸리’.)

105015 #1 어.(어.)

105016 @ 잠녀들 예전이랑 지금이랑 달라진 거 곶아 줍서.(잠녀들 예전이랑 지금이랑 달라진 거 말해 주십시오.)

105016 #1 달라진 거?(달라진 거?)

105016 @ 예.(예.)

105016 #1 달라진 거야. 물건 잡는 것들 달라진 거 곶아줘?(달라진 거야. 물건 잡는 것들 달라진 거 말해줘?)

75) ‘속곳’은 물질할 때 해녀들이 입는 무명으로 만든 물옷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소중기, 소중의

76) ‘빗창’은 해녀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전복을 캐는 데 쓰는 길쭉한 쇠붙이로 된 연장으로서, 길이는 30센티미터쯤이며 동그랗게 말린 머리에는 손잡이 끈이 달려 있는 것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77) ‘까꾸리’는 해녀들이 물질을 하면서 소라, 성게 등을 따는 데 쓰는 도구를 의미하는 제주어로 호미와 비슷하다.

105016 @ 예.(예.)

105016 #1 해녀들이란 게 옛날은 속곳이영 현 거 있어.(해녀들이란 게 옛날은 ‘속곳’이라고 한 거 있어.)

105016 @ 예.(예.)

105016 #1 속곳만 입고 물적삼⁷⁸⁾이란 거 허연 거 입고. 텔레비에도 나왔주만은 음식은 마찬가지로.(‘속곳’만 입고 ‘물적삼’이란 거 하얀 거 입고. 텔레비전에도 나왔지만 음식은 마찬가지.)

105016 @ 예.(예.)

105016 #1 게고 잡는 거는 뭐 별다른 거 없거든 전복, 구쟁기 또 구살, 해삼. 난 다고 허는 것은 다 잡아 놓지.(그리고 잡는 거는 뭐 별다른 거 없거든. 전복, 소라 또 성게, 해삼. 난다고 하는 것은 다 잡아 놓지.)

105016 @ 지금은 나이 많은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예전에는 젊은 사람도 있던마 씨? 어르신?(지금은 나이 많은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예전에는 젊은 사람도 있었어요? 어르신?)

105016 #1 예전에는 뭔가 우리 커 올 때는 젊은 애들 많았주게.(예전에는 뭔가 우리 커 올 때는 젊은 애들 많았지.)

105016 @ 예.(예.)

105016 #1 많았는데 이제는 천하다고 안허려고 허여.(많았는데 이제는 천하다고 안하려고 해.)

105017 @ 그럼 예전에는 경 헛고, 아까 얘기해인디 예전이랑 지금이랑 옷만 많이 달라마씨?(그럼 예전에는 그렇게 헛고, 아까 얘기했는데 예전이랑 지금이랑 옷만 많이 달라요?)

105017 #1 지금?(지금?)

105017 @ 예. 지금 물질할 때 옷이랑.(예. 지금 물질할 때 옷이랑.)

105017 #1 어. 다르주.(어. 다르지.)

105017 @ 게니깐 어떻 달라마씨? 한 번만 더 설명해 줘서.(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요?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105017 #1 옛날은 흰 물적삼이라고 있어. 해녀들이.(옛날은 흰 ‘물적삼’이라고 있어. 해녀들이.)

105017 @ 물적삼.(‘물적삼’.)

105017 #1 아래 이 속곳이라 현 거는 전부 검은 거 입어.(아래 이 ‘속곳’이라 한 거는 전부 검은 거 입어.)

105017 @ 아.(아.)

105017 #1 해녀들이.(해녀들이.)

105017 @ 예.(예.)

105017 #1 검은 거 입으면 물웃 우로 메게끔 뒤편이 주게. 게고 현재는 그냥 이

78) ‘물적삼’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옷저고리의 하나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팬티만 입고 내의 하나 얇은 내의 위에만 입어가지고 그냥 고무 고무 그냥 그거 입 주게. 현재는.(검은 거 입으면 물웃 위로 매게끔 되어있지. 그리고 현재는 그냥 이 팬티만 입고 내의 하나 얇은 내의 위에만 입어가지고 그냥 고무 고무 그냥 그거 입 주게.)

105017 @ 예. 그럼 도구하고 굴갱이는 똑같이 쓰지예?(예. 그럼 도구하고 호미는 똑같이 쓰지요?)

105017 #1 도구하고 굴갱이는 그 요만한 망사리 위에.(도구하고 호미는 그 요만한 '망사리' 위에.)

105017 @ 예.(예.)

105017 #1 그 좁지르는 디가 있어. 영 해가지고.(그 사이에 끼는 데가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105017 @ 아.(아.)

105017 #1 도구를 거기 놓는 디가. 테왁 우에다가 놓는 것이 돌아매는 사람은 돌아매고. 또 율 찌르는 사람은 찢르고. 거기 뭐, 뭐 들어가냐. 이렇게 해가지고 오그라진 그 쇠로 만든 거. 요만한 거 거기 하나 들어가 있고.(도구를 거기 놓는 데가. '테왁' 위에다가 놓는 것이 돌아매는 사람은 돌아매고. 또 옆 끼는 사람은 끼고. 거기 뭐, 뭐 들어가냐. 이렇게 해가지고 오그라진 그 쇠로 만든 거. 요만한 거 거기 하나 들어가 있고.)

105017 @ 그건 뭐라고 해마씨?(그건 뭐라고 해요?)

105017 #1 까꾸리.(‘까꾸리’.)

105017 @ 아, 까꾸리.(아, ‘까꾸리’.)

105017 #1 어. 까꾸리. 또 빗창이런 현 거 거 두 개.(어. ‘까꾸리’. 또 ‘빗창’이라고 한 거 거 두 개.)

105017 @ 아.(아.)

105017 #1 빗창, 까꾸리, 굴갱이, 호미 이런 거?(‘빗창’, ‘까꾸리’, ‘굴갱이’, ‘낫’ 이런 거?)

105017 #1 그거 가면서 그 물 아래 내려가 보면서 사용할 수 엇는 거는 무엇을 가져가서 사용해지겠다 하면 그걸 가져가서 들어가주게.(그거 가면서 그 물 아래 내려가 보면서 사용할 수 없는 거는 무엇을 가져가서 사용해지겠다 하면 그걸 가져가서 들어가지.)

105017 @ 지금은 그 검정색 옷 하나 잇잖아예?(지금은 그 검정색 옷 하나 잇잖아요?)

105017 #1 어?(어?)

105017 @ 그 잡녀들.(그 해녀들.)

105017 #1 어.(어.)

105017 @ 지금 물 들어갈 때 검은색 옷.(지금 물 들어갈 때 검은색 옷.)

105017 #1 어.(어.)

105017 @ 하나 입잖아예? 예전에는 밑에만 검은색이고 위에는 하얀색마씨?(하나 입잖아요? 예전에는 밑에만 검은색이고 위에는 하얀색이에요?)

105017 #1 하얀색은 계난 지금은 고무옷이다.(하얀색은 그러니까 지금은 고무옷인데.)

105017 @ 예.(예.)

105017 #1 옛날에 전부 미녕.(옛날에 전부 무명.)

105017 @ 미녕.(무명.)

105017 #1 어. 미녕 알지?(어, 무명 알지?)

105017 @ 예. 알주마씨.(예. 알지요.)

105017 #1 미녕으로 만든 거. 우에는 우에는 희영허게 만든 걸로 입고.(무명으로 만든 거. 위에는 위에는 희게 만든 걸로 입고.)

105017 @ 음.(음.)

105017 #1 밑에는 또 까맣게 만든.(밑에는 또 까맣게 만든.)

105017 @ 그럼 위에 아래 따로 따로 이름이 잇어마씨?(그럼 위에 아래 따로 따로 이름이 있어요?)

105017 #1 뭐 따로따로 잇어. 아 따로따로 잇구나. 적삼.(뭐 따로따로 없어. 아 따로따로 잇구나. 적삼.)

105017 @ 적삼. 그리고 밑에는?(적삼. 그리고 밑에는?)

105017 #1 물적삼.(‘물적삼’.)

105017 @ 물적삼.(‘물적삼’.)

105017 #1 이 아래 것은 속곳.(이 아래 것은 ‘속곳’.)

105017 @ 아, 속곳.(아, ‘속곳’.)

105017 #1 계난 내의 그 팬티보고 이젠 팬티엔 허지?(그러니까 내의 그 팬티보고 이제는 팬티라고 하지?)

105017 @ 예.(예.)

105017 #1 옛날엔 그게 속곳이라 헛어.(옛날에는 그게 ‘속곳’이라 헛어.)

105017 @ 아, 기구나예. 잘 아신다예?(아, 그렇군요. 잘 아시네요?)

105017 #1 아니, 대부분 알아.(아니, 대부분 알아.)

105017 @ 아, 어르신은 모를 줄 알고, 그 할머니 할망들만 아는 줄 알앗인다.(아, 어르신은 모를 줄 알고, 그 할머니 할머니들만 아는 줄 알았는데.)

105017 #1 아니야.(아니야.)

105018 @ 그러면 툷 잇잖아예?(그러면 툷 잇잖아요?)

105018 #1 어. 툷.(어. 툷.)

105018 @ 툷도 사람들이 그 채취 그 하잖아예?(툷도 사람들이 그 채취 그 하잖아요?)

105018 #1 어. 툷.(어. 툷.)

105018 @ 그건 뭐 개개인이 헨마씨? 아니면 단체로 강 채취헨마씨?(그건 뭐 개

개인이 했어요? 아니면 단체거 가서 채취했어요?)
 105018 #1 그건 단체로 허여.(그건 단체로 해.)
 105018 @ 아, 단체로.(아, 단체로.)
 105018 #1 단체로 호미 가져가서.(단체로 낫 가져가서.)
 105018 @ 예.(예.)
 105018 #1 물이 올라올 때 잇고, 내려갈 때 잇거든.(물이 올라올 때 잇고, 내려갈 때 잇거든.)
 105018 @ 예.(예.)
 105018 #1 바짝 뒹 서물⁷⁹⁾, 너물⁸⁰⁾ 날은 안 내려가는데 으섯 일곱물⁸¹⁾ 날 뒹가면은.(바짝 뒹 ‘서물’, ‘너물’ 날은 안 내려가는데 여섯 일곱물 날 되가면.)
 105018 @ 예.(예.)
 105018 #1 그 바짝 물 내려붙어. 내려붙면 그 때는 전부 단체적으로 내려가가지고 툇 비어가지고 비는 사람은 비고 지어서 올리는 사람은 지어서 올리고.(그 바짝 물 내려버려. 내려버리면 그 때는 전부 단체적으로 내려가가지고 툇 베어가지고 베는 사람은 베고 지어서 올리는 사람은 지어서 올리고.)
 105018 @ 음. 툇은 뭘로 캐마씨? 그럼?(음. 툇은 뭘로 캐요? 그럼?)
 105018 #1 호미로.(낫으로.)
 105018 @ 호미로.(낫으로.)
 105018 #1 어.(어.)
 105018 @ 어르신도 해 판마씨?(어르신도 해 봤어요?)
 105018 #1 해 봤주게. 허주게.(해 봤지. 하지.)
 105018 @ 아.(아.)
 105018 #1 해 낫주게 여기서.(했었지. 여기서.)
 105018 @ 단체로 하면 보통 몇 명이나 가마씨?(단체로 하면 보통 몇 명이나 가요?)
 105018 #1 그 부락에 따라가지고. 우리는 작은 부락이니깐 이삼십 명.(그 부락에 따라가지고. 우리는 작은 부락이니까 이삼십 명.)
 105018 @ 음.(음.)
 105018 #1 고산서는 오육십 명. 백 명까지도 나갈 때 잇어.(‘고산’에서는 오육십 명. 백 명까지도 나갈 때 잇어.)
 105018 @ 여기, 여기 한 장동이지예?(여기, 여기 ‘한장동’이지예?)
 105018 #1 어.(어.)
 105018 @ 그럼 고산이랑 뒹. 고산 한장동이잖아예?(그럼 ‘고산’이랑 뒹. ‘고산’ ‘한장동’이잖아요?)
 105018 #1 어. 고산 한장동.(어. ‘고산’ ‘한장동’.)

79) 음력 열 하루와 스무 옛셋 날의 조수(潮水)

80) 음력 열이틀과 스무 이렛 날의 조수(潮水). = 너물

81) 음력 보름과 그믐날의 조수(潮水).

105018 @ 아. 고산 안에서도 동마다 다르게.(아. '고산' 안에서도 동마다 다르게.)

105018 #1 어. 동마다 다르주게. 동마다 저쪽에 조금 건너가면 상구엔 허는다. 지금 지금은 이리로 뒤편이만은 이리 해녀들이 있으니 저쪽은. 그 다음에는 고산 일리 해녀들이 바다에 바다에 다 딱으로 잇주게.(어. 동마다 다르지. 동마다 저쪽에 조금 건너가면 '상구'라고 하는데. 지금 지금은 이리로 되어있지만 이리 해녀들이 있으니 저쪽은. 그 다음에는 '고산' 일리 해녀들이 바다에 바다에 다 따로 따로 있지.)

105018 @ 아.(아.)

105018 #1 여기 바당허고.(여기 바다하고.)

105018 @ 여기 바다하고.(여기 바다하고.)

105018 #1 거기 바당허고 다 세 군데가 갈라졌거든 여기는.(거기 바다하고 다 세 군데가 갈라졌거든 여기는.)

105018 @ 음.(음.)

105018 #1 여기로 가면 대정이고.(여기로 가면 '대정'이고.)

105019 @ 그럼 우뭇가사리도 채취헨마씨?(그럼 우뭇가사리도 채취했어요?)

105019 #1 우뭇가사리 옛날엔 채취했어.(우뭇가사리 옛날에는 채취했어.)

105019 @ 아 그거는 어떻? 그것도 툇이랑 똑같이.(아 그거는 어떻게? 그것도 툇이랑 똑같이.)

105019 #1 아니여.(아니.)

105019 @ 아.(아.)

105019 #1 우뭇가사리는 툇 나는 데 안 나누게.(우뭇가사리는 툇 나는 데 안 나지.)

105019 @ 아. 툇 나는 데 안 나마씨?(아, 툇 나는데 안 나요?)

105019 #1 그거는 바다에 물 속에 깊은 디 나누게.(그거는 바다에 물 속에 깊은 데 나지.)

105019 @ 아.(아.)

105019 #1 우뭇가사리는.(우뭇가사리는.)

105019 @ 그럼 그건 개인이 해마씨? 아니면 해녀들이.(그럼 그건 개인이 해요? 아니면 해녀들이.)

105019 #1 개인이 채취허주. 해녀들밖에 못 해 그건. 물 깊으니깐.(개인이 채취하지. 해녀들밖에 못 해 그건. 물 깊으니까.)

105019 @ 그럼 그건 다 같이 강 행 오겟다예?(그럼 그건 다 같이 가서 해서 오겠군요.)

105019 #1 어. 해녀들 허게 되면 다 같이들 허여. 그거 하다가 또 소라도 잡고.(어 해녀들 하게 되면 다 같이 해. 그거 하다가 또 소라도 잡고.)

105020 @ 아, 그러면 이제 물어볼 게 전복이랑 소라인디예.(아, 그러면 이제 물

어볼 게 전복이랑 소라인데요.)

105020 #1 어.(어.)

105020 @ 전복이나 소라도 그냥 따로따로 헤마씨?(전복이나 소라도 그냥 따로 따로 해요?)

105020 #1 아니지. 잡아놓는 거야 영 보민 똑같아.(아니지. 잡아놓는 거야 이렇게 보면 똑같아.)

105020 @ 아, 똑같아마씨?(아, 똑같아요?)

105020 #1 우뚝가사리 허다근에. 그 우뚝가사리 허당 쉬면 또 그거 잡아놓고. 또 미역이라도 허다가 뭐, 뭐 그런 거 있으면. 같이 바닷에 보이는 건 다 잡아놓으니까.(우뚝가사리 허다가. 그 우뚝가사리 허다가 쉬면 또 그거 잡아놓고. 또 미역이라도 허다가 뭐, 뭐 그런 거 있으면. 같이 바닷에 보이는 건 다 잡아놓으니까.)

105020 @ 아, 같이.(아, 같이.)

105020 #1 응.(응.)

105020 @ 그럼 같이 잡아온 다음에 어떻 헤마씨?(그럼 같이 잡아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105020 #1 잡아오면 망사리 속에 놓지.(잡아오면 ‘망사리’ 속에 놓지.)

105020 @ 예.(예.)

105020 #1 놓으면 위에 올라오면은 이제 망사리 아래 클러가지고 풀어놓은다 말이야.(놓으면 위에 올라오면 이제 ‘망사리’ 아래 풀러가지고 풀어놓은다 말이야.)

105020 @ 예.(예.)

105020 #1 풀어놓으면 미역 이제 우뚝가사리는 우뚝가사리대로 허고. 전복 소라는 소라 별도로 구분해 놓주게.(풀어놓으면 미역 이제 우뚝가사리는 우뚝가사리대로 하고. 전복 소라는 소라 별도로 구분해 놓지.)

105020 @ 아.(아.)

105020 #1 계면은 어촌계서 와서 옛날에도 잇었어. 어촌계서 와서 그걸 받아 가불어.(그러면 어촌계에서 와서 옛날에도 있었어. 어촌계에서 와서 그걸 받아 가버려.)

105020 @ 아, 어촌계에서 받은 다음에 조금씩 나눠줘마씨?(아, 어촌계에서 받은 다음에 조금씩 나눠줘요?)

105020 #1 아니. 어촌계에서 싹 받아가불어. 풀 거는.(아니. 어촌계에서 싹 받아가버려. 팔 거는.)

105020 @ 아, 경 행 판 다음에 그 돈은 나눠주는 거마씨?(아, 그렇게 해서 판 다음에 그 돈은 나눠주는 거예요?)

105020 #1 응. 아니. 풀기 전에 자기 먹을 거는 남겨두거든.(응. 아니. 팔기 전에 자기 먹을 거는 남겨두거든.)

105020 @ 아.(아.)

105020 #1 요거만 팔겠다. 오늘은 요거만 팔겠다.(요거만 팔겠다. 오늘은 요거만

팔겠다.)

105020 @ 음.(음.)

105020 #1 손님, 손님이 오면 오늘 팔 거 엇다허고 해가지고 안 팔고. 그러주 게.(손님, 손님이 오면 오늘 팔 거 엇다허고 해가지고 안 팔고. 그러지.)

105021 @ 그럼 전복이랑 소라 종류 어르신 알아마씨? 뭐 암수도 잇을 거고.(그 럼 전복이랑 소라 종류 어르신 알아요? 뭐 암수도 잇을 거고.)

105021 #1 그렇지.(그렇지.)

105021 @ 그럼 어떻 어떻 달라마씨?(그럼 어떻게 어떻게 달라요?)

105021 #1 암수?(암수?)

105021 @ 예.(예.)

105021 #1 사람은 뭔가 암 암 여자가.(사람은 뭔가 암 암 여자가.)

105021 @ 예.(예.)

105021 #1 슬지는데 전복은 여자가 지쳐⁸²⁾.(살찌는데 전복은 여자가 여위어.)

105021 @ 지쳐마씨?(여위어요?)

105021 #1 어. 전복이런 현 거는 요만큼 행 움틀락현⁸³⁾ 거 잇고 뽕짝 현 게 잇 어.(어. 전복이라고 한 거는 요만큼 해서 ‘움틀락한’ 거 잇고 뽕족 한 게 있어.)

105021 @ 예.(예.)

105021 #1 그냥 저 조갱이⁸⁴⁾만 이렇게 붙어 잇는 게 잇고. 그게 암캐라 말이 여.(그냥 저 ‘조갱이’만 이렇게 붙어 잇는 게 잇고. 그게 암캐라 말이야.)

105021 @ 아.(아.)

105021 #1 그게 다를 뿐이지.(그게 다를 뿐이지.)

105021 @ 그럼 소라는 소라도 암수가 잇어마씨?(그럼 소라는 소라도 암수가 잇 어요?)

105021 #1 소라 암수 암수 엇어.(소라 암수 암수 없어.)

105021 @ 그럼 그 전복이랑 오분자기 오분채기 잇잖아예?(그럼 그 전복이랑 오 분자기 오분자기 잇잖아요?)

105021 #1 어. 오분채기.(어. 오분자기.)

105021 @ 그거 어떻 구분해마씨?(그거 어떻게 구분해요?)

105021 #1 오분자기는 돌 트명에서 크는데 요만큼밖에 안 커.(오분자기는 돌 틈 에서 크는데 요만큼밖에 안 커.)

105021 @ 아.(아.)

105021 #1 안 크면 돌 트명에서 그게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나. 케면 살아만 텅 기면 우에 그거 뜯어 먹으멍 나오주게.(안 크면 돌 틈에서 그게 손으로 이렇게 하 면.)

105021 @ 예.(예.)

82) ‘지치다’²⁾는 표준어 ‘여위다’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83) ‘움틀락하다’는 오목하게 파여 들어간 것이 둥글고 미끈둥하다는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84) ‘조갱이’는 ‘새끼 전복’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05021 #1 그러면 호맹이 호맹이엔 현 거 나 얘기했지?(그러면 호미 호미라고 한 거 나 얘기했지?)

105021 @ 예.(예.)

105021 #1 그걸로 돌구멍에 가서 이렇게 봐가지고 빼내.(그걸로 돌구멍에 가서 이렇게 봐가지고 빼내.)

105021 @ 아, 전복은 이 깊숙이 잇고?(아, 전복은 이 깊숙이 잇고?)

105021 #1 어. 전복은 깊숙이 있어.(어. 전복은 깊숙이 있어.)

105021 @ 근데 이렇게 비슷한 크기이면 헛갈리잖아예?(근데 이렇게 비슷한 크기이면 헛갈리잖아요?)

105021 #1 어.(어.)

105021 @ 그거 구분할 수 있어마씨?(그거 구분할 수 있어요?)

105021 #1 색깔이?(색깔이?)

105021 @ 예. 두 개. 그러니까 전복이랑 오분재기랑.(예. 두 개. 그러니까 전복이랑 오분자기랑.)

105021 #1 다른 거?(다른 거?)

105021 @ 예. 어떻 달라마씨? 크기가 똑같은 것도?(예. 어떻게 달라요? 크기가 똑같은 것도?)

105021 #1 아니다.(아니다.)

105021 @ 크기가 전복 작은 거 오분재기 큰 거 허면 좀 비슷하잖아예.(크기가 전복 작은 거 오분자기 큰 거 하면 좀 비슷하잖아요.)

105021 #1 어. 비슷해.(어. 비슷해.)

105021 @ 만약 크기가 비슷허면 어떻 구분해마씨?(만약 크기가 비슷하면 어떻게 구분해요?)

105021 #1 비슷허면은?(비슷하면?)

105021 @ 예.(예.)

105021 #1 큰 것은 똑같으지.(큰 것은 똑같지.)

105021 @ 예.(예.)

105021 #1 전복이라고 허는 거는 그 눈이 잇다.(전복이라고 하는 거는 그 눈이 잇다.)

105021 @ 아, 숨구멍 같은 거?(아, 숨구멍 같은 거?)

105021 #1 어. 숨구멍.(어. 숨구멍.)

105021 @ 아, 그게 눈마씨?(아, 그게 눈이에요?)

105021 #1 어.(어.)

105021 @ 아, 눈이라고 해마씨?(아, 눈이라고 해요?)

105021 #1 아, 그게 숨구멍.(아, 그게 숨구멍.)

105021 @ 숨구멍.(숨구멍.)

105021 #1 숨구멍. 그 고양이 하나가 일 년이라.(숨구멍. 그 구멍 하나가 일 년이

라.)

105021 @ 아.(아.)

105021 #1 크는 게.(크는 게.)

105021 @ 예.(예.)

105021 #1 또 오분재기엔 허는 거는 꺼풀이 달라. 꺼풀 쪼그만 헌 게 이 숨구멍이 좇아 좇아. 쪼끔 아주 눈으로 잘 보이나마나 행 크주게. 그 종내기가.(또 오분자기라고 하는 거는 꺼풀이 달라. 꺼풀 조그만 한 게 이 숨구멍이 좇아. 좇아. 조금 아주 눈으로 잘 보이나마나 해서 크지. 그 종내기가.)

105021 @ 아.(아.)

105021 #1 그럼 그걸로 알아.(그럼 그걸로 알아.)

105021 @ 예.(예.)

105021 #1 게고 전복은 물 깊숙이 살아부난. 그걸로 구분허주.(그리고 전복은 물 깊숙이 살아버려서. 그걸로 구분하지.)

105022 @ 어르신 테우 테라고 헤마씨?(어르신 ‘테우’ ‘테’라고 해요?)

105022 #1 어. 테우.(어. ‘테우’.)

105022 @ 테우 옛날에 뭐라고 얘기헤마씨? 테우? 테?(‘테우’ 옛날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테우’? ‘테’?)

105022 #1 그거? 테. 테.(그거? ‘테’. ‘테’.)

105022 @ 아. 테.(아. ‘테’.)

105022 #1 어.(어.)

105022 @ 테 종류도 잇어마씨?(떼 종류도 잇어요?)

105022 #1 테 종류는 엇어.(떼 종류는 없어.)

105022 @ 종류는 엇어마씨?(종류는 없어요?)

105022 #1 하나.(하나.)

105022 @ 그럼 어르신 그거 운전했잖아예?(그럼 어르신 그거 운전했잖아예?)

105022 #1 어.(어.)

105022 @ 테 잘 알잖아예. 그거 테 부분 어디 어디 이름 좀 다르잖아예?(떼 잘 알잖아예. 그거 테 부분 어디 어디 이름 좀 다르잖아예?)

105022 #1 어.(어.)

105022 @ 앞부분 뒷부분 그런 이름이랑.(앞부분 뒷부분 그런 이름이랑.)

105022 #1 어.(어.)

105022 @ 그 다음에 테에 대해서 좀 그냥 아는 바 그러니까 어르신 아는 대로 좀 얘기해 주실 수 잇어마씨?(그 다음에 떼에 대해서 좀 그냥 아는 바 그러니까 어르신 아는 대로 좀 얘기해 주실 수 잇어요?)

105022 #1 그거 벨거 아는 거 엇어. 그거는.(그거 벨거 아는 거 없어. 그거는.)

105022 @ 음.(음.)

105022 #1 테우가 이게.(떼가 이게.)

105022 @ 예.(예.)

105022 #1 뭐로 만드냐면은 숙이냥.(뭐로 만드냐면 ‘숙이냥’.)

105022 @ 숙이냥?(‘숙이냥’?)

105022 #1 숙데냥.(삼나무.)

105022 @ 숙데냥? 아.(삼나무? 아.)

105022 #1 숙데냥으로 그걸 잘라서 빠삭 믈른걸 그걸 이제 사다가 이녁 양대로 만들라면은.(삼나무로 그걸 잘라서 바삭 마른 걸 그걸 이제 사다가 이녁 양대로 만들라면.)

105022 @ 예.(예.)

105022 #1 그걸 어떻 만들었냐면. 나무가 다 꺾디기가 벗겨질 거 아냐.(그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나무가 다 꺾디기가 벗겨질 거 아냐.)

105022 @ 예.(예.)

105022 #1 이만큼 현 네 군데구나. 네 군데에 고양이 뚫어. 고양이를 끌르면은 이쪽 고양이로 요만한 나무가 거기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이만큼 한 네 군데구나. 네 군데에 구멍을 뚫어. 구멍을 뚫으면 이쪽 구멍으로 요만한 나무가 거기에 들어가게끔 만들어.)

105022 @ 아. 나무 안에 나무?(아. 나무 안에 나무?)

105022 #1 어. 나무 들어가게끔 나무 들어가게끔. 이제 네 개를 만들어. 네 개를 만들엉 그걸 박아 이젠. 고양이 뚫린 데로.(어. 나무 들어가게끔. 나무 들어가게끔 이제 네 개를 만들어. 네 개를 만들어서 그걸 박아 이젠. 구멍 뚫린 데로.)

105022 @ 예.(예.)

105022 #1 박는디 영 그 나무못이라고 현 게 있어. 나무못.(박는데 이렇게 그 나무못이라고 한 게 있어. 나무못.)

105022 @ 예.(예.)

105022 #1 쇠는 안 들어가니깐 테에는.(쇠는 안 들어가니깐 테에는.)

105022 @ 아.(아.)

105022 #1 이제 걸로 쳐가지고 움직거리지 못하게 막주게.(이제 그걸로 쳐가지고 움직거리지 못하게 막지.)

105022 @ 예.(예.)

105022 #1 게면 테가 웬다.(그러면 떼가 된다.)

105022 @ 예.(예.)

105022 #1 테가 뒤편은 테 만드는 물이 언제나 있어.(떼가 되면 떼 만드는 물이 언제나 있어.)

105022 @ 음.(음.)

105022 #1 물이.(물이.)

105022 @ 예.(예.)

105022 #1 잔물이 있어. 또 거기 팽상이엔 현 게 있어.(잔물이 있어. 또 거기 평

상이라고 한 게 있어.)

105022 @ 평상마씨?(평상이요?)

105022 #1 어. 평상.(어. 평상.)

105022 @ 예.(예.)

105022 #1 테 앞에 아자서 쉽도 하고 아자서 바다서 밥도 먹고.(떼 앞에 앉아서
쉽도 하고 앉아서 바다서 밥도 먹고.)

105022 @ 아. 그게 평상이라고 헤마씨?(아. 그게 평상이라고 해요?)

105022 #1 어. 평상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만큼 찢러가지고 박아.(어. 평상 이
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만큼 찢러가지고 박아.)

105022 @ 예.(예.)

105022 #1 그럼 우이는 뭘 허냐면 대나무.(그럼 위에는 뭘 허냐면 대나무.)

105022 @ 대나무.(대나무.)

105022 #1 대나무 잘라 엮은 거.(대나무 잘라서 엮은 거.)

105022 @ 예.(예.)

105022 #1 엮어가지고 우에 깔아지주게.(엮어가지고 위에 깔아지지.)

105022 @ 예.(예.)

105022 #1 깔아주면 그 우에 아자가지고 밥도 먹고 아장 쉽도 허고.(깔아주면
그 위에 앉아가지고 밥도 먹고 앉아서 쉽도 하고.)

105022 @ 아.(아.)

105022 #1 게고 테는 이렇게 젖고 이렇게 젖어.(그러고 떼는 이렇게 젖고 이렇
게 젖어.)

105022 @ 예.(예.)

105022 #1 베는 이리이리 젖으면 돼는다.(베는 이리이리 젖으면 되는데.)

105022 @ 아, 좌우로?(아, 좌우로?)

105022 #1 테는 이거 때면.(떼는 이거 때면.)

105022 @ 예.(예.)

105022 #1 이리이리 젖어 가야 돼여 뒷걸음으로. 뒤에 보면서.(이리이리 젖어
가야 돼여 뒷걸음으로. 뒤에 보면서.)

105022 @ 뒷걸음으로?(뒷걸음으로?)

105022 #1 뒤에 보면서.(뒤에 보면서.)

105022 @ 아.(아.)

105022 #1 뒤에 보면서 테를 이리 몰았다 저리 몰았다 허주게.(뒤에 보면서 떼
를 이리 몰았다 저리 몰았다 하지.)

105022 @ 그럼 삼촌 예전에 어디서 테 몰안마씨?(그럼 삼촌 예전에 어디서 떼
몰았어요?)

105022 #1 여기서도 테 헛엇주게.(여기서도 떼 헛엇지.)

105022 @ 아, 여기서 헛마씨?(아, 여기서 헛어요?)

105022 #1 어.(어.)

105022 @ 바닷가 나강?(바닷가 나가서?)

105022 #1 어, 바닷가 나강.(어, 바닷가 나가서.)

105022 @ 아, 그럼 테로 낚시허러 나간마씨? 아니면?(아, 그럼 떼로 낚시하러 나갔어요? 아니면?)

105022 #1 낚시허래 나가. 테는 보통 낚시허래 나가. 옛날부터 자리 허러 나가 고. 경 헛주게.(낚시하러 나가. 떼는 보통 낚시하러 나가. 옛날부터 자리돔 하러 나 가고. 그렇게 했지.)

105022 @ 그럼 떨리는 못 가지예?(그럼 떨리는 못 가지요?)

105022 #1 떨리 못 가.(떨리 못 가.)

105022 @ 인근에만?(인근에만?)

105022 #1 여기 인근에 저 이 자리 잇는 데나.(여기 인근에 저 이 자리돔 잇는 데나.)

105022 @ 예.(예.)

105022 #1 또 고기 이 우럭 좋은 거 낚으는 디 큰 거 낚으는 디는 못 나가.(또 고기 이 우럭 좋은 거 낚는 데 큰 거 낚는 데는 못 나가.)

105022 @ 그럼 몇 명이나 타마씨?(그럼 몇 명이나 타요?)

105022 #1 너이 타.(네티 타.)

105022 @ 너이?(네티?)

105022 #1 어.(어.)

105022 @ 아, 그럼 삼촌이 이렇게 하면 셋은 아자 있다가 낚시 허는 거마씨? (아, 그럼 삼촌이 이렇게 하면 셋은 앓아 있다가 낚시 하는 거예요?)

105022 #1 어. 그렇지.(어. 그렇지.)

105022 @ 아.(아.)

105022 #1 버치면 다른 사람도 허고.(부치면 다른 사람도 하고.)

105022 @ 다른 사람도 허고?(다른 사람도 하고?)

105022 #1 그거 테에나 배에나 네 저을 주는 다 알아야 돼.(그거 떼에나 배에나 노 저을 줄은 다 알아야 돼.)

105022 @ 아, 다 알아야 돼마씨?(아, 다 알아야 돼요?)

105022 #1 너이가. 교대로 들어가니깐. 이 물발이 세게 되면은.(네티. 교대로 들어가니까. 이 물발이 세게 되면.)

105022 @ 예.(예.)

105022 #1 올라가지 못 허여. 테라는 게.(올라가지 못 해. 떼라는 게.)

105022 @ 아.(아.)

105022 #1 물발에 물려가지고. 게면 가로 붙여가지고 물발 안 썬 곳으로 올라갈 라 허민. 잇는 사공들이 전부 네 저을 줄 알아야 허주게.(물발에 말려가지고. 그러 면 가로 붙여가지고 물발 안 썬 곳으로 올라가려 하면. 잇는 사공들이 전부 노 저

을 줄 알아야 하지.)

105022 @ 아, 그럼 올라갈 때 많이 힘들겠다예?(아, 그럼 올라갈 때 많이 힘들겠군요?)

105022 #1 그렇지.(그렇지.)

105022 @ 아, 그럼 내려올 때는 힘들지 않고마씨?(아, 그럼 내려올 때는 힘들지 않고요?)

105022 #1 어.(어.)

105023 @ 그럼 돛배 잇잖아예? 돛배.(그럼 돛배 잇잖아요? 돛배.)

105023 #1 돛배?(돛배?)

105023 @ 예. 그 낚배 같은 거마씨.(예. 그 낚싯배 같은 거요.)

105023 #1 어.(어.)

105023 @ 그거 돛 잇는 거. 이렇게 세워가지고 잇는 거.(그거 돛 잇는 거. 이렇게 세워가지고 잇는 거.)

105023 #1 어.(어.)

105023 @ 그것도 몰아봤지예? 삼촌. 그건 안 몰아봤마씨?(그것도 몰아봤지요? 삼촌. 그건 안 몰아보셨어요?)

105023 #1 것도 것도 네 잇어야 돼여.(것도 것도 노 잇어야 돼.)

105023 @ 아, 그것도 네 잇어야 돼마씨?(아, 그것도 노 잇어야 되요?)

105023 #1 그건 치가 잇어.(그건 키가 잇어.)

105023 @ 예.(예.)

105023 #1 왜 그러냐 허면 그 일단 바람이 맞아가지고 할 적에는 저 내로 해서 나가.(왜 그러냐 하면 그 일단 바람이 맞아가지고 할 적에는 저 내로 해서 나가.)

105023 @ 예.(예.)

105023 #1 바다 바깥으로 나가. 바람이 나면은 돛을 올린단 말이여.(바다 바깥으로 나가. 바람이 나면 돛을 올린단 말이야.)

105023 @ 예.(예.)

105023 #1 올리면 뒤로 요만 이만큼은 그 치가 잇어.(올리면 뒤로 요만 이만큼한 그 키가 잇어.)

105023 @ 치가?(키가?)

105023 #1 치. 치.(키. 키.)

105023 @ 치? 치가 뭐짱?(키? 키가 무엇입니까?)

105023 #1 저 배 저 차에 곁으면.(저 배 저 차에 곁으면.)

105023 @ 예.(예.)

105023 #1 뭐 잇잖아. 헨들.(뭐 잇잖아. 헨들.)

105023 @ 아.(아.)

105023 #1 그거 해가지고 나무를 이만큼 붙였어. 그거 이제 요만한 그 나무에 곁양을 뚫었어.(그거 해가지고 나무를 이만큼 붙였어. 그거 이제 요만한 그 나무에

구멍을 뚫었어.)

105023 @ 예.(예.)

105023 #1 고양을 뚫아가지고 즈록을 질게 멘들었어. 그걸로 이레 헛다 이레 헛다 조정해서. 저 돛배는.(구멍을 뚫어가지고 자루를 길게 만들었어. 그걸로 이리 헛다 이리 헛다 조정해서. 저 돛배는.)

105023 @ 예.(예.)

105023 #1 돛배는 그래서 그렇게 움직거리면서 돌아댱겼어.(돛배는 그래서 그렇게 움직거리면서 돌아다녔어.)

105024 @ 돛배 그럼 돛배도 그 배 조금씩 이름이 다르잖아예? 앞에 이름이랑 뒤에 이름이랑?(돛배 그럼 돛배도 그 배 조금씩 이름이 다르잖아요? 앞에 이름이랑 뒤에 이름이랑?)

105024 #1 어. 이물, 고물.(어. 이물, 고물.)

105024 @ 예?(예?)

105024 #1 이물, 고물.(이물, 고물.)

105024 @ 이물이 뭐팡?(이물이 무엇입니까?)

105024 #1 이물은 앞이.(이물은 앞에.)

105024 @ 예.(예.)

105024 #1 고물은 뒤에.(고물은 뒤에.)

105024 @ 아, 그 다음에 돛 잇는 부분은 이름은 따로?(아, 그 다음에 돛 잇는 부분은 이름은 따로?)

105024 #1 그건 엇고.(그건 없고.)

105024 @ 그럼 이물, 고물만 잇어마씨?(그럼 이물, 고물만 잇어요?)

105024 #1 어.(어.)

105024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5024 #1 배 저 돛 야오엔 허는 거는 앞이 앞이 쪼만헌 거.(배 저 돛 ‘야오’라고 하는 거는 앞에 앞에 쪼그마한 거.)

105024 @ 야?(야?)

105024 #1 야오.(‘야오’.)

105024 @ 야오.(‘야오’.)

105024 #1 야오엔 허는 거는 배가 세 개 그 돛 들지 아니허냐?(‘야오’라고 하는 거는 배가 세 개 그 돛 달지 아니하냐?)

105024 @ 예.(예.)

105024 #1 평소에 멀리 멀리 돌아댱기는 거는 세 개 돌아.(평소에 멀리 멀리 돌아다니는 거는 세 개 달아.)

105024 @ 예.(예.)

105024 #1 게 아니면 돛을 하나 두 개 드는데.(그게 아니면 돛을 하나 두 개 다는데.)

105024 @ 예.(예.)

105024 #1 야오만 달라라 허면은 야오만 하나만 들거든.(‘야오’만 달라라 하면 ‘야오’만 하나만 들거든.)

105024 @ 아, 그걸 야오라고 헤마씨?(아, 그걸 ‘야오’라고 해요?)

105024 #1 어, 야오라고 헤.(어, ‘야오’라고 해.)

105024 @ 아, 그건 처음 들어봤수다.(아, 그건 처음 들어봅니다.)

6. 의생활

옷감

106001 @ 어르신, 그럼 옷감 종류도 물어보면 알지예? 명주실이나 그런 거.(어르신, 그럼 옷감 종류도 물어보면 알지요? 명주실이나 그런 거.)

106001 #1 멩주실 알주게.(명주실 알지.)

106001 @ 옷감 종류는 뭐, 뭐 잇어마씨?(옷감 종류는 뭐, 뭐 잇어요?)

106001 #1 여기 촌에서 농촌에서 만드는 거 뽑아내는 거.(여기 촌에서 농촌에서 만드는 거 뽑아내는 거.)

106001 @ 예.(예.)

106001 #1 뽑아내는 거 멘네로 해서.(뽑아내는 거 목화로 해서.)

106001 @ 예.(예.)

106001 #1 그건 미녕이다.(그건 무명이다.)

106001 @ 미녕.(무명.)

106001 #1 어. 우리 커 올 때는. 그걸 이제 멘드는 거도 곶아쥐?(어. 우리 커 올 때는. 그걸 이제 만드는 것도 말해줘?)

106001 @ 아니 그 종류만 우선 얘기해 줘서. 종류 뭐, 뭐 잇어마씨?(아니 그 종류만 우선 얘기해 주십시오. 종류 뭐, 뭐 잇어요?)

106001 #1 종류만?(종류만?)

106001 @ 예.(예.)

106001 #1 미녕.(무명.)

106001 @ 예.(예.)

106001 #1 또 멩주는 누에.(또 명주는 누에.)

106001 @ 예.(예.)

106001 #1 누에 뽑아내는 거 멩주고.(누에 뽑아내는 거 명주고.)

106001 @ 예.(예.)

106001 #1 거 두 가지밖에 잇어.(거 두 가지밖에 없어.)

106001 @ 아, 여기 거 두 가지밖에 안 헨마씨?(아, 여기 거 두 가지밖에 안 했어요?)

106001 #1 어.(어.)

106001 @ 그럼 모시나 삼은 여기서 안 헨마씨?(그럼 모시나 삼은 여기서 안 했어요?)

106001 #1 어?(어?)

106001 @ 모시, 모시나 삼.(모시, 모시나 삼.)

106001 #1 아, 모시 삼은 잇어.(아, 모시 삼은 잇어.)

106001 @ 아, 그것도 하션마씨?(아, 그것도 하셨어요?)

106001 #1 그것 그것도 옛날 모시 모시 적삼이라고 잇어났주만은 그거는 우리 잇는 적에는 아주 옛날로 나와 부니깐.(그것 그것도 옛날 모시 모시 적삼이라고 잇었지만 그거는 우리 잇는 적에는 아주 옛날로 나와 버리니까.)

106001 @ 예.(예.)

106001 #1 그거 하는 데가 따로 잇이니까 여기서는 못허주게.(그거 하는 데가 따로 있으니까 여기서는 못하지.)

명주

106002 @ 아, 그거 이제 좀 물어볼게예. 명주 잇잖아예? 명주실.(아, 그거 이제 좀 물어볼게요. 명주 잇잖아요? 명주실.)

106002 #1 어.(어.)

106002 @ 그거는 어떻 만들어마씨?(그거는 어떻게 만들어요?)

106002 #1 누에 잇지 누에.(누에 잇지 누에.)

106002 @ 예.(예.)

106002 #1 누에고치 잇지.(누에고치 잇지.)

106002 @ 예.(예.)

106002 #1 누에고치를 뜨신 물에 막 저 커서⁸⁵.(누에고치를 따뜻한 물에 막 저 답가 두어서.)

106002 @ 누에고치는 누에고치라고 험마씨? 여기서?(누에고치는 누에고치라고 해요? 여기서?)

106002 #1 어. 보통 누에고치라고 현다. 여기서는.(어. 보통 누에고치라고 한다. 여기서는.)

106002 @ 아, 예.(아, 예.)

106002 #1 그것에 허면은. 거기 저 솜 닳은 게 붙어 잇는 것이 잇어. 솜 닳은 게 여러 개. 그 저 누에 누에 누에에 거.(그것에 하면. 거기 저 솜 닳은 게 붙어 잇는 것이 잇어. 솜 닳은 게 여러 개.)

106002 @ 예.(예.)

106002 #1 누에에 거.(누에에 거.)

106002 @ 예.(예.)

85) ‘크다’는 ‘무엇을 물 속에 답가 두다’의 의미를 지닌 제주어이다.

106002 #1 다 하나씩 씨를 뽑으면서 같이 손을 잡아.(다 하나씩 씨를 뽑으면서 같이 손을 잡아.)

106002 @ 예.(예.)

106002 #1 손을 잡으면 그걸 딱 붙으면 이제 물레엔 현 것이 있어. 물레(손을 잡으면 그걸 딱 붙으면 이제 물레라고 한 것이 있어. 물레.)

106002 @ 예.(예.)

106002 #1 이렇게 돌리는 게이.(이렇게 돌리는 게.)

106002 @ 예.(예.)

106002 #1 알지?(알지?)

106002 @ 예. 알주마씨.(예. 알지요.)

106002 #1 그것에 또 가래기⁸⁶엔 현 것이 있어.(그것에 또 가락이라 한 것이 있어.)

106002 @ 가래기?(가락?)

106002 #1 어. 가래기 그 물레에 그 허면 지금 곁으면 뭘로 알아야 허면 그 저 이런 뭐 있잖아. 공장에 가면 방에질 허는 디.(어. 가락 그 물레에 그 허면 지금 곁으면 뭘로 알아야 하면 그 저 이런 뭐 있잖아. 공장에 가면 방아질 하는 데.)

106002 @ 예.(예.)

106002 #1 이렇게 가래기허고 물레허고 영 끼와. 이렇게 노로 만들어 가지고 끼와 가지고 이거 돌리면서 이거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 손으로 그 실을 잡아.(이렇게 가락하고 물레하고 이렇게 끼워. 이렇게 노로 만들어 가지고 끼워 가지고 이거 돌리면서 이거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 손으로 그 실을 잡아.)

106002 @ 예.(예.)

106002 #1 잡으면 그 누에 실 다 나올 때까지 같이 붙어서 나와. 그걸로 헤가지고 이젠 또 재료로 헤여근엥 멩주 헤여근엥 짜야 돼여.(잡으면 그 누에 실 다 나올 때까지 같이 붙어서 나와. 그걸로 헤가지고 이젠 또 재료로 해서 멩주 해서 짜야 돼.)

106002 @ 짜야 뉘마씨?(짜야 되요?)

106002 #1 어.(어.)

106002 @ 어떻 짜야 뉘마씨?(어떻게 짜야 되요?)

106002 #1 이 미녕 짜듯이.(이 무명 짜듯이.)

106002 @ 아. 미녕 짜듯이.(아. 무명 짜듯이.)

106002 #1 이딴서 이딴서는 옛날에 그렇게 해놔주게.(여기서 여기서는 옛날에 그렇게 했었지.)

106003 @ 그럼 그거 종류에는 뭐, 뭐 있어마씨?(그럼 그거 종류에는 뭐, 뭐 있어요?)

106003 #1 멩주의 종류는 엇어.(멩주의 종류는 없어.)

86) ‘가래기’는 물레로 실을 자을 때 실이 감기는 쇠꼬챙이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가락기.

106003 @ 생명주, 수아 수아주 그런 거는 안 들어봤수광?(생명주, 수아 수아주 그런 거는 안 들어보셨습니까?)

106003 #1 뭐 생명주니 뭐니 그런 거 보통 엇고.(뭐 생명주니 뭐니 그런 거 보통 없고.)

106003 @ 아.(아.)

106003 #1 그자 멩주 하나.(그저 명주 하나.)

106004 @ 아, 명주 하나. 그럼 그 명주 이렇게 딱 뽑으면 그걸로 무슨 옷 만들어마씨?(아, 명주 하나. 그럼 그 명주 이렇게 딱 뽑으면 그걸로 무슨 옷 만들어요?)

106004 #1 멩 멩주 옷으로는 제식 옷.(명 명주 옷으로는 제식 옷.)

106004 @ 예.(예.)

106004 #1 옛날은.(옛날은.)

106004 @ 예.(예.)

106004 #1 그 명절 한복으로 허여근엥 전부 죽을 때 입혀가지고 관 속에 놓는 거주게.(그 명절 한복으로 해서 전부 죽을 때 입혀가지고 관 속에 놓는 거지.)

106004 @ 음.(음.)

106004 #1 경 해서 그걸 제식 옷을 지금도 만들어.(그렇게 해서 그걸 제식 옷을 지금도 만들어.)

106004 @ 아, 제식 옷.(아, 제식 옷.)

106004 #1 어.(어.)

106005 @ 그럼 무명 무명실 잇잖아예?(그럼 무명 무명실 잇잖아요?)

106005 #1 무명실?(무명실?)

106005 @ 예.(예.)

106005 #1 그건 잘 모르켜.(그건 잘 모르겠다.)

106006 @ 그럼 누에치기 좀 아시는 거 잇수광?(그럼 누에치기 좀 아시는 거 잇습니까?)

106006 #1 누에?(누에?)

106006 @ 예. 누에치기. 그 누에는 어디서 생겨마씨?(예. 누에치기. 그 누에는 어디서 생기나요?)

106006 #1 누에는 저기.(누에는 저기.)

106006 @ 예.(예.)

106006 #1 누에는 그거 그 종자가 나오는 디가 잇어.(누에는 그거 그 종자가 나오는 데가 잇어.)

106006 @ 아.(아.)

106006 #1 옛날도.(옛날도.)

106006 @ 예.(예.)

106006 #1 종자 이 각각이 종자를 못 만들어. 가서 사와야 돼.(종자 이 각각이 종자를 못 만들어. 가서 사와야 돼.)

106006 @ 예.(예.)

106006 #1 뽕나무 잇지?(뽕나무 잇지?)

106006 @ 예.(예.)

106006 #1 뽕나무 초담은 누에 길르려면. 뽕나무 즘질게 썰어서 줘.(뽕나무 처음은 누에 기르려면. 뽕나무 잘고 가늘게 썰어서 줘.)

106006 @ 예.(예.)

106006 #1 썰어서 누에가 요만큼 크게 돼면 뽕나무 이파리를 그냥 줘. 그냥 줘서 그거 먹으면서 크거든.(썰어서 누에가 요만큼 크게 되면 뽕나무 이파리를 그냥 줘. 그냥 줘서 그거 먹으면서 크거든.)

106006 @ 예.(예.)

106006 #1 자기네가 막 크면 집 지서서 들어가.(자기네가 막 크면 집 지어서 들어가.)

106006 @ 예.(예.)

106006 #1 들어가면 누에가 되는 거주게.(들어가면 누에가 되는 거지.)

106006 @ 아, 별로 힘은. 종자만 사왕 허면은.(아, 별로 힘은. 종자만 사와서 하면.)

106006 #1 어. 그게 음식을 먹으면서 우에 얼러져 잇는 게. 눈에 보일 듯 말 듯 허는 명주실이 다 얽혀져 있어.(어. 그게 음식을 먹으면서 위에 눈에 어른거리게 잇는 게. 눈에 보일 듯 말 듯 하는 명주실이 다 얽혀져 있어.)

무명

106007 @ 그럼 어르신 그 무명, 무명 잇잖아예?(그럼 어르신 그 무명, 무명 잇잖아요?)

106007 #1 어.(어.)

106007 @ 무명 종류는 뭐, 뭐 잇어마씨? 혹시 기억나는 거 잇수광?(무명 종류는 뭐, 뭐 잇어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잇습니까?)

106007 #1 무명?(무명?)

106007 @ 예.(예.)

106007 #1 무명이엔 허는 거는 뭐 또. 미녕이지 미녕.(무명이라 하는 거는 뭐 또. 무명이지 무명.)

106007 @ 예. 미녕마씨.(예. 무명이요.)

106007 #1 미녕은 솜.(무명은 솜.)

106007 @ 예.(예.)

106007 #1 저 멘네 잇잖아이 멘네. 멘네 몰라?(저 목화 잇잖아 목화. 목화 몰라?)

106007 @ 예. 그게 뉘팡?(예. 그게 무엇입니까?)

106007 #1 멘네가이.(목화가.)

106007 @ 예.(예.)
 106007 #1 여기서도 가을이면은.(여기서도 가을이면.)
 106007 @ 예.(예.)
 106007 #1 요만큼 크면 꽃이 피어.(요만큼 크면 꽃이 피어.)
 106007 @ 예.(예.)
 106007 #1 꽃이 피면 드레라는 게 일러. 드레가 그 꽃이 지면 열매가 잇거든.
 (꽃이 피면 다레라는 게 퍼. 다레가 그 꽃이 지면 열매가 잇거든.)
 106007 @ 예.(예.)
 106007 #1 열매가 막 익으면 이렇게 이렇게 벌러지면서.(열매가 막 익으면 이렇게
 게 이렇게 벌러지면서.)
 106007 @ 예.(예.)
 106007 #1 저 숨 숨 씨허고 숨허고 섞어정 나와. 커. 이제 막 크면은 사람 손으
 로 그걸 따. 따면은 그걸 툭툭 뿌리면서 따면 그 그걸 보고 멘네라고 허거든. 또 멘
 네. 숨 나는 걸 보고 멘네라 허면. 또 그걸 기계로 블라.(저 숨 숨 씨하고 숨하고
 섞어져서 나와. 커. 이제 막 크면 사람 손으로 그걸 따. 따면 그걸 툭툭 뿌리면서
 따면 그 그걸 보고 목화라고 허거든. 또 목화. 숨 나는 걸 보고 목화라 하면. 또 그
 걸 기계로 밟아.)
 106007 @ 무슨 기계마씨?(무슨 기계요?)
 106007 #1 거 멘네 요만큼 낱 헤근엔 뭐 만들어 놓고 이렇게 허면 손으로 영
 허민 이쪽 손은 맥이고.(거 목화 요만큼 놔서 해가지고 뭐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손으로 이렇게 하면 이쪽 손은 먹이고.)
 106007 @ 예.(예.)
 106007 #1 요만큼 맥이민 이쪽 손 돌려가며 숨은 숨대로 가고 씨는 씨대로 떨
 어지거든.(요만큼 먹으면 이쪽 손 돌려가며 숨은 숨대로 가고 씨는 씨대로 떨어지거
 든.)
 106007 @ 예.(예.)
 106007 #1 게면 그걸 이제 또 물러와.(그러면 그걸 이제 또 말려.)
 106007 @ 예.(예.)
 106007 #1 물러가지고 그 멘네 그 테우는 디가 있어.(말려가지고 그 목화 그 타
 는 데가 있어.)
 106007 @ 테우는 데가 있어마씨?(타는 데가 있어요?)
 106007 #1 응. 그거 멘네를 담아가지고 이제 테우면은 숨이 나와. 숨이 나오면
 이제 거기서 뭘 하냐면 정⁸⁷⁾이야 정 정.(응. 그거 목화를 담아가지고 이제 타면 숨
 이 나와. 숨이 나오면 이제 거기서 뭘 하냐면 ‘정’이야 ‘정’ ‘정’.)
 106007 @ 정?(‘정’?)
 106007 #1 썰 빵는 거 만들어이.(실 빵는 거 만들어.)

87) ‘정’은 숨을 가늘게 말아서 두 뺨 가량의 길이로 끊어 낸 물건을 말하는 제주어이다. = 멘넷정

106007 @ 예.(예.)

106007 #1 이젠 그걸 만들어. 만들어 가지고 이제 또 물레 와근앵. 물 그 또 테우는 게 있어. 가래기 가래기허고 저 뭔가 물레 놔가지고 가래기에 놔가지고 그것에 썰 해가지고 썰 만들엉 가래기 툯 해가지고 이걸 둘렁 이걸 잡아 댕겨 가면 이렇게 빵으면.(이제는 그걸 만들어. 만들어 가지고 이제 또 물레 와서. 물 그 또 타는 게 있어. 가락 가락하고 저 뭔가 물레 놔가지고 가락에 놔가지고 그것에 실 해가지고 실 만들어서 가락 툯 해가지고 이걸 둘러서 이걸 잡아 당겨 가면 이렇게 빵으면.)

106007 @ 나와마씨?(나와요?)

106007 #1 응.(응.)

106007 @ 아.(아.)

106007 #1 나오면 또 이렇게 혜근앵 그것에 감아진다 말이여. 한참 감아지면 그게 썰이 된다 말이여. 그거 모아놓은 게 이제 미녕으로 짝에 들어간다 말이여.(나오면 또 이렇게 해서 그것에 감아진다 말이야. 한참 감아지면 그게 실이 된다 말이야. 그거 모아놓은 게 이제 무명으로 짝에 들어간다 말이야.)

106007 @ 아, 그럼 미녕 종류는 뭐 있어마씨?(아, 그럼 무명 종류는 뭐 있어요?)

106007 #1 종류 미녕 하나. 예전에도 그게 그거야.(종류 무명 하나. 예전에도 그게 그거야.)

106007 @ 어르신. 토목, 생목, 광목 이런 거?(어르신. 토목, 생목, 광목 이런 거?)

106007 #1 그런 거 엇어.(그런 거 없어.)

106007 @ 광목 같은 건 안 들어보셨마씨?(광목 같은 건 안 들어보셨어요?)

106007 #1 아, 광목이엔 현 거는 다른 거고. 이디서는 광목 안 했어.(아, 광목이라 한 거는 다른 거고. 여기서는 광목 안 했어.)

106007 @ 아, 광목 안 헨마씨?(아, 광목 안 했어요?)

106008 @ 그럼 미녕으로 어떤 옷 만들어마씨?(그럼 무명으로 어떤 옷 만들어요?)

106008 #1 미녕으로 못 만드는 옷은 엇어. 다 멘들주게. 이런 저 옛날 중의라고 허거든. 중의도 멘들고 적삼도 멘들고 저고리는 저고리이엔 허는 것도 멘들주게.(무명으로 못 만드는 옷은 없어. 다 만들지. 이런 저 옛날 중의라고 하거든. 중의도 멘들고 적삼도 만들고 저고리는 저고리라고 하는 것도 만들지.)

106009 @ 땅에 잇는 흙이랑 나무인 토목으로는 뭐 만들어마씨?(땅에 잇는 흙이랑 나무인 토목으로는 뭐 만들어요?)

106009 #1 토목이엔 현 거야 뭐 흙이나 나무나 멘드는 거야 뭐 마찬가지주게.(토목이라 한 거야 뭐 흙이나 나무나 만드는 거야 뭐 마찬가지이지.)

106009 @ 옛날에 집 만들 때는 어떻 만들언마씨?(옛날에 집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106009 #1 옛날에 집 멘들 때는 여기는 돌담이 많으니까 바닷가에 가가지고 돌담을 깨서 동네 사람 빌어서 그걸 저어 내어서 이젠 여기까지 등짐으로 짐으로 이꺼지 가지고 와.(옛날에 집 만들 때는 여기는 돌담이 많으니까 바닷가에 가가지고 돌담을 깨서 동네 사람 빌어서 그걸 저어 내어서 이젠 여기까지 등짐으로 짐으로 여기까지 가지고 와.)

106009 @ 예.(예.)

106009 #1 가지고 와서 돌을 이젠 이추록 박거든. 게면 흙으로 발라서 돌담을 고정시킨단 말이여. 게서 나무를 위에 걸쳐서 이젠 새나 뭐나 더끄면서 집을 멘들 옛주게.(가지고 와서 돌을 이제 이처럼 박거든. 그러면 흙으로 발라서 돌담을 고정시킨다 말이야. 그래서 나무를 위에 걸쳐서 이젠 새나 뭐나 덮으면서 집을 만들었지.)

106010 @ 그럼 그 광목은 뭐마씨?(그럼 그 광목은 뭐예요?)

106010 #1 광목이엔 현 거야 아주 넓지. 그건.(광목이라고 한 거야 아주 넓지. 그건.)

106010 @ 그럼 그 광목으로 뭐 만들어마씨?(그럼 그 광목으로 뭐 만들어요?)

106010 #1 광목도 미녕이랑 마찬가지로. 아무거나 만드니까. 광목으로도 옷 멘들고.(광목도 무명이랑 마찬가지로. 아무거나 만드니까. 광목으로도 옷 만들고.)

106010 @ 그럼 광목이랑 미녕이랑 뭐가 달라마씨?(그럼 광목이랑 무명이랑 뭐가 다르나요?)

106010 #1 광목은 조금 순하고 연하고 가늘고. 미녕이엔 현 거는 굵고 옷이 좀 거칠어. 옷은 미녕으로 만든 옷도 광목으로 멘들 수 있고 광목으로 멘든 옷도 미녕으로 만들 수 있어.(광목은 조금 순하고 연하고 가늘고. 무명이라고 한 거는 굵고 옷이 좀 거칠어. 옷은 무명으로 만든 옷도 광목으로 만들 수 있고 광목으로 만든 옷도 무명으로 만들 수 있어.)

106011 @ 흥세미녕⁸⁸ 알아지쿠과?(‘흥세미녕’ 아시나요?)

106011 #1 그런 건 잘 모르켜. 함이엔 현 게 종이에 씌어가지고 뭐 했지.(그런 건 잘 모르겠다. 함이라고 한 게 종이에 씌어가지고 뭐 했지.)

106011 @ 그럼 옛날에 함 같은 거는 어떻 준비하고 뭐 들어가마씨?(그럼 옛날에 함 같은 거는 어떻게 준비하고 뭐 들어갔나요?)

106011 #1 옛날에 요만한 함에 가져갈 때 초담 저 그 속에 돈 넣고. 돈 한 그 때야 돈 만원이면 컷주게. 한 돈 몇 천원이나 놔가지고 이제 그것에 싸가지고 글 써가지고 신랑 나이 신부 나이 좋은 날 택해서 간다고 했주게.(옛날에 요만한 함에 가져갈 때 처음 저 그 속에 돈 넣고. 돈 한 그 때야 돈 만원이면 컷지. 한 돈 몇 천원이나 놔가지고 이제 그것에 싸가지고 글 써가지고 신랑 나이 신부 나이 좋은 날

88) ‘흥세미녕’은 혼례를 치르는 날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지고 가는 혼서함 속에 넣는 무명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택해서 간다고 했지.)

106011 @ 삼촌도 함 받았지예? 받았을 때 얘기해 줘서.(삼촌도 함 받았지요? 받았을 때 얘기해 주십시오.)

106011 #1 그거 마찬가지로. 함 받으민 여기서 남자가 남자 집에서 함 써가지고 신부 집에 갈 적에는 거기서 받아서 이젠 여자 집에서 어떻게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글자를 잘 씻는가 안 씻는가 그거 조사해근영 좋으면 좋다 그걸로 끝나는 거주게.(그거 마찬가지로. 함 받으면 여기서 남자가 남자 집에서 함 써가지고 신부 집에 갈 적에는 거기서 받아서 이젠 여자 집에서 어떻게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글자를 잘 씻는가 안 씻는가 그거 조사해서 좋으면 좋다 그걸로 끝나는 거주게.)

106012 @ 그럼 목화, 미녕 농사도 여기서 헨마씨?(그럼 목화, 무명 농사도 여기서 했어요?)

106012 #1 어?(어?)

106012 @ 미녕 농사.(무명 농사.)

106012 #1 미녕 농사가 그거거든. 멘네엔 헨 게.(무명 농사가 그거거든. 목화라고 한 게.)

106012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6012 #1 어.(어.)

106012 @ 그건 어떻 헨마씨?(그건 어떻게 해요?)

106012 #1 그거?(그거?)

106012 @ 예.(예.)

106012 #1 저 밧 갈거든.(저 밧 갈거든.)

106012 @ 예.(예.)

106012 #1 밧 갈면 그 멘네 그 씨를 거기다가 뿌려줘.(밧 갈면 그 목화 그 씨를 거기다가 뿌려줘.)

106012 @ 예.(예.)

106012 #1 뿌려주는디 뿌려가지고 사람 밧로 더꺼줘. 그걸.(뿌려주는데 뿌려가지고 사람 밧로 덮어줘. 그걸.)

106012 @ 예.(예.)

106012 #1 그게 크민 이제 종자를 영 간격 두면서 빵아버리거든.(그게 크민 이제 종자를 이렇게 간격 두면서 빵아바리거든.)

106012 @ 예.(예.)

106012 #1 빵으민 그걸 이만큼 크면 거기서 꽃 피가지고 열매가 맺으면 돼면은 또 씨를 뽑아가지고 아까 얘기했주만은 그 미녕 그 초담에는 그거라.(빵으민 그걸 이만큼 크면 거기서 꽃 피가지고 열매가 맺으면 되면 또 씨를 뽑아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무명 그 처음에는 그거라.)

모시

106013 @ 삼촌, 그 모시 모시도 좀 아서마씨?(삼촌, 그 모시 모시도 좀 아시나요?)

106013 #1 모시?(모시?)

106013 @ 예.(예.)

106013 #1 모시는 여기는 모시 안 했어.(모시는 여기는 모시 안 했어.)

106013 @ 근데 그래도 좀 뭐 만드는 거는 기억나는 거는?(근데 그래도 좀 뭐 만드는 거는 기억나는 거는?)

106013 #1 벨로 었어.(별로 없어.)

삼

106016 @ 그럼 삼실 같은 거 여기서 안 만들어마씨?(그럼 삼실 같은 거 여기서 안 만들어요?)

106016 #1 그거 그거야 광목으로 광목 사서 만드는 거지.(그거 그거야 광목으로 광목 사서 만드는 거지.)

106016 @ 광목 사서? 어떻 만들어마씨?(광목 사서? 어떻게 만들어요?)

106016 #1 어떻 만드냐면 몸에 맞춰 가지고 이넉냥으로 만드는 거지.(어떻게 만드냐면 몸에 맞춰 가지고 이넉대로 만드는 거지.)

106016 @ 아.(아.)

106016 #1 손으로도 만들고 옛날은 대부분 손으로 만들었거든.(손으로도 만들고 옛날은 대부분 손으로 만들었거든.)

106016 @ 손으로마씨?(손으로요?)

106016 #1 어.(어.)

106017 @ 그럼 예전에 베로는 어떤 옷 만들었마씨?(그럼 예전에 베로는 어떤 옷 만들었어요?)

106017 #1 베라고 허는 거는 고망이 송송 나니까. 이 여름옷들 남자들 옷들 위에 것들 해 입고 또 사람 죽으면 입을 옷도 만들고. 사람 일곱 명이 묶어주고. 사람 죽으면 묶는 게 일곱 명이 묶어야 바른 말 현다는 말이 그 말이주게. 사람은 죽으면 일곱 명이 묶어.(베라고 하는 거는 구멍이 송송 나니까. 이 여름옷들 남자들 옷들 위에 것들 해 입고 또 사람 죽으면 입을 옷도 만들고. 사람 일곱 명이 묶어주고. 사람 죽으면 묶는 게 일곱 명이 묶어야 바른 말 한다는 말이 그 말이지. 사람은 죽으면 일곱 명이 묶어.)

106018 @ 삼 제배는 하신마씨?(삼 제배는 하셨어요?)

106018 #1 여기선 삼도 제배 안 했어.(여기서는 삼도 제배 안 했어.)

도구

106019 @ 어르신 그 뭐냐 씨아 알아마씨? 씨아?(어르신 그 뭐냐 씨아 알아요? 씨아?)

106019 #1 씨?(씨?)

106019 @ 씨아. 옷 만들 때 쓰는 거마씨.(씨아. 옷 만들 때 쓰는 거요.)

106019 #1 씨아가 뭐라. 그건 모르켜.(씨아가 뭐라. 그건 모르겠다.)

106019 @ 그럼 멘네 뽑는 기계를 뭐라 헤마씨?(그럼 목화 뽑는 기계를 뭐라 해요?)

106019 #1 그거를 뭐라 허는다. 기억이 안남저.(그거를 뭐라 하는데. 기억이 안난다.)

106019 @ 그럼 멘네 뽑는 거에 대해 곶아 줘서.(그럼 목화 뽑는 거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106019 #1 허는 방법은 멘네를 갈아서 멘네를 꽃을 피워.(하는 방법은 목화를 갈아서 목화를 꽃을 피워.)

106019 @ 예.(예.)

106019 #1 또 열매가 열면 그게 뭔가 익어 가면은 숨이 나올 거 아니냐.(또 열매가 열면 그게 뭔가 익어 가면 숨이 나올 거 아니냐.)

106019 @ 예.(예.)

106019 #1 허영헌 숨이 나오면은 사람 손으로 그것을 걷어오거든. 걷어오민 걸어서 파씩⁸⁹⁾ 마르면은 이렇게 그 두르는 기계가 있어.(하얀 숨이 나오면 사람 손으로 그것을 걷어오거든. 걷어오면 걸어서 ‘파씩’ 마르면 이렇게 그 두르는 기계가 있어.)

106019 @ 예.(예.)

106019 #1 이름을 아는데 잊어버려서 하도 오래돼부난. 이거 들르면은 씨는 씨대로 떨어지고 또 이 숨은 숨대로 나거든.(이름을 아는데 잊어버려서 하도 오래되 버리니까. 이거 두르면 씨는 씨대로 떨어지고 또 이 숨은 숨대로 나거든.)

106019 @ 예.(예.)

106019 #1 게면 이제 그걸 몰려. 숨을 이제 바싹하게 몰르면 그게 테우는 멘네 테우는 디가 있어.(그러면 이제 그걸 말려. 숨을 이제 바싹하게 마르면 그게 타는 목화 타는 데가 있어.)

106019 @ 어디 있어마씨?(어디 있어요?)

106019 #1 이제 어디 고산이면 한 군데나 두 군데밖에 엇인 디라. 거기 가서 이제 테워 와.(이제 어디 ‘고산’이면 한 군데나 두 군데밖에 없는 데라. 거기 가서 이제 타서 와.)

106019 @ 예.(예.)

106019 #1 테와서 미녕 할 사람은 거기에 정이란 게 있어. 또 이불 할 사람은 크게 거기서 만드는 사람도 있고.(타서 무명 할 사람은 거기에 ‘정’이란 게 있어. 또 이불 할 사람은 크게 거기서 만드는 사람도 있고.)

106019 @ 예.(예.)

89) ‘파씩’은 ‘더할 나위 없음’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06019 #1 이런 게 멘네. 숨이주게.(이런 게 목화. 숨이지.)

106020 @ 그럼 물레는 알지예?(그럼 물레는 알지요?)

106020 #1 어.(어.)

106020 @ 그럼 물레에 대해서 좀 글아 줘서.(그럼 물레에 대해서 좀 말해 주십시오.)

106020 #1 물레?(물레?)

106020 @ 예.(예.)

106020 #1 미녕쌀 뽑는 것이 물레주게.(무명실 뽑는 것이 물레이지.)

106020 @ 예. 무슨, 무슨 실. 실 다 뽑아마씨?(예. 무슨, 무슨 실. 실 다 뽑아요?)

106020 #1 거기서 미녕 싸는 미녕 허는 거는 거기서 다 뽑아.(거기서 무명 켜는 무명 하는 거는 거기서 다 뽑아.)

106020 @ 아, 미녕 허는 거는?(아, 무명 하는 거는?)

106020 #1 어.(어.)

106021 @ 아, 그럼 베틀 잇잖아예?(아, 그럼 베틀 잇잖아요?)

106021 #1 베틀.(베틀.)

106021 @ 예.(예.)

106021 #1 미녕 짜는 베틀.(무명 짜는 베틀.)

106021 @ 베틀은 여기서도 그 베틀 이용헤마씨?(베틀은 여기서도 그 베틀 이용해요?)

106021 #1 어. 여기서도 베틀 이용허여.(어. 여기서도 베틀 이용해.)

106021 @ 그럼 베틀 좀 얘기해 주실 수 잇어마씨.(그럼 베틀 좀 얘기해 주실 수 잇어요?)

106021 #1 베틀?(베틀?)

106021 @ 예.(예.)

106021 #1 얘기허나마나 그거야 뭐.(얘기하나마나 그거야 뭐.)

106021 @ 물레 현 다음에 베틀로 가는 거짱?(물레 한 다음에 베틀로 가는 겁니까?)

106021 #1 그렇지.(그렇지.)

106021 @ 아.(아.)

106021 #1 물레로 물레 헤난 다음에.(물레로 물레 한 다음에.)

106021 @ 예.(예.)

106021 #1 꼬리엔 현 것이 잇어.(꼬리라고 한 것이 잇어.)

106021 @ 꼬리?(꼬리?)

106021 #1 어.(어.)

106021 @ 거 뭐짱?(거 뭐예요?)

106021 #1 꼬리라는 게 이렇게 감는다 말이여.(꼬리라는 게 이렇게 감는다 말이

야.)

106021 @ 예.(예.)

106021 #1 감으면 이만큼 허면은. 저 가운데 고양이 잇어.(감으면 이만큼 하면. 저 가운데 구멍이 잇어.)

106021 @ 예.(예.)

106021 #1 이렇게 거 알아져?(이렇게 거 알지?)

106021 @ 예. 알아져마씨.(예. 알지요.)

106021 #1 고양이로 헤근엥 실 하나 뽐아내 가지고.(구멍으로 해서 실 하나 뽐아내 가지고.)

106021 @ 예.(예.)

106021 #1 뭐냐면은 이 널어. 질게 해가지고 풀 맥이면서이.(뭐냐면 이 널어. 길게 해가지고 풀 먹이면서.)

106021 @ 예.(예.)

106021 #1 ㄴ시락풀⁹⁰ 밑에 깔아놔근엥 물리면서 이제 풀 맥이면서 콕콕 이제 작은 솔로 이렇게 굵으멍.(원추리 밑에 깔아놔서 말리면서 이제 풀 먹으면서 콕콕 이제 작은 솔로 이렇게 굵으면서.)

106021 @ ㄴ시락풀마씨?(원추리요?)

106021 #1 응. ㄴ시락풀. 거 쉰 거 허면은 타블주게.(응. 원추리. 거 쉰 거 하면 타버리지.)

106021 @ 아. 그게 뭐짱? 아, ㄴ시락풀.(아. 그게 뭐예요? 아, 원추리.)

106021 #1 어. 보리 그 저 지금도 그거 불 피와가지고 이제 뽐아. 저 돌태⁹¹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놔가지고.(어. 보리 그 저 지금도 그거 풀 피워가지고 이제 뽐아. 저 ‘돌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놔가지고.)

106021 @ 돌태?(‘돌태’?)

106021 #1 이렇게 놔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물리면서 뽐아볼면 그것에 감아가멍.(이렇게 놔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말리면서 뽐아버리면 그것에 감아가면서.)

106021 @ 예.(예.)

106021 #1 감으면서 문딱 감아지면은 그걸 베틀에 올려.(감으면서 전부 감아지면 그걸 베틀에 올려.)

106021 @ 예.(예.)

106021 #1 베틀에 그 기계에 그거는 낭으로 이렇게 멘들어가지고 그 낭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멘들어가지고 이렇게 우이 그 놓는 디가 잇어. 베틀 놓는 디가.(베틀에 그 기계에 그거는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나무로 양쪽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위에 그 놓는 데가 잇어. 베틀 놓는 데가.)

106021 @ 예.(예.)

90) ‘ㄴ시락풀’은 표준어로 ‘원추리’로, 백합과의 여러해살이풀의 제주어이다.

91) ‘돌태’는 씨 뿌린 밭을 다지는 데 쓰는, 돌로 둥그렇게 만든 농기구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06021 #1 베틀 놓는 데가 있으면 그 베틀에 고냥 뚫어가지고 이렇게 된 나무가 있어.(베틀 놓는 데가 있으면 그 베틀에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된 나무가 있어.)

106021 @ 아.(아.)

106021 #1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제일 밑에는 꺾신 잇잖아.(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제일 밑에는 짚신 잇잖아.)

106021 @ 예.(예.)

106021 #1 꺾신 그 앞을 이제 그 노로 이 그 나무에 묶으고 꺾신 와서 묶는다 말이야. 게민 이제 받을 땡기면 이게 열린다는 말이야. 열어지면 그 쏘굽에 이제 그 꼬리.(짚신 그 앞을 이제 그 노로 이 그 나무에 묶고 짚신 와서 묶는다 말이야. 그러면 이제 받을 당기면 이게 열린다는 말이야. 열어지면 그 속에 이제 그 꼬리.)

106021 @ 예.(예.)

106021 #1 꼬리 담는 건 모르겠다. 잊어버렸다.(꼬리 담는 건 모르겠다. 잊어버렸다.)

106021 @ 아. 잊어버린마씨.(아. 잊어버렸어요.)

106021 #1 그걸 담아가지고 영 행 싹 집어 넣주게.(그걸 담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싹 넣지.)

106021 @ 예.(예.)

106021 #1 이제 찰각 찰각 하면서 미녕을 뽑는거주게.(이제 찰각 찰각 하면서 무명을 뽑는거지.)

106021 @ 삼촌도 헛수광?(삼촌도 했었습니까?)

106021 #1 어?(어?)

106021 @ 해 환마씨?(해 봤어요?)

106021 #1 아니, 남자는 그거 안 허여.(아니, 남자는 그거 안 해.)

106021 @ 그러면?(그러면?)

106021 #1 여자들이 허지.(여자들이 하지.)

106021 @ 삼촌은 그냥 다 아신다예?(삼촌은 그냥 다 아시는군요?)

106021 #1 어.(어.)

바느질

106022 @ 어르신 옛날에 바느질 잇잖아예? 바느질.(어르신 옛날에 바느질 잇잖아요? 바느질.)

106022 #1 바느질. 어.(바느질. 어.)

106022 @ 그 도구 잇잖아예. 그거 좀 얘기해 줘서.(그 도구 잇잖아요. 그거 좀 얘기해 주십시오.)

106022 #1 어?(어?)

106022 @ 뭐, 뭐 잇어마씨? 바느질 할 때 쓰는 거.(뭐, 뭐 있어요? 바느질 할 때 쓰는 거.)

106022 #1 바느질 할 때 쓰는 거?(바느질 할 때 쓰는 거?)

106022 @ 예. 바늘은 뭐라고 해마씨?(예. 바늘은 뭐라고 해요?)

106022 #1 바늘은 이제 그거 그거.(바늘은 이제 그거 그거.)

106022 @ 바느질 할 때 이만한 지갑에 다 잇잖아예.(바느질 할 때 이만한 지갑에 다 잇잖아요.)

106022 #1 어.(어.)

106022 @ 그런 것들 이름 좀 얘기해 줘서. 실도 잇고 바늘도 잇고. 다른 건 뭐 잇어마씨?(그런 것들 이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실도 잇고 바늘도 잇고. 다른 건 뭐 잇어요?)

106022 #1 거기야 뭐 벨로 다른 게 잇지. 실, 바늘, 또 뭐냐면 속돌.(거기야 뭐 벨로 다른 게 없지. 실, 바늘, 또 뭐냐면 속돌.)

106022 @ 속돌?(속돌?)

106022 #1 속돌은 그걸로 바늘 녹슬면은 ㄴ는 거주게.(속돌은 그걸로 바늘 녹슬면 가는 거지.)

106022 @ 아.(아.)

106022 #1 그거 말고 다른 거 잇어.(그거 말고 다른 거 없어.)

106022 @ 골무 같은 건 잇어마씨?(골무 같은 건 없었어요?)

106022 #1 아, 골메.(아, 골무.)

106022 @ 골메?(골무?)

106022 #1 골메는 바느질 하면서 손 그 그 두꺼운.(골무는 바느질 하면서 손 그 그 두꺼운.)

106022 @ 예.(예.)

106022 #1 옷이 두꺼우면 바늘이 들어가기가 힘들거든. 게면 골메가 쉼거든.(옷이 두꺼우면 바늘이 들어가기가 힘들거든. 그러면 골무가 쉼거든.)

106022 @ 아, 쉼마씨?(아, 쇠예요?)

106022 #1 쉼여. 그걸로 바늘귀를 썩 밀어줘. 밀어주면 그게 들어가니까 그게 골메야.(쇠야. 그걸로 바늘귀를 썩 밀어줘. 밀어주면 그게 들어가니까 그게 골무야.)

106023 @ 그럼 바느질 방법은 아는 거 잇어마씨?(그럼 바느질 방법은 아는 거 잇어요?)

106023 #1 바느질 방법이야 이렇게 이렇게 허는 거니까.(바느질 방법이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니까.)

106023 @ 예.(예.)

106023 #1 그게 그거주게.(그게 그거지.)

옷 종류

106024 @ 옛날에 옷 종류 좀 물어보려는데. 남자들은 옷 종류 뭐, 뭐 입었수
광?(옛날에 옷 종류 좀 물어보려는데. 남자들은 옷 종류 뭐, 뭐 있었습니까?)

106024 #1 옛날에?(옛날에?)

106024 @ 예.(예.)

106024 #1 중의.(중의.)

106024 @ 중의?(중의?)

106024 #1 아래 거는 중의적삼.(아래 거는 중의적삼.)

106024 @ 예.(예.)

106024 #1 보통 그거지 뭐.(보통 그거지 뭐.)

106025 @ 여자들은?(여자들은?)

106025 #1 여자도 옷은 곱아. 중의적삼이라고.(여자도 옷은 곱아. 중의적삼이라
고.)

106025 @ 예.(예.)

106025 #1 보통 남자나 여자나 대부분 미녕이 나오니까 미녕옷이주게. 광목도
나오지만 여기서 광목 안허니까 광목도 옷도 입기가 힘들었고. 여기 농촌에는 미
녕.(보통 남자나 여자나 대부분 무명이 나오니까 무명옷이지. 광목도 나오지만 여기
서 광목 안하니까 광목도 옷도 입기가 힘들었고. 여기 농촌에는 무명.)

106025 @ 미녕으로 만든 옷은 뭐라고 헤마씨?(무명으로 만든 옷은 뭐라고 헤
요?)

106025 #1 중의영 아까 얘기한 거 중의적삼 뭐 이런 거.(중의와 아까 얘기한 거
중의적삼 뭐 이런 거.)

106026 @ 아. 그럼 애들은마씨?(아. 그럼 애들은요?)

106026 #1 애들은 바지.(애들은 바지.)

106026 @ 그럼 위에는?(그럼 위에는?)

106026 #1 위에 거야 적삼입주게. 똑같아 그거는.(위에 거야 적삼입지. 똑같아
그거는.)

106026 @ 똑같아마씨? 그럼 옷 만들어 보신 적은 잇어마씨?(똑같아요? 그럼 옷
만들어 보신 적은 잇어요?)

106026 #1 아니. 옷 만드는 거나 그런 거는 여자가 허는 거주게.(아니. 옷 만드
는 거나 그런 거는 여자가 하는 거지.)

106028 @ 삼춘 보선은 알지예?(삼춘 버선은 알지요?)

106028 #1 그거 옛날에 겨울에 발 뜻이게 신주게.(그거 옛날에 겨울에 발 따뜻
하게 신지.)

106029 @ 그럼 옷에 있는 단추 종류는 뭐 잇어마씨?(그럼 옷에 있는 단추 종류
는 뭐 잇어요?)

106029 #1 종류?(종류?)

106029 @ 예.(예.)

106029 #1 단추야 한 가지지 뭐. 단추이엔 헌 거는 그냥 네 개 뚫라진 거니깐.
(단추야 한 가지지 뭐. 단추라고 한 거는 구멍 네 개 뚫어진 거니까.)

106029 @ 예.(예.)

106029 #1 그게 옷마다 옷에 색깔에 따라가지고.(그게 옷마다 옷에 색깔에 따라
가지고.)

106029 @ 예.(예.)

106029 #1 단추가 나오거든.(단추가 나오거든.)

106029 @ 예.(예.)

106029 #1 큰 건 큰대로 작은 거는 작은 거대로. 또 색깔은 흰 건 흰 거 또 검
은 건 검은 거 옷 옷에 따라가지고.(큰 건 큰대로 작은 거는 작은 거대로. 또 색깔
은 흰 건 흰 거 또 검은 건 검은 거 옷 옷에 따라가지고.)

106029 @ 예.(예.)

106029 #1 색깔에 따라 달았어.(색깔에 따라 달았어.)

재단과 염색

106030 @ 옷감 손질해 본 적 있어마씨?(옷감 손질해 본 적 있어요?)

106030 #1 미녕, 미녕. 제주도야 감는 것이 미녕 아니냐.(무명, 무명. 제주도야
감는 것이 무명 아니냐.)

106030 @ 그럼 예전에 미녕 손질은 어떻 헨마씨?(그럼 예전에 무명 손질은 어
떻게 했어요?)

106030 #1 미녕 손질이야게. 거 멘네로 허는 거주게.(무명 손질이야. 거 목화로
하는 거지.)

106031 @ 미녕옷에 색깔 집어넣는 거 알아마씨?(무명옷에 색깔 집어넣는 거 알
아요?)

106031 #1 감. 감 빵아근에 옷을 놔가지고 감 물들영 감 같이 낡 문대주게. 그
저 옷을 다 젖을 때까지.(감. 감 빵아서 옷을 놔가지고 감 물들여서 감 같이 놔서
문대지. 그저 옷을 다 젖을 때까지.)

106031 @ 예.(예.)

106031 #1 경 헤근엥 이제 물리면 빨강게 곱주게.(그렇게 해서 이제 말리면 빨
강게 곱지.)

신발

106032 @ 그 신발 잇잖아예?(그 신발 잇잖아요?)

106032 #1 어.(어.)

106032 @ 신. 신는 거.(신. 신는 거.)

106032 #1 어.(어.)

106032 @ 신 종류는 뭐 잇언마씨?(신 종류는 뭐 있었어요?)

106032 #1 옛날에?(옛날에?)

106032 @ 예.(예.)

106032 #1 조리.(조리.)

106032 @ 조리.(조리.)

106032 #1 찻신. 또 그 비올 때 신는 남박 남박신.(짚신. 또 그 비올 때 신는 나막 나막신.)

106032 @ 남박신. 가죽신은 엇엇수광? 가죽신?(나막신. 가죽신은 없었습니까? 가죽신?)

106032 #1 가죽신은 옛날에 엇엇어.(가죽신은 옛날에 없엇어.)

106032 @ 아, 엇언마씨?(아, 없엇어요?)

106032 #1 어. 단지 그거라. 게다.(어. 단지 그거라. ‘게다’.)

106032 @ 게다? 그게 뭐마씨?(‘게다’? 그게 뭐예요?)

106032 #1 왜놈들 신는 거 잇잖아.(왜놈들 신는 거 잇잖아.)

106032 @ 아, 게다. 그거 나막신이랑 달라마씨?(아, ‘게다’. 그거 나막신이랑 달라요?)

106032 #1 달라. 우리 나막신은 파서 만들고 파서 발 들어가게끔.(달라. 우리 나막신은 파서 만들고 파서 발 들어가게끔.)

106032 @ 예.(예.)

106032 #1 만들주게.(만들지.)

106032 @ 예.(예.)

106032 #1 겐디 게다 밑에는 요만씩 현 거 나무 두 개 나무가 뽕죽이 나왔어.(그런데 ‘게다’ 밑에는 요만씩 한 거 나무 두 개 나무가 뽕죽이 나왔어.)

106032 @ 아 그럼 아까 나막신이랑 왜놈들 신는 게 뭐라고 헨마씨?(아 그럼 아까 나막신이랑 왜놈들 신는 게 뭐라고 했어요?)

106032 #1 게다.(‘게다’.)

106032 @ 게다? 그거 차이 좀 얘기해 줘서.(‘게다’? 그거 차이 좀 얘기해 주십시오.)

106032 #1 게다는.(‘게다’는.)

106032 @ 예.(예.)

106032 #1 앞에다가 이제 게다는 이렇게 이렇게 행 만들면.(앞에다가 이제 ‘게다’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면.)

106032 @ 예.(예.)

106032 #1 것도 앞뒤에다가 요만씩 알로 앞의 고양이 하나.(것도 앞뒤에다가 요만씩 아래로 앞의 구멍 하나.)

106032 @ 예.(예.)

106032 #1 일루 고양이 두 개.(이리로 구멍 두 개.)

106032 @ 예.(예.)

106032 #1 두 개 뚫러가지고.(두 개 뚫어가지고.)

106032 @ 아, 세 개?(아, 세 개?)

106032 #1 어. 세 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행 발가락에 찢렁 신는 거주게.(어. 세 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발가락에 찢러서 신는 거지.)

106032 @ 그럼 나막신은?(그럼 나막신은?)

106032 #1 나막신은 그냥 신고.(나막신은 그냥 신고.)

106032 @ 나막신은 나막신은 그냥 두 개만 이렇게?(나막신은 나막신은 그냥 두 개만 이렇게?)

106032 #1 그건 그냥 잊어.(그건 구멍 없어.)

106032 @ 아, 그냥 잊어마씨?(아, 구멍 없어요?)

106032 #1 어. 위에 그냥 만들어졌으니깐. 보선 알아지지?(어. 위에 그냥 만들어졌으니깐. 버선 알지?)

106032 @ 보선?(버선?)

106032 #1 옛날에 그 겨울 때에는.(옛날에 그 겨울 때에는.)

106032 @ 예. 뭐 할 때마씨?(예. 뭐 할 때요?)

106032 #1 겨울 때 신는 거주게.(겨울 때 신는 거지.)

106033 @ 가죽신 만드는 과정 얘기해 줘서.(가죽신 만드는 과정 얘기해 주십시오.)

106033 #1 가죽신은 여기서 안 만들었어. 가죽신은 안 만들어보고.(가죽신은 여기서 안 만들었어. 가죽신은 안 만들어보고.)

106033 @ 가죽신 만드는 과정은 몰라마씨?(가죽신 만드는 과정은 몰라요?)

106033 #1 모르지 그건. 그건 툄 잡고 쉼 잡고 허는 그런 데서 나오는 거니깐.(모르지 그건. 그건 말 잡고 소 잡고 하는 그런 데서 나오는 거니깐.)

106034 @ 그럼 나막신 만드는 거 얘기해 주실 수 있어마씨?(그럼 나막신 만드는 거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106034 #1 나막신 만드는 거는 나무가 거 만드는 나무가 따로 있어.(나막신 만드는 거는 나무가 거 만드는 나무가 따로 있어.)

106034 @ 무슨 나무마씨?(무슨 나무요?)

106034 #1 그 나무 이름은 몰라. 근데 그걸 허면은 그걸 파서 만들어서 쏘는 사람이 있주게.(그 나무 이름은 몰라. 근데 그걸 하면 그걸 파서 만들어서 쏘는 사람이 있지.)

106034 @ 예.(예.)

106034 #1 그거 파.(그거 파.)

106034 @ 예.(예.)

106034 #1 기계로 손으로 거 옛날에는 다 손이니까. 이렇게 그 기계로 맞게끔 만들영 손으로 파놉.(기계로 손으로 거 옛날에는 다 손이니까. 이렇게 그 기계로 맞게끔 만들어서 손으로 파놉서.)

106034 @ 뭘로 파는지 모르지예?(뭘로 파는지 모르지요?)

106034 #1 쇠로 호미 닮은 쇠로 만들어서 그거로 도구를 만들어.(쇠로 낫 닮은 쇠로 만들어서 그거로 도구를 만들어.)

106034 @ 예.(예.)

106034 #1 쇠로.(쇠로.)

106034 @ 예.(예.)

106034 #1 그걸 파. 전부 이제 파가지고 밭 들어가게끔 파가지고 멘짱⁹²⁾ 다듬어가지고 곱게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거주게.(그걸 파. 전부 이제 파가지고 밭 들어가게끔 파가지고 ‘멘짱’ 다듬어가지고 곱게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거지.)

106035 @ 짚신은 어떻 만들어마씨?(짚신은 어떻게 만들어요?)

106035 #1 짚신?(짚신?)

106035 @ 예.(예.)

106035 #1 짚을 두드려.(짚을 두드려.)

106035 @ 짚을 두드려마씨?(짚을 두드려요?)

106035 #1 짚을 이제 그 겹테기를 빼불거든.(짚을 이제 그 겹테기를 빼버리거든.)

106035 @ 그 짚은 어디서 나는 거마씨?(그 짚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106035 #1 나룩에서.(벼에서.)

106035 @ 나룩에서?(벼에서?)

106035 #1 나룩짚이라고.(벧짚이라고.)

106035 @ 아, 나룩짚. 나룩에서 나와마씨?(아, 벧짚. 벼에서 나와요?)

106035 #1 어. 그걸 세워가지고 허면 요만씩 묶어. 묶엉 이젠 방망이로 저 마개로 두드려.(어. 그걸 세워가지고 하면 요만씩 묶어. 묶어서 이젠 방망이로 저 방망이로 두드려.)

106035 @ 마께?(방망이?)

106035 #1 어. 마께로 두드려가지고 그게 복삭⁹³⁾ 허면 그걸 그거 허고 뭔가 어욱 알아지지? 어욱?(어. 방망이로 두드려가지고 그게 ‘복삭⁹³⁾ 허면’ 그걸 그거 하고 뭔가 참억새 알지? 참억새?)

106035 @ 예. 어욱 알주마씨.(예. 참억새 알지요.)

106035 #1 어욱 뭔가 꽃 피젠 허면 나오는 거 잊지?(참억새 뭔가 꽃 피려고 하면 나오는 거 잊지?)

106035 @ 예.(예.)

106035 #1 그거 뽑아 가지고 그걸 물려서 깨어. 그게 질겨. 어디 물도 안 타고. 그걸 꼬아.(그거 뽑아 가지고 그걸 말려서 깨어. 그게 질겨. 어디 물도 안 타고. 그

92) ‘멘짱’은 반드러운 모양을 말하는 제주어이다.

93) ‘복삭⁹³⁾ 허다’는 으깨어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⁹³⁾다의 뜻을 지닌 제주어이다.

걸 꼬아.)

106035 @ 예.(예.)

106035 #1 꼬아 가지고 딱 놓으면. 이 녀발로 혼 발 감으면 감양 또 영 행 잇는 법이 있어. 이렇게. 두 개 붙여. 이으면 그게 둥그렇게 나올 거 아니냐.(꼬아 가지고 딱 놓으면. 자기발로 한 발 감으면 감아서 또 이렇게 해서 잇는 법이 있어. 이렇게. 두 개 붙여서. 이으면 그게 둥그렇게 나올 거 아니냐.)

106035 @ 예.(예.)

106035 #1 네 개 벌겨. 왜 그러냐면 둥그란 것을 싹 디밀면 네 개 될 게 아니냐.(네 개 벌겨. 왜 그러냐면 둥그란 것을 싹 드밀면 네 개 될 게 아니냐.)

106035 @ 예.(예.)

106035 #1 이렇게 이렇게 허면 찹으로 행 만들주게. 게서 그걸로 조리도 만들어.(이렇게 이렇게 하면 짚으로 해서 만들지. 그래서 그걸로 조리도 만들어.)

106035 @ 조리마씨?(조리요?)

106035 #1 조리는 이렇게 그 찹 두드려가지고 노 꼬아가지고이.(조리는 이렇게 그 짚 두드려가지고 노 꼬아가지고.)

106035 @ 예.(예.)

106035 #1 그것도 네 개를.(그것도 네 개를.)

106035 @ 네 개마씨?(네 개요?)

106035 #1 네 개. 뭔가 낫줄이.(네 개. 뭔가 낫줄이.)

106035 @ 예.(예.)

106035 #1 네 개 놓으면 가운데 놔가지고 요만큼 코거리를 만들어서 올려. 코거리를 만들영 가운데만 요만큼 만들영 양 옆으로 또 만들어.(네 개 놓으면 가운데 놔가지고 요만큼 올라미를 만들어서 올려. 올라미를 만들어서 가운데만 요만큼 만들어서 양 옆으로 또 만들어.)

106035 @ 예.(예.)

106035 #1 게면 혼 쪽으로 양 옆으로 만들 걸 이젠 일로 꿰영 이디서 꼬아가지고 영.(그러면 한 쪽으로 양 옆으로 만들 걸 이젠 여기로 꿰어서 여기서 꼬아가지고 이렇게.)

106035 @ 예.(예.)

106035 #1 여기서 꼬아가지고 여기서 꿰영 또 일로 돌아와.(여기서 꼬아가지고 여기서 꿰어서 또 여기로 돌아와.)

106035 @ 예.(예.)

106035 #1 일로 돌아왕 이디서 또 여기서 만들기 시작허여. 막 만들면 그거 어떻게 되냐면 이 앞으로 땡기면은.(여기로 돌아와서 여기서 또 여기서 만들기 시작해. 막 만들면 그거 어떻게 되냐면 이 앞으로 당기면.)

106035 @ 예.(예.)

106035 #1 노를 두 개 땡겨. 이 가운데 것만.(노를 두 개 당겨. 이 가운데 것

만.)

106035 @ 아, 가운데 것만.(아, 가운데 것만.)

106035 #1 나중에 두 개 빼면 그거랑 딱 맞추면 조리가 돼거든.(나중에 두 개 빼면 그거랑 딱 맞추면 조리가 되거든.)

106036 @ 짚신은 종류가 엇수광?(짚신은 종류가 없습니까?)

106036 #1 짚신?(짚신?)

106036 @ 예.(예.)

106036 #1 미투리.(미투리.)

106036 @ 미투리. 그거랑 또.(미투리. 그거랑 또.)

106036 #1 미투리는 아주 좁진 거. 깎이엔 헌 게 있어.(미투리는 아주 자잘한 거. 총이라고 한 게 있어.)

106036 @ 예. 깎.(예. 총.)

106036 #1 좁진 걸로 만든 것이 미투리고.(자잘한 걸로 만든 것이 미투리고.)

106036 @ 예.(예.)

106036 #1 그 나머지 뭐 헌 거는 짚신.(그 나머지 뭐 한 거는 짚신.)

106036 @ 아.(아.)

106036 #1 거 두 가지.(거 두 가지.)

106036 @ 그럼 뭐가 달라마씨?(그럼 뭐가 달라요?)

106036 #1 임시 여기서 신는 거는 옛날에는 어디 나갈려면 미투리 신주게.(임시 여기서 신는 거는 옛날에는 어디 나가려면 미투리 신지.)

106036 @ 아, 멀리 나갈 때?(아, 멀리 나갈 때?)

106036 #1 어. 예쁜 거니까. 우리 구두 신영 나가고 집에서는 운동화나 아무거나 신는 듯이. 집이서는 그냥 짚신 그냥 신영 땡기고.(어. 예쁜 거니까. 우리 구두 신어서 나가고 집에서는 운동화나 아무거나 신는 듯이. 집이서는 그냥 짚신 그냥 신어서 다니고.)

106036 @ 삼촌도 짚신 신언마씨?(삼촌도 짚신 신었어요?)

106036 #1 나 짚신 만들 줄 아는데.(나 짚신 만들 줄 아는데.)

모자 등

106037 @ 삼촌 혹시 모자는 안 만들언마씨? 모자?(삼촌 혹시 모자는 안 만들었어요? 모자?)

106037 #1 밀짚모자?(밀짚모자?)

106037 @ 예.(예.)

106037 #1 거 뭐 보리낭으로.(거 뭐 보릿짚으로.)

106037 @ 그럼 모자는 종류가 뭐, 뭐 있어마씨?(그럼 모자는 종류가 뭐, 뭐 있어요?)

106037 #1 모자 이제 쓰는 거랑 마찬가지로.(모자 이제 쓰는 거랑 마찬가지로)

지.)

106037 @ 마찬가지로마씨?(마찬가지요?)

106037 #1 어. 근데 모자는 여기서 안 만들어. 그거 멘드는 공장이 잇었지. 모자 이름이야 뭐 잇어게. 강 쓰면 모자주게. 털모자 뭐 이 나까오리. 늙은 하르방들 쓰는 거 잇잖아. 그 나까오리 허고.(어. 근데 모자는 여기서 안 만들어. 그거 만드는 공장이 잇었지. 모자 이름이야 뭐 잇어. 그냥 쓰면 모자이지. 털모자 뭐 이 나까오리. 늙은 할아버지들 쓰는 거 잇잖아. 그 나까오리 하고.)

106038 @ 그럼 여름에 보통 쓰는 모자는 뭐 잇어마씨?(그럼 여름에 보통 쓰는 모자는 뭐 잇어요?)

106038 #1 모자야 여름에 쓰는 거 지금이랑 벨다른 거 잇어. 그냥 겨울에 쓰고 다니는 것도 여름에 쓰고 허는 통이니까.(모자야 여름에 쓰는 거 지금이랑 벨다른 거 없어. 그냥 겨울에 쓰고 다니는 것도 여름에 쓰고 하는 통이니까.)

106038 @ 밧일 할 때 쓰는 모자 잇지 았아마씨?(밭일 할 때 쓰는 모자 잇지 았아요?)

106038 #1 페랭이⁹⁴. 페랭이 많이 썼주.(패랭이. 패랭이 많이 썼지.)

106038 @ 페랭이는 어떻 만들어마씨?(패랭이는 어떻게 만들어요?)

106038 #1 페랭이가 보릿대 꼬트머리 빼영. 곱게 손봐가지고 그걸로 짜 이렇게 패랭이 멘들게끔. 일곱 개면 일곱 개 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짜서 놓거든. 게면 요 넓이로 쪽 그걸 말았다가 이젠 페랭이로 꼭대기를 만들어. 이제 바늘로 허면서 넓은 데는 넓은 데로 허고. 잘 곱게 만들주게.(패랭이가 보릿대 꼬트머리 빼서. 곱게 손봐가지고 그걸로 짜 이렇게 패랭이 만들게끔. 일곱 개면 일곱 개 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짜서 놓거든. 그러면 요 넓이로 쪽 그걸 말았다가 이젠 패랭이로 꼭대기를 만들어. 이제 바늘로 하면서 넓은 데는 넓은 데로 하고. 잘 곱게 만들지.)

106039 @ 겨울에는 어떤 모자 써마씨?(겨울에는 어떤 모자 써요?)

106039 #1 털모자도 잇고. 근데 털모자 안 쓰는 사람은 안 쓴다.(털모자도 잇고. 근데 털모자 안 쓰는 사람은 안 쓴다.)

106040 @ 양태 걷기 들어보션마씨?(양태 걷기 들어보셨어요?)

106040 #1 그건 안 들어봤다.(그건 안 들어봤다.)

7. 식생활

밥과 국

107001 @ 이제 밥이랑 국에 대해 물어보젠 허맨예. 그럼 밥 종류는 뭐, 뭐 잇어 마씨?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해 줘서.(이제 밥이랑 국어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밥 종류는 뭐, 뭐 잇어요?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94) '페랭이'는 보리짚이나 댓개비로 엮어 만든 농립(農笠)을 말하는 제주어이다. = 페랑이.

107001 #1 밥 종류. 골으면 들어어.(밥 종류. 얘기하면 들어.)

107001 @ 예.(예.)

107001 #1 곤밥.(쌀밥.)

107001 @ 곤밥.(쌀밥.)

107001 #1 보리밥.(보리밥.)

107001 @ 음.(음.)

107001 #1 조팍. 잡곡밥. 거 네 가지야.(조밥. 잡곡밥. 거 네 가지야.)

107001 @ 그럼 쌀밥은 뭐짱?(그럼 쌀밥은 뭐예요?)

107001 #1 쌀밥은 곤쌀밥.(쌀밥은 흰쌀밥.)

107001 @ 아.(아.)

107001 #1 곤밥. 곤쌀로만 허는 것이 곤밥. 보리밥은 보리쌀만 허는 거.(쌀밥. 흰쌀로만 하는 것이 쌀밥. 보리밥은 보리쌀만 하는 거.)

107001 @ 예.(예.)

107001 #1 또 잡곡밥은 보리쌀, 좁쌀 그거 들어가는 거고.(또 잡곡밥은 보리쌀, 좁쌀 그거 들어가는 거고.)

107001 @ 예.(예.)

107001 #1 또.(또.)

107001 @ 조팍? 조팍은 뭐마씨?(조밥? 조밥은 뭐예요?)

107001 #1 조팍은 좁쌀만 들어가는 거.(조밥은 좁쌀만 들어가는 거.)

107001 @ 예.(예.)

107001 #1 팍밥이엔 현 거는 풀 놓은 거. 콩밥이엔 허는 거는 콩 넣은 거. 그게 콩밥.(팍밥이라고 한 거는 팍 놓은 거. 콩밥이라고 하는 거는 콩 넣은 거. 그게 콩밥.)

107001 @ 흰쌀밥을 곤밥이라고 헤마씨?(흰쌀밥을 쌀밥이라고 해요?)

107001 #1 어. 곤밥.(어. 쌀밥.)

107002 @ 그럼 밥쌀 종류에는 뭐, 뭐 있어마씨?(그럼 밥쌀 종류에는 뭐, 뭐 있어요?)

107002 #1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 밥쌀의 종내기. 지금 종내기야 나 아는 거야. 그 때는 보리쌀, 좁쌀, 또 나룩쌀, 산뒤쌀. 네 가지밖에 엇엇주게.(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 밥쌀의 종내기. 지금 종내기야 나 아는 거야. 그 때는 보리쌀, 좁쌀, 또 벼쌀, 밭벼쌀. 네 가지밖에 없었지.)

107003 @ 그럼 보리밥에 대해 좀 얘기해 줘서.(그럼 보리밥에 대해 좀 얘기해 주십시오.)

107003 #1 보리밥에?(보리밥에?)

107003 @ 예. 보리밥 보통 언제 먹어마씨?(예. 보리밥 보통 언제 먹어요?)

107003 #1 보리밥이야 보통 우리가 살 적에 옛날은 이 쌀밥 끝은 거 일 년에 잔치 때나 얻어 먹주게.(보리밥이야 보통 우리가 살 적에 옛날은 이 쌀밥 같은 거

일 년에 잔치 때나 얻어 먹지.)

107003 @ 예.(예.)

107003 #1 겐디 보리밥은 노상 먹는 게 보리밥이주게.(그런데 보리밥은 노상 먹는 게 보리밥이지.)

107003 @ 예.(예.)

107003 #1 보리밥에는 보리쌀 허고 좁쌀 넣어서 보통 해 먹어 농촌에서.(보리밥에는 보리쌀 하고 좁쌀 넣어서 보통 해 먹어 농촌에서.)

107003 @ 예.(예.)

107003 #1 또 고구마 고구마도 좀 넣어서 해 먹을 때도 있고. 또 지실.(또 고구마 고구마도 좀 넣어서 해 먹을 때도 있고. 또 ‘지실’.)

107003 @ 예.(예.)

107003 #1 옛날은 감자보고 지실이엔 헛지.(옛날은 감자보고 ‘지실’이라고 했지.)

107003 @ 예.(예.)

107003 #1 고구마보고 감저이엔 허고.(고구마보고 ‘감저’라고 하고.)

107003 @ 왜 경 행마씨?(왜 그렇게 했나요?)

107003 #1 그거 그건 옛날서 불러온 게 그것이주게.(그거 그건 옛날서 불러온 게 그것이지.)

107004 @ 그럼 반지기밥⁹⁵⁾ 아서마씨? 반지기밥.(그럼 ‘반지기밥’ 아시나요? ‘반지기밥’.)

107004 #1 반지기밥?(‘반지기밥’?)

107004 @ 예.(예.)

107004 #1 보리쌀 허고 곤쌀하고 섞은 것이 반지기밥.(보리쌀하고 흰쌀하고 섞은 것이 ‘반지기밥’.)

107004 @ 반반마씨?(반반이요?)

107004 #1 아니, 반반을 섞엇든 보리쌀이 좀 족게 들어갔다 곤쌀이 족게 들어갔다 그거는 구분할 수가 엇고.(아비, 반반을 섞엇든 보리쌀이 좀 적게 들어갔다 흰쌀이 적게 들어갔다 그거는 구분할 수가 없고.)

107004 @ 반지기밥은 언제 드션마씨?(‘반지기밥’은 언제 먹어요?)

107004 #1 어?(어?)

107004 @ 반지기밥은 언제 해 먹언마씨?(‘반지기밥’은 언제 해 먹었어요?)

107004 #1 반지기밥은 손님이나 오면은. 옛날에.(‘반지기밥’은 손님이나 오면. 옛날에.)

107004 @ 예. 옛날에 제사 때는.(예. 옛날에 제사 때는.)

107004 #1 어. 자식들 오면 맨 보리밥은 못허니까.(어. 자식들 오면 맨 보리밥은 못하니까.)

95) ‘반지기밥’은 보리쌀과 쌀을 반씩 섞어서 지은 밥을 의미하는 것이다. = 반직이밥.

107004 @ 예.(예.)

107004 #1 이제 보리쌀 좀 넣고 쌀 좀 많이 넣어 가지고 허민 오히려 그게 더 맛있어.(이제 보리쌀 좀 넣고 쌀 좀 많이 넣어 가지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맛있어.)

107005 @ 흰밥 잇잖아예? 곤밥?(흰밥 잇잖아요? 흰밥?)

107005 #1 어.(어.)

107005 @ 곤밥 그거에 대해 좀 얘기해 줘서.(곤밥 그거에 대해 좀 얘기해 주십시오.)

107005 #1 곤밥은 어떻 얘기할 거? 곤밥이 곤밥이지.(흰밥은 어떻게 얘기할 거? 흰밥이 흰밥이지.)

107005 @ 곤밥은 언제 먹어마씨?(흰밥은 언제 먹어요?)

107005 #1 곤밥은?(흰밥은?)

107005 @ 예.(예.)

107005 #1 언제 먹느냐.(언제 먹느냐.)

107005 @ 예.(예.)

107005 #1 곤밥은 제사 때 주로 먹주게.(흰밥은 제사 때 주로 먹지.)

107005 @ 예.(예.)

107005 #1 이 제상에다가 이제 저 귀신들 왕 먹영 갑서 행 올릴 때. 그 때 곤밥이야. 게고 결혼식 할 때 또 신부 신랑한테 올리는 게 곤밥이고.(이 제상에다가 이제 저 귀신들 와서 먹고 가십시오 해서 올릴 때. 그 때 흰밥이야. 그리고 결혼식 할 때 또 신부 신랑한테 올리는 게 흰밥이고.)

107005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7006 @ 그럼 조밥?(그럼 조밥?)

107006 #1 조밥은 보통 놀 때 먹고.(조밥은 보통 놀 때 먹고.)

107006 @ 놀 때?(놀 때?)

107006 #1 어.(어.)

107006 @ 보리밥은 놀 때 안 먹어마씨?(보리밥은 놀 때 안 먹었나요?)

107006 #1 무사 안 먹어? 조밥이엔 험 거는 뭐, 뭐 들어가냐. 고구마 들어가고 지슬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조밥은 그 해 먹주게.(왜 안 먹어? 조밥이라고 한 거는 뭐, 뭐 들어가냐. 고구마 들어가고 감자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조밥은 그 해 먹지.)

107006 @ 아, 조밥이 고구마랑 감자랑?(아, 조밥이 고구마랑 감자랑?)

107006 #1 어. 그런 거 놓으면서 해 먹어.(어. 그런 거 놓으면서 해 먹어.)

107006 @ 아, 흰쌀이랑 조가 들어가는 게 아니마씨?(아, 흰쌀이랑 조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107006 #1 어.(어.)

107006 @ 흰쌀에는 조 안 들어가.(흰쌀에는 조 안 들어가.)

107007 @ 아, 그럼 팔밥은 언제 먹었수과?(아, 그럼 팔밥은 언제 먹었습니까?)
 107007 #1 풋밥?(팔밥?)
 107007 @ 예.(예.)
 107007 #1 풋밥은 흰쌀에 곤밥에.(팔밥은 흰쌀에 흰밥에.)
 107007 @ 예.(예.)
 107007 #1 풋 들어간 게 풋밥이라.(팔 들어간 게 팔밥이라.)
 107007 @ 아.(아.)
 107007 #1 콩 들어가면 콩밥. 녹두 들어가면 녹두밥.(콩 들어가면 콩밥. 녹두 들어가면 녹두밥.)
 107008 @ 피밥은 알아마씨?(피밥은 알아요?)
 107008 #1 피밥은 피 나와 낫주만은 피밥 피밥은 뭐 보리밥 보리 보리쌀에 넣 영 먹주게.(피밥은 피 나왔었지만 피밥 피밥은 뭐 보리밥 보리 보리쌀에 넣어서 먹 지.)
 107008 @ 그건 어떤 거광?(그건 어떤 거예요?)
 107008 #1 피라는 게 있어. 저 뭔가 벼 닳은 게.(피라는 게 있어. 저 뭔가 벼 닳은 게.)
 107008 @ 예.(예.)
 107008 #1 그 뭔가 속 알맹이는 좁 좁쌀 닳은 거.(그 뭔가 속 알맹이는 좁 좁쌀 닳은 거.)
 107008 @ 아, 좁쌀 닳은 거마씨? 것도 평소에 먹는 거마씨?(아, 좁쌀 닳은 거 요? 것도 평소에 먹는 거예요?)
 107008 #1 것도 평소에 먹주게.(것도 평소에 먹지.)
 107009 @ 감저밥⁹⁶? 그것도 해 먹어마씨?(‘감저밥’? 그것도 해 먹어요?)
 107009 #1 감저허고 보리쌀허고 넣으면 감 감저밥.(고구마하고 보리쌀하고 넣으 면 감 ‘감저밥’.)
 107010 @ 무밥은 뭐팡? 무밥?(무밥은 무엇입니까? 무밥?)
 107010 #1 무밥은 옛날은 무밥이라는 게 있어.(무밥은 옛날은 무밥이라는 게 없 어.)
 107010 @ 아 무밥 옛언마씨? 여기 고산에서는 무밥은?(아, 무밥 없었어요? 여 기 고산에서는 무밥은?)
 107010 #1 무밥이엔 현 거는 여기서 잘 안 해 먹언.(무밥이라고 한 거는 여기서 잘 안 해 먹었어.)
 107011 @ 어르신 그 툷밥 툷밥은 알아마씨? 툷밥?(어르신 그 툷밥 툷밥은 알 아요? 툷밥?)
 107011 #1 툷밥이엔 현 말이야 들었지만은 밥은 안 해봤어.(툷밥이라고 한 말이 야 들었지만은 밥은 안 해봤어.)

96) ‘감저밥’은 고구마와 쌀을 섞어서 지은 밥을 말하는 제주어이다. = 감제밥.

107011 @ 그거 뭐짱?(그거 무엇입니까?)
 107011 #1 툇 툇허고 보리쌀허고.(툇 툇하고 보리쌀하고.)
 107011 @ 예.(예.)
 107011 #1 여러 가지 섞어서 넣은 게 툇밥이라고 하는데. 툇 툇.(여러 가지 섞어서 넣은 게 툇밥이라고 하는데. 툇 툇.)
 107011 @ 툇 여기도 많이 채취해신디 밥으로는?(툇 여기도 많이 채취했는데 밥으로는?)
 107011 #1 안 해 먹어.(안 해 먹어.)
 107011 @ 그럼 어르신 툇으로는 보통 뭐 해마씨?(그럼 어르신 툇으로는 보통 뭐 해요?)
 107011 #1 우리 그거는 보통 밀려가지고 풀지.(우리 그거는 보통 말려가지고 팔지.)
 107011 @ 아.(아.)
 107011 #1 풀면은 도회지로 나와가지고 거 반찬으로 나오주게.(팔면 도회지로 나와가지고 거 반찬으로 나오지.)
 107011 @ 예.(예.)
 107012 @ 그럼, 패밥⁹⁷도 알아마씨?(그럼, 패밥도 알아요?)
 107012 #1 패밥이엔 현 거는 잇어신디 안 해 먹엇어. 여기는. 아, 패밥 해 먹어났다.(패밥이라고 한 거는 있었는데 안 해 먹엇어. 여기는. 아, 패밥 해 먹어났다.)
 107012 @ 패밥은 뭐짱? 패밥 좀 얘기해 줘서.(패밥은 무엇입니까? 패밥 좀 얘기해 주십시오.)
 107012 #1 바다에서 나는 요만씩 허는 거 까리까리 허는 거 잇다.(바다에서 나는 요만큼 하는 거 까리까리 하는 거 잇다.)
 107012 @ 그게 패마씨?(그게 패예요?)
 107012 #1 어. 패가.(어. 패가.)
 107012 @ 예.(예.)
 107012 #1 꼭 그 아주 가는 가는 그 뭔가 노로 노 모양 뉘 겉로. 올라오면서 까리까리 현 겉로 이파리가 나와.(꼭 그 아주 가는 가는 그 뭔가 노로 노 모양 된 겉로. 올라오면서 까리까리 한 겉로 이파리가 나와.)
 107012 @ 아, 툇이랑 비슷한 거 아니짱?(아, 툇이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107012 #1 아니 아니 달라.(아니 아니 달라.)
 107012 @ 아.(아.)
 107012 #1 요만큼 막상 커 봤자 요만큼밖에 안 커.(요만큼 막상 커 봤자 요만큼밖에 안 커.)
 107012 @ 예.(예.)
 107012 #1 웬만하면 거기서 나무 나가지고.(웬만하면 거기서 나무 나가지고.)

97) ‘패밥’은 보리쌀에 패를 섞어서 지은 밥으로 구황음식의 한 가지이다.

107012 @ 예.(예.)

107012 #1 작은 나무 나가지고 요만이 올라오면 이파리 영 벌리듯이 경 벌려.
(작은 나무 나가지고 요만이 올라오면 이파리 이렇게 벌리듯이 그렇게 벌려.)

107012 @ 예.(예.)

107012 #1 벌러가지고 그걸 따가지고 패밥이엔 현 것이 있어.(벌러가지고 그걸
따가지고 패밥이라고 한 것이 있어.)

107012 @ 밥은 보통 섞으면 다 보리랑 섞는다예.(밥은 보통 섞으면 다 보리랑
섞는군요.)

107012 #1 어.(어.)

107013 @ 그럼 어르신 국 종류 좀 얘기해 줘서.(그럼 어르신 국 종류 좀 얘기
해 주십시오.)

107013 #1 국?(국?)

107013 @ 예.(예.)

107013 #1 국이야 지금 먹는 거랑 마찬가지로주게.(국이야 지금 먹는 거랑 마찬가
지지.)

107013 @ 마찬가지로진디 예전에는 뭐 보통 어떤 국을 많이 드셨마씨?(마찬가지인
데 예전에는 뭐 보통 어떤 국을 많이 드셨어요?)

107013 #1 옛날 누물국.(옛날 나물국.)

107013 @ 예.(예.)

107013 #1 또 미역국.(또 미역국.)

107013 @ 예.(예.)

107013 #1 또 바다에서 나가면 바당서 나면은 그 이름이 뭔지 잊어버려신디. 그
멜국⁹⁸.(또 바다에서 나가면 바다에서 나면 그 이름이 뭔지 잊어버렸는데. 그 ‘멜
국’.)

107014 @ 그럼 하나하나 물어볼게마씨. 어르신 누물국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
실 수 있어마씨?(그럼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어르신 나물국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
실 수 있어요?)

107014 #1 누물국?(나물국?)

107014 @ 예.(예.)

107014 #1 뭇을?(뭇을?)

107014 @ 그거 뭐 종류가 뭐, 뭐 있고, 그니깐 만들 때 나물 여러 가지 나물 있
잖아예?(그거 뭐 종류가 뭐, 뭐 있고, 그러니까 만들 때 나물 여러 가지 나물 있잖
아요?)

107014 #1 어.(어.)

107014 @ 그니깐 뭐, 뭐 집어넣는지.(그러니까 뭐, 뭐 집어넣는지.)

107014 #1 그거는.(그거는.)

98) ‘멜국’은 나물과 날멸지를 넣어 끓인 국을 말하는 제주어이다. = 멜국.

107014 @ 예.(예.)
107014 #1 국이엔 현 거는 나물이엔 현 거는 배추.(국이라고 한 거는 나물이라고 한 거는 배추.)
107014 @ 예.(예.)
107014 #1 배추면 배추국 하나.(배추면 배추국 하나.)
107014 @ 예.(예.)
107014 #1 무 이파리면 이 나물이엔 현 거는.(무 이파리면 이 나물이라고 한 거는.)
107014 @ 예.(예.)
107014 #1 무 같은 거는 들어가지 않아. 배추보고 나물이엔 허여.(무 같은 거는 들어가지 않아. 배추보고 나물이라고 해.)
107014 @ 아 기마씨.(아, 그렇군요.)
107014 #1 어 배추하고. 그게 나물국.(어 배추하고. 그게 나물국.)
107014 @ 그럼 어르신 그걸 제일 자주 먹어마씨?(그럼 어르신 그걸 제일 자주 먹어요?)
107014 #1 어.(어.)
107014 @ 이 나물국을?(이 나물국을?)
107014 #1 그게 질 자주 먹어.(그게 제일 자주 먹어.)
107015 @ 음. 그럼 어르신 콩나물국도 해 먹지예?(음. 그럼 어르신 콩나물국도 해 먹지요?)
107015 #1 콩나물국도 해 먹어.(콩나물국도 해 먹어.)
107015 @ 아. 그럼 콩나물국은 뭐가 달라마씨?(아. 그럼 콩나물국은 뭐가 다른가요?)
107015 #1 자기가 뭐 먹고 싶지 않아근엔 국을 바꾸겠다 할 적에는.(자기가 뭐 먹고 싶지 않아가지고 국을 바꾸겠다 할 적에는.)
107015 @ 예.(예.)
107015 #1 탄 걸로 먹어보겠다 할 적에는 콩나물국도 먹어. 콩나물도 집에서 시리엔 현 것이 있어.(탄 걸로 먹어보겠다 할 적에는 콩나물국도 먹어. 콩나물도 집에서 시루라고 한 것이 있어.)
107015 @ 시레마씨?(시루요?)
107015 #1 시리.(시루.)
107015 @ 시리.(시루.)
107015 #1 왜 이렇게 떡 치고.(왜 이렇게 떡 치고.)
107015 @ 예.(예.)
107015 #1 떡 치고 허면은 고양이 뒤에 고양이 송송 뚫어졌주게.(떡치고 하면 구멍이 뒤에 고양이 송송 뚫어졌지.)
107015 @ 예.(예.)

107015 #1 그 때 그디다가 기쥐떡 껍과가지고 콩 놔가지고 물 자꾸 저가면 그럼 콩이 이만큼 커.(그 때 거기다가 기주떡 껍과가지고 콩 놔가지고 물 자꾸 저어가면 그럼 콩이 이만큼 커.)

107015 @ 예.(예.)

107015 #1 게면 그걸 뽑으면서 국을 해 먹어.(그러면 그걸 뽑으면서 국을 해 먹어.)

107016 @ 못국은 뭐짱? 못국은?(못국은 무엇입니까? 못국은?)

107016 #1 무 무야 그냥 못국이야 무만 넣으면 못국이주게.(무 무야 그냥 못국이야 무만 넣으면 못국이지.)

107016 @ 요즘에는 소고기도 넣잖아예. 옛날에는 어떻 만들언마씨?(요즘에는 소고기도 넣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107016 #1 어?(어?)

107016 @ 옛날에는 뭐, 뭐 들어간마씨? 무만 들어간마씨?(옛날에는 뭐, 뭐 들어갔나요? 무만 들어갔나요?)

107016 #1 옛날에는 무허고 된장. 소고기가 어디 있나게?(옛날에는 무하고 된장. 소고기가 어디 있나?)

107017 @ 그럼 어르신 콩국도 만들어 드션마씨?(그럼 어르신 콩국도 만들어 드셨어요?)

107017 #1 어?(어?)

107017 @ 삼춘 콩국마씨. 콩국.(삼춘 콩국이요. 콩국.)

107017 #1 콩 만들주게.(콩 만들지.)

107017 @ 아니, 콩국.(아니, 콩국.)

107017 #1 콩국.(콩국.)

107017 @ 예.(예.)

107017 #1 어.(어.)

107017 @ 그것도 드션마씨?(그것도 드셨어요?)

107017 #1 어.(어.)

107017 @ 그럼 콩국은 제주도에서 많이 만들언마씨?(그럼 콩국은 제주도에서 많이 만들었나요?)

107017 #1 그렇지.(그렇지.)

107017 @ 아.(아.)

107017 #1 콩국이엔 현 거는.(콩국이라고 한 거는.)

107017 @ 예.(예.)

107017 #1 물이 끓어 가면은 콩 넣으면은 그게 끓여진단 말이여.(물이 끓어 가면 콩 넣으면 그게 끓여진단 말이야.)

107017 @ 예.(예.)

107017 #1 멍심 안 허면 콩국은 못 끓여 먹어.(멍심 안 하면 콩국은 못 끓여 먹

어.)

107017 @ 예?(예?)

107017 #1 자기가.(자기가.)

107017 @ 예.(예.)

107017 #1 그것에 잘 눈을 안 두면은.(그것에 잘 눈을 안 두면.)

107017 @ 아, 명심 안 하면.(아, 명심 안 하면.)

107017 #1 명심 안 하면 못 끊어 먹주게. 왜 그러냐면 그 부꺼붙어.(명심 안 하면 못 끊어 먹지. 왜 그러냐면 그 끊어 넘쳐버려.)

107017 @ 아.(아.)

107017 #1 잘못허다가 배추를 몬딱 씨쳐근엥 썰엥 숲에 딱 놔두었다가 거 부끄지 못허게 해. 부끄지 못허게 허면은 그디 나물을 집어넣어야주게.(잘못허다가 배추를 전부 씻어서 썰어서 옆에 딱 놔두었다가 거 끊어 넘치지 못하게 해. 끊어 넘치지 못하게 하면 거기 나물을 집어넣어야지.)

107017 @ 아.(아.)

107017 #1 집어넣어서 이제 나물 집어 가지고 또 익을 그제 익을 동안에는 자꾸 저어줘야주게.(집어넣어서 이제 나물 집어 가지고 또 익을 그제 익을 동안에는 자꾸 저어줘야지.)

107017 @ 예.(예.)

107017 #1 안 그러면 타붙어 타붙어.(안 그러면 타버려. 타버려.)

107018 @ 그럼 호박잎국도 알아마씨? 호박잎국?(그럼 호박잎국도 알아요? 호박잎국?)

107018 #1 호박잎국도 알주게.(호박잎국도 알지.)

107018 @ 호박잎국은 나물국이랑 뭐가 달라마씨?(호박잎국은 나물국이랑 뭐가 달라요?)

107018 #1 호박잎국은 담으면은 젓국에 들어가주게.(호박잎국은 담으면 젓국에 들어가지.)

107018@ 젓국은 뭐짱?(젓국은 무엇입니까?)

107018 #1 자리젓이나 멜젓이나.(자리젓이나 멸치젓이나.)

107018 @ 아.(아.)

107018 #1 호박잎국은. 또 저 뭔가 가로 놔가지고.(호박잎국은. 또 저 뭔가 가로 놔가지고.)

107018 @ 예.(예.)

107018 #1 만드는 것도 있고. 거 서너 가지 돼주게.(만드는 것도 있고. 거 서너 가지 되지.)

107018 @ 서너 가지 얘기해 줘서.(서너 가지 얘기해 주십시오.)

107018 #1 호박잎에 호박잎에 멜젓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호박잎에 호박잎에 멸치젓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107018 @ 예.(예.)
 107018 #1 자리젓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자리젓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107018 @ 예.(예.)
 107018 #1 또 뭔가 뭐 좀 들어가는 거 있는데.(또 뭔가 뭐 좀 들어가는 거 있는 데.)
 107019 @ 모자반국 들어보셨지예? 뭍국⁹⁹.(모자반국 들어보셨지요? ‘뭍국’.)
 107019 #1 뭍국이지?(‘뭍국’이지?)
 107019 @ 예. 뭍국.(예. ‘뭍국’.)
 107019 #1 옛날 아니 이제 모자반국이라 허는디 뭍국이다.(옛날 아니 이제 모자반이라 하는데 ‘뭍국’이다.)
 107019 @ 예. 뭍국에 대해 얘기해 줘서.(예. ‘뭍국’에 대해 얘기해 주십시오.)
 107019 #1 뭍국이엔 허는 거는.(‘뭍국’이라고 하는 거는.)
 107019 @ 예.(예.)
 107019 #1 어떨 때 먹냐면은 큰일 때.(어떨 때 먹냐면 큰일 때.)
 107019 @ 큰일 때.(큰일 때.)
 107019 #1 어. 돼지나 잡을 때. 뭍이엔 허는 거는 돼지 국물에다가 넣는 거지 저게. 맛있어.(어. 돼지나 잡을 때. 모자반이라고 하는 거는 돼지 국물에다가 넣는 거지 저게. 맛있어.)
 107019 @ 아.(아.)
 107019 #1 맛있어 저게. 그래 가지고 어디 잔치 때나 또 어디 대소상 때나 이런 디서 그걸 도야지 잡아놓으면은 그거 삶양 도새기 삶양 놓으면 그 국물에다가 그 뭍 뭍을 빨아서 썰어서 놓으면은 그게 뭍국이 돼주게.(맛있어 저게. 그래 가지고 어디 잔치 때나 또 어디 대소상 때나 이런 데서 그걸 돼지 잡아놓으면 그거 삶아서 돼지 삶아서 놓으면 그 국물에다가 그 모자반 모자반을 빨아서 썰어서 놓으면 그게 ‘뭍국’이 되지.)
 107020 @ 생선국 있잖아예?(생선국 있잖아요?)
 107020 #1 어?(어?)
 107020 @ 생선국.(생선국.)
 107020 #1 생선국?(생선국?)
 107020 @ 예.(예.)
 107020 #1 그 생선 생선국에는 미역이 들어가주게.(그 생선 생선국에는 미역이 들어가지.)
 107020 @ 생선 종류 그니깐 생선국 종류 좀 아서마씨?(생선 종류 그니깐 생선국 종류 좀 아시나요?)
 107020 #1 생선이엔 현 거는 그 여기서 달라. 고기 이름이.(생선이라고 한 거는 그 여기서 달라. 고기 이름이.)

99) ‘뭍국’은 돼지고기를 삶은 육수에 불린 모자반을 넣어 끓인 국을 말하는 제주어이다.

107020 @ 예.(예.)

107020 #1 그건 먼 바닷에서 나왕 지금 끝으면은 도미라고 할까?(그건 먼 바다에서 나와서 지금 같으면 도미라고 할까?)

107020 @ 예.(예.)

107020 #1 그게 여기서는 옛날은 생선이렌 헛주게.(그게 여기서는 옛날은 생선이라고 했지.)

107020 @ 예.(예.)

107020 #1 생선국이엔 현 거는 저 미역이 들어가는 거주게.(생선국이라고 한 거는 저 미역이 들어가는 거지.)

107020 @ 미역이 들어가?(미역이 들어가?)

107020 #1 어.(어.)

107021 @ 아. 그럼 미역국은 뭐짱? 그럼 생선에 미역이 들어가면. 미역국에는 미역만 들어가마씨?(아. 그럼 미역국은 뭐예요? 그럼 생선에 미역이 들어가면. 미역국에는 미역만 들어가요?)

107021 #1 어. 미역국이엔 현 거는 미역만 놓고.(어. 미역국이라고 한 거는 미역만 놓고.)

107022 @ 냉국은마씨?(냉국은요?)

107022 #1 냉국은 미역을 이제 저 물렸다가 허는 거주게.(냉국은 미역을 이제 저 말렸다가 하는 거지.)

107022 @ 예.(예.)

107022 #1 둘러서 둘러 놓거나 아니면 생미역으로 허나 경 해가지고 맹물 놓면은 그거 장 놓면은 그거 냉국이주게.(말려서 말려 놓거나 아니면 생미역으로 하나 그렇게 해가지고 맹물 놓으면 그거 장 놓으면 그거 냉국이지.)

107022 @ 그럼 그 냉국에는 종류는 잇어마씨?(그럼 그 냉국에는 종류는 없었나요?)

107022 #1 종류? 누물 냉국.(종류? 나물 냉국.)

107022 @ 누물냉국.(나물 냉국.)

107022 #1 어. 또 미역 냉국, 툇 냉국 세 가지 잇어.(어. 또 미역 냉국, 툇 냉국 세 가지 잇어.)

107022 @ 아. 세 가지 잇어마씨?(아. 세 가지 잇어요?)

107022 #1 어.(어.)

107023 @ 그럼 성계국, 보말국 알지예?(그럼 성계국, 보말국 알지요?)

107023 #1 어?(어?)

107023 @ 성계국.(성계국.)

107023 #1 성계국?(성계국?)

107023 @ 예.(예.)

107023 #1 그게 성계국에도 미역이 들어가주게.(그게 성계국에도 미역이 들어가

지.)

107023 @ 아, 그럼 보말국은마씨?(아, 그럼 보말국은요?)

107023 #1 보말국에도 미역이 들어가주게.(보말국에도 미역이 들어가지.)

107023 @ 넓패국? 넓패국은 알아마씨?(넓패국? 넓패국은 알아요?)

107023 #1 넓패국?(넓패국?)

107023 @ 넓패?(넓패?)

107023 #1 넘피¹⁰⁰?(‘넘피’?)

107023 @ 예. 넘피.(예. 넓패.)

107023 #1 넘피국도 마찬가지로야.(넓패국도 마찬가지로야.)

107023 @ 가시리국은 뭐짱?(풀가시리국은 무엇입니까?)

107023 #1 가시리국은 엇어.(풀가시리국은 없어.)

107023 @ 아, 엇어마씨?(아, 없어요?)

107023 #1 가시리엔 현 거는 저 풀 허는 디 그 옛날에 이 옛날은 이런 문이 없엇거든.(풀가시리라고 한 거는 저 풀 하는 데 그 옛날에 이 옛날은 이런 문이 없엇거든.)

107023 @ 예.(예.)

107023 #1 엇이니까 그걸 가시리엔 현 거는 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불라. 문에다가 불라가지고 창문에 붙이는 게 그게 가시리 풀이라고 그게.(없으니까 그걸 풀가시리라고 한 거는 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발라. 문에다가 발라가지고 창문에 붙이는 게 그게 풀가시리 풀이라고 그게.)

107023 @ 파래국은 알아마씨?(파래국은 알아요?)

107023 #1 프레국 알주게.(파래국 알지.)

107023 @ 프레국은 뭐마씨?(파래국은 뭐예요?)

107023 #1 프레국은 프레엔 현 거는 바닷가에 여기는 엇어.(파래국은 파래라고 한 거는 바닷가에 여기는 없어.)

107023 @ 예.(예.)

107023 #1 어디 아마 그거 나는 디가 따로 잇어.(어디 아마 그거 나는 데가 따로 잇어.)

107023 @ 예.(예.)

107023 #1 옛날은 나 낫는데 여기도.(옛날은 나 낫는데 여기도.)

107023 @ 예.(예.)

107023 #1 이 오염웨니까 ㄴ에서 붙이지 못허여 크질 못허여 죽어불어.(이 오염되니까 가에서 붙지 못해 크질 못해 죽어버려.)

107023 @ 그럼 옛날에는 그거 잡아당 국으로?(그럼 옛날에는 그거 잡아서 국으로?)

107023 #1 어. 그거 맛잇주게. 저 국으로 허면.(어. 그거 맛있지. 저 국으로 하

100) ‘넘피’는 넓패를 말하는 제주어이다. = 너패, 넘패

면.)

107023 @ 삼촌 여름에 먹는 건디예. 여름에마씨.(삼촌 여름에 먹는 건디예. 여
에요.)

107023 #1 어.(어.)

107023 @ 여름에 먹는 거. 여름에 주로 뭐 먹주마씨? 여기서는?(여름에 먹는
거. 여름에 주로 뭐 먹지요? 여기서는?)

107023 #1 여름에?(여름에?)

107023 @ 제주도에서.(제주도에서.)

107023 #1 제주도에서나 여름에는 육지영 마찬가지로 먹는 거는.(제주도에서나 여
름에는 육지와 마찬가지로 먹는 거는.)

107023 @ 먹는 거는 마찬가지로마씨?(먹는 거는 마찬가지로예요?)

107023 #1 어. 먹는 거는 똑같아. 뭐 보리밥 이런 거밖에 없어.(어. 먹는 거는
똑같아. 뭐 보리밥 이런 거밖에 없어.)

107023 @ 그면 갓 잡아 올린 생선이나 오징어 같은 거 잇잖아예.(그러면 갓 잡
아 올린 생선이나 오징어 같은 거 잇잖아요.)

107023 #1 어.(어.)

107023 @ 그거 썰어가지고 파나 마늘이나 고춧가루 넣엉 이렇게 먹잖아예.(그
거 썰어가지고 파나 마늘이나 고춧가루 넣어서 이렇게 먹잖아요.)

107023 #1 어.(어.)

107023 @ 물 해가지고.(물 해가지고.)

107023 #1 어.(어.)

107023 @ 그걸 뭐라고 허주마씨?(그걸 뭐라고 하지요?)

107023 #1 물회.(물회.)

107023 @ 예. 물회.(예. 물회.)

107023 #1 강회. 물회.(강회. 물회.)

107023 @ 뭐마씨?(뭐요?)

107023 #1 강회.(강회.)

107023 @ 강회?(강회?)

107023 #1 강회는 물 안 넣는 거.(강회는 물 안 넣는 거.)

107023 @ 아. 물 안 넣는 것도 잇수광?(아. 물 안 넣는 것도 있습니까?)

107023 #1 어. 물 아니 넣은 게 강회고.(어. 물 아니 넣은 게 강회고.)

107023 @ 예.(예.)

107023 #1 물 넣은 게 물회고.(물 넣은 게 물회고.)

107023 @ 아, 강회는 처음 들어보멘마씨. 강회.(아, 강회는 처음 들어봐요. 강
회.)

107023 #1 강회 처음 들어보나?(강회 처음 들어보나?)

107023 @ 예.(예.)

107023 #1 왜 그냥 저 고기 그것에 양념에 맞게 해가지고 고춧가루 기름 좀 넣어가지고 기름 좀 서끄어가지고.(왜 그냥 저 고기 그것에 양념에 맞게 해가지고 고춧가루 기름 좀 넣어가지고 기름 좀 섞어가지고.)

107023 @ 예.(예.)

107023 #1 그냥 사라에 담고 나온 게 강훼라 말이여.(그냥 접시에 담고 나온 게 강회라 말이야.)

107023 @ 아. 그게 강훼. 사라에 담양.(아. 그게 강회. 사라에 담아서.)

107023 #1 물훼는.(물회는.)

107023 @ 예.(예.)

107023 #1 그냥 그릇에 담아서 물 넣고 나온 게 물훼고.(그냥 그릇에 담아서 물 넣고 나온 게 물회고.)

107023 @ 지금은 거의 강훼는 안 팔고 물훼만 팔잖아예?(지금은 거의 강회는 안 팔고 물회만 팔잖아요?)

107023 #1 어. 강훼는.(어. 강회는.)

107023 @ 예.(예.)

107023 #1 좀 물훼보다 좀 비싸.(좀 물회보다 좀 비싸.)

107023 @ 아 비싸마씨? 근데 음식점에서 파는 거 못 봤인디마씨? 강훼.(아 비싸요? 근데 음식점에서 파는 것 못 봤는데요? 강회.)

107023 #1 음식점에서 강훼 만들어 들랜허민 만들어 줘. 이녁이 먹겠다 허민 그거 강훼로 해주고.(음식점에서 강회 만들어 달라하면 만들어 줘. 이녁이 먹겠다 하면 그거 강회로 해주고.)

107023 @ 그럼.(그럼.)

107023 #1 거기서 또 들어. 강훼로 먹을 건가 물훼로 먹을 건가 묻는다 말이여.(거기서 또 물어. 강회로 먹을 건가 물회로 먹을 건가 묻는다 말이야.)

107023 @ 예.(예.)

107023 #1 그건 이녁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면 강훼로 하나 해달라고 허민 그거 해주고.(그건 이녁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면 강회로 하나 해달라고 하면 그거 해주고.)

107023 @ 아, 그럼 음식점도 좀 아는 사람이 계난 제주도 사람이 해야 알겠다 예?(아, 그럼 음식점도 좀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이 해야 알겠군요?)

107023 #1 어.(어.)

107023 @ 육지 사람들 강훼 모를 거 다했다.(육지 사람들 강회 모를 거 다했다.)

107023 #1 어. 육지 사람들 강훼 잘 몰라.(어. 육지 사람들 강회 잘 몰라.)

107023 @ 그믄 물훼에 들어가는 물고기는 뭐, 뭐 잇엇인가마씨?(그럼 물회에 들어가는 물고기는 뭐, 뭐 있었어요?)

107023 #1 물훼에 들어가는 물고기는 거의 다 들어간다.(물회는 들어가는 물고

기는 거의 다 들어간다.)

107023 @ 거의 다 들어가마씨?(거의 다 들어가요?)

107023 #1 하여튼 송어나 광어나.(하여튼 송어나 광어나.)

107023 @ 예.(예.)

107023 #1 바다에서 나오는 거는.(바다에서 나오는 거는.)

107023 @ 다?(다?)

107023 #1 성헌 거는 거의 들어가.(성한 거는 거의 들어가.)

107023 @ 아 성헌 거는?(아 성헌 거는?)

107023 #1 복쟁이, 복쟁이 같은 것도 들어가고.(복어, 복어 같은 것도 들어가
고.)

107023 @ 아, 복쟁이도 들어가고.(아, 복어도 들어가고.)

107023 #1 아. 복쟁이는 물회는 안 먹어.(아. 복어는 물회는 안 먹어.)

107023 @ 잘 안 먹고.(잘 안 먹고.)

107023 #1 못 먹어. 그건 잘못허당 아다리 걸려.(못 먹어. 그거는 잘못하다가 아
다리 걸려.)

107023 @ 아, 아다리 걸려마씨?(아, 아다리 걸려요?)

107023 #1 또 뭔가 고등어도 그렇고.(또 뭔가 고등어도 그렇고.)

107023 @ 아.(아.)

107023 #1 고등어도 물회로 먹었다장 안 돼여.(고등어도 물회로 먹었다가 안
돼.)

107023 @ 아.

107023 #1 갈치도 아니 돼여. 아다리 돼기가 쉬워 그거는.(갈치도 안 돼. 아디라
돼기가 쉬워 그거는.)

107023 @ 그 아다리가 뭐짱?(그 아다리가 무엇입니까?)

107023 #1 먹다가 그 토허고 뭐허고 허잖아.(먹다가 그 토하고 뭐하고 하잖아.)

107023 @ 예.(예.)

107023 #1 그제 아다리주게.(그제 아다리지.)

107023 @ 아, 그럼 여름에 보통 물회 먹었인가마씨?(아, 그럼 여름에 보통 물회
먹었었나요?)

107023 #1 어?(어?)

107023 @ 요즘에는 보통 여름에 물회 먹잖아예? 여름에.(요즘에는 보통 여름에
물회 먹잖아요? 여름에.)

107023 #1 어.(어.)

107023 @ 근데 예전에는 뭐 그런 거 었이. 그냥.(근데 예전에는 뭐 그런 거 없
이. 그냥.)

107023 #1 냉국.(냉국.)

107023 @ 아, 냉국.(아, 냉국.)

107023 #1 어. 이 배추 같은 거.(어. 이 배추 같은 거.)

107023 @ 예.(예.)

107023 #1 미역 미역 같은 거 그 빨아가지고 배추영 해서 그것에 썰어가지고 또 냉장고에 물 넣고.(미역 미역 같은 거 그 빨아가지고 배추와 해서 그것에 썰어가지고 또 냉장고에 물 넣고.)

107023 @ 예.(예.)

107023 #1 얼음 놓고 또 간 맞추면은 그게 물회되는 거라 말이여. 아니 저 냉국.(얼음 놓고 또 간 맞추면 그게 물회되는 거라 말이야. 아니 저 냉국.)

107023 @ 그럼 물회는 예전에는 여름에만 먹었수광? 아니면 그냥?(그럼 물회는 예전에는 여름에만 먹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107023 #1 그거는 본인 회 먹으러 강.(그거는 본인 회 먹으러 가서.)

107023 @ 예.(예.)

107023 #1 본인 요구대로 허는 거다.(본인 요구대로 하는 거다.)

107023 @ 요구대로 허는 거.(요구대로 하는 거.)

107023 #1 어. 물회를 먹을 건가 매운탕을 먹을 건가 볶음탕을 먹을 건가 그걸 다 물어봐.(어. 물회를 먹을 건가 매운탕을 먹을 건가 볶음탕을 먹을 건가 그걸 다 물어봐.)

107023 @ 아, 물어봐마씨?(아, 물어봐요?)

107023 #1 어. 먹을 사람한테 물어봐 그대로 해 줘.(아. 먹을 사람한테 물어봐서 그대로 해 줘.)

107023 @ 그대로 해 줘.(그대로 해 줘.)

107023 #1 강회 해달라고 허면 강회 해주고 물회 해달라고 허면 물회 해주고.(강회 해달라고 하면 강회 해주고 물회 해달라고 하면 물회 해주고.)

107023 @ 음.(음.)

107023 #1 이 바닷고기 취급허는 데는 아무거나 다 해 줘.(이 바닷고기 취급하는 데는 아무거나 다 해 줘.)

107023 @ 강회도 그냥 뭐 광어나 송어나 다 해마씨?(강회도 그냥 뭐 광어나 송어나 다 해요?)

107023 #1 어. 다 돼여.(어. 다 돼.)

107023 @ 다 돼여마씨?(다 돼요?)

107023 #1 바닷에서 나는 거는.(바닷에서 나는 거는.)

107023 @ 예.(예.)

107023 #1 강회에는 안 들어가는 거 있어. 성헌 거는 다 들어가.(강회에는 안 들어가는 거 없어. 성헌 거는 다 들어가.)

107023 @ 그럼.(그럼.)

107023 #1 자리도 강회로 들어가고.(자리도 강회로 들어가고.)

107023 @ 삼촌도 집에서 물회 해 먹었수광?(삼촌도 집에서 물회 해 먹었습니까?)

까?)

107023 #1 응?(응?)

107023 @ 물회 해 먹었마씨? 집에서?(물회 해 먹었어요? 집에서?)

107023 #1 집에서?(집에서?)

107023 @ 예.(예.)

107023 #1 집에서 저 바당서 나는 거 뭔가 오징어 곶은 거.(집에서 저 바다에서 나는 거 뭔가 오징어 곶은 거.)

107023 @ 예.(예.)

107023 #1 그런 거나 허영 물회 먹었주게. 오징어 곶은 거 승어는 물회 못 해먹고.(그런 거나 해서 물회 먹었지. 오징어 곶은 거 승어는 물회 못 해먹고.)

107023 @ 아까 물회 승에도 물회 해 먹는다고 했잖아마씨.(아까 물회 승어도 물회 해 먹는다고 했잖아요.)

107023 #1 승어, 곶등어.(승어, 곶등어.)

107023 @ 예. 갈치?(예. 갈치?)

107023 #1 어. 갈치 복쟁이 물회 안 돼여.(어. 갈치 복어 물회 안 돼.)

107023 @ 아. 그거는 안 돼마씨?(아. 그거는 안 돼요?)

107023 #1 어. 그거는 초가 강허게 들어가니까. 물회 안 돼여.(어. 그거는 초가 강하게 들어가니까. 물회 안 돼.)

107023 @ 초가 강허게 들어가니까?(초가 강하게 들어가니까?)

107023 #1 어. 초가 강허게 들어가야 먹지. 살들이 물러, 물러.(어. 초가 강하게 들어가야 먹지. 살들이 물러, 물러.)

107023 @ 아. 초 초 들어가니까 그런 물고기로 허민 안돼마씨?(아. 초 초 들어가니까 그런 물고기로 하면 안돼요?)

107023 #1 어.(어.)

죽류

107024 @ 그 죽 죽 잇잖아예?(그 죽 죽 잇잖아요?)

107024 #1 어.(어.)

107024 @ 죽에 쓰는 재료들은 뭐, 뭐 잇어마씨?(죽에 쓰는 재료들은 뭐, 뭐 잇어요?)

107024 #1 죽에 들어가는 거 재료라는 게 무슨 죽 허는 가에 따라 다르주게.(죽에 들어가는 거 재료라는 게 무슨 하는 가에 따라 다르지.)

107024 @ 종류에 따라 다르잖아예?(종류에 따라 다르잖아요?)

107024 #1 어.(어.)

107024 @ 뭐, 뭐가 잇어마씨?(뭐, 뭐가 잇어요?)

107024 #1 들어가는 거야 콩 별도로 들어가는 거 콩죽에 들어가는 거 잇지.(들어가는 거야 콩. 별도로 들어가는 거 콩죽에 들어가는 거 잇지.)

107024 @ 예.(예.)
 107024 #1 콩죽에 들어가는 게 옛날부터 감자.(콩죽에 들어가는 게 옛날부터 감자.)
 107024 @ 음.(음.)
 107024 #1 콩죽에 그거 하나. 무, 저 배추도 들어가주게.(콩죽에 그거 하나. 무, 저 배추도 들어가지.)
 107024 @ 예.(예.)
 107024 #1 무 곱은 거 배추 곱은 거 콩죽에 들어가고.(무 곱은 거 배추 곱은 거 콩죽에 들어가고.)
 107025 @ 삼촌 그럼 흰죽 흰죽 좀 얘기해 줘서.(삼촌 그럼 흰죽 흰죽 좀 얘기해 주십시오.)
 107025 #1 흰죽이엔 현 거는 곤살 곤살 넣어근영 쏜 것이 그게 흰죽.(흰죽이라고 한 거는 흰쌀 흰쌀 넣어가지고 쏜 것이 그게 흰죽.)
 107026 @ 예. 그럼 조죽은 뭐짱?(예. 그럼 조죽은 무엇입니까?)
 107026 #1 좁쌀만 넣어가지고 현 거.(좁쌀만 넣어가지고 한 거.)
 107026 @ 아.(아.)
 107027 @ 그럼 팔죽은?(팔죽은?)
 107027 #1 팻. 팻만. 팻허고 곤살.(팔, 팔만. 팔하고 흰쌀.)
 107027 @ 그런데 죽에 따라서 언제 특별히 먹는 날은 엇어마씨?(그런데 죽에 따라서 언제 특별히 먹는 날은 없어요?)
 107027 #1 흰죽은 보통 때 먹는 거고.(흰죽은 보통 때 먹는 거고.)
 107027 @ 예.(예.)
 107027 #1 팻죽이엔 현 거는 이 영장 때.(팔죽이라고 한 거는 이 장사 때.)
 107027 @ 영장.(장사.)
 107027 #1 영장날 적에. 왜 그러냐면 그거는 거기 온 사람들 먹는 중에 잡신을 방지한다고.(장삿날 적에. 왜 그러냐면 그거는 거기 온 사람들 먹는 중에 잡신을 방지한다고.)
 107027 @ 아. 조죽은 그럼?(아. 조죽은 그럼?)
 107027 #1 조죽은 벨로 안 썬어 먹어 옛날에도.(조죽은 벨로 안 썬어 먹어 옛날에도.)
 107028 @ 콩죽은마씨?(콩죽은요?)
 107028 #1 콩죽은 썬어 먹주게.(콩죽은 썬어 먹지.)
 107028 @ 어떻 해 먹어마씨?(어떻게 해 먹었어요?)
 107028 #1 콩죽은 배추 넣고 저 콩 뭐가 감저 잇잖아.(콩죽은 배추 넣고 저 콩 뭐가 고구마 잇잖아.)
 107028 @ 예.(예.)
 107028 #1 그 고구마.(그 고구마.)

107028 @ 예.(예.)

107028 #1 그런 거. 그런 거 끝은 거 넣어가지고.(그런 거. 그런 거 같은 거 넣어가지고.)

107028 @ 예.(예.)

107028 #1 그거 즐게 행 넣어가지고 죽이영 끝이 먹는다고. 그거 옛날에 하영 먹어났주게.(그거 잘게 해서 넣어가지고 죽이랑 같이 먹는다고. 그거 옛날에 많이 먹었었지.)

107029 @ 아, 그럼 혹시 메밀죽은 드션마씨? 메밀죽?(아, 그럼 혹시 메밀죽은 드셨어요?)

107029 #1 메밀죽도 있어.(메밀죽오 있어.)

107029 @ 메밀죽은 언제 드션마씨?(메밀죽은 언제 드셨어요?)

107029 #1 메밀죽은 지금 현재 ㄹ는 걸로 허지. 메밀죽은 죽 쭈어 먹는 건 굵어 방울이.(메밀죽은 지금 현재 가는 걸로 하지. 메밀죽은 죽 쭈어 먹는 건 굵어 방울이.)

107029 @ 아. 예.(아, 예.)

107029 #1 방울 굵어서 그거만 놔가지고 죽 쭈는 게 그게 메밀죽.(방울 굵어서 그거만 놔가지고 죽 쭈는 게 그게 메밀죽.)

107029 @ 아. 방울이 굵어마씨?(아. 방울이 굵어요?)

107029 #1 그냥 지가 떡 허는 거는 가루가 줌지는다¹⁰¹.(그냥 지가 떡 하는 거는 가루가 잘고 가는데.)

107029 @ 아. 떡 떡 메밀떡 할 때는 가루가 줌지는다.(아. 떡 떡 메밀떡 할 때는 가루가 잘고 가는데.)

107029 #1 어.(어.)

107029 @ 죽 할 때는?(죽 할 때는?)

107029 #1 죽 할 때는 메밀이 저 줌 굵주게. 그냥 깨끗이만 헤가지고 그냥 죽 끓여 먹주게.(죽 할 때는 메밀이 저 줌 굵지. 그냥 깨끗이만 헤가지고 그냥 죽 끓여 먹지.)

107029 @ 그럼 그거 나올 때 굵기가 달라마씨?(그럼 그거 나올 때 굵기가 달라요?)

107029 #1 나올 때 다르주게.(나올 때 다르지.)

107029 @ 아, 다르니까 이거는 죽으로 헤먹고 이거는 떡으로 헤먹고?(아, 다르니까 이거는 죽으로 헤먹고 이거는 떡으로 헤먹고?)

107029 #1 어. 떡 해서 먹는 거 따로 나오고 죽 해서 먹는 게 따로 나오고.(어. 떡 해서 먹는 거 따로 나오고 죽 해서 먹는 게 따로 나오고.)

107029 @ 아.(아.)

107029 #1 죽 헤 먹는 거, 죽 헤 먹는 거는 한번 딱 허면은 죽 헤 먹을 거 나오

101) ‘줍질다’는 물건이 잘고 가늘다는 뜻을 가진 제주어이다.

는데.(죽 해 먹는 거, 죽 해 먹는 거는 한번 딱 하면 죽 해 먹을 거 나오는데.)

107029 @ 예.(예.)

107029 #1 또 그거 이제 방에서 한번 허면은 껍데기는 껍데기만 영 나오는 거는 그거는 죽 쑤어 먹을 수 있고.(또 그거 이제 방아에서 한번 하면 껍데기는 껍데기만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거는 죽 쑤어 먹을 수 있고.)

107029 @ 예.(예.)

107029 #1 또 그거 버려두고 또 알맹이만 갈아야 떡으로 만들엉 나와. 떡으로 만들어.(또 그거 버려두고 또 알맹이만 갈아야 떡으로 만들어서 나와. 떡으로 만들어.)

107030 @ 녹두죽도 행 드션마씨?(녹두죽도 해서 드셨어요?)

107030 #1 녹디죽?(녹두죽?)

107030 @ 예.(예.)

107030 #1 녹디죽도 쌀만 들어가.(녹두죽도 쌀만 들어가.)

107030 @ 쌀만?(쌀만?)

107030 #1 어.(어.)

107030 @ 아, 녹두죽 쌀만 들어가마씨?(아, 녹두죽 쌀만 들어가요?)

107030 #1 어. 쌀허고 녹디허고.(어. 쌀하고 녹두하고.)

107030 @ 녹두는 키워 보션마씨?(녹두는 키워 보셨어요?)

107030 #1 어?(어?)

107030 @ 녹두는 어디서 주로 얻언마씨?(녹두는 어디서 주로 얻나요?)

107030 #1 녹디, 녹디는 여기서 나주게. 나는 데는.(녹두, 녹두는 여기서 나지. 나는 데는.)

107030 @ 아.(아.)

107030 #1 이 여기 근방에는 안 나고 웃드르¹⁰²에서 나오주게. 우에서.(이 여기 근방에는 안 나고 ‘웃드르’에서 나오지. 위에서.)

107030 @ 그럼 옛날에 녹두죽은 어떻 만들어마씨?(그럼 옛날에 녹두죽은 어떻게 만들어요?)

107030 #1 어?(어?)

107030 @ 녹두죽은 어떻게 만들어마씨?(녹두죽은 어떻게 만들어요?)

107030 #1 녹디죽은 그냥 마찬가지로. 녹디 들어가고 쌀 들어가니까 녹디죽이주게.(녹두죽은 그냥 마찬가지로. 녹두 들어가고 쌀 들어가니까 녹두죽이지.)

107030 @ 아, 녹두 그냥 들어가니까?(아, 녹두 그냥 들어가니까?)

107030 #1 어.(어.)

107030 @ 그럼 이걸 언제 먹어마씨?(그럼 이걸 언제 먹어요?)

107030 #1 그거는 뭐 자기 먹고 싶으면 아무 때나.(그거는 뭐 자기 먹고 싶으면

102) ‘웃드르’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 근처의 들, 또는 그런 곳에서 이루어진 마을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아무 때나.)

107031 @ 그럼 닭죽 잇잖아예?(그럼 닭죽 잇잖아요?)

107031 #1 어?(어?)

107031 @ 닭죽. 닭죽.(닭죽. 닭죽.)

107031 #1 닭?(닭?)

107031 @ 예. 닭죽.(예. 닭죽.)

107031 #1 어.(어.)

107031 @ 그것도 죽에다가 닭 넣은 거잖아예.(그것도 죽에다가 닭 넣은 거잖아
요.)

107031 #1 닭죽이엔 현 게. 그렇지.(닭죽이라고 한 게. 그렇지.)

107031 @ 예. 그거는 뭐 특별할 때 안 드션마씨?(예. 그거는 뭐 특별할 때 안
드셨어요?)

107031 #1 특별헌 게 잇어.(특별한 게 없어.)

107032 @ 그럼 강이죽?(그럼 개죽?)

107033 #1 꿩죽.(개죽.)

107033 @ 예. 꿩죽.(예. 개죽.)

107033 #1 꿩죽도 아무 때나 자기 먹고 싶으면 먹주게.(개죽도 아무 때나 자기
먹고 싶으면 먹지.)

107033 @ 아, 그럼 꿩죽은 어떻 만들어마씨?(아, 그럼 개죽은 어떻게 만들어
요?)

107033 #1 꿩죽은 꿩을 저 빵아.(개죽은 개를 저 빵아.)

107033 @ 예.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마씨?(예.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107033 #1 아니야 그냥 집어넣는 게. 그걸 ㄱ루 만들어서 허주게.(아니야 그냥
집어넣는 게. 그걸 가루 만들어서 하지.)

107033 @ 아.(아.)

107033 #1 ㄱ루 만들어서 그거허고 저 뭐가 쓸허고.(가루 만들어서 그거하고 저
뭐가 쌀하고.)

107033 @ 섞어가지고.(섞어가지고.)

107033 #1 어.(어.)

107033 @ 그 다음에 지금 물어본 죽 말고 다른 죽 생각나는 거 잇어마씨? 해
먹은 거 중에?(그 다음에 지금 물어본 죽 말고 다른 죽 생각나는 거 없어요? 해 먹
은 거 중에?)

107033 #1 어?(어?)

107033 @ 꿩죽 그런 거 안 드션마씨? 들죽이나?(꿩죽 그런 거 안 드셨어요? 말
죽이나?)

107033 #1 그거 웨에는 뭐 별로. 이 죽 농촌에서는 여러 가지를 못 행 먹엇주
게.(그거 외에는 뭐 별로. 이 죽 농촌에서는 여러 가지를 못 해서 먹엇지.)

107033 @ 옛날에 밥 보리 잘 안 날 때 죽 많이 드셨지요?(옛날에 밥 보리 잘 안 날 때 죽 많이 드셨지요?)

107033 #1 어. 그렇지.(어. 그렇지.)

107033 @ 그럼 무슨 죽 행 먹었마씨?(그럼 무슨 죽 해서 먹었어요?)

107033 #1 그 때는 죽이엔 흰 거는.(그 때는 죽이라고 한 거는.)

107033 @ 예.(예.)

107033 #1 못 살 때는 보리쌀, 호박잎, 나물 이 뭔가 밥 먹영 뭐 먹어서 배불 걸로만 만들었주게.(못 살 때는 보리쌀, 호박잎, 나물 이 뭔가 밥 먹어서 뭐 먹어서 배부른 걸로만 만들었지.)

107033 @ 예.(예.)

107033 #1 배추도 넣으면 얼마 안 먹어도 배부르고. 호박잎도 넣으면 얼마 안 먹어도 배부르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사용했주게.(배추도 넣으면 얼마 안 먹어도 배부르고. 호박잎도 넣으면 얼마 안 먹어도 배부르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사용했지.)

범벅과 수제비

107034 @ 삼촌 그럼 범벅 종류 좀 얘기해 줘서. 범벅(삼촌 그럼 범벅 종류 좀 얘기해 주십시오. 범벅.)

107034 #1 범벅 종류?(범벅 종류?)

107034 @ 예. 범벅 그니깐 범벅이 우선 뭐짱?(예. 범벅 그니깐 범벅이 우선 무엇입니까?)

107034 #1 범벅이엔 흰 게.(범벅이라고 한 게.)

107034 @ 예.(예.)

107034 #1 ㄹ로.(가루.)

107034 @ 가루. 뭐 할 때 쓰는 가루마씨?(가루. 뭐 할 때 쓰는 가루요?)

107034 #1 어?(어?)

107034 @ 뭐 할 때 쓰는 가루?(뭐 할 때 쓰는 가루?)

107034 #1 아무거나 할 때 쓰는 ㄹ로. 별도로 잇는 거라. 그거는.(아무거나 할 때 쓰는 가루. 별도로 잇는 거라. 그거는.)

107034 @ 아.(아.)

107034 #1 좁쌀ㄹ로도 잇고 저 보릿ㄹ로도 잇고.(좁쌀가루도 잇고 저 보릿가루도 잇고.)

107034 @ 음.(음.)

107034 #1 감저ㄹ로 그 저 고구마ㄹ로도 잇고.(고구마가루 그 저 고구마가루도 잇고.)

107034 @ 예.(예.)

107034 #1 ㄹ로엔 허는 거는 다 범벅을 범벅 만들민 범벅으로 ㄹ로. ㄹ로 이름

이 나와서 그 이름에 범벅이라.(가루라고 하는 거는 다 범벅을 범벅 만들면 범벅으로 가루. 가루 이름이 나와서 그 이름에 범벅이라.)

107034 @ 아. 그럼 좁쌀 범벅.(아. 그럼 좁쌀 범벅.)

107034 #1 어. 조범벅.(어. 조범벅.)

107034 @ 예.(예.)

107034 #1 쌀범벅. 또 감제범벅 이렇게 나오주게.(쌀범벅. 또 고구마범벅 이렇게 나오지.)

107034 @ 그걸로 이제 나중에 음식 할 때 쓰는 거짱?(그걸로 이제 나중에 음식 할 때 쓰는 것입니까?)

107034 #1 응.(응.)

107035 @ 수제비 종류도 알아마씨?(수제비 종류도 알아요?)

107035 #1 수제비?(수제비?)

107035 @ 예.(예.)

107035 #1 수제비야 만드는 것은 저 동글락 동글락 만들엉 물 끓여가지고 툯툯 집어넣.(수제비야 만드는 것은 저 동글락 동글락 만들어서 물 끓여가지고 툯툯 집어 넣어서.)

107035 @ 예.(예.)

107035 #1 만들어서 찰 찰죽 끓이다가 집어넣 만든 게 그거 수제비.(만들어서 쌀 찰죽 끓이다가 넣어가지고 만든 게 그거 수제비.)

107035 @ 예. 그러면 수제비 종류에는 뭐 잇언마씨?(예. 그러면 수제비 종류에는 뭐 있었어요?)

107035 #1 수제비 종류? 조. 것도 마찬가지로.(수제비 종류? 조. 것도 마찬가지로야.)

107035 @ 마찬가지로라도 얘기해 줘서.(마찬가지라도 얘기해 주십시오.)

107035 #1 곤쌀.(흰쌀.)

107035 @ 예.(예.)

107035 #1 또 메밀.(또 메밀.)

107035 @ 예.(예.)

107035 #1 또 뭐냐 현 몇 가지 잇는데.(또 뭐냐 한 몇 가지 잇는데.)

107035 @ 메밀은 여기서 메밀이라고 해마씨?(메밀은 여기서 메밀이라고 해요?)

107035 #1 응. 모밀.(응. ‘모밀’.)

107035 @ 아. 모밀.(아. ‘모밀’)

107035 #1 어. 모밀. 메밀이엔 현 게 현재 나오는 말이 메밀이고. 모밀.(어. ‘모밀’. 메밀이라고 한 게 현재 나오는 말이 메밀이고. ‘모밀’.)

107035 @ 아. 모밀.(아. ‘모밀’.)

107035 #1 어.(어.)

107035 @ 경 얘기해 주시면 좋아마씨.(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107036 @ 칼국수는 드션마씨? 칼국수.(칼국수는 드셨어요? 칼국수.)
 107036 #1 칼국수?(칼국수?)
 107036 @ 예.(예.)
 107036 #1 그게 칼국수엔 흰 거는. 밀. 또 모밀.(그게 칼국수라고 한 거는. 밀. 또 메밀.)
 107036 @ 예.(예.)
 107036 #1 그거.(그거.)
 107036 @ 그걸로? 행 드셔 보션마씨? 칼국수?(그걸로? 해서 드셔 보셨어요? 칼국수?)
 107036 #1 어.(어.)

김치

107037 @ 그럼 김치 좀 물어볼게예.(그럼 김치 좀 물어볼게요.)
 107037 #1 어.(어.)
 107037 @ 김치마씨.(김치요.)
 107037 #1 어.(어.)
 107037 @ 김치 종류가 뭐, 뭐 잇언마씨? 여기 요즘 말앙 옛날.(김치 종류가 뭐, 뭐 있었어요? 여기 요즘 말고 옛날.)
 107037 #1 옛날에는 늬삐김치.(옛날에는 무김치.)
 107037 @ 예. 늬삐김치.(예. 무김치.)
 107037 #1 배추김치.(배추김치.)
 107037 @ 예.(예.)
 107037 #1 그게 그거지 뭐.(그게 그거지 뭐.)
 107038 @ 아, 그럼 배추김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줘서. 배추김치.(아, 그럼 배추김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배추김치.)
 107038 #1 배추김치는 배추로 만드는 게 배추김치주게.(배추김치는 배추로 만드는 게 배추김치지.)
 107038 @ 예. 어떻 만들어마씨? 배추김치. 옛날에.(예. 어떻게 만들어요? 배추김치. 옛날에.)
 107038 #1 영 만드는 거는 그 때는 저 고치, 마늘 거밖에 못 들어갔어.(이렇게 만드는 거는 그 때는 저 고추, 마늘 거밖에 못 들어갔어.)
 107038 @ 아.(아.)
 107038 #1 젓갈허고.(젓갈하고.)
 107038 @ 아, 젓갈도 들어간마씨?(아, 젓갈도 들어갔어요?)
 107038 #1 어 젓갈도 들어갔어.(어 젓갈도 들어갔어.)
 107038 @ 무슨 젓갈 들어간마씨?(무슨 젓갈 들어갔어요?)
 107038 #1 멜젓, 멜젓.(멸치젓. 멸치젓.)

107038 @ 그럼 김치 만들 때.(그럼 김치 만들 때.)
 107038 #1 어.(어.)
 107038 @ 보통 다 같이 만들었마씨? 아니면 집에서 그냥 따로 따로 개인적으로 만들었마씨?(보통 다 같이 만들었어요? 아니면 집에서 그냥 따로 따로 개인적으로 만들었어요?)
 107038 #1 따로 아니. 다 같이 만들었어.(따로 아니. 다 같이 만들었어.)
 107038 @ 아, 옛날에도?(아, 옛날에도?)
 107038 #1 지금 만들 듯이. 옛날도 똑같은 방식이다.(지금 만들 듯이. 옛날도 똑같은 방식인데.)
 107038 @ 예.(예.)
 107038 #1 옛날은 그 이름만 다를 뿐이지. 지금이영 비슷해.(옛날은 그 이름만 다를 뿐이지. 지금이랑 비슷해.)
 107039 @ 그럼 열무김치는 안 만들었마씨?(그럼 열무김치는 안 만들었어요?)
 107039 #1 열무김치 옛날에?(열무김치 옛날에?)
 107039 @ 예.(예.)
 107039 #1 것도 김치 종내기로 들어가. 벨도로, 벨도로 열무김치 뭐 이런 거 안 했어. 옛날에는.(것도 김치 종내기로 들어가. 벨도로, 벨도로 열무김치 뭐 이런 거 안 했어. 옛날에는.)
 107040 @ 아, 기짱? 그럼 물김치는마씨?(아, 그렇습니까? 그럼 물김치는요?)
 107040 #1 옛날에?(옛날에?)
 107040 @ 예.(예.)
 107040 #1 옛날에 물김치는 저 무 썰어근영.(옛날에 물김치는 저 무 썰어서.)
 107040 @ 예.(예.)
 107040 #1 물, 물, 물김치.(물, 물, 물김치.)
 107040 @ 물김치 그러니까.(물김치 그러니까.)
 107040 #1 예.(예.)
 107040 @ 소금에 줌 절였다가.(소금에 줌 절였다가.)
 107040 #1 예.(예.)
 107040 @ 건져내가지고 간 맞춰서 멘드는 게 그 물김치주게.(건져내가지고 간 맞춰서 만드는 게 그 물김치지.)
 107040 #1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7041 @ 동지집치¹⁰³⁾ 알아마씨?(‘동지집치’ 알아요?)
 107041 #1 동지는 배추.(동지는 배추.)
 107041 @ 예.(예.)
 107041 #1 우에 그 동지 꽃 피는 나는 게 잇잖아.(위에 그 동지 꽃 피는 나는 게 잇잖아.)

103) ‘동지집치’는 배추 따위에서 돌아난 연한 장다리로 담근 김치를 말하는 제주어이다.

107041 @ 예.(예.)

107041 #1 나가지고 꽃 필 때 허는 거.(나가지고 꽃 필 때 하는 거.)

107041 @ 예.(예.)

107041 #1 그거 꺾어가지고 소금에 절였다가 멘드는 게 동지김치주게.(그거 꺾어가지고 소금에 절였다가 만드는 게 ‘동지김치’지.)

107042 @ 그럼 무김치. 늬삐김치지예? 무김치가.(그럼 무김치. ‘늬삐김치’지요? 무김치가.)

107042 #1 어.(어.)

107042 @ 옛날에 늬삐김치는 늬삐만 들어가마씨?(옛날에 무김치는 무만 들어가요?)

107042 #1 늬삐허고 들어가는 거는 뭐 저 뭐가 배추김치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마늘, 고춧가루 들어가는 거뿐이지. 뭐.(무하고 들어가는 거는 뭐 저 뭐가 배추김치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 마늘, 고춧가루 들어가는 거뿐이지. 뭐.)

107043 @ 그럼 파김치에 대해서도 얘기해 줘서.(그럼 파김치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십시오.)

107043 #1 파김치도 마찬가지. 파 들어갈 뿐이주게.(파김치도 마찬가지. 파 들어갈 뿐이지.)

107043 @ 예.(예.)

107043 #1 그거 무김치 파김치 허는 거는 그것에 재료가 나오는 걸로 이름을 얘기허는 거주게.(그거 무김치 파김치 하는 거는 그것에 재료가 나오는 걸로 이름을 얘기하는 거지.)

107044 @ 그럼 달래김치는마씨?(그럼 달래김치는요?)

107044 #1 달래?(달래?)

107044 @ 달래김치는 들어 봤수광?(달래김치는 들어 봤습니까?)

107044 #1 옛날에 달래김치는 엇어. 여기에는.(옛날에 달래김치는 없어. 여기에는.)

107044 @ 달래김치는 엇언마씨?(달래김치는 없었어요?)

107044 #1 어.(어.)

107045 @ 그럼 갓김치는 알아마씨? 갓김치.(그럼 갓김치는 알아요? 갓김치.)

107045 #1 응?(응?)

107045 @ 갓김치마씨.(갓김치요.)

107045 #1 갓김치도 옛날에는 안 만들엇어. 여기서는(갓김치도 옛날에는 안 만들엇어. 여기서는.)

107045 @ 그럼 갓김치는 이게 뭐짱?(그럼 갓김치는 이게 무엇입니까?)

107045 #1 갓김치는 그것이 지금 같으면. 지금도 저거 갓김치라고 할 텐데.(갓김치는 그것이 지금 같으면. 지금도 저거 갓김치라고 할 텐데.)

107045 @ 예.(예.)

107045 #1 그냥 무로 그냥 김치 만드는 것이 있어. 통째로 만든 게.(그냥 무로 그냥 김치 만드는 것이 있어. 통째로 만든 게.)

107046 @ 부추김치는마씨?(부추김치는요?)

107046 #1 응?(응?)

107046 @ 부추김치.(부추김치.)

107046 #1 부추?(부추?)

107046 @ 예. 삼촌 혹시 부추김치 만들어 판마씨?(예. 삼촌 혹시 부추김치 만들어 봤어요?)

107046 #1 여기는 부추김치 없어.(여기는 부추김치 없어.)

107047 @ 그럼 배추김치나 늬빠김치 만드는 법은 알아마씨? 담그는 법? 삼촌?(그럼 배추김치나 무김치 만드는 법은 알아요? 담그는 법? 삼촌?)

107047 #1 그거야 뭐 마찬가지로.(그거야 뭐 마찬가지로이지.)

107047 @ 예. 그럼 천천히 그 얘기해 줘서. 천천히.(예. 그럼 천천히 그 얘기해 주십시오. 천천히.)

107047 #1 초담에.(처음에.)

107047 @ 예. 처음에는 배추랑 무. 늬빠 따왕.(예. 처음에는 배추랑 무. 무 따와서.)

107047 #1 어. 따왕.(어. 따와서.)

107047 @ 거기서부터 얘기해 줘서.(거기서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107047 #1 따와서 시쳐가지고.(따와서 씻어가지고.)

107047 @ 예.(예.)

107047 #1 소금에 절일 때.(소금에 절일 때.)

107047 @ 예.(예.)

107047 #1 이게 시간을 본다 말이야.(이게 시간을 본다 말이야.)

107047 @ 예.(예.)

107047 #1 이게 몇 시가 돼나면 보통 그때나 이때나 저녁 시간은 마찬가지로. 저녁 때. 뒷날 아침에 건져내가지고 시킨다 말이야.(이게 몇 시가 되나면 보통 그때나 이때나 저녁 시간은 마찬가지로. 저녁 때. 뒷날 아침에 건져내가지고 씻은다 말이야.)

107047 @ 예.(예.)

107047 #1 옛날엔 배추를 소금에 절이지 못했어.(옛날에는 배추를 소금에 절이지 못했어.)

107047 @ 그럼 뒤에 절연마씨?(그럼 뒤에 절였어요?)

107047 #1 웃드르는 소금에 웃드리에서도 여기 와서 짠물 지러가. 바닷물.(‘웃드르’는 소금에 ‘웃드리’에서도 여기 와서 짠물 길러가. 바닷물.)

107047 @ 바닷물.(바닷물.)

107047 #1 바다에 강 바닷물에서 이제 그 배추를 담가.(바다에 가서 바닷물에

이제 그 배추를 담가.)

107047 @ 예.(예.)

107047 #1 배추를 담가. 여기는 망사리에 배추를 담아 놔근영.(배추를 담가. 여기는 망사리에 배추를 담아 놔가지고.)

107047 @ 음.(음.)

107047 #1 그 배추를 물 들였다 씻다 허는 디서 허주게.(그 배추를 물 들였다 씻다 하는 데서 하지.)

107047 @ 예.(예.)

107047 #1 그걸 가져와서 거기서 시쳐서 이제 마늘 뭐 젓갈 고춧가루 그거 세 가지 넣어가지고 범벅 닦게 만들어.(그걸 가져와서 거기서 씻어서 이제 마늘 뭐 젓갈 고춧가루 그거 세 가지 넣어가지고 범벅 닦게 만들어.)

107047 @ 예.(예.)

107047 #1 만드는 거는 마찬가지로.(만드는 거는 마찬가지로.)

107047 @ 예.(예.)

107047 #1 저 배추에다가 허면은 그것이 김치 되는 거주게.(저 배추에다가 하면 그것이 김치 되는 거지.)

젓갈

107048 @ 그럼 이제 그 젓갈 종류 좀 물어볼게예.(그럼 이제 그 젓갈 종류 좀 물어볼게요.)

107048 #1 어.(어.)

107048 @ 젓갈은 뭐, 뭐 잇우광? 젓갈은?(젓갈은 뭐, 뭐 있습니까? 젓갈은?)

107048 #1 옛날에? 옛날?(옛날에? 옛날?)

107048 @ 예. 옛날에.(예. 옛날에.)

107048 #1 옛날에 젓갈 종류 여러 가지 없었어.(옛날에 젓갈 종류 여러가지 없었어.)

107048 @ 음.(음.)

107048 #1 뭔가 뭘젓.(뭔가 뭘치젓.)

107048 @ 예.(예.)

107048 #1 또 자리젓.(또 자리젓.)

107048 @ 예.(예.)

107048 #1 그거밖에 없었어.(그거밖에 없었어.)

107048 @ 그거밖에 엇언마씨?(그거밖에 없었어요?)

107048 #1 어.(어.)

107049 @ 그럼 자리젓 좀 얘기해 줘서. 자리젓 어떻게 만드는 건지.(그럼 자리젓 좀 얘기해 주십시오. 자리젓 어떻게 만드는 건지.)

107049 #1 자리젓?(자리젓?)

107049 @ 예.(예.)

107049 #1 옛날에 자리젓이야 젓 만드는 거야 마찬가지로.(옛날에 자리젓이야 젓 만드는 거야 마찬가지로.)

107049 @ 자리젓 만들 때 예전에는 뭐 들어간마씨?(자리젓 만들 때 예전에는 뭐 들어가요?)

107049 #1 어?(어?)

107049 @ 생선에는 뭐 들어간마씨?(생선에는 뭐 들어갔나요?)

107049 #1 뭐 드는 게 있어? 간 맞춰서 소금해서.(뭐 드는 게 있어? 간 맞춰서 소금해서.)

107049 @ 예.(예.)

107049 #1 이제 간이 맞으면은 한 것에 요만한 항아리에 담아가지고.(이제 간이 맞으면 한 것에 요만한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107049 @ 자리젓이 물고기 이름이잖?(자리젓이 물고기 이름입니까?)

107049 #1 어. 물고기.(어. 물고기.)

107049 @ 무슨 물고기잖?(무슨 물고기입니까?)

107049 #1 자리돔이엔 현 거. 이 모슬포에서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자리돔이라고 한 거. 이 ‘모슬포’에서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

107049 @ 자리돔?(자리돔?)

107049 #1 어. 자리돔.(어. 자리돔.)

107049 @ 이거는 예전에도 인근에서 잘 잡현마씨?(이거는 예전에도 인근에서 잘 잡혔어요?)

107049 #1 이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주에서 노상 잡혔지 뭐.(이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주에서 노상 잡혔지 뭐.)

107049 @ 아.(아.)

107049 #1 아무 데나.(아무 데나.)

107050 @ 그럼 멜젓 잇잖아예.(그럼 멀치젓 잇잖아요.)

107050 #1 응.(응.)

107050 @ 멜젓은 그 종류가 많잖아예?(멀치젓은 그 종류가 많잖아요?)

107050 #1 어.(어.)

107050 @ 큰 것도 잇고 작은 것도 잇고.(큰 것도 잇고 작은 것도 잇고.)

107050 #1 멜?(‘멜’?)

107050 @ 예.(예.)

107050 #1 큰 거 작은 거. 머루치허고.(큰 거 작은 거. ‘머루치’하고.)

107050 @ 예.(예.)

107050 #1 머루치라고 허는 거는 작은 건디.(‘머루치’라고 하는 거는 작은 건 데.)

107050 @ 아, 머루치는 작은 거마씨?(아, ‘머루치’는 작은 거예요?)

107050 #1 머루치엔 허는 거는 작은 거고 멜이엔 현 거는 큰 건디. 단 두 가지 두 가지 이름밖에 안 나와.('머루치'라고 하는 거는 작은 거고, '멜'이라고 한 거는 큰 건데. 단 두 가지 두 가지 이름밖에 안 나와.)

107050 @ 아.(아.)

107050 #1 저 옛날은.(저 옛날은.)

107050 @ 아, 옛날엔 멜이랑 머루치 따로 얘기 헐마씨?(아, 옛날에는 '멜'이랑 '머루치' 따로 얘기 했어요?)

107050 #1 어. 그거 따로.(어. 그거 따로.)

107050 @ 음.(음.)

107050 #1 그거밖에 엇어.(그거밖에 없어.)

107050 @ 그럼 머루치로는 젓갈 안 담안마씨?(그럼 '머루치'로는 젓갈 안 담았어요?)

107050 #1 머루치도 젓갈 담주게.('머루치'도 젓갈 담지.)

107050 @ 그럼 그건 무슨 것이짱?(그럼 그건 무슨 것입니까?)

107050 #1 그거?(그거?)

107050 @ 예. 머루치것이짱?(예. '머루치'입니까?)

107050 #1 머루치젓, 머루치젓은 그냥 그거 이름 들어가는 것이 마찬가지로.('머루치젓', '머루치젓'은 그냥 그거 이름 들어가는 것이 마찬가지라.)

107050 @ 아, 마찬가지마씨.(아, 마찬가지요.)

107050 #1 그 멜젓, 머루치젓 그것밖에 엇어.(그 '멜젓', '머루치젓' 그것밖에 없었어요.)

107050 @ 멜젓은 많이 들어 봐신디 머루치젓은 거의 안 들어본 거 다향마씨. ('멜젓'은 많이 들어 봤는데 '머루치젓'은 거의 안 들어본 거 같아요.)

107050 #1 응?(응?)

107050 @ 삼촌, 멜젓은 많이 들어 봐신디 머루치젓은 거의 안 들어봤마씨.(삼촌, '멜젓'은 많이 들어 봤는데 '머루치젓'은 거의 안 들어 봤어요.)

107050 #1 거의 안 만들어. 머루치젓은.(거의 안 만들어. '머루치젓'은.)

107050 @ 아, 거의 안 만들었마씨?(아, 거의 안 만들었어요?)

107050 #1 어.(어.)

107051 @ 아감젓은 뭐짱?(아감젓은 무엇입니까?)

107051 #1 아가미젓은 그 고기.(아감젓은 그 고기.)

107051 @ 예.(예.)

107051 #1 생선 곱은 거.(생선 곱은 거.)

107051 @ 예.(예.)

107051 #1 그 뭔가 배 벌리지 안 허냐.(그 뭔가 배 벌리지 안 하냐.)

107051 @ 예.(예.)

107051 #1 생선 배 벌리면은 이디 잇잖아. 여기.(생선 배 벌리면 여기 잇잖아.)

여기.)

107051 @ 예.(예.)

107051 #1 여기 아가미엔 현 것이. 이게 아가미주께.(여기 아가미라고 한 것이. 이게 아가미지.)

107051 @ 예.(예.)

107051 #1 고기 끝으면 아가미인데. 그것에서 도새기 끝으면 **허고 **허고 같이 붙어서 나와.(고기 같으면 아가미인데. 그것에서 돼지 같으면 **하고 **하고 같이 붙어서 나와.)

107051 @ 예.(예.)

107051 #1 같이 붙어서 나오면은 그 대창이엔 현 것이 있어.(같이 붙어서 나오면 그 대창이라고 한 것이 있어.)

107051 @ 음.(음.)

107051 #1 옛날 같으면 대창.(옛날 같으면 대창.)

107051 @ 예.(예.)

107051 #1 그 음식 먹으면 모여지는 데 잇잖아.(그 음식 먹으면 모여지는 데 잇잖아.)

107051 @ 예.(예.)

107051 #1 그거 대창인디 그걸 찌서 찌근앵 시쳐.(그거 대창인데 그걸 찌서 찌가지고 찌어.)

107051 @ 예.(예.)

107051 #1 그것에 간 맞춰가지고 소금 넣어가지고 담는 게 아가미젓이지.(그것에 간 맞춰가지고 소금 넣어가지고 담는 게 아감젓이지.)

107051 @ 아가미젓은 그 생선으로 허는 거지예?(아감젓은 그 생선으로 하는 거지요?)

107051 #1 어?(어?)

107051 @ 생선으로 물고기로 허는 거지예? 아가미젓은?(생선으로 물고기로 하는 거지요? 아감젓은?)

107051 #1 어. 생선.(어. 생선.)

107051 @ 근데 아까 대창은? 아, 물고기에 대창?(근데 아까 대창은? 아, 물고기에 대창?)

107051 #1 어. 물고기에 대창.(어. 물고기에 대창.)

107051 @ 아. 그럼 무슨 물고기로 헤마씨? 아무거나?(아. 그럼 무슨 물고기로 해요? 아무거나?)

107051 #1 아니야.(아니야.)

107051 @ 그럼?(그럼?)

107051 #1 여러 가지 물고기 종류가 있지.(여러 가지 물고기 종류가 있지.)

107051 @ 그럼 뭐, 뭐. 어떤 물고기로 아가미젓 만들언마씨?(그럼 뭐, 뭐. 어떤

물고기로 아감젓 만들었어요?)

107051 #1 아가미젓이엔 현 것이. 뭐. 그전에는 그 옛날 생선.(아가미젓이라고 한 것이. 뭐. 그전에는 그 옛날 생선.)

107051 @ 예.(예.)

107051 #1 생선 바다. 이 지금은 보통적으로 생선이라고 하지.(생선 바다. 이 지금은 보통적으로 생선이라고 하지.)

107051 @ 예.(예.)

107051 #1 옛날은 저 바다에서 먼 데서 돛 달아가지고.(옛날은 저 바다에서 먼 데서 돛 달아가지고.)

107051 @ 예.(예.)

107051 #1 멀리서 잡아온 게 예쁘게 생긴 것이 그것이 생선이주게.(멀리서 잡아온 게 예쁘게 생긴 것이 그것이 생선이지.)

107051 @ 아, 곱들락헝게¹⁰⁴ 생긴 거?(아, ‘곱들락헝게’ 생긴 거?)

107051 #1 어.(어.)

107051 @ 그러면 가까운 데서 잡히는 거는 뭐라 불러마씨?(그러면 가까운 데서 잡히는 거는 뭐라 불러요?)

107051 #1 가까운 데서 잡히는 거는 그런 거 없어.(가까운 데서 잡히는 거는 그런 거 없어.)

107051 @ 아.(아.)

107051 #1 그것에 것이 들어가야 젓이 돼주게.(그것에 것이 들어가야 젓이 되지.)

107052 @ 그럼 게젓은 뭐짱? 게젓.(그럼 게젓은 무엇입니까? 게젓.)

107052 #1 게젓 강이젓이 게젓.(게젓 ‘강이젓’이 게젓.)

107052 @ 강이젓?('강이젓'?)

107052 #1 어.(어.)

107052 @ 그거는 어떻 만들어마씨?(그거는 어떻게 만들어요?)

107052 #1 강이젓은?('강이젓'은?)

107052 @ 예.(예.)

107052 #1 그냥 뭔가 그 하루 잡아 와가지고.(그냥 뭔가 그 하루 잡아 와가지고.)

107052 @ 예.(예.)

107052 #1 산채로 잡아 와서 이건 그건 가에서밖에 안 나와.(산채로 잡아 와서 이건 그건 가에서밖에 안 나와.)

107052 @ 강이가 좀 작지예?('강이'가 좀 작지요?)

107052 #1 어.(어.)

107052 @ 큰 거는 뭐라고 해마씨?(큰 거는 뭐라고 해요?)

104) ‘곱들락헝다’는 아주 매끈하고 곱다의 의미를 가진 제주어이다.

107052 #1 뭉킹이.(‘뭉킹이’.)
 107052 @ 예?(예?)
 107052 #1 뭉킹이.(‘뭉킹이’.)
 107052 @ 뭉킹이?(‘뭉킹이’?)
 107052 #1 털 있고 여기서 옛날에 여기서는 뭉킹이라고 했어.(털 있고 여기서 옛날에 여기서는 ‘뭉킹이’라고 했어.)
 107052 @ 아, 그건 처음 들어 봤수다. 뭉킹이.(아, 그건 처음 들어 봤습니다. ‘뭉킹이’.)
 107053 @ 자리젓이랑 뭉젓 만드는 거 다시 좀 얘기해 줘서. 삼춘.(자리젓이랑 뭉치젓 만드는 거 다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삼춘.)
 107053 #1 자리젓은. 자리젓은 얘기한 거고. 뭉젓은.(자리젓은. 자리젓은 얘기한 거고. 뭉치젓은.)
 107053 @ 예.(예.)
 107053 #1 자리젓이나 뭉젓이나 그 간 맞춰가지고.(자리젓이나 뭉치젓이나 그 간 맞춰가지고.)
 107053 @ 예.(예.)
 107053 #1 그냥 항아리에 담아 놓는 게. 그제.(그냥 항아리에 담아 놓는 게. 그 제.)
 107053 @ 간은 어떻 될로 맞춰마씨?(간은 어떻게 될로 맞춰요?)
 107053 #1 소금.(소금.)
 107053 @ 소금으로만?(소금으로만?)
 107053 #1 어.(어.)
 107053 @ 다른 건 안 집어넣어마씨?(다른 건 안 집어넣어요?)
 107053 #1 다른 건 안 집어넣어.(다른 건 안 집어넣어.)
 107053 @ 뭐 간장 같은 거는 엇언마씨?(뭐 간장 같은 거는 없었어요?)
 107053 #1 그런 거는 안 집어넣어.(그런 거는 안 집어넣어.)
 107053 @ 아.(아.)
 107053 #1 일단 것이엔 현 거는 소금 이외에는 들어가는 것이 없어.(일단 것이 라고 한 거는 소금 이외에는 들어가는 것이 없어.)
 107053 @ 그럼 이제 거기다가 물 물 좀 넣고마씨?(그럼 이제 거기다가 물 물 좀 넣고요?)
 107053 #1 물 안 넣어.(물 안 넣어.)
 107053 @ 아, 그럼 그냥 만들어마씨?(아, 그럼 그냥 만들어요?)
 107053 #1 그것에서 고기에서 물 나오니까.(그것에서 고기에서 물 나오니까.)
 107053 @ 아, 그럼 소금만 넣고?(아, 그럼 소금만 넣고?)
 107053 #1 소금만 짜느냐 싱거우냐에 따라 맞춰서 넣으면 돼주게.(소금만 짜느냐 싱거우냐에 따라 맞춰서 넣으면 되지.)

107053 @ 예.(예.)

107053 #1 자리가 자리가 일 키로민 소곰이 몇 프로.(자리가 자리가 일 킬로면 소곰이 몇 프로.)

107053 @ 예.(예.)

107053 #1 이게 공식적으로 머리에서 나왔어. 옛날에도.(이게 공식적으로 머리에서 나왔어. 옛날에도.)

107053 @ 예.(예.)

107053 #1 게면 그것에서 맞춰 자리가 뭐 삼 키로면 삼 키로 십 키로면 십 키로 이것에 계산해가지고 소곰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버무렁 향아리에 담양 놔두면 한 이십 일 혼 달 쯤 되면 먹으면 돼주게.(그러면 그것에서 맞춰서 자리가 뭐 삼 킬로면 삼 킬로 십 킬로면 십 킬로 이것에 계산해가지고 소곰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버무리서 향아리에 담아서 놔두면 한 이십 일 한 달 쯤 되면 먹으면 되지.)

107054 @ 삼춘 출레¹⁰⁵는 뭐짱?(삼춘 ‘출레’는 무엇입니까?)

107054 #1 출?(출?)

107054 @ 출레.(‘출레’.)

107054 #1 출레?(‘출레’?)

107054 @ 예. 출레에 대해 아시는 거 얘기해 줘서.(예. ‘출레’에 대해 아시는 거 얘기해 주십시오.)

107054 #1 그냥 아무 고기라도 젓갈 놔가지고 허면은 그거 출레라 허주게.(그냥 아무 고기라도 젓갈 놔가지고 하면 그거 ‘출레’라 하지.)

107054 @ 예.

107054 #1 출레 멸젓도 끓이면 출레고 자리도 저 볶으면 출레고. 출레라고 허는 거 다 마찬가지로.(‘출레’ 멸치젓도 끓이면 ‘출레’고 자리도 저 볶으면 ‘출레’고. ‘출레’라고 하는 거 다 마찬가지로.)

장아찌와 회

107055 @ 그면 어 장아찌 잇잖아예? 장아찌.(그러면 어 장아찌 잇잖아요? 장아찌.)

107055 #1 어.(어.)

107055 @ 장아찌 종류는 뭐, 뭐 잇어마씨?(장아찌 종류는 뭐, 뭐 잇어요?)

107055 #1 장아찌 종류는.(장아찌 종류는.)

107055 @ 예.(예.)

107055 #1 저 마늘.(저 마늘.)

107055 @ 예.(예.)

107055 #1 그거밖에 없었지 뭐 장아찌는. 무.(그거밖에 없었지 뭐 장아찌는. 무.)

105) ‘출레’는 밥과 곁들여 먹는 장, 젓 따위의 반찬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07055 @ 무, 모자반은?(무, 모자반은?)
 107055 #1 모자반 바다에서 나는 거.(모자반 바다에서 나는 거.)
 107055 @ 예.(예.)
 107055 #1 바다에서 몸이 나주게.(바다에서 모자반이 나지.)
 107055 @ 예. 알주마씨.(예. 알지요.)
 107055 #1 이만큼 몸 나면 그걸 아까 돼지고기 국 끓일 때.(이만큼 모자반 나면 그걸 아까 돼지고기 국 끓일 때.)
 107055 @ 예. 뭉쿨.(예. '뭉쿨'.)
 107055 #1 그거 잡아근에 장물에 그걸 넣어근에 그거 익으면 먹주게.(그거 잡아서 장물에 그걸 넣어서 그거 익으면 먹지.)
 107056 @ 마늘장아찌는 어떻 만들어마씨? 마늘장아찌.(마늘장아찌는 어떻게 만 들어요? 마늘장아찌.)
 107056 #1 마늘장아찌도 그냥 이 지금 풀만 팔지 않허냐?(마늘장아찌도 그냥 이 지금 풀만 팔지 않냐?)
 107056 @ 예.(예.)
 107056 #1 그거 장아찌 만드는 저 대가 있어신디.(그거 장아찌 만드는 저 대가 있었는 데.)
 107056 @ 뭐가?(뭐가?)
 107056 #1 대가.(대가.)
 107056 @ 예.(예.)
 107056 #1 대가 있어서.(대가 있어서.)
 107056 @ 예.(예.)
 107056 #1 대가 있어신디 이파리는 안 들어가.(대가 있었는데 이파리는 안 들어 가.)
 107056 @ 예.(예.)
 107056 #1 이파리 안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다 쫄라.(이파리 안 들어가게끔 해가 지고 다 잘라.)
 107056 @ 예.(예.)
 107056 #1 쫄라가지고 먹기 좋게 쫄라서 걸 뭐가 장물에 그냥 담가.(잘라가지고 먹기 좋게 잘라서 걸 뭐가 장물에 그냥 담가.)
 107056 @ 예.(예.)
 107056 #1 간장에.(간장에.)
 107056 @ 예.(예.)
 107056 #1 담그면 그게 마늘장아찌주게.(담그면 그게 마늘장아찌지.)
 107057 @ 어, 삼촌 여기 휘 있잖아마씨? 휘마씨?(어, 삼촌 여기 휘 있잖아요? 회요?)
 107057 #1 어.(어.)

107057 @ 꿩 종류는 뭐, 뭐 잇어마씨? 고산에는?(회 종류는 뭐, 뭐 잇어요? ‘고산’에는?)

107057 #1 옛날에?(옛날에?)

107057 @ 예.(예.)

107057 #1 옛날에 종류엔 흰 거는 꿩 종류는 자리밖에 없었어.(옛날에 종류라고 한 거는 회 종류는 자리밖에 없었어.)

107057 @ 자리꿩마씨?(자리회요?)

107057 #1 어.(어.)

107057 @ 새끼꿩는 잇어수광?(새끼회는 없었습니까?)

107057 #1 어?(어?)

107057 @ 새끼꿩?(새끼회?)

107057 #1 거 도새기 새끼꿩.(거 돼지 새끼회.)

107057 @ 아, 그건 뭐꿩?(아, 그건 뭐예요?)

107057 #1 도야지 배 속에서 난 거.(돼지 배 속에서 난 거.)

107057 @ 아, 그것도 돼지 새끼꿩라고 헤마씨?(아, 그것도 돼지 새끼회라고 해요?)

107057 #1 어. 새끼꿩라고 그계.(어. 새끼회라고 그계.)

107057 @ 그럼 방어꿩는?(그럼 방어회는?)

107057 #1 방어꿩? 방어꿩 같은 거는 여기 잇언.(방어회? 방어회 같은 거는 여기 없었어.)

107057 @ 자리꿩랑 새끼꿩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줘서.(자리회랑 새끼회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107057 #1 새끼꿩는 도새기 배 배 속에.(새끼회는 돼지 배 배 속에.)

107057 @ 예.(예.)

107057 #1 그거 도새기 잡으면은.(그거 돼지 잡으면.)

107057 @ 예.(예.)

107057 #1 암컷에 잇잖아.(암컷에 잇잖아.)

107057 @ 예.(예.)

107057 #1 속에 새끼 잇잖아.(속에 새끼 잇잖아.)

107057 @ 예.(예.)

107057 #1 그건 종류에 따라서 이름이 나오주게.(그건 종류에 따라서 이름이 나오지.)

107057 @ 아.(아.)

107058 @ 그면 계절에 따라 반찬들 드신 거 뭐 잇언마씨?(그러면 계절에 따라 반찬들 드신 거 뭐 잇었어요?)

107058 #1 계절에 따라가지고 반찬 경 다른 게 잇어.(계절에 따라가지고 반찬 그렇게 다른 게 없어.)

107058 @ 우럭 조림 같은 거는 봄에만 드시고 뭐 이런 거 었언마씨?(우럭 조림 같은 거는 봄에만 드시고 뭐 이런 거 없었어요?)

107058 #1 어?(어?)

107058 @ 호박무침은 뭐 여름에 먹고 이런 거.(호박무침은 뭐 여름에 먹고 이런 거.)

107058 #1 그 호박무침이엔 현 거는 이제 먹을 때지.(그 호박무침이라고 한 거는 이제 먹을 때지.)

107058 @ 겨울에?(겨울에?)

107058 #1 어. 겨울에.(어. 겨울에.)

107058 @ 그럼 고사리무침은 언제 먹언마씨?(그럼 고사리무침은 언제 먹었어요?)

107058 #1 고사리무침은 무침 먹을 때는 그건 아무 때나 먹었고. 물렸다가 허는 거니까.(고사리무침은 무침 먹을 때는 그건 아무 때나 먹었고. 말렸다가 하는 거니까.)

107058 @ 아. 그러니까 봄에만 딱히 먹는 거, 여름에만 주로 먹는 거, 그런 거는 었어수광?(아. 그러니까 봄에만 딱히 먹는 거, 여름에만 주로 먹는 거, 그런 거 없었습니까?)

107058 #1 어?(어?)

107058 @ 주로 나는 거 잇잖아예.(주로 나는 거 잇잖아요.)

107058 #1 무쳐 먹는 거?(무쳐 먹는 거?)

107058 @ 예.(예.)

107058 #1 여름에나 뭐 여름에나 겨울에나 무쳐 먹는 게 나물이지 뭐.(여름에나 뭐 여름에나 겨울에나 무쳐 먹는 게 나물이지 뭐.)

107058 @ 그럼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비슷비슷하게 드션마씨?(그럼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비슷비슷하게 드셨어요?)

107058 #1 어?(어?)

107058 @ 그 물고기도 잡히는 것만 잇지 않안마씨? 우럭은 보통 언제 잡아마씨?(그 물고기도 잡히는 것만 잇지 않았어요? 우럭은 보통 언제 잡아요?)

107058 #1 우럭도 가을 가을에 주로 많이 잡히주게.(우럭도 가을 가을에 주로 많이 잡히지.)

107058 @ 아, 그럼 가을 겨울에 보통 우럭 먹겠다예.(아, 그럼 가을 겨울에 보통 우럭 먹겠군요.)

107058 #1 어.(어.)

107058 @1 그럼 봄이나 여름에는 생선 뭐 잡현마씨?(그럼 봄이나 여름에는 생선 뭐 잡혔어요?)

107058 #1 가에서 가에서 나는 게 나 일찍 곶앗주만은.(가에서 가에서 나는 게 나 일찍 말했지만은.)

107058 @ 예.(예.)
 107058 #1 생선 잡히는 거야 불락.(생선 잡히는 거야 불락.)
 107058 @ 예.(예.)
 107058 #1 또 아까 우럭허고 또 뭐냐.(또 아까 우럭하고 또 뭐냐.)
 107058 @ 자리마씨?(자리요?)
 107058 #1 자리는 거 나끄는 거니까.(자리는 거 낚는 거니까.)
 107058 @ 아.(아.)
 107058 #1 낚시질행 나끄는 거야 거 감팍이니.(낚시질해서 낚는 거야 거 솜뱅이
 니.)
 107058 @ 감팍?(솜뱅이?)
 107058 #1 어. 조락¹⁰⁶으로 해근엥 맥시¹⁰⁷ 또 어랭이¹⁰⁸ 뭐 많주게. 그에서
 낚으는 거야.(어. 종다래끼로 해서 어랭놀래기 또 황놀래기 뭐 많지. 가에서 낚는
 거야.)

장 담그기

107059 @ 그면 장은 삼촌 언제 담가마씨? 장은?(그러면 장은 삼촌 언제 담가
 요? 장은?)
 107059 #1 장?(장?)
 107059 @ 예.(예.)
 107059 #1 장. 시월 달에.(장. 시월 달에.)
 107059 @ 시월 달에?(시월 달에?)
 107059 #1 어.(어.)
 107060 @ 장 종류는 뭐, 뭐 잇어마씨?(장 종류는 뭐, 뭐 있어요?)
 107060 #1 뭐 엇어. 고추장, 웬장.(뭐 없어. 고추장, 된장.)
 107060 @ 두 개?(두 개?)
 107060 #1 어.(어.)
 107060 #1 그림 간장은?(그림 간장은?)
 107060 @ 간장은 웬장에서 나와.(간장은 된장에서 나와.)
 107060 #1 아.(아.)
 107060 @ 웬장물이 간장이라.(된장물이 간장이라.)
 107061 @ 그든 그 고추장이랑 웬장이랑 간장 그 만드는 거 하나씩 곁아줍서.
 (그러면 그 고추장이랑 된장이랑 간장 그 만드는 거 하나씩 말해주십시오.)
 107061 #1 만드는 거?(만드는 거?)
 107061 @ 예.(예.)
 107061 #1 웬장은 콩 삶앙.(된장은 콩 삶아서.)

106) '조락'은 종다래끼(작은 바구니)의 제주어이다.

107) '맥쉬'는 어랭놀래기의 제주어이다.

108) '어랭이'는 황놀래기의 제주어이다.

107061 @ 예.(예.)
107061 #1 콩 저 콩 해다가.(콩 저 콩 해다가)
107061 @ 예.(예.)
107061 #1 시쳐.(씻어.)
107061 @ 예.(예.)
107061 #1 삶아.(삶아.)
107061 @ 예.(예.)
107061 #1 삶아서 익으면 이제 건져내서 올려놓을 거 아니냐.(삶아서 익으면 이제 건져내서 올려놓을 거 아니냐.)
107061 @ 예.(예.)
107061 #1 올려놓으면 이 뒷에 방에 방에엔 헌 거나 모르지만 그 도구 허는 것도 있고 있어.(올려놓으면 이 뒷에 방아 방아라고 한 거나 모르지만 그 도구 하는 것도 있고 있어.)
107061 @ 예.(예.)
107061 #1 그것에 낱 블라. 뭐 마대에 놔가지고. 끓으면은 그게 콩이 다 까져.(그것에 놔서 밟아. 뭐 마대에 놔가지고. 밟으면 그게 콩이 다 까져.)
107061 @ 예.(예.)
107061 #1 그게 이제 꺼내가지고 이만씩 손으로 그걸 찌서 짝으로 짝으로. 어?(그게 이제 꺼내가지고 이만큼 손으로 그걸 찌서 짚으로 짚으로. 어?)
107061 @ 예.(예.)
107061 #1 그 나룩직. 나룩직으로 해근앵.(그 벗짚. 벗짚으로 해서.)
107061 @ 예.(예.)
107061 #1 거 행 이제 세 가닥 네 가닥 해근앵 영 낱 돌아 놔가지고 돌아매어. 돌아매면 그게 뜨게 되면 꺼떻게 떠.(거 해서 이제 세 가닥 네 가닥 해서 이렇게 놔서 달아 놔가지고 달아매. 달아매면 그게 뜨게 되면 까맣게 떠.)
107061 @ 예.(예.)
107061 #1 뜨면은 내려가지고 씨쳐. 씨쳐가지고 소금을 물 딱 놓으면.(뜨면 내려가지고 씻어. 씻어가지고 소금을 물 딱 놓으면.)
107061 @ 예.(예.)
107061 #1 그 요새 오백 원 잇잖아이.(그 요새 오백 원 잇잖아.)
107061 @ 예.(예.)
107061 #1 옛날에는 그 엽전이지만은.(옛날에는 그 엽전이지만.)
107061 @ 예.(예.)
107061 #1 그걸 그것만 아니 떠. 그것밖에는. 경 행 딱 하민 간이 맞아.(그걸 그것만 아니 떠. 그것밖에는. 그렇게 해서 딱 하면 간이 맞아.)
107061 @ 예.(예.)
107061 #1 간 맞으면 그것에 메주를 들이치주게.(간 맞으면 그것에 메주를 들이

쳐.)

107061 @ 예.(예.)

107061 #1 계민 그걸 일 년 놔두면 자연히 돼는 거주게.(그러면 그걸 일 년 놔두면 자연히 되는 거지.)

107061 @ 아. 그럼 거기서 국물 나오는 게 간장이짱?(아. 그럼 거기서 국물 나오는 게 간장입니까?)

107061 #1 어. 거기서 국물 나오면 간장.(어. 거기서 국물 나오면 간장.)

107061 @ 그럼 이제 고추장은 어떻 만들어마씨?(그럼 이제 고추장은 어떻게 만들어요?)

107061 #1 고치장은?(고추장은?)

107061 @ 예.(예.)

107061 #1 고치장은 이 뭔가 고춧가루 해서.(고추장은 이 뭔가 고춧가루로 해서.)

107061 @ 예.(예.)

107061 #1 간 간 맞춰서 그거 또 저 간장 놔가지고.(간 간 맞춰서 그거 또 저 간장 놔가지고.)

107061 @ 예.(예.)

107061 #1 계민 그게 고추장 돼는 거주게.(그러면 그게 고추장 되는 거지.)

107062 @ 아, 그럼 메주. 아까 메주가 된장 만들 때 나오는 거잖아예?(아, 그럼 메주. 아까 메주가 된장 만들 때 나오는 거잖아요?)

107062 #1 어.(어.)

107062 @ 그건 보통 언제, 언제 보통 나와마씨? 시월 달?(그건 보통 언제, 언제 보통 나와요? 시월 달?)

107062 #1 어. 시월 달.(어. 시월 달.)

107063 @ 장 담글 때 꼭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 잇수광?(장 담글 때 꼭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 있었습니까?)

107063 #1 장 담을 때 XX 타지 말라고 허주게.(장 담글 때 XX 타지 말라고 하지.)

107063 @ 뭐마씨?(뭐요?)

107063 #1 이 영장 난 데나.(이 장사 난 데나.)

107063 @ 예.(예.)

107063 #1 어떤 그런 데 다닌 사람은 장 못 담게 허여.(어떤 그런 데 다닌 사람은 장 못 담게 해.)

107063 @ 아.(아.)

107063 #1 그게 그르친다고 장을.(그게 그르친다고 장을.)

107063 @ 아, 장을 그르친다고?(아, 장을 그르친다고?)

107063 #1 어. 계고 몸에 여자들 거 올 적에 담지 못허고.(어. 그러고 몸에 여자

들 거 올 적에 담지 못하고.)

107063 @ 예.(예.)

107063 #1 부정 탄다고.(부정 탄다고.)

떡류

107064 @ 삼촌 그러면 이제 그 떡 잇잖아예. 떡.(삼촌 그러면 이제 그 떡 잇잖아요 떡.)

107064 #1 어.(어.)

107064 @ 떡.(떡.)

107064 #1 어.(어.)

107064 @ 떡 종류 좀 얘기하게마씨.(떡 종류 좀 얘기하지요.)

107064 #1 어.(어.)

107064 @ 떡 종류는 삼촌 아는 거 얘기해 줘서.(떡 종류는 삼촌 아는 거 얘기해 주십시오.)

107064 #1 떡 종류 그것을 물어봐 무신 떡 잇는가.(떡 종류 그것을 물어봐 무슨 떡 잇는가.)

107064 @ 그러니까 종류가 뭐, 뭐 잇는지 삼촌 먼저 얘기하면.(그러니까 종류가 뭐, 뭐 잇는지 삼촌 먼저 얘기하면.)

107064 #1 게면 쥬 뭔가 많은 건 제편¹⁰⁹.(게면 쥬 뭔가 많은 건 ‘제편’.)

107064 @ 절편?(절편?)

107064 #1 어. 절편 저 이 시리떡.(어. 절편 저 이 시루떡.)

107064 @ 시리떡.(시루떡.)

107064 #1 또 인절미.(또 인절미.)

107064 @ 예.(예.)

107064 #1 곤떡.(흰떡.)

107064 @ 예.(예.)

107064 #1 새미떡¹¹⁰.(‘새미떡’)

107064 @ 예.(예.)

107064 #1 그 웨에는 뭐냐.(그 웨에는 뭐냐.)

107064 @ 그냥 여러 가지 잇지예?(그냥 여러 가지 잇지요?)

107064 #1 어.(어.)

107064 @ 그럼 이제 제가 무슨 떡 물어볼게마씨.(그럼 이제 제가 무슨 떡 물어볼게요.)

107064 #1 어.(어.)

109) ‘제편’은 멥쌀가루에 붉은 큰 팥을 곱명으로 얹어 댓잎으로 썬을 넣고 찌는 유교식 제례용 떡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10) ‘새미떡’은 메밀가루나 쌀가루 따위를 반죽해 반달 모양으로 만든 후에 안에 팥소 등을 넣어 접어서 솥에서 찌거나 삶아낸 떡이다. =새미, 세미, 세미떡

107064 @ 그럼 그거 재료나.(그럼 그거 재료나.)
107064 #1 어.(어.)
107064 @ 그 다음에 그거 만들 때 도구 잇잖아예.(그 다음에 그거 만들 때 도구 잇잖아요.)
107064 #1 어.(어.)
107064 @ 그 다음에 만드는 방법.(그 다음에 만드는 방법.)
107064 #1 어.(어.)
107064 @ 그거 좀 얘기해 줘서.(그거 좀 얘기해 주십시오.)
107064 #1 어.(어.)
107064 @ 아시는대로만예.(아시는대로만요.)
107064 #1 어.(어.)
107065 @ 시리떡? 시루떡?(시루떡? 시루떡?)
107065 #1 시리떡.(시루떡.)
107065 @ 시리떡은 어떻 만들어마씨?(시루떡은 어떻게 만들어요?)
107065 #1 시리떡이엔 현 거는 아무거나라도 만들 수 잇어.(시루떡이라고 한 거는 아무거나라도 만들 수 잇어.)
107065 @ 아.(아.)
107065 #1 저 시리떡, 그 떡이엔 허는 거는.(저 시루떡, 그 떡이라고 하는 거는.)
107065 @ 예.(예.)
107065 #1 이제 거 시리떡이엔 현 거는 근쌀만.(이제 거 시리떡이라고 한 거는 흰쌀만.)
107065 @ 예.(예.)
107065 #1 근쌀 갈아가지고.(흰쌀 갈아가지고.)
107065 @ 예.(예.)
107065 #1 참 근쌀 ㄴ는 것이 아니다.(참 흰쌀 가는 것이 아니다.)
107065 @ 예?(예?)
107065 #1 아 참 ㄴ는 거다. 물에 서꺼근앵.(아 참 가는 거다. 물에 섞어서.)
107065 @ 예.(예.)
107065 #1 뺏아.(빵아.)
107065 @ 예. 뺏아.(예. 빵아.)
107065 #1 으.(응.)
107065 @ 뭘로 뺏아마씨?(뭘로 빵아요?)
107065 #1 옛날은 방엿혹에 낱 돌방엿혹.(옛날은 방아확에 낱서 돌 방아확.)
107065 @ 돌 방엿혹?(돌 방아확?)
107065 #1 어.(어.)
107065 @ 예.(예.)

107065 #1 그것에서 낱 뺏아서.(그것에서 놔서 뺏아서.)

107065 @ 그거 빵을 때 이거는 뭐라고 헤마씨?(그거 빵을 때 이거는 뭐라고 해요?)

107065 #1 이거 방엿귀.(이거 방앗공이.)

107065 @ 방엿귀?(방앗공이?)

107065 #1 어.(어.)

107065 @ 아 옛날 그런 것도 좀 얘기해 줘서.(아 옛날 그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십시오.)

107065 #1 어. 이거 영 헤가지고 허는 게 이게 방엿귀.(어. 이거 이렇게 헤가지고 하는 게 이게 방앗공이.)

107065 @ 예.(예.)

107065 #1 이건 저 영 허영 만들영 거 이름 잊어버렸다.(이건 저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거 이름 잊어버렸다.)

107065 @ 괜찮아마씨.(괜찮아요.)

107065 #1 이만큼 현 이 호강이¹¹¹⁾가 돌로 뒤텔어.(이만큼 한 이 용당이가 돌로 뒤텔어.)

107065 @ 예.(예.)

107065 #1 이제 비와 놔가지고 그걸 밀르면서 그루 나오게끔 막 뺏아.(이제 부워 놔가지고 그걸 밀면서 가루 나오게끔 막 빵아.)

107065 @ 예.(예.)

107065 #1 방엿귀로이.(방앗공이로.)

107065 @ 예.(예.)

107065 #1 뺏이민 그걸 체로 쳐.(빵으면 그걸 체로 쳐.)

107065 @ 예.(예.)

107065 #1 체로 쳐가지고 이제 곤쌀 그루만 나올 거지?(체로 쳐가지고 이제 흰쌀 가루만 나올 거지?)

107065 @ 예.(예.)

107065 #1 그루 나오면은 그거 자기 놓고 싶은 대로.(가루 나오면 그거 자기 놓고 싶은 대로.)

107065 @ 예.(예.)

107065 #1 뭐 감저 썬 거면 감저 썬 거.(뭐 고구마 썬 거면 고구마 썬 거.)

107065 @ 예.(예.)

107065 #1 무 썬 거면 무 썬 거라도.(무 썬 거면 무 썬 거라도.)

107065 @ 예.(예.)

107065 #1 자기 놓고 싶은 거 놔가지고 그걸 서끄어.(자기 놓고 싶은 거 놔가지고 그걸 섞어.)

111) ‘호강이’는 용당이(옴폭 패어 물이 끼어 있는 곳으로 눈보다 훨씬 작다)의 제주어이다.

107065 @ 예.(예.)
 107065 #1 서꺼근엥 요만큼 올라오민 팻 팻 잇잖아이?(섞어서 요만큼 올라오면 팔 팔 잇잖아?)
 107065 @ 예.(예.)
 107065 #1 팻 삶아가지고 그걸 준비해두었다가.(팔 삶아가지고 그걸 준비해두었다가.)
 107065 @ 예.(예.)
 107065 #1 X마다 그걸 놔.(X마다 그걸 놔.)
 107065 @ 예.(예.)
 107065 #1 이렇게 놓으면 이제 차츰 차츰 올라오면서 다 놓는다 말이야.(이렇게 놓으면 이제 차츰 차츰 올라오면서 다 놓는다 말이야.)
 107065 @ 예.(예.)
 107065 #1 놓으면 이제 그걸 이제 솥에 놔가지고 불을 떼어.(놓으면 이제 그걸 이제 솥에 놔가지고 불을 떼어.)
 107065 @ 예.(예.)
 107065 #1 계면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그거 찢러 보면 떡 익고 안 익은 걸 안단 말이야.(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그거 찢러 보면 떡 익고 안 익은 걸 안단 말이야.)
 107065 @ 예.(예.)
 107065 #1 알면은 이제 떡 익으면은.(알면 이제 떡 익으면.)
 107065 @ 예.(예.)
 107065 #1 시리를 시리 거 떡 치는 것이 시리라.(시루를 시루 거 떡 치는 것이 시루라.)
 107065 @ 예.(예.)
 107065 #1 이제 그거 들엉 툇 어프민 그냥 떡만 나온다 말이야.(이제 그거 들어서 툇 앞으면 그냥 떡만 나온다 말이야.)
 107065 @ 예.(예.)
 107065 #1 이제 그걸 칼로 끊은 게 제편¹¹².(이제 그걸 칼로 끊은 게 ‘제편’.)
 107065 @ 제편.(‘제편’.)
 107065 #1 어. 송편 제편.(어. 송편 ‘제편’.)
 107066 @ 아, 그면 그건 송편이랑 다른 거광?(아, 그면 그건 송편이랑 다른 거 입니까?)
 107066 #1 어?(어?)
 107066 @ 송편은 어떻 달라마씨?(송편은 어떻게 달라요?)
 107066 #1 송편은 무신 건 줄 알아? 손으로 낡 이제 잡은 거.(송편은 무슨 건

112) ‘제편’은 쌀가루에 팥소 따위로 커를 얹혀 쪄낸 시루떡으로 주로 제를 지낼 때 올리는 떡을 말하는 제주어이다.

줄 알아? 손으로 놔서 이제 잡은 거.)

107066 @ 예.(예.)

107066 #1 잡은 게 송편일 거야.(잡은 게 송편일 거야.)

107066 @ 예. 그럼 그건 어떻게 만들어마씨?(예. 그럼 그건 어떻게 만들어요?)

107066 #1 그거는 소금에다가 콩나물이나 이런 거.(그거는 소금에다가 콩나물이나 이런 거.)

107066 @ 예.(예.)

107066 #1 무 섞어가지고 놔서 이게 영 해가지고 영 허영 허면은 요렇게 잡아서 허는 게 송편이라.(무 섞어가지고 놔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 요렇게 잡아서 하는 게 송편이라.)

107067 @ 빙떡¹¹³⁾ 알지예? 삼촌 빙떡.(‘빙떡’ 알지요? 삼촌 ‘빙떡’.)

107067 #1 어. 빙떡.(어. ‘빙떡’.)

107067 @ 빙떡에는 뭐, 뭐 들어가마씨? 빙떡은?(‘빙떡’에는 뭐, 뭐 들어가요? ‘빙떡’은?)

107067 #1 빙 빙떡이엔 현 거는.(‘빙’ ‘빙떡’이라고 한 거는.)

107067 @ 예.(예.)

107067 #1 모멸ㄱ르영.(메밀가루와.)

107067 @ 모멸ㄱ르랑.(메밀가루랑.)

107067 #1 어. 모멸ㄱ르 저 옛날은 저 솥뚜껑이라는 것이 있어.(어. 메밀가루 저 옛날은 저 솥뚜껑이라는 것이 있어.)

107067 @ 솥뚜껑?(솥뚜껑?)

107067 #1 솥뚜껑.(솥뚜껑.)

107067 @ 예.(예.)

107067 #1 솥뚜껑 영 해가지고 불 땀다 말이야.(솥뚜껑 이렇게 해가지고 불 땀다 말이야.)

107067 @ 예.(예.)

107067 #1 불 때면은 이 그 ㄱ루를 반죽 돼어 있어.(불 때면 이 그 가루를 반죽 돼어 있어.)

107067 @ 예.(예.)

107067 #1 반죽으로 만들어가지고.(반죽으로 만들어가지고.)

107067 @ 예.(예.)

107067 #1 그리 이렇게 놓면은.(그리 이렇게 놓으면.)

107067 @ 예.(예.)

107067 #1 이제 뭐 수저 숟가락으로 넓힌다 말이야.(이제 뭐 수저 숟가락으로 넓힌다 말이야.)

113) ‘빙떡’은 메밀 가루 따위로 반죽하여 번철에서 전을 넓적하게 지지고는 팔이나 무채 따위의 소를 넣고서 길쭉하게 둘둘 말아 만든 떡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빙, 전기, 전기떡, 정기, 정기떡.

107067 @ 예.(예.)
 107067 #1 넓히면은 그게 익은다 말이여.(넓히면 그게 익은다 말이야.)
 107067 @ 예.(예.)
 107067 #1 익으면은 그거 떼 내서.(익으면 그거 떼 내서.)
 107067 @ 예.(예.)
 107067 #1 그 때 무허고.(그 때 무하고.)
 107067 @ 늪빠?(무?)
 107067 #1 어. 늪빠.(어. 무.)
 107067 @ 예.(예.)
 107067 #1 늪빠허고 콩나물허고 섞어가지고 삶은 게 있어.(무하고 콩나물하고 섞어가지고 삶은 게 있어.)
 107067 @ 예.(예.)
 107067 #1 삶은 걸 놔가지고 이렇게 놔가지고 이게 영 만 게 빙떡이라.(삶은 걸 놔가지고 이렇게 놔가지고 이게 이렇게 만 게 ‘빙떡’이라.)
 107067 @ 그럼 그런 빙떡은 언제 만들어마씨?(그럼 그런 ‘빙떡’은 언제 만들어요?)
 107067 #1 그거는 아무 때나 그건 뭐.(그거는 아무 때나 그건 뭐.)
 107067 @ 옛날엔 자주 먹었수광? 빙떡?(옛날에는 자주 먹었습니까? ‘빙떡’?)
 107067 #1 자주 못 먹었지. 잘 살아야 먹주게.(자주 못 먹었지. 잘 살아야 먹지.)
 107067 @ 아 빙떡도? 무사마씨? 모멸ㄴ르 때문에?(아 ‘빙떡’도? 왜요? 메밀가루 때문에?)
 107067 #1 모멸ㄴ르 비싸니까.(메밀가루 비싸니까.)
 107067 @ 아, 모멸ㄴ르가 비싸마씨?(아, 메밀가루가 비싸요?)
 107067 #1 지금도 마음대로 못 해먹어. 비싸가지고.(지금도 마음대로 못 해먹어. 비싸가지고.)
 107068 @ 상왜떡¹¹⁴⁾은 뭐짱? 상왜떡.(‘상왜떡’은 무엇입니까? ‘상왜떡’.)
 107068 #1 상왜떡은 미리 만들어.(‘상왜떡’은 미리 만들어.)
 107068 @ 그게 뭐짱? 어떻 만들어마씨? 뭘로 만들어마씨?(그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만들어요? 뭘로 만들어요?)
 107068 #1 상왜떡, 상왜떡이엔 현 거는.(‘상왜떡’, ‘상왜떡’이라고 한 거는.)
 107068 @ 예.(예.)
 107068 #1 저 뭔가 이 옛날은.(저 뭔가 이 옛날은.)
 107068 @ 예.(예.)
 107068 #1 영장날.(장삿날.)

114) ‘상왜떡’은 밀가루 따위에 더운 물과 기주를 조금 넣어 되게 반죽하고서 만드 모양으로 만들고는 더운 방에 두어서 부풀어 오르게 하여 찢 떡을 말하는 제주어이다. = 삼메떡

107068 @ 예.(예.)

107068 #1 그럴 적에 이 동글락허주게. 동글락허게 만든 게 상왜떡이라고 하여.(그럴 적에 이 동그랗지, 동그랗게 만든 게 ‘상왜떡’이라고 해.)

107069 @ 그른 제사 떡 잇잖아예?(그러면 제사 떡 잇잖아요?)

107069 #1 어.(어.)

107069 @ 제사할 때 떡 뭐, 뭐 만들어마씨? 떡 종류가 뭐, 뭐 잇어마씨?(제사할 때 떡 뭐, 뭐 만들어요? 떡 종류가 뭐, 뭐 잇어요?)

107069 #1 제사 때?(제사 때?)

107069 @ 예.(예.)

107069 #1 그 때도 제사 때 벨다른 것이 뭐. 그 때 하도 곤란하게 살아서 뭐 별로 엇엇주게.(그 때도 제사 때 벨다른 것이 뭐. 그 때 하도 곤란하게 살아서 뭐 별로 없었지.)

107069 @ 아, 잇는 것만?(아, 잇는 것만?)

107069 #1 잇는 것만 저 아까 저 시리떡이라고 잇지?(잇는 것만 저 아까 저 시루떡이라고 잇지?)

107069 @ 예.(예.)

107069 #1 그거는 꼭 들어갓주게.(그거는 꼭 들어갓지.)

107069 @ 아 시리떡은 꼭 들어가고?(아 시리떡은 꼭 들어가고?)

107069 #1 제웬도 들어가고 모뎀로 만든 거. 그거.(‘제웬’도 들어가고 메뎀로 만든 거. 그거.)

107069 @ 빙떡마씨?(‘빙떡’이요?)

107069 #1 빙떡도 들어갈 때는 들어가고.(‘빙떡’도 들어갈 때는 들어가고.)

107069 @ 음.(음.)

107069 #1 또 곤떡이라고 동글락, 동글락허게 떡 만든 거. 그거 웨에는.(또 흰떡이라고 동그랗게, 동그랗게 떡 만든 거. 그거 외에는.)

107069 @ 예.(예.)

107069 #1 뭐 벨로. 뭐 빵 같은 것도 만들엇어. 그것도 올라가고.(뭐 벨로. 뭐 빵 같은 것도 만들엇어. 그것도 올라가고.)

107070 @ 그럼 제사할 때 경 허고. 초상 치를 때 잇잖아예?(그럼 제사할 때 그렇게 하고. 초상 치를 때 잇잖아요?)

107070 #1 어.(어.)

107070 @ 그 때는 무슨 떡 만들언마씨? 옛날에는?(그 때는 무슨 떡 만들엇어요? 옛날에는?)

107070 #1 상 차릴 때?(상 차릴 때?)

107070 @ 아니, 상 낫을 때 누구 돌아가섯을 때마씨.(아니, 상 낫을 때 누구 돌아가섯을 때요.)

107070 #1 돌아갈 때? 옛날?(돌아갈 때? 옛날?)

107070 @ 예. 옛날마씨.(예. 옛날이요.)
 107070 #1 옛날은.(옛날은.)
 107070 @ 예.(예.)
 107070 #1 거 칩떡¹¹⁵⁾이라고 하지. 칩떡.(거 ‘칩떡’이라고 하지. ‘칩떡’.)
 107070 @ 칩떡? 그건 뭐짱?(‘칩떡’? 그건 무엇입니까?)
 107070 #1 아, 시리떡이영 같은 거고.(아, 시루떡과 같은 거고.)
 107070 @ 예.(예.)
 107070 #1 그 장 날 적에는 조, 좁쌀.(그 장 날 적에는 조, 좁쌀.)
 107070 @ 좁쌀.(좁쌀.)
 107070 #1 좁쌀 해가지고.(좁쌀 해가지고.)
 107070 @ 예.(예.)
 107070 #1 고구마, 감자.(고구마, 감자.)
 107070 @ 예.(예.)
 107070 #1 감자를 찢 걸 이제 그것에 섞어.(감자를 찢 걸 이제 그것에 섞어.)
 107070 @ 예.(예.)
 107070 #1 섞어가지고 이제 그 시리에 놓으면서. 시리마다 낱 이만큼씩.(섞어가
 지고 이제 그 시루에 놓으면서. 시루마다 놔서 이만큼씩.)
 107070 @ 예.(예.)
 107070 #1 이제 다 되면 덮어놔 칼로 끊으면 그거 하나하고 또 동글락헌 떡 하
 나 하고.(이제 다 되면 덮어놔서 칼로 끊으면 그거 하나하고 또 동그란 떡 하나 하
 고.)
 107070 @ 예.(예.)
 107070 #1 영장 묻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영 줘.(장사 묻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이렇게 줘.)
 107071 @ 설기떡은 뭐짱? 설기떡 들어보셴마씨?(설기떡은 무엇입니까? 설기떡
 들어보셨어요?)
 107071 #1 설기?(설기?)
 107071 @ 예.(예.)
 107071 #1 설기떡은 잘 모르켜.(설기떡은 잘 모르겠다.)
 107072 @ 그럼 어르신 인절미는 알지예? 인절미는.(그럼 어르신 인절미는 알지
 요? 인절미는.)
 107072 #1 어.(어.)
 107072 @ 인절미는 어떻 만들어마씨? 인절미는.(인절미는 어떻게 만들어요? 인
 절미는.)
 107072 #1 인절미 아까 근지 안했냐. 아까.(인절미 아까 말하지 안했냐. 아까.)

115) ‘칩떡’은 떡가루에 콩이나 팥 따위를 섞어 시루에 쪄를 안치고 찢 떡(시루떡)을 의미하는 제주어
 이다. = 시리떡, 친떡

107072 @ 아까 얘기했수광? 콩고물에 이렇게 허는 게 인절미지예?(아까 얘기했 습니까? 콩고물에 이렇게 하는 게 인절미지요?)

107072 #1 어?(어?)

107072 @ 콩고물. 인절미는 콩고물에 묻혀서 허는 거 아니짱?(콩고물. 인절미는 콩고물에 묻혀서 하는 거 아닙니까?)

107072 #1 떡이라는 거. 그거 잘 모르켜.(떡이라는 거. 그거 잘 모르겠다.)

107073 @ 그럼 절편 아까 얘기했잖아예? 절편?(그럼 절편 아까 얘기했잖아요? 절편?)

107073 #1 어?(어?)

107073 @ 절편.(절편.)

107073 #1 어.(어.)

107073 @ 절편이 시루떡 만들당 나오는 게 절편이짱?(절편이 시루떡 만들다가 나오는 게 절편입니까?)

107073 #1 어.(어.)

107074 @ 삼촌 그럼 솔변¹¹⁶도 알아마씨? 솔변?(산촌 그럼 ‘솔변’도 알아요? ‘솔변’?)

107074 #1 솔변도 그거 그걸 거라.(‘솔변’도 그거 그걸 거라.)

107074 @ 그건 뭐짱?(그건 무엇입니까?)

107074 #1 솔변이 송편이랑 비슷한 거주게.(‘솔변’이 송편이랑 비슷한 거지.)

107075 @ 웃기떡은 뭐짱? 웃기떡.(웃기떡은 무엇입니까? 웃기떡.)

107075 #1 웃기떡?(웃기떡?)

107075 @ 예. 들어봤수광?(예. 들어봤습니까?)

107075 #1 웃기떡이라 헨 게 무슨 모르켜. 옛날은 빵이라고 헨 게 그거 웃기떡 이라고.(웃기떡이라 한 게 무슨 모르겠다. 옛날은 빵이라고 한 게 그거 웃기떡이라 고.)

107076 @ 그럼 고사 지낼 때나.(그럼 고사 지낼 때나.)

107076 #1 어.(어.)

107076 @ 어떤 당 잇잖아예? 무당 할 때 당. 옛날에 거기 갈 때 떡 좀 가져가 잤아예?(어떤 당 잇잖아요? 무당 할 때 당. 옛날에 거기 갈 때 떡 좀 가져가잖아 요?)

107076 #1 어.(어.)

107076 @ 그 때 무슨 종류의 떡 가져가마씨? 그냥 아무거나 가져가마씨?(그 때 무슨 종류의 떡 가져가요? 그냥 아무거나 가져가요?)

107076 #1 잇는 거 그자 모아서 가져가주게.(잇는 거 그저 모아서 가져가지.)

107076 @ 여기 고사 지낼 때나 당에 가지고 갈 때 어떤 떡 가져간마씨?(여기 고사 지낼 때나 당에 가지고 갈 때 어떤 떡 가져갔어요?)

116) ‘솔변’은 반월형(半月形)의 떡본으로 눌러서 만들어 낸 흰떡으로 ‘송편’의 제주어이다. = 솔벤

107076 #1 계란 그냥 잇는 거 모아 놔가지고 가져갔어.(그러니까 그냥 잇는 거 모아 놔가지고 가져갔어.)

107077 @ 그럼 굿 할 때 쓰는 떡은 따로 뭐 었언마씨?(그럼 굿 할 때 쓰는 떡은 따로 뭐 없었어?)

107077 #1 따로 었어.(따로 없어.)

107078 @ 삼촌 그 뭐 이외에도 떡 아까 물어봤잖아예? 그거 말고 제가 물어보지 않은 것 중에 생각나는 거 었우광?(삼촌 그 뭐 이외에도 떡 아까 물어봤잖아예? 그거 말고 제가 물어보지 않은 것 중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107078 #1 떡?(떡?)

107078 @ 이외에 드셔봤던 떡 얘기 좀 해 줘서.(이외에 드셔봤던 떡 얘기 좀 해 주십시오.)

107078 #1 떡이라는 게 별게 잇어게.(떡이라는 게 별게 있어.)

107078 @ 예.(예.)

107078 #1 만들면 떡이주게.(만들면 떡이지.)

107078 @ 그냥 그럼 떡도 먹고 싶을 때 먹어마씨?(그냥 그럼 떡도 먹고 싶을 때 먹어요?)

107078 #1 그게 먹고 싶을 때 만드는 떡은 감자떡이주게. 감자ㄴ르로 만드는 거.(그게 먹고 싶을 때 만드는 떡은 감자떡이지. 감자가루로 만드는 거.)

107078 @ 아 그럼 감자떡을 제일 많이 먹어마씨?(아 그럼 감자떡을 제일 많이 먹어요?)

107078 #1 어. 옛날은 그거엿주게.(어. 옛날은 그거였지.)

107078 @ 예.(예.)

소와 고물

107079 @ 삼촌 그 떡 안에 그 뭐 들어가잖아예?(삼촌 그 떡 안에 그 뭐 들어가잖아예?)

107079 #1 어.(어.)

107079 @ 떡 안에 뭐 그 맛있는 거. 고물 같은 거. 그걸 뭐라고 해마씨?(떡 안에 뭐 그 맛있는 거. 고물 같은 거. 그걸 뭐라고 해요?)

107079 #1 인절미?(인절미?)

107079 @ 인절미 말고 그니까 떡 이렇게 잇으면 그 안에.(인절미 말고 그러니까 떡 이렇게 잇으면 그 안에.)

107079 #1 어.(어.)

107079 @ 떡 안에 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잖아예. 안에.(떡 안에 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잖아예. 안에.)

107079 #1 어?(어?)

107079 @ 안에다가 들어가는 거 뭐라고 해마씨? 소라고 하나? 고물?(안에다가

들어가는 거 뭐라고 해요? 소라고 하나? 고물?)

107079 #1 어?(어?)

107079 @ 떡 안에 들어가는 거. 떡. 떡이 있으면.(떡 안에 들어가는 거. 떡. 떡 있으면.)

107079 #1 어.(어.)

107079 @ 한 입 물면 떡 안에 뭐 잇잖아예? 팟이랑 그런 거.(한 입 물면 떡 안에 뭐 잇잖아요? 팔이랑 그런 거.)

107079 #1 쉬. 떡쉬.(소. 떡소.)

107079 @ 쉬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마씨?(소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

107079 #1 팟 삶아서 그걸 그냥 허지 않고 조금 반쯤 뺏아.(팟 삶아서 그걸 그냥 하지 않고 조금 반쯤 빵아.)

107079 @ 예.(예.)

107079 #1 뺏아가지고 떡을 요만큼 동글락하게 해 놓으면 가운데 툽 뉘가지고 양 옆으로 잡고 들어가. 그게 쉬주게.(빵아가지고 떡을 요만큼 동그랴게 해 놓으면 가운데 툽 뉘가지고 양 옆으로 잡고 드어가. 그게 소지.)

107079 @ 쉬에는 그럼 팟 말고 다른 건 뭐 들어가마씨?(소에는 그럼 팟 말고 다른 건 뭐 들어가요?)

107079 #1 뭐 께도 들어가긴 들어가지.(뉘 께도 들어가기는 들어가지.)

107079 @ 예.(예.)

107079 #1 게고 무 썬 것도. 그것도 들어가고.(그러고 무 썬 것도. 그것도 들어가고.)

107079 @ 예.(예.)

107079 #1 콩나물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거 엇어. 종류라 허면 무도 들어가고 콩나물도 들어가고 녹두나물도 들어가고.(콩나물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거 엇어. 종류라 허면 무도 들어가고 콩나물도 들어가고 녹두나물도 들어가고.)

107080 @ 떡고물은 뭐 잇어마씨?(떡고물은 뭐 잇어요?)

107080 #1 떡고물이라는 게 벨거 잇어?(떡고물이라는 게 벨거 잇어?)

107081 @ 그럼 떡에 얹힌 얘기 아는 거 잇어마씨?(그럼 떡에 얹힌 얘기 아는 거 잇어요?)

107081 #1 그건 잘 모르켜.(그건 잘 모르겠다.)

별식

107082 @ 삼촌 이제 음식 마지막 뭐 좀 물어보려고 험신디예. 순대 알잖아예? 순대 먹었지예?(삼촌 이제 음식 마지막 뭐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순대 알잖아요? 순대 먹었지요?)

107082 #1 순대?(순대?)

107082 @ 예.(예.)

107082 #1 그건 도새기 배에서 나온 게 순대주게.(그건 돼지 배에서 나온 게 순대이지.)

107082 @ 예. 그거 만들어 보신 적 있어마씨?(예. 그거 만들어 보신 적 있어요?)

107082 #1 어. 있어.(어. 있어.)

107082 @ 아 그럼 그거 만드는 방법 좀 얘기해 줘서.(아 그럼 그거 만드는 방법 좀 얘기해 주십시오.)

107082 #1 도새기 도새기.(돼지 돼지.)

107082 @ 예.(예.)

107082 #1 거 도새기 뱃살. 그거 막 잡으면 나오는 거주게.(거 돼지 뱃살. 그거 막 잡으면 나오는 거지.)

107082 @ 예.(예.)

107082 #1 막 잡은 다음에 그걸 가져와 시켜.(막 잡은 다음에 그걸 가져와서 씻어.)

107082 @ 예.(예.)

107082 #1 시켜가지고 거기다 도새기 뱃속에서 나온 이 메역 기름 같은 거.(씻어가지고 거기다 돼지 뱃속에서 나온 이 미역 기름 같은 거.)

107082 @ 예.(예.)

107082 #1 그거하고 또 마늘. 마늘 같은 거 썰어 놔가지고 이 저 모밀 ㄱ르나 밀 ㄱ르나 반죽해서 죽 닻게 만들어서.(그거하고 또 마늘. 마늘 같은 거 썰어 놔가지고 이 저 메밀가루나 밀가루나 반죽해서 죽 닻게 만들어서.)

107082 @ 예.(예.)

107082 #1 뱃속에 그걸 집어넣어.(뱃속에 그걸 집어넣어.)

107082 @ 예.(예.)

107082 #1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양 옆에 즐라매가지고 솥에서 찌.(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양 옆에 잘라매가지고 솥에서 찌.)

107082 @ 예.(예.)

107082 #1 솥에다 삶으면은 익어시냐 설어시냐 허는 거는 뭘로 보냐하면 그 뭐 그 이쭈시개.(솥에다 삶으면 익었느냐 덜 익었느냐 하는 거는 뭘로 보냐하면 그 뭐 그 이쭈시개.)

107082 @ 예.(예.)

107082 #1 이쭈시개로 콧 찌르민 피가 올라오면 선 거고.(이쭈시개로 콧 찌르민 피가 올라오면 안 익은 거고.)

107082 @ 예.(예.)

107082 #1 피가 안 올라오민 익은 거니깐 거 건져내어.(피가 안 올라오면 익은 거니깐 거 건져내어.)

107082 @ 예.(예.)

107082 #1 건져근엥 식혀가지고 큰 일 때는 고기 쟁반에 하나씩 놔가지고 먹주게.(건져서 식혀가지고 큰 일 때는 고기 쟁반에 하나씩 놔가지고 먹지.)

107082 @ 아, 큰일 때 사용혜마씨?(아, 큰일 때 사용했어요?)

107082 #1 어.(어.)

107082 @ 큰일이라는 거는 제사 때 말하는 거마씨?(큰일이라는 거난 제사 때 말하는 거예요?)

107082 #1 아니. 뭐냐면 옛날은 대소상 잇엇거든.(아니. 뭐냐면 옛날은 대소상 잇엇거든.)

107082 @ 아. 예.(아. 예.)

107082 #1 대소상이나 영장 때. 삼년상이니까 그 때 허고 그리고 잔치 때.(대소상이나 장사 때. 삼년상이니까 그 때 하고 그리고 잔치 때.)

107082 @ 잔치 때. 그러면 순대 안에 아까 모멸ㄹ르랑 밀ㄹ르 두 개밖에 안 들어가마씨? 다른 건 안 들어가마씨?(잔치 때. 그러면 순대 안에 아까 메밀가루랑 밀가루 두 개밖에 안들어가요?)

107082 #1 다른 거는 필요 엇고.(다른 거는 필요 없고.)

107082 @ 아.(아.)

107082 #1 마늘 들어가지 마늘.(마늘 들어가지 마늘.)

107082 @ 아, 마늘이영.(아, 마늘이랑.)

107082 #1 어.(어.)

107082 @ 뭐 잡채나 면 같은 거는 안 들어가마씨? 당면?(뭐 잡채나 면 같은 거는 안 들어가요? 당면?)

107082 #1 아, 면도 우리 옛날은 면이 엇엇거든.(아, 면도 우리 옛날은 면이 없엇거든.)

107082 @ 면이 엇어수광?(면이 없었습니까?)

107082 #1 어. 면이 엇어난 그건 안 들어가고.(어. 면이 없으니까 그건 안 들어가고.)

107082 @ 예.(예.)

107082 #1 저 들어간다는 게 밀ㄹ르나 모멸ㄹ르나 저 꽤마농 잇잖아.(저 들어간다는 게 밀가루나 메밀가루나 저 쪽과 잇잖아.)

107082 @ 예. 꽤마농.(예. 쪽과.)

107082 #1 꽤마농 썰어가지고 같이 반죽행 들어가주게. 도새기 뱃속에 기름 같은 거 놔가지고.(쪽과 썰어가지고 같이 반죽해서 들어가지. 돼지 뱃속에 기름 같은 거 놔가지고.)

107083 @ 두부 잇잖아예? 두부?(두부 잇잖아요? 두부?)

107083 #1 두부.(두부.)

107083 @ 예. 두부는 어떻 만들고 언제 사용헨마씨?(예. 두부는 어떻게 만들고 언제 사용했어요?)

107083 #1 두부는 지금도 나오지만 옛날에도 두부 마찬가지로지만 두부는 콩ㄴ르니까 두부는.(두부는 지금도 나오지만 옛날에도 두부 마찬가지로지만 두부는 콩가루니까 두부는.)

107083 @ 예.(예.)

107083 #1 콩ㄴ르 물로 나온 두부도 있고. 콩 그냥 갈아서 만드는 거 물로 나오면 물두부로 되는 거고.(콩가루 물로 나온 두부도 있고. 콩 그냥 갈아서 만드는 거 물로 나오면 물두부로 되는 거고.)

107083 @ 예.(예.)

107083 #1 그냥 두부는 콩ㄴ르 그냥 나온 거 두부고.(그냥 두부는 콩가루 그냥 나온 거 두부고.)

107083 @ 어떻 만들어마씨? 그럼.(어떻게 만들어요? 그럼.)

107083 #1 그 물두부는.(그 물두부는.)

107083 @ 예.(예.)

107083 #1 콩ㄴ르 콩 갈아가지고.(콩가루 콩 갈아가지고.)

107083 @ 예.(예.)

107083 #1 콩 헤근앵 물 빠. 그걸로 이제 솥에다 쥘.(콩 해서 물 빠. 그걸로 이제 솥에다 쥘.)

107083 @ 예.(예.)

107083 #1 쥘가지고 이제 그 그냥 저 그 다라에 다라에나 뭐나 그걸 놔.(쥘가지고 이제 그 그냥 저 그 다라에 다라에나 뭐나 그걸 놔.)

107083 @ 예.(예.)

107083 #1 게면 그걸 놓으면은 딱 허게 험벅 놔가지고 조금 덮어. 그 밑에 양철이나 뭐 밑에 그냥 송송 난 거 밑에 물 빠지게끔.(그러면 그걸 놓으면 딱 하게 험겔 놔가지고 조금 덮어. 그 밑에 양철이나 뭐 밑에 구멍 송송 난 거 밑에 물 빠지게끔.)

107083 @ 예.(예.)

107083 #1 경 해가지고 허면 딱 허면은 뭔가 물두부 같은 것이 딱 나오고.(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딱 하면 뭔가 물두부 같은 것이 딱 나오고.)

107083 @ 예.(예.)

107083 #1 또 마른 두부는 그냥 하꾸에 낵 그냥 만들면 돼주게.(또 마른 두부는 그냥 하꾸에 놔서 그냥 만들면 되지.)

107083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7083 #1 어.(어.)

107083 @ 그럼 두부는 언제 드션마씨? 특별한 날에 먹지는 았안마씨?(그럼 두부는 언제 드셨어요? 특별한 날에 먹지는 았았어요?)

107083 #1 그냥도 먹고 지금 먹듯이 마찬가지로. 그냥도 먹고. 큰일 때도. 보통 큰일 때 사용허여. 영장날 때나 잔치 때나.(그냥도 먹고 지금 먹듯이 마찬가지로. 그냥

도 먹고. 큰일 때도. 보통 큰 일 때 사용해. 장삿날 때나 잔치 때나.)

107084 @ 삼촌 그럼 모밀묵이나 그 다음에 청묵은 어떻 만들고 뭐가 달라마
씨?(삼촌 그럼 메밀묵이나 그 다음에 청묵은 어떻게 만들고 뭐가 달라요?)

107084 #1 청묵?(청묵?)

107084 @ 먼저 모밀묵부터 얘기해 줘서.(먼저 메밀묵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107084 #1 메밀묵은.(메밀묵은.)

107084 @ 예.(예.)

107084 #1 메밀묵이엔 현 거는 뭐냐하면.(메밀묵이라고 한 거는 뭐냐하면.)

107084 @ 예.(예.)

107084 #1 메밀가루 곱아가지고.(메밀가루 곱아가지고.)

107084 @ 예.(예.)

107084 #1 솥에서 썬. 집에서. 솥에다 썬서 그걸 건져내. 이제 하꾸나 뭐나.(솥
에서 썬. 집에서. 솥에다 썬서 그걸 건져내. 이제 하꾸나 뭐나.)

107084 @ 예.(예.)

107084 #1 이런 것에 저 광묵이나 뭐나 깔지. 그걸 깔아근엥 놔.(이런 것에 저
광묵이나 뭐나 깔지. 그걸 깔아서 놔.)

107084 @ 예.(예.)

107084 #1 놓으면 이제 굳은 걸 알면 딱 들어내가지고 썬 게 모밀묵이고.(놓으
면 이제 굳은 걸 알면 딱 들어내가지고 썬 게 메밀묵이고.)

107084 @ 예.(예.)

107085 #1 청묵이엔 현 거는 그것에서 물 물로 허는 거주게.(청묵이라고 한 거
는 그것에서 물 물로 하는 거지.)

107085 @ 예.(예.)

107085 #1 메밀묵이나 청묵이나 마찬가지로. 물로 만든 게 청묵이고.(메밀묵이
나 청묵이나 마찬가지로. 물론 만든 게 청묵이고.)

107085 @ 청묵은 물로 헤근엥 만들어마씨?(청묵은 물로 해서 만들어요?)

107085 #1 어.(어.)

107086 @ 미숫가루 잇잖아예?(미숫가루 잇잖아요?)

107086 #1 어.(어.)

107086 @ 미숫가루도 만들엇수광?(미숫가루도 만들엇습니까?)

107086 #1 미숫ㄹ르?(미숫가루?)

107086 @ 예.(예.)

107086 #1 개역. 옛날말로 개역.(미숫가루. 옛날말로 ‘개역’.)

107086 @ 아. 개역.(아. ‘개역’.)

107086 #1 어.(어.)

107086 @ 개역은 어떻 만들어마씨?(미숫가루는 어떻게 만들어요?)

107086 #1 개역은 보리 볶아서 ㄹ레에서 곱아서.(미숫가루는 보리 볶아서 멧돌

에서 갈아서.)

107086 @ 예.(예.)

107086 #1 곱아서 므르가 개역.(갈아서 가루가 미숫가루.)

107086 @ 그걸로 똑같이 어떻 그냥 갈면 나오는 거마씨?(그걸로 똑같이 어떻게 그냥 갈면 나오는 거예요?)

107086 #1 그냥 곱면.(그냥 갈면.)

107086 @ 예.(예.)

107086 #1 옛날은 므레밖에 엇거든. 지금은 기계에서 곱지만은.(옛날은 멧돌밖에 없거든. 지금은 기계에서 갈지만.)

107086 @ 예.(예.)

107086 #1 곱면은 므르가 나오주게.(갈면 가루가 나오지.)

107086 @ 예.(예.)

107086 #1 므르가 나오면은 쳐. 줌진체로 쳐.(가루가 나오면 쳐. 가는채로 쳐.)

107086 @ 채는 거 뭐마씨?(채는 거 뭐예요?)

107086 #1 이제 저 므르채.(이제 저 가루채.)

107086 @ 므르채?(가루채?)

107086 #1 어. 그걸로 쳐서 허면은 이제 여름 때 물 탕도 먹고. 이래가지고 개역.(어. 그걸로 쳐서 하면 이제 여름 때 물 타서도 먹고. 이래가지고 미숫가루.)

107086 @ 콩, 콩으로는 안헨마씨? 보리로만 헨마씨?(콩, 콩으로는 안했어요? 보리로만 했어요?)

107086 #1 미숫가루 콩으로 콩도 들어가주게. 콩으로만은 미숫가루 못 허여.(미숫가루 콩으로 콩도 들어가지. 콩으로만은 미숫가루 못 해.)

107086 @ 아. 보리가 좀 있어야 돼마씨?(아. 보리가 좀 있어야 돼요?)

107086 #1 보리하고 섞어야 콩 미숫가루 돼주게.(보리하고 섞어야 콩 미숫가루 되지.)

107086 @ 아.(아.)

107086 #1 콩은.(콩은.)

107086 @ 예.(예.)

107086 #1 그거는 뭐냐허면 이 내음새가 좋다고. 냄새가.(그거는 뭐냐하면 이 냄새가 좋다고. 냄새가.)

107086 @ 예.(예.)

107086 #1 코소롱 현 냄새가 나주게.(고소한 냄새가 나지.)

107086 @ 예.(예.)

107087 @ 그럼 지짐이 잇잖아예?(그럼 지짐이 잇잖아요?)

107087 #1 어.(어.)

107087 @ 지짐이는 종류가 뭐 잇어마씨?(지짐이는 종류가 뭐 잇어요?)

107087 #1 지짐이엔 흔 게 옛날은 적이엔 현 거주게.(지짐이라고 한 게 옛날은

적이라고 한 거지.)

107087 @ 뭐마씨?(뭐요?)

107087 #1 적.(적.)

107087 @ 적. 종류는 뭐 잇수광?(적. 종류는 뭐 있습니까?)

107087 #1 적 종류가.(적 종류가.)

107087 @ 예.(예.)

107087 #1 그 제사 때.(그 제사 때.)

107087 @ 예.(예.)

107087 #1 적 고지 이렇게 꿰어가지고 상에 올리지 않혀여?(적 꼬챙이 이렇게 꿰어가지고 상에 올리지 않아?)

107087 @ 예.(예.)

107087 #1 몰라. 요즘은 그게 그게 어실 거라. 허는 디는 햄서. 그게 뭔가 지짐 이주게.(몰라. 요즘은 그게 그게 없을 거라. 하는 데는 하지. 그게 뭔가 지짐이지.)

107088 @ 아. 그럼 오메기술¹¹⁷⁾은 알아마씨?(아. 그럼 ‘오메기술’은 알아요?)

107088 #1 오메기술은.(‘오메기술’은.)

107088 @ 예. 어떻 담가마씨?(예. 어떻게 담가요?)

107088 #1 어.(어.)

107088 @ 재료가 어떤 게 들어가고 이런 거.(재료가 어떤 게 들어가고 이런 거.)

107088 #1 오메기술이엔 현 거는 줍쌀 곱아서.(‘오메기술’이라고 한 거는 줍쌀 곱아서.)

107088 @ 예.(예.)

107088 #1 오메기¹¹⁸⁾엔 현 거는 뭐냐허면 줍쌀 곱아서 반죽허영.(‘오메기’라고 한 거는 뭐냐하면 줍쌀 곱아서 반죽해서.)

107088 @ 예.(예.)

107088 #1 이제 여러 가지 반죽 만들어가지고 거 떼어 내면서 이렇게 오메기를 만들어.(이제 여러 가지 반죽 만들어가지고 거 떼어 내면서 이렇게 ‘오메기’를 만들어.)

107088 @ 예.(예.)

107088 #1 만들어서 이젠 솥에 솥 솥에 물 채우면서 대썰 잇잖아. 대썰이. 새나 대썰이나.(만들어서 이젠 솥에 솥 솥에 물 채우면서 댓잎 잇잖아. 댓잎이. 새나 댓잎이나.)

107088 @ 대썰? 대썰이 뭐짱?(댓잎? 댓잎이 무엇입니까?)

117) ‘오메기술’은 차좁쌀 가루를 익반죽해 만든 오메기떡에 누룩을 섞어 반죽한 후 적당량의 물을 넣어 발효시킨, 제주 전통 민속주이다.

118) ‘오메기’는 차좁쌀 가루에 더운 물을 넣어 되게 반죽해서 둥그렇게 만든 후 가운데 큰 구멍을 뚫어 만들거나 둥글납작하게 만들어서 삶아 낸 떡이다. 팔고물은 무치거나 소를 넣어 만들기도 하며, 술감으로 쓰이기도 한다.

107088 #1 대. 대.(대. 대.)
 107088 @ 아, 대.(아, 대.)
 107088 #1 대나 새 알지? 새?(대나 새 알지? 새?)
 107088 @ 예.(예.)
 107088 #1 새나 대나 요만큼 행 묶어근엥 솟에다가 꼬아.(새나 대나 요만큼 해서 묶어서 솟에다가 꼬아.)
 107088 @ 예.(예.)
 107088 #1 그거 꼬아가지고 오메기떡 멘든 걸 거기에 집어 놔.(그거 꼬아가지고 ‘오메기떡’ 만든 걸 거기에 집어 놔.)
 107088 @ 예.(예.)
 107088 #1 막 익은 줄 알면 그걸 해서 오메기떡을 건져놔.(막 익은 줄 알면 그걸 해서 ‘오메기떡’을 건져놔.)
 107088 @ 예.(예.)
 107088 #1 건져놔가지고 그걸 이제 막 뜨겁게 해서.(건져놔가지고 그걸 이제 막 뜨겁게 해서.)
 107088 @ 예.(예.)
 107088 #1 그걸 다시 죽 닥게 만들엉 그걸 향아리에 담아가지고 만드는 게 오메기술이주게.(그걸 다시 죽 닥게 만들어서 그걸 향아리에 담아가지고 만드는 게 ‘오메기술’이지.)
 107088 @ 아. 오메기가 좁쌀로 만든 거마씨?(아. ‘오메기’가 좁쌀로 만든 거예요?)
 107088 #1 어. 오메기. 좁쌀.(어. ‘오메기’. 좁쌀.)
 107089 @ 그럼 쉰다리¹¹⁹⁾? 쉰다리?(그럼 ‘쉰다리’? ‘쉰다리’?)
 107089 #1 순다리. 순다리는.(‘순다리’. ‘순다리’는.)
 107089 @ 아. 순다리.(아. ‘순다리’.)
 107089 #1 순다리는 우리가 밥을 보리밥이나 이제 쌀밥이나, 콩 든 거는 안 돼. 순다리엔 허는 건.(‘순다리’는 우리가 밥을 보리밥이나 이제 쌀밥이나, 콩 든 거는 안 돼. ‘순다리’라고 하는 건.)
 107089 @ 콩 든 거는 안 돼고.(콩 든 거는 안 되고.)
 107089 #1 콩 든 거는 안 돼고. 쌀로만 만든 거. 밥. 보리밥이나 조밥이나 아무 밥이라도. 밥은 되는데. 쌀로 만든 거.(콩 든 거는 안 되고. 쌀로만 만든 거. 밥. 보리밥이나 조밥이나 아무 밥이라도. 밥은 되는데. 쌀로 만든 거.)
 107089 @ 예.(예.)
 107089 #1 쌀 만든 걸로 먹다 남으면 그걸 큰 다라에 놔가지고 물 좀 놔가지고 그걸 썩여.(쌀 만든 걸로 먹다 남으면 그걸 큰 다라에 놔가지고 물 좀 놔가지고 그걸 썩여.)

119) ‘쉰다리’는 쉰 듯한 밥에 누룩을 넣고 발효시켜 만든 음료를 말하는 제주어이다. = 순다리.

107089 @ 예.(예.)

107089 #1 이제 그거 썩으면 나중에 그것에서 맛이 나와 그냥.(이제 그거 썩으면 나중에 그것에서 맛이 나와 그냥.)

107089 @ 예.(예.)

107089 #1 그냥 그거 먹으면 그게 순다리야.(그냥 그거 먹으면 그게 ‘순다리’야.)

107090 @ 삼촌 그럼 누룩도 알아마씨?(삼촌 그럼 누룩도 알아요?)

107090 #1 누룩도 알주게.(누룩도 알지.)

107090 @ 누룩은 어떻 만들어마씨?(누룩은 어떻게 만들어요?)

107090 #1 누룩은 두 가지가 잇주게.(누룩은 두 가지가 있지.)

107090 @ 아. 뭐가 잇어마씨?(아, 뭐가 있어요?)

107090 #1 보리누룩이 잇고.(보리누룩이 잇고.)

107090 @ 예.(예.)

107090 #1 밀 누룩이 잇주게.(밀 누룩이 있지.)

107090 @ 아.(아.)

107090 #1 그거는 저 크게 곱지 안 혀여. 곱게 곱아.(그거는 저 크게 곱지 안 해. 곱게 곱아.)

107090 @ 곱게 곱아.(곱게 곱아.)

107090 #1 어. 곱게 곱아가지고 그걸 물에 쪼금 놔가지고 반죽을 마르게 혀여. 마르게 쥐던지 하꾸에 놔가지고 덜렁 놔두면 거기서 터.(어. 곱게 곱아가지고 그걸 물에 쪼금 놔가지고 반죽을 마르게 해. 마르게 쥐던지 하꾸에 놔가지고 덜어서 놔두면 거기서 터.)

107090 @ 예.(예.)

107090 #1 트면 거기서 물리면 빨간 게 나오는 것이 잇고 검은 게 나오는 것이 잇주게. 그것이 누룩이주게.(트면 거기서 말리면 빨간 게 나오는 것이 잇고 검은 게 나오는 것이 있지. 그것이 누룩이지.)

107090 @ 아 빨간 거 아니면 검은 거마씨?(아 빨간 거 아니면 검은 거요?)

107090 #1 어.(어.)

107090 @ 그러면 보리랑 밀로 만드는 거는 똑같아마씨?(그러면 보리랑 밀로 만드는 거는 똑같아요?)

107090 #1 어. 똑같아.(어. 똑같아.)

107090 @ 그럼 삼촌 어느 거 많이 만들언마씨?(그럼 삼촌 어느 거 많이 만들었어요?)

107090 #1 어?(어?)

107090 @ 누룩 두 가지 중에 어느 거 주로 만들언마씨?(누룩 두 가지 중에 어느 거 주로 만들었어요?)

107090 #1 누룩이엔 현 게 보리로 많이 만들주게.(누룩이라고 한 게 보리로 많

이 만들지.)

107090 @ 밀이 여기 잘 안 나지예?(밀이 여기 잘 안 나오지요?)

107090 #1 어. 잘 안 나오니까.(어. 잘 안 나오니까.)

107091 @ 그럼 삼촌 옛도 만들어봤수광? 옛?(그럼 삼촌 옛도 만들어봤습니까?
옛?)

107091 #1 옛도 만들주게.(옛도 만들지.)

107091 @ 옛은 종류가 뭐 잇어마씨?(옛은 종류가 뭐 있어요?)

107091 #1과는,과는 옛은 여기서 못 만들어.(과는,과는 옛은 여기서 못 만들
어.)

107091 @ 예.과는 옛 말고.옛은 종류가 뭐, 뭐 잇어마씨?(예.과는 옛 말고.
옛은 종류가 뭐, 뭐 있어요?)

107091 #1 저 뭔가 골¹²⁰.(저 뭔가 옛기름.)

107091 @ 예.(예.)

107091 #1 저 보리에서 나는 거. 골. 그거 모르지?(저 보리에서 나는 거. 옛기
름. 그거 모르지?)

107091 @ 예.(예.)

107091 #1 보리 그 옛을 만들려면 농촌에서 촌에서 만들려면 보리나면 뽕족뽕
족 순이 나.(보리 그 옛을 만들려면 농촌에서 촌에서 만들려면 보리나면 뽕족뽕
족 순이 나.)

107091 @ 예.(예.)

107091 #1 거기에다가 물 켜서 놓으면.(거기에다가 물 섞어서 놓으면.)

107091 @ 예.(예.)

107091 #1 그걸 몰려.(그걸 말려.)

107091 @ 예.(예.)

107091 #1 저 보리 갈아가지고 아니. 몰려가지고 옛 그거하고 줍쌀허고.(저 보
리 갈아가지고 아니. 말려가지고 옛 그거하고 줍쌀허고.)

107091 @ 예.(예.)

107091 #1 이젠 놔서 이제 골허고 섞어가지고 이제 딸려.(이젠 놔서 이제 옛기
름하고 섞어가지고 이제 달여.)

107091 @ 예.(예.)

107091 #1 딸려서 이제.(달여서 이제.)

107091 @ 삼촌 다시 처음부터 다시 옛 만드는 거 얘기해 줘서.(삼촌 다시 처음
부터 다시 옛 만드는 거 얘기해 주십시오.)

107091 #1 처음부터?(처음부터?)

107091 @ 예.(예.)

107091 #1 줍쌀허고.(줍쌀허고.)

120) '골'은 옛기름의 제주어이다.

107091 @ 예.(예.)

107091 #1 보리 순 나는 ㄹ르.(보리 순 나는 가루.)

107091 @ 예.(예.)

107091 #1 ㄹ르하고 놓으면 반죽 될 거 아니냐.(가루하고 놓으면 반죽 될 거 아니냐.)

107091 @ 예.(예.)

107091 #1 반죽 돼면은 그 물을 채로 걸러.(반죽 되면 그 물을 채로 걸러.)

107091 @ 채로 걸러마씨?(채로 걸러요?)

107091 #1 어. 걸러. 걸러가지고 무르게 해가지고 거기 속에 잇는 물을 다 빠지게끔 행.(어. 걸러. 걸러가지고 무르게 해가지고 거기 속에 잇는 물을 다 빠지게끔 해서.)

107091 @ 예.(예.)

107091 #1 이제 물 빼서 그걸 솥에다가 허면 엿이 되는 거주게.(이제 물 빼서 그걸 솥에다가 하면 엿이 되는 거지.)

107091 @ 예.(예.)

107091 #1 그것이 보통 이 자식들이나 올 적에 엿이나 행 먹고 싶으면 그와 같이 해 먹주게.(그것이 보통 이 자식들이나 올 적에 엿이나 해서 먹고 싶으면 그와 같이 해 먹지.)

107091 @ 그건 무슨 엿이라고 해마씨? 좁쌀로 허니까 좁쌀엿이라고 해마씨?(그건 무슨 엿이라고 해요? 좁쌀로 하니까 좁쌀엿이라고 해요?)

107091 #1 벨다른 엿이라고 허는 거는 이름이 하나밖에 없어.(벨다른 엿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이 하나밖에 없어.)

기타

107092 @ 삼촌 그럼 음식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봤잖아예?(삼촌 그럼 음식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봤잖아요?)

107092 #1 어.(어.)

107092 @ 여기서 주로 행 먹는 제가 물어보지 않은 것 중에 다른 거 생각나는 거 잇수광?(여기서 주로 해서 먹는 제가 물어보지 않은 것 중에 다른 거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107092 #1 어?(어?)

107092 @ 아까 물어본 거 말고 다른 거 주로 드시는 음식 뭐 잇어마씨?(아까 물어본 거 말고 다른 거 주로 드시는 음식 뭐 잇어요?)

107092 #1 뭐 다른 거 엿어. 먹는 거 다 나왔네. 먹는 거는.(뭐 다른 거 없어. 먹는 거 다 나왔네. 먹는 거는.)

107092 @ 아, 이 동네에서 먹는 거는 다 나왔마씨?(아, 이 동네에서 먹는 거는 다 나왔어요?)

107092 #1 어.(어.)

107092 @ 그럼 삼촌 어렸을 때 먹은 거 잇잖아예. 어렸을 때. 요즘에는 막 군것질 허잖아예?(그럼 삼촌 어렸을 때 먹은 거 잇잖아요. 어렸을 때. 요즘에는 막 군것질 하잖아요?)

107092 #1 어.(어.)

107092 @ 과자나 아이스크림이나. 예전에는 그런 거 없잖아예.(과자나 아이스크림이나. 예전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107092 #1 어. 예전에 엇엇어.(어. 예전에 없엇어.)

107092 @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뭔가 군것질 허고 싶을 때는 예전에 뭐 먹엇인가마씨? 예전에.(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뭔가 군것질 하고 싶을 때는 예전에 뭐 먹엇어요? 예전에.)

107092 #1 옛날은 군것질 허는 게 우리 커 갈 때 군것질이라는 거는 저 밧에서 나는 거 고구마나.(옛날은 군것질 하는 게 우리 커 갈 때 군것질이라는 거는 저 밧에서 나는 거 고구마나.)

107092 @ 예.(예.)

107092 #1 그거 찌어가지고.(그거 찌가지고.)

107092 @ 예.(예.)

107092 #1 솥에서 찌어가지고 그거나 하나 잡아먹고 이렇게 했지.(솥에서 찌가지고 그거나 하나 잡아먹고 이렇게 했지.)

107092 @ 예.(예.)

107092 #1 군것질이라는 것 엇어.(군것질이라는 것 없어.)

107092 @ 아. 따로 군것질이라는 거는 엇고.(아. 따로 군것질이라는 거는 없고.)

107092 #1 어.(어.)

107092 @ 여름에 팟빙수 요즘 행 먹는데 그런 거 엇엇겠다예?(여름에 팟빙수 요즘 해서 먹는데 그런 거 없엇겠군요?)

107092 #1 어. 그런 거 엇어.(어. 그런 거 없어.)

107092 @ 그럼 예전에 냉장고 없엇을 때 얼음은?(그럼 예전에 냉장고 없엇을 때 얼음은?)

107092 #1 얼음은 없엇어.(얼음은 없엇어.)

107092 @ 얼음 파는 데는 없언마씨?(얼음 파는 데는 없엇어요?)

107092 #1 어, 옛날에 없엇어.(어, 옛날에 없엇어.)

107092 @ 아, 없언마씨?(아, 없엇어요?)

107092 #1 어. 얼음이라는 거는 냉장고 나오기 시작할 때 얼음 나왔지.(어. 얼음이라는 거는 냉장고 나오기 시작할 때 얼음 나왔지.)

107092 @ 그럼 냉장고 나오기 전에는 저장은 어떻게 했어요? 음식 같은 거.(그럼 냉장고 나오기 전에는 저장은 어떻게 했어요? 음식 같은 거.)

107092 #1 김치 곶은 거?(김치 곶은 거?)

107092 @ 예.(예.)

107092 #1 많이 안 만들어.(많이 안 만들어.)

107092 @ 아, 많이 안 만들어. 그럼 삼촌 어렸을 때 먹었던 거 균것질 기억나는 거는 고구마, 감자 그런 거.(아, 많이 안 만들어. 그럼 삼촌 어렸을 때 먹었던 거 균것질 기억나는 거는 고구마, 감자 그런 거.)

107092 #1 고구마, 감자밖에 농촌에는이.(고구마, 감자밖에 농촌에는.)

107092 @ 예.(예.)

107092 #1 균것질이라는 거는 잊주게.(균것질이라는 거는 없지.)

107092 @ 예.(예.)

107092 #1 지금은 돈만 주면 과자 같은 거 먹을 수 잇인다.(지금은 돈만 주면 과자 같은 거 먹을 수 잇는데.)

107092 @ 예.(예.)

107092 #1 먹음도 허고 그러는디 그때는 잊었어.(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잊었어.)

107092 @ 아, 그때는 잊언마씨?(아, 그때는 잊었어요?)

107092 #1 고구마도.(고구마도.)

107092 @ 예.(예.)

107092 #1 뭔가 찌어가지고 놔두면 쉬면 버려불고.(뭔가 찌가지고 놔두면 쉬면 버려버리고.)

107092 @ 예.(예.)

107092 #1 안 쉬면은 먹고.(안 쉬면은 먹고.)

107092 @ 예.(예.)

107092 #1 그렇지.(그렇지.)

107092 @ 음.(음.)

107092 #1 균것질이라는 거는 지실, 고구마밖에 잊주게. 하도 어렵게 크니까 잊었지.(균것질이라는 거는 감자, 고구마밖에 없지. 하도 어렵게 크니까 잊었지.)

107092 @ 그럼 여기 한장동에는 슈퍼 잇인가마씨?(그럼 여기 ‘한장동’에는 슈퍼 잇었어요?)

107092 #1 어?(어?)

107092 @ 슈퍼.(슈퍼.)

107092 #1 슈퍼 잊어.(슈퍼 없어.)

107092 @ 아 잊언마씨?(아 잊었어요?)

107092 #1 잇어났어.(잇었어.)

107092 @ 아, 잇어난마씨?(아, 잇었어요?)

107092 #1 잇어났는데. 술 잇으니까 술 파니까 하도 한장 청년들이 술 먹어부니까.(잇어났는데. 술 잇으니까 술 파니까 하도 ‘한장’ 청년들이 술 먹어버리니까.)

107092 @ 예.(예.)

107092 #1 부인회에서 막아버렸어.(부인회에서 막아버렸어.)

107092 @ 아, 부인회에서 막아불언?(아, 부인회에서 막아버렸어요?)

107092 #1 막아불민 별 수 있나. 고산 강 술 먹영 오당 술 가정오당 병 깨지면 그거 먹고 경 헛주게. 여기 술 때문에 많이 죽었다.(막아버리면 별 수 있나. '고산' 가서 술 먹어서 오다가 술 가져오다가 병 깨지면 그거 먹고 그렇게 했지. 여기 술 때문에 많이 죽었다.)

107092 @ 아, 술 때문에?(아, 술 때문에?)

107092 #1 어, 나 밑에 잇는 애들.(어, 나 밑에 잇는 애들.)

107092 @ 예.(예.)

107092 #1 술 때문에 많이 죽엇주게.(술 때문에 많이 죽었지.)

107001 @ 할머니, 이제 밥 먹는 거.(할머니, 이제 밥 먹는 거.)

107001 #1 어.(어.)

107001 @ 옛날에 밥 먹는 거 좀 물어볼게예.(옛날에 밥 먹는 거 좀 물어볼게요.)

107001 #3 어.(어.)

107001 @ 그 밥의 종류 잇잖아예.(그 밥의 종류 잇잖아요.)

107001 #3 어.(어.)

107001 @ 옛날에 밥 종류 뭐, 뭐 잇엇주마씨?(옛날에 밥 종류 뭐, 뭐 잇엇지요?)

107001 #3 어이?(어이?)

107001 @ 밥 종류.(밥 종류.)

107001 #3 밥 종류게, 보리쌀 낱 지영 삶아근엥 그냥 보리, 그 보리밥만 먹을 때 잇곡.(밥 종류, 보리쌀 놔서 지어서 삶아서 그냥 보리, 그 보리밥만 먹을 때 잇고.)

107001 @ 예.(예.)

107001 #3 쌀 나난 이제, 나룩 나난 나룩 허영 찌어근에, 그거 이제.(쌀 나오니까 이제, 벼 나니까 벼 해서 지어서, 그거 이제.)

107001 @ 예.(예.)

107001 #3 쌀 헤어근에, 보리밥을, 보리쌀 쌀 낱 그냥 좀 호로록 헤근엥 먹어.(쌀 해서, 보리밥을, 보리쌀 쌀 놔서 그것 좀 호로록 해서 먹어.)

107002 @ 아, 그믄 그 밥 만들 때 쌀 종류가 보리랑 그 다음에 또 뭐 잇어마씨?(아, 그러면 그 밥 만들 때 쌀 종류가 보리랑 그 다음에 또 뭐 잇어요?)

107002 #3 보리, 나룩.(보리, 벼)

107002 @ 나룩.(벼.)

107002 #3 예.(예.)

107002 @ 그 두 개만 헤마씨?(그 두개만 해요?)

107002 #3 응.(응.)

107003 @ 그 큰 보리밥에 대해서 이거 어떻 만들어마씨? 보리밥.(그러면 보리밥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보리밥.)

107003 #3 보리밥을?(보리밥을?)

107003 @ 예. 보리밥은 언제 먹었마씨? 옛날에?(예. 보리밥은 언제 먹었어요? 옛날에?)

107003 #3 보리밥.(보리밥.)

107003 @ 예.(예.)

107003 #3 보리 나면 지영 아무 때나 해 먹어.(보리 나면 지어서 아무 때나 해 먹어.)

107003 @ 아무 때나?(아무 때나?)

107003 #3 예.(예.)

107003 @ 아.(아.)

107003 #3 보리 이제. 사오월, 오월 나면 보리 비민 그자 그걸, 이제 봐근엥, 뭐 시 허민 그자, 그 보리쌀 이제 솥아근에. 그전엔 보리쌀만 솥양 먹다가.(보리 이제. 사오월, 오월 나면 보리 베면 그저 그걸, 이제 봐서, 뭐 하면 그저, 그 보리쌀 이제 삶아서. 그전에는 보리쌀만 삶아서 먹다가.)

107003 @ 예.(예.)

107003 #3 나룩 나난.(벼 나니까.)

107003 @ 예.(예.)

107003 #3 나룩 나난, 이제 나룩 지어근에 쌀 이제, 그 쌀은 이제, 그걸 귀허다고 그 쌀은 이제, 제사도 지내고, 제사 지내는 데 떡도 허곡, 거 귀허다곡, 헌쭈씩 해서, 그저 흐끔 먹어.(벼 나니까, 이제 벼 지어서 쌀 이제, 그 쌀은 이제, 그걸 귀허하다고 그 쌀은 이제, 제사도 지내고, 제사 지내는 데 떡도 하고, 거 귀허하다고, 헌쭈씩 해서, 그저 조금 먹어.)

107003 @ 아, 흐끔 먹어마씨?(아, 조금 먹어요?)

107004 @ 아. 그럼 그 반지기밥도 잇수광? 반지기밥.(아. 그럼 그 ‘반지기밥’도 있습니까? ‘반지기밥’)

107004 #3 반지기 잇주게.(‘반지기’ 있지.)

107004 @ 예. 반지기는 뭐짱?(예. ‘반지기’는 무엇입니까?)

107004 #3 반지기?(‘반지기’?)

107004 @ 예.(예.)

107004 #3 좁쌀에 보리쌀에, 쌀에 그래 서끄영 밥 하민 시 가지, 네 가지 서끄어 놓민, 반지기라 허지.(좁쌀에 보리쌀에, 쌀에 그래 섞어서 밥 하면 세 가지, 네 가지 섞어 놓으면, ‘반지기’라 하지.)

107004 @ 음. 시 가지, 네 가지 섞어야 됩마씨?(음. 세 가지, 네 가지 섞어야 돼요?)

107004 #3 어, 시 가지, 네 가지 서꿀 때 잇주게.(어, 세 가지, 네 가지 섞을 때

있지.)

107004 @ 아.(아.)

107004 #3 보리쌀에 좁쌀에 게고 이제 입쌀에.(보리쌀에 좁쌀에 그리고 이제 입쌀에.)

107004 @ 음.(음.)

107004 #3 좁쌀에 보리쌀에 입쌀에 풋도 서끄영 떡곡.(좁쌀에 보리쌀에 입쌀에 팔도 섞어서 먹고.)

107004 @ 아 풋도.(아 팔도.)

107004 #3 예.(예.)

107005 @ 그럼 흰밥 잇잖아예.(그럼 흰밥 잇잖아요.)

107005 #3 예.(예.)

107005 @ 그 곤밥이라고 헨마씨?(그 ‘곤밥’이라고 했어요?)

107005 #3 곤밥은, 흰밥은 쌀만 넣영 허민 흰밥이라.(‘곤밥’은, 흰밥은 쌀만 넣어서 하면 흰밥이라.)

107005 @ 아.(아.)

107005 #3 아무것도 잡곡 아이 넣어. 잡곡 이것저것 아이 넣, 그저 쌀만 넣으면 흰밥이라.(아무것도 잡곡 아니 넣어. 잡곡 이것저것 아니 넣어서, 그저 쌀만 넣으면 흰밥이야.)

107005 @ 요즘엔 흰밥이라 하잖아예.(요즘에는 흰밥이라고 하잖아요.)

107005 #3 예.(예.)

107005 @ 옛날에는 뭐라고 헨마씨?(옛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107005 #3 곤밥.(‘곤밥’.)

107005 @ 곤밥. 무사 곤밥이라 헷수광? 알아마씨?(‘곤밥’. 왜 ‘곤밥’이라고 했습니까? 알아요?)

107005 #3 응?(응?)

107005 @ 무사 곤밥이라고 헷인가?(왜 ‘곤밥’이라고 했습니까?)

107005 #3 곱다고.(곱다고.)

107005 @ 아, 곱다고.(아, 곱다고.)

107005 #3 예.(예.)

107005 @ 하얗게 곱다고.(하얗게 곱다고.)

107005 #3 어. 하얗게 곱다고 헤근영 곤밥이라고 헷주.(어. 하얗게 곱다고 해서 ‘곤밥’이라고 했지.)

107006 @ 아, 할머니 그럼 옛날에 조밥도 드션마씨?(아, 할머니 그럼 옛날에 조밥도 드셨어요?)

107006 #3 좁쌀도 조밥만 헤 먹을 때 잇엇주게.(좁쌀도 조밥만 헤 먹을 때 잇엇지.)

107006 @ 그럼 옛날에 조밥은 언제 헤 먹언마씨?(그럼 옛날에 조밥은 언제 헤

먹었어요?)

107006 #3 조팍은 ㄱ을 들어야.(조팍을 가을 들어야.)

107006 @ 가을?(가을?)

107006 #3 가을 들어야 조, 구시월 돼야 조팍허여.(가을 들어야 조, 구시월 돼야 조팍해.)

107006 @ 아, 구시월 돼야.(아, 구시월 돼야.)

107006 #3 예.(예.)

107006 @ 그럼 그 요즘에 밭에 심는 건 뭐짱?(그럼 그 요즘에 밭에 심는 건 무엇입니까?)

107006 #3 요즘에 밭에 잇는 거?(요즘에 밭에 잇는 거?)

107006 @ 네. 아까 지나가면서 보니까 밭에 뭐 잇던테마씨.(네. 아까 지나가면서 보니까 밭에 뭐 잇던데요.)

107006 #3 보리 갈았주게.(보리 갈았지.)

107006 @ 아, 보리.(아, 보리.)

107006 #3 시퍼런 거?(시퍼런 거?)

107006 @ 예.(예.)

107006 #3 거 보리 갈안.(거 보리 갈았어.)

107006 @ 아, 그럼 지금 보리 지금 보리 갈아마씨?(아, 그럼 지금 보리 지금 보리 갈아요?)

107006 #3 보리 갈곡.(보리 갈고.)

107006 @ 예.(예.)

107006 #3 그거 이제, 저 강낭도 심그곡, 다마네기도 심그곡, 그 몇 가지 심거.(그거 이제, 저 강낭콩도 심고, 양파도 심고, 그 몇 가지 심어.)

107007 @ 그럼 아까 얘기헌 건데 팍팍 잇잖아예.(그럼 아까 얘기한 건데 팍팍 잇잖아요.)

107007 #3 어이?(어이?)

107007 @ 팍팍 잇잖아예.(팍팍 잇잖아요.)

107007 #3 팍도 갈아. 팍. 팍도 갈곡, 밥에다 넣엉 먹언.(팍도 갈아. 팍. 팍도 갈고, 밥에다 넣어서 먹었어.)

107007 @ 밥에다가 넣엉 먹언마씨?(밥에다가 넣어서 먹었어요?)

107007 #3 어.(어.)

107007 @ 그거 옛날에도 자주 행 먹언마씨?(그거 옛날에도 자주 해서 먹었어요?)

107007 #3 옛날엔, 그 보리쌀만 먹어. 보리쌀 넣엉, 팍 해 낫당 팍 솥아근영.(옛날에는, 그 보리쌀만 먹어. 보리쌀 넣어서, 팍 해 낫다가 팍 삶아서.)

107007 @ 예.(예.)

107007 #3 보리쌀 씻어 낱, 곶이 밥 해 먹엇주게.(보리쌀 씻어 놔서, 같이 밥 해

먹었지.)

107007 @ 아, 경 헨마씨?(아, 그렇게 했어요?)

107007 #3 어어.(어어.)

107008 @ 피밥도 잇수광? 피밥? 수수로 만든 거. 피밥?(피밥도 있습니까? 피밥? 수수로 만든 거. 피밥?)

107008 #3 피? 피가 잇어.(피? 피가 잇어.)

107008 @ 아, 피가 잇어마씨?(아, 피가 잇어요?)

107008 #3 피가 따로 잇어.(피가 따로 잇어.)

107008 @ 예.(예.)

107008 #3 나눗 님은 거. 그 피가 따로 잇엇주게.(벼 님은 거. 그 피가 따로 잇엇지.)

107008 @ 아아.(아아.)

107008 #3 그거 피주게. 피 그거 이제, 출 출진 거는 이제 밥에당 넣영 먹고, 메, 메좁쌀 같이 모인 거는 아니 허주, 좁쌀에 헤영 먹어.(그거 피지. 피 그거 이제, 찰 찰진 거는 이제 밥에다가 넣어서 먹고, 메, 메좁쌀 같이 모인 거는 아니 하지, 좁쌀에 해서 먹어.)

107008 @ 아아. 촌 거는 밥을 해 먹엇수광?(아아. 찰진 거는 밥을 해 먹엇습니까?)

107008 #3 어.(어.)

107008 @ 아, 저번에 갓을 때는 할아버지들은 잘 모르시던테마씨. 할머니는 안다예. 피밥.(아, 저번에 갓을 때는 할아버지들을 잘 모르시던테요. 할머니는 아시는군요. 피밥.)

107008 #3 어. 피밥.(어. 피밥.)

107008 @ 거 볶서. 말 많이 곱을 수 있잖아마씨.(거 보십시오. 말 많이 말할 수 있잖아요.)

107008 #3 어. 허허허.(어. 허허허.)

107009 @ 그 다음에 어. 그. 밥 헐 때, 감자, 지실도 막 집어넣잖아예.(그 다음에 어. 그. 밥 할 때, 감자, 감자도 막 집어넣잖아요.)

107009 #3 곱이 넣영 먹어.(같이 넣어서 먹어.)

107009 @ 아.(아.)

107009 #3 감저도 밥 헐 때 낱 먹고, 지실도 낱 먹고.(고구마도 밥 할 때 놔서 먹고, 감자도 놔서 먹고.)

107009 @ 아, 그럼 그건 무슨 밥이라 헨마씨?(아, 그럼 그건 무슨 밥이라고 했어요?)

107009 #3 예.(예.)

107009 @ 그거 감저밥, 지실밥이라 헨마씨?(그거 고구마밥, 감자밥이라 했어요?)

107009 #3 보리밥.(보리밥.)
107009 @ 그냥 보리밥마씨?(그냥 보리밥이요?)
107009 #3 예.(예.)
107010 @ 음. 그럼 밥할 때 무도, 그 늪삐도 집어넣언마씨?(음. 그럼 밥할 때 무도, 그 무도 집어넣었어요?)
107010 #3 예?(예?)
107010 @ 늪삐도 집어넣언마씨? 늪삐?(무도 집어넣었어요? 무?)
107010 #3 늪삐?(무?)
107010 @ 예.(예.)
107010 #3 늪삐도 썰영 놔. 밥에.(무도 썰어서 놔. 밥에.)
107010 @ 아.(아.)
107010 #3 국만 끓이지 않고, 늪삐도 밥에 썰어 넣.(국만 끓이지 않고, 무도 밥에 썰어 놔서.)
107010 @ 아, 옛날엔.(아, 옛날에는.)
107010 #3 예.(예.)
107010 @ 아. 요즘에는 많이 경 안 하잖아예.(아, 요즘에는 많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107010 #3 요새 아이 먹어.(요새 안 먹어.)
107010 @ 무사 경, 옛날엔 경 먹어신가마씨?(왜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먹었나요?)
107010 #3 옛날은 하도 어렵게 살았이난, 하도, 하도 어려워 놓으난.(옛날은 하도 어렵게 살았으니까, 하도, 하도 어려워 놓으니까.)
107010 @ 하도 어려우니까.(하도 어려우니까.)
107010 #3 어 어려우난 벨걸 다 서끄영 먹엇주게, 옛날은.(어 어려우니까 별걸 다 섞어서 먹었지, 옛날은.)
107010 @ 경 해부난.(그렇게 해버리니까.)
107010 #3 하도 어려워부난.(하도 어려워버리니까.)
107010 @ 아아. 늪삐는 언제 키우지마씨? 심언마씨?(아아. 무는 언제 키우지요? 심었어요?)
107010 #3 뭐?(뭐?)
107010 @ 늪삐.(무.)
107010 #3 늪삐?(무?)
107010 @ 예.(예.)
107010 #3 늪삐 봄이.(무 봄에.)
107010 @ 봄이?(봄에?)
107010 #3 예.(예.)
107011 @ 음. 그 다음에 툷밥도 잇수과? 툷밥?(음. 그 다음에 툷밥도 있습니까?)

툇밥?)

107011 #3 뭐어?(뭐어?)

107011 @ 툇. 그 바다에서 나는.(툇. 그 바다에서 나는.)

107011 #3 바당에 툇?(바다에 툇?)

107011 @ 예. 툇.(예. 툇.)

107011 #3 툇밥은 이제, 밥을 그거, 행 어땡 해신고, 그 툇은 해여당, 국 행 먹
엇주게.(툇밥은 이제, 밥을 그거, 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 툇은 해다가, 국 해서 먹
었지.)

107011 @ 국 행 먹지예, 보통.(국 해서 먹지요, 보통.)

107011 #3 예.(예.)

107011 @ 그럼 그건 밥에다가는 잘 안 넣지예?(그럼 그건 밥에다가는 잘 안 넣
지요?)

107011 #3 밥에도 옛날엔 툇밥 해놔어.(밥에도 옛날에는 툇밥 했었어.)

107011 @ 아. 해난마씨.(아. 했었어요?)

107011 #3 옛날은 헛어.(옛날은 했어.)

107011 @ 예.(예.)

107011 #3 경 허난 거기서 툇밥이 나오는 거라.(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툇밥이
나오는 거야.)

107011 @ 아아. 할머니도 그거 드션마씨?(아아. 할머니도 그거 드셨어요?)

107011 #3 예?(예?)

107011 @ 할머니도 그거 드션마씨? 툇밥?(할머니도 그거 드셨어요? 툇밥?)

107011 #3 툇밥?(툇밥?)

107011 @ 응.(응.)

107011 #3 난 아니 먹어 봤어.(난 안 먹어 봤어.)

107011 @ 아니 먹어 판마씨?(안 먹어 봤어요?)

107011 #3 어어. 난 아니 해 보고.(어어. 난 안 해 보고.)

107011 @ 할머니 저 바다일은 안 해 봤지예?(할머니 저 바다일은 안 해 봤지
요?)

107011 #3 바당 강 물질 헛엇주게.(바다 가서 물질 했었지.)

107011 @ 아, 물질 헨마씨?(아, 물질 했어요?)

107011 #3 예.(예.)

107011 @ 아, 그럼 그것도 이따가 좀 물어볼게마씨.(아, 그럼 그것도 이따가 좀
물어볼게요.)

107011 #3 옛날에 점복도 따고, 소라도 잡고, 해난.(옛날에 전복도 따고, 소라도
잡고, 했었지.)

107012 @ 예, 알았수다. 패밥은 혹시 들어보션마씨? 패밥?(예, 알았습니다. 패밥
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패밥?)

107012 #3 과밥?(과밥?)
 107012 @ 패밥, 패.(패밥, 패.)
 107012 #3 과밥?(과밥?)
 107012 @ 패.(패.)
 107012 #3 패?(패?)
 107012 @ 예.(예.)
 107012 #3 바당에.(바다에.)
 107012 @ 예.(예.)
 107012 #3 패라고 잇었어. 패 잇이민 그거 뜯어당 삶아근에 밥 해 먹어놔주게.
 (패라고 잇었어. 패 있으면 그거 뜯어다가 삶아서 밥 해 먹었었지.)
 107012 @ 아, 그거 삶아근엔 그거 밥 해 먹언마씨?(아, 그거 삶아서 그거 밥 해 먹었어요?)
 107012 #3 예.(예.)
 107012 @ 아, 기구나예. 그럼 그건 무슨 맛이우파? 패밥은? 난 그 패밥은 안 먹어봤인디.(아, 그렇군요. 그럼 그건 무슨 맛입니까? 패밥은? 난 그 패밥은 안 먹어봤는데.)
 107012 #3 아이 먹어 봤주게. 패밥도 아무나 먹나. 아마 아무나 못 먹어.(안 먹어 봤지. 패밥도 아무나 먹나. 아마 아무나 못 먹어.)
 107013 @ 그러면 국, 이렇게 밥 말앙 국 먹잖아예.(그러면 국, 이렇게 밥 말아서 국 먹잖아요.)
 107013 #3 어.(어.)
 107013 @ 국은 무슨 국, 무슨 국 잇주마씨? 보통.(국은 무슨 국, 무슨 국 잇지요? 보통.)
 107013 #3 국은 배추도 이제 국 끓일 때 잇고, 늬삐도 국 끓일 때 잇고. 무 이파리 같은 것도 행 국 끓영 먹고.(국은 배추도 이제 국 끓일 때 잇고, 무도 국 끓일 때 잇고. 무 이파리 같은 것도 해서 국 끓여서 먹고.)
 107013 @ 그 이름이 무슨 국, 무슨 국이라고 헤마씨?(그 이름이 무슨 국, 무슨 국이라고 해요?)
 107013 #3 츠마귀¹²¹⁾. 츠마귀?(‘츠마귀’. ‘츠마귀’?)
 107013 @ 츠마귀? 그게 뭐우짱?(‘츠마귀’? 그게 무엇입니까?)
 107013 #3 늬삐 다음엔 츠마귀.(무 다음엔 ‘츠마귀’.)
 107013 @ 아, 츠마귀.(아, ‘츠마귀’)
 107013 #3 예. 츠마귀로 짐치도 담그곡, 국도 끓영 먹곡.(예. ‘츠마귀’로 짐치도 담그고, 국도 끓여서 먹고.)
 107015 @ 음. 할머니 그 콩나물로도 국 먹잖아예?(음. 할머니 그 콩나물로도 국 먹잖아요?)

121) ‘츠마귀’는 잎과 뿌리를 함께 먹을 수 있는 ‘어린 무’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07015 #3 콩나물도 헤영 먹고 그래.(콩나물도 해서 먹고 그래.)

107015 @ 그럼 콩나물로 헤 먹는 국은 콩나물국이라고 헤마씨?(그럼 콩나물로 헤 먹는 국은 콩나물국이라고 해요?)

107015 #3 콩나물은 그거 허영 뭐 허지 안 허고 제사 때도 콩나물, 녹물 허영 올리고, 제사 때도 쓰고 허는 디. 콩나물국을 끓여.(콩나물은 그거 해서 뭐 하지 안 하고 제사 때도 콩나물, 나물 해서 올리고, 제사 때도 쓰고 하는 데. 콩나물국을 끓여.)

107016 @ 아, 콩나물국을 끓여마씨?(아, 콩나물국을 끓여요?)

107016 #3 예.(예.)

107016 @ 그믐 무국 잇잖아예.(그러면 무국 잇잖아요.)

107016 #3 예?(예?)

107016 @ 무국, 무. 늠뻘 놔서 국도 끓이잖아예?(무국, 무, 무 놔서 국도 끓이잖아요?)

107016 #3 늠뻘도 넣영 국 끓이고, 배추도 넣영 국 끓이고. 국 끓이는 거 몇 가지 잇주게.(무도 넣어서 국 끓이고, 배추도 넣어서 국 끓이고. 국 끓이는 거 몇 가지 잇지.)

107017 @ 몇 가지 잇언마씨? 그믐 콩국도 드션마씨?(몇 가지 잇었어요? 그러면 콩국도 드셨어요?)

107017 #3 콩국은.(콩국은.)

107017 @ 예.(예.)

107017 #3 콩 갈앗다가.(콩 갈앗다가.)

107017 @ 예.(예.)

107017 #3 그거 곶앙, ㄹㄹ 놔근영, 콩ㄹㄹ 낱 국 끓여.(그거 갈아서, 가루 놔서, 콩가루 놔서 국 끓여.)

107017 @ 음.(음.)

107017 #3 늠뻘도 넣영 국 끓여 놓고. 늠뻘 이파리 잇어.(무도 넣어서 국 끓여 놓고. 무 이파리 잇어.)

107017 @ 예.(예.)

107017 #3 이파리도 삶아근예, 콩ㄹㄹ 문형 국 끓이고.(이파리도 삶아서, 콩가루 문혀서 국 끓이고.)

107017 @ 아, 삶양 이파리에 콩가루 문혀 가지고.(아, 삶아서 이파리에 콩가루 문혀 가지고.)

107017 #3 예.(예.)

107018 @ 그럼 그 호박잎으로도 국 끓연마씨?(그럼 그 호박잎으로도 국 끓였어 요?)

107018 #3 호박잎도 국 끓여먹어.(호박잎도 국 끓여먹어.)

107018 @ 아, 그건 어떻 끓여 먹언마씨?(아, 그건 어떻게 끓여 먹었어요?)

107018 #3 그건 그냥 저 연한 걸로 뜯어다가 씨를 빼어근엥 국 끓여 먹어.(그건 그냥 저 연한 걸로 뜯어다가 씨를 빼서 국 끓여서 먹어.)

107018 @ 씨를 빼 가지고?(씨를 빼 가지고?)

107018 #3 예, 씨가 잇주게 것도.(예, 씨가 있지 것도.)

107019 @ 그럼 뭉국 잇잖아에. 뭉국.(그럼 ‘뭉국’ 잇잖아요. ‘뭉국’.)

107019 #3 뭐?(뭐?)

107019 @ 뭉국.(‘뭉국’.)

107019 #3 뭉국은, 돼지 잡앙, 큰일 때 돼지 잡으민 그 몸을 빨앙 뭉국을 끓여.(‘뭉국’은, 돼지 잡아서, 큰일 때 돼지 잡으민 그 모자반을 빨아서 ‘뭉국’을 끓여.)

107019 @ 아아.(아아.)

107019 #3 돼지 국에.(돼지 국에.)

107019 @ 큰일 때 보통 먹언마씨?(큰일 때 보통 먹었어요?)

107019 #3 큰일 돌아오민 돼지 잡으민 그 몸이 쥔 좋주게. 그거 허영 국 끓여.(큰일 돌아오면 돼지 잡으민 그 모자반에 제일 좋지. 그거 해서 국 끓여.)

107019 @ 옛날에 그럼 자주 먹지는 못했겠다예.(옛날에 그럼 자주 먹지는 못했겠군요.)

107019 #3 예?(예?)

107019 @ 자주 먹지는 못했지예?(자주 먹지는 못했지요?)

107019 #3 자주 먹진 못 허지.(자주 먹지는 못 하지.)

107019 @ 예.(예.)

107019 #3 큰일 때에 어떻 허당 먹엇주게.(큰일 때에 어떻게 하다가 먹엇지.)

107020 @ 그럼 생선 집어넣어서도 국 끓이잖아에.(그럼 생선 집어넣어서도 국 끓이잖아요.)

107020 #3 생선도 국 끓이지.(생선도 국 끓이지.)

107020 @ 아 그러니까 생선국 종류는 뭐, 뭐 잇어마씨?(아 그러니까 생선국 종류는 뭐, 뭐 잇어요?)

107020 #3 어이?(어이?)

107020 @ 생선국 종류는 뭐, 뭐 잇주마씨?(생선국 종류는 뭐, 뭐 잇지요?)

107020 #3 생선. 생선도 뭐, 그거 제일 비싼 꿩기라. 제일 꿩기 중에 비싼 꿩기라. 생선.(생선. 생선도 뭐, 그거 제일 비싼 고기야. 제일 고기 중에 비싼 고기야. 생선.)

107020 @ 아, 생선이 제일 비싼 꿩기마씨?(아, 생선이 제일 비싼 고기예요?)

107020 #3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근을 행, 제사 때엔 굽어근엥 굽어, 제사에 올리는 거라.(그래서 그걸로 이제 간을 해서, 제사 때에는 구워서 구워서, 제사에 올리는 거야.)

107020 @ 아, 그럼 비싸지 않은 건, 생선이라고, 뭐라고 헨마씨?(아, 그럼 비싸지 않은 건, 생선이라고, 뭐라고 했어요?)

107020 #3 뭘?(뭘?)
107020 @ 그니까 생선국 만들 때 종류를.(그러니까 생선국 만들 때 종류를.)
107020 #3 거, 거. 비싸.(거, 거. 비싸.)
107020 @ 비싸마씨?(비싸요?)
107020 #3 어.(어.)
107021 @ 그러면 미역국도.(그러면 미역국도.)
107021 #3 메역국도 끓이고.(미역국도 끓이고.)
107021 @ 예.(예.)
107021 #3 메역국도 끓여먹었주.(미역국도 끓여먹었지.)
107021 @ 메역국은 언제 먹었마씨?(미역국은 언제 먹었어요?)
107021 #3 예. 메역국도 끓여. 멥질, 제사 때 메역국도 끓여.(예. 미역국도 끓여
서. 멥질, 제사 때 미역국도 끓여서.)
107021 @ 아아. 멥질 때?(아아. 멥질 때?)
107021 #3 예. 멥질 때영.(예. 멥질 때랑.)
107021 @ 평상시엔 메역국 잘 안 해 먹었마씨?(평상시에는 미역국 잘 안 해 먹
었어요?)
107021 #3 에이?(에이?)
107021 @ 평상시에, 보통 때는 메역국 잘 안 해 먹었마씨?(평상시에, 보통 때는
미역국 잘 안 해 먹었어요?)
107021 #3 메역국도 국 끓일라든 어려워.(미역국도 국 끓이려면 어려워.)
107021 @ 아. 무사마씨?(아. 왜요?)
107021 #3 경 해영 그걸 저 멥심혀영, 제사들 돌아오민 메역국 끓여.(그렇게 해
서 그걸 저 조심해서, 제사들 돌아오면 미역국 끓여.)
107021 @ 그럼 평소에 무슨 국을 제일 많이 드셨마씨?(그럼 평소에 무슨 국을
제일 많이 드셨어요?)
107021 #3 평상에는?(평상에는?)
107021 @ 예.(예.)
107021 #3 누물국이 제일 많이 끓이지.(나물국이 제일 많이 끓이지.)
107021 @ 아아. 누물국. 누물국은 어떻 만들주마씨?(아아. 나물국. 나물국은 어
떻게 만들지요?)
107021 #3 누물국을 그냥. 보통 누물국 끓여 밥 먹주게.(나물국을 그냥. 보통 나
물국 끓여서 밥 먹지.)
107021 @ 예.(예.)
107021 #3 그냥 맨밥은 못 먹으난 그자, 죽이나 사나 늬삐도 썰어낱 국 끓이
고.(그냥 맨밥은 못 먹으니까 그져, 죽이나 사나 무도 썰어놔서 국 끓이고.)
107021 @ 예.(예.)
107021 #3 호박잎도 썰어낱 국 끓이고. 배추도 행 국 끓이고.(호박잎도 썰어놔

서 국 끓이고. 배추도 해서 국 끓이고.)

107021 @ 예.(예.)

107021 #3 국 잊어민 밥 아이 먹주게기. 할망 웨영, 국을 허여야.(국 없으면 밥 안 먹지. 할머니 되어서 국을 해야.)

107022 @ 국을 해야 되는구나예. 그럼 여름에는 냉국 많이 먹잖아예?(국을 해야 되는군요. 그럼 여름에는 냉국 많이 먹잖아요?)

107022 #3 여름에 냉국 행 먹어.(여름에 냉국 해서 먹어.)

107022 @ 그럼 그 냉국은 어떻 만들언마씨?(그럼 그 냉국은 어떻게 만들었어 요?)

107022 #3 배추 삶양, 그거 이제 새파랗게 데와근엥 그거랑 행 냉국 해 먹주. (배추 삶아서, 그거 이제 새파랗게 데워서 그거와 해서 냉국 해 먹지.)

107022 @ 냉국은 종류 잊수광?(냉국은 종류 없습니까?)

107022 #3 냉국은, 메역도 냉국 헐 때 잇고, 종류가 잊어.(냉국은, 미역도 냉국 할 때 잇고, 종류가 잊어.)

107023 @ 아아. 그럼 성계국은 어떻 만들언마씨?(아아. 그럼 성계국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107023 #3 성계?(성계?)

107023 @ 성계, 성계국.(성계, 성계국.)

107023 #3 성계 비쌍 먹어져?(성계 비싸서 먹어져?)

107023 @ 그치예. 국으론 잘 안 해 먹지예?(그렇지요. 국으로는 잘 안 해 먹지 요?)

107023 #3 국 못 끓영 먹주게.(국 못 끓여서 먹지.)

107023 @ 옛날에도 비싼마씨?(옛날에도 비쌌어요?)

107023 #3 옛날예?(옛날예?)

107023 @ 예. 옛날에도 비싼마씨? 요즘엔 비싸잖아예.(예. 옛날에도 비쌌어요? 요즘에는 비싸잖아요.)

107023 #3 옛날에도 성계 잘 안 헛어.(옛날에도 성계 잘 안 했어.)

107023 @ 무사?(왜?)

107023 #3 비싼난 그거 잘 안 헛주게.(비싸니까 그거 잘 안 했지.)

107023 @ 보말국은 안 먹엇수과?(보말국은 안 먹었습니까?)

107023 #3 어?(어?)

107023 @ 보말국마씨.(보말국이요.)

107023 #3 보말?(보말?)

107023 @ 보말국. 보말 넣은 국.(보말국. 보말 넣은 국.)

107023 #3 보말?(보말?)

107023 @ 예.(예.)

107023 #3 보말 잡어당 국 끓여 먹어.(보말 잡어다가 국 끓여 먹어.)

107023 @ 그럼 그 물회는 옛날에 좀 먹었마씨?(그럼 그 물회는 옛날에 좀 먹었어요?)

107023 #3 머?(머?)

107023 @ 물회. 오징어물회, 그냥 자리물회 잇잖아예.(물회. 오징어물회, 그냥 자리물회 잇잖아요.)

107023 #3 어어.(어어.)

107023 @ 여름에 많이 먹잖아예.(여름에 많이 먹잖아요.)

107023 #3 어어.(어어.)

107023 @ 옛날에는 그거 먹었수광?(옛날에는 그거 먹었습니까?)

107023 #3 어. 그거 먹었어.(어. 그거 먹었어.)

107023 @ 아아.(아아.)

107023 #3 그거 먹언.(그거 먹었어.)

107023 @ 혹시 여름에 콩국수는 자주 안 먹언마씨?(혹시 여름에 콩국수는 자주 안 먹었어요?)

107023 #3 콩국?(콩국?)

107023 @ 콩국수.(콩국수.)

107023 #3 콩국수?(콩국수?)

107023 @ 예.(예.)

107023 #3 콩국수도 자주 행 먹었지, 어릴 때는.(콩국수도 자주 해서 먹었지, 어릴 때는.)

107023 @ 아. 여름 되면.(아. 여름 되면.)

107023 @ 예.(예.)

107024 @ 할머니 그럼 죽 잇잖아예, 죽. 밥 말앙 죽.(할머니 그럼 죽 잇잖아요, 죽. 밥 말고 죽.)

107024 #3 죽.(죽.)

107024 @ 어, 죽 종류는 뭐, 뭐 잇주마씨?(어, 죽 종류는 뭐, 뭐 잇지요?)

107024 #3 죽. 콩 갈아낫당 콩 글앙 그거 콩ㄱㄹ 낱 죽 썬.(죽. 콩 갈아놨다가 콩 갈아서 그거 콩가루 놔서 죽 썬.)

107024 @ 아, 콩ㄱㄹ 낱 죽 썬마씨?(아, 콩가루 놔서 죽 썬요?)

107024 #3 예.(예.)

107024 @ 그럼 그거는 무슨 죽이라고 헤마씨?(그럼 그거는 무슨 죽이라고 헤요?)

107024 #3 콩죽.(콩죽.)

107025 @ 콩죽. 그럼 흰죽 잇잖아예.(콩죽. 그럼 흰죽 잇잖아요.)

107025 #3 흰죽은 쌀만 놔근엿 끓인 것이 흰죽.(흰죽은 쌀만 놔서 끓인 것이 흰죽.)

107025 @ 할머니 흰밥은 곤밥이라고 하잖아예.(할머니 흰밥은 ‘곤밥’이라고 하

잡아요.)

107025 #3 흰밥은 곤밥.(흰밥은 ‘곤밥’.)

107025 @ 근데 흰죽은 곤죽이라고 안 헨마씨?(근데 흰죽은 ‘곤죽’이라고 안 했어요?)

107025 #3 곤죽이라고 헤여.(‘곤죽’이라고 해.)

107025 @ 아, 헨마씨?(아, 했어요?)

107025 #3 예.(예.)

107025 @ 흰죽이라고.(흰죽이라고.)

107025 #3 곤죽, 곤죽 허여.(‘곤죽’, ‘곤죽’ 해.)

107026 @ 아, 곤죽, 곤죽 허여. 그럼 조죽도 좁쌀 낱 만드는 거지예. 조죽.(아, ‘곤죽’, ‘곤죽’ 해. 그럼 조죽도 좁쌀 낱 만드는 거지요. 조죽.)

107026 #3 좁쌀 낱은 죽, 잘 안 헤여.(좁쌀 낱은 죽, 잘 안 해.)

107027 @ 아, 좁쌀 낱은 잘 안 헤마씨? 그럼 팔 낱 가지고는 어떻 헤마씨.(아, 좁쌀 낱은 잘 안 해요? 그럼 팔 낱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107027 #3 팏죽은 잘 썬.(팏죽은 잘 썬.)

107027 @ 팏죽은 언제 먹주마씨?(팏죽은 언제 먹지요?)

107027 #3 팏죽은 인제, 팏 삶아근에 흐쌀 낱 죽 썬주게.(팏죽은 인제, 팏 삶아서 조금 낱 죽 썬.)

107027 @ 아, 흐쌀 낱.(아, 조금 낱.)

107027 #3 예.(예.)

107028 @ 그럼 아까 콩죽은 보통 겨울에 먹지예?(그럼 아까 콩죽은 보통 겨울에 먹지요?)

107028 #3 콩죽은 저래 늘 콩죽 먹어.(콩죽은 저래 늘 콩죽 먹어.)

107028 @ 아아.(아아.)

107028 #3 콩 갈아가 좁쌀 넣엉, 좁쌀도 넣곡, 이제 곤, 곤쌀은 비싼난 곤쌀 잘 안 행. 좁쌀 낱 죽 썬 먹어.(콩 갈아서 좁쌀 넣고, 좁쌀도 넣고, 이제 곤, 흰쌀은 비싸니까 흰쌀 잘 안 했어. 좁쌀 낱 죽 썬 먹어.)

107028 @ 그럼 좁쌀 낱 죽도 많이 썬마씨?(그럼 좁쌀 낱 죽도 많이 썬었어요?)

107028 #3 예.(예.)

107029 @ 그럼 모밀죽 잇잖아예. 모밀죽.(그럼 메밀죽 잇잖아요. 메밀죽.)

107029 #3 모밀?(메밀?)

107029 @ 예. 모밀죽.(예. 메밀죽.)

107029 #3 모밀죽은 잘 안 썬.(메밀죽은 잘 안 썬.)

107029 @ 잘 안 썬마씨?(잘 안 썬요?)

107029 #3 잘 안 썬주게. 모밀^ㄱ행 낱당 수제비 행 먹어.(잘 안 썬. 메밀가루 해 낱다가 수제비 해서 먹어.)

107029 @ 아 모멸ㄹㄹ 행 수제비로.(아 메밀가루 해서 수제비로.)
107029 #3 예.(예.)
107030 @ 그럼 녹디죽도 드션마씨?(그럼 녹두죽도 드셨어요?)
107030 #3 흰죽도 잘 쑤고.(흰죽도 잘 쑤고.)
107030 @ 아니 녹디죽. 녹디.(아니 녹두죽. 녹두.)
107030 #3 녹디죽도 잘 쓰고.(녹두죽도 잘 쓰고.)
107030 @ 아아. 녹디죽.(아아. 녹두죽.)
107030 #3 녹디죽도 좋주게. 녹디 숯앙 죽, 걸러근엥 죽 쑤.(녹두죽도 좋지. 녹두 삶아서 죽, 걸러서 죽 쑤.)
107030 @ 아, 걸러근에.(아, 걸러서.)
107030 #3 예.(예.)
107031 @ 그 다음에 그, 닭죽 잇잖아예.(그 다음에 그, 닭죽 잇잖아요.)
107031 #3 풋도 잘, 풋죽은 잘 쑤.(팔도 잘, 팔죽은 잘 쑤.)
107031 @ 닭이요, 닭. 닭죽.(닭이요, 닭. 닭죽.)
107031 #3 독이 어디 있어. 영 저, 독죽 쑤. 독죽은 어찌다 혼 번 먹주게, 죽은 잘 안 쑤.(닭이 어디 있어. 이렇게 저, 닭죽 쑤. 닭죽은 어찌다 한 번 먹지, 죽은 잘 안 쑤.)
107031 @ 그럼 닭죽은 요즘에나 하지, 예전엔 안 하지예?(그럼 닭죽은 요즘에나 하지, 예전에는 안 하지요?)
107031 #3 응.(응.)
107032 @ 그 다음에 강이죽, 갱죽도 잇엇수광?(그 다음에 계죽, 계죽도 잇엇습니까?)
107032 #3 강이?(계?)
107032 @ 예.(예.)
107032 #3 옛날에 강이 어디 강 잡아당 죽 쑤주게.(옛날에 계 어디 가서 잡아다가 죽 쑤지.)
107033 @ 그럼 요즘에는 막 썰죽도 잇던데 할머니 썰죽 들어보션마씨?(그럼 요즘에는 막 썰죽도 잇던데 할머니 썰죽 들어보셨어요?)
107033 #3 머?(머?)
107033 @ 썰죽, 썰죽.(썰죽, 썰죽.)
107033 #3 머?(머?)
107033 @ 썰죽, 썰.(썰죽, 썰.)
107033 #3 썰죽?(썰죽?)
107033 @ 예, 새.(예, 새.)
107033 #3 썰?(썰?)
107033 @ 예, 썰.(예, 썰.)
107033 #3 산에 날아댕기는 거? 그것도 어디 강 잡아당 죽 쑤.(산에 날아다니는

거? 그것도 어디 가서 잡아서 죽 썬.)

107033 @ 요즘에는 그거 행 먹거든마씨. 그럼 지금 말한 거 말앙 다른 죽 드셔 보신 거 있어마씨?(요즘에는 그거 해서 먹거든요. 그럼 지금 말한 거 말고 다른 죽 드셔보신 거 있어요?)

107033 #3 엇어.(없어.)

107033 @ 죽은 보통 언제 먹주마씨? 요즘에는 몸 아프면 먹잖아예.(죽은 보통 언제 먹지요? 요즘에는 몸 아프면 먹잖아요.)

107033 #3 어.(어.)

107033 @ 근데 옛날에는 그냥 먹었수과? 아니면 어떤 날 먹언마씨?(근데 옛날에는 그냥 먹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날 먹었어요?)

107033 #3 어어.(어어.)

107033 @ 밥이 엇이난 죽 많이 먹었인가마씨?(밥이 없으니까 죽 많이 먹었어요?)

107033 #3 밥 하영 먹을 거 엇이난.(밥 많이 먹을 거 없으니까.)

107033 @ 예.(예.)

107033 #3 밥 허여 먹는 거 허민, 밥 혼 번 행 먹은민 죽은 두 번 행 먹었주게.(밥 해서 먹는 거 하면, 밥 한 번 해서 먹으면 죽은 두 번 해서 먹었지.)

107033 @ 아아.(아아.)

107033 #3 경 허난 하도 어려우난 늙영 먹을라고 죽을 썬 먹는 거라. 밥을.(그렇게 하니깐 많이 어려우니까 늙어서 먹으려고 죽을 썬 먹는 거라. 밥을.)

107033 @ 아아, 그러려고.(아아, 그러려고.)

107034 @ 그럼 범벅도 드션마씨? 범벅?(그럼 범벅도 드셨어요? 범벅?)

107034 #3 범벅은.(범벅은.)

107034 @ 예.(예.)

107034 #3 보리. 안 여문 보리 잇이믄 그거 곶아근에 맷돌에 곶아근에 그걸로 범벅 행 먹어.(보리. 안 여문 보리 있으면 그거 갈아서 맷돌에 갈아서 그걸로 범벅 해서 먹어.)

107034 @ 보리만 헨마씨? 다른 범벅은 엇인가마씨?(보리만 했어요? 다른 범벅은 없었어요?)

107034 #3 엇어.(없어.)

107034 @ 그럼 감자로는 안 만들엇수광? 범벅?(그럼 감자로는 안 만들엇습니까? 범벅?)

107034 #3 감자는 찌영 먹주.(감자는 찌어서 먹지.)

107034 @ 아, 찌영 먹어. 범벅은 보통 좁쌀로 만들어마씨?(아, 찌어서 먹어. 범벅은 보통 좁쌀로 만들어요?)

107034 #3 예.(예.)

107035 @ 그럼 수제비 아까 얘기했잖아예. 할머니. 수제비.(그럼 수제비 아까

얘기했잖아요. 할머니. 수제비.)

107035 #3 수제빈. 수제빈.(수제비는. 수제비는.)

107035 @ 뭘로 만들주마씨?(뭘로 만들지요?)

107035 #3 보리고 이제 뭐 영 죽은 거 잇으면 그거 곶양 범벅 행 먹어. 수제비 행 먹어.(보리고 이제 뭐 이렇게 죽은 거 잇으면 그거 같아서 범벅 해서 먹어. 수제비 해서 먹어.)

107035 @ 수제비 행 먹고.(수제비 해서 먹고.)

107035 #3 예.(예.)

107036 @ 그럼 칼국시는 안 해 먹었수광? 칼국시.(그러 칼국수는 안 해 먹었습니까? 칼국수.)

107036 #3 칼국신, 모멸.(칼국수는. 메밀.)

107036 @ 예.(예.)

107036 #3 모멸 뭐 현 걸로 이제 곶양 수제비 행 먹어.(메밀 뭐 한 걸로 이제 같아서 수제비 해서 먹어.)

107036 @ 아 모멸 비슷한 걸로 곶아가지고. 할머니 잘 말헬신게마씨.(아 메일 비슷한 걸로 곶아가지고. 할머니 잘 말하시네요.)

107036 #3 응?(응?)

107036 @ 물어보니까 다 알안신게마씨.(물어보니까 다 아시네요.)

107036 #3 무사 나만 물어봐시니.(왜 나만 물어보느냐.)

107036 @ 아까 할머니가 도와줘부난. 다른 할머니는 다음에 왕 허고마씨.(아까 할머니가 도와줘버리니까. 다른 할머니는 다음에 와서 하고요.)

107036 #3 나가 잘 곶아?(내가 잘 말해?)

107036 @ 예. 잘 곶안신게마씨.(예. 잘 말하고 있으세요.)

107036 #3 하하하.(하하하.)

107037 @ 그러 그 김치 좀 물어보쿠다. 김치.(그럼 그 김치 좀 물어보겠습니다. 김치.)

107037 #3 짐친게 이녁 밭에 갈앗당, 그거 허영 이제 마농 뺏아놓고, 저 메르치젓 행 낫당, 그 국물에 행 김치 담그는 거주게기.(김치는 이녁 밭에 갈았다가, 그거 해서 이제 마늘 빵아놓고, 저 멸치젓 해서 낫다가, 그 국물에 해서 김치 담그는 거지.)

107037 @ 그게 배추김치지예?(그게 배추김치지요?)

107037 #3 어. 배추김치.(어. 배추김치.)

107038 @ 그른 열무김치 만드는 건 어떻 만들언마씨?(그러 여루김치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들었어요?)

107038 #3 열무김치? 열무김치도 그 국물로 멘들아.(열무김치? 열무김치도 그 국물로 만들어.)

107038 @ 아 그 국물로.(아 그 국물로.)

107038 #3 어. 그래 이제 거, 저, 근행 낫당 메르치 근행 낫당 그 국물로 배추김치고 무김치고 그걸로 담가.(어. 그래 이제 거, 저, 간해서 놔다가 멸치 간해서 놔다가 그 국물로 배추기치고 무김치고 그걸로 담가.)

107038 @ 할머니 김치는 보통 언제 담그주마씨?(할머니 김치는 보통 언제 담그지요?)

107038 #3 그거. 구월 달에 담그나?(그거. 구월 달에 담그나?)

107038 @ 구월 달에?(구월 달에?)

107038 #3 예.(예.)

107040 @ 그럼 그 물김치도 담아야씨? 물김치?(그럼 그 물김치도 담아요? 물김치?)

107040 #3 물김치도 김치 담글 때 담가.(물기치도 김치 담글 때 담가.)

107040 @ 아, 그것도 김치 담글 때 담가마씨?(아, 그것도 김치 담글 때 담가요?)

107040 #3 물김치두. 그건 이제 무 놓고, 무 놓고 물김치 담그고. 이제, 그냥 김치도 그걸로 담그고.(물기치도. 그건 이제 무 놓고, 무 놓고 물김치 담그고. 이제, 그냥 김치도 그걸로 담그고.)

107041 @ 그럼 동지김치는 뭐우짱? 동지김치.(그럼 동지김치는 무엇입니까? 동지김치.)

107041 #3 동지김치?(동지김치?)

107041 @ 예.(예.)

107041 #3 동지김치 배추, 이레 동지¹²²⁾ 올라오잖아. 그거 영 동지행 동지김치 담그주게.(동지김치는 배추, 이리 ‘동지’ 올라오잖아. 그거 이렇게 ‘동지’해서 동지김치 담그지.)

107041 @ 아아.(아아.)

107041 #3 배추 영, 거 속으로 영 올라오잖아, 꽃 필라고. 그거 뽑아근행 동지김치 담가.(배추 이렇게, 거 속으로 이렇게 올라오잖아, 꽃 피려고. 그거 뽑아서 동지김치 담가.)

107043 @ 아까 늑배김치는 말했고, 파김치는 흑시.(아까 무김치는 말했고, 파김치는 흑시.)

107043 #3 파김치는 파 갈았당, 저 그 쪽파 갈았당 다듬영, 파김치 맨들주게.(파김치는 파 갈았다가, 저 그 쪽파 갈았다가 다듬어서, 파김치 만들지.)

107044 @ 그걸로 파김치 만들고. 달래김치도 만들었수광? 달래김치.(그걸로 파김치 만들고, 달래김치도 만들었습니까? 달래김치.)

107044 #3 달랭이?(달래?)

107044 @ 예.(예.)

107044 #3 달랭인 경 어디 시어, 김치 담그게.(달래는 그렇게 어디 있어, 김치

122) ‘동지’는 배추 따위에서 돌아난 연한 장다리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담그게.)

107047 @ 그럼 배추김치나 무김치 담그는 방법 한 번만 더 얘기해줄 수 있어마
씨?(그럼 배추김치나 무김치 담그는 방법 한 번만 더 얘기해줄 수 있어요?)

107047 #3 어이?(어이?)

107047 @ 김치 담그는 방법.(김치 담그는 방법.)

107047 #3 짐치 담그는 방법게.(김치 담그는 방법.)

107047 @ 천천히.(천천히.)

107047 #3 저 메르치 근행 낫당.(저 멸치 간해서 낫다가.)

107047 @ 예.(예.)

107047 #3 그 국물.(그 국물.)

107047 @ 예.(예.)

107047 #3 그 국물에 짐치 담가.(그 국물에 김치 담가.)

107047 @ 아, 그걸로 짐치 담가.(아, 그걸로 김치 담가.)

107047 #3 그거 이제 젓 국물이라고.(그거 이제 젓 국물이라고.)

107047 @ 예.(예.)

107047 #3 젓 국물이라고 그 국물 낱 이제 양념 무영, 파영, 마늘이영.(젓 국물
이라고 그 국물 낱서 이제 양념 무와, 파와, 마늘과.)

107047 @ 예.(예.)

107047 #3 그레 놓아근에 이제 파, 저 배추에 속 여명 담가.(그리 놓아서 이제
파, 저 배추에 속 여머서 담가.)

107048 @ 그면 김치 헐 때, 젓갈 막 쓰잖아예.(그러면 김치 할 때, 젓갈 막 쓰
잖아요.)

107048 #3 예.(예.)

107048 @ 젓갈은 종류가 뭐, 뭐 있어마씨? 무슨 젓갈, 무슨 젓갈 잇주마씨?(젓
갈은 종류가 뭐, 뭐 있어요? 무슨 젓갈, 무슨 젓갈 있지요?)

107048 #3 젓갈?(젓갈?)

107048 @ 예. 멸치젓 잇고.(예. 멸치젓 잇고.)

107048 #3 어이?(어이?)

107048 @ 멸치젓 젓갈 잇고, 또.(멸치젓 젓갈 잇고, 또.)

107048 #3 젓갈 제, 젓갈, 젓갈 허는 건 메르치 젓갈.(젓갈 제, 젓갈, 젓갈 하는
건 멸치 젓갈.)

107048 @ 아.(아.)

107048 #3 메르치로 젓갈 허여.(멸치로 젓갈 해.)

107048 @ 그 다음에 또 다른 젓갈은 엇인가마씨?(그 다음에 또 다른 젓갈은 없
었나요?)

107048 #3 다른 건 뭐 있어?(다른 건 뭐 있어?)

107048 @ 자리젓도 잇잖아마씨.(자리젓도 잇잖아요.)

107048 #3 자리젓 허고게.(자리젓 하고.)

107048 @ 또 엇인가. 자리젓, 멸치젓, 뭐 아감젓?(또 없어요. 자리젓, 멸치젓, 뭐 아감젓?)

107048 #3 아케미젓?(아감젓?)

107048 @ 예.(예.)

107048 #3 아케미젓도 있어.(아감젓도 있어.)

107049 @ 그럼 그 자리젓은 어떻 만들주마씨?(그럼 그 자리젓은 어떻게 만들지요?)

107049 #3 자리젓은 인제 자리에다가 거, 소금 넣고 허영 자리젓 담그주게기.(자리젓은 이제 자리에다가 거, 소금 넣고 해서 자리젓 담그지.)

107049 @ 소금 넣고 영.(소금 넣고 이렇게.)

107049 #3 근 맞춰근에.(간 맞춰서.)

107050 @ 아아. 그럼 멸치젓은 어떻 담아마씨?(아아. 그럼 멸치젓은 어떻게 담아요?)

107050 #3 멸치젓도 경 허영.(멸치젓도 그렇게 해서.)

107050 @ 아아. 멸치젓도 경 행.(아아. 멸치젓도 그렇게 해서.)

107050 #3 예. 근 맞춰근에 그저.(예. 간 맞춰서 그저.)

107051 @ 그럼 아가미젓은, 아감젓.(그럼 아가미젓은, 아감젓.)

107051 #3 아가미?(아가미?)

107051 @ 예.(예.)

107051 #3 아감젓도 다 혼 가지라.(아감젓도 다 한 가지야.)

107052 @ 다 혼 가지. 그럼 할머니 혹시 게젓도 들어보션마씨? 갱이젓.(다 한 가지. 그럼 할머니 혹시 게젓도 들어보셨어요? 게젓.)

107052 #3 갱이? 갱인 젓 담구기가 어디 쟁 젓 담가?(게? 게는 젓 담그기가 어디있어서 젓 담가?)

107052 @ 아 젓 안 담가마씨?(아 젓 안 담가요?)

107052 #3 어. 안 담가.(어. 안 담가.)

107052 @ 그럼 갱이는 잡으면 바로 먹언마씨?(그럼 게는 잡으면 바로 먹었어요?)

107052 #3 에이?(에이?)

107052 @ 갱이는 바로 잡으면 먹언마씨? 갱이는 어떻, 뭐.(게는 바로 잡으면 먹었어요? 게는 어떻게, 뭐.)

107052 #3 갱이도.(게도.)

107052 @ 예.(예.)

107052 #3 어디가 붙잡아, 저짜 강 봐도, 붙잡지 못 헤여.(어디가 붙잡아. 저쪽 가서 봐도, 붙잡지 못 해.)

107052 @ 아, 붙잡지를 못 헤여.(아, 붙잡지를 못 해.)

107052 #3 응.(응.)

107054 @ 그거 말양 출레라고 들어봤수광, 출레?(그거 말고 ‘출레’라고 들어봤 습니까, ‘출레’?)

107054 #3 에이?(에이?)

107054 @ 출레라고 들어 봤? 할머니?(‘출레’라고 들어 봤어요? 할머니?)

107054 #3 출레가 뭐시라.(‘출레’가 뭐야?)

107054 @ 출레, 출레. 출레.(‘출레’, ‘출레’. ‘출레’.)

107054 #3 출레가 뭐시라.(‘출레’가 뭐야?)

107054 @ 반찬 같은 것들.(반찬 같은 것들.)

107054 #3 난 몰라.(난 몰라.)

107054 @ 모르면 모르는대로 넘어가면 돼마씨.(모르면 모르는대로 넘어가면 돼 요.)

107054 #3 그만하라게.(그만해라.)

107054 @ 예, 얼마 안 했신디. 그만 헤마씨? 지쳐, 할머니?(예, 얼마 안 했는데. 그만 해요? 지쳐, 할머니?)

107054 #3 뭐, 뭐, 이젠 얘기 다 했어.(뭐, 뭐, 이제는 얘기 다 했어.)

107054 @ 아, 계속 물어볼 건 잇인다.(아, 계속 물어볼 건 잇는데.)

107054 #3 뭐가 잇어.(뭐가 잇어.)

107055 @ 그럼 장아치 잇잖아예?(그럼 장아찌 잇잖아요?)

107055 #3 장아치?(장아찌?)

107055 @ 예. 장아치.(예. 장아찌.)

107055 #3 장아치두 경 혁영, 근혁영 장아치 담그주게기.(장아찌도 그렇게 해서, 간해서 장아찌 담그지.)

107055 @ 근혁영 장아치 만들고.(간해서 장아찌 만들고.)

107055 #3 근혁영.(간해서.)

107055 @ 장아치도 종류가 잇지 얹안마씨? 마늘장아치랑 뭐 이것저것.(장아찌 도 종류가 잇지 얹았어요? 마늘장아찌와 뭐 이것저것.)

107055 #3 무신 장아치?(무슨 장아찌?)

107055 @ 장아치 마농으로 만든 것도 잇고. 종류가 잇지 얹아마씨?(장아찌 마 늘로 만든 것도 잇고. 종류가 잇지 얹아요?)

107055 #3 장아치, 콥대사니¹²³)로 장아치 담그고.(장이찌, ‘콥대사니’로 장아찌 담그고.)

107055 @ 아, 콥대사니로.(아, ‘콥대사니’로.)

107055 #3 어.(어.)

107055 @ 또 다른 거, 뭐 모자반 이런 거. 몸으로 만들거나 그런 건 안 해신가 마씨?(또 다른 거, 뭐 모자반 이런 거. 모자반으로 만들거나 그런 건 안 했어요?)

123) ‘콥대사니’는 ‘마늘’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대사니, 송개마농, 송계마농, 송계비.

107055 #3 그건 모르켜.(그건 모르겠다.)

107057 @ 요즘에는 회 자주 먹잖아예. 생선회.(요즘에는 회 자주 먹잖아요. 생선회.)

107057 #3 뭘?(뭘?)

107057 @ 회 먹잖아예. 물고기 잡으믄.(회 먹잖아요. 물고기 잡으면.)

107057 #3 외?(외?)

107057 @ 회, 회.(회, 회.)

107057 #3 회에?(회에?)

107057 @ 예.(예.)

107057 #3 회 할 때 무사, 뭘로 먹어?(회 할 때 왜, 뭘로 먹어?)

107057 @ 계란 물고기 잡으면 회로 먹잖아예.(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면 회로 먹잖아요.)

107057 #3 회게, 고추장이영 마늘이영 초영 경 낭 회허영 먹주게기.(회, 고추장과 마늘과 초와 그렇게 놔서 회해서 먹지.)

107057 @ 그럼 회로 쓰는 물고기 종류는 따로 잇수광? 계란 무슨 회, 무슨 회 잇어마씨?(그럼 회로 쓰는 물고기 종류는 따로 잇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회, 무슨 회 잇어요?)

107057 #3 어이?(어이?)

107057 @ 회 종류는 잇수광? 종류?(회 종류는 없습니까? 종류?)

107057 #3 회 종류는 아무거나 행 먹어. 회.(회 종류는 아무거나 해서 먹어. 회.)

107057 @ 아무거나예.(아무거나요.)

107057 #3 가오리도 행 먹고 이제 광에도 행 먹고 까재미도 행 먹고 회는 아무거나 행 먹어.(가오리도 해서 먹고 이제 광어도 해서 먹고 까재미도 해서 먹고 회는 아무거나 해서 먹어.)

107057 @ 방어도?(방어도?)

107057 #3 어. 장언 튀겨 먹어.(어. 장어는 튀겨 먹어.)

107057 @ 아아. 장언 튀겨 먹고.(아아. 장어는 튀겨 먹고.)

107057 #3 예.(예.)

107057 @ 그럼 그건 어떻 잡아마씨? 어디서?(그럼 그건 어떻게 잡아요? 어디서?)

107057 #3 장에 그건 잡을라민 어려와.(장어 그거 잡으려면 어려워.)

107057 @ 그거 튀겨 먹으려면 그건 이제 근허영 근을, 이제 얼른 허영 낫당 이제 프라이팬에 튀겨마씨?(그거 튀겨 먹으려면 그건 이제 간해서 간을, 이제 얼른 해서 낫다가 이제 프라이팬에 튀겨요?)

107057 #3 튀겨? 응.(튀겨? 응.)

107059 @ 그럼 맨 처음 왔을 때 할머니한테 물어본 건데예. 장은 언제 담그주

마씨? 장.(그러 맨 처음 왔을 때 할머니한테 물어본 건데요. 장은 언제 담그지요?
장.)

107059 #3 어?(어?)

107059 @ 할머니, 그 웬장이랑 간장, 간장 잇잖아예. 고추장. 그런 장은 언제
담가마씨?(할머니, 그 된장과 간장, 간장 잇잖아요. 고추장. 그런 장은 언제 담가
요?)

107059 #3 그거는 콩 갈아 낫당, 콩 갈아 낫당 콩 두드렁 그걸로 이제 메주 썰.
메주 썰, 요만큼씩 맨들안 띠웁, 띠웁 웬장 맨들아.(그거는 콩 갈아 낫다가, 콩 갈아
낫다고 콩 두드려서 그걸로 이제 메주 썬. 메주 썬서, 요만큼씩 만들어서 띠워, 띠
워서 된장 만들어.)

107059 @ 웬장 만들어. 그믄 그럼 웬장 만들젠 허면 메주가 필요하잖아예.(된장
만들어. 그러면 그럼 된장 만드려고 하면 메주가 필요하잖아요.)

107059 #3 게난 그걸, 그걸로 메주 맨들어. 장 맨들어.(그러니까 그걸, 그걸로
메주 만들어. 장 만들어.)

107059 @ 아아.(아아.)

107059 #3 그걸로 메주 맨들아.(그걸로 메주 만들어.)

107062 @ 메주는 어떻 만들주마씨?(메주는 어떻게 만들지요?)

107062 #3 콩에 쏘아.(콩에 삶아.)

107062 @ 예.(예.)

107062 #3 쏘양 요래 요래 췌영, 짝으로 요래 행 요지 들양 헤근엥 뜨민 웬장
맨드는 거.(삶아서 요리 요리 쥐어서, 짬으로 요리 해서 요지 달아서 해서 뜨면 된
장 만드는 거.)

107062 @ 뭐가 뜨면 웬장 만들언마씨?(뭐가 뜨면 된장 만들어요?)

107062 @ 거 메주가 곰생이 피면.(거 메주가 곰팡이 피면.)

107062 @ 아, 곰생이 피면.(아, 곰팡이 피면.)

107062 #3 곰생이 피면 떠. 땡. 뜨민 그걸로 이제 장 맨들주게.(곰팡이 피면 떠.
떠서 뜨면 그걸로 이제 장 만들지.)

107063 @ 장 만들 때 뭐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잇수광? 혹시?(장 만들 때 뭐 하
지 말아야 하는 거 있습니까? 혹시?)

107063 #3 뭐어?(뭐어?)

107063 @ 금기 사항이라고 하잖아예. 하면 안 되는 거. 장 만들 때 다른 집에
가지 말아라 이런 거 엇엇수광?(금기 사항이라고 하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거. 장 만
들 때 다른 집에 가지 말아라 이런 거 없었습니까?)

107063 #3 그런 거 엇어.(그런 거 없어.)

107063 @ 그런 거 엇어마씨?(그런 거 없어요?)

107063 #3 어.(어.)

107064 @ 그럼 밥으로 먹당 떡도 헤 먹잖아예. 떡.(그럼 밥으로 먹다가 떡도 헤

먹잖아요. 떡.)

107064 #3 떡?(떡?)

107064 @ 예, 그 떡은 종류가 뭐, 뭐 잇주마씨?(예, 그 떡은 종류가 뭐, 뭐 잇지요?)

107064 #3 인절미.(인절미.)

107064 @ 예, 인절미.(예, 인절미.)

107064 #3 시리떡. 새미.(시루떡. '새미'.)

107064 @ 새미.('새미'.)

107064 #3 그거, 그거주게.(그거, 그거지.)

107065 @ 그럼 그 시리떡은 어떻 만들주마씨?(그럼 그 시루떡은 어떻게 만들지요?)

107065 #3 시리떡은.(시루떡은.)

107065 @ 예.(예.)

107065 #3 쌀 담갔다가 뺏아근에 이만한 그, 이만한 것에 쟁, 찌면 그게 시리떡이주게.(쌀 담갔다가 빵아서 이만한 그, 이만한 것에 찌어서, 찌면 그게 시루떡이지.)

107066 @ 아, 찌면 그게 시리떡. 그럼 송편도 만들잖아예.(아, 찌면 그게 시루떡. 그럼 송편도 만들잖아요.)

107066 #3 에이?(에이?)

107066 @ 송편.(송편.)

107066 #3 송편?(송편?)

107066 @ 송편.(송편.)

107066 #3 송편은게, 근쌀로 뺏앙 송편 멘들주게.(송편은, 흰쌀로 빵아서 송편 만들지.)

107066 @ 근쌀로 뺏앙.(흰쌀로 빵아서.)

107066 #3 근쌀로 담갔다가, 물에 담갔다가 뺏앙 체로 흔들엉 부드러운 거로 행, 그거이 치대어근에 그걸로 송편 맨들어.(흰쌀로 담갔다가, 물에 담갔다가 빵아서 체로 흔들어서 부드러운 거로 해서, 그거 치대어서 그걸로 송편 맨들어.)

107067 @ 그걸로 치대어근에. 그럼 제주도에만 잇는 빙떡 잇잖아예.(그걸로 치대어서. 그럼 제주도에만 잇는 '빙떡' 잇잖아요.)

107067 #3 어.(어.)

107067 @ 빙떡도 만들엇수광?('빙떡'도 만들엇습니까?)

107067 #3 빙떡은 몸을, 몸으로 행 곱아근에 그걸로, 이래 이래 혜근엿 떡 그기. 아, 고마해 이제.(빙떡'은 모자반을, 모자반으로 해서 갈아서 그걸로, 이래 이래 해서 '빙떡', 아, 그른해 이제.)

107067 @ 고만 허크라? 예, 알앗수다.(그만 하겠습니까? 예, 알앗습니다.)

107067 #3 나 너무 허엿다.(나 너무 했다.)

8. 주생활

구조

108001 @ 삼촌 그림 혹시 집 지었던 경험은 잇수광?(삼촌 그림 혹시 집 지었던 경험은 잇습니까?)

108001 #1 경험은 엇주마는 대부분 알긴 알지.(경험은 없지만 대부분 알긴 알지.)

108002 @ 집 종류는 뭐, 뭐 잇어마씨? 집 종류.(집 종류는 뭐, 뭐 잇어요? 집 종류.)

108002 #1 집 종류는.(집 종류는.)

108002 @ 예.(예.)

108002 #1 초가집도 잇고 기와집 잇고 뭐 돌로 만든 집도 잇고.(초가집도 잇고 기와집 잇고 뭐 돌로 만든 집도 잇고.)

108002 @ 집이.(집이.)

108002 @ 예.(예.)

108002 #1 더끄는 것이 다르지.(덮는 것이 다르지.)

108002 @ 예.(예.)

108002 #1 나머지는 꼭 같아.(나머지는 꼭 같아.)

108002 @ 기와집이나 초집이나 뭐 양철집이라도.(기와집이나 초가집이나 뭐 양철집이라도.)

108002 #1 양철집?(양철집?)

108002 @ 양철집은 뭐팡?(양철집은 무엇잇니까?)

108002 #1 양철로 더끈 게 양철집이고, 기와가 더끈 게 기와집이고, 초집은 새로 더끈 게 초집이고. 세 가지야.(양철로 덮은 게 양철집이고, 기와가 덮은 게 기와집이고, 초가집은 새로 덮은 게 초가집이고, 세 가지야.)

108003 @ 삼촌 집채는 알아마씨?(삼촌 집채는 알아요?)

108003 #1 어?(어?)

108003 @ 안거리 밖거리 모커리 이런 거 알아마씨?(안채 바깥채 곁채 이런 거 알아요?)

108003 #1 이게 안거리고.(이게 안채이고.)

108003 @ 예.(예.)

108003 #1 저게 모커리고.(저게 곁채이고.)

108003 @ 아.(아.)

108003 #1 옛날은 옛날은 창고연 현 게 없엇거든.(옛날은 옛날은 창고라고 한 게 없엇거든.)

108003 @ 예.(예.)

108003 #1 밖거리는 바로 요 앞에 잇인 것이 밖거리고.(바깥채는 바로 요 앞에 잇는 것이 바깥채이고.)

108003 @ 예. 이게 안거리고. 그 다음에.(예. 이게 안채이고. 그 다음에.)

108003 #1 이게 모커리.(이게 결채.)

108003 @ 모커리는 뭐짱?(결채는 무엇입니까?)

108003 #1 옆. 이 집 큰 집 옆에 짓은 건 모커리.(옆. 이 집 큰 집 옆에 지은 건 결채.)

108003 @ 아.(아.)

108003 #1 게고 바로 앞에 잇는 것은 밖거리.(그리고 바로 앞에 잇는 것은 밖거리.)

108003 @ 그 다음에 그럼 그거 세 가지 잇어마씨?(그 다음에 그럼 그거 세 가지 잇어요?)

108003 #1 어. 세 가지.(어. 세 가지.)

108004 @ 그럼 초가삼간집 잇잖아예?(그럼 초가삼간집 잇잖아요?)

108004 #1 어.(어.)

108004 @ 그거 집 짓는 과정 아시는 거 잇이민 곶아 줘서.(그거 집 짓는 과정 아시는 거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108004 #1 초가삼간집이 무사 초가삼간집이라 허면은.(초가삼간집이 왜 초가삼간집이라 하면.)

108004 @ 예.(예.)

108004 #1 방이 세 칸이라.(방이 세 칸이라.)

108004 @ 아.(아.)

108004 #1 방이 세 칸이니깐 초가삼간이라 허는 거고. 그 웨에는 벨다른 거 옛날도 엇어.(방이 세 칸이니까는 초가삼간이라 하는 거고. 그 외에는 벨다른 거 옛날도 없어.)

108004 @ 그럼 그건 옛날에 어떻 만들어마씨?(그럼 그건 옛날에 어떻게 만들었어요?)

108004 #1 이 이게 지금 우리 집이 이와 같이 앓았지.(이 이게 지금 우리 집이 이와 같이 앓았지.)

108004 @ 예.(예.)

108004 #1 이거, 이거 방 하나고.(이거, 이거 방 하나고.)

108004 @ 예.(예.)

108004 #1 요거 두 개. 저기 부엌이 잇고.(요거 두 개. 저기 부엌이 잇고.)

108004 @ 예.(예.)

108004 #1 이거 방 세 칸으로 뉘면 초가삼간이다. 이거 원래 옛날에는 초집이었으니까.(이거 방 세 칸으로 되면 초가삼간이다. 이거 원래 옛날에는 초가집이었으니까.)

108004 @ 그럼 초가삼간집 만드는 과정은 몰라마씨?(그럼 초가삼간집 만드는 과정은 몰라요?)

108004 #1 만드는 과정이야 이거 이거지 뭐. 좌좌우향이나 건선이나 이런 거 따져근영 만드는 거니까.(만드는 과정이야 이거 이거지 뭐. 좌좌우향이나 건선이나 이런 거 따져서 만드는 거니까.)

108004 @ 삼촌 왜나 신자 인방 반자를 알아마씨?(삼촌 왜나 신자 인방 반자를 알아요?)

108004 #1 어?(어?)

108004 @ 왜 신자 인방 반자를 같은 거 들어봤수광?(왜 신자 인방 반자를 같은 거 들어보셨습니까?)

108004 #1 그건 못 들어봤어.(그건 못 들어봤어.)

108005 @ 그럼 주춧돌이랑 그런 것 좀 얘기해 줘서.(그럼 주춧돌이랑 그런 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108005 #1 어?(어?)

108005 @ 주춧돌 알지예?(주춧돌 알지요?)

108005 #1 어. 주춧돌 알지.(어. 주춧돌 알지.)

108005 @ 주춧돌은 뭐짱?(주춧돌은 무엇입니까?)

108005 #1 주춧돌이라고 그게 왜 그러냐 허면은.(주춧돌이라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108005 @ 예.(예.)

108005 #1 이게 이 지둥이다 말이다.(이게 이 기둥이다 말이다.)

108005 @ 예.(예.)

108005 #1 이게 이 지금 저 우리 저 불교 저 걸어진 게 지둥이라.(이게 이 지금 저 우리 저 불교 저 걸어진 게 기둥이라.)

108005 @ 예.(예.)

108005 #1 이게 사 지둥이라 하거든?(이게 사 기둥이라 하거든?)

108005 @ 예.(예.)

108005 #1 옛날도 사 지둥이 있어야 돌이 바로 선다 허주게.(옛날도 사 기둥이 있어야 돌이 바로 선다 하지.)

108005 @ 예.(예.)

108005 #1 계면 사 지둥 밑에, 밑에 지둥은 위에 있고 밑에 놓는 거는 주춧돌이라.(그러면 사 기둥 밑에, 밑에 기둥은 위에 있고 밑에 놓는 거는 주춧돌이라.)

108005 @ 아.(아.)

108005 #1 밑에 돌 돌 이와 같이 심는 게 주춧돌.(밑에 돌 돌 이와 같이 심는 게 주춧돌.)

108005 @ 예. 그럼 그 주춧돌 위에 잇는 거는?(예. 그럼 그 주춧돌 위에 잇는 거는?)

108005 #1 지둥.(기둥)

108005 @ 그 우에 잇는 거 잇잖아예? 우에 잇는 거는?(그 위에 잇는 거 잇잖아
 요? 위에 잇는 거는?)

108005 #1 우에 잇는 거는 포.(위에 잇는 거는 들보.)

108005 @ 포는 뭇팡?(들보는 무엇입니까?)

108005 #1 이케 이케.(이케 이케.)

108005 @ 아.(아.)

108005 #1 대들포.(대들보.)

108005 @ 아 그 다음에 옆에 잇는 거는 뭇라고 헤마씨?(아 그 다음에 옆에 잇
 는 거는 뭇라고 해요?)

108005 #1 그 다음에 상므르¹²⁴. 이거 아니라 이거. 이거는 포. 이거는 상므르.
 (그 다음에 ‘상므르’. 이거 아니라 이거. 이거는 들보. 이거는 ‘상므르’.)

108005 @ 상므르.(‘상므르’.)

108005 #1 어.(어.)

108005 @ 그 다음에 그 도리 도리는 뭇팡? 삼춘.(그 다음에 그 도리 도리는 무
 엇입니까? 삼춘.)

108005 #1 도리 이거.(도리 이거.)

108005 @ 아. 기둥 연결하는 거마씨?(아. 기둥 연결하는 거요?)

108005 #1 어. 이 지둥과 이 지둥 연결된 거 도리.(어. 이 기둥과 이 기둥 연결
 된 거 도리.)

108005 @ 아. 도리.(아. 도리.)

108005 #1 어.(어.)

108005 @ 그럼 보는 뭇팡?(그럼 보는 무엇입니까?)

108005 #1 어?(어?)

108005 @ 보마씨.(보요.)

108005 #1 포?(보?)

108005 @ 예. 포도 연결하는 거 아니팡?(예. 보도 연결하는 거 아십니까?)

108005 #1 무사 아니라. 그것도 그거주께.(왜 아니라. 그것도 그거지.)

108005 @ 아. 그러니까 가로로 허는 게 포고, 세로로 허는 게 도리마씨?(아. 그
 러니까 가로로 하는 게 포고, 세로로 하는 게 도리에요?)

108005 #1 어.(어.)

108007 @ 그럼 집 안에 방이 여러 가지 잇잖아예? 여기에 방도 잇고, 저기에
 방도 잇고.(그럼 집 안에 방이 여러 가지 잇잖아요? 여기에 방도 잇고, 저기에 방도
 잇고.)

108007 #1 어.(어.)

108007 @ 큰방, 작은방, 뭇 사랑방 경 말하잖아예?(큰방, 작은방, 뭇 사랑방 그

124) ‘상므르’는 용마루의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상므로, 상므를

렇게 말하잖아요?)

108007 #1 어.(어.)

108007 @ 그런 방 종류 좀 얘기해 줘서.(그런 방 종류 좀 얘기해 주십시오.)

108007 #1 방에 종류는 별다른 것이 었주게 옛날이나 지금이나.(방에 종류는 별다른 것이 없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108007 @ 경 해도 좀 다른 거. 지금이랑 다른 거 었어마씨?(그렇게 해도 좀 다른 거. 지금이랑 다른 거 없어요?)

108007 #1 농촌에서 초가삼간이니까 방 세 개 해근엿. 큰 저 큰방.(농촌에서 초가삼간이니까 방 세 개 해서. 큰 저 큰방.)

108007 @ 예.(예.)

108007 #1 마루, 작은방 그러지.(마루, 작은방 그러지.)

108007 @ 그럼 요런 건 뭐라고 해마씨? 방 안에 잇인 거.(그럼 요런 건 뭐라고 해요? 방 안에 있는 거.)

108007 #1 이거?(이거?)

108007 @ 예.(예.)

108007 #1 이거 옛날은 백장, 백장이라고 헛어.(이거 옛날은 벽장, 벽장이라고 헛어.)

108007 @ 아. 백장?(아, 벽장?)

108007 #1 어.(어.)

108007 @ 그럼 그 다음에 이불 놓는 곳 잇잖아예? 이불 놓는 곳.(그럼 그 다음에 이불 놓는 곳 잇잖아요? 이불 놓는 곳.)

108007 #1 어.(어.)

108007 @ 이불 놓는 곳은 옛날에 뭐라고 해마씨?(이불 놓는 곳은 옛날에 뭐라고 헛어요?)

108007 #1 이불 놓는 곳도 백장이라고 헛어. 옛날은.(이불 놓는 곳도 벽장이라고 헛어. 옛날은.)

108007 @ 백장이라고마씨?(벽장이라고요?)

108007 #1 이게 왜 백장이냐면 이불 놓고 뭐 놓게 되니까 백장이야.(이게 왜 벽장이냐면 이불 놓고 뭐 놓게 되니까 벽장이야.)

108008 @ 그럼 마루 잇잖아예?(그럼 마루 잇잖아요?)

108008 #1 어.(어.)

108008 @ 마루도 뭐 몇 개 잇수광? 마루도 초가삼간에 하나로 보는 거마씨?(마루도 뭐 몇 개 있습니까? 마루도 초가삼간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108008 #1 초가삼간이니까 마루는 하나 뿐이주게. 어디든지.(초가삼간이니까 마루는 하나 뿐이지. 어디든지.)

108008 @ 어디든지?(어디든지?)

108008 #1 그럼 보통 마루는 뭘로 이용해마씨? 마루에서는 뭘해마씨?(그럼 보

통 마루는 필로 이용해요? 마루에서는 뭐해요?)

108008 @ 마루에는 그냥 여러 명이 이용하니까 마루가.(마루에는 그냥 여러 명이 이용하니까 마루가.)

108008 #1 예.(예.)

108009 @ 그럼 고방 잇잖아예. 고방.(그럼 고방 잇잖아요. 고방.)

108009 #1 청방¹²⁵이지?(찰방이지?)

108009 @ 청방?(찰방?)

108009 #1 어.(어.)

108009 @ 그럼 청방에 대해 좀 얘기해 줘서. 청방이 뭐짱?(그럼 찰방에 대해 좀 얘기해 주십시오. 찰방이 무엇입니까?)

108009 #1 청방이 죽은 구들 옆에 붙은 게 청방이야.(찰방이 작은 구들 옆에 붙은 게 찰방이야.)

108009 @ 죽은 구들 옆에?(작은 구들 옆에?)

108009 #1 어.(어.)

108009 @ 음.(음.)

108009 #1 안방이 이 구들 옆에 붙은 게 안방이고.(안방이 이 구들 옆에 붙은 게 안방이고.)

108009 @ 예.(예.)

108009 #1 안방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저 그릇.(안방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저 그릇.)

108009 @ 예.(예.)

108009 #1 항아리.(항아리.)

108009 @ 예.(예.)

108009 #1 옛날은 항아리 곱은 거. 이런 거 놔야 쓸 놔서 먹거든.(옛날은 항아리 곱은 거. 이런 거 놔야 쓸 놔서 먹거든.)

108009 @ 예.(예.)

108009 #1 그러니까 그것이 안방이고.(그러니까 그것이 안방이고.)

108009 @ 예.(예.)

108009 #1 청방이엔 현 거는 거 부엌에서 반찬이나 뭐나 해 먹으려면 부엌에 못 놓으니까 청방에 놓았다가 가져다가 저 해 먹는 게 청방이고.(찰방이라고 한 거는 거 부엌에서 반찬이나 뭐나 해 먹으려면 부엌에 못 놓으니까 찰방에 놓았다가 가져다가 저 해 먹는 게 찰방이고.)

108009 @ 아, 그게 청방.(아, 그게 찰방.)

108009 #1 옛날은 이 냉장고나 이런 거 없었거든.(옛날은 이 냉장고나 이런 거 없었거든.)

108009 @ 예.(예.)

125) '청방'은 마루와 부엌 사이에 있는 작은 마루를 말하는 제주어이다. = 천방, 죽은삼방, 췌방

108010 @ 그뎨 부엌 부엌에는 뭐, 뭐 잇어마씨?(그러면 부엌 부엌에는 뭐, 뭐 잇어요?)

108010 #1 솟.(솟.)

108010 @ 솟이랑 그럼 물항 같은 거는 어디에?(솟이랑 그럼 물독 같은 거는 어디에?)

108010 #1 물항.(물독.)

108010 @ 물항은 뭐짱?(물독은 무엇입니까?)

108010 #1 물항이.(물독이.)

108010 @ 예.(예.)

108010 #1 저 항아리 잇잖아.(저 항아리 잇잖아.)

108010 @ 예.(예.)

108010 #1 저 항아리 부엌 옆에다가 아래 들멩이나 뭐나 영 끌아가지고 놓아.(저 항아리 부엌 옆에다가 아래 들멩이나 뭐나 이렇게 깔아가지고 놓아.)

108010 @ 예.(예.)

108010 #1 게 물을 허벅¹²⁶으로 질어다가 거기다가 비와.(그래서 물을 ‘허벅’으로 길어다가 거기다가 비워.)

108010 @ 예.(예.)

108010 #1 비운 게 그거 항아리라. 물항아리.(비운 게 그거 항아리라. 물항아리.)

108011 @ 그럼 삼촌 문설주도 알아마씨? 문설주?(그럼 삼촌 문설주도 알아요? 문설주?)

108011 #1 문설주엔 헛 거는 안 들어봤져.(문설주라고 한 거는 안 들어봤다.)

108012 @ 그럼 문이나 창문 같은 거 얘기해 주실 수 잇어마씨?(그럼 문이나 창문 같은 거 얘기해 주실 수 잇어요?)

108012 #1 이게 창문이고.(이게 창문이고.)

108012 @ 예. 지게문은?(예. 지게문은?)

108012 #1 지게문은 이게 옆으로 여는 게 지게문이고.(지게문은 이게 옆으로 여는 게 지게문이고.)

108012 @ 아, 이 문마씨?(아, 이 문이요?)

108012 #1 어. 이거 저거 창문 지게문. 대문잇고.(어. 이거 창문, 저거 지게문. 대문잇고.)

108012 @ 그럼 그 대문은 뭐마씨?(그럼 그 대문은 뭐예요?)

108012 #1 대문은 저기 저 마루로 나가는 게 대문.(대문은 저기 저 마루로 나가는 게 대문.)

108013 @ 호령창¹²⁷이라고 알아마씨? 호령창?(‘호령창’이라고 알아요? ‘호령

126) ‘허벅’은 모양이 둥글며 배가 불룩하고 위의 아가리는 아주 좁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27) ‘호령창’은 마루방인 ‘상방’의 큰 대문 옆에 시설한 조그만 창을 말하는 제주어이다. 판문으로 만

창’?)

108013 #1 호령창?(‘호령창’?)

108013 @ 예.(예.)

108013 #1 이 대문 숲이 지금 여기는 뭐허지만은 저기 대정 가면 호령창이라는 게 문이 요만큼 만든 게 있어.(이 대문 옆에 지금 여기는 뭐허지만 저기 ‘대정’ 가면 ‘호령창’이라는게 문이 요만큼 만든 게 있어.)

108013 @ 대문 옆에 잇인 거마씨?(대문 옆에 있는 거요?)

108013 #1 아니, 이 쪽에 잇어.(아니, 이 쪽에 잇어.)

108013 @ 예.(예.)

108013 #1 이 큰방 숲에 이렇게 앉으면 마루로 들어온다 말이야.(이 큰방 옆에 이렇게 앉으면 마루로 들어온다 말이야.)

108013 @ 예.(예.)

108013 #1 이게 여기 세워정 백이 잇다 말이야. 백.(이게 여기 세워져서 벽이 잇다 말이야. 벽.)

108013 @ 예.(예.)

108013 #1 백인디 요만큼 끊어가지고 문이 잇어.(벽인데 요만큼 끊어가지고 문이 잇어.)

108013 @ 아, 작은 문마씨?(아, 작은 문이요?)

108013 #1 어. 작은 문. 그게 호령창 호령창이주게.(어. 작은 문. 그게 ‘호령창’ ‘호령창’이지.)

108013 @ 아.(아.)

108013 #1 그 문 열어가지고 부른다 말이야. 호령을 불러.(그 문 열어가지고 부른다 말이야. 호령을 불러.)

108013 @ 아, 호령할 때?(아, 호령할 때.)

108013 #1 어. 호령창. 이제는 그 문 보고 개창이라고 허주게.(어. ‘호령창’. 이제는 그 문 보고 개창이라고 하지.)

108013 @ 개창?(개창?)

108013 #1 개 부르는 문이라고 해서 개창이라고 허주게.(개 부르는 문이라고 해서 개창이라고 하지.)

108013 @ 고산에도 호령창 원래 잇언마씨? 옛날에도?(‘고산’에도 ‘호령창’ 원래 있었어요? 옛날에도?)

108013 #1 그 옛날은 옛날은 잇었는데 요즘은 었어.(그 옛날은 옛날은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

108013 @ 개창이라고 허고?(개창이라고 하고?)

108013 #1 개, 개가 들어가고 아마 개 들어 다니는 걸 본 모양이야. 개창이라고.(개, 개가 들어가고 아마 개 들어 다니는 걸 본 모양이야. 개창이라고.)

들어졌다.

108014 @ 굴묵은 뭐짱? 굴묵은?(굴뚝은 무엇입니까? 굴뚝은?)
108014 #1 굴묵은?(굴뚝은?)
108014 @ 예.(예.)
108014 #1 이제 우리 앓았지.(이제 우리 앓았지.)
108014 @ 예.(예.)
108014 #1 이게 구들이라 말이다이.(이게 구들이라 말이다.)
108014 @ 예.(예.)
108014 #1 이게 구들이거든.(이게 구들이거든.)
108014 @ 예.(예.)
108014 #1 구들이니까 이게 이 집 가운데로이.(구들이니까 이게 이 집 가운데로.)
108014 @ 예.(예.)
108014 #1 가운데로 흙마리¹²⁸⁾가 이렇게 잇인다. 돌을 양쪽으로 이렇게 행 다 댕어.(가운데로 ‘흙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이렇게 돌을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다 댕어.)
108014 @ 예.(예.)
108014 #1 그걸 다지고 연기통은 일로도 빼고 절로도 다 빠지는데.(그걸 다지고 연기통은 이리로도 빼고 저리로도 다 빠지는데.)
108014 @ 예.(예.)
108014 #1 그 주위로 영 흙을 만들어. 이만큼이.(그 주위로 이렇게 흙을 만들어. 이만큼.)
108014 @ 예.(예.)
108014 #1 이렇게 이렇게 돌담 쌓듯이.(이렇게 이렇게 돌담 쌓듯이.)
108014 @ 예.(예.)
108014 #1 그 사이에 문짝 흑을 물어 놓고.(그 사이에 전부 흑을 물어 놓고.)
108014 @ 예.(예.)
108014 #1 연기가 거기로만 빠져나가게 만든 것이 굴묵이주게.(연기가 거기로만 빠져나가게 만든 것이 굴뚝이지.)
108014 @ 굴묵에는 뭐, 뭐 때마씨?(굴뚝에는 뭐, 뭐 때요?)
108014 #1 굴묵에?(굴뚝에?)
108014 @ 예.(예.)
108014 #1 ㄱ시락이나 소똥 똥똥 각종 그런 것들 넣엉 허주게. 그게 굴묵이라. (까끄라기나 소똥 말똥 각종 그런 것들 넣어서 하지. 그게 굴뚝이야.)
108015 @ 삼촌 풍چه도 알아마씨? 풍چه?(삼촌 차양도 알아요? 차양?)
108015 #1 풍چه? 풍چه?(차양? 차양?)
108015 @ 풍چه.(차양.)

128) ‘흙마리’는 귀틀에 흙을 파고서 널을 끼워 넣은 마루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08015 #1 풍채는 초집에 이렇게 이 넓이로.(차양은 초가집에 이렇게 이 넓이로.)

108015 @ 예.(예.)

108015 #1 헌 십 메타. 쪽 허게 돌아.(한 십 미터. 쪽 하게 돌아.)

108015 @ 예.(예.)

108015 #1 비가 오면은 방에 비 못 들어오게 우에 딱 돌아가지고 저 작대기라고 허는 것이 있어.(비가 오면 방에 비 못 들어오게 위에 딱 돌아가지고 저 작대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

108015 @ 예.(예.)

108015 #1 이렇게 행 받치는 작대기가 잇인다.(이렇게 해서 받치는 작대기가 잇는데.)

108015 @ 예.(예.)

108015 #1 그거 허면 비바람 불면서 물 떨어지민 이 집에 물이 그 풍채로만 내려가주게.(그거 하면 비바람 불면서 물 떨어지면 이 집에 물이 그 차양으로만 내려가지.)

108015 @ 예.(예.)

108015 #1 계면 방안은 안 젖고 바깥으로 물이 나가는 게 풍채지.(그러면 방안은 안 젖고 바깥으로 물이 나가는 게 차양이지.)

108015 @ 그 풍채에도 그럼 종류가 잇수광?(그 차양에도 그럼 종류가 잇습니까?)

108015 #1 어?(어?)

108015 @ 풍채에도 뭐 여러 가지?(차양에도 뭐 여러 가지?)

108015 #1 풍채 종류가 그거밖에 없어.(차양 종류가 그거밖에 없어.)

108015 @ 달린 풍채? 선 풍채? 안 들어판마씨?(달린 차양? 선 차양? 안 들어보셨어요?)

108015 #1 선 풍채야, 선 풍채야 잇지.(선 차양이야, 선 차양이야 잇지.)

108015 @ 선 풍채가 뭐광?(선 차양이 무엇입니까?)

108015 #1 선 풍채는 이 넓이로 나무로 만들어가지고.(선 차양은 이 넓이로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108015 @ 예.(예.)

108015 #1 새로 엮어가지고 막는 게 선 풍채주게.(새로 엮어가지고 막는 게 선 차양이지.)

108016 @ 그럼 물광¹²⁹도 알아마씨? 물광?(그럼 ‘물광’도 알아요? ‘물광’?)

108016 #1 어. 물광 알주게.(어. ‘물광’ 알지.)

108016 @ 그건 뭐광?(그건 무엇입니까?)

108016 #1 물광은.(‘물광’은.)

129) ‘물광’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를 올려 넣어 두는 대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08016 @ 예.(예.)
 108016 #1 저 부엌 옆이.(저 부엌 옆에.)
 108016 @ 예.(예.)
 108016 #1 요 높이로 요 높이 돌을 놔.(요 높이로 요 높이 돌을 놔.)
 108016 @ 예.(예.)
 108016 #1 돌 놓으면 부인들이 허벅을 거기다 놓주게. 물 길어다가 그 허벅에 두니까 그것이 물팡이라.(돌 놓으면 부인들이 ‘허벅’을 거기다 놓지. 물 길어다가 그 ‘허벅’에 두니까 그것이 ‘물팡’이라.)
 108017 @ 그럼 삼촌 골목도 알아마씨? 골목?(그럼 삼촌 골목도 알아요? 골목?)
 108017 #1 골목? 우리 들어오는 골목 잊지 않아?(골목? 우리 들어오는 골목 잊지 않아?)
 108017 @ 예.(예.)
 108017 #1 그제 골목이지.(그제 골목이지.)
 108017 @ 골목 종류는 엇인가마씨? 작은 골목이나.(골목 종류는 없나요? 작은 골목이나.)
 108017 #1 아니 그런 거 엇어. 골목 하나주게.(아니 그런 거 엇어. 골목 하나이지.)
 108018 @ 문간채는 들어보션마씨?(문간채는 들어보셨어요?)
 108018 #1 어?(어?)
 108018 @ 문간채.(문간채.)
 108018 #1 문간채라는 건 안 들어봤다.(문간채라는 건 안 들어봤다.)
 108019 @ 삼촌 그럼 가리 터 들어보션마씨? 가리 터?(삼촌 그럼 가리 터 들어보셨어요? 가리 터?)
 108019 #1 가리 터도 안 들어판.(가리 터도 안 들어봤어.)
 108020 @ 삼촌 그 돼지는 키워 봤수광? 돼지?(삼촌 그 돼지는 키워 보셨습니까? 돼지?)
 108020 #1 어. 키워 봤어.(어. 키워 봤어.)
 108020 @ 도야지?(돼지?)
 108020 #1 어.(어.)
 108020 @ 도야지 우리는 뭐라고 헤마씨?(돼지우리는 뭐라고 해요?)
 108020 #1 통제.(돼지우리.)
 108020 @ 통제. 통제는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줘서.(‘돼지우리. 돼지우리는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08020 #1 그제?(그제?)
 108020 @ 예.(예.)
 108020 #1 보통 이 큰방 옆으로 요 옆으로 돌아가서 통제를 판단 말이야.(보통 이 큰방 옆으로 요 옆으로 돌아가서 돼지우리를 판단 말이야.)

108020 @ 예.(예.)

108020 #1 통제 한 일 메다 반까지 파. 넓이는 그 확실히 재보지 않으니까 아마 이만큼 될거야. 그거 파가지고 거기 한 쪽에다가 도야지 집을 짓어.(돼지우리를 한 일 미터 반까지 파. 넓이는 그 확실히 재보지 않으니까 아마 이만큼 될거야. 그거 파가지고 거기 한 쪽에다가 돼지 집을 지어.)

108020 @ 예.(예.)

108020 #1 또 일로는 돌담으로 벽을 만들어. 벽을 멘들어가지고 거기서 도새기 길르는 것이 통제.(또 여기로는 돌담으로 벽을 만들어. 벽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돼지 기르는 것이 돼지우리.)

108021 @ 그 변소 잇잖아예?(그 변소 잇잖아요?)

108021 #1 어.(어.)

108021 @ 그 변소는 보통 어디다가 만들어마씨?(그 변소는 보통 어디다가 만들어요?)

108021 #1 변소가 그거 변소통이야. 통제엔 현 것이. 거기 변소에 돌 돌로 사람 앉아서 변소 보게끔 만들주게.(변소가 그거 변소통이야. 돼지우리라 한 것이. 거기 변소에 돌 돌로 사람 앉아서 변소 보게끔 만들지.)

108022 @ 삼촌 헛간이랑 웨양간 잇잖아예?(삼촌 헛간이랑 외양간 잇잖아요?)

108022 #1 어.(어.)

108022 @ 헛간은 그 어떻 만들어마씨?(헛간은 그 어떻게 만들어요?)

108022 #1 창고보고 헛간이라 허주게.(창고보고 헛간이라 하지.)

108022 @ 창고보고.(창고보고.)

108022 #1 웨양간은 쉼 길르는 거는 웨양간이고.(외양간은 소 기르는 거는 외양간이고.)

108023 @ 그럼 삼촌 웨양간 잇잖아예? 쉼 키우는 데 여기서 뭐라 헤마씨?(그럼 삼촌 외양간 잇잖아요. 소 키우는 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108023 #1 쉼막¹³⁰.(외양간.)

108023 @ 쉼막 만드는 거나 쉼막에 대해서 아는 거 얘기해 줘서.(외양간 만드는 거나 ‘쉼막’에 대해서 아는 거 얘기해 주십시오.)

108023 #1 쉼막 만들려면 따로 벨도로 지어. 옛날은 쉼막은. 벨로 지어가지고 거기서 출도 주고 물도 맥여주고 그게 쉼막이고.(외양간 만드려면 따로 별도로 지어. 옛날은 외양간은. 별도로 지어가지고 거기서 풀도 주고 물도 먹여주고 그게 외양간이고.)

108023 @ 여기는 쉼 한마리 키우니깐 쉼막도 하나 잇언마씨?(여기는 소 한 마리 키우니깐 외양간도 하나 있었어요?)

108023 #1 으 하나.(어. 하나.)

108024 @ 삼촌 그럼 장독대도?(삼촌 그럼 장독대도?)

130) ‘쉼막’은 외양간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쉼마귀, 쉼왕, 쉼막사리.

108024 #1 장독대는 장 담는 데가 장 담아서 놓는 데가 장독대고.(장독대는 장 담는 데가 장 담아서 놓는 데가 장독대고.)

108024 @ 어디다 보통 놔마씨? 부엌에다가?(어디다 보통 놔요? 부엌에다가?)

108024 #1 보통 부엌 저쪽으로 작은 문이 부엌인데. 집 짓어가지고 그 장독대 놓는 곳에 문이 달려 있어. 나갔다 들어갔다 허는디.(보통 부엌 저쪽으로 작은 문이 부엌인데. 집 짓어가지고 그 장독대 놓는 곳에 문이 달려 있어.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데.)

108025 @ 그럼 춤향¹³¹⁾ 알아마씨?(그럼 ‘춤향’ 알아요?)

108025 #1 춤향은 몰라. 그건.(‘춤향’은 몰라. 그건.)

초가 지붕이기

108026 @ 삼촌 초가 지붕이기도 알아마씨?(삼촌 초가 지붕이기도 알아요?)

108026 #1 지붕 일주게.(지붕 이지.)

108026 @ 초가 지붕이기?(초가 지붕이기?)

108026 #1 초가 초가 지붕이기가 초가 지붕이는 거밖에 더 잇어게.(초가 초가 지붕이기가 초가 지붕이는 거밖에 더 있어.)

108026 @ 아, 그럼.(아, 그럼.)

108026 #1 초가 지붕 이은다고.(초가 지붕 이은다고.)

108026 @ 아, 그건 뭇짱?(아, 그건 무엇입니까?)

108026 #1 그거 새로.(그거 새로.)

108026 @ 예.(예.)

108026 #1 새로 저 그 저 거 초담에는. 초집이 그 이을려면.(새로 저 그 저 거 처음에는. 초가집이 그 이르려면.)

108026 @ 예.(예.)

108026 #1 각단¹³²⁾이엔 헌 것이 잇어. 것도 두 가지가 잇어. 새허고 각단허고 두 가지가 잇인다.(‘각단’이라고 한 것이 잇어. 것도 두 가지가 잇어. 새하고 ‘각단’하고 두 가지가 잇는데.)

108026 @ 예.(예.)

108026 #1 저 각단으로 이제 줄을 놔.(저 ‘각단’으로 이제 줄을 놔.)

108026 @ 삼촌 근데 그 초가 지붕이기 언제 언제 헤마씨?(삼촌 근데 그 초가 지붕이기 언제 언제 해요?)

108026 #1 시월 달에. 이 지붕 잇는 거는 시월 달로부터 시월 달에는 새가 들어 오거든. 새가 들어오면은 즉시 잇는 집도 잇고 정월달에 잇는 집도 잇주게. 브람 엇 인 날에 지붕이기 허주게.(시월 달에. 이 지붕 잇는 거는 시월 달로부터 시월 달에는 새가 들어오거든. 새가 들어오면 즉시 잇는 집도 잇고 정월달에 잇는 집도 있지.)

131) ‘춤향’은 ‘춤(새를 머리 땅듯이 땅아 나무에 거꾸로 매달아 이슬 따위를 받아 그 밑에 둔 항아리에 들어가게 하는 물건)’을 타고 내려온 이슬 따위를 담은 항아리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32) ‘각단’은 굵은 줄을 드리는 데 쓰는 짧은 띠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바람 없는 날에 지붕이기 하지.)

108027 @ 삼촌 새랑 각단이 뭐마씨? 새가 뭐고 각단이 뭐고.(삼촌 새랑 ‘각단’이 뭐예요? 새가 뭐고 ‘각단’이 뭐고.)

108027 #1 새허고 각단이 두 가지가 있어. 틀려.(새하고 ‘각단’이 두 가지가 있어. 틀려.)

108027 @ 예.(예.)

108027 #1 졸르게 졸르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잇는 거는 각단이고.(짧게 짧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잇는 거는 각단이고.)

108027 @ 예.(예.)

108027 #1 또 이렇게 바로 놔가지고 굵은 거는 새고.(또 이렇게 바로 놔가지고 굵은 거는 새고.)

108027 @ 예.(예.)

108027 #1 각단은 보통 줄을 놔. 줄. 줄이엔 허면 제긋말이고 촌 말인데.(‘각단’은 보통 줄을 놔. 줄. 줄이라고 하면 제긋말이고 촌 말인데.)

108027 @ 예.(예.)

108027 #1 이제 저 뭔가 어디가도 주랜 허면 잘 몰라.(이제 저 뭔가 어디가도 주라고 하면 잘 몰라.)

108027 @ 예.(예.)

108027 #1 그 줄 놔근앵.(그 줄 놔서.)

108028 @ 그제 집줄¹³³이지예?(그제 ‘집줄’이지요?)

108028 #1 어. 집줄.(어. ‘집줄’.)

108028 @ 집줄은 뭐 종류가 잇수광?(‘집줄’은 뭐 종류가 있습니까?)

108028 #1 벨 종류는 엇어.(벨 종류는 없어.)

108028 @ 그래도 뭐 긴 거 잇고 짧은 거 잇고.(그래도 뭐 긴 거 잇고, 짧은 거 잇고.)

108028 #1 어. 그렇지.(어. 그렇지.)

108028 @ 그림 그거 긴 건 옛날에 뭐라고 헤마씨?(그림 그거 긴 건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108028 #1 작은 건. 아니 진줄¹³⁴ 짝른줄¹³⁵.(작은 건. 아니 ‘진줄’ ‘짝른줄’.)

108028 @ 아. 진줄 짧은줄? 짝른줄?(아. ‘진줄’ 짧은줄? ‘짝른줄’?)

108028 #1 짝른줄.(‘짝른줄’.)

108028 @ 예.(예.)

108028 #1 지락지락 묶으는 건 진줄이고.(치렁치렁 묶는 건 ‘진줄’이고.)

108028 @ 예.(예.)

108028 #1 옆으로 영 ㄱ로 묶으는 건 짝른줄. 게가지고 새 더꺼가지고 그걸로

133) ‘집줄’은 초가지붕을 이은 다음 바둑판처럼 엮어매는 줄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34) ‘진줄’은 초가지붕을 일 때 쓰는 기다른 줄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35) ‘짝른줄’은 초가지붕을 일 때 쓰는 짧은 줄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묶으면 초가삼간 되는 거주게.(옆으로 이렇게 가로 묶는 건 ‘쯔른줄’. 그래가지고 새
덜어가지고 그걸로 묶으면 초가삼간 되는 거지.)

108028 @ 아. 그렇게 묶어마씨?(아. 그렇게 묶어요?)

108028 #1 어.(어.)

108029 @ 그럼 그 묶을 때 쓰는 연장들도 잊지 않아마씨?(그럼 그 묶을 때 쓰
는 연장들도 있지 않아요?)

108029 #1 연장 들지 안 허여.(연장 들지 안 해.)

108029 @ 그거 만들 때 연장 사용 안 헤마씨?(그거 만들 때 연장 사용 안 해
요?)

108029 #1 어. 그냥 손으로 허주게. 그 집 안에다가 이렇게 거왕¹³⁶이 있어. 거
왕.(어. 그냥 손으로 하지. 그 집 안에다가 이렇게 ‘거왕’이 있어. ‘거왕’.)

108029 @ 거왕?(‘거왕’?)

108029 #1 어.(어.)

108029 @ 그럼 호롱이¹³⁷나 뒤치기¹³⁸ 같은 거는 안 써마씨?(그럼 ‘호롱이’나
‘뒤치기’ 같은 거는 안 써요?)

108029 #1 어?(어?)

108029 @ 호롱이나 뒤치기 같은 거 안 써마씨? 그 집줄 만들 때?(‘호롱이’나
‘뒤치기’ 같은 거 안 써요? 그 집줄 만들 때?)

108029 #1 호롱이나 뒤치기는 뭐라? 그건 잘 모르켜.(‘호롱이’나 ‘뒤치기’는 뭐
라? 그건 잘 모르겠다.)

108029 @ 그럼 그 초가 지붕이기. 그건 언제 언제 헤마씨?(그럼 그 초가 지붕
이기. 그건 언제 언제 해요?)

108029 @ 초가 지붕이기는 언제 언제 헤마씨?(초가 지붕이기는 언제 언제 해
요?)

108029 #1 시월 달에.(시월 달에.)

108029 @ 시월 달에? 고산은 보통 시월 달에 헤마씨?(시월 달에? ‘고산’은 보통
시월 달에 해요?)

108029 #1 어.(어.)

108029 @ 이게 제주시랑 서귀포시랑 좀 다르게 헤마씨?(이게 제주시랑 서귀포
시랑 좀 다르게 해요?)

108029 #1 이 집 잇는 거는 보통이. 정오 때 허여. 이건.(이 집 잇는 거는 보통.
정오 때 허여. 이건.)

108029 @ 정오 때도 헤마씨?(정오 때도 해요?)

108029 #1 어. 시월 달로부터.(어. 시월 달로부터.)

136) ‘거왕’은 처마끝 서까래 아래에 이엉을 누르는 줄을 묶기 위한 장대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멩두암, 뽕두암.

137) ‘호롱이’는 줄, 참바 따위를 뒤트는 제구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휘룽, 휘룽이.

138) ‘뒤치기’는 두 가닥의 집줄을 하나로 만들 때, 뒤에서 돌리는 기구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08029 @ 예.(예.)

108029 #1 새가 일단 들어오면은 시월 달 뒤편은 새가 들어오거든.(새가 일단 들어오면 시월 달 되면 새가 들어오거든.)

108029 @ 아, 시월 달에 그 새가 들어와마씨?(아, 시월 달에 그 새가 들어와요?)

108029 #1 어. 사월 달에. 아니 저 시월 달에.(어. 사월 달에. 아니 저 시월 달에.)

108029 @ 예.(예.)

108029 #1 시월 달에 새가 들어오면은 즉시 이는 집도 있고. 좀 잇당 정오 때 이는 집도 있어.(시월 달에 새가 들어오면 즉시 이는 집도 있고. 좀 있다가 정오 때 이는 집도 있어.)

108029 @ 아.(아.)

108029 #1 바람 잔 날. 바람 잔 날 이는 게 그게 지붕.(바람 잔 날. 바람 잔 날 이는 게 그게 지붕.)

108029 @ 거기서 말하는 새가 뭐 말하는 거마씨? 새가?(거기서 말하는 새가 뭐 말하는 거예요? 새가?)

108029 #1 이 밧에 그 노는 밧에 너풀너풀 나가지고.(이 밧에 그 노는 밧에 너풀너풀 나가지고.)

108029 @ 아.(아.)

108029 #1 그 마대 말고.(그 갈대 말고.)

108029 @ 예.(예.)

108029 #1 마대 말고 그 그냥 이파리로만 그냥 아무것도 엇이 구짝 나는 거 있지 않허냐?(갈대 말고 그 그냥 이파리로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곧장 나는 거 있지 않아?)

108029 @ 예.(예.)

108029 #1 그게 새고.(그게 새고.)

108029 @ 아.(아.)

108029 #1 요만큼 나는 거는 각단이고.(요만큼 나는 거는 ‘각단’이고.)

108030 @ 삼촌 평 평고대도 알아마씨? 평고대?(삼촌 평 평고대도 알아요? 평고대?)

108030 #1 평고대?(평고대?)

108030 @ 예. 평고대는 안 들어봤수광?(예. 평고대는 안 들어봤습니까?)

108030 #1 평고대라.(평고대라.)

108030 @ 대나무로 긴 막대로 평고대 만드는 건데. 이런 거 몰라마씨?(대나무로 긴 막대로 평고대 만드는 건데. 이런 거 몰라요?)

108030 #1 그건 잘 모르켜.(그건 잘 모르겠다.)

108031 @ 그럼 집줄 매기는 어떻 헤마씨?(그럼 집줄 매기는 어떻게 해요?)

108031 #1 집줄 매기는.(집줄 매기는.)
108031 @ 예.(예.)
108031 #1 양쪽으로 사람 하나씩 서서.(양쪽으로 사람 하나씩 서서.)
108031 @ 예.(예.)
108031 #1 둘이 그 집줄 오는 것에 양쪽에서 당겨.(둘이 그 집줄 오는 것에 양쪽에서 당겨.)
108031 @ 예.(예.)
108031 #1 당겨가지고 자기 멜 만큼 당겨가지고 이리 안으로 영 바깥으로 한번 매붙어.(당겨가지고 자기 멜 만큼 당겨가지고 이리 안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한번 매버려.)
108031 @ 그럼 몇 번 매마씨? 몇 번?(그럼 몇 번 매요? 몇 번?)
108031 #1 그게 흔 번 딱 당겨 흔 번 들어가면은.(그게 한 번 딱 당겨 한 번 들어가면.)
108031 @ 예.(예.)
108031 #1 일로 이 뭔가 들어가면 일로 나오면은.(이리로 이 뭔가 들어가면 이리로 나오면.)
108031 @ 예.(예.)
108031 #1 이게 또 오그렁 일로 들어가면은 일로 빠정 그거 마지막이라.(이게 또 오그려서 이리로 들어가면 이리로 빠져서 그거 마지막이라.)
108031 @ 그럼 한 두 번 허갯다예?(그럼 한 두 번 하겠군요?)
108031 #1 어.(어.)
108032 @ 그럼 그거 집줄 행 쓰다 남잖아예?(그럼 그거 집줄 해서 쓰다 남잖아요?)
108032 #1 어.(어.)
108032 @ 집줄 행 남은 건 뭘로 해마씨?(집줄 해서 남은 건 뭘로 해요?)
108032 #1 잘라붙어.(잘라버려.)
108032 @ 잘랑 뒤에 써마씨?(잘라서 뒤에 써요?)
108032 #1 그거 잘라 놔두면 집줄 줄 헐 때 잇이민 허고.(그거 잘라 놔두면 집줄 줄 할 때 있으면 하고.)
108032 @ 예.(예.)
108032 #1 옛날에는 앓을 수 잇는 부엌 곁은 디 그런 걸로 방석 만들어. 방석.(옛날에는 앓을 수 잇는 부엌 곁은 데 그런 걸로 방석 만들어. 방석.)
108032 @ 아.(아.)
108032 #1 줄방석 만들주게.(줄방석 만들지.)
108032 @ 줄방석.(줄방석.)
108032 #1 어. 줄방석이라고 잇엇어 옛날에는.(어. 줄방석이라고 잇엇지. 옛날에는.)

108032 @ 그럼 그거 남은 건 줄방석 만들어마씨?(그럼 그거 남은 건 줄방석 만 들어요?)

108032 #1 어.(어.)

연장

108033 @ 집 지을 때 쓰는 연장 같은 거 종류가 뭐 있어마씨? 망치나?(집 지을 때 쓰는 연장 같은 거 종류가 뭐 있어요? 망치나?)

108033 #1 어. 그런 거 있지만 뭐 그런 거 일일이 전부 알아져?(어. 그런 거 있지만 뭐 그런 거 일일이 전부 알아져?)

108033 @ 그럼 초집 지을 때는 보통 뭐가 제일 많이 써마씨?(그럼 초가집 지을 때는 보통 뭐가 제일 많이 써요?)

108033 #1 초집 지으는디 나무가 제일 많이 들어. 나무허고 돌.(초가집 짓는데 나무가 제일 많이 들어. 나무하고 돌.)

108033 @ 예. 나무허고 돌.(예. 나무하고 돌.)

108033 #1 어.(어.)

108033 @ 그럼 연장 같은 건 별로 안 썬마씨?(그럼 연장 같은 건 별로 안 썼어요?)

108033 #1 연장 같은 거는 그때 사용헌게 뭐 자귀.(연장 같은 거는 그때 사용한 게 뭐 자귀.)

108033 @ 아.(아.)

108033 #1 톱, 끌.(톱, 끌.)

108033 @ 예. 그런 거 얘기해 줘서.(예. 그런 거 얘기해 주십시오.)

108033 #1 어. 자귀, 톱, 끌. 그런 거.(어. 자귀, 톱, 끌. 그런 거.)

108034 @ 그럼 톱은 종류가 뭐 잇수광?(그럼 톱은 종류가 뭐 있었어요?)

108034 #1 종류가 대톱, 소톱 잇주게.(종류가 대톱, 소톱 있지.)

108034 @ 아. 대톱, 소톱?(아. 대톱, 소톱?)

108034 #1 대톱은 날이 굵은 거고 소톱은 날이 좁진¹³⁹⁾ 거고.(대톱은 날이 굵은 거고 소톱은 날이 얇고 가는 거고.)

108034 @ 그럼 대톱은 언제 쓰고, 소톱은 언제 써마씨?(그럼 대톱은 언제 쓰고, 소톱은 언제 써요?)

108034 #1 대톱은 하여튼 집 짓게 되면은 대톱, 소톱은 들어와야 허여.(대톱은 하여튼 집 짓게 되면 대톱, 소톱은 들어와야 해.)

108035 @ 그믂 삼춘 못, 못 잘못 쳐가지고 그거 빨 때.(그러면 삼춘 못, 못 잘못 쳐가지고 그거 빨 때.)

108035 #1 못빼기.(노루발장도리.)

108035 @ 예. 못빼기는 그 뭇로 해마씨?(예. 노루발장도리는 그 뭇로 해요?)

139) ‘좁지다’는 물건이 얇고 가늘다의 뜻을 가진 제주어이다.

108035 #1 못빼기는 쇠로 만들어정 나오주게.(노루발장도리는 쇠로 만들어져서 나오지.)

108035 #1 예. 그니까 장도리로 빼마씨? 뭤로 빼마씨?(예. 그러니까 장도리로 빼요? 뭤로 빼요?)

108035 @ 장도리로 장도리는 고양이 뚫는 거지.(장도리로 장도리는 구멍 뚫는 거지.)

108035 #1 예.(예.)

108035 @ 그걸로 안 돼여.(그걸로 안 돼.)

108035 #1 그럼 배척은 알아마씨?(그럼 배척은 알아요?)

108035 @ 배척?(배척?)

108035 #1 예.(예.)

108035 @ 배척은 모르켜.(배척은 모르겠다.)

108036 @ 그럼 삼촌 대패 잇잖아예?(그럼 삼촌 대패 잇잖아요?)

108036 #1 어.(어.)

108036 @ 대패는 언제 써마씨?(대패는 언제 써요?)

108036 #1 대패.(대패.)

108036 @ 대패 종류가 잇수광?(대패 종류가 있습니까?)

108036 #1 어?(어?)

108036 @ 대패, 대패 종류가 뭐 잇어마씨?(대패, 대패 종류가 뭐 잇어요?)

108036 #1 대패 종류가 엇어. 별로.(대패 종류가 없어. 별로.)

108036 @ 아, 종류가 엇어마씨?(아, 종류가 없어요?)

108036 #1 어. 그 대패는 이런 문짝. 윗문힐 때.(어. 그 대패는 이런 문짝. 윗문힐 때.)

108036 @ 예.(예.)

108036 #1 그 때 쓰는 거주게.(그 때 쓰는 거지.)

108037 @ 삼촌 그림 자는 어떻 자에 대해 알아마씨?(삼촌 그림 자는 어떻게 자에 대해 알아요?)

108037 #1 자?(자?)

108037 @ 예.(예.)

108037 #1 어. 여기 저기 치수 재는 거 잇잖아?(어. 여기 저기 치수 재는 거 잇잖아?)

108037 @ 예.(예.)

108037 #1 거기 감아진 거.(거기 감아진 거.)

108037 @ 예.(예.)

108037 #1 그걸 옛날은 그걸 가지고 막 막대기로 이만큼 현 걸로 그걸 치수 마련해가지고 그 때 곡살 하나가 한 치거든. 그거 마련행 열 개가 흔 자여. 열 두 개가 한 자다.(그걸 옛날은 그걸 가지고 막 막대기로 이만큼 한 걸로 그걸 치수 마련

해가지고 그 때 성냥개비 하나가 한 치거든. 그거 마련해서 열 개가 한 자야. 열 두 개가 한 자다.)

108037 @ 그럼 그 자는 이름이 뭐짱?(그럼 그 자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108037 #1 자. 자.(자. 자.)

108037 @ 아니. 대자나 뭐 소자 이런 거 이름 엇언마씨?(아니. 대자나 뭐 소자 이런 거 이름 없었어요?)

108037 #1 자. 그냥 자여. 대자나 소자 이런 건 엇고.(자. 그냥 자여. 대자나 소자 이런 건 없고.)

108037 @ 그럼 줄자는?(그럼 줄자는?)

108037 #1 줄자는 우리 가정 땡기는 거 잇잖아.(줄자는 우리 가져서 다니는 거 잇잖아.)

108037 @ 예. 그건 그냥 줄자고 그럼 이 자는 그냥 자라고 헤마씨?(예. 그건 그냥 줄자고 그럼 이 자는 그냥 자라고 해요?)

108037 #1 어. 그냥 자.(어. 그냥 자.)

108038 @ 삼촌 그럼 먹통이랑 먹줄도 알아마씨?(삼촌 그럼 먹통이랑 먹줄도 알아요?)

108038 #1 어.(어.)

108038 @ 그럼 먹통이랑 먹줄에 대해 글아 줘서.(그럼 먹통이랑 먹줄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108038 #1 먹통이엔 혼 거는 요만큼 한 쪽에는 도레기 잇고.(먹통이라고 한 거는 요만큼 한 쪽에는 바퀴가 잇고.)

108038 @ 예.(예.)

108038 #1 어. 한 쪽에는 물 들어가는 데 잇고. 그딴 먹물이 이 옛날에는 먹물이 귀허니까.(어. 한 쪽에는 물 들어가는 데 잇고. 거기 먹물이 이 옛날에는 먹물이 귀하니까.)

108038 @ 예.(예.)

108038 #1 그 먹 잇지 않아?(그 먹 잇지 않아?)

108038 @ 예.(예.)

108038 #1 그 먹을 그것에 담아. 담아가지고 물을 줌 넣으면 까맣게 웬다 말이야.(그 먹을 그것에 담아. 담아가지고 물을 줌 넣으면 까맣게 된다 말이야.)

108038 @ 예.(예.)

108038 #1 이제 그럼 그걸 그 실을 잡아댕겨. 실 잡아댕기면 낭을 곱게 끌면 이렇게 딱 틀면은 구멍 나면은 그걸 허는 게 먹통이야.(이제 그럼 그걸 그 실을 잡아당겨. 실 잡아당기면 나무를 곱게 끌면 이렇게 탁 틀면 구멍 나면 그걸 허는 게 먹통이야.)

108038 @ 그럼 먹줄은마씨?(그럼 먹줄은요?)

108038 #1 그게 먹줄이고. 먹줄이고 먹통이고. 글이 붙은 거야 그게.(그게 먹줄

이고. 먹줄이고 먹통이고. 같이 붙은 거야 그게.)

108038 @ 같이 붙은 거마씨?(같이 붙은 거요?)

108038 #1 어.(어.)

108039 @ 삼촌 흑손이나 흑받기에 대해 알아마씨?(삼촌 흑손이나 흑받기에 대해 알아요?)

108039 #1 흑손?(흑손?)

108039 @ 예.(예.)

108039 #1 이 옛날은게 옛날이나 이제나 뭐 그 흑손이엔 현 게 옛날 말이주게.
(이 옛날은 옛날이나 이제나 뭐 그 흑손이라고 한 게 옛날 말이지.)

108039 @ 아, 기팡?(아, 그렇습니까?)

108039 #1 그 흑 불리는 거. 여기 끝은 데 백에.(그 흑 바르는 거. 여기 같은 데 백에.)

108039 @ 아, 백에 바르는 거?(아, 백에 바르는 거?)

108039 #1 백 백에. 흑손이라는 건 이거고. 흑받기이엔 허는 건 영 받아가지고 쓰는 거 흑받기라고.(백 백에. 흑손이라는 건 이거고. 흑받기라고 하는 건 이렇게 받아가지고 쓰는 거 흑받기라고.)

108039 @ 아, 옛날에는 그거 쇠로 뿔수광? 아니면 그 나무로 뿔수광?(아, 옛날에는 그거 쇠로 뿔습니까? 아니면 그 나무로 뿔습니까?)

108039 #1 나무로 그 때는 나무로. 근데 보통 그 때는 손으로 했어.(나무로 그 때는 나무로. 근데 보통 그 때는 손으로 했어.)

9. 신앙

109001 @ 삼촌 신앙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젠 햄신디. 가신에 대해서 알아마씨?(삼촌 신앙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데. 가신에 대해서 알아요?)

109001 #1 가신?(가신?)

109001 @ 예. 신. 성주. 문진. 조왕. 이런 거 알아마씨?(예. 신. 성주. 문진. 조왕. 이런 거 알아요?)

109001 #1 어.(어.)

109001 @ 그럼 집마다 신이 있다는데 가신에 대해 아는 거 얘기해 줘서.(그럼 집마다 신이 있다는데 가신에 대해 아는 거 얘기해 주십시오.)

109001 #1 여기 고산서도 토신제니 뭐니 제는 지내.(여기 '고산'에서도 토신제니 뭐니 제는 지내.)

109001 @ 토신제를 지내마씨?(토신제를 지내요?)

109001 #1 토신제는 뭐냐하면.(토신제는 뭐냐하면.)

109001 @ 예.(예.)

109001 #1 거 옛날부터라도 땅 임자가 있다는 거라. 우리가 집 짓엉 살아도.(거 옛날부터라도 땅 임자가 있다는 거라. 우리가 집 지어서 살아도.)

109001 @ 예.(예.)

109001 #1 뭔가 일 년에 한 번씩 허는 거 잊주게. 누구나나 허는 거는 토신제 지내고.(뭔가 일 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있지. 누구나나 하는 거는 토신제 지내고.)

109001 @ 예.(예.)

109001 #1 또 뭔가 집 짓엉 그 때도 토신제 허는 사람 잊주게. 이게 집은 우리가 짓엉 살지만 옛날부터라도 땅은 임자가 있다는 거주게.(또 뭔가 집 지어서 그 때도 토신제 하는 사람 있지. 이게 집은 우리가 지어서 살지만 옛날부터라도 땅은 임자가 있다는 거지.)

109002 @ 그럼 가신은 넘어가고 성주에 대해서 곱아 줘서.(그럼 가신은 넘어가고 성주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오.)

109002 #1 어. 성주.(어. 성주.)

109002 @ 예. 성주.(예. 성주.)

109002 #1 집을 일단 딱 지어서.(집을 일단 딱 지어서.)

109002 @ 예.(예.)

109002 #1 집 짓는 걸 마치면은. 이딴 저딴 행 전부 집 짓엉 사람들 살게 돼면은.(집 짓는 걸 마치면. 여기에다 저기에다 해서 전부 집 지어서 사람들 살게 되면.)

109002 @ 예.(예.)

109002 #1 성주풀이라고 목시흐나 불르고이 부르고.(성주풀이라고 목수하나 부르고 부르고.)

109002 @ 뭐마씨?(뭐요?)

109002 #1 목시. 집 짓는 사람.(목수. 집 짓는 사람.)

109002 @ 아, 예.(아, 예.)

109002 #1 하나허고.(하나하고.)

109002 @ 예.(예.)

109002 #1 또 이딴 그 성주에 제사를 지내어. 제사를 지내가지고 끝날 무렵에 그거 또 저 지내는 그 시간이 있어. 저 제사 지내면서.(또 여기 그 성주에 제사를 지내. 제사를 지내가지고 끝날 무렵에 그거 또 저 지내는 그 시간이 있어. 저 제사 지내면서.)

109002 @ 예.(예.)

109002 #1 게면 강태공서목시¹⁴⁰⁾ 헤여근엿 강태공서목시가 옛날에 집 짓은 할 아방이주게.(그러면 ‘강태공서목시’ 해서 ‘강태공서목시’가 옛날에 집 지은 할아버지 이지.)

140) ‘강태공서목시’는 강태공 수목수(姜太公首木手)로, 곳의 성주풀이에서 칭해 들이는 목수(木手)의 신을 말한다. =강태공서목공, 강태공서목수, 강태공-수목수.

109002 @ 강태공 뭐마씨?(강태공 뭐요?)

109002 #1 강태공서목시. 목시엔 현 게 강태공은 성 성이고 목시엔 현 거는 그 할아버지가 강태공서목시라는 이름이주게.(‘강태공서목시’. 목사라고 한 게 강태공은 성 성이고 목사라고 한 거는 그 할아버지가 ‘강태공서목시’라는 이름이지.)

109002 @ 아. 예.(아. 예.)

109002 #1 이름 그 사람이 다니면서 도치로 이 낭도 찍고 저 낭도 찍고 어여 들어서다 어여 들어서다 허멍 찍는 게 뭐 때문에 찍느냐면 귀신 달아나라고 걸 찍는 거라.(이름 그 사람이 다니면서 도끼로 이 나무도 찍고 저 나무도 찍고 ‘어여 들어서다 어여 들어서다’ 하면서 찍는 게 뭐 때문에 찍느냐면 귀신 달아나라고 걸 찍는 거라.)

109003 @ 그럼 문전은 뭐 말하는 거마씨?(그럼 문전은 뭐 말하는 거예요?)

109003 #1 문전?(문전?)

109003 @ 예.(예.)

109003 #1 문전은 저 들어오는 데. 문전박대 하지 마라고. 네가 들어올 거 아니냐.(문전은 저 들어오는 데. 문전박대 하지 마라고. 네가 들어올 거 아니냐.)

109003 @ 예.(예.)

109003 #1 네가 문전박대하지 마라고 그게 문전이라고.(네가 문전박대하지 마라고 그게 문전이라고.)

109004 @ 그럼 조왕은 뭐마씨?(그럼 조왕은 뭐예요?)

109004 #1 조왕은 우리가 거 라면 끓여 먹지 않나.(조왕은 우리가 거 라면 끓여 먹지 않나?)

109004 @ 예.(예.)

109004 #1 그게 조왕으로 들어가는 거고.(그게 조왕으로 들어가는 거고.)

109005 @ 그럼 칠성은 뭐마씨?(그럼 칠성은 뭐예요?)

109005 #1 칠성은?(칠성은?)

109005 @ 예.(예.)

109005 #1 북두칠성으로 올라오지 않냐?(북두칠성으로 올라오지 않냐?)

109005 @ 예.(예.)

109005 #1 계면 이 집에서는 이되가 칠성이주게.(그러면 이 집에서는 여기서 칠성이지.)

109005 @ 예.(예.)

109005 #1 계난 뗏이라 할 때 북두칠성이라고 해가지고 거닐면서 허주게.(그러니까 뗏이라 할 때 북두칠성이라고 해가지고 거닐면서 하지.)

10. 세시풍속

정월

110001 @ 그럼 이제 그 각각 일월 달부터 십이월 달에 허는 거 물어볼게마씨. 일월에 뭐허고 삼월에 뭐허고 이런 거마씨. 그거 좀 자세히 얘기해 줘서.(그럼 이제 그 각각 일월 달부터 십이월 달에 하는 거 물어볼게요. 일월에 뭐하고 삼월에 뭐하고 이런 거요. 그거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110001 #1 그거 뭐 농사 짓는 거?(그거 뭐 농사 짓는 거?)

110001 @ 아니, 농사 짓는 거 말고 아까 그 뭐냐 초파일은 뭐고 일월 달에는 정월 잇잖아예? 정월.(아니, 농사 짓는 거 말고 아까 그 뭐냐 초파일은 뭐고 일월 달에는 정월 잇잖아요? 정월.)

110001 #1 정월 대보름?(정월 대보름?)

110001 @ 그럼 정월 명절은 뭐짱?(그럼 정월 명절은 무엇입니까?)

110001 #1 정월 멩절? 내일.(정월 명절? 내일.)

110001 @ 예. 내일이지요.(예. 내일이지요.)

110001 #1 어. 내일이지.(어. 내일이지.)

110001 @ 그럼 삼춘 정월 명절에는 뭐 헤마씨?(그럼 삼춘 정월 명절에는 뭐 헤요?)

110001 #1 제사.(제사.)

110001 @ 예. 그럼 그 제사랑 명절 뭐 달라마씨?(예. 그럼 그 제사랑 명절 뭐가 달라요?)

110001 #1 제사 때고 명절 때고 상에 올라가는 건 똑같아.(제사 때고 명절 때고 상에 올라가는 건 똑같아.)

110001 @ 그럼 정월 명절 때 특별히 헨 거 엇언마씨?(그럼 정월 명절 때 특별히 헨 거 없었어요?)

110001 #1 도배. 도배는 노인들 전부 이 회관 같은 데 모영 앉어가지고. 음식 해가지고 음식 차려가지고 대접허고 거기서 밑에 애들이 절허는 게. 옛날엔 이 집 저 집 찾앙 땡겨낫주게. 지금은 경은 안하지만 모다가지고 절 허주게.(도배. 도배는 노인들 전부 이 회관 같은 데 모여서 앉어가지고. 음식해가지고 음식 차려가지고 대접하고 거기서 밑에 애들이 절하는 게. 옛날엔 이 집 저 집 찾아서 다녔었지.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지만 모여가지고 절하지.)

110002 @ 예. 그럼 정월 대보름 얘기 좀 해 줘서. 정월 대보름에는 뭐 헤마씨?(예. 그럼 정월 대보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정월 대보름에는 뭐 헤요?)

110002 #1 정월 대보름에야 보통 사람이.(정월 대보름에야 보통 사람이.)

110002 @ 예.(예.)

110002 #1 자기 수명 자기 앞 일 년 내내 살아갈 거 재수 재수를 본다고 정월 대보름 허는 거주게.(자기 수명 자기 앞 일 년 내내 살아갈 거 재수 재수를 본다고 정월 대보름 하는 거지.)

110003 @ 그럼 방사랑 액막이는 들어보션마씨?(그럼 방사랑 액막이는 들어보셨

어요?)

110003 #1 액막이?(액막이?)

110003 @ 예.(예.)

110003 #1 액막이는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액 막 탕다 허면은 집에서 액막이 허는 게 굿 허는 게 액막이주게.(액막이는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액 막 탕다 하면 집에서 액막이 하는 게 굿 하는 게 액막이지.)

110003 @ 그거 해 보신 적 있어마씨?(그거 해 보신 적 있어요?)

110003 #1 그거?(그거?)

110003 @ 예.(예.)

110003 #1 벨로 엇어.(벨로 없어.)

110003 @ 방사는 몰라마씨?(방사는 몰라요?)

110003 #1 방사는 몰라.(방사는 몰라.)

110004 @ 그림 포제, 포제는 좀 알아마씨?(그림 포제, 포제는 좀 알아요?)

110004 #1 코시?(고사?)

110004 @ 포제. 포제마씨.(포제. 포제요.)

110004 #1 포제엔 현 것도 엇고.(포제라고 한 것도 없고.)

110005 @ 안택은 알아마씨?(안택은 알아요?)

110005 #1 안택도 모르고.(안택도 모르고.)

110005 @ 집안에 모시는 신에 대해서 무당 불령 허는 거 엇언마씨?(집안에 모시는 신에 대해서 무당 불러서 하는 거 없었어요?)

110005 #1 코시영 허는 거 있지. 일 년에 한 번씩. 옛날은.(고사라고 하는 거 있지. 일 년에 한 번씩. 옛날은.)

110005 @ 그건 언제헨마씨?(그건 언제했어요?)

110005 #1 정월달에 허주게.(정월달에 하지.)

110005 @ 예.(예.)

110005 #1 코시영 하는 거야 날 받아가지고 어느 날 좋다 허고 날 받으면은.(고사라 하는 거야 날 받아가지고 어느 날 좋다 하고 날 받으면.)

110005 @ 예.(예.)

110005 #1 저 심방 잇잖아. 심방한테 가가지고 날짜를 준다 말이야.(저 무당 잇잖아. 무당한테 가가지고 날짜를 준다 말이야.)

110005 @ 예.(예.)

110005 #1 얘기를 허면 그 심방이 와서 뭐, 뭐 물자 드는 거 얘기를 해줘.(얘기를 하면 그 무당이 와서 뭐, 뭐 물자 드는 거 얘기를 해줘.)

110005 @ 예.(예.)

110005 #1 해주면은 부인은 그 말을 들엇다가 와서 물자를 다 준비허면은 이제 심방이 나와가지고 그걸 다 제 벌여가지고 밤새 이제 그 집에 우를 비는 거주게.(해주면 부인은 그 말을 들엇다가 와서 물자를 다 준비하면 이제 무당이 나와가지고

그걸 다 제 벌여가지고 밤새 이제 그 집에 우를 비는 거지.)

110005 @ 예.(예.)

110005 #1 우를 동당동당허면서 뭔가 허주게. 대부분 집 허여. 그거 안 허면 토신제 허고.(우를 동당동당하면서 뭔가 하지. 대부분 집 해. 그거 안 하면 토신제 하고.)

110006 @ 그럼 보리밭 밟기는 일월 달에 헤마씨?(그럼 보리밭 밟기는 일월 달에 해요?)

110006 #1 보리 보리밭 밟기는 이월 달.(보리 보리밭 밟기는 이월 달.)

110006 @ 이월 달? 그럼 그 보리밭 밟기는 뭐 허는 거마씨?(이월 달? 그럼 그 보리밭 밟기는 뭐 하는 거예요?)

110006 #1 사람 밟로 밟는 거주게.(사람 밟로 밟는 거지.)

110007 @ 삼촌 걸궁 알아마씨? 걸궁?(삼촌 걸립 알아요? 걸립?)

110007 #1 걸궁?(걸립?)

110007 @ 예.(예.)

110007 #1 그제 뭔가 정월달에.(그제 뭔가 정월달에.)

110007 @ 예.(예.)

110007 #1 거리에 돌아다니면서 북 두드리면서 뭔가 장비 들고.(거리에 돌아다니면서 북 두드리면서 뭔가 장비 들고.)

110007 @ 예.(예.)

110007 #1 돌아헛기는 게 걸궁. 옛날.(돌아다니는 게 걸립. 옛날.)

110007 @ 그거 왜 허는 거마씨? 그건?(그거 왜 하는 거예요? 그건?)

110007 #1 어?(어?)

110007 @ 왜 하는 거마씨? 그거 무사 걸궁 하는 거마씨?(왜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걸립 하는 거예요?)

110007 #1 그거?(그거?)

110007 @ 예.(예.)

110007 #1 돈 벌려고.(돈 벌려고.)

110007 @ 돈 벌려고?(돈 벌려고?)

110007 #1 어. 돈을 부잣집에 가면은 걸궁 허면은 돈 내놔야주게.(어. 돈을 부잣집에 가면 걸립 하면 돈 내놔야지.)

110007 @ 그거 여기도 잇엇수광? 옛날에?(그거 여기도 잇엇습니까? 옛날에?)

110007 #1 옛날에 잇엇어.(옛날에 잇엇어.)

110007 @ 아, 진짜 잇언마씨?(아, 진짜 잇엇어요?)

110007 #1 어.(어.)

110008 @ 삼촌 입춘이나 우수는 일월 말에 허는 거지예?(삼촌 입춘이나 우수는 일월 말에 하는 거지요?)

110008 #1 어. 입춘은 새 드는 게 입춘이고.(어. 입춘은 새 드는 게 입춘이고.)

110008 @ 예. 그럼 우수는?(예. 그럼 우수는?)
110008 #1 그건 잘 모르켜.(그건 잘 모르겠다.)

2월

110009 @ 그러면 이월 달에 영등 잇잖아예?(그러면 이월 달에 ‘영등’ 잇잖아요?)

110009 #1 칠월 칠일 날. 열 칠일.(칠월 칠일 날. 열 칠일.)

110009 @ 영등에 대해 곱아 줘서. 그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뭐 허면 안 되는 거 그런 거 잇잖아예?(‘영등’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뭐 하면 안 되는 거 그런 거 잇잖아요?)

110009 #1 영등?(‘영등’?)

110009 @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줘서.(예.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110009 #1 영등이엔 헌 게 뭐냐면은.(‘영등’이라고 한 게 뭐냐면.)

110009 @ 예.(예.)

110009 #1 소, 말 지르는 집에.(소, 말 기르는 집에.)

110009 @ 예?(예?)

110009 #1 소 말 소허고 말 키우는 집에.(소 말 소하고 말 키우는 집에.)

110009 @ 예.(예.)

110009 #1 그 뭐 막대 소리나 뭐 두드리는 소리 나지 말라고 허는 거고. 영등할망¹⁴¹⁾ 들어오는 날은 온갖 바다에 그 미역 씨나 전복 소라 씨를 가지고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영등할망 청해가지고 이 월 이 월 칠일 날 허면은 보름날 끝날 거라. 보름날 그걸 완료해가지고 왕할망 영등 할망 잘 갑서 허는 거주게.(그 뭐 막대 소리나 뭐 두드리는 소리 나지 마라고 하는 거고. ‘영등할망’ 들어오는 날은 온갖 바다에 그 미역 씨나 전복 소라 씨를 가지고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영등할망’ 청해가지고 이 월 이 월 칠일 날 하면 보름날 끝날 거라. 보름날 그걸 완료해가지고 ‘왕할망’ ‘영등할망’ 잘 가십시오 하는 거주게.)

110009 @ 예.(예.)

110009 #1 들어옵서 헐 때 영 받아들이고 나갑서 혼저 갑서예 해근앵 허면은 보름날 나가는 거주게.(들어오십시오 할 때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가십시오 어서 가십시오 해서 하면 보름날 나가는 거지.)

110009 @ 칠일부터?(칠일부터?)

110009 #1 어.(어.)

110009 @ 그 때는 뭐 허면 안되는 거 엇어마씨?(그 때는 뭐 하면 안되는 거 없어요?)

110009 #1 그거 뭐허면은? 밧디 흑도 파지 말고. 소 기르는 디는 이거 두드리지

141) ‘영등할망’은 영등신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음력 2월 1일에 입도(入道)하여 2월 15일에 나간다고 하는 신의 이름이다.

말고. 하여간 손 보지 마라고.(그거 뭐하면? 발에 흙도 파지 말고. 소 기르는 데는 이거 두드리자 말고. 하여간 손 보지 마라고.)

110009 @ 그 때는 거의 밭일은 소랑 같이 안 헤마씨?(그 때는 거의 밭일은 소랑 같이 안 해요?)

110009 #1 아니 그날 들어오는 날 안 허지. 며칠 간. 한 삼일 간.(아니 그날 들어오는 날 안 하지. 며칠 간. 한 삼일 간.)

110010 @ 삼춘 이월 달에 경칩이나 춘분 알지예?(삼춘 이월 달에 경칩이나 춘분 알지요?)

110010 #1 경칩이라는 건 알았지만은 그 날에 뭐 허는지는 몰라.(경칩이라는 건 알았지만은 그 날에 뭐 하는지는 몰라.)

3월

110011 @ 그럼 한식 명절 잇잖아예?(그럼 한식 명절 잇잖아요?)

110011 #1 청명.(청명.)

110011 @ 예. 청명. 그 때는 뭐 헨마씨?(예. 청명. 그 때는 뭐 했어요?)

110011 #1 청명에는 뭔가 그 산에 요 조상에.(청명에는 뭔가 그 산에 요 조상에.)

110011 @ 예.(예.)

110011 #1 조상 산에 풀 비는 날. 왜 풀 비냐면은 그날 풀 비어 불어야 팔월 달에 깨끗허주게. 이 풀 비는 게.(조상 산에 풀 베는 날. 왜 풀 베냐면 그날 풀 베어 버려야 팔월 달에 깨끗하지. 이 풀 베는 게.)

110011 @ 팔월 달에 벌초 하잖아예?(팔월 달에 벌초 하잖아요?)

110011 #1 어. 벌초허지. 청명에 벌초해서 그 청명에는 아버지 산이나 할머니 산이나 가근엥 풀 비어불어야 허주게.(어. 벌초하지. 청명에 벌초해서 그 청명에는 아버지 산이나 할머니 산이나 가서 풀 베어버려야 하지.)

110011 @ 아.(아.)

110011 #1 잡풀이 아니 나. 잡풀 안 나.(잡풀이 아니 나. 잡풀 안 나.)

4월

110013 @ 그럼 사월 초파일 잇잖아예?(그럼 사월 초파일 잇잖아요?)

110013 #1 스월 초파일 석가모니 탄생 날이고.(사월 초파일 석가모니 탄생 날이고.)

110013 @ 예. 그 때는 보통 뭐 헨마씨? 스월 초파일에는.(예. 그 때는 보통 뭐 했어요? 사월 초파일에는.)

110013 #1 스월 초파일에는 옛날 말도 있어. 입을 봐야 별을 따지. 그 말이.(사월 초파일에는 옛날 말도 있어. 입을 봐야 별을 따지. 그 말이.)

110013 @ 아.(아.)

110013 #1 스월이라 초파일에는 영등 저 불 다는 날이고.(사월이라 초파일에는 영등 저 불 다는 날이고.)

110014 @ 입하나 소만에 대해 말해 줘서.(입하나 소만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110014 #1 그 때는 뭐 특별한 거 없어.(그 때는 뭐 특별한 거 없어.)

5월

110015 @ 오월 달에는 그 단오 명절 잇잖아예?(오월 달에는 그 단오 명절 잇잖아요?)

110015 #1 어.(어.)

110015 @ 단오 때는 보통 그 마을에서 뭐 햇수광?(단오 때는 보통 그 마을에서 뭐 했습니까?)

110015 #1 단오 명절에는 옛날은 했어. 그 보리 갈 때.(단오 명절에는 옛날은 했어. 그 보리 갈 때.)

110015 @ 예.(예.)

110015 #1 그 정성으로.(그 정성으로.)

110015 @ 예.(예.)

110015 #1 단오 멥질 햇주게.(단오 명절 했지.)

110016 @ 그럼 오월 달에 망종, 하지에 대해서 아는 거 잇어마씨?(그럼 오월 달에 망종, 하지에 대해서 아는 거 잇어요?)

110016 #1 망종에 벼. 스월 망종은 보리를 비어 깔고 오월 망종에 썬 먹는다고. 스월에 보리가 익으면은 스월 망종에는 썬 먹주게. 오월 망종 되면은 보리가 늦어 불어. 비어 깐다고.(망종에 벼. 사월 망종은 보리를 베어 깔고 오월 망종에 썬 먹는다고. 사월에 보리가 익으면 사월 망종에는 썬 먹지. 오월 망종 되면 보리가 늦어버려. 비어 깐다고.)

6월

110017 @ 유월 이십 날 닭, 닭 잡아먹는 날 알아마씨?(유월 이십 날 닭, 닭 잡아먹는 날 알아요?)

110017 #1 어. 유월 스무 날.(어. 유월 스무 날.)

110017 @ 아. 그건 언제부터 잇엇수광?(아. 그건 언제부터 잇엇습니까?)

110017 #1 거 유월 스무 날은 그 보신 허면은 그 해에 몸이 건강하게 나간다고.(거 유월 스무 날은 그 보신 하면 그 해에 몸이 건강하게 나간다고.)

110017 @ 아. 그럼 이진 삼복 날이랑 달라마씨?(아. 그럼 이진 삼복 날이랑 달라요?)

110017 #1 어?(어?)

110017 @ 유월 이십 날이랑 삼복 날이랑 달라마씨?(유월 이십 날이랑 삼복 날이랑 달라요?)

110017 #1 유월 이십 날이랑. 그건 삼복더우지? 그거랑은 다르주게.(유월 이십 날이랑. 그건 삼복더위이지? 그거랑은 다르지.)

110018 @ 그럼 삼복은 뭐짱?

110018 #1 삼복이엔 허는 거 더운 거. 그 때 질 더울 때. 삼복더우라고.(삼복이라고 하는 거 더운 거. 그 때 제일 더울 때. 삼복더위라고.)

110019 @ 삼촌 그럼 소서나 대서 알아마씨?(삼촌 그럼 소서나 대서 알아요?)

110019 #1 소서?(소서?)

110019 @ 예.(예.)

110019 #1 소한 대한.(소한 대한.)

110019 @ 아니 소한 말고 소서 대서.(아니 소한 말고 소서 대서.)

110019 #1 소 대서는 뭇에 쓰는 건지 모르켜.(소 대서는 뭇에 쓰는 건지 모르겠다.)

7월

110020 @ 그럼 칠월 칠석 좀 얘기해 줘서.(그럼 칠월 칠석 좀 얘기해 주십시오.)

110020 #1 칠월 칠석?(칠월 칠석?)

110020 @ 예.(예.)

110020 #1 칠월 칠석 날은.(칠월 칠석 날은.)

110020 @ 예.(예.)

110020 #1 석가모니가 탄생 날이여. 집집마다 관등 달고. 자손만대를 바라는 말.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그 말이주게.(석가모니가 탄생 날이여. 집집마다 관등 달고. 자손만대를 바라는 말.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그 말이지.)

110020 @ 그거는 사월 초파일이고마씨.(그거는 사월 초파일이고요.)

110020 #1 어?(어?)

110020 #1 그거 말앙 칠월에 잇인 거마씨. 그 칠월 칠석날은 뭐 해마씨?(그거 말고 칠월에 잇는 거요. 그 칠월 칠석날은 뭐 해요?)

110020 #1 아. 칠월 칠석 날은.(아. 칠월 칠석 날은.)

110020 @ 예.(예.)

110020 #1 옛날도 하늘에서는 내가 있어 내. 응?(옛날도 하늘에서는 내가 있어. 내. 응?)

110020 @ 예.(예.)

110020 #1 칠석날은 그 오작교라는 거 알지? 모르지?(칠석날은 그 오작교라는 거 알지? 모르지?)

110020 @ 예.(예.)

110020 #1 오작교로 다리를 놓고 뭔가 칠월 칠석날에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오작교로 다리를 놓고 뭔가 칠월 칠석 날에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

110020 @ 예.(예.)

110020 #1 만나는 날인데. 오작교라는 건 가마귀야.(만나는 날인데. 오작교라는 건 까마귀야.)

110020 @ 예.(예.)

110020 #1 가마귀가 드리를 놔 머리로이.(까마귀가 다리를 놔 머리로.)

110020 @ 예.(예.)

110020 #1 오작교엔 허는 건 하늘에 잇인 거라. 드리 드리 놓으면 머리뺨이 벗어져붙어. 그 날 넘으면. 그 밤 넘으면. 그래가지고 노래가 있어.(오작교라고 하는 건 하늘에 있는 거라. 다리 다리 놓으면 머리뺨이 벗겨져버려. 그 날 넘으면. 그 밤 넘으면. 그래가지고 노래가 있어.)

110020 @ 무슨 노래마씨?(무슨 노래요?)

110020 #1 칠월이라 칠석날에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건만 우리와 본님은 어디 가서 날 떠날 줄 모르나.(칠월이라 칠석날에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건만 우리와 본님은 어디 가서 날 떠날 줄 모르나.)

110020 @ 예.(예.)

110020 #1 그거 왜 그러냐면 부부 간에 다져진 그 말이주게.(그거 왜 그러냐면 부부 간에 다져진 그 말이지.)

110021 @ 그럼 칠월 달에 백중제¹⁴²도 잇어마씨?(그럼 칠월 달에 ‘백중제’도 잇어요?)

110021 #1 어. 백중제 잇주게. 열 나흘 날.(어. ‘백중제’ 잇지. 열 나흘 날.)

110021 @ 아. 열 며칠마씨?(아. 열 며칠요?)

110021 #1 칠월 십사일 날. 칠월 백중.(칠월 십사일 날. 칠월 백중.)

110021 @ 백중제는 뭐짱?(‘백중제’는 무엇입니까?)

110021 #1 백중제는 그게 백 가지 구십 세가 돌아간다고. 백가지 검질이.(‘백중제’는 그게 백 가지 구십 세가 돌아간다고. 백가지 검이.)

110021 @ 예.(예.)

110021 #1 엇어진다고 백중이 돼민.(없어진다고 백중이 되면.)

110021 @ 그 제사 지내는 거마씨? 마을 다 같이 하는 거마씨?(그 제사 지내는 거예요? 마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110021 #1 응.(응.)

110022 @ 그럼 모래찜도 알아마씨?(그럼 모래찜도 알아요?)

110022 #1 모래찜 알주게.(모래찜 알지.)

110022 @ 모래찜은 뭐짱?(모래찜은 무엇입니까?)

110022 #1 모래찜이라 허는 거는 검은 모래 잇잖아.(모래찜이라 하는 거는 검은 모래 잇잖아.)

142) ‘백중제’는 제주도 지역에서 7월 백중에 우마번성(牛馬繁盛)을 기원하며 지내는 목축의례를 말한다.

110022 @ 예.(예.)
 110022 #1 거 더우면은.(거 더우면.)
 110022 @ 예.(예.)
 110022 #1 그걸 파서.(그걸 파서.)
 110022 @ 예.(예.)
 110022 #1 모래 가서 파가지고 사람 들어가서 그 위에 모래를 허여. 덮어쥬 이
 디만 내불고 이디만 저 그 쌓는 게 모래찜이주게.(모래 가서 파가지고 사람 들어가
 서 그 위에 모래를 해. 덮어쥬서 여기만 내버리고 여기만 저 그 쌓는 게 모래찜이
 지.)
 110022 @ 어디서 헨마씨?(어디서 했어요?)
 110022 #1 여기도 잇어.(여기도 잇어.)
 110022 @ 아, 어디?(아, 어디?)
 110022 #1 여기 바로 옆에. 검은 모래. 검은 모래에서 해야 돼여.(여기 바로 옆
 에. 검은 모래. 검은 모래에서 해야 돼.)
 110022 @ 아, 검은 모래?(아, 검은 모래?)
 110022 #1 어. 그것에 양물에.(어. 그것에 양물에.)
 110022 @ 그건 어디 아플 때 헤마씨?(그건 어디 아플 때 해요?)
 110022 #1 이. 여기 몸 수두룩이 아플 때.(이. 여기 몸 수두룩이 아플 때.)
 110023 @ 아, 수두룩이 아플 때. 그럼 여기 물맞이도 헤마씨?(아, 수두룩이 아
 플 때. 그럼 여기 물맞이도 해요?)
 110023 #1 물맞이?(물맞이?)
 110023 @ 예.(예.)
 110023 #1 스월 백중에 물 맞는 거주게.(사월 백중에 물 맞는 거지.)
 110023 @ 아. 언제마씨?(아, 언제요?)
 110023 #1 백중에.(백중에.)
 110023 @ 백중에?(백중에?)
 110023 #1 어.(어.)
 110023 @ 그럼 물맞이는 어떻 허는 거마씨?(그럼 물맞이는 어떻게 하는 거예
 요?)
 110023 #1 그날 물 맞으면 그것도 몸이 건강허라고 맞는 거.(그날 물 맞으면 그
 것도 몸이 건강하라고 맞는 거.)
 110023 @ 아. 그럼 무슨 물 맞는 거마씨?(아. 그럼 무슨 물 맞는 거예요?)
 110023 #1 지금.(지금.)
 110023 @ 예.(예.)
 110023 #1 다른 디는 엇주만은 우리 고산은 잇주게. 요디, 요디 가면은.(다른 데
 는 없지만 우리 ‘고산’은 있지. 요기, 요기 가면.)
 110023 @ 예.(예.)

110023 #1 이런 천장으로 물이 떨어지는 곳이 있어.(이런 천장으로 물이 떨어지는 곳이 있어.)

110023 @ 예.(예.)

110023 #1 게면 그 곳에 강 맞추게.(그러면 그 곳에 가서 맞지.)

110024 @ 그럼 삼촌 칠월에 입추, 처서는 알아마씨?(그럼 삼촌 칠월에 입추, 처서는 알아요?)

110024 #1 입추, 처서는 알지만 입추는 뭇에 거 처서나 입추에 뭇 허는 지 그것은 잘 몰라.(입추, 처서는 알지만 입추는 뭇에 거 처서나 입추에 뭇 하는 지 그것은 잘 몰라.)

8월

110025 @ 그럼 삼촌 그 팔월에 벌초 하잖아예?(그럼 삼촌 그 팔월에 벌초 하잖아요?)

110025 #1 어.(어.)

110025 @ 그럼 벌초는 옛날은 어떻게 하고 옛날이랑 지금이랑 달라진 거 엇수광?(그럼 벌초는 옛날은 어떻게 하고 옛날이랑 지금이랑 달라진 거 없습니까?)

110025 #1 달라진 거 벨로 엇어.(달라진 거 벨로 없어.)

110025 @ 아 그럼 벌초는 언제 헨마씨?(아, 그럼 벌초는 언제 했어요?)

110025 #1 그게 칠월 절기라는 게 있어. 절기라고 칠월 절기. 칠월 절기 들면 벌초허기 시작허여. 벌초허기 시작허면은 끝나는 게 보통 이 때주게.(그게 칠월 절기라는 게 있어. 절기라고 칠월 절기. 칠월 절기 들면 벌초하기 시작해. 벌초하기 시작하면 끝나는 게 보통 이 때지.)

110025 @ 예.(예.)

110025 #1 이때면 보통 벌초 끝나주게.(이때면 보통 벌초 끝나지.)

110025 @ 삼촌 그럼 매년 칠월에 벌초 헨마씨?(삼촌 그럼 매년 칠월에 벌초 했어요?)

110025 #1 칠월 달로부터 팔월, 팔월 그 칠월 절기 들면 벌초허기 시작허는데.(칠월 달로부터 팔월, 팔월 그 칠월 절기 들면 벌초하기 시작하는데.)

110025 @ 예.(예.)

110025 #1 보통 벌초를 많이 할 적에는 팔월 한 이삼일 경이나 한 팔월 십일 경에 보통 벌초 많주게.(보통 벌초를 많이 할 적에는 팔월 한 이삼일 경이나 한 팔월 십일 경에 보통 벌초 많지.)

110025 @ 음.(음.)

110026 @ 그럼 팔월 명절은 뭐 잇수광?(그럼 팔월 명절은 뭐 있습니까?)

110026 #1 팔월 멩질? 멩질이야 그게 그거주게.(팔월 명절? 멩질이야 그게 그거지.)

110027 @ 삼촌 그 팔월 달에 벌초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예?(삼촌 그 팔월 달에

별초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110027 #1 어? 팔월 별초는 안 물어봤지.(어? 팔월 별초는 안 물어봤지.)

110027 @ 안 물어봤수광?(안 물어봤습니까?)

110027 #1 어.(어.)

110027 @ 안 물어봐마씨?(안 물어봤어요?)

110027 #1 아, 물었다. 별초.(아, 물었다. 별초.)

110027 @ 그럼 팔월 달에 백로, 추분 잇잖아예?(그럼 팔월 달에 백로, 추분 잇잖아요?)

110027 #1 팔월 백로?(팔월 백로?)

110027 @ 예. 추분 추분도 알아마씨?(예. 추분 추분도 알아요?)

110027 #1 추분 몰라.(추분 몰라.)

110027 @ 그럼 백로 알아마씨?(그럼 백로는 알아요?)

110027 #1 백로는 알아.(백로는 알아.)

110027 @ 그럼 백로 얘기 좀 해줍서.(그럼 백로 좀 얘기해 주십시오.)

110027 #1 백로야 허영훈 거니까 백로 새는. 허영훈 백로는 저 팔월 백로라고 그거 잇는디.(백로야 하얀 거니까 백로 새는. 하얀 백로는 저 팔월 백로라고 그거 잇는디.)

110027 @ 예.(예.)

110027 #1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는 잘 몰라.(그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는 잘 몰라.)

9월

110028 @ 백로나 상강에 대해 아시는 거 잇어마씨?(백로나 상강에 대해 아시는 거 잇어요?)

110028 #1 것도 모르켜.(것도 모르겠다.)

110028 @ 그럼 구월 달에 명절 그런 건 잇수광? 구월?(그럼 구월 달에 명절 그런 건 없었습니까? 구월?)

110028 #1 구월에 멍질 잇어.(구월에 명절 없어.)

10월

110029 @ 그럼 시월에 입동이나 소설에 대해 아시는 거 잇어마씨?(그럼 시월에 입동이나 소설에 대해 아시는 거 잇어요?)

110029 #1 것도 모르켜. 벨도로 준비하는 거 잇어 농촌에서는.(것도 모르겠다. 벨도로 준비하는 거 없어. 농촌에서는.)

11월

110030 @ 동지 팡죽 좀 얘기해 주실 수 잇어마씨? 동지 팡죽?(동지 팡죽 좀 얘

기해 주실 수 있어요? 동지 팔죽?)

110030 #1 동지 팻죽이엔 현 게 다 그게 그거주게. 추우니까 동지 팻죽이라 허는 거지 뭐.(동지 팔죽이라고 한 게 다 그게 그거지. 추우니까 동지 팻죽이라 하는 거지 뭐.)

110031 @ 납평날은 알아마씨?(납평날은 알아요?)

110031 #1 득 잡아먹는 날.(닭 잡아먹는 날.)

110031 @ 아. 그건 몇 월 몇 월이짱?(아. 그건 몇 월 몇 월입니까?)

110031 #1 납평날은 보통 몇 월인지 잘 모르켜.(납평날은 보통 몇 월인지 잘 모르겠다.)

110031 @ 십일월 아니짱?(십일월 아닙니까?)

110031 #1 십일월?(십일월?)

110031 @ 예. 그럼 삼촌 그 때는 닭만 잡아마씨?(예. 그럼 삼촌 그 때는 닭만 잡아요?)

110031 #1 옛 해 먹는 날. 납평날. 옛 해 먹는 날. 득으로.(옛 해 먹는 날. 납평날. 옛 해 먹는 날. 닭으로.)

110031 @ 아, 옛 해 먹는 날? 납평날.(아, 옛 해 먹는 날. 납평날.)

110031 #1 어.(어.)

110031 @ 옛을 왜 해 먹어마씨? 납평날에?(옛을 왜 해 먹어요? 납평날에?)

110031 #1 병, 병. 약으로.(병, 병. 약으로.)

110032 @ 대설이나 동지 때 뭐해마씨?(대설이나 동지 때 뭐해요?)

110032 #1 그거 말만 들었지 뭐 허는 거 었어.(그거 말만 들었지 뭐 하는 거 없어.)

12월

110033 @ 그 십이월 달에 친구간¹⁴³ 잇잖아예?(그 십이월 달에 ‘친구간’ 잇잖아요?)

110033 #1 어.(어.)

110033 @ 친구간에 대해 좀 얘기해 줘서. 친구간이 뭐짱?(‘친구간’에 대해 좀 얘기해 주십시오. 친구간이 무엇입니까?)

110033 #1 친구간이.(‘친구간’이.)

110033 @ 예.(예.)

110033 #1 친구간이 이 이승에서.(‘친구간’이 이 이승에서.)

110033 @ 예.(예.)

110033 #1 귀신들이 다 잇다가 친구간은 귀신이 올라가서 바꿀 차례거든. 이 사람. 그 헛수로이.(귀신들이 다 잇다가 ‘친구간’은 귀신이 올라가서 바꿀 차례거든.)

143) ‘친구간’은 제주도 세시풍속 중 음력 정월 초순경을 전후하여 집안의 신들이 천상으로 올라가 비어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이 사람. 그 핏수로.)

110033 @ 예.(예.)

110033 #1 그 올라간 순간을 보고 친구간이라고 허는 거라. 아무거나 해도 동티가 었다고 아무거나 해도 걱정이 었다고.(그 올라간 순간을 보고 ‘친구간’이라고 하는 거라. 아무거나 해도 동티가 없다고 아무거나 해도 걱정이 없다고.)

110033 @ 아. 그럼 보통 이사 가잖아예?(아. 그럼 보통 이사 가잖아요?)

110033 #1 어. 그 때.(어. 그 때.)

110033 @ 삼촌 이사 간 적 잇수광?(삼촌 이사 간 적 있습니까?)

110033 #1 잇주게.(있지.)

110034 @ 그럼 이사 갈 집은 어떻 구헨마씨?(그럼 이사 갈 집은 어떻게 구하셨어요?)

110034 #1 어?(어?)

110034 @ 이사 그러니까 촌에서는 이사 갈 집 잇잖아예?(이사 그러니까 촌에서는 이사 갈 집 잇잖아요?)

110034 #1 어.(어.)

110034 @ 그거 어떻 구헨마씨?(그거 어떻게 구했어요?)

110034 #1 어떻 구헤게. 집 그냥 알아봐서 구하는 거주게.(어떻게 구하기는. 집 그냥 알아봐서 구하는 거지.)

110035 @ 이사 갈 때 뭐, 뭐 처음에 뭐부터 가져가마씨?(이사 갈 때 뭐, 뭐 처음에 뭐부터 가져가요?)

110035 #1 처음에?(처음에?)

110035 @ 예.(예.)

110035 #1 요강.(요강.)

110035 @ 아, 요강.(아, 요강.)

110035 #1 어. 그게 요강이 여자들 오줌 누는 요강이.(어. 그게 요강이 여자들 오줌 누는 요강이.)

110035 @ 예.(예.)

110035 #1 그게 방법¹⁴⁴이라.(그게 ‘방법’이라.)

110035 @ 아, 기팡?(아, 그렇습니까?)

110035 #1 어.(어.)

110036 @ 새로 집 이사하면 사람들 초대하고 음식 좀 대접하고 그런 걸 뭐라고 헤마씨?(새로 집 이사하면 사람들 초대하고 음식 좀 대접하고 그런 걸 뭐라고 해요?)

110036 #1 그거는 별다른 게 말이 었어. 그냥 집 짓어가지고 뭔가 미안하면 새 집 지을 적에 그 사람들 수고허니까 그자 청헤가지고 술도 대접하고 밥도 대접하고 그거밖에 었어. 벨 이름이라는 거 었어.(그거는 별다른 게 말이 없어. 그냥 집 지어

144) 여기서의 ‘방법’은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사악함을 물리치는 일을 뜻한다. = 방세, 방쉬

가지고 뭔가 미안하면 새 집 지을 적에 그 사람들 수고하니까 그저 칭해가지고 술도 대접하고 밥도 대접하고 그거밖에 없어. 별 이름이라는 거 없어.)

110037 @ 새로 집 지었을 때 동네 사람들 불렀을 때 어떻게 했어?(새로 집 지었을 때 동네 사람들 불러서 대접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110037 #1 그때는 우리 먹는 거나 마찬가지로. 술에 밥에 돼지고기 행 그냥 썰어가지고 술안주로 내놓고. 잇는 음식은 그디서 다 나눠 먹주게.(그때는 우리 먹는 거나 마찬가지로. 술에 밥에 돼지고기 해서 그냥 썰어가지고 술안주로 내놓고. 잇는 음식은 거기서 다 나눠 먹지.)

110037 @ 그럼 옆집에서 그런 거 할 때 선물 같은 거 주지 않았어?(그럼 옆집에서 그런 거 할 때 선물 같은 거 주지 않았어요?)

110037 #1 그 집 뭐 선물 있어.(그 집 뭐 선물 없어.)

110038 @ 그 소한, 대한이고 그 때는 뭐하셧마씨?(그 소한, 대한이고 그 때는 뭐 하셧어요?)

110038 #1 소한, 대한이야 지금도 하는 거지만은. 소한에 나간 사람 뭐 대한에 못 돌아온다 이렇게 해주마는.(소한, 대한이야 지금도 하는 거지만. 소한에 나간 사람 뭐 대한에 못 돌아온다 이렇게 하지만.)

110038 @ 거 무슨 말마씨?(거 무슨 말이에요?)

110038 #1 대한, 소한에 나간 사람 기다리지 마라고. 추우니까 길에서 죽는데. 옛날은 걸영만 다니니깐. 옛날은 제주시도 걸영 갖다왔주게. 대한, 소한에 나가서 잘못하다강 죽는다 이거야. 기다리지 마라고.(대한, 소한에 나간 사람 기다리지 마라고. 추우니까 길에서 죽는데. 옛날은 걸어서 다니니깐. 옛날은 제주시도 걸어서 갖다왔지. 대한, 소한에 나가서 잘못하다강 죽는다 이거야. 기다리지 마라고.)

11. 놀이

111001 @ 예전에 그 어렸을 때는 보통 아까 놀이는 많이 안 하셧다고 했지예?(예전에 그 어렸을 때는 보통 아까 놀이는 많이 안 하셧다고 했지요?)

111001 #1 어?(어?)

111001 @ 무슨 놀이 현 거 잇어마씨? 어렸을 때.(무슨 놀이 한 거 잇어요? 어렸을 때.)

111001 #1 놀이?(놀이?)

111001 @ 예.(예.)

111001 #1 놀이 없어.(놀이 없어.)

111001 @ 아, 놀이는 없었습니까?(아, 놀이는 없었습니까?)

111001 #1 여기 살기가 바쁜 동네고 어려워 버리니까.(여기 살기가 바쁜 동네고 어려워 버리니까.)

111001 @ 예.(예.)

111001 #1 우리 클 때는 놀이 경 한갈허게 놀이허지 못했어. 밤이 놀러 땡겨도
달이 달밤에만.(우리 클 때는 놀이 그렇게 한가하게 놀이하지 못했어. 밤에 놀러 다
녀도 달이 달밤에만.)

연

111002 @ 연은 그럼 날려보션마씨?(연은 그럼 날려보셨어요?)

111002 #1 연은 연은 날려봤지. 만들어도 보고.(연은 연은 날려봤지. 만들어도
보고.)

111002 @ 아, 만들어도 환마씨?(아, 만들어도 봤어요?)

111002 #1 어. 만들어도 보고.(어. 만들어도 보고.)

111002 @ 그럼 연은 종류가 뭐, 뭐 잇언마씨?(그럼 연은 종류가 뭐, 뭐 있었어
요?)

111002 #1 성연.(성연.)

111002 @ 예.(예.)

111002 #1 게오리.(가오리.)

111002 @ 예.(예.)

111002 #1 그거 두 가지밖에 잇언.(그거 두 가지밖에 없었어.)

111002 @ 아, 성연 게오리?(아, 성연 가오리?)

111002 #1 어.(어.)

111002 @ 그 다음에?(그 다음에?)

111002 #1 게오리라는 건 이렇게 쉼 게 게오리고.(가오리라는 건 이렇게 쉼 게
가오리고.)

111002 @ 예.(예.)

111002 #1 성연이엔 현 건 XXX현 거 들 딱 붙이고 대가 다섯 갠가?(성연이라
는 건 XXX한 거 달 딱 붙이고 대가 다섯 개인가?)

111002 @ 그럼.(그럼.)

111002 #1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개일 거라.(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개일 거라.)

111002 @ 예. 맞아마씨.(예. 맞아요.)

111003 @ 그럼 연은 어떻 만들어마씨?(그럼 연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111003 #1 연?(연?)

111003 @ 예.(예.)

111003 #1 그 대에 따라가지고.(그 대에 따라가지고.)

111003 @ 예.(예.)

111003 #1 이제 창호지엔 현 거 알아져?(이제 창호지라고 한 거 알아져?)

111003 @ 예.(예.)

111003 #1 창호지 그거로 행 잘라내어.(창호지 그거로 해서 잘라내.)
 111003 @ 예.(예.)
 111003 #1 잘라내영 그 대에다가 풀.(잘라내어서 그 대에다가 풀.)
 111003 @ 예.(예.)
 111003 #1 풀 붙라가지고 붙이주게.(풀 발라가지고 붙이지.)
 111003 @ 예.(예.)
 111003 #1 게고 가운데 고양이대가는 그 종이 딱 붙여놔서 이 그새로 딱 가운데만 잘라. 자르면 고양이 나와. 경 행 만드는 거.(그리고 가운데 구멍에대가는 그 종이 딱 붙여놔서 이 가위로 딱 가운데만 잘라. 자르면 구멍이 나와.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
 111005 @ 어. 그럼 삼촌 연싸움도 하신마씨?(어. 그럼 삼촌 연싸움도 하셨어요?)
 111005 #1 어?(어?)
 111005 @ 연싸움도 옛날에 하신마씨?(연싸움도 옛날에 하셨어요?)
 111005 #1 어. 그렇지.(어. 그렇지.)
 111005 @ 연싸움은 어떻 헨마씨?(연싸움은 어떻게 했어요?)
 111005 #1 연싸움은 연이 두 개 돼거든.(연싸움은 연이 두 개 되거든.)
 111005 @ 예.(예.)
 111005 #1 저 쪽에서도 열고 이쪽에서도 띄우면은.(저 쪽에서도 열고 이쪽에서도 띄우면.)
 111005 @ 예.(예.)
 111005 #1 뭐 만드는 거 성질에 따라가지고 달라지주게. 싸움이엔 현 거는 그 연이 이 쪽 연 연줄 감양 나가.(뭐 만드는 거 성질에 따라가지고 달라지지. 싸움이 라고 한 거는 그 연이 이쪽 연 연줄 감아서 나가.)
 111005 @ 예.(예.)
 111005 #1 감아정 나가민 서로 훑으기 시작허여.(감아져서 나가면 서로 훑기 시작해.)
 111005 @ 예.(예.)
 111005 #1 훑으면 끊어지는 데가 저가지고 도망치는 거주게.(훑으면 끊어지는 데가 저가지고 도망치는 거지.)
 111005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11005 #1 어.(어.)

제기차기

111007 @ 그럼 삼촌 예전에 제기차기도 하셨지예?(그럼 삼촌 예전에 제기차기도 하셨지요?)
 111007 #1 어.(어.)

111007 @ 그럼 제기도 만들었어?(그럼 제기도 만들었어요?)
 111007 #1 게 만들주게.(그럼 만들지.)
 111007 @ 그건 어떻 만드는 거마씨?(그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111007 #1 제기?(제기?)
 111007 @ 예.(예.)
 111007 #1 제기는 종이가 종이를 영 놔가지고.(제기는 종이가 종이를 이렇게 놔가지고.)
 111007 @ 예.(예.)
 111007 #1 이제 몰았어.(이제 말았어.)
 111007 @ 예.(예.)
 111007 #1 영 몰아가지고 몰민 가운데만 영 해가지고 가운데만 내버려두고 잘라.(이렇게 말아가지고 말면 가운데만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만 내버려두고 잘라.)
 111007 @ 예.(예.)
 111007 #1 짜르면은 탁 풀어서 엽전.(자르면 탁 풀어서 엽전.)
 111007 @ 예.(예.)
 111007 #1 엽전 그거 가운데 놔가지고 또 몰아.(엽전 그거 가운데 놔가지고 또 말아.)
 111007 @ 예.(예.)
 111007 #1 몰아가지고 실로 딱 묶어.(말아가지고 실로 딱 묶어.)
 111007 @ 예.(예.)
 111007 #1 묶으면 그렇게 하면 제기가 되는 거주게.(묶으면 그렇게 하면 제기가 되는 거지.)
 111008 @ 그럼 제기차기 종류는 뭐, 뭐 있어마씨?(그럼 제기차기 종류는 뭐, 뭐 있어요?)
 111008 #1 그거 하나. 제기는 벨 종내기 엇어. 하나밖에 엇어. 양발이나 한발이나 마찬가지로. 한발로 하나 양발로 하나 하나 둘 서이 세니깐 마찬가지로.(그거 하나. 제기는 벨 종류 없어. 하나밖에 없었어. 양발이나 한발이나 마찬가지로이지. 한발로 하나 양발로 하나 하나 둘 셋 세니깐 마찬가지로이지.)
 111009 @ 제기차기는 어떻 허는 게 이기는 거짱?(제기차기는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겁니까?)
 111009 #1 많이 차는 게 이기는 거주게. 것도 엽전 담아가지고 거 이제도 허는 거 아니라.(많이 차는 게 이기는 거지. 것도 엽전 담아가지고 거 이제도 하는 거 아니라.)

자치기

111011 @ 그럼 자치기도 하셴마씨?(그럼 자치기도 하셨어요?)
 111011 #1 자치기 알주게.(자치기 알지.)

111011 @ 아, 자치기 알아마씨? 자치기 종류엔 뭐 잇어마씨?(아, 자차기 알아요? 자치기 종류에는 뭐 있어요?)

111011 #1 자치기엔 현 게 자치기주게. 그게 그거.(자치기라고 한 게 자치기이지. 그게 그거.)

111012 @ 자는 어떻 준비해마씨? 그러면.(자는 어떻게 준비했어요? 그러면.)

111012 #1 자치기?(자치기?)

111012 @ 예. 자는.(예. 자는.)

111012 #1 요만한 나무에.(요만한 나무에.)

111012 @ 예.(예.)

111012 #1 또 요만한 나무에 또 여기 이렇게 이런 거 놔근영 이렇게 놓으면.(또 요만한 나무에 또 여기 이렇게 이런 거 놔서 이렇게 놓으면.)

111012 @ 예.(예.)

111012 #1 이거 딱 때리면 저기로 멀리강 떨어지거든?(이거 딱 때리면 저기로 멀리가서 떨어지거든?)

111012 @ 예.(예.)

111012 #1 이게 그럼 그걸 재는 거라.(이게 그럼 그걸 재는 거라.)

111012 @ 아.(아.)

111012 #1 이제 그 때린 걸로.(이제 그 때린 걸로.)

111012 @ 때린 걸로?(때린 걸로?)

111012 #1 어. 때린 걸로 재서 몇 자다 허는 거라.(어. 때린 걸로 재서 몇 자다 하는 거라.)

111012 @ 아, 그럼 몇 자다. 그럼 그 나무는 산에서 가져온 거마씨?(아, 그럼 몇 자다. 그럼 그 나무는 산에서 가져온 거예요?)

111012 #1 아니, 아무 나무나 돼여. 소나무도 돼고.(아니, 아무 나무나 되어. 소나무도 되고.)

111012 @ 예.(예.)

111012 #1 대나무는 안 돼고.(대나무는 안 되고.)

111012 @ 기구나예.(그렇군요)

111013 @ 자치기는 누가 이긴 거 어떻 알아마씨?(자치기는 누가 이긴 거 어떻게 알아요?)

111013 #1 자치기엔 현 게 자엔 현 게 뭐 때문에 나온 지 아나. 요만한 게 막대기가 자거든. 이 자가 많이 탄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 여기서 딱 때리면은 이게 놀아간단 말이여. 놀아가면은 떨어진 곳에 가서 재서 많이 탄 사람이 이기는 거지.(자치기라고 한 게 자라고 한 게 뭐 때문에 나온 지 아나. 요만한 게 막대기가 자거든. 이 자가 많이 탄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 여기서 딱 때리면 이게 날아간다 말이야. 날아가면 떨어진 곳에 가서 재서 많이 탄 사람이 이기는 거지.)

말타기

111015 @ 어렸을 때 노는 거 그 중에 자치기까지 하고 말타기에 대해 좀 물어보쿠다. 말타기.(어렸을 때 노는 거 그 중에 자치기까지 하고 말타기에 대해 좀 물어보겠습니다. 말타기.)

111015 #1 어.(어.)

111015 @ 말타기 종류는 얼마마씨? 말타기 종류는 뭐 잇어마씨?(말타기 종류는 알아요? 말타기 종류는 뭐 잇어마씨?)

111015 #1 사람에?(사람에?)

111015 @ 예.(예.)

111015 #1 사람에 앞이 하나 사고.(사람에 앞에 하나 서고.)

111015 @ 예.(예.)

111015 #1 그 짹짹 허거든.(그 짹짹 허거든.)

111015 @ 예.(예.)

111015 #1 반 갈라가지고 다섯 사람이면 다섯 사람. 몇 사람 갈라서.(반 갈라가지고 다섯 사람이면 다섯 사람. 몇 사람 갈라서.)

111015 @ 예.(예.)

111015 #1 그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은 머리에 사람이 하나 사.(그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머리에 사람이 하나 서.)

111015 @ 예.(예.)

111015 #1 남자면 이렇게 이렇게 사면은 너이나 다섯이나 굽어.(남자면 이렇게 이렇게 서면 넷이나 다섯이나 굽어.)

111015 @ 예.(예.)

111015 #1 굽으면은 절로 올라타면서 사람 위에 올라타면서 그게 사람 몰타기라. 그거 다섯 사람이면 다섯 사람 올라타 그 뭔가 가위바위보행 뭔가 그것도 잘 기억이. 저 옛날 말도 잇다만은 가위바위보말고.(굽으면 저기로 올라타면서 사람 위에 올라타면서 그게 사람 말타기라. 그거 다섯 사람이면 다섯 사람 올라타서 그 뭔가 가위바위보해서 뭔가 그것도 잘 기억이. 옛날 말도 잇다만 가위바위보말고.)

111015 @ 아, 그거 옛날 말 잇수광?(아, 그거 옛날 말 잇습니까?)

111015 #1 장간보시기. 그 옛날 하도 오래 됐는데 옛날 말로 장간보시기 허영지면은 또 굽고.(‘장간보시기’. 그 옛날 하도 오래 됐는데 옛날 말로 ‘장간보시기’ 해서 지면 또 굽고.)

111015 @ 예.(예.)

111015 #1 이긴 사람은 또 타고 경 허는 게 말타기라.(이긴 사람은 또 타고 그렇게 하는 게 말타기라.)

111015 @ 예. 근데 그거 하나밖에 잇수광?(예. 근데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111015 #1 어?(어?)

111016 @ 죽은말타기나 생말타기 대말타기는 들어보셨마씨?(죽은말타기나 생말타기 대말타기는 들어보셨어요?)

111016 #1 엇어. 그런 건 엇언.(없어. 그런 건 없었어.)

구슬치기

111020 @ 삼촌 어렸을 때 구슬치기 했수광? 다마?(삼촌 어렸을 때 구슬치기 했습니까? 다마?)

111020 #1 그렇지.(그렇지.)

111020 @ 아, 다마는 어떻게 어디서 준비헨마씨?(아, 다마는 어떻게 어디서 준비했어요?)

111020 #1 다마?(다마?)

111020 @ 예.(예.)

111020 #1 다마는 그거 파는 거니까.(다마는 그거 파는 거니까.)

111020 @ 예.(예.)

111020 #1 파는 거니까 서이면 서이 너이면 너이 다섯이면 다섯. 다섯 고양이요만씩 파.(파는 거니까 셋이면 셋 넷이면 넷 다섯이면 다섯. 다섯 구멍을 이만큼 파.)

111020 @ 예.(예.)

111020 #1 요만씩 쪽 허게 파주게.(이만큼 쪽 하게 파지.)

111020 @ 예.(예.)

111020 #1 구슬 여기 놔가지고 태와.(구슬 여기 놔가지고 태와.)

111020 @ 예.(예.)

111020 #1 태와가지고 이 동글락허게 판 디.(태와가지고 이 동그렇게 판 데.)

111020 @ 예.(예.)

111020 #1 거기에 하나씩 하나씩 들이쳐¹⁴⁵⁾.(거기에 하나씩 하나씩 ‘들이쳐.’)

111020 @ 아.(아.)

111020 #1 들이쳐가지고 거기서 못 들어가면은 지는 거라.(‘들이쳐’가지고 거기서 못 들어가면 지는 거라.)

111020 @ 그걸 뭐라고 헤마씨?(그걸 뭐라고 해요?)

111020 #1 구슬치기.(구슬치기.)

111020 @ 구슬치기?(구슬치기?)

111020 #1 어.(어.)

111020 @ 구슬치기에도 종류 있지 않ாம씨?(구슬치기에도 종류 있지 않아요?)

111020 #1 엇어.(없어.)

111020 @ 아, 그거 하나밖에 엇어마씨?(아,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111020 #1 어.(어.)

145) ‘들이치다’는 ‘안쪽으로 아무렇게나 막 집어넣다’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11020 @ 그거 구멍치기 닮은데.(그거 구멍치기 닮은데.)

111020 #1 어.(어.)

111020 @ 그럼 구슬 종류는 몇 개 있어수광?(그럼 구슬 종류는 몇 개 있었습니까?)

111020 #1 종류?(종류?)

111020 @ 예. 다마 종류마씨.(예. 다마 종류요.)

111020 #1 다마 종류 파란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색깔 벗겨진 것도 있고.(다마 종류 파란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색깔 벗겨진 것도 있고.)

딱지치기

111028 @ 그럼 삼촌 어리셨을 때 딱지치기도 하셨지예?(그럼 삼촌 어리셨을 때 딱지치기도 하셨지요?)

111028 #1 그렇지. 빠짱치기.(그렇지 딱지치기.)

111028 @ 뭐마씨?(뭐예요?)

111028 #1 빠짱.(딱지.)

111028 @ 빠짱. 그럼 그 빠짱은 어떻게 준비해마씨?(딱지. 그럼 그 딱지는 어떻게 준비해요?)

111028 #1 빠짱은 옛날 그랫주게. 골런 껍데기.(딱지는 옛날 그랬지. 쫄런 껍데기.)

111028 @ 음.(음.)

111028 #1 골런 껍데기를 빙 돌아서 끊어. 지금은 네모나게 해서 저 치는디. 옛날은 동글락 동글락하게 행 다 끊어.(쫄런 껍데기를 빙 돌아서 끊어. 지금은 네모나게 해서 저 치는데. 옛날은 동그렇게 동그렇게 해서 다 끊어.)

111028 @ 예.(예.)

111028 #1 끊영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리이리 끊어놔 그걸로 이렇게 치면서.(끊어서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리이리 끊어서 그걸로 이렇게 치면서.)

111028 @ 예.(예.)

111028 #1 얹어지믄 저 뭔가 그 얹어져불면은 걸 따 먹고. 또 슬째기 쪽 들어가도 그거 따 먹고 경 허는 거주게.(얹어지면 저 뭔가 그 얹어져버리면 걸 따 먹고. 또 살짝 쪽 들어가도 그거 따 먹고 그렇게 하는 거지.)

111029 @ 그 빠짱? 빠짱치기?(그 딱지? 딱지치기?)

111029 #1 응. 빠짱치기.(응. 딱지치기.)

111029 @ 그 종류는 엿수광? 몇 개? 무조건 그거 허는 거밖에 엿언마씨?(그 종류는 없습니까? 몇 개? 무조건 그거 하는 거밖에 없었어요?)

111029 #1 어. 그거 한 개 뿐.(어. 그거 한 개 뿐.)

숨바꼭질

111032 @ 숨바꼭질 잇잖아예?(숨바꼭질 잇잖아요?)

111032 #1 어.(어.)

111032 @ 옛날에 숨바꼭질은 옛날에 뭐라고 헨마씨?(옛날에 숨바꼭질은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111032 #1 곱음재기.(‘곱음재기’.)

111032 @ 다시 한 번?(다시 한 번?)

111032 #1 곱음재기.(‘곱음재기’.)

111032 @ 곱음재기?(‘곱음재기’?)

111032 #1 어.(어.)

111032 @ 그거는 어떻 허는 거마씨?(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11032 #1 그건 여기서이.(그건 여기서.)

111032 @ 예.(예.)

111032 #1 뭔가 놀이라는 게 밑에 영 서가지고 이제 영 그 저 뭐 헌 사람이 사가지고.(뭔가 놀이라는 게 밑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저 뭐 헌 사람이 서가지고.)

111032 @ 예.(예.)

111032 #1 눈 감양 하나 둘 해서 열꺼지 쉐단 말이야.(눈 감아서 하나 둘 해서 열까지 쉐다 말이야.)

111032 @ 예.(예.)

111032 #1 열꺼지 세영 그 사람이 영 건드려가지고 허게 웨민 들어오면 산 사람이고. 그 사람 강 좇양 때리민 그건 죽은 사람이고.(열까지 세어서 그 사람이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하게 되면 들어오면 산 사람이고. 그 사람 가서 찾아서 때리면 그건 죽은 사람이고.)

111032 @ 아.(아.)

111032 #1 게면 죽은 사람이 또 다음에 여기 사가지고 또 뭐 허주.(그러면 죽은 사람이 또 다음에 여기 서가지고 또 뭐 하지.)

111033 @ 그럼 맨 처음에 눈 감는 사람 잇잖아예.(그럼 맨 처음에 눈 감는 사람 잇잖아요.)

111033 #1 어.(어.)

111033 @ 그건 어떻 정혜마씨?(그건 어떻게 정혜요?)

111033 #1 거기서.(거기서.)

111033 @ 예.(예.)

111033 #1 거기서 남자들 중에 저기서 저 알양 정혜불어.(거기서 남자들 중에 저기서 저 알아서 정해버려.)

111033 @ 알양 정혜마씨?(알아서 정혜요?)

111033 #1 어.(어.)

111033 @ 뭐 가위바위보 같은 걸로는 안헨마씨?(뭐 가위바위보 같은 걸로는 안 했어요?)

111033 #1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는 물 타는 게 가위바위보주게.(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는 말 타는 게 가위바위보지.)

111033 @ 그러니까 그 숨바꼭질 할 때.(그러니까 그 숨바꼭질 할 때.)

111033 #1 응.(응.)

111033 @ 잡아야 되는 사람 잇잖아예. 눈 감는 사람.(잡아야 되는 사람 잇잖아 요. 눈 감는 사람.)

111033 #1 어.(어.)

111033 @ 그거는 맨 처음에 정할 때 정하는 방법은 엇수광?(그거는 맨 처음에 정할 때 정하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111033 #1 그 방법 엇어. 거기서 좀 약한 사람.(그 방법 엇어. 거기서 좀 약한 사람.)

111033 @ 약한 사람?(약한 사람?)

111033 #1 어.(어.)

111034 @ 그럼 주로 어디에 숨언마씨? 삼촌?(그럼 주로 어디에 숨었어요? 삼촌?)

111034 #1 이 초집이야 이런 하간 놀굽¹⁴⁶ 같은 디.(이 초가집이야 이런 여러가지 ‘놀굽’ 같은 데.)

111034 @ 놀굽?(‘놀굽’?)

111034 #1 놀굽도 모르지?(‘놀굽’도 모르지?)

111034 @ 예. 그게 뭐짱?(예. 그게 무엇입니까?)

111034 #1 놀른 놀른 그 사이 톸툸이.(누른 누른 그 사이 톸툸이.)

111034 @ 예.(예.)

111034 #1 그런데 곱앗당 나오주게.(그런데 숨었다가 나오지.)

111034 @ 아, 기짱?(아, 그렇습니까?)

111034 #1 어.(어.)

111035 @ 숨바꼭질 할 때 주로 숨는 데가 어디잇언마씨?(숨바꼭질 할 때 주로 숨는 데가 어디잇었어요?)

111035 #1 그거는 이딴 집 안에서는 못 찾을 데 가서 숨주게. 꼭꼭 숨어라 머리 카락 보인다 그 말이 그말이주게.(그거는 여기 집 안에서는 못 찾을 데 가서 숨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 말이 그말이지.)

실뜨기

111036 @ 삼촌 옛날에 실뜨기도 헛수광? 실뜨기?(삼촌 옛날에 실뜨기도 했습니까? 실뜨기?)

146) ‘놀굽’은 짚이나 풀 따위를 둥그렇게 쌓은 자리의 밑바닥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11036 #1 실뜨기?(실뜨기?)

111036 @ 예.(예.)

111036 #1 실뜨기는 몰라.(실뜨기는 몰라.)

공기놀이

111041 @ 그럼 공기는 헛수광?(그럼 공기는 했습니까?)

111041 #1 어. 공기 헛어.(어. 공기 했어.)

111041 @ 그건 어떻게?(그건 어떻게?)

111041 #1 공기는 다섯 개.(공기는 다섯 개.)

111041 @ 예.(예.)

111041 #1 이게 이렇게 잡아가지고.(이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111041 @ 예.(예.)

111041 #1 초담 하나 영 데경 영 데껴가지고 내려오기 전에 하나 잡앙 또 이렇게 잡고 또 던정 두 개 잡앙 이렇게 헨 게 이게 이게 다 잡아지민 이기는 거고 떨어지민 지는 거라.(처음 하나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던져가지고 내려오기 전에 하나 잡아서 또 이렇게 잡고 또 던져서 두 개 잡아서 이렇게 한 게 이게 이게 다 잡아지면 이기는 거고 떨어지면 지는 거라.)

111041 @ 그럼 그 공기는 어디서 나서 헛수광? 맨 처음에.(그럼 그 공기는 어디서 나서 했습니까? 맨 처음에.)

111041 #1 맨 처음에?(맨 처음에?)

111041 @ 예.(예.)

111041 #1 우리 헐 적에는 돌로.(우리 할 적에는 돌로.)

111041 @ 돌로.(돌로.)

111041 #1 돌로 그 저 뭔가 못앙 망치새끼로 그 아무 쇠로나 뭐나 돌멩이 좃엉 동그란 거 못아가지고.(돌로 그 저 뭔가 부쉬 망치새끼로 그 아무 쇠로나 뭐나 돌멩이 주어서 동그란 거 부쉬가지고.)

111041 @ 예.(예.)

111041 #1 이것도 옛날 말이다. 못아가지고 동글락허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공기 치기 허는 거주게.(이것도 옛날 말이다. 부쉬가지고 동그랴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공기 치기 하는 거지.)

111041 @ 그거 삼촌 어리섯을 때 자주 하션마씨?(그거 삼촌 어렸을 때 자주 하셨어요?)

111041 #1 그거 어렸을 때 보통 허는 장난이 그건데 뭐.(그거 어렸을 때 보통 하는 장난이 그건데 뭐.)

고누

111044 @ 삼촌 고누도 알아마씨? 고누?(삼촌 고누도 알아요? 고누?)

111044 #1 어?(어?)
111044 @ 고누가 뭐깡? 고누?(고누가 무엇입니까? 고누?)
111044 #1 고누?(고누?)
111044 @ 예. 고누라고 들어보션마씨?(예. 고누라고 들어보셨어요?)
111044 #1 고누 고누는 몰라. 고누는 안 봤어.(고누 고누는 몰라. 고누는 안 봤어.)

땅뺏기

111049 @ 사기그릇 깨진 걸로 땅 그으는 거 있잖아예. 그 사금파리는 어디서 준비해마씨?(사기그릇 깨진 걸로 땅 긋는 거 있잖아요. 그 사금파리는 어디서 준비했어요?)

111049 #1 아이들 뎡기당 봉그당 그 좃어당 헛주게.(아이들 다니다가 주어서 그 주어다가 했지.)

111050 @ 그 땅따먹기는 어떻 하는 거마씨?(그 땅따먹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11050 #1 그것도 뭔가 여러 가지가 잇주게.(그것도 뭔가 여러 가지가 있지.)

111050 @ 여러 가지 다 굴아 줍서.(여러 가지 다 말해 주십시오.)

111050 #1 이렇게 손으로 테와가지고 허는 것들도 잇고.(이렇게 손으로 태워가지고 하는 것들도 잇고.)

111050 @ 그건 어떻 허는 거마씨?(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11050 #1 손으로 테와가지고 저 그 사람네 상대방.(손으로 태워가지고 저 그 사람들 상대방.)

111050 @ 예.(예.)

111050 #1 이게 물이엔 허주게.(이게 말이라고 하지.)

111050 @ 물?(말?)

111050 #1 말. 이렇게 태우면은 맞으면은 그거 가져오주게.(말. 이렇게 태우면 맞으면 그거 가져오지.)

111050 @ 그럼 그때 그 말은 뭘로 만들언마씨?(그럼 그때 그 말은 뭘로 만들었어요?)

111050 #1 그거는 고동 꺾테기 잇잖아.(그거는 고동 꺾테기 잇잖아.)

111050 @ 예.(예.)

111050 #1 동글락헌 거이.(동그란 거.)

111050 @ 예.(예.)

111050 #1 그걸로 많이 사용허여.(그걸로 많이 사용해.)

111050 @ 그면 그냥 말 맞추면 그 사람 거 따오는 거?(그러면 그냥 말 맞추면 그 사람 거 따오는 거?)

111050 #1 어.(어.)

111050 @ 그럼 그게 땅뺏기짱? 땅을 뺏는 거 아니마씨?(그럼 그게 땅뺏기입니까? 땅을 뺏는 거 아니예요?)

111050 #1 땅 뺏는 게 영 맞추면 영 허영 들어오고게.(땅 뺏는 게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111051 @ 그럼 언제 해야 이기는 거마씨? 땅따먹기는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마씨?(그럼 언제 해야 이기는 거예요? 땅따먹기는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111051 #1 땅 엇이민 이기는 거지 뭐. 이게 전쟁하는 식이랑 마찬가지로.(땅 없으면 이기는 거지 뭐. 이게 전쟁하는 식이랑 마찬가지로.)

웃놀이

111053 @ 웃놀이 잇잖아예? 웃놀이도 헛지예?(웃놀이 잇잖아요? 웃놀이도 헛지요?)

111053 #1 어.(어.)

111053 @ 그 웃가락 웃가락은 그거는 어땡 만들언마씨?(그 웃가락 웃가락은 그거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111053 #1 옛날?(옛날?)

111053 @ 예.(예.)

111053 #1 저 그 웃가락 만드는 식은 지금이나 마찬가지로주게. 큰 장작웃은 그 때는 엇었어.(저 그 웃가락 만드는 식은 지금이나 마찬가지로지. 큰 장작웃은 그 때는 없었어.)

111053 @ 예.(예.)

111053 #1 요만큼씩 현 거.(요만큼씩 한 거.)

111053 @ 아 이만큼 현 거마씨?(아 이만큼 한 거예요?)

111053 #1 지금도 즈라.(지금도 짧아.)

111053 @ 지금은 한 이 정도 허지 않아마씨?(지금은 한 이 정도 하지 않아요?)

111053 #1 이 정도 허는 거 아니야. 지금 돈 내기 해근영 웃놀이 허는 거는 즈라. 거 옛날 방식 변하지 않았어.(이 정도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돈 내기 해서 웃놀이 하는 거는 짧아. 거 옛날 방식 변하지 않았어.)

111053 @ 아.(아.)

111054 @ 그럼 그건 무슨 나무로 만들언마씨?(그럼 그건 무슨 나무로 만들었어요?)

111054 #1 저 동백나무.(저 동백나무.)

111054 @ 아.(아.)

111054 #1 그걸로 만드는 거주게. 무거운 걸로.(그걸로 만드는 거지. 무거운 걸로.)

111054 @ 삼촌 그거 만들어봤수광?(삼촌 그거 만들어봤습니까?)

111054 #1 만들주게.(만들지.)

111054 @ 어. 어떻 만들어마씨?(아. 어떻게 만들었어요?)

111054 #1 이디 곧장 올라온 거거든.(여기가 곧장 올라온 거거든.)

111054 @ 예.(예.)

111054 #1 곧장 올라오민 고와 예빠. 거기다가 이만큼 행 끊어. 끊어가지고 반을 쪼개어.(곧장 올라오면 고와 예빠. 거기다가 이만큼 해서 끊어. 끊어가지고 반을 쪼개.)

111054 @ 예.(예.)

111054 #1 쪼개민 옷이 나오는 거주게.(쪼개면 옷이 나오는 거지.)

111055 @ 그럼 종지랑 옷판 잇잖아예? 종지랑 옷판.(그럼 종지랑 옷판 잇잖아요? 종지랑 옷판.)

111055 #1 어.(어.)

111055 @ 그거는 어떻 어떻 만들언마씨 옛날예?(그거는 어떻게 어떻게 만들었어요 옛날예?)

111055 #1 옷 옷은 판을 이렇게 행 놔가지고.(옷 옷은 판을 이렇게 해서 놔가지고.)

111055 @ 예.(예.)

111055 #1 이렇게 이렇게 놔가지고. 종지는 종지는 흰 종지 요만큼 흰 거 잇다.(이렇게 이렇게 놔가지고. 종지는 종지는 흰 종지 요만큼 한 거 있다.)

111055 @ 예.(예.)

111055 #1 지금이야 그것도 옛날 종지라.(지금이야 그것도 옛날 종지라.)

111055 @ 예.(예.)

111055 #1 옛날 종지인디 그거 담아가지고 그걸로 던져.(옛날 종지인데 그거 담아가지고 그걸로 던져.)

111055 @ 음.(음.)

111055 #1 그거 담양 손바닥에 놔서 던져가지고 돈 따먹기 허는 거 그거.(그거 담아서 손바닥에 놔서 던져가지고 돈 따먹기 하는 거 그거.)

111056 @ 옷놀이 종류는 아시는 거 잇어마씨?(옷놀이 종류는 아시는 거 잇어요?)

111056 #1 옷놀이 종류 그거 하나밖에 아니야.(옷놀이 종류 그거 하나밖에 아니야.)

111056 @ 아, 기짱?(아, 그렇습니까?)

111056 #1 어.(어.)

111057 @ 그럼 그거는 어떻 하민 이기는 거짱 옷놀이는?(그럼 그거는 어떻게 하면 이기는 겁니까 옷놀이는?)

111057 #1 일루 물이 가거든.(이리로 말이 가거든.)

111057 @ 예.(예.)

111057 #1 토민 하나 놓고.(도면 하나 놓고.)

111057 @ 예.(예.)

111057 #1 개민 두 개 놓고.(개면 두 개 놓고.)

111057 @ 예.(예.)

111057 #1 그거 행 다섯 개 일루 뱅 전부 돌아근엿 먼저 나오는 디가 이기는 거라.(그거 해서 다섯 개 여기로 뱅 전부 돌아서 먼저 나오는 데가 이기는 거라.)

111058 @ 삼촌 웃놀이 행 재미나게 현 적 잇엇수광?(삼촌 웃놀이 해서 재미나게 한 적 잇엇습니까?)

111058 #1 한장서도 웃놀이는 많이 허여. 지금도.(‘한장’에서도 웃놀이는 많이 해. 지금도.)

팽이치기

111059 @ 팽이치기도 하션마씨?(팽이치기도 하셨어요?)

111059 #1 어. 팽이도 알아.(어. 팽이도 알아.)

111059 @ 팽이는 어떻 준비헨마씨?(팽이는 어떻게 준비했어요?)

111059 #1 팽이는이.(팽이는.)

111059 @ 예.(예.)

111059 #1 나무가 요만큼 초담 나무 끊기 전에이. 저 저 끊어놔.(나무가 요만큼 처음 나무 끊기 전에. 저 저 끊어놔서.)

111059 @ 예.(예.)

111059 #1 그 이런 코쟁이¹⁴⁷⁾ 만들야.(그 이런 ‘코쟁이’ 만들어.)

111059 @ 예.(예.)

111059 #1 코쟁이를 만들영 요만큼 행 위로 끊어. 끊어가지고 나무를 요만헌 게 잇어. 요만허게 만들영.(‘코쟁이’를 만들어서 요만크 해서 위로 끊어. 끊어가지고 나무를 요만한 게 잇어. 요만하게 만들어서.)

111059 @ 예.(예.)

111059 #1 끝이다가 옛날은 플로레기라고 허여. 그것 보고.(끝에다가 옛날은 나부랭이라고 해. 그것 보고.)

111059 @ 플로레기?(나부래기?)

111059 #1 어. 험벅 험벅 벌리는 거.(어. 형겼 형겼 벌리는 거.)

111059 @ 아.(어.)

111059 #1 그거 묶영 걸로 영영 감거든.(그거 묶어서 걸로 영영 감거든.)

111059 @ 예.(예.)

111059 #1 감양 확 잡아텅기면 그게 돌아.(감아서 확 잡아당김면 그게 돌아.)

111059 @ 예.(예.)

111059 #1 돌면은 그거 뭐 허기 전에 이걸로 때리면 돌아.(돌면 그거 뭐 하기 전에 이걸로 때리면 돌아.)

147) ‘코쟁이’는 ‘코, 끝이 뾰족한 것. 작살의 맨 끝부분’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코쟁이.

111059 @ 예. 그러니까 삼촌 팽이 팽이 잇잖아예.(예. 그러니까 삼촌 팽이 팽이 잇잖아요.)

111059 #1 어.(어.)

111059 @ 그럼 그거는 어떻 만들어마씨?(그럼 그거는 어떻게 만들어요?)

111059 #1 아까 곧지 안 헛냐게.(아까 말하지 안 했냐.)

111059 @ 아까 곧았수광?(아까 말했습니까?)

111059 #1 어. 아까 팽이가.(어. 아까 팽이가.)

111059 @ 예.(예.)

111059 #1 고양. 이런 낭이라도.(구멍. 이런 나무라도.)

111059 @ 예.(예.)

111059 #1 이런 낭이라도이.(이런 나무라도.)

111059 @ 예.(예.)

111059 #1 이거 이레 멘딱 모사리 멘딱 엇이 만들어 똥.(이거 이리 전부 모서리 전부 없이 만들어 똥서.)

111059 @ 예.(예.)

111059 #1 여기 멘들락하게 곱게 허여가지고.(여기 매끈하게 곱게 해가지고.)

111059 @ 예. 동그랴게 해가지고.(예. 동그랴게 해가지고.)

111059 #1 어. 동그랴게 만들영 아래로 가면은 차츰차츰 ㄴ늘게 만든다 말이야.(어. 동그랴게 만들어서 아래로 가면 차츰차츰 가늘게 만든다 말이야.)

111059 @ 예.(예.)

111059 #1 ㄸ트머리에 가면은 코쟁이 가면은 못 박는 사람은 못 박고 안 박는 사람은 안 박고.(ㄸ트머리에 가면 ‘코쟁이’ 가면 못 박는 사람은 못 박고 안 박는 사람은 안 박고.)

111059 @ 못 박는 사람도 잇어마씨?(못 박는 사람도 있어요?)

111059 #1 어.(어.)

111060 @ 그 팽이 종류도 잇수광?(그 팽이 종류도 있습니까?)

111060 #1 팽이 종류는 엇어.(팽이 종류는 없어.)

111061 @ 그럼 그 팽이 만들 때 나무로 만들잖아예?(그럼 그 팽이 만들 때 나무로 만들잖아요?)

111061 #1 어. 나무로.(어. 나무로.)

111061 @ 보통 무슨 나무로 만들어마씨?(보통 무슨 나무로 만들어요?)

111061 #1 그것도 동백나무나 참나무.(그것도 동백나무나 참나무.)

111061 @ 무슨 나무마씨?(무슨 나무요?)

111061 #1 참나무는 속이 엇는디.(참나무는 속이 없는데.)

111061 @ 예.(예.)

111061 #1 동백나무나 참나무로 팽이 만들주게.(동백나무나 참나무로 팽이 만들지.)

111062 @ 그뎨 팽이 이렇게 잘 돌아야 하잖아예?(그러뎨 팽이 이렇게 잘 돌아야 하잖아예?)

111062 #1 어.(어.)

111062 @ 그럽 팽이 잘 돌리려뎨 어떻 헤야 뉘마씨?(그럽 팽이 잘 돌리려뎨 어떻게 헤야 돼요?)

111062 #1 잘 돌게 허려뎨 이걸로 잘 쳐야지.(잘 돌게 하려뎨 이걸로 잘 쳐야지.)

111062 @ 그거 치는 건 뉘라고 안 헤마씨?(그거 치는 건 뉘라고 안 했어예?)

111062 #1 그거 치는 건 이름이 엇어.(그거 치는 건 이름이 없어.)

111062 @ 아, 이름 엇어마씨?(아, 이름 없어예?)

111062 #1 그걸로 헤근엿 둘이가 팽이싸움 붙이주게.(그걸로 헤서 둘이 팽이싸움 붙이지.)

111063 @ 이게 팽이채라고 허거든마씨?(이게 팽이채라고 하거든요?)

111063 #1 어. 맞다. 팽이채.(어. 맞다. 팽이채.)

111063 @ 삼촌 팽이채는 어떻 만드는지 얘기 헛수게.(삼촌 팽이채는 어떻게 만드는지 얘기 헛습니다.)

111063 #1 어.(어.)

111063 @ 그거 다시 한 번 간단히 곴아 줍서. 팽이치기 할 때 팽이채는 어떻 준비헛마씨?(그거 다시 한 번 간단히 말해 주십시오. 팽이치기 할 때 팽이채는 어떻게 준비했어예?)

111063 #1 몽둥이 요만한 거 헤가지고 끄트머리에 뉘가 헛벽 딱 묶엿 팽이를 이렇게 감앙 확 잡아 텡경 그걸로 때리면 이제 팽이가 제대로 돌아가. 요만한 나무로 만들주게. 줄은 아무 줄이라도 뉘는디.(몽둥이 요만한 거 헤가지고 끄트머리에 뉘가 헛걸 딱 묶어서 팽이를 이렇게 감아서 확 잡아 당겨서 그걸로 때리면 이제 팽이가 제대로 돌아가. 요만한 나무로 만들지. 줄은 아무 줄이라도 뉘는데.)

111064 @ 그럽 팽이 싸움도 하잖아예.(그럽 팽이 싸움도 하잖아예.)

111064 @ 어.(어.)

111064 @ 어떻 헤마씨?(어떻게 헤요?)

111064 #1 싸우는 거는 느랑 나랑 팽이를 돌리면은.(싸우는 거는 너랑 나랑 팽이를 돌리면.)

111064 @ 예.(예.)

111064 #1 팽이가 이렇게 마주 부대껴.(팽이가 이렇게 마주 부대껴.)

111064 @ 예.(예.)

111064 #1 경 헤가지고 쓰러지는 것이 지는 거라.(그렇게 헤가지고 쓰러지는 것이 지는 거라.)

111064 @ 삼촌도 그거 팽이치기 헤 보신 적 잇수광?(삼촌도 그거 팽이치기 헤 보신 적 잇습니까?)

111064 #1 해 봐주게.(해 봤지.)

굴렁쇠

111066 @ 그 굴렁쇠도 혹시 헛수광?(그 굴렁쇠도 혹시 했습니까?)

111066 #1 어?(어?)

111066 @ 굴렁쇠? 굴렁쇠? 동그란 거 굴리는 거 잇잖아예.(굴렁쇠? 굴렁쇠? 동그란 거 굴리는 거 잇잖아요.)

111066 #1 아. 저. 아아 것도 있어.(아. 저. 아아 것도 있어.)

111066 @ 아 것도 잇엇구나예. 그거 제줏말로 뭐라고 헨마씨?(아 것도 잇엇군요. 그건 제줏말로 뭐라고 했어요?)

111066 #1 그거 그거는 제줏말로 차 바쿠로 둥글리는 건디 뭐 이름은 엇어.(그거 그거는 제줏말로 차 바퀴로 굴리는 건데 뭐 이름은 없어.)

111067 @ 그림 그거 굴리는 거랑 이렇게 대랑 두 개가 필요하잖아예.(그림 그거 굴리는 거랑 이렇게 대랑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111067 #1 어.(어.)

111067 @ 그건 어떻 준비헨마씨?(그건 어떻게 준비했어요?)

111067 #1 대 그때도 대 그때는 뭐라고 헨냐 허면은 옛날도 자전거 같은 거는 잇엇거든.(대 그때도 대 그때는 뭐라고 헨냐 하면 옛날도 자전거 같은 거는 잇엇거든.)

111067 @ 예.(예.)

111067 #1 그거 바쿠 잇잖아. 바쿠.(그거 바퀴 잇잖아. 바퀴.)

111067 @ 예.(예.)

111067 #1 가운데 홈 잇잖아.(가운데 홈 잇잖아.)

111067 @ 예.(예.)

111067 #1 그걸로 막대기 헤근엥 굴리는 게 그거주게.(그걸로 막대기 해서 굴리는 게 그거지.)

(깡)통차기

111069 @ 삼촌 깡통차기도 하션마씨? 깡통차기?(삼촌 깡통차기도 하셨어요? 깡통차기?)

111069 #1 어.(어.)

111069 @ 깡통차기 알아마씨?(깡통차기 알아요?)

111069 #1 어. 깡통차기 알아.(어. 깡통차기 알아.)

111069 @ 깡통은 어디서 준비하션마씨?(깡통은 어디서 준비하셨어요?)

111070 #1 깡통이엔 현 거는 저 사람 다섯이면 다섯.(깡통이라고 한 거는 저 사람 다섯이면 다섯.)

111070 @ 예.(예.)

111070 #1 열이면 열. 이게 깡통 여기 딱 놓으면.(열이면 열. 이게 깡통 여기 딱 놓으면.)

111070 @ 예.(예.)

111070 #1 이걸 창 도망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이걸 차서 도망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

111070 @ 뭐 헨 사람이마씨?(뭐 한 사람이요?)

111070 #1 발로 이거 깡통 놓으면 차거든?(발로 이거 깡통 놓으면 차거든?)

111070 @ 예.(예.)

111070 #1 차면 멀리 나갈 거 아니냐.(차면 멀리 나갈 거 아니냐.)

111070 @ 예. 멀리 나가주마씨.(예. 멀리 나가지요.)

111070 #1 멀리 나가면 이제 그 돌아. 도망가.(멀리 나가면 이제 그 달려. 도망가.)

111070 @ 아.(아.)

111070 #1 도망강 또 숨엇당 여기 저 뭐 헨 사람이 그 사람 저건 누게다. 이름 부르거든.(도망가서 또 숨었다가 여기 저 뭐 한 사람이 그 사람 저건 누구이다. 이름 부르거든.)

111070 @ 예.(예.)

111070 #1 그럼 그 사람은 죽는 거라.(그럼 그 사람은 죽는 거라.)

111069 @ 그럼 그 처음에 쓰는 깡통 잇잖아예.(그럼 그 처음에 쓰는 깡통 잇잖아요.)

111069 #1 어.(어.)

111069 @ 그건 그냥 길거리에 잇는 거로 헨마씨?(그건 그냥 길거리에 잇는 거로 했어요?)

111069 #1 어. 길거리에 잇는 지금 저 지금 같은 옛날도 잇었지만 그자 소리 나는 거면 돼여.(어. 길거리에 잇는 지금 저 지금 같은 옛날도 잇었지만 그저 소리 나는 거면 돼.)

111069 @ 아, 소리 나는 거면 뭐마씨?(아, 소리 나는 거면 되요?)

111069 #1 어.(어.)

뽕이치기

111072 @ 삼촌 뽕이치기¹⁴⁸도 알아마씨?(삼촌 ‘뽕이치기’도 알아요?)

111072 #1 어?(어?)

111072 @ 뽕이치기?(‘뽕이치기’?)

148) ‘뽕이치기’는 제주에서 아이들이 뽕이(빨기)를 가지고 즐겨하던 놀이를 말한다. 뽕이를 한 움큼 잡고 손목을 돌려 호뜨린다. 그러면 뽕이끼리 어울려 일정한 넓이의 발이 삼각형,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여기에 들어갈 만큼 뽕이를 집어서 밑부분으로 바닥에 닿게 하면 그만큼의 뽕이를 놀이 상대에게서 빼앗을 수 있다. 잘못하여 발을 이루고 있는 울타리를 건드리면 무효가 되거나 지게 되어 잡은 만큼의 빨기를 놀이 상대에게 주어야 한다.

111072 #1 어. 뽕이치기도 알아.(어. ‘뽕이치기’도 알아.)

111072 @ 그럼 뽕이치기는 뭐짱? 저도 이걸 처음 들어보는 건디.(그럼 ‘뽕이치기’는 무엇입니까? 저도 이걸 처음 들어보는 건데.)

111072 #1 뽕이?(뽕기?)

111072 @ 예.(예.)

111072 #1 뽕이치기가이.(‘뽕이치기’가.)

111072 @ 예.(예.)

111072 #1 지금 새 잇잖아.(지금 새 잇잖아.)

111072 @ 새?(새?)

111072 #1 새.(새.)

111072 @ 예.(예.)

111072 #1 새 요만씩 할 때 뽕이가 나온다.(새 요만씩 할 때 뽕기가 나온다.)

111072 @ 예.(예.)

111072 #1 뽕이가 나면이.(뽕기가 나면.)

111072 @ 예.(예.)

111072 #1 그걸 저 뭐 이제 거 먹음도 한다.(그걸 저 뭐 이제 거 먹음도 한다.)

111072 @ 예.(예.)

111072 #1 먹음도 허는디 그걸 뽑아다가 너 요만큼 줘 나 요만큼 뽕면은 뽕이가 네 개 놔. 네 개.(먹음도 하는데 그걸 뽑아다가 너 요만큼 줘서 나 요만큼 되면 뽕기가 네 개 놔. 네 개.)

111072 @ 네 개마씨?(네 개요?)

111072 #1 어. 네 개로 이렇게 뽕 돌리면은 구멍이 난다 말이야.(어. 네 개로 이렇게 뽕 돌리면 구멍이 난다 말이야.)

111072 @ 예.(예.)

111072 #1 구멍이 나면은 거기 요만허게 행 찌르면서 그걸 세어.(구멍이 나면 거기 요만허게 해서 찌르면서 그걸 세어.)

111072 @ 예.(예.)

111072 #1 그걸 세 가지고 열 개면 열 개. 다섯 개면 다섯 개. 너한테 강 받아온다 말이야. 내가. 그게 뽕이치기.(그걸 세 가지고 열 개면 열 개. 다섯 개면 다섯 개. 너한테 가서 받아온다 말이야. 내가. 그게 ‘뽕이치기’.)

111073 @ 그건 누가 이겼는지 어떻 알아마씨?(그건 누가 이겼는지 어떻게 알아요?)

111073 #1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뽕이치기하려면이.(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뽕이치기’하려면.)

111073 @ 예.(예.)

111073 #1 큰 뽕이 네 개, 네 개나 다섯 개 나오거든.(큰 뽕기 네 개, 네 개나 다섯 개 나오거든.)

111073 @ 예.(예.)

111073 #1 뽕이치기하면 너도 몇 개 가졌다. 나도 몇 개 가졌다 허고 그걸 따오는 거라.(‘뽕이치기’하면 너도 몇 개 가졌다. 나도 몇 개 가졌다 하고 그걸 따오는 거라.)

111073 @ 예.(예.)

111073 #1 이제 영 던지면 이렇게 집이 나오주게.(이제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집이 나오지.)

111073 @ 예.(예.)

111073 #1 경 해근영 요 선이랑 요 선을 건드리면 지는 거라. 그 선에 맞게끔 걸치지 않게끔 뽕이 영 허는 게 건드리면 못 따오는 거고 안 건드리면 숫자를 세어서 이제 열 개면 열 개 받아오는 게 뽕이치기. 그게 따오는 거라.(그렇게 해서 요 선이랑 요 선을 건드리면 지는 거라. 그 선에 맞게끔 걸치지 않게끔 뽕이 이렇게 하는 게 건드리면 못 따오는 거고 안 건드리면 숫자를 세어서 이제 열 개면 열 개 받아오는 게 ‘뽕이치기’. 그게 따오는 거라.)

고무줄놀이

111075 @ 그럼 삼촌 고무줄놀이는 안 해봤지예?(그럼 삼촌 고무줄놀이는 안 해 보셨지요?)

111075 #1 고무 고무줄놀이는 그건 여자가 허는 거니까 뭐.(고무 고무줄놀이는 그건 여자가 하는 거니까 뭐.)

111075 @ 예.(예.)

111075 #1 고무줄놀이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게 그거라.(고무줄놀이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게 그거라.)

줄넘기

111078 @ 줄넘기 해보셨마씨?(줄넘기 해보셨서요?)

111078 #1 줄넘기야게. 뭐 거야 아무나 허는 거니깐.(줄넘기야. 뭐 거야 아무나 하는 거니깐.)

111078 @ 아, 아무나 허는 거니까. 그럼 뭐 해 본 적 잇우광?(아, 아무나 하는 거니까. 그럼 뭐 해 본 적 있습니까?)

111078 #1 뭐?(뭐?)

111078 @ 줄넘기.(줄넘기.)

111078 #1 줄넘기야 뭐 거야 허주게.(줄넘기야 뭐 거야 하지.)

111078 @ 그럼 어떻 언제 헨마씨? 그건? 어렸을 때?(그럼 어떻게 언제 했어요? 그건? 어렸을 때?)

111078 #1 그거는 나 열 살 열 세 살 적에 많이 했었주.(그거는 나 열 살 열 세 살 적에 많이 했었지.)

그네뛰기

111080 @ 그네뛰기는 어떻 허는 거마씨?(그네뛰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11080 #1 그것도 여자가 허는 거니까 뭐.(그것도 여자가 하는 거니까 뭐.)

한다리인다리

111082 @ 삼촌 그럼 한다리인다리¹⁴⁹도 알아마씨?(삼촌 그럼 ‘한다리인다리’도 알아요?)

111082 #1 그럼 영 허는 게 한다리인다리주게.(그럼 이렇게 하는 게 ‘한다리인다리’지.)

111082 @ 그건 어떻 허는 거짱?(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111082 #1 그거?(그거?)

111082 @ 예.(예.)

111082 #1 영 허민 줌 이 한다리인다리 개천다리 이렇게 뭐허면.(이렇게 하면 줌 이 ‘한다리인다리’ 개천다리 이렇게 뭐하면.)

111082 @ 예.(예.)

111082 #1 그거 맞은 데는 지는 거라.(그거 맞은 데는 지는 거라.)

111082 @ 예.(예.)

111082 #1 정 해가지고 뭔가 내중에 간 사람은 진 사람이지. 내중에 하나라도 오그리지 못허민.(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나중에 간 사람은 진 사람이지. 나중에 하나라도 오그리지 못하면.)

111083 @ 한다리인다리할 때 뭐 노래는 보통 뭐 불런마씨?(‘한다리인다리’할 때 뭐 노래는 보통 뭐 불렀어요?)

111083 #1 그거 그거. 한다리인다리 개천다리 무신 다리 허멍 부르주게.(그거 그거. ‘한다리인다리’ 개천다리 무슨 다리 하면서 부르지.)

111084 @ 그건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거마씨?(그건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거예요?)

111084 #1 이 다리를 하나라도 남은 사람이 지는 거라.(이 다리를 하나라도 남은 사람이 지는 거라.)

111084 @ 하나라도 남은 사람이?(하나라도 남은 사람이?)

111084 #1 어.(어.)

149) ‘한다리인다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어린이들이 두 패로 나뉘어 다리를 세며 노는 놀이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한다리인다리는 어린이들의 놀이로서 적게는 4~5명에서부터 10여 명 이상까지 균중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놀이이다. 여럿이 한 자리에 모여서 두 패로 편을 가른 다음, 패끼리 마주보고 나란히 열을 지어 다리를 죽 펴고 늘어앉는다. 그런 다음 각자 맞은편에 앉은 아이와 한 다리씩 서로 엇바꾸어서 다리와 다리 사이에 끼운다. 한 편에서 한 사람씩 패장이 선정되어 어느 편이 먼저 시작하는가를 결정한 다음 다리를 세기 시작한다. 패장이 손바닥으로 다리의 무릎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차례차례로 세어나간다. 이 때 무릎에 손을 댈 때마다 “한다리인다리”로 시작하는 노래를 부른다.

111084 @ 노래 다 끝났을 때?(노래 다 끝났을 때?)

111084 #1 어. 이렇게 두 개로 영 허면은 네 개 아니냐.(어.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하면 네 개 아니냐.)

111084 @ 예.(예.)

111084 #1 한다리인다리 무슨 다리 이렇게 허영 뭐가 이거 하나라도 남은 사람은 지는 거라.(‘한다리인다리’ 무슨 다리 이렇게 해서 뭐가 이거 하나라도 남은 사람은 지는 거라.)

12. 통과의례

출생

112001 @ 삼촌 그 삼촌 자녀분들 그 할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교는 어떻 헨마씨? 옛날에 태교는 어떻 헨마씨?(삼촌 그 삼촌 자녀분들 그 할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교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태교는 어떻게 했어요?)

112001 #1 태교엔 헨 거 봇 아니냐. 봇.(태교라고 한 거 태 아니냐. 태.)

112001 @ 예.(예.)

112001 #1 애기 봇.(애기 태.)

112001 @ 애기 봇.(애기 태.)

112001 #1 애기 나오는 봇.(애기 나오는 태.)

112001 @ 예.(예.)

112001 #1 그거야 슬아버렸지 뭐.(그거야 살라버렸지 뭐.)

112001 @ 음.(음.)

112001 #1 옛날엔 슬았어.(옛날엔 살랐어.)

112002 @ 그럼 출산 준비하잖아예.(그럼 출산 준비하잖아요.)

112002 #1 어.(어.)

112002 @ 이제 애기가 나올 때.(이제 애기가 나올 때.)

112002 #1 어.(어.)

112002 @ 그럼 출산 준비는 어떻게 하고, 어디서 보통 출산하셨마씨?(그럼 출산 준비는 어떻게 하고, 어디서 보통 출산하셨어요?)

112002 #1 애기들 옛날은.(애기들 옛날은.)

112002 @ 예.(예.)

112002 #1 옛날은 지금 이 병원 같은데 엇거든.(옛날은 지금 이 병원 같은데 없거든.)

112002 @ 예.(예.)

112002 #1 애기를 열두 달 벤 다음에는 날 고비를 안 단 말이여. 나게 뒤편은 이런 방에 뭘 꿰우냐. 보릿대.(애기를 열두 달 벤 다음에는 날 고비를 안 단 말이 이런 방에 뭘 꿰우냐. 보릿대.)

야. 나게 되면 이런 방에 뭘 퍼냐. 보릿대.)
 112002 @ 보릿대.(보릿대.)
 112002 #1 보릿낭.(보릿짚.)
 112002 @ 예.(예.)
 112002 #1 그걸 폐와서 그 애기 날 때는 거기서 애기를 나는 거주게.(그걸 퍼서 그 애기 날 때는 거기서 애기를 나는 거지.)
 112003 @ 아, 그럼 누가 도와줘마씨?(아, 그럼 누가 도와줘요?)
 112003 #1 거기 있는 여자가 애기 내와 주는 사람이 있어. 동네에 하나씩.(거기 있는 여자가 애기 나오게 하는 사람이 있어. 동네에 하나씩.)
 112003 @ 아, 그 분은 뭐라고 애기 안해마씨?(아, 그 분은 뭐라고 애기 안해요?)
 112003 #1 뭐라고 애기 안 하여.(뭐라고 애기 안 해.)
 112003 @ 아.(아.)
 112003 #1 시간 봐가지고 애기를 보면서 나올 고비가 뉘면은 그 할망이 쓸어주면서 애기를 받게끔 만들어 주주게.(시간 봐가지고 애기를 보면서 나올 고비가 되면 그 할머니가 쓸어주면서 애기를 받게끔 만들어 주지.)
 112003 @ 아기 나오면.(아기 나오면.)
 112003 #1 어.(어.)
 112003 @ 태와 탯줄 나오잖아예?(태와 탯줄 나오잖아요?)
 112003 #1 어.(어.)
 112003 @ 그럼 태와 탯줄은 어떻게 처리해마씨?(그럼 태와 탯줄은 어떻게 처리해요?)
 112003 #1 태와 탯줄은 슬아붙어. 나 곧지 안했냐 일찍이. 그 불태와붙어.(태와 탯줄은 살라버려. 나 말하지 안했냐 일찍이. 그 불태워버려.)
 112003 @ 아.(아.)
 112003 #1 그게 약으로도 들어가.(그게 약으로도 들어가.)
 112003 @ 예.(예.)
 112003 #1 약이 뒤에 들어가냐. 폐병에.(약이 뒤에 들어가냐. 폐병에.)
 112003 @ 폐병.(폐병.)
 112003 #1 어. 폐병에 약으로 들어가는데 XX는 그거까지는 엇엇어.(어. 폐병에 약으로 들어가는데 XX는 그거까지는 없엇어.)
 112003 @ 삼촌 그럼 삼촌 자녀분들 나왔을 때 태와 탯줄 삼촌이 이렇게 자르고 하션마씨?(삼촌 그럼 삼촌 자녀분들 나왔을 때 태와 탯줄 삼촌이 이렇게 자르고 하셨어요?)
 112003 #1 그거 남자 안 잘라.(그거 남자 안 잘라.)
 112003 @ 아, 남자 안 잘라마씨?(아, 남자 안 잘라요?)
 112003 #1 애기 내와 주러 온 할망이 잘라가지고.(애기 나오게 하러 온 할망이

잘라가지고.)

112003 @ 예.(예.)

112003 #1 실로 해가지고 묶을만이 묶어.(실로 해가지고 묶을만이 묶어.)

112003 @ 예.(예.)

112003 #1 실.(실.)

112003 @ 예.(예.)

112003 #1 실이라는 거 모르지?(실이라는 거 모르지?)

112003 @ 예.(예.)

112003 #1 요 옷 허는 실.(요 옷 하는 실.)

112003 @ 아, 실? 그냥 실마씨?(아, 실? 그냥 실이요?)

112003 #1 어. 그걸로 해근앵 묶어.(어. 그걸로 해서 묶어.)

112003 @ 예.(예.)

112003 #1 묶엉 그냥 톱 그 위에 놓주게.(묶어서 그냥 톱 그 위에 놓지.)

112004 @ 그럼 그 산모 잇잖아예?(그럼 그 산모 잇잖아요?)

112004 #1 어.(어.)

112004 @ 산모 음식 보통 뭐 먹연마씨? 이렇게 딱 애 나온 다음에는?(산모 음식 보통 뭐 먹였어요? 이렇게 딱 애 나온 다음에는?)

112004 #1 산모?(산모?)

112004 @ 예.(예.)

112004 #1 미역국.(미역국.)

112004 @ 아, 미역국.(아, 미역국.)

112004 #1 어.(어.)

112004 @ 그 다음에 또 엇우광?(그 다음에 또 없습니까?)

112004 #1 어?(어?)

112004 @ 미역국 말고 또 다른 거 먹이는 거 엇우광?(미역국 말고 또 다른 거 먹이는 거 없습니까?)

112004 #1 지금도 그렇지만은.(지금도 그렇지만은.)

112004 @ 예.(예.)

112004 #1 그전에도 미역국이었어. 다른 국은 안 해줘.(그전에도 미역국이었어. 다른 국은 안 해줘.)

112004 @ 다른 국은 안 해줘.(다른 국은 안 해줘.)

112004 #1 미역국을 왜 해주냐면 미역국을 먹으면은 것이 빨리 나와 가지고 아기 젖 물기 좋다고 해서 미역국을 먹였주게.(미역국을 왜 해주냐면 미역국을 먹으면 것이 빨리 나와 가지고 아기 젖 물기 좋다고 해서 미역국을 먹였지.)

112005 @ 그럼 아기 나오잖아예?(그럼 아기 나오잖아요?)

112005 #1 어.(어.)

112005 @ 바로 목욕시켜마씨? 목욕은 언제 헨마씨?(바로 목욕시켜요? 목욕은

언제 했어요?)

112005 #1 모욕?(모욕?)

112005 @ 예.(예.)

112005 #1 모욕시키주게.(모욕시키지.)

112005 @ 예.(예.)

112005 #1 모욕시켜야 저 뺏이 허주게. 영 그 산모 아기 나와 주는 할망이 이렇게 이 발만 두 개만 들렁 영 들렁 잠지를 때려.(모욕시켜야 저 뺏이 하지. 이렇게 그 산모 아기 나오게 하는 할머니가 이렇게 이 발만 두 개만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볼기를 때려.)

112005 @ 예.(예.)

112005 #1 착착하게. 잘 나왔저. 예 이놈의 새끼 잘 나왔구나 해근앵 저기 그런 말을 허주게.(착착하게. 잘 나왔저. 예 이놈의 새끼 잘 나왔구나 해서 저기 그런 말을 하지.)

112005 @ 음.(음.)

112005 #1 경 해근앵 거기서 뜨신 물 해근앵 쑥.(그렇게 해서 거기서 따뜻한 물 해서 쑥.)

112005 @ 쑥?(쑥?)

112005 #1 쑥을 삶양.(쑥을 삶아서.)

112005 @ 예.(예.)

112005 #1 그 물에서 저 애기를 그 몸을 감겨.(그 물에서 저 애기를 그 몸을 감겨.)

112006 @ 삼촌 깃저고리 아는 거 잊이든 말해 줘서.(삼촌 깃저고리 아는 거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112006 #1 어?(어?)

112006 @ 깃저고리가 뭐팡? 깃저고리.(깃저고리가 무엇입니까? 깃저고리.)

112006 #1 깃저고리엔 흔 게 애기 갓 낳양 모욕허영 입히는 게 깃저고리주게.(깃저고리라고 한 게 애기 갓 낳아서 모욕하고 입히는 게 깃저고리지.)

112006 @ 그건 어떻 준비헤마씨? 어떻. 만들어마씨?(그건 어떻게 준비해요? 어떻게. 만들어요?)

112006 #1 만들야.(만들어.)

112006 @ 음.(음.)

112006 #1 집에서 애기 낳으면 애기 어명이 만드나 누가 만드나 만들어가지고. 그 애기 초담 애기 옷은 손 나오게 안 허여.(집에서 애기 낳으면 애기 엄마가 만드나 누가 만드나 만들어가지고. 그 애기 처음 애기 옷은 손 나오게 안 해.)

112006 @ 예.(예.)

112006 #1 손이 이렇게 이게 손 같으면 이렇게 허면 쓸주게.(손이 이렇게 이게 손 같으면 이렇게 하면 쓸지.)

112006 @ 예.(예.)

112006 #1 왜 그러냐면 얘기가 이렇게 허다가 손으로 긁혀버린다고.(왜 그러냐면 얘기가 이렇게 허다가 손으로 긁혀버린다고.)

112006 @ 예.(예.)

112006 #1 옛날에 이렇게 웬 거 이 얼굴 잘못하면 긁혀버린다고 헤가지고 손을 이렇게 길게 만들주게.(옛날에 이렇게 된 거 이 얼굴 잘못하면 긁혀버린다고 헤가지고 손을 이렇게 길게 만들지.)

112006 @ 아. 그럼 깃저고리는 그 뭐 무명으로 만들었수광?(아. 그럼 깃저고리는 그 뭐 무명으로 만들었습니까?)

112006 #1 무명.(무명.)

112006 @ 음.(음.)

112006 #1 그 저. 베, 베.(그 저. 베, 베.)

112006 @ 아, 베.(아, 베.)

112006 #1 어. 베는 왜 베로 만드냐 허면.(어. 베는 왜 베로 만드냐 하면.)

112006 @ 예.(예.)

112006 #1 나쁜 때가 모욕을 시켜도 베에 그 베가 좀 때를 벗겨준다고.(나쁜 때가 목욕을 시켜도 베에 그 베가 좀 때를 벗겨준다고.)

112006 @ 예.(예.)

112006 #1 그래가지고 그걸 베로 그걸로 만들주게.(그래가지고 그걸 베로 그걸로 만들지.)

112007 @ 할망상¹⁵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줘서.(‘할망상’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112007 #1 어.(어.)

112007 @ 할망상은 뭐짱?(‘할망상’은 무엇입니까?)

112007 #1 할망상?(‘할망상’?)

112007 @ 예.(예.)

112007 #1 얘기가 놀다가이.(얘기가 놀다가.)

112007 @ 예.(예.)

112007 #1 어디 박거나.(어디 박거나.)

112007 @ 예.(예.)

112007 #1 또 뭐 헐 적이 녀 날 적이. 녀 녀이라고 하여 옛날은이.(또 뭐 할 적에 녀 날 적에. 녀 녀이라고 해. 옛날은.)

112007 @ 예.(예.)

112007 #1 녀 나면은 얘기 밤에 곶은데 자꾸 울거든. 울고 딱 자다가 주왓주왓 허거든. 이렇게 이렇게 우리 꿈 뵈 경 허듯이.(녀 나가면 얘기 밤에 곶은데 자꾸 울

150) ‘할망상’은 아기를 분만한 다음 아기의 생육(生育)을 관장한다는 삼승할망에게 감사하고 기원하는 뜻으로 메와 실, 돈 따위를 놓는 상을 말하는 제주어이다.

거든. 울고 딱 자다가 기웃기웃 하거든. 이렇게 이렇게 우리 꿈 봐서 그렇게 하듯이.)

112007 @ 예.(예.)

112007 #1 경 허면은 아 이거 녀 낫구나. 녀 낫구나. 해가지고 동네 허는 사람이 있어.(그렇게 하면 아 이거 녀 낫구나. 녀 낫구나. 해가지고 동네 하는 사람이 있어.)

112007 @ 예.(예.)

112007 #1 계면 그 할망 그 하르방 데려다가 저 문전 앞에이. 저 우리 들어오는 대문 앞에 들어오는데 거기 쌀 놓고 밥 밥 허여가지고 한 그릇 놓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심방 할망 할망이나 하르방이나 거기서 뭐랜 곧주게.(그러면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 데려다가 저 문전 앞에. 저 우리 들어오는 대문 앞에 들어오는데 거기 쌀 놓고 밥 밥 해가지고 한 그릇 놓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무당 할머니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거기서 뭐라고 말하지.)

112007 @ 그럼 할망상은 어떤 거 말하는 거마씨?(그럼 '할망상'은 어떤 거 말하는 거예요?)

112007 #1 상으로. 상 우에다가 차리는 거. 제사 우리 제사허듯이.(상으로. 상 위에다가 차리는 거. 제사 우리 제사하듯이.)

112007 @ 예.(예.)

112007 #1 그와 같이 할망상을 차리는 거주게. 할망상 놓는다는 게.(그와 같이 '할망상'을 차리는 거지. '할망상' 놓는다는 게.)

112009 @ 아기 낳으면예? 그 천연두나 홍역 잇잖아예?(아기 낳으면요? 그 천연두나 홍역 잇잖아요?)

112009 #1 어.(어.)

112009 @ 그거 예방 접종 해야 되잖아예?(그거 예방 접종 해야 되잖아요?)

112009 #1 어.(어.)

112009 @ 옛날에는 주사 같은 거 없었잖아예?(옛날에는 주사 같은 거 없었잖아요?)

112009 #1 어.(어.)

112009 @ 주사 없었을 때는 어떻 헛수광?(주사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112009 #1 헛 수 엇어. 막지 못해 그건.(할 수 없어. 막지 못해 그건.)

112009 @ 아.(아.)

112009 #1 그건 옛날은 작은 구실 큰 구실이 잇주게.(그간 옛날은 작은 귀신 큰 귀신이 있지.)

112009 @ 음.(음.)

112009 #1 구실이엔 해 그거 보고.(귀신이라고 해 그거 보고.)

112009 @ 음.(음.)

112009 #1 뭔가 큰 구실 들어왓찌 허민 애 움직거리지 못 허여. 하간 몸이 막 힘들주게. 거 두드러기 허물 곶이 막 나주게.(뭔가 큰 귀신 들어온다 하면 애 움직거리지 못 해. 여러가지 몸이 막 힘들지. 거 두드러기 허물 곶이 막 나지.)

112009 @ 예.(예.)

112009 #1 계난 담배도 그 앞에서는 못 피우고.(그러니까 담배도 그 앞에서는 못 피우고.)

112009 @ 예.(예.)

112009 #1 아무 것도 술도 못 먹고. 그 애기 잇는디 그거 우리가 옛날은이 그 사람이 그 할망이 저 애기 키우는 할망이 저싱할망이라 저싱할망.(아무 것도 술도 못 먹고. 그 애기 잇는데 그거 우리가 옛날은 그 사람이 그 할머니가 저 애기 키우는 할머니가 ‘저승할망’이라. ‘저승할망’.)

112009 @ 예.(예.)

112009 #1 그 할망이 지켜주는 할망이 둘이거든?(그 할머니가 지켜주는 할머니가 둘이거든?)

112009 @ 예.(예.)

112009 #1 이싱할망. 저싱할망.(‘이싱할망’. ‘저싱할망’.)

112009 @ 예.(예.)

112009 #1 저싱할망한테 이싱할망이 빌어 잘 키워주라고 애기 돌아가지 못허게끔 애기 죽이지 못허게끔 허려고이.(‘저싱할망’한테 ‘이싱할망’이 빌어. 잘 키워주라고 애기 데려가지 못허게끔 애기 죽이지 못허게끔 하려고.)

112009 @ 예.(예.)

112009 #1 죽영 돌아가불주게 저싱사자들이.(죽여서 데려가버리지. 저싱사자들이.)

112009 @ 예.(예.)

112009 #1 계니간 경 허지 못허게 비는 거주게.(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허게 비는 거지.)

112009 @ 만약에 나면 뭐 흠을 바른다거나. 그런 건?(만약에 나면 뭐 흠을 바른다거나. 그런 건?)

112009 #1 아니 못 발라.(아니 못 발라.)

112009 @ 아.(아.)

112009 #1 ㄱ만이 내불어야 돼.(가만히 내버려야 돼.)

112009 @ 아 가만히 내버려야 돼마씨?(아 가만히 내버려야 돼요?)

112009 #1 어. 가만히 내버려야 그게 깨끗이 벗어 들어가지.(어. 가만히 내버려야 그게 깨끗이 벗어 들어가지.)

112009 @ 예.(예.)

112009 #1 잘못 허다가 입도 자울아지고.(잘못 하다가 입도 가울어지고.)

112009 @ 음.(음.)

112009 #1 막 입에 열근 너 입 열든 너 열든 사람 모르지?(막 입에 고달픈 너 입 고달픈 너 고달픈 사람 모르지?)

112009 @ 예.(예.)

112009 #1 이 얼굴 같은디 막 저 잘못하면 얼굴이 별장게 돼거든.(이 얼굴 같은데 막 저 잘못하면 얼굴이 별장게 되거든.)

112010 @ 그럼 그 이제 출산하잖아예?(그럼 그 이제 출산하잖아요?)

112010 #1 어.(어.)

112010 @ 애가 나오기 전에 막 허지 말아야 되는 것들 그런 거 잇수광?(애가 나오기 전에 막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그런 거 있습니까?)

112010 #1 흐지 말아야 되는 거?(하지 말아야 되는 거?)

112010 @ 예. 금기사항 같은 거. 그런 거마씨.(예. 금기사항 같은 거. 그런 거요.)

112010 #1 금기 허는 건 엇인디.(금기 하는 건 없는데.)

112010 @ 예.(예.)

112010 #1 애기 나게 애기 나오게 돼면은 밧에 이제 집에 숯 잇잖아.(애기 나게 애기 나오게 되면 밧에 이제 집에 숯 잇잖아.)

112010 @ 예.(예.)

112010 #1 숯뚜껑 물항 옛날은 물항이라고 헛거든.(숯뚜껑 물독 옛날은 물독이라고 헛거든.)

112010 @ 예.(예.)

112010 #1 물항 뚜껑 전부 열어불어.(물독 뚜껑 전부 열어버려.)

112010 @ 아, 전부 열어불어마씨? 무사마씨?(아, 전부 열어버려요? 왜요?)

112010 #1 어. 전부 여는데 왜 그러냐하면 여자 하문이 잘 열리지라고.(어. 전부 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자 하문이 잘 열리지라고.)

112010 @ 아.(아.)

112010 #1 그 그래가지고 열어 열주게.(그 그래가지고 열어 열지.)

112010 @ 아, 뭐 안 되는 거나 허지 말아야 하는 거보다는 그냥 물항 뚜껑을? (아, 뭐 안 되는 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거보다는 그냥 물독 뚜껑을?)

112010 #1 어. 아무 말도 허지 말고 아기 날 때 아무 말도 허지 말고 그자 난 후에는 그 애기 받은 할망이 알아서 잠지패기 두 번인가 세 번 때려가지고 잘났다 해가지고 뭐 헝 곤주게.(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기 날 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자 난 후에는 그 애기 받은 할머니가 알아서 볼기 두 번인가 세 번 때려가지고 잘났다 해가지고 뭐 해서 말하지.)

112010 @ 음.(음.)

112010 #1 그것백엔 엇어.(그것밖에는 없어.)

112010 @ 예.(예.)

혼례

112011 @ 삼촌 그럼 이제 다른 거 물어보려고 하는데예.(삼촌 그럼 이제 다른 거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112011 #1 어.(어.)

112011 @ 그 결혼식 허는 거.(그 결혼식 하는 거.)

112011 #1 어.(어.)

112011 @ 옛날에는 결혼식 절차가 어떻 돼마씨? 요즘이랑 좀 다르잖아예.(옛날에는 결혼식 절차가 어떻게 돼요? 요즘이랑 좀 다르잖아요.)

112011 #1 어.(어.)

112011 @ 옛날에 결혼식 하면 시작부터 절차가 어떻 돼마씨? 요즘에는 어 뭐 신랑 들어온 다음에 신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주례하고 노래 하잖아예. 요즘에는.(옛날에 결혼식 하면 시작부터 절차가 어떻게 되요? 요즘에는 어 뭐 신랑 들어온 다음에 신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주례하고 노래 하잖아요. 요즘에는.)

112011 #1 어.(어.)

112011 @ 그럼 옛날에는 어떻 헨마씨?(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112011 #1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엇비슷허여.(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엇비슷해.)

112011 @ 엇비슷해마씨?(엇비슷해요?)

112011 #1 말만 다를 뿐이지.(말만 다를 뿐이지.)

112011 @ 예.(예.)

112011 #1 초담 만약에 누가 여자고 나가 남자면.(처음 만약에 네가 여자고 내가 남자면.)

112011 @ 예.(예.)

112011 #1 여기서 중매를 들어가.(여기서 중매를 들어가.)

112011 @ 예.(예.)

112011 #1 중매 들어강 허락을 받아.(중매 들어가서 허락을 받아.)

112011 @ 예.(예.)

112011 #1 허락을 받으면은 신랑 집에서 언제 가겠다고 날짜를 보내줘.(허락을 받으면 신랑 집에서 언제 가겠다고 날짜를 보내줘.)

112011 @ 예.(예.)

112011 #1 계면 약혼식이나 마찬가지로였어. 그게.(그러면 약혼식이나 마찬가지로였어. 그게.)

112011 @ 그 중매가 약혼식이랑 마찬가지로마씨?(그 중매가 약혼식이랑 마찬가지로예요?)

112011 #1 어. 중매 온 사람이 이제 그 들어강 연세 가져와 연세.(어. 중매 온 사람이 이제 그 들어가서 연세 가져와 연세.)

112011 @ 연세?(연세?)

112011 #1 나이.(나이.)

112011 @ 아. 나이.(아. 나이.)

112011 #1 나이를 가져왕 이제 그걸 해서 그걸 가져오면은 그걸로 끝났다가 이제 날짜를 알려줘 결혼 날짜를. 결혼 날짜를 뭐 어느 날 어느 때 결혼 날짜 낫다고 허민 그날 결혼시키는 거주게.(나이를 가져와서 이제 그걸 해서 그걸 가져오면 그걸로 끝났다가 이제 날짜를 알려줘 결혼 날짜를. 결혼 날짜를 뭐 어느 날 어느 때 결혼 날짜 낫다고 하면 그날 결혼시키는 거지.)

112011 @ 그럼 결혼식 할 때는 뭐 엇수광? 식 할 때 어떻게 순서가.(그럼 결혼식 할 때는 뭐 없습니까? 식 할 때 어떻게 순서가.)

112011 #1 순서가?(순서가?)

112011 @ 예. 식 할 때?(예. 식 할 때?)

112011 #1 여자는 저 멘사포 쓰고.(여자는 저 면사포 쓰고.)

112011 @ 예.(예.)

112011 #1 그전에 그걸 보고 멘사포라고 했어.(그전에 그걸 보고 면사포라고 했어.)

112011 @ 아.(아.)

112011 #1 남자는 족두리 쓰고.(남자는 족두리 쓰고.)

112011 @ 족두리 쓰고.(족두리 쓰고.)

112011 #1 어. 게고 저 오면은 서로 절도 하고 상도 놓고 그렇게 헤여.(어. 그리고 저 오면 서로 절도 하고 상도 놓고 그렇게 해.)

112012 @ 그럼 옛날에는 보통 중매 누가 헨마씨?(그럼 옛날에는 보통 중매 누가 했어요?)

112012 #1 동네에서 그 집에 친한 사람.(동네에서 그 집에 친한 사람.)

112012 @ 친한 사람마씨?(친한 사람이요?)

112012 #1 어. 만약에 남자 집에서 중매 들어가면.(어. 만약에 남자 집에서 중매 들어가면.)

112012 @ 예.(예.)

112012 #1 남자 집에서 그 집에 친한 사람을 뽑고 동네 또 약간 뭐 잘 알고 조금 똑똑한 사람이 허주게.(남자 집에서 그 집에 친한 사람을 뽑고 동네 또 약간 뭐 잘 알고 조금 똑똑한 사람이 하지.)

112012 @ 그럼 그 삼촌 중매한 얘기 좀 헤 줍서.(그럼 그 삼촌 중매한 얘기 좀 헤 주십시오.)

112012 #1 중매허민 곤는 말이 잇주게. 중매를 하게 되면은 마 동네서 반장이나 아는 사람 친구 집이나 그 집에서 잘 아는 사람이 이젠 내가 저 집에 장게가고 싶으니까 가서 중매를 헤 줍서. 부탁허면은 그 사람이 가서 되면 된다. 아니 되면 아니 된다 해서 거기서 확정이 나오주게.(중매하면 말하는 말이 있지. 중매를 하게 되면 마 동네서 반장이나 아는 사람 친구 집이나 그 집에서 잘 아는 사람이 이젠 내

가 저 집에 장가가고 싶으니까 가서 중매를 해 주십시오. 부탁하면 그 사람이 가서 되면 된다. 아니 되면 아니 된다 해서 거기서 확정이 나오지.)

112013 @ 그림 막펜지¹⁵¹)에 대해서 얘기해 줘서.(그럼 ‘막펜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112013 #1 막펜지가 그거주게.(‘막펜지’가 그거지.)

112013 @ 막펜지에 대해서 아는 거 있어마씨?(‘막펜지’에 대해서 아는 거 있어요?)

112013 #1 막펜지가 그거주게. 막펜지엔 헛 게.(‘막펜지’가 그거지. ‘막펜지’라고 한 게.)

112013 @ 예.(예.)

112013 #1 그 봉투에.(그 봉투에.)

112013 @ 예.(예.)

112013 #1 이만한 봉투에 날짜 적고.(이만한 봉투에 날짜 적고.)

112013 @ 예.(예.)

112013 #1 결혼 날짜 적고 봉투에 그 날짜 시고.(결혼 날짜 적고 봉투에 그 날짜 쓰고.)

112013 @ 음.(음.)

112013 #1 돈 놓고.(돈 놓고.)

112013 @ 예.(예.)

112013 #1 돈 뭐 그 전에 어려우니까 이제 같으면 십만 원이나 이십만 원이나 돈 놓고 새각시 가져가.(돈 뭐 그 전에 어려우니까 이제 같으면 십만 원이나 이십만 원이나 돈 놓고 새각시 가져가.)

112013 @ 아, 남자가 여자네 집에마씨?(아, 남자가 여자네 집예요?)

112013 #1 어. 그게 막펜지야.(어. 그게 ‘막펜지’야.)

112013 @ 경 행 그건 누구한테 주는 거마씨?(그렇게 해서 그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112013 #1 그게?(그게?)

112013 @ 예.(예.)

112013 #1 그 신랑 저 신부 아방한테.(그 신랑 저 신부 아버지한테.)

112013 @ 아 신랑이 신부 아방한테 주는 거마씨?(아 신랑이 신부 아버지한테 주는 거예요?)

112013 #1 아니, 신랑 신부 아방한테 신랑 아방이.(아니, 신랑 신부 아버지한테 신랑 아버지가.)

112013 @ 아. 신랑 아방이?(아. 신랑 아버지가?)

112013 #1 신랑 아방이 신부 아방한테 주는 거.(신랑 아버지가 신부 아버지한테

151) ‘막펜지’는 혼인하기 전에 신랑 쪽에서 정식으로 신부의 집을 찾아 갈 때 가지고 가는 의례적인 문서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주는 거.)

112014 @ 그럼 삼촌 이바지는 뭐짱? 이바지?(그럼 삼촌 이바지는 무엇입니까?
이바지?)

112014 #1 이바지?(이바지?)

112014 @ 예.(예.)

112014 #1 이제 결혼해서 그 때이.(이제 결혼해서 그 때.)

112014 @ 예.(예.)

112014 #1 거 우리 내가 남자 집에서.(거 우리 내가 남자 집에서.)

112014 @ 예.(예.)

112014 #1 거 처갓집에 갈 거 아니냐?(거 처갓집에 갈 거 아니냐?)

112014 @ 예.(예.)

112014 #1 처갓집에 갈 적에는 음식을.(처갓집에 갈 적에는 음식을.)

112014 @ 예.(예.)

112014 #1 거 음식을 음식을 새로 딱 해 놓았다가.(거 음식을 음식을 새로 딱
해 놓았다가.)

112014 @ 예.(예.)

112014 #1 그걸 가지고.(그걸 가지고.)

112014 @ 예.(예.)

112014 #1 그 때는 술 한 뿔 술 귀허니까 술 한 뿔이. 그냥 땃병 큰 거 하나 하
고.(그 때는 술 한 뿔 술 귀하니까 술 한 뿔. 그냥 땃병 큰 거 하나 하고.)

112014 @ 예.(예.)

112014 #1 도새기 다리 앞다리.(돼지 다리 앞다리.)

112014 @ 예.(예.)

112014 #1 다른 다리도 아니야. 도새기 앞다리 하나 놓고 해근엥 이바지를 그거
가져갓주게.(다른 다리도 아니야. 도새기 앞다리 하나 놓고 해서 이바지를 그거 가
져갓지.)

112014 @ 그럼 이바지 음식에는 그런 거에 아까 앞다리랑.(그럼 이바지 음식에
는 그런 거에 아까 앞다리랑.)

112014 #1 어.(어.)

112014 @ 그 다음에는 술 땃병이랑.(그 다음에는 술 땃병이랑.)

112014 #1 어.(어.)

112014 @ 또 그 다음에 술이나 음식 뭐 더 있지 않아마씨?(또 그 다음에 술이
나 음식 뭐 더 있지 않아요?)

112014 #1 뭐 그날 저 먹어난 거뵈기는 뭐 엇어.(뭐 그날 저 먹어난 거뵈에는
뭐 없어.)

112014 @ 아, 뭐 엇어마씨?(아, 뭐 없어요?)

112014 #1 뭐 옛날에 그렇게 많았나게.(뭐 옛날에 그렇게 많았나.)

112014 @ 아.(아.)
112014 #1 쓸 한 물.(쌀 한 말.)
112014 @ 쌀 한 말?(쌀 한 말?)
112014 #1 어. 그게 그건 밥 해 먹을 거로.(어. 그게 그건 밥 해 먹을 거로.)
112015 @ 그럼 남자가 여자 쪽에 이바지 허는 거고.(그럼 남자가 여자 쪽에 이바지 하는 거고.)
112015 #1 어.(어.)
112015 @ 여자가 남자 쪽에 혼수 해 가잖아예?(여자가 남자 쪽에 혼수 해 가잖아요?)
112015 #1 어.(어.)
112015 @ 혼수는 뭐, 뭐 보통 준비해 간마씨?(혼수는 뭐, 뭐 보통 준비해 갔어요?)
112015 # 1 그 집에이.(그 집에.)
112015 @ 예.(예.)
112015 #1 아버지 옷, 어머니 옷 게고 동기간 옷.(아버지 옷, 어머니 옷 그리고 동기간 옷.)
112015 @ 예.(예.)
112015 #1 그거 해 가주게.(그거 해 가지.)
112015 @ 음.(음.)
112015 #1 그게 해 가는 게 뭐주게. 이 이불 같은 것도. 그거 같은 거야 뻔히 아는 거니까.(그게 해 가는 게 뭐지. 이 이불 같은 것도. 그거 같은 거야 뻔히 아는 거니까.)
112015 @ 예.(예.)
112016 @ 그럼 삼촌 예장 알아마씨? 예장?(그럼 삼촌 예장 알아요? 예장?)
112016 #1 예장?(예장?)
112016 @ 예. 예장이 뭐팡?(예. 예정이 무엇입니까?)
112016 #1 예장이?(예장이?)
112016 @ 예.(예.)
112016 #1 저 예정이엔 현 게.(저 예장이라고 한 게.)
112016 @ 예.(예.)
112016 #1 그 서로 초담 가져올 때.(그 서로 처음 가져올 때.)
112016 @ 예.(예.)
112016 #1 좋으냐 곳으냐 그걸 적어가지고 보내는 게 예장이주게.(좋으냐 곳으냐 그걸 적어가지고 보내는 게 예장이지.)
112016 @ 아 뭐가 좋아마씨? 사주 말하는 거마씨?(아 뭐가 좋아요? 사주 말하는 거예요?)
112016 #1 사주. 사주. 사주가 좋은지 곳은지 적어서 보내는 거주게.(사주. 사주.

사주가 좋은지 궂은지 적어서 보내는 거지.)

112017 @ 그럼 가문잔치도 알아마씨? 삼촌? 가문잔치마씨.(그럼 가문잔치도 알아요? 삼촌? 가문잔치요.)

112017 #1 가문잔치는 잔치 전날.(가문잔치는 잔치 전날.)

112017 @ 예. 잔치 전날?(예. 잔치 전날?)

112017 #1 어.(어.)

112017 @ 결혼식 전날마씨?(결혼식 전날이요?)

112017 #1 어.(어.)

112017 @ 그럼 보통 누가 누가 참석하고 음식은 누가 준비하고?(그럼 보통 누가누가 참석하고 음식은 누가 준비하고?)

112017 #1 가문잔치에는 권당만.(가문잔치에는 권당만.)

112017 @ 아, 권당만마씨?(아, 권당만요?)

112017 #1 어. 친족들만.(어. 친족들만.)

112017 @ 그럼 한 번 얘기해 줘서. 가문잔치 가본 경험 있지 않아마씨? 아니면 삼촌도 가문잔치 하지 않았마씨?(그럼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가문잔치 가본 경험 있지 않아요? 아니면 삼촌도 가문잔치 하지 않았어요?)

112017 #1 어.(어.)

112017 @ 그럼 그거 얘기 좀 해 줘서. 뭐 어느 정도 사람들 오고 또 음식은 뭐, 뭐 준비했고 이런 거마씨.(그럼 그거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뭐 어느 정도 사람들 오고 또 음식은 뭐, 뭐 준비했고 이런 거요.)

112017 #1 그러니까 뒷날 잔치니까.(그러니까 뒷날 잔치니까.)

112017 @ 예.(예.)

112017 #1 집에서 음식 저 음식 먹을 걸.(집에서 음식 저 음식 먹을 걸.)

112017 @ 예.(예.)

112017 #1 신랑 집에서. 그 다 만든다 말이여.(신랑 집에서. 그 다 만든다 말이야.)

112017 @ 예.(예.)

112017 #1 다 만들어가지고 뒷날도 먹곡 가문잔치 날도 먹곡 할 걸로 해가지고 그 때는 친족들, 친족들 모여가지고.(다 만들어가지고 뒷날도 먹고 가문잔치 날도 먹고 할 걸로 해가지고 그 때는 친족들, 친족들 모여가지고.)

112017 @ 예.(예.)

112017 #1 밥 먹는 게 가문잔치주게.(밥 먹는 게 가문잔치이지.)

112017 @ 아. 그럼 가문잔치 때도 부조 해마씨?(아. 그럼 가문잔치 때도 부조해요?)

112017 #1 안 하여. 잔치 때밖에.(안 해. 잔치 때밖에.)

112017 @ 아. 잔치 때밖에.(아. 잔치 때밖에.)

112017 #1 어.(어.)

112018 @ 그럼 우시 알지예 삼촌?(그럼 위요 알지요 삼촌?)
 112018 #1 우시.(위요.)
 112018 @ 우시는 우시에 대해 좀 얘기해 줘서. 우시는 뭐짱?(위요는 위요에 대해 좀 얘기해 주십시오. 위요는 무엇입니까?)
 112018 #1 우시?(위요?)
 112018 @ 예.(예.)
 112018 #1 우시는이.(위요는.)
 112018 @ 예.(예.)
 112018 #1 신랑 집에서 두 사람이면 두 사람, 한 사람이면 한 사람.(신랑 집에서 두 사람이면 두 사람, 한 사람이면 한 사람.)
 112018 @ 예.(예.)
 112018 #1 그 거기 갈 적에 켈 나이 많은 사람이 가주게.(그 거기 갈 적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가지.)
 112018 @ 예.(예.)
 112018 #1 옛날은이.(옛날은.)
 112018 @ 예.(예.)
 112018 #1 그 집안에서이 집안에서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 잇잖아.(그 집안에서 집안에서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 잇잖아.)
 112018 @ 예.(예.)
 112018 #1 그 사람이 저 우시로 가. 또 들러리도 잇어.(그 사람이 저 위요로 가. 또 들러리도 잇어.)
 112018 @ 들러리도 잇고. 그러니까 우시가 그 뭐 신랑 쪽에 뭐 허는 거마씨?(들러리도 잇고. 그러니까 위요가 그 뭐 신랑 쪽에 뭐 하는 거예요?)
 112018 #1 신랑 쪽으로 결혼 날.(신랑 쪽으로 결혼 날.)
 112018 @ 예.(예.)
 112018 #1 신랑 쪽에서 가고.(신랑 쪽에서 가고.)
 112018 @ 예.(예.)
 112018 #1 신부 집에서도 경 해가지고 또 신랑 집에 오고.(신부 집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또 신랑 집에 오고.)
 112018 @ 그게 결혼 전날이짱?(그게 결혼 전날입니까?)
 112018 #1 아니. 결혼 뒷날.(아니. 결혼 뒷날.)
 112018 @ 아. 결혼 뒷날.(아. 결혼 뒷날.)
 112019 @ 그럼 대반이나 중방¹⁵²⁾은 뭐짱? 삼촌?(그럼 대반이나 ‘중방’은 무엇입니까? 삼촌?)
 112019 #1 대반 맞는 게.(대반 맞는 게.)

152) ‘중방’은 결혼 때 신부집에서 신랑을 맞아들이고 안내하는 열갈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12019 @ 예.(예.)
 112019 #1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거 아니냐. 데려오면은.(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거 아니냐. 데려오면.)
 112019 @ 예.(예.)
 112019 #1 저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갈 거 아니냐.(저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갈 거 아니냐.)
 112019 @ 예.(예.)
 112019 #1 거기 신부, 신부 집에서가 대반 맞아. 신랑 집에 오면 신랑 집에서 대반 맞고.(거기 신부, 신부 집에서 대반 맞아. 신랑 집에 오면 신랑 집에서 대반 맞고.)
 112019 @ 예.(예.)
 112019 #1 웨 그러냐 허민 거기서 쨌 나이 많이 먹은 사람 옛날은.(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옛날은.)
 112019 @ 예.(예.)
 112019 #1 많이 먹은 사람 이런 창문 옆에 앉아. 그거 주인이니까.(많이 먹은 사람 이런 창문 옆에 앉아. 그거 주인이니까.)
 112019 @ 예.(예.)
 112019 #1 게 신랑 집에서도 경 헤낫고 신부 집에서도 경 헤낫고.(그럼 신랑 집에서도 그렇게 했었고 신부 집에서도 그렇게 했었고.)
 112019 @ 아. 그럼 중방은 뭐짱?(아. 그럼 ‘중방’은 무엇입니까?)
 112019 #1 중방은?(‘중방’은?)
 112019 @ 예.(예.)
 112019 #1 옛날은 신랑이 뭉 탕 들어올 거 아니냐.(옛날은 신랑이 말 타서 들어올 거 아니냐.)
 112019 @ 아, 예.(아, 예.)
 112019 #1 뭉 탕 들어오면은 도고리가 도고리엔 옛날은 도고리렌 했어.(말 타서 들어오면 함지박이 함지박이라고 옛날은 함지박이라고 했어.)
 112019 @ 예.(예.)
 112019 #1 거기 신랑 딱 내려오면은. 딱 중방이엔 현 게 그 사람이 가 가지고 중방 허는 사람이 중방도 동세가 허여. 동세.(거기 신랑 딱 내려오면. 딱 ‘중방’이라고 한 게 그 사람이 가 가지고 ‘중방’ 하는 사람이 ‘중방’도 동서가 해. 동서.)
 112019 @ 동세?(동서?)
 112019 #1 어.(어.)
 112019 @ 그게 뭐짱?(그게 무엇입니까?)
 112019 #1 동세엔 현 게.(동서라고 한 게.)
 112019 @ 예.(예.)
 112019 #1 느, 느가 성이고. 아시가 잇을 거 아니냐.(너, 네가 형이고 아우가 있

을 거 아니냐.)

112019 @ 아, 동생.(아, 동생.)

112019 #1 아니, 동세, 동세.(아니, 동서, 동서.)

112019 @ 동세? 그게 뭐주마씨?(동서? 그게 뭐예요?)

112019 #1 그 사람 결혼하면 말이다.(그 사람 결혼하면 말이다.)

112019 @ 예.(예.)

112019 #1 그 아래.(그 아래.)

112019 @ 아, 동서? 동서? 동서 얘기하는 거구나예.(아, 동서? 동서? 동서 얘기하는 거군요.)

112019 #1 어. 그거.(어. 그거.)

112019 @ 예.(예.)

112019 #1 그되 가서 손 영 내밀영 건드리민 신랑이 딱 들어오게 됐어.(거기 가서 손 이렇게 내밀어서 건드리면 신랑이 딱 들어오게 됐어.)

112019 @ 그러니까 그럼 그게 전부가 중방이팡?(그러니까 그럼 그게 전부 ‘중방’입니까?)

112019 #1 중방 그게 하나.(‘중방’ 그게 하나.)

112019 @ 아, 그게 중방마씨?(아, 그게 ‘중방’이에요?)

112019 #1 어. 그게 중방.(어. 그게 ‘중방’.)

112020 @ 그럼 부조는 결혼식 할 때 부조는 어떻 헨마씨?(그럼 부조는 결혼식 할 때 부조는 어떻게 했어요?)

112020 #1 부조 결혼식 할 때에는 부조는 부조 행 나가서 밥 먹고.(부조 결혼식 할 때에는 부조는 부조 해서 나가서 밥 먹고.)

112020 @ 예.(예.)

112020 #1 돈 주고. 현재같이 돈 담양 주고 헛주게. 여기는 요새는 뭔가 결혼 전날 허지 안헤?(돈 주고. 현재같이 돈 담아서 주고 했지. 여기는 요새는 뭔가 결혼 전날 하지 않아?)

112020 @ 예.(예.)

112020 #1 근데 그때는 결혼날. 옛날에는 결혼날.(근데 그때는 결혼날. 옛날에는 결혼날.)

112020 @ 아. 결혼날.(아. 결혼날.)

112020 #1 어. 결혼날 먹곡 또 부조도 주고 헛주게.(아. 결혼날 먹고 또 부조도 주고 했지.)

112021 @ 암창개¹⁵³? 암창개? 암창개 얘기 좀 해 줘서.(‘암창개’? ‘암창개’? ‘암창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112021 #1 암창개 듣지 안 헛냐. 웨.(‘암창개’ 듣지 안 헛냐. 왜.)

153) ‘암창개’는 약혼한 다음 혼례를 치르기 전에 신랑의 아버지가 돌아가거나, 혼례 당일 신랑이 먼 곳으로 나갔다가 부득이 돌아오지 못했을 때에 예정된 날에 신랑 집에서 상객들만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오고 보통 혼례처럼 하객을 맞이하면서 치르는 혼례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12021 @ 예. 그래도 다시 한 번 얘기해 줘서.(예. 그래도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112021 #1 암창개엔 암창개엔 혼 거는 각시 엇는다.(‘암창개’라고 ‘암창개’라고 한 거는 각시 없는데.)

112021 @ 예.(예.)

112021 #1 각시가 그 옛날은 물질들이 이 촌에는 물질들 막 허거든. 아무 데나 갈 적에 제때 못 들어온 사람. 집에 못 온 사람이 날짜는 닥쳤지.(각시가 그 옛날은 물질들 막 허거든. 아무 데나 갈 적에 제때 못 들어온 사람. 집에 못 온 사람이 날짜는 닥쳤지.)

112021 @ 예.(예.)

112021 #1 결혼 날짜는 닥쳤는데 그 때 뭔가 못 들어온 사람이면 신랑만 오라고 해가지고 암창개라고 그게 저 처가 집에 강 절 해 두고 뭐 행 그냥 나가는 거. 그게 암창개주게.(결혼 날짜는 닥쳤는데 그 때 뭔가 못 들어온 사람이면 신랑만 오라고 해가지고 ‘암창개’라고 그게 저 처가 집에 가서 절 해 두고 뭐 해서 그냥 나가는 거. 그게 ‘암창개’지.)

112021 @ 아, 그러니까 여자분이 돌아간 건 아니고 일 잊어버리니까 그냥.(아, 그러니까 여자분이 돌아간 건 아니고 일 잊어버리니까 그냥.)

112021 #1 어. 돌아간 건 아니고.(어. 돌아간 건 아니고.)

112021 @ 아. 그럼 그냥 결혼식을 늦게 허는 거마씨?(아. 그럼 그냥 결혼식을 늦게 하는 거예요?)

112021 #1 옛날은 제주도에서는.(옛날은 제주도에서는.)

112021 @ 예.(예.)

112021 #1 배가 낚배라 버리니까 풍선 배이니까 어디 가도 제때 돌아오지 못허주게.(배가 낚배라 버리니까 풍선 배이니까 어디 가도 제때 돌아오지 못하지.)

112022 @ 그럼 삼촌 사혼은 혹시 들어봤수광?(그럼 삼촌 사혼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12022 #1 어?(어?)

112022 @ 사혼. 사혼.(사혼. 사혼.)

112022 #1 사혼?(사혼?)

112022 @ 예. 죽은 다음에 결혼 시키는 거마씨. 그런 건 제주도에 엇언마씨?(예. 죽은 다음에 결혼 시키는 거요. 그런 건 제주도에 없었어요?)

112022 #1 영 죽으면은.(이렇게 죽으면.)

112022 @ 예.(예.)

112022 #1 영 묶영 관 들어올 거.(이렇게 묶어서 관 들어올 거.)

112022 @ 예.(예.)

112022 #1 그게 뭐라고 했는디.(그게 뭐라고 했는데.)

112023 @ 삼촌 그럼 혼례 할 때. 결혼식 할 때.(삼촌 그럼 혼례 할 때. 결혼식

할 때.)

112023 #1 어.(어.)

112023 @ 금기 사항 혹시 아는 거 있으면 골아 줘서.(금기 사항 혹시 아는 거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112023 #1 금지?(금지?)

112023 @ 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 하지 말아야 되는 거.)

112023 #1 허지 말아야 허는 거 벨로 엇어.(하지 말아야 하는 거 별로 없어.)

112023 @ 그러니까 결혼식 날이나 아니면 결혼식 전날 남편은 이런 거 허지 마라. 아니면 여자는 이거 허지 마라.(그러니까 결혼식 날이나 아니면 결혼식 전날 남편은 이런 거 하지 마라. 아니면 여자는 이거 하지 마라.)

112023 #1 그런 건 엇언.(그런 건 없었어.)

112023 @ 그런 건 엇언마씨?(그런 건 없었어요?)

112023 #1 이미 그게 결과가 끝났으니까.(이미 그게 결과가 끝났으니까.)

상례

112024 @ 그럼 이제 상례에 대해서 물어볼게예?(그럼 이제 상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112024 #1 어.(어.)

112024 @ 그 돌아가셨을 때 누가 돌아가셨을 때 어떻 허는지.(그 돌아가셨을 때 누가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하는지.)

112024 #1 어.(어.)

112024 @ 만약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으면 그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실히 죽었는지를 어떻 확인해마씨? 지금은 의사나 장례 관련 사람이 왕 하잖아예?(만약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으면 그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실히 죽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했어요? 지금은 의사나 장례 관련 사람이 와서 하잖아요?)

112024 #1 어.(어.)

112024 @ 옛날에는 혹시 그런 사람 없었지예?(옛날에도 혹시 그런 사람 없었지요?)

112024 #1 동네 사람 잇었어.(동네 사람 있었어.)

112024 @ 아, 동네 사람 잇어수광? 그럼 어떻 확인해마씨?(아, 동네 사람 있었습니까? 그럼 어떻게 확인해요?)

112024 #1 동네 사람이 죽었다 허민 이제 저 메치라고.(동네 사람이 죽었다 하면 이제 저 메치라고.)

112024 @ 예.(예.)

112024 #1 일곱 명이 묶은다고 헤가지고 메치가 잇거든.(일곱 명이 묶는다고 헤가지고 짚동이 잇거든.)

112024 @ 메치?(짚동?)

112024 #1 어.(어.)

112024 #1 제식 옷을 전부 다 입고 전부 뭔가 떡 같은 거 입에다 물리고 컷고 냥에 속에 다 막아붙여.(제식 옷을 전부 다 입고 전부 뭔가 떡 같은 거 입에다 물리고 컷구멍에 속에 다 막아버려서.)

112024 @ 예.(예.)

112024 #1 해냥 메치엔 허면 일곱 명이 묶어.(해냥서 짚동이라고 하면 일곱 명이 묶어.)

112024 @ 예.(예.)

112024 #1 묶어서 그 묶으는 날 그날 입관허주게.(묶어서 그 묶는 날 그날 입관 하지.)

112024 @ 예.(예.)

112024 #1 입관허민 관 속에 들어가. 들어가면 이제 입관 끝나면은 여기서 팟죽.(입관하면 관 속에 들어가. 들어가면 이제 입관 끝나면 여기서 팔죽.)

112024 @ 예.(예.)

112024 #1 팟죽 행 맥이는 저 거기 잇는 사람한테 팟죽 행 먹이거든 옛날에.(팔죽 해서 먹이는 저 거기 잇는 사람한테 팔죽 해서 먹이거든. 옛날에.)

112024 @ 예.(예.)

112024 #1 팟죽이엔 현 거는 나쁜 똥을 방지허는 거니까.(팔죽이라고 한 거는 나쁜 똥을 방지하는 거니까.)

112025 @ 그럼 삼촌 그 복부르기는 어떻 해마씨?(그럼 삼촌 그 복부르기는 어떻게 해요?)

112025 #1 어?(어?)

112025 @ 복부르기마씨.(복부르기요.)

112025 #1 복부르기?(복부르기?)

112025 @ 예.(예.)

112025 #1 복부르기엔 현 거는 잘 모르켜게.(복부르기라고 한 거는 잘 모르겠다.)

112026 @ 그럼 장지 장지 잇잖아예?(그럼 장지 장지 잇잖아요?)

112026 @ 어.(어.)

112026 #1 장지. 돌아가신 분 문을 곳. 장지마씨.(장지. 돌아가신 분 문을 곳. 장지요.)

112026 @ 어.(어.)

112026 #1 장지는 어떻 마련헐마씨?(장지는 어떻게 마련했어?)

112026 #1 장지. 묻는 데 관리가?(장지. 묻는 데 관리가?)

112026 @ 예.(예.)

112026 #1 그게 돌아가면은.(그게 돌아가면.)

112026 @ 예.(예.)

112026 #1 뭘가 뒷날, 뒷날이 초상이거든.(뭘가 뒷날, 뒷날이 초상이거든.)
 112026 @ 예.(예.)
 112026 #1 그날 상제가 나가가지고.(그날 상제가 나가가지고.)
 112026 @ 예.(예.)
 112026 #1 큰상제가 나가 보통이.(큰상제가 나가 보통.)
 112026 @ 예.(예.)
 112026 #1 나가가지고 이녁 밧이면 이녁 밧 놈의 밧이면 놈의 밧에 가가지고.
 (나가가지고 이녁 밧이면 이녁 밧 남의 밧이면 남의 밧에 가가지고.)
 112026 @ 예.(예.)
 112026 #1 들어갈 디 가서 하여튼 본다 말이여.(들어갈 데 가서 하여튼 본다 말
 이야.)
 112026 @ 예.(예.)
 112026 #1 보면 이제 뒷날 삼일장이면 뒷날 갈 거 아니냐.(보면 이제 뒷날 삼일
 장이면 뒷날 갈 거 아니냐.)
 112026 @ 예.(예.)
 112026 #1 가면 이제 가서 개광¹⁵⁴.(가면 이제 가서 ‘개광’.)
 112026 @ 예.(예.)
 112026 #1 이 개광, 개광 파가지고 관을 놓주게.(이 ‘개광’, ‘개광’ 파가지고 관
 을 놓지.)
 112027 @ 그럼 그 관이랑 그 다음에 횡대 알아마씨?(그럼 그 관이랑 그 다음에
 횡대 알아요?)
 112027 #1 응?(응?)
 112027 @ 횡대? 횡대는 뭐마씨?(횡대? 횡대는 뭐예요?)
 112027 #1 횡대는 몰라.(횡대는 몰라.)
 112027 @ 그럼 관 잇잖아예?(그럼 관 잇잖아요?)
 112027 #1 어.(어.)
 112027 @ 그럼 관은 옛날에 어떻 마련헨마씨?(그럼 관은 옛날에 어떻게 마련했
 어요?)
 112027 #1 관은 현재 관이랑 마찬가지로.(관은 현재 관이랑 마찬가지로.)
 112027 @ 아, 현재랑 마찬가지로마씨?(아, 현재랑 마찬가지로예요?)
 112027 #1 이제 관이랑.(이제 관이랑.)
 112027 @ 그럼 뭐 만들거나 그런 건 안 헛수광?(그럼 뭐 만들거나 그런 건 안
 헛습니까?)
 112027 #1 관도 만들었주게.(관도 만들었지.)
 112027 @ 어떻 만들언마씨? 무슨 낭으로 만들언마씨?(어떻게 만들었어요? 무슨

154) ‘개광’은 무덤을 쓸 때에 방향을 바로 잡아 관(棺)을 넣을 자리를 파는 일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나무로 만들었어요?)

112027 #1 그건?(그건?)

112027 @ 예.(예.)

112027 #1 나무 좋은 거면 뭐 뭐가 소나무, 소나무 여기서 그 그때도 옛날도 제재소는 있었어.(나무 좋은 거면 뭐 뭐가 소나무, 소나무 여기서 그 그때도 옛날도 제재소 있었어.)

112027 @ 예.(예.)

112027 #1 계남 거기서 널을 사와 강.(그러니까 거기서 널을 사와 가서.)

112027 @ 예.(예.)

112027 #1 사오면 이렇게 뒤통이. 만들어.(사오면 이렇게 뒤통이. 만들어.)

112027 @ 예.(예.)

112027 #1 만들어서 그만큼 지력시 뿔 넓이 뿔 딱 물려.(만들어서 그만큼 길이 봐서 넓이 봐서 딱 물려.)

112027 @ 예.(예.)

112027 #1 물려가지고 딱 허게 관을 만들면 우를 못은 안 들어가. 못은 못 들어가.(물려가지고 딱 허게 관을 만들면 위를 못은 안 들어가. 못은 못 들어가.)

112027 @ 못은 못 들어가마씨?(못은 못 들어가요?)

112027 #1 어. 이제도 못은 그건 못 들어감실거라.(어. 이제도 못은 그건 못 들어갈거야.)

112027 @ 예.(예.)

112028 @ 그든 그 돌아가시면 수의랑 상복 입어야 하잖아예?(그러면 그 돌아가시면 수의랑 상복 입어야 하잖아요?)

112028 #1 어.(어.)

112028 @ 남자 여자랑 다르게 입고. 남자가 입는 거랑 여자가 입는 거랑 어떻게 다르게 입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말해 줘서.(남자 여자랑 다르게 입고. 남자가 입는 거랑 여자가 입는 거랑 어떻게 다르게 입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말해 주십시오.)

112028 #1 남자는 그냥 상복.(남자는 그냥 상복.)

112028 @ 예.(예.)

112028 #1 지금 텔레비전에 좀 나오잖아 틈에 한 번씩.(지금 텔레비전에 좀 나오잖아 틈에 한 번씩.)

112028 @ 예.(예.)

112028 #1 그 상복 남자 입는 거고.(그 상복 남자 입는 거고.)

112028 @ 예.(예.)

112028 #1 여자는 지금 또 그 상복 닮게 여자는 여자대로 베옷으로 베옷으로 행 입져.(여자는 지금 또 그 상복 닮게 여자는 여자대로 베옷으로 베옷으로 해서 입혀.)

112028 @ 아.(아.)

112028 #1 베로.(베로.)

112028 @ 그럼 돌아가신 분 수의 입히잖아예?(그럼 돌아가신 분 수의 입히잖아
요?)

112028 #1 어?(어?)

112028 @ 돌아가신 분 옷 입히잖아예? 따로 해근영.(돌아가신 분 옷 입히잖아
요? 따로 해서.)

112028 #1 돌아간 사람?(돌아간 사람?)

112028 @ 죽은 사람마씨. 죽은 사람 옷도 따로 준비해야 돼잖아예?(죽은 사람
요. 죽은 사람 옷도 따로 준비해야 되잖아요?)

112028 #1 그거는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행 관에 놓는 거주게.(그거는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서 관에 놓는 거지.)

112028 @ 아.(아.)

112028 #1 그거는 제싱 옷이라고.(그거는 제식 옷이라고.)

112028 @ 제싱 옷마씨?(제식 옷이요?)

112028 #1 어. 제싱 옷이라고 한복으로 놔.(어. 제식 옷이라고 한복으로 놔.)

112029 @ 삼촌 상장 그 다음에 짝동도 알아마씨?(삼촌 상장 그 다음에 짝동도
알아요?)

112029 #1 짝동?(짝동?)

112029 @ 예. 짝동이 뭐마씨?(예. 짝동이 뭐예요?)

112029 #1 일곱 명이 묶은다고.(일곱 명이 묶는다고.)

112029 @ 아. 그게 일곱 명이 묶은다고?(아. 그게 일곱 명이 묶은다고?)

112029 #1 어. 짝동이라고.(어. 짝동이라고.)

112029 @ 예.(예.)

112029 #1 사람들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일곱 명이 묶으거든. 일곱 명이 묶으
야 바른 말 현다고. 일곱 명이 묶으어야 죽은 사람이라고.(사람들 죽으면 사람이 죽
으면 일곱 명이 묶거든. 일곱 명이 묶어야 바른 말 현다고. 일곱 명이 묶어야 죽은
사람이라고.)

112029 @ 아.(아.)

112029 #1 겐디 그 그것도 짝 요만씩 짝 해가지고.(그런데 그 그것도 짝 요만씩
짝 해가지고.)

112029 @ 예.(예.)

112029 #1 일곱 명이 묶으어가지고 양 옆으로 꿰어.(일곱 명이 묶어가지고 양
옆으로 꿰어.)

112029 @ 예.(예.)

112029 #1 꿰어가지고 상제 앞이 그걸로 상제가 이용허는 거거든. 옛날은 삼년
상 잇이니까.(꿰어가지고 상제 앞에 그걸로 상제가 이용허는 거거든. 옛날은. 삼년

상 있으니까.)

112029 @ 예.(예.)

112029 #1 계민 그거 찍동은 그 색일 때나 뭐 할 때 이제 대소상 할 때 그거 사용허는 거주게.(그러면 그거 짚동은 그 삭제 때나 뭐 할 때 이제 대소상 할 때 그거 사용하는 거지.)

112030 @ 삼촌 그 두건이랑 복치마도 준비해마씨?(삼촌 그 두건이랑 복치마도 준비해요?)

112030 #1 저 두건?(저 두건?)

112030 @ 예.(예.)

112030 #1 두건. 두건 어 복친.(두건. 두건 어 복친.)

112030 @ 예. 그건 뭐 허는 거짱?(예. 그건 뭐 하는 겁니까?)

112030 #1 그거는 권당 아는 아는 이거는 이 사람은 권당이라 해가지고 허는 게 복친인데 두건을 씌우는 거주게.(그거는 권당 아는 아는 이거는 이 사람은 권당이라 해가지고 하는 게 복친인데 두건을 씌우는 거지.)

112030 @ 아. 권당?(아. 권당?)

112030 #1 어.(어.)

112031 @ 팍죽은 아까 얘기 해 주셨지예?(팍죽은 아까 얘기 해 주셨지요?)

112031 #1 어.(어.)

112032 @ 성복제 알아마씨?(성복제 알아요?)

112032 #1 어?(어?)

112032 @ 성복제마씨.(성복제요.)

112032 #1 성복제?(성복제?)

112032 @ 예.(예.)

112032 #1 관에 들어가기 전에.(관에 들어가기 전에.)

112032 @ 예.(예.)

112032 #1 관에 들어가기 전에 죽었구나 해근영 식구들 울고 허지 않느냐.(관에 들어가기 전에 죽었구나 해서 식구들 울고 하지 않느냐.)

112032 @ 예.(예.)

112032 #1 그 때 그제 성복이고.(그 때 그제 성복이고.)

112033 @ 그럼 일포제는 뭐짱? 일포제?(그럼 일포제는 무엇입니까? 일포제?)

112033 #1 일포?(일포?)

112033 @ 예.(예.)

112033 #1 전날게. 묻으러 가기.(전날. 묻으러 가기.)

112033 @ 묻으러 가기 전날?(묻으러 가기 전날?)

112033 #1 어. 묻으러 가기 전날.(어. 묻으러 가기 전날.)

112033 @ 일포제 때는 뭐 어떻 해마씨?(일포제 때는 뭐 어떻게 해요?)

112033 #1 일포제 할 때?(일포제 할 때?)

112033 @ 예.(예.)

112033 #1 그냥 그 돼지 잡곡 또 밥 허곡 그날 상뒤를 가가지고 영장 문을 거니까 옛날은.(그냥 그 돼지 잡고 또 밥 하고 그날 상여를 가가지고 송장 문을 거니까 옛날은.)

112033 @ 예.(예.)

112033 #1 또 떡도 만들곡. 떡도 사고.(또 떡도 만들고. 떡도 사고.)

112033 @ 아.(아.)

112033 #1 경 해가지고.(그렇게 해가지고.)

112034 @ 그럼 그 부조랑 조문 갈 때 떡도 준비하고 돈도 드리잖아예?(그럼 그 부조랑 조문 갈 때 떡도 준비하고 돈도 드리잖아요?)

112034 #1 어.(어.)

112034 @ 부조 할 때. 떡은 무슨 떡 헨마씨?(부조 할 때. 떡은 무슨 떡 했어요?)

112034 #1 일포 때?(일포 때?)

112034 @ 아니, 아니 그냥 부조 갈 때마씨.(아니, 아니 그냥 부조 갈 때요.)

112034 #1 부조 갈 때?(부조 갈 때?)

112034 @ 예. 돌아가셨을 때.(예. 돌아가셨을 때.)

112034 #1 돌아갈 때?(돌아갈 때?)

112034 @ 예.(예.)

112034 #1 옛날은 쌀도 허곡.(옛날은 쌀도 하고.)

112034 @ 예.(예.)

112034 #1 또 떡, 빵.(또 떡, 빵.)

112034 @ 예.(예.)

112034 #1 또 그 돌레떡¹⁵⁵⁾이이엔 현 게 있어.(또 그 ‘돌레떡’이라고 한 게 있어.)

112034 @ 돌레떡?(‘돌레떡’?)

112034 #1 어. 줍쌀로이.(어. 줍쌀로.)

112034 @ 예.(예.)

112034 #1 영 동그랗게 만든 거.(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거.)

112034 @ 아.(아.)

112034 #1 그것도 있고. 또 제펜이엔 현 게이. 또 그 이전에 글았지만은 시리에 낱 친 거.(그것도 있고. 또 ‘제펜’이라고 한 게. 또 그 이전에 말했지만 시루에 놔서 친 거.)

112034 @ 예.(예.)

112034 #1 그것도 있고.(그것도 있고.)

112035 @ 토신제도 알아마씨? 토신제?(토신제도 알아요? 토신제?)

155) ‘돌레떡’은 메밀이나 줍쌀가루 따위로 쟁반만큼 크고 동그렇게 만든 떡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12035 #1 토신제는 집에 집 짓을 때.(토신제는 집에 집 짓을 때.)
112035 @ 집 짓을 때 하는 거짱?(집 지을 때 하는 겁니까?)
112035 #1 어.(어.)
112036 @ 그 큰 상여꾼 잇잖아예?(그러면 상여꾼 잇잖아요?)
112036 #1 어.(어.)
112036 @ 상여꾼은 누가 정해마씨? 어떻 정해마씨?(상여꾼은 누가 정해요? 어떻게 정해요?)
112036 #1 그 부락에.(그 부락에.)
112036 @ 예.(예.)
112036 #1 그 부락에 젊은 사람들.(그 부락에 젊은 사람들.)
112036 @ 젊은 사람들.(젊은 사람들.)
112036 #1 열둘이 들어가주게. 그계.(열둘이 들어가지. 그계.)
112036 @ 아, 열둘마씨?(아, 열둘이요?)
112036 #1 어.(어.)
112036 @ 묶으는 건 일곱 명이 묶으고?(묶는 건 일곱 명이 묶고?)
112036 #1 어.(어.)
112036 @ 상여는 열두 명이짱?(상여는 열두 명입니까?)
112036 #1 묶으는 건 묶으는 거는 일곱 명이 묶으고.(묶는 건 묶는 거고 일곱 명이 묶고.)
112036 @ 예.(예.)
112036 #1 상여는 벌써 묻으러 갈 때.(상여는 벌써 묻으러 갈 때.)
112036 @ 예.(예.)
112036 #1 상여꾼이.(상여꾼이.)
112036 @ 예.(예.)
112036 #1 묻으러 갈 때 열두 사람 들어가. 거기서 이젠 도새기 머리라고(묻으러 갈 때 열두 사람 들어가. 거기서 이젠 돼지 머리라고.)
112036 @ 도새기 머리?(돼지 머리?)
112036 #1 어.(어.)
112036 @ 그거 무사 가져가마씨?(그거 왜 가져가요?)
112036 #1 도새기 머리라는 거는 그 고기 먹던 거.(돼지 머리라는 거는 그 고기 먹던 거.)
112036 @ 예.(예.)
112036 #1 그거 저 곱게 썰어가지고 그거허고 술허고 나와가지고 거기 수북하게 준다 말이야. 그거 뭘 사람.(그거 저 곱게 썰어가지고 그거하고 술하고 나와가지고 거기 수북하게 준다 말이야. 그거 뭘 사람.)
112036 @ 예.(예.)
112036 #1 게면 그 술잔허고 고기허고 다니면서 술 한잔씩 비와준다 말이야. 수

고해달라고. 그건 어디던지 그건 허는 거고.(그러면 그 술잔하고 고기하고 다니면서 술 한잔씩 비워준다 말이야. 수고해달라고. 그건 어디던지 그건 하는 거고.)

112037 @ 아. 그럼 이제 상여꾼이 운상하잖아예?(아. 그럼 이제 상여꾼이 운상하잖아요?)

112037 #1 어.(어.)

112037 @ 집에서 장지까지. 어떻게 운상해마씨?(집에서 장지까지. 어떻게 운상해요?)

112037 #1 어디꺼지?(어디까지?)

112037 @ 집에서 장지까지 가잖아예?(집에서 장지까지 가잖아요?)

112037 #1 어. 집에서 장지까지게.(어. 집에서 장지까지.)

112037 @ 예.(예.)

112037 #1 이렇게이 진 몽둥이가 잇어.(이렇게 긴 몽둥이가 있어.)

112037 @ 몽둥이?(몽둥이?)

112037 #1 어.(어.)

112037 @ 예.(예.)

112037 #1 몽둥이.(몽둥이.)

112037 @ 예.(예.)

112037 #1 진 거?(긴 거?)

112037 @ 예.(예.)

112037 #1 칸칸이 에 열두 개 묶으어져.(칸칸이 에 열두 개 묶어져.)

112037 @ 예. 경 해부난 열두 명 필요헌 거짱?(예. 그렇게 해버리니까 열두 명 필요한 겁니까?)

112037 #1 어. 뭐허니까 열 개. 열두 개인가? 그게? 열 개인가 모르켜. 열 개 묶으어지면은.(어. 뭐하니까 열 개. 열두 개인가? 그게? 열 개인가 모르겠다. 열 개 묶으면.)

112037 @ 예.(예.)

112037 #1 이 나무랑 묶으거든?(이 나무랑 묶거든?)

112037 @ 예.(예.)

112037 #1 묶으면 나무 사이가 공간 웬다 말이야.(묶으면 나무 사이가 공간 된다 말이야.)

112037 @ 예.(예.)

112037 #1 관 들어가게끔 관 하나가 들어가게끔.(관 들어가게끔 관 하나가 들어가게끔.)

112037 @ 예.(예.)

112037 #1 공간 뵈면 거기 딱 놔가지고 그 위에 상여 저 상 더끈다 말이야.(공간 되면 거기 딱 놔가지고 그 위에 상여 저 상 덮는다 말이야.)

112037 @ 예.(예.)

112037 #1 더끄면은 그 위에 딱 올라사가지고 뿔이엔 곱아. 뿔이엔 곱으면 그거 들영 장지까지 가주게.(뿔으면 그 위에 딱 올라사가지고 뿔라고 말해. 뿔라고 말하면 그거 들어서 장지까지 가지.)

112037 @ 아, 삼촌도 그거 운상하신 적 잇어마씨?(아, 삼촌도 그거 운상하신 적 잇어요?)

112037 #1 어. 그거 운상허지.(어. 그거 운상하지.)

112038 @ 그 어 봉분 잇잖아예?(그 어 봉분 잇잖아요?)

112038 #1 어.(어.)

112038 @ 무덤 앞에 봉분.(무덤 앞에 봉분.)

112038 #1 어.(어.)

112038 @ 그건 어떻 만들언마씨?(그건 어떻게 만들었어요?)

112038 #1 봉분은.(봉분은.)

112038 @ 예.(예.)

112038 #1 현재 봉분이랑 마찬가지로. 봉분은.(현재 봉분이랑 마찬가지로. 봉분은.)

112038 @ 예.(예.)

112038 #1 봉분은 그자 예쁘게 때로 입혀가지고 때로 입히주게. 옛날은 대리석 해가지고 그런 거 엇엇어.(봉분은 그자 예쁘게 때로 입혀가지고 때로 입히지. 옛날은 대리석 해가지고 그런 거 없엇어.)

112038 @ 아, 기광?(아, 그렇습니까?)

112038 #1 옛날 옛날 왕들도 전부 다 때 봉분 아니라?(옛날 옛날 왕들도 전부 다 때 봉분 아니라?)

112038 @ 예. 그럼 그건 누가 만들어마씨?(예. 그럼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112038 #1 그거 만드는 사람 잇어.(그거 만드는 사람 잇어.)

112038 @ 만드는 사람 잇어마씨? 마을에 한 명씩?(만드는 사람 잇어요? 마을에 한 명씩?)

112038 #1 어. 마을에 마을에서 예쁘게 만드는 사람 잇어.(어. 마을에 마을에서 예쁘게 만드는 사람 잇어.)

112039 @ 삼촌 호충은 알아마씨? 호충?(삼촌 호충은 알아요? 호충?)

112039 #1 호충?(호충?)

112039 @ 예.(예.)

112039 #1 호충은 몰라.(호충은 몰라.)

112039 @ 누구 죽었을 때 몇 년생 보지 마라고 하잖아예.(누구 죽었을 때 몇 년생 보지 마라고 하잖아요.)

112039 #1 어.(어.)

112039 @ 그거에 대해 얘기해 줘서.(그거에 대해 얘기해 주십시오.)

112039 #1 그게 그거주게. 몇 살 무슨 띠 저 보지마라고 허는 거주게.(그게 그

거지. 몇 살 무슨 띠 저 보지마라고 하는 거지.)

112039 @ 예.(예.)

112039 #1 그 사람이 생명이 위험하다고 보지 마라고 허는 거주게. 그 하관할 때이 옛날은 그 사람 보면은 데리고 가분덴 옛날은.(그 사람이 생명이 위험하다고 보지 마라고 하는 거지. 그 하관할 때 옛날은 그 사람 보면 데리고 가버린다고 옛날은.)

112039 @ 예.(예.)

112039 #1 게 가지고 그 사람 보지 마라고 해. 하관할 때는 보지 마라고.(그래 가지고 그 사람 보지 마라고 해. 하관할 때는 보지 마라고.)

112040 @ 그든 그 상여꾼이 어 장지까지 이렇게 관을 들고 가잖아예?(그러면 그 상여꾼이 어 장지까지 이렇게 관을 들고 가잖아요?)

112040 #1 어.(어.)

112040 @ 그든 음식 대접도 허잖아예? 상여꾼한테.(그러면 음식 대접도 하잖아요? 상여꾼한테.)

112040 #1 어.(어.)

112040 @ 그럼 그 음식 특별한 거 잇수광? 음식 같은 거?(그럼 그 음식 특별한 거 있습니까? 음식 같은 거?)

112040 #1 상여 상제꾼한테 그날 메영 가는, 갈 적이.(상여 상여꾼한테 그날 메어서 가는, 갈 적에.)

112040 @ 예.(예.)

112040 #1 저 장갑허고.(저 장갑하고.)

112040 @ 예.(예.)

112040 #1 수건, 수건은 그거는 언제나 따르는 거고.(수건, 수건은 그거는 언제나 따르는 거고.)

112040 @ 예.(예.)

112040 #1 이제 뭐 다른 게. 아까 뵈이렌 곶앗냐?(이제 뭐 다른 게. 아까 뵈이라고 말했냐?)

112040 @ 그러니까 장지 도착허면 그 관 놓고 이제 밥 먹어야 되잖아예?(그러니까 장지 도착하면 그 관 놓고 이제 밥 먹어야 되잖아요?)

112040 #1 어.(어.)

112040 @ 그러니까 그 때 먹는 특별한 음식 잇엇수광?(그러니까 그 때 먹는 특별한 음식 잇엇습니까?)

112040 #1 밥 먹기 시작이 일렁 가면은.(밥 먹기 시작이 일러서 가면.)

112040 @ 예.(예.)

112040 #1 상제꾼 우선 앓혀.(상여꾼 우선 앓혀.)

112040 @ 예.(예.)

112040 #1 따로 앓혀가지고 그 안주허고 술허고 혼 번 이제 쪽 허게 맥여.(따로

얕혀가지고 그 안주하고 술하고 한 번 이제 쪽 하게 먹여.)

112040 @ 예.(예.)

112040 #1 맥이민 시간이 되면 이제 묻거든. 물어가지고 봉분 반봉분 똥 밥 맥이는 사람도 있고 봉분 마쳐서 밥 맥이는 사람도 있고.(먹이면 시간이 되면 이제 묻거든. 물어가지고 봉분 반봉분 돼서 밥 먹이는 사람도 있고 봉분 마쳐서 밥 먹이는 사람도 있고.)

112040 @ 아. 그건 사람마다 달라마씨?(아.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112040 #1 어.(어.)

112041 @ 그든 이제 그 수고헌 사람들 잇잖아예?(그러면 이제 그 수고헌 사람들 잇잖아요?)

112041 #1 어.(어.)

112041 @ 장사 지내면. 수고헌 사람들한테 뭐 어떻 주는 거 엇어마씨?(장사 지내면. 수고헌 사람들한테 뭐 어떻게 주는 거 없어요?)

112041 #1 계난 뭔가 이 집이서나 거기서나 그 남자 수고헌 사람은 그날 먹던 음식 해근엥 돼지고기면 돼지고기 또 그거 해 놓고 또 썰이면 썰.(그러니까 뭔가 이 집에서나 거기서나 그 남자 수고헌 사람은 그날 먹던 음식 해가지고 돼지고기면 돼지고기 또 그거 해 놓고 또 썰이면 썰.)

112041 @ 예.(예.)

112041 #1 해가지고 수고헌 사람한테 그건 집안에서 보내줘.(해가지고 수고헌 사람한테 그건 집안에서 보내줘.)

112041 @ 아. 집안에서 보내줘마씨?(아. 집안에서 보내줘요?)

112041 #1 어.(어.)

112042 @ 그럼 상식은 어떻 해마씨? 상식?(그럼 상식은 어떻게 해요? 상식?)

112042 #1 상식은 상 봐야주게.(상식은 상 봐야지.)

112042 @ 아.(아.)

112042 #1 지금은 상 안 놓지만은.(지금은 상 안 놓지만.)

112042 @ 예.(예.)

112042 #1 옛날은 삼년상이라고.(옛날은 삼년상이라고.)

112042 @ 예.(예.)

112042 #1 삼년상이라고 그걸 혼백 해가지고 매 때에 이제 밥도 놓곡.(삼년상이라고 그걸 혼백 해가지고 매 때에 이제 밥도 놓고.)

112042 @ 예.(예.)

112042 #1 그래가지고 그게 상식이주게.(그래가지고 그게 상식이지.)

112042 @ 아, 그게 상식마씨?(아, 그게 상식이예요?)

112042 #1 어. 그게 상식이주게.(어. 그게 상식이지.)

112043 @ 그든 삭망제 알아마씨? 삭망제?(그러면 삭망제 알아요? 삭망제?)

112043 #1 삭망제 말은 안 들어봤져.(삭망제라는 말은 안 들어봤지.)

112044 @ 그든 소상 대상 허잖아예?(그러면 소상 대상 하잖아요?)

112044 #1 어.(어.)

112044 @ 그 일 년 쯤 게 소상이고 삼 년 쯤 게 대상이잖아예?(그 일 년 된 게 소상이고 삼 년 된 게 대상이잖아요?)

112044 #1 어.(어.)

112044 @ 그 소상 대상이 옛날이랑 지금이랑 달라진 거 잇이른 곶아 줍서.(그 소상 대상이 옛날이랑 지금이랑 달라진 거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112044 #1 달라진 거?(달라진 거?)

112044 @ 예. 옛날에는 어떻 헤신디. 그니까 옛날에는 어떻 헨마씨?(예.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112044 #1 옛날 헤신디 대소상 지금은 안 허잖아?(옛날에 했는데 대소상 지금은 안 하잖아?)

112044 @ 예. 지금은 거의 안 허는디 옛날에는 어떻 헛수광?(예. 지금은 거의 안 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112044 #1 옛날은 소상이든 소상 대상이든 대상 그거 출려서 먹는 건 마찬가지로.(옛날은 소상이면 소상 대상이면 대상 그거 차려서 먹는 건 마찬가지.)

112044 @ 그러면 그 때까지 옷을 어떻 입거나 그런 건 엇엇수광?(그러면 그 때까지 옷을 어떻게 입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112044 #1 상복.(상복.)

112044 @ 상복 계속?(상복 계속?)

112044 #1 상제는 상복 입어. 옛날은.(상제는 상복 입어. 옛날은.)

112044 @ 그럼 그거 계속 삼 년 동안 입언마씨?(그럼 그거 계속 삼 년 동안 입었어요?)

112044 #1 그렇지. 삼 년 동안 상복 계속 입엇주게. 옛날은.(그렇지. 삼 년 동안 상복 계속 입엇지. 옛날은.)

112044 @ 삼촌도 입엇수광?(삼촌도 입엇습니까?)

112044 #1 아니 나는 우리 우리 뭐 혈 적에는 상복 그거는 엇어졌어.(아니 나는 우리 우리 뭐 할 적에는 상복 그거는 없어졌어.)

112044 @ 삼촌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아마 소상 대상?(삼촌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아마 소상 대상?)

112044 #1 어. 어렸을 때는 봤지만 우리가 커가지고 그거는 엇어졌어. 상복 입 영 땡기는 건 엇어. 여기 표적만 잇지. 상제라는 거는. 베 요만허게 꿰어근앵 허는 거 잇잖아.(어. 어렸을 때는 봤지만 우리가 커가지고 그거는 없어졌어. 상복 입어서 다니는 건 없어. 여기 표적만 잇지. 상제라는 거는. 베 요만허게 꿰어서 하는 거 잇잖아.)

112044 @ 예.(예.)

112044 #1 또 그 머리창¹⁵⁶ 그거 놓는 게 흰 거다. 지금도 이런 데 흰 거라.(또

그 ‘머리창’ 그거 놓는 게 흰 거다. 지금도 이런 데 할 거라.)

112044 @ 지금은 많이 안 허는데 옛날에 많이 한 거 같아마씨.(지금은 많이 안 하는데 옛날에 많이 한 거 같아요.)

112044 #1 어. 옛날에 머리창이엔 흰 거 흰 거어. 요만한 거.(어. 옛날에 ‘머리창’이라고 한 거 흰 거. 요만한 거.)

112044 @ 예.(예.)

112044 #1 혜영 그거 그거 머리창 달고. 그게 상제라.(해서 그거 그거 ‘머리창’ 달고. 그게 상제라.)

112045 @ 삼촌 토롱도 알아마씨? 토롱?(삼촌 토롱도 알아요? 토롱?)

112045 #1 토롱?(토롱?)

112045 @ 예.(예.)

112045 #1 그 사람이 죽어서.(그 사람이 죽어서.)

112045 @ 예.(예.)

112045 #1 이제 관에 들어갈 거 아니냐.(이제 관에 들어갈 거 아니냐.)

112045 @ 예.(예.)

112045 #1 이 때 관에 들어가신디 날짜 안 나오면은.(이 때 관에 들어갔는데 날짜 안 나오면.)

112045 @ 예.(예.)

112045 #1 날짜가 뭐 이제 삼일장 허려고 헛는데 삼일장 못 행 오일장 육일장 헛 적에는.(날짜가 뭐 이제 삼일장 하려고 했는데 삼일장 못 해서 오일장 육일장 할 적에는.)

112045 @ 예.(예.)

112045 #1 그 죽은 사람 강 토롱허여. 가서 또 아무 그 아무 밭 가까운 밭디 가가지고.(그 죽은 사람 가서 토롱해. 가서 또 아무 그 아무 밭 가까운 밭에 가가지고.)

112045 @ 아.(아.)

112045 #1 그 때는 그냥 뭐 파지 안 허여. 그냥 놔가지고 흑 흑 썩워가지고 그 위에 비가 오면은 저 물 들어가지 못하게 ‘늑랍지’¹⁵⁷⁾나 새로 덮어. 그게 토롱.(그 때는 그냥 뭐 파지 안 해. 그냥 놔가지고 흑 흑 썩워가지고 그 위에 비가 오면 저 물 들어가지 못하게 ‘늑랍지’나 새로 덮어. 그게 토롱.)

112045 @ 그게 토롱이구나예.(그게 토롱이군요.)

112046 @ 그럼 이묘는 언제 해마씨? 어떻 해마씨?(그럼 이묘는 언제 해요? 어떻게 해요?)

112046 #1 이묘?(이묘?)

156) ‘머리창’은 부모나 시부모상이 났을 때 부녀자들이 머리에 넣어 땅에 깔는 긴 형겔오리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57) ‘늑랍지’는 이영과 비슷한 것으로 날가리 위에 덮는 물건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늑래미, 늑라미, 늑랍쥐, 늑래, 놀래

112046 @ 예.(예.)
 112046 #1 이 산이.(이 산이.)
 112046 @ 예.(예.)
 112046 #1 여기 묻었다 여기 갈 적에.(여기 묻었다 여기 갈 적에.)
 112046 @ 예.(예.)
 112046 #1 그게 이묘라.(그게 이묘라.)
 112046 @ 예. 그건 어떻 헤마씨? 허는 거는?(예. 그건 어떻게 해요? 하는 거는?)
 112046 #1 그거는 뭐 묻는 거랑 마찬가지로.(그거는 뭐 묻는 거랑 마찬가지로.)
 112047 @ 그럼 상복은 언제 벗어마씨?(그럼 상복은 언제 벗어요?)
 112047 #1 상복은 삼년상 넘으면 벗주게.(상복은 삼년상 넘으면 벗지.)
 112048 @ 상례 때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나 그런 게 있지 않아요? 그런 거 얘기 해 줘서.(상례 때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나 그런 게 있지 않아요? 그런 거 얘기 해 주십시오.)
 112048 #1 그 옛날식으로 부부 간도 자지 말고 산에 가 지켜라 혜신디 옛날식으로 그거 혜져?(그 옛날식으로 부부 간도 자지 말고 산에 가 지켜라 했는데 옛날식으로 그거 할 수 있어?)
 112048 @ 그러니까 옛날식 얘기해 줘서. 옛날에는 뭐, 뭐 허지 말랜 헛수광?(그러니까 옛날식 얘기해 주십시오. 옛날에는 뭐, 뭐 하지 마라고 했습니까?)
 112048 #1 뭐, 뭐 허지 마라 안 헛어. 그거.(뭐, 뭐 하지 마라 안 헛어. 그거.)
 112048 @ 요즘에도 돌아가신 다음에 일 년 안에 결혼식 허지 마라 이런 거 있지 않아요?(요즘에도 돌아가신 다음에 일 년 안에 결혼식 하지 마라 이런 거 있지 않아요?)
 112048 #1 아니. 그런 거 었어.(아니. 그런 거 없어.)

제례

112049 @ 삼촌 그 이제 제사 준비 좀 물어보쿠다.(삼촌 그 이제 제사 준비 좀 물어보겠습니다.)
 112049 #1 어.(어.)
 112049 @ 제사 준비. 제사 준비는 어떻 헤마씨? 누가?(제사 준비. 제사 준비는 어떻게 해요? 누가?)
 112049 #1 제사?(제사?)
 112049 @ 예.(예.)
 112049 #1 조상 제사나 현재 할아방 제사들이나?(조상 제사나 현재 할아버지 제사들이나?)
 112049 @ 예.(예.)
 112049 #1 계난 뭐 제사 허는 집에서.(그러니까 뭐 제사 하는 집에서.)

112049 @ 예.(예.)

112049 #1 떡을 거 다 찮리고.(떡을 거 다 차리고.)

112049 @ 예.(예.)

112049 #1 밤 한 여덟 시 즈음 뒤면은 상에 벌여가지고 전부 음식 올려서 해가지고 권당들 죽 앓앙 놀면서 술 혼 잔씩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열 열한 시 열두 시에 과제 허여. 과제엔 헛 거는 이제 귀신이 왕 가불었다 허는 거거든?(밤 한 여덟 시 즈음 뒤면 상에 벌여가지고 전부 음식 올려서 해가지고 권당들 죽 앓아서 놀면서 술 한 잔씩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열 열한 시 열두 시에 과제 해. 과제라고 헛 거는 이제 귀신이 와서 가버렸다 하는 거거든?)

112049 @ 예.(예.)

112049 #1 계면 과제해근엔그 음식을 행 밥도 먹곡 또 술도 먹곡 해가지고 친족들이 해산되는 거주게.(그러면 과제해서 그 음식을 해서 밥도 먹고 또 술도 먹고 해가지고 친족들이 해산되는 거지.)

112050 @ 그럼 제물로는 뭐, 뭐 준비해마씨?(그럼 제물로는 뭐, 뭐 준비해요?)

112050 #1 제물은 제사에 올리는 거. 여기 지금 허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건.(제물은 제사에 올리는 거. 여기 지금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건.)

112050 @ 자세히 좀 얘기해 줘서.(자세히 좀 얘기해 주십시오.)

112050 #1 거야 그 집안에 따라서 허주게.(거야 그 집안에 따라서 하지.)

112050 @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 헛고 지금은 어떻 허고.(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헛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112050 #1 옛날에야 해 먹는 음식이라는 게 그걸로 떡도 만들고 보리쌀로도 떡 만들고 좁쌀로도 떡 만들고 그걸로 해근엔 만들어가지고 올리디.(옛날이야 해 먹는 음식이라는 게 그걸로 떡도 만들고 보리쌀로도 떡 만들고 좁쌀로도 떡 만들고 그걸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올리는데.)

112050 @ 예.(예.)

112050 #1 지금이야 뭐 사도 뒤곡. 곤쌀도 잇일거난 뽕앙 떡도 만들고. 옛날사 뭐 잇어게. 엇엇주게.(지금이야 뭐 사도 되고. 흰쌀도 잇을거니까 뽕아서 떡도 만들고. 옛날이야 뭐 잇어. 없었지.)

112050 @ 아, 엇언마씨? 그러면 지금은 뭐 주로?(아,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뭐 주로?)

112050 #1 어?(어?)

112050 @ 지금이랑 옛날이랑 제사 할 때 가장 많이 다른 건 뭐 엇어마씨?(지금 이랑 옛날이랑 제사 할 때 가장 많이 다른 건 뭐 없어요?)

112050 #1 달라진 건 뭐 엇어. 옛날부터 내려오는 게 그게 그거주게.(달라진 건 뭐 없어. 옛날부터 내려오는 게 그게 그거지.)

112051 @ 그럼 삼촌 콩나물은 어떻 준비헛마씨?(그럼 삼촌 콩나물은 어떻게 준비헛어요?)

112051 #1 응?(응?)

112051 @ 콩나물은 어떻?(콩나물은 어떻게?)

112051 #1 콩늬물?(콩나물?)

112051 @ 예.(예.)

112051 #1 콩늬물은 사와야주게.(콩나물은 사와야지.)

112051 @ 콩나물 그 뭐냐 시루에서 키우거나 허지 았아마씨?(콩나물 그 뭐냐 시루에서 키우거나 하지 았아요?)

112051 #1 키우기도 허지.(키우기도 하지.)

112051 @ 저번에 얘기 헛수게.(저번에 얘기 했습니다.)

112051 #1 어. 시리에서도 키움도 허고 사움도 허고 그거 푸는 집이 잇엇어.(어. 시루에서도 키우기도 하고 사오기도 하고 그거 파는 집이 잇엇어.)

112051 @ 아.(아.)

112051 #1 그거 옛날은 키웠지.(그거 옛날은 키웠지.)

112052 @ 그림 그 제물 제물로 제육도 올라가잖아예?(그림 그 제물 제물로 제육도 올라가잖아요?)

112052 #1 어.(어.)

112052 @ 바닷고기나 물고기나.(바닷고기나 물고기나.)

112052 #1 어.(어.)

112052 @ 그거는 어떻게 준비헤마씨?(그거는 어떻게 준비했어요?)

112052 #1 어떻게 준비허나마나 그거는 고기 상에 올릴 적에 고기는 동쪽.(어떻게 준비하나마나 그거는 고기 상에 올릴 적에 고기는 동쪽.)

112052 @ 예.(예.)

112052 #1 빵 빵 같은 거는 서쪽.(빵 빵 같은 거는 서쪽.)

112052 @ 예.(예.)

112052 #1 상에 경 행 올리면 돼주게. 채소는 가운데.(상에 그렇게 해서 올리면 되지. 채소는 가운데.)

112052 @ 제사할 때 특별히 뭐 바다에 나갈 물고기 잡아 오는 거는 엇엇수광? (제사할 때 특별히 뭐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잡아 오는 거는 없었습니까?)

112052 #1 특별히 가면 잡아지면 좋지만 못 잡으면 할 수 잇는 거주게.(특별히 가면 잡아지면 좋지만 못 잡으면 할 수 잇는 거지.)

112052 @ 잡아지면 좋고?(잡아지면 좋고?)

112052 #1 어. 잡으러도 가.(어. 잡으러도 가.)

112052 @ 잡으러도 가마씨? 그든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어떻 준비헤마씨?(잡으러도 가요? 그러면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어떻게 준비헤요?)

112052 #1 그 때 옛날에 돼지고기 소고기 그 때도 뭐 허면 이 쉼고기는 못 먹고 돼지고기도 큰 거는 못 잡앗어.(그 때 옛날에 돼지고기 소고기 그 때도 뭐 하면 이 소고기는 못 먹고 돼지고기도 큰 거는 못 잡앗어.)

112052 @ 못 잡안마씨?(못 잡았어요?)

112052 #1 어.(어.)

112053 @ 그믐 적 잇잖아예? 적은 몇 종류 준비헤마씨?(그러면 적 잇잖아요? 적은 몇 종류 준비했어요?)

112053 #1 적?(적?)

112053 @ 예.(예.)

112053 #1 포적이온 헨 게 그게이.(포적이라고 한 게 그게.)

112053 @ 예.(예.)

112053 #1 제사 때 쓰이는 거다.(제사 때 쓰이는 거다.)

112053 @ 예. 포적.(예. 포적.)

112053 #1 어.(어.)

112053 @ 또 다른 적은 엇수광?(또 다른 적은 없습니까?)

112053 #1 다른 적은 엇어. 그거 포적이온 헨 게 그 저 밀 밀ㄹ르로이.(다른 적은 없어. 그거 포적이라고 한 게 그 저 밀 밀가루로.)

112053 @ 예.(예.)

112053 #1 밀ㄹ르나 메밀ㄹ르나.(밀가루나 메밀가루나.)

112053 @ 예.(예.)

112053 #1 이게 솥뚜껑이 놓민이. 솥뚜껑에 놓으면 이만큼 반죽 헨 거.(이게 솥뚜껑에 놓으면. 솥뚜껑에 놓으면 이만큼 반죽 한 거.)

112053 @ 예.(예.)

112053 #1 놓은다 말이야. 놓으면 이만큼 허게 떡 만들어정 나온다 말이야.(놓는다 말이야. 놓으면 이만큼 하게 떡 만들어져서 나온다 말이야.)

112053 @ 예.(예.)

112053 #1 게민 이렇게 이렇게 쫄라.(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잘라.)

112053 @ 쫄라마씨?(잘라요?)

112053 #1 어. 쫄라가지고 또 이렇게 쫄라가지고 꼬지에 꿰어.(어. 잘라가지고 또 이렇게 잘라가지고 꼬지에 꿰어.)

112053 @ 아.(아.)

112053 #1 그게 포적이주게. 그거 사용허면 그게 포적이주게.(그게 포적이지. 그거 사용하면 그게 포적이지.)

112053 @ 그건 누가 준비헤마씨?(그건 누가 준비해요?)

112053 #1 그거 제사허는 사람이 준비허는 거주게.(그거 제사하는 사람이 준비하는 거지.)

112054 @ 그럼 떡 잇잖아예?(그럼 떡 잇잖아요?)

112054 #1 어.(어.)

112054 @ 떡은 몇 종류 준비헤마씨?(떡은 몇 종류 준비해요?)

112054 #1 떡은 자기 므음 대로 허여. 상에 아니 올라가는 게 잇고 상에 올라가

는 잇주게.(떡은 자기 마음 대로 해. 상에 안 올라가는 게 있고 상에 올라가는 게 있지.)

112054 @ 그거 얘기해 줘서. 상에 올라가는 거랑 안 올라가는 거랑.(그거 얘기해 주십시오. 상에 올라가는 거랑 안 올라가는 거랑.)

112054 #1 떡은 뭔가 상에 벨로 올라가는 거는 안 올라가는 거는. 보통 다 올라가. 과일은 복숭아는 안 올라가.(떡은 뭔가 상에 벨로 올라가는 거는 안 올라가는 거는. 보통 다 올라가. 과일은 복숭아는 안 올라가.)

112054 @ 복숭아는 안 올라가고마씨?(복숭아는 안 올라가고요?)

112054 #1 어. 지금도 제사상에 복숭아는 안 올라가. 복숭아가 왜 안 올라가면 복숭아 여자 여자게.(어. 지금도 제사상에 복숭아는 안 올라가. 복숭아가 왜 안 올라가면 복숭아 여자 여자.)

112054 @ 그럼 떡도 안 올라가는 거 잇어마씨?(그럼 떡도 안 올라가는 거 잇어요?)

112054 #1 엇다.(없다.)

112056 @ 채소도 잇잖아예?(채소도 잇잖아요?)

112056 #1 채소도 마찬가지로.(채소도 마찬가지로.)

112056 @ 채소는 어떤 거 준비해마씨?(채소는 어떤 거 준비해요?)

112056 #1 잇는 거 그냥 쓰주게. 지금 쓰는 거 나물이나 그런 거 마찬가지로.(잇는 거 그냥 쓰지. 지금 쓰는 거 나물이나 그런 거 마찬가지로.)

112057 @ 그럼 진설은 누가 해마씨?(그럼 진설은 누가 해요?)

112057 #1 진설이 뭐라. 그건 모르켜.(진설이 뭐라. 그건 모르겠다.)

112058 @ 삼촌 그럼 메랑 쟁은 누가 떠마씨?(삼촌 그럼 메랑 쟁은 누가 떠요?)

112058 #1 어?(어?)

112058 @ 메랑 쟁마씨.(메랑 쟁이요.)

112058 #1 메는 거 집에서.(메는 거 집에서.)

112058 @ 예.(예.)

112058 #1 어머니면 어머니 이녁 어머니가 돌아가면 그 때는 자식이 허는 거고.(어머니면 어머니 이녁 어머니가 돌아가면 그 때는 자식이 하는 거고.)

112058 @ 예. 쟁은?(예. 쟁은?)

112058 #1 쟁도 쟁이엔 허는 건 국이거든.(쟁도 쟁이라고 하는 건 국이거든.)

112058 @ 예.(예.)

112058 #1 미역국이야 그것도.(미역국이야 그것도.)

112058 @ 예.(예.)

112058 #1 메엔 현 거는 밥이고.(메라고 한 거는 밥이고.)

112058 @ 예. 그럼 그건 며느리가 떠마씨? 시어머니가 떠마씨?(예. 그럼 그건 며느리가 떠요? 시어머니가 떠요?)

112058 #1 보통 시어머니가 떠.(보통 시어머니가 떠.)

112059 @ 현관 알아마씨? 현관?(현관 알아요? 현관?)

112059 #1 현관.(현관.)

112059 @ 예. 현관마씨.(예. 현관이요.)

112059 #1 현관이엔 현 게 든긴 들었지만은 그거 뭐 허는 건지 몰라.(현관이라고 한 게 듣기는 들었지만 그거 뭐 하는 건지 몰라.)

112060 @ 그럼 과제 아까 얘기해신디 과제 보통 몇 시에 한다고 얘기했지마씨?(그럼 과제 아까 얘기했는데 과제 보통 몇 시에 한다고 얘기했지요?)

112060 #1 열한 시 열두 시.(열한 시 열두 시.)

112061 @ 문전제도 문전제도 지내마씨?(문전제도 문전제도 지내요?)

112061 #1 어. 문전제 있어. 것도 제사영 마찬가지로.(어. 문전제 있어. 것도 제사와 마찬가지로.)

112061 @ 예. 그건 어떻 허는 거고 언제 허는 거마씨?(예. 그건 어떻게 하는 거고 언제 하는 거예요?)

112061 #1 문전제엔 허는 거는 여기다 제사를 벌이면은.(문전제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제사를 벌이면.)

112061 @ 예.(예.)

112061 #1 여기다가 조그만 상으로 제사 저 제사를 모사. 문전제엔 현 거는 이 집이 그거 우리 영 제사 지냄수다 허는 인사라 그게. 그게 이제 제사를 하게 되면 그거 마루에 들어오는데 거기 가서 아버지 되는 사람, 집 주인 되는 분이 나 같으면 내가 가서 절 해가지고 그것을 허는 게 문전제주게.(여기다가 조그만 상으로 제사 저 제사를 모사. 문전제하고 하는 거는 이 집이 그거 우리 이렇게 제사 지내고 있습니다 하는 인사라 그게. 그게 이제 제사를 하게 되면 그거 마루에 들어오는데 거기 가서 아버지 되는 사람, 집 주인 되는 분이 나 같으면 내가 가서 절 해가지고 그것을 하는 게 문전제이지.)

112061 @ 그 제반걸기 같은 거 알아마씨? 제반걸기?(그 고수레 같은 거 알아요? 고수레?)

112061 #1 제반걸기엔 현 거는 밥 같은 거 위에 걷는 건데 잘 모르켜.(고수레라고 한 거는 밥 같은 거 위에 걷는 건데 잘 모르겠다.)

112062 @ 그럼 제반¹⁵⁸은 어떻 해마씨?(그럼 ‘제반’은 어떻게 해요?)

112062 #1 제반이엔 현 게 제사 때 제반 아니냐?(‘제반’이라고 한 게 제사 때 ‘제반’ 아니냐?)

112062 @ 예.(예.)

112062 #1 제반이라고 현 게 제사 올린 다음에 귀신 먹영 남은 꼬트머리.(‘제반’이라고 한 게 제사 올린 다음에 귀신 먹어서 남은 꼬트머리.)

112062 @ 예.(예.)

158) ‘제반’은 제사나 명절 때 제상에 있는 음식을 조금씩 골고루 뜯어서 모은 잡신용 의례를 말하는 제주어이다. = 걸명.

112062 #1 그거 왜 그러냐면 제반 걷는 거는 온갖 다 걷어 불거든.(그거 왜 그러냐면 '제반' 걷는 거는 온갖 다 걷어 버리거든.)

112062 @ 예.(예.)

112062 #1 밥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제 귀신이 가정 가는 거라. 가정 가는 뭇으로 건줄 다 허여 그제.(밥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제 귀신이 가져서 가는 거라. 가져서 가는 뭇으로 거의 다 해 그제.)

112063 @ 그럼 지제는 언제 해마씨? 지제.(그럼 지제는 언제 해요? 지제.)

112063 #1 지제?(지제?)

112063 @ 예.(예.)

112063 #1 지제는 다 알아서 허여.(지제는 다 알아서 해.)

112063 @ 다 알아서?(다 알아서?)

112063 #1 어. 그 집안에 따라서 허여.(어. 그 집안에 따라서 해.)

112063 @ 아. 집안에 따라서.(아. 집안에 따라서.)

112063 #1 어. 삼대 지제 허고.(어. 삼대 지제 하고.)

112063 @ 예.(예.)

112063 #1 또 오대꺼지도 가는 데도 잇고.(또 오대꺼지도 가는 데도 잇고.)

112064 @ 그럼 묘제는 어떻 해마씨? 묘제?(그럼 묘제는 어떻게 해요? 묘제?)

112064 #1 묘제?(묘제?)

112064 @ 예.(예.)

112064 #1 묘제는 우리 그.(묘제는 우리 그.)

112064 @ 준비는 어떻 허고 끝에 어떻 해마씨?(준비는 어떻게 하고 끝에 어떻게 해요?)

112064 #1 묘제 차리는 집이 잇어.(묘제 차리는 집이 잇어.)

112064 @ 예.(예.)

112064 #1 이제 우리 집안이면 아무 집이라도 이제 그제 묘제 차리는 집이 잇거든. 거기서 묘제 차러가지고 산으로 가.(이제 우리 집안이면 아무 집이라도 이제 그제 묘제 차리는 집이 잇거든. 거기서 묘제 차러가지고 산으로 가.)

112064 @ 산으로마씨?(산으로요?)

112064 #1 산에서 거 제 산 묘제 지내는데 거기서 다 모영 밥 먹고 가는 게 묘제주게.(산에서 거 제사 산 묘제 지내는데 거기서 다 모여서 밥 먹고 가는 게 묘제이지.)

112065 @ 제사 할 때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 엇어마씨?(제사 할 때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 없어요?)

112065 #1 그런 건 엇고.(그런 건 없고.)

112065 @ 그래도 뭐 허지 마라 잇지 았아마씨?(그래도 뭐 하지 마라 잇지 았아요?)

112065 #1 벨다른 거 잇어? 제사 때는 이녁 아버지 제사가 돌아오면은 동네 영

장이 나도 안 가. 못 가게 현단 말이야 비린다고. 아버지가 안 온다고.(별다른 거 있어? 제사 때는 이녁 아버지 제사가 돌아오면 동네 장사가 나도 안 가. 못 가게 한다 말이야 비린다고. 아버지가 안 온다고.)

13. 민간요법

113001 @ 이발할 때 머리에 뭐 나는 거 잇인디 그게 기계총마씨. 그거 들어본 적 있어마씨?(이발할 때 머리에 뭐 나는 것 있는데 그게 기계총이예요. 그거 들어본 적 있어요?)

113001 #1 지금은 사람들이 깨끗하게 살아나부난 옛일 건디.(지금은 사람들이 깨끗하게 살아나버리니까 없을 건데.)

113001 @ 예.(예.)

113001 #1 옛날엔 툼툼이 잇는 거주게. 약 같은 거는 모르켜. 그 니영 혼 거 모르지? 그거 잡지 아니허면 기계총에 걸리는 거주게. 사람 머리에.(옛날에는 툼툼이 잇는 거지. 약 같은 거는 모르겠다. 그 이라고 한 거 모르지? 그거 잡지 않으면 기계총에 걸리는 거지. 사람 머리에.)

113003 @ 머리에 하얀 거 비듬 많이 생기면 어떻게 허면 사라진다고 허는 거 들어본 적 있어마씨?(머리에 하얀 거 비듬 많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사라진다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없어요?)

113003 #1 그건 못 들어봤어.(그건 못 들어봤어.)

113004 @ 버짐 날 때 치료하는 거 잇언마씨?(버짐 날 때 치료하는 거 있었어 용?)

113004 #1 지금 먹 잇잖아. 춤먹 잇고 숯먹 잇어. 춤먹으로 그걸 곁아서 그 물로 바르면은 떨어진다고 했어.(지금 먹 잇잖아. 참먹 잇고 숯먹 잇어. 참먹으로 그걸 곁아서 그 물로 바르면 떨어진다고 했어.)

113006 @ 여드름은 어떻 치료헨마씨?(여드름은 어떻게 치료했어요?)

113006 #1 여드름은 별 게 엇어. 그건 짜줘야지.(여드름은 별 게 없어. 그건 짜줘야지.)

113006 @ 그럼 여드름을 여기선 뭐라고 헨마씨?(그럼 여드름을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113006 #1 느끼비가 여드름이여.(‘느끼비’가 여드름이야.)

113010 @ 눈에 다래끼 날 때는 어떻 헨마씨?(눈에 다래끼 날 때는 어떻게 했어요?)

113010 #1 그거 없애젠 허면은 오른쪽이면 오른발 왼쪽이면 왼발 발바닥에 천평구평 췌주게. 그것이 방법이라. 한글로나 아무거나 천평구평 췌주게.(그거 없애려고 하면 오른쪽이면 오른발 왼쪽이면 왼발 발바닥에 천평구평 췌지. 그것이 방법이

야. 한글로나 아무거나 천평구평 썼지.)

113012 @ 그럼 이빨 아플 때는 어떻 헨마씨?(그럼 이빨 아플 때는 어떻게 했어요?)

113012 #1 옛날에는 아프면 빠불지. 지금도 실로 잘라매가지고 빼잖아. 그전에도 실로 빠불었어.(옛날에는 아프면 빼버리지. 지금도 실로 잘라매가지고 빼잖아. 그전에도 실로 빼버렸어.)

113015 @ 그럼 홍역 걸리면 어떻 헨마씨?(그럼 홍역 걸리면 어떻게 했어요?)

113015 #1 구실이라고 허주게. 홍역 걸리면 홍역 걸리면은. 동네 한다는 건 다 알아. 돼지 잡았든 누게영 싸웠든 다 알면은 홍역 걸린 것도 다 알주게. 제신할망이라고 허주게 큰 할망. 그 할망을 불렀주게.(‘구실’이라고 하지. 홍역 걸리면 홍역 걸리면. 동네 한다는 건 다 알아. 돼지 잡았든 누구와 싸웠든 다 알면 홍역 걸린 것도 다 알지. ‘제신할망’이라고 하지 큰 할머니. 그 할머니를 불렀지.)

113019 @ 여름에 땀띠 날 때 치료하는 방법 잇언마씨?(여름에 땀띠 날 때 치료하는 방법 있었어요?)

113019 #1 그거는 짬물에. 여기 바닷물이니깐 바닷물에 들어갔다 나오민 다 낫주게. 많이 들어가불어. 바닷물 짜주게.(그거는 짬물에. 여기 바닷물이니깐 바다수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 낫지. 많이 들어가버려. 바닷물 짜지.)

113028 @ 화상 입었을 때는 어떻 치료헨마씨?(화상 입었을 때는 어떻게 치료했어요?)

113028 #1 여기서는 화상, 농촌에서는 화상 입을 때는 블라주는 건 엇고. 감자 지실 갈아서 발라주면은 낫는다고 허여.(여기서는 화상, 농촌에서는 화상 입을 때는 발라주는 건 없고. 감자 감자 갈아서 발라주면 낫는다고 해.)

113032 @ 딸꾹질 할 때는 어떻 멈추게 헨마씨?(딸꾹질 할 때는 어떻게 멈추게 했어요?)

113032 #1 딸꾹질 허면은 너 어디강 도둑질 행 왔나 행 성질나게끔 헛주게. 거 모르는 사람은 성질나주게.(딸꾹질 하면 너 어디가서 도둑질 해서 왔나 해서 성질나게끔 했지. 거 모르는 사람은 성질나지.)

113039 @ 체했을 때는 어떻 내린마씨?(체했을 때는 어떻게 내렸어요?)

113039 #1 체했을 때는 이 손가락이나 이 손가락을 이 주사바늘로 터줘. 피나면은 엇힌 거 내려간다고 허여.(체했을 때는 이 손가락이나 이 손가락을 이 주사바늘로 터줘. 피나면 엇힌 거 내려간다고 해.)

113047 @ 그러 허리 빼었을 때는 어떻 헨마씨?(그럼 허리 빼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113047 #1 옛날에는 개똥물 먹였어. 개 똥 썬 거 물 해서 먹였주게. 것도 약이라.(옛날에는 개똥물 먹였어. 개 똥 썬 거 물 해서 먹였지. 것도 약이야.)

113002 @ 삼촌 다시 한번 물어볼게예. 민간요법.(삼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민간요법.)

113002 #1 어.(어.)

113002 @ 삼촌 혹시 독창이라고 들어보셨마씨? 독창.(삼촌 혹시 독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독창.)

113002 #1 독창?(독창?)

113002 @ 그 머리가 혈면서 머리털이 끊어지거나 빠져 었어지는 병인데.(그 머리가 혈면서 머리털이 끊어지거나 빠져 없어지는 병인데.)

113002 #1 아, 그거 들어보지 안 했어.(아, 그거 들어보지 안 했어.)

113002 @ 아, 독창이라고 들어본 적 었어마씨?(아, 독창이라고 들어본 적 없습니까?)

113002 #1 당창이라고 그러지.(‘당창’이라고 그러지.)

113002 @ 당창? 당창은 뭇똥?(‘당창’? ‘당창’은 무엇입니까?)

113002 #1 머리에 그 뭇 부스럼지 나가 가지고 빠져 빠져가지고 머리가 었는 사람을 당창이라고 허주게.(머리에 그 뭇 부스레미 나가 가지고 빠져 빠져가지고 머리가 었는 사람을 독창이라고 하지.)

113002 @ 아, 당창이라고. 아, 그러면 그렇게 빠지면 뭇 어떻 먹거나 바르거나 하는 것 었언마씨?(아, ‘당창’이라고. 아, 그러면 그렇게 빠지면 뭇 어떻게 먹거나 바르거나 하는 것 없었습니까?)

113002 #1 바르는 약이 잇지만은 머리가 빠지니까.(바르는 약이 잇지만 머리가 빠지니까.)

113002 @ 예.(예.)

113002 #1 그 경 곧주게.(그 그렇게 말하지.)

113002 @ 당창? 아, 당창.(‘당창’? 아, ‘당창’.)

113002 #1 어.(어.)

113002 @ 그럼 뭇 약이나 병원이 생기면 그런 거 허는데 옛날에는 민간요법 하잖아예?(그럼 뭇 약이나 병원이 생기면 그런 거 하는데 옛날에는 민간요법 하잖아요?)

113002 #1 어.(어.)

113002 @ 뭇 바르거나.(뭇 바르거나.)

113002 #1 그렇지. 그때는 사람에 따라가지고.(그렇지. 그때는 사람에 따라가지고.)

113002 @ 예.(예.)

113002 #1 무슨 약 뭇 헤가지고 브르면 좋나 브르면 좋나 헤가면은.(무슨 약 뭇 헤가지고 바르면 좋나 바르면 좋나 헤가면.)

113002 @ 예.(예.)

113002 #1 뭇 그것에도 약 많으니까 뭇 약을 발라야 좋을지 잘 몰라.(뭇 그것에도 약 많으니까 뭇 약을 발라야 좋을지 잘 몰라.)

113002 @ 아 몰라마씨.(아 몰라요.)

113002 #1 그럼 지금 얘기해 주신 거는 옛날에 옛날에 민간요법이라고 허잖아예. 그거 아시는 거 있으면 돼마씨.(그럼 지금 얘기해 주신 거는 옛날에 옛날에 민간요법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아시는 거 있으면 돼요.)

113003 @ 머리에 요즘은 옛인디 하얀 가루 같은 거 잇잖아예?(머리에 요즘은 없는데 하얀 가루 같은 거 잇잖아요?)

113003 #1 어.(어.)

113003 @ 그거 뭐라고 허주마씨? 하얀 가루 같은 거. 머리에 나는 거.(그거 뭐라고 하지요? 하얀 가루 같은 거. 머리에 나는 거.)

113003 #1 하얀 가루?(하얀 가루?)

113003 @ 예.(예.)

113003 #1 디디티.(디디티.)

113003 @ 디디티?(디디티?)

113003 #1 너 나지 마라고.(이 나지 마라고.)

113003 @ 아니, 비듬 알아마씨? 비듬?(아니, 비듬 알아요? 비듬?)

113003 #1 비듬도 비듬도 잇고.(비듬도 비듬도 잇고.)

113003 @ 그 가루가 비듬이잖아예?(그 가루가 비듬이잖아요?)

113003 #1 어.(어.)

113003 @ 그럼 비듬 생기면 어떻 치료하주마씨? 옛날에는?(그럼 비듬 생기면 어떻게 치료하지요? 옛날에는?)

113003 #1 치료 엇지. 뭐 머리 감는 것밖에는.(치료 없지. 뭐 머리 감는 것밖에는.)

113003 @ 아.(아.)

113003 #1 요즘도 그래. 요즘도 치료가 엇어. 뭐 머리 감아버리는 것밖에는.(요즘도 그래. 요즘도 치료가 없어. 뭐 머리 감아버리는 것밖에는.)

113003 @ 그러니까 뭘로 감아야 돼마씨? 요즘은 샴푸 이런 걸로 하잖아예. 예전에는 그 비듬 생기면.(그러니까 뭘로 감아야 돼요? 요즘은 샴푸 이런 걸로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 비듬 생기면.)

113003 #1 어.(어.)

113003 @ 뭐 물에다가 타가지고 감거나 그런 건 엇언마씨?(뭐 물에다가 타가지고 감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113003 #1 그런 건 엇어.(그런 건 없어.)

113003 @ 아. 그런 건 엇어.(아. 그런 건 없어.)

113003 #1 켄디.(그런데.)

113003 @ 예.(예.)

113003 #1 췌이파리.(갯이파리.)

113003 @ 예.(예.)

113003 #1 그거 삶아가지고 물에 그 물에 감기도 허고 이 주로 헛지.(그거 삶아

가지고 물에 그 물에 감기도 하고 이 주로 했지.)

113003 @ 아 깃잎을 삶아가지고 그 물에 감안마씨?(아 깃잎을 삶아가지고 그 물에 감았어요?)

113003 #1 어. 그 물에.(어. 그 물에.)

113003 @ 그 물로 하면 좀 엷어져마씨?(그 물로 하면 좀 없어져요?)

113003 #1 그 물에 허면 엷어지고 머리도 윤 나고. 그거.(그 물에 하면 없어지고 머리도 윤 나고. 그거.)

113003 @ 그런 거 얘기허면 돼마씨.(그런 거 얘기하면 돼요.)

113005 @ 백선은 들어봤수광? 피부병인데 이렇게 전염되는 거. 균이 들어가가지고.(백선은 들어봤습니까? 피부병인데 이렇게 전염되는 거. 균이 들어가가지고.)

113005 #1 비리.(음.)

113005 @ 비리?(음?)

113005 #1 음.(음.)

113005 @ 그럼 그거 생기면 뭐 어떻 허주마씨?(그럼 그거 생기면 뭐 어떻게 하지요?)

113005 #1 이런 데 저.(이런 데 저.)

113005 @ 예.(예.)

113005 #1 뭐 가렵고 그런 거 비린다.(뭐 가렵고 그런 거 음인데.)

113005 @ 예.(예.)

113005 #1 그건 별다른 약 엷어.(그건 별다른 약 없어.)

113005 @ 아, 별다른 약 엷어마씨? 그럼 그냥?(아, 별다른 약 없어요? 그럼 그냥?)

113005 #1 그냥 찐물 곁은 디 그런 데서 목욕 잘 허고 경 헛주게. 약이 엷어.(그냥 찐물 곁은 데 그런 데서 목욕 잘 하고 그렇게 했지. 약이 없어.)

113005 @ 약, 약은 엷어도 되고예. 그런 거 찐물 곁은 데서 목욕허고 그런 거 곁아주면 돼마씨.(약, 약은 없어도 되고요. 그런 거 찐물 곁은 데서 목욕하고 그런 거 말해주면 돼요.)

113005 #1 어.(어.)

113005 @ 찐물 곁은 데.(찐물 곁은 데.)

113005 #1 바다에 가까우면은 찐물 곁은 데서 목욕허면은 낫주게.(바다에 가까우면 찐물 곁은 데서 목욕하면 낫지.)

113007 @ 얼굴에 이렇게 꺼떻게 기미 생긴다고 하잖아예?(얼굴에 이렇게 꺼떻게 기미 생긴다고 하잖아요?)

113007 #1 지미.(기미.)

113007 @ 아, 예. 지미.(아, 예. 기미.)

113007 #1 어. 지미.(어. 기미.)

113007 @ 지미 생긴다고 허는데 그거 생기면 뭐 바르는 거 엷우광?(기미 생긴

다고 하는데 그거 생기면 뭐 바르는 거 없습니까?)

113007 #1 그거 뭐 바르는 거 없어. 그거 뽑아야주게.(그거 뭐 바르는 거 없어. 그거 뽑아야지.)

113007 @ 아. 뽑아야 돼마씨?(아. 뽑아야 돼요?)

113007 #1 옛날은 옛날에는 그거 그냥 뒤틀인디 요즘은 뽑은다고 허더라.(옛날은 옛날에는 그거 그냥 뒀는데 요즘은 뽑는다고 하더라.)

113007 @ 예. 요즘은 뽑아 버리주마씨.(예. 요즘은 뽑아 버리지요.)

113008 @ 그럼 지미랑 비슷한 거 잇잖아예?(그럼 기미랑 비슷한 거 잇잖아요?)

113008 #1 어.(어.)

113008 @ 이렇게 점점점점 나는 거. 그걸 뭐라고 허주마씨?(이렇게 점점점점 나는 거. 그걸 뭐라고 하지요?)

113008 #1 너드름?(여드름?)

113008 @ 너드름 말고예. 주근깨, 파리똥¹⁵⁹⁾?, 프리똥?(여드름 말고요. 주근깨, ‘파리똥’? 프리똥?)

113008 #1 그게 지미주게.(그게 기미이지.)

113008 @ 프리똥이 지미똥?(‘프리똥’이 기미입니까?)

113008 #1 어.(어.)

113008 @ 근데 지미랑 프리똥이랑은 다른 거 아니똥?(근데 기미랑 ‘프리똥’과는 다른 거 아닙니까?)

113008 #1 다른 거 아니.(다른 거 아니.)

113008 @ 아.(아.)

113008 #1 지미가 그거라. 얼굴에 까맣게 난 거 그거 한 가지주게.(기미가 그거야. 얼굴에 까맣게 난 거 그거 한 가지이지.)

113008 @ 그러면 언제 지미라고 허고 언제 프리똥이라고 헤마씨?(그러면 언제 기미라고 하고 언제 ‘프리똥’이라고 해요?)

113008 #1 그거 별도로 뭐 없어.(그거 별도로 뭐 없어.)

113008 @ 아 별도로 없어마씨.(아 별도로 없어요.)

113008 #1 나면 저거 뭐 지미라고 허여.(나면 저거 뭐 기미라고 해.)

113008 @ 아 삼촌은 지미라고 허고.(아 삼촌은 기미라고 하고.)

113008 #1 어, 지미 낫저 허여.(어, 기미 낫다 해.)

113009 @ 그럼 피부에 볼록하게 난 거 사마귀 낫다고 하잖아예?(그럼 피부에 볼록하게 난 거 사마귀 낫다고 하잖아요?)

113009 #1 어?(어?)

113009 @ 피부에 이렇게 납작하게 돋은 검은 균살 같은 거.(피부에 이렇게 납작하게 돋은 검은 균살 같은 거.)

113009 #1 어.(어.)

159) ‘파리똥, 프리똥’은 ‘주근깨’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13009 @ 그거 사마귀라고 하는데 혹시 알아마씨?(그거 사마귀라고 하는데 혹시 알아요?)

113009 #1 그건 몰라. 여기는 그런 거 안 봤어.(그건 몰라. 여기는 그런 거 안 봤어.)

113009 @ 사막. 사막 낫다고 안 헤마씨?(사마귀. 사마귀 낫다고 안 해요?)

113009 #1 그런 병이 었엇어. 여기는.(그런 병이 없엇어. 여기는.)

113011 @ 그럼 지금 잠 못자거나 피곤하면 눈 빨강게 돼잖아예.(그럼 지금 잠 못자거나 피곤하면 눈 빨강게 되잖아요.)

113011 #1 어.(어.)

113011 @ 눈 충혈 웬다고 하잖아예? 빨강게 웬 거.(눈 충혈 된다고 하잖아요? 빨강게 된 거.)

113011 #1 눈 빨강게 웬 거 벨도로 뭐.(눈 빨강게 된 거 별도로 뭐.)

113011 @ 그때는 뭐 바르는 거 었언마씨?(끄대는 뭐 바르는 거 없엇어요?)

113011 #1 그때도 뭐 그런 병이란 거 었엇어.(그때도 뭐 그런 병이란 거 없엇어.)

113012 @ 그면 치통 이빨 막 아프면 뽑아불잖아예. 뽑는 거 말고 이빨 막 아프면 먹는 거 었어신가마씨?(그러면 치통 이빨 막 아프면 뽑아버리잖아요. 뽑는 거 말고 이빨 막 아프면 먹는 거 없엇어요?)

113012 #1 먹는 게 그 저 벌거지 먹는 것에.(먹는 게 그 저 벌레 먹는 것에.)

113012 @ 벌거지 먹는 것에?(벌레 먹는 것에?)

113012 #1 벌거지 먹는 거 이빨에 벌거지 먹는 것에.(벌레 먹는 거 이빨에 벌레 먹는 것에.)

113012 @ 예.(예.)

113012 #1 그 일름 잇엇인다.(그 이름 있었는데.)

113012 @ 아.(아.)

113012 #1 그거 그거 일름 오래뉘부난 잇어버렸다.(그거 그거 이름 오래뉘버리니까 잇어버렸다.)

113012 @ 아 괜찮아마씨. 그럼 그거 뭐 허는 것 잇언마씨?(아 괜찮아요. 그럼 그거 뭐 하는 것 있었어요?)

113012 #1 어. 허는 게 잇엇주게. 그거 툭 허영 백반 백반.(어. 하는 게 있었지. 그거 툭 해서 백반 백반.)

113012 @ 백반.(백반.)

113012 #1 어.(어.)

113012 @ 백반이 뭐짱?(백반이 무엇입니까?)

113012 #1 백반이 얼음 님은 거 있다.(백반이 얼음 님은 거 있다.)

113012 @ 얼음 님은 거?(얼음 님은 거?)

113012 #1 어. 그거 쪼금 따 가지고.(어. 그거 쪼금 따 가지고.)

113012 @ 예.(예.)

113012 #1 버랭이 먹은 그 먹는 데 툇 그 속에 들이놓면 벌거지가 죽주게.(벌레 먹은 그 먹는 데 툇 그 속에 들이놓면 벌레가 죽지.)

113012 @ 아 그럼 이빨 아플 때는 그거 넣어마씨?(아 그럼 이빨 아플 때는 그거 넣어요?)

113012 #1 어. 그거 먹는 것이 아니고 이빨 속으로 놔줘. 놔.(어. 그거 먹는 것이 아니고 이빨 속으로 놔줘. 놔.)

113012 @ 아. 이빨 속으로 그냥 놔.(아. 이빨 속으로 그냥 놔.)

113012 #1 어. 벌거지 먹으면 고냥 나올 거 아니냐?(어. 벌레 먹으면 구멍 나올 거 아니냐?)

113012 @ 예.(예.)

113012 #1 그럼 그 속으로 넣어줘. 백반이라고.(그럼 그 속으로 넣어줘. 백반이라고.)

113012 @ 거 이렇게 담아주면 아픈 게 좀 잊어마씨?(거 이렇게 담아주면 아픈 게 좀 없어요?)

113012 #1 아픈 게 잊어지고 뭔가 벌거지 먹는 벌거지가 죽어분다.(아픈 게 잊어지고 뭔가 벌레 먹는 벌레가 죽어버린다.)

113012 @ 아, 벌거지가 죽어부난. 이빨 아픈 거는 벌거지 때문에 아픈 거니깐 예.(아, 벌레가 죽어버리니까. 이빨 아픈 거는 벌레 때문에 아픈 거니까요.)

113012 #1 그렇지. 충치라는 거는 그게 약이 잊어.(그렇지. 충치라는 거는 그게 약이 없어.)

113012 @ 약이 잊어마씨?(약이 없어요?)

113012 #1 어.(어.)

113013 @ 그 헛바늘 잇잖아예? 피곤하면 혀에 뭐 나잖아예.(그 헛바늘 잇잖아예? 피곤하면 혀에 뭐 나잖아예.)

113013 #1 어.(어.)

113013 @ 그거 낫을 때는 뭐 어떻 허주마씨?(그거 낫을 때는 뭐 어떻게 하지요?)

113013 #1 옛날에?(옛날에?)

113013 @ 예.(예.)

113013 #1 그거 나면 그냥 놔두주게. 그게 뭐 바를 수가 잊었어.(그거 나면 그냥 놔두지. 그게 뭐 바를 수가 없었어.)

113013 @ 뭐 바를 수 잊언마씨? 그냥 푹 쉬는 게 낫기는 한데. 아까처럼 깻잎이나 그런 거 뭐.(뭐 바를 수 없었어요? 그냥 푹 쉬는 게 낫기는 한데. 아까처럼 깻잎이나 그런 거 뭐.)

113013 #1 아니, 그것에는 약이 잊어.(아니, 그것에는 약이 없어.)

113014 @ 삼촌 호열자 알아마씨? 호열자?(삼촌 호열자 알아요? 호열자?)

113014 #1 호열자?(호열자?)

113014 @ 예.(예.)

113014 #1 호열자 영 그것사 이제도 나오는 것이 호열자주게.(호열자 이렇게 그
것이야 이제도 나오는 것이 호열자이지.)

113014 @ 옛날에도 호열자 잇었지예?(옛날에도 호열자 있었지요?)

113014 #1 그렇지. 옛날에도 호열자로 많이 죽었지.(그렇지. 옛날에도 호열자로
많이 죽었지.)

113014 @ 많이 죽언마씨? 이 동네에서도?(많이 죽었어요? 이 동네에서도?)

113014 #1 이 동네에서는 모르지만 호열자 들었다 허면은 그 부락은 전멸 당
허니까.(이 동네에서는 모르지만 호열자 들었다 하면 그 부락은 전멸 당하니까.)

113014 @ 아 전멸 당해마씨? 제주도에서 들어보션마씨?(아 전멸 당해요? 제주
도에서 들어보셨어요?)

113014 #1 어, 들어봤을 뿐이지 아직은 이 동네에서는 엇었어.(어, 들어봤을 뿐
이지 아직은 이 동네에서는 없었어.)

113014 @ 다행이우다.(다행입니다.)

113016 @ 그럼 그 육지말로 학질이라고 허는데.(그럼 그 육지말로 학질이라고
하는데.)

113016 #1 어.(어.)

113016 @ 그 풋터는뽕¹⁶⁰? 풋터는빙? 털러귀? 들어보션마씨?(그 ‘풋터는뽕’?
‘풋터는빙’? ‘털러귀’? 들어보셨어요?)

113016 #1 학질?(학질?)

113016 @ 예.(예.)

113016 #1 질 건너가당이라도 학질 걸리면 타닥타닥 털면서 터는 거?(길 건너
가다가 학질 걸리면 타닥타닥 털면서 터는 거?)

113016 @ 예.(예.)

113016 #1 간질.(간질.)

113016 @ 아, 간질? 이게 그 구토나 이렇게 나오는 병인디.(아, 간질? 이게 그
구토나 이렇게 나오는 병인디.)

113016 #1 게꿈 물고.(거품 풀고.)

113016 @ 아, 예.(아, 예.)

113016 #1 거 간질.(거 간질.)

113016 @ 아, 간질. 그럼 그거 걸린 사람 본 적 잇우광?(아, 간질. 그럼 그거 걸
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113016 #1 응. 봤어.(응. 봤어.)

113016 @ 아, 그럼 어떻 해야돼마씨?(아, 그럼 어떻게 해야돼요?)

113016 #1 그 사람은 그게 허게 돼면은.(그 사람은 그게 하게 되면.)

160) ‘풋터는뽕, 풋터는빙, 털러귀’는 ‘학질’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13016 @ 예.(예.)

113016 #1 질을 걷다가도.(길을 걷다가도.)

113016 @ 예.(예.)

113016 #1 계꿈 물면서 다다다닥 허면서 박아져붙어.(거품 물면서 다다다닥 하면서 앞으로 넘어져버려.)

113016 @ 아 박아져버려마씨.(아 앞으로 넘어져버려요.)

113016 #1 경 해난 십 분 이십 분 잊이든 저절로 깨어나붙어.(그렇게 하니까 십 분 이십 분 있으면 저절로 깨어나버려.)

113016 @ 그건 좀 잇다가 다시 물어볼게예.(그건 좀 잇다가 다시 물어볼게요.)

113017 @ 삼촌 컷둥치기 알아마씨? 컷둥치기?(삼촌 컷둥치기 알아요? 컷둥치기?)

113017 #1 말만 들었지.(말만 들었지.)

113017 @ 여기 쪽에 아픈 거.(여기 쪽에 아픈 거.)

113017 #1 어. 그건 말만 들었어.(어. 그건 말만 들었어.)

113017 @ 아, 말만 들었어?(아, 말만 들었어요?)

113017 #1 어.(어.)

113017 @ 이거 불거리라고 허는데. 컷둥치기.(이거 불거리라고 하는데. 컷둥치기.)

113017 #1 그건 잘 모르켜.(그건 잘 모르겠다.)

113018 @ 그럼 막 목이 아프거나 그런 거 목이 아프면 그걸 뭐라고 허주마씨?(그럼 막 목이 아프거나 그런 거 목이 아프면 그걸 뭐라고 하지요?)

113018 #1 목이 아프고 뭐 허면?(목이 아프고 뭐 하면?)

113018 @ 목거리라고 들어본 적 잇어마씨?(목거리라고 들어본 적 없어요?)

113018 #1 그런 건 들어본 적 잇어.(그런 건 들어본 적 없어.)

113018 @ 그럼 목 막 아프면 어떻 해마씨? 소금물 먹거나 그런 거 잇어마씨?(그럼 목 막 아프면 어떻게 해요? 소금물 먹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113018 #1 목 아플 때는 별다른 약이 잇엇어.(목 아플 때는 별다른 약이 없엇어.)

113020 @ 그면 피부에 종기 같은 거 나잖아예? 부스럼? 부스럼이라고 해마씨?(그러면 피부에 종기 같은 거 나잖아요? 부스럼? 부스럼이라고 해요?)

113020 #1 종기 같은 거 나면 부스럼이라고 허는다.(종기 같은 거 나면 부스럼이라고 하는데.)

113020 @ 예.(예.)

113020 #1 그것에도 약 잇어.(그것에도 약 없어.)

113020 @ 이것도 약 잇고.(이것도 약 없고.)

113021 @ 그른 살갓이 헐어가지고 헐리? 헐리라고 해마씨? 살갓이 현 거.(그러면 살갓이 헐어가지고 현데? 현데라고 해요? 살갓이 현 거.)

113021 #1 헐리 낫다고 허주게.(헌데 낫다고 하지.)

113021 @ 헐리 낫다고 헤마씨? 그럼 보통 언제 헐리 나주마씨?(헌데 낫다고 해요? 그럼 보통 언제 헌데 나지요?)

113021 #1 그거야 때가 어디 때가 있나?(그거야 때가 어디 때가 있나?)

113021 @ 아, 때가 엇어마씨?(아, 때가 없어요?)

113021 #1 어. 때가 엇어.(어. 때가 없어.)

113021 @ 그러면 그거 막 헐리 낫다고 허면 어떻 해야 뭐마씨?(그러면 그거 막 헌데 낫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13021 #1 헐리 낫다면 그 종류에 따라가지고.(헌데 낫다면 그 종류에 따라가지고.)

113021 @ 예.(예.)

113021 #1 약이 지금이야 약이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은 뭔가 조금 뭐 몸에 헐리 나가거나 그럼 바닷물에 가.(약이 지금이야 약이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은 뭔가 조금 뭐 몸에 헌데 나가거나 그럼 바닷물에 가.)

113021 @ 아, 바닷물.(아, 바닷물.)

113021 #1 거기에는 짠 거 들어가야 좋으니까.(거기에는 짠 거 들어가야 좋으니까.)

113022 @ 그럼 허멀 잇잖아예? 허멀.(그럼 종기 잇잖아요? 종기.)

113022 #1 응.(응.)

113022 @ 허멀은 어떤 거주마씨? 허멀.(종기는 어떤 거지요? 종기.)

113022 #1 허멀은.(종기는.)

113022 @ 예.(예.)

113022 #1 여기 빨강게 나다가.(여기에 빨강게 나다가.)

113022 @ 예.(예.)

113022 #1 딱지 입은 게.(딱지 입은 게.)

113022 @ 아.(아.)

113022 #1 딱지 입어가지고 고름 나가지고.(딱지 입어가지고 고름 나가지고.)

113022 @ 예.(예.)

113022 #1 그런 거 나는 게 허멀.(그런 거 나는 게 종기.)

113022 @ 그것도 바닷물로 헤마씨?(그것도 바닷물로 해요?)

113022 #1 어. 그것도 바닷물로 허여. 몸에 나는 거는 바닷물 들어강 자꾸 땡기면은.(어. 그것도 바닷물로 해. 몸에 나는 거는 바닷물 들어가서 자꾸 다니면.)

113022 @ 예.(예.)

113022 #1 짠물만 들어가면 뭐 좋으니까.(짠물만 들어가면 뭐 좋으니까.)

113023 @ 삼촌 씹종도 들어봤수광? 씹종?(삼촌 습종도 들어봤습니까? 습종?)

113023 #1 어. 씹종이엔 현 거 이 머리에도 나고 다리에도 나고.(어. 습종이라고 한 거 이 머리에도 나고 다리에도 나고.)

113023 @ 예. 그 다음에 허리 아래는 무겁고 다리 아래는 팽팽하게 부르는 게 썸종인데.(예. 그 다음에 허리 아래는 무겁고 다리 아래는 팽팽하게 부르는 게 습종인데.)

113023 #1 어.(어.)

113023 @ 어, 이 썸종은 들어는 봤인데 주변에 아픈 사람은 못 봤마씨?(어, 이 습종은 들어는 봤는데 주변에 아픈 사람은 못 봤어요?)

113023 #1 못 봤어.(못 봤어.)

113023 @ 그럼 이것도 딱히 약 같은 거 모르겠냐예?(그럼 이것도 딱히 약 같은 거 모르겠군요?)

113023 #1 어. 엇어. 몸에 뭐 나는 거나 뭐 허는 거는이.(어. 없어. 몸에 뭐 나는 거나 뭐 하는 거는.)

113023 @ 예.(예.)

113023 #1 뭐 옷드리 사람은 뭐 잇일지 몰라도 여기 해변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은 바닷물밖에 엇어.(뭐 ‘옷드리’ 사람은 뭐 잇을지 몰라도 여기 해변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은 바닷물밖에 없어.)

113023 @ 아, 바닷물밖에 엇어마씨?(아, 바닷물밖에 없어요?)

113023 #1 어. 바닷물이 큰 약이다.(어. 바닷물이 큰 약이다.)

113023 @ 큰 약이다예?(큰 약이군요?)

113023 #1 어.(어.)

113024 @ 그럼 손가락 끝에 종기 나잖아예? 그걸 뭐라고 허주마씨?(그럼 손가락 끝에 종기 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지요?)

113024 #1 손가락 끝에 종기 나는 거? 그게 뭐라?(손가락 끝에 종기 나는 거? 그게 뭐라?)

113024 @ 생손?(생손?)

113024 #1 아, 생손얹이.(아, 생손얹이.)

113024 @ 예. 생손 들어보셨마씨?(예. 생손얹이 들어보셨어요?)

113024 #1 생손얹이. 이거 그 그거 손 끝에만 아니고 이런 디 아무 데나 이런 디.(생손얹이. 이거 그 그 그거 손 끝에만 아니고 이런 데 아무 데나 이런 데.)

113024 @ 예.(예.)

113024 #1 얹으면은 생손얹인다고 허주게.(얹으면 생손얹인다고 하지.)

113024 @ 아, 생손얹이라고 헤마씨? 그럼 생손얹이면 어떻 헤마씨? 그것도 바닷물에 헤마씨?(아, 생손얹이라고 해요? 그럼 생손얹이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바닷물에 해요?)

113024 #1 것도 것도 벨게 엇어. 약이 엇어.(것도 것도 벨게 없어. 약이 없어.)

113024 @ 약이 엇어. 요즘에는 안 들어봤인데 옛날에는 그 생손얹이라고 많이 들었마씨?(약이 없어. 요즘에는 안 들어봤는데 옛날에는 그 생손얹이라고 많이 들었어요?)

113024 #1 어. 옛날에는 많이 헛어. 생손이엔 현 게.(어. 옛날에는 많이 헛어. 생손얌이라고 한 게.)

113024 @ 예.(예.)

113024 #1 자기도 모르게 뭐 찢려서 내불면은 생손.(자기도 모르게 뭐 찢려서 내버리면 생손얌이.)

113024 @ 아, 자기도 모르게 찢리면 균 들어가서.(아, 자기도 모르게 찢리면 균 들어가서.)

113024 #1 응.(응.)

113025 @ 그럼 뭐 잘못 먹거나 그러면 몸에 두드러기, 두드레기 나잖아예?(그럼 뭐 잘못 먹거나 그러면 몸에 두드러기, ‘두드레기’ 나잖아요?)

113025 #1 어.(어.)

113025 @ 그럼 그 두드레기 날 때는 어떻 허주마씨?(그럼 그 두드러기 날 때는 어떻게 하지요?)

113025 #1 두드레기 날 때는.(두드러기 날 때는.)

113025 @ 예.(예.)

113025 #1 그 저 이 든 거. 지금 곁으면은 주스 곁은 거.(그 저 이 단 거. 지금 곁으면 주스 곁은 거.)

113025 @ 주스 곁은 거마씨?(주스 곁은 거요?)

113025 #1 어. 그런 거 든 거. 물 그걸로 목욕시키주게.(어. 그런 거 단 거. 물 그걸로 목욕시키지.)

113025 @ 아, 그걸로 목욕시키면 돼마씨?(아, 그걸로 목욕시키면 돼요?)

113025 #1 어.(어.)

113026 @ 여름에 막 더우면 땀두드레기 나잖아예?(여름에 막 더우면 땀띠 나잖아요?)

113026 #1 어.(어.)

113026 @ 땀띠?(땀띠?)

113026 #1 어. 땀띠.(어. 땀띠.)

113026 @ 어. 땀띠기라고 헤마씨? 그냥 땀띠라고 헤마씨? 뭐라고 헤마씨?(어. ‘땀띠기’라고 해요? 그냥 ‘땀띠’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113026 #1 땀두드레기.(‘땀두드레기’.)

113026 @ 아, 땀두드레기.(아, ‘땀두드레기’.)

113026 #1 그거 막 여름에는 나잖아예. 그거 날 때는 어떻 헤마씨?(그거 막 여름에는 나잖아요. 그거 날 때는 어떻게 해요?)

113026 @ 약? 아까 얘기 헛잖아. 바닷물에 들어가주게.(약? 아까 얘기 헛잖아. 바닷물에 들어가지.)

113026 #1 예.(예.)

113026 @ 하여튼 몸에 나는 거나 뭐 혈 때나 가렵거나 헐리 난 거나 뭐 허면

바닷물이 좋주게.(하여튼 몸에 나는 거나 뭐 할 때나 가렵거나 헌데 난 거나 뭐 하면 바닷물이 좋지.)

113027 @ 그럼 길 가다가 어린애들이 막 놀라서 경기 일으키잖아예?(그럼 길 가다가 어린애들이 막 놀라서 경기 일으키잖아요?)

113027 #1 응.(응.)

113027 @ 경기, 뭐 정새라고 헤마씨?(경기, 뭐 ‘정새’라고 해요?)

113027 #1 정새. 그거 침 맞아야.(경기. 그거 침 맞아야.)

113027 @ 아, 침 맞아야 돼마씨?(아, 침 맞아야 돼요?)

113027 #1 어.(어.)

113027 @ 그럼 그 침 놓는 사람이 따로 잇어마씨?(그럼 그 침 놓는 사람이 따로 잇어요?)

113027 #1 어. 따로 잇주게.(어 따로 있지.)

113027 @ 아.(아.)

113027 #1 정새 나면은.(경기 나면.)

113027 @ 예.(예.)

113027 #1 밤에 영 자다가도 어디 가켄 허고. 경 허면 침 맞아야 돼주.(밤에 이렇게 자다가도 어디 가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침 맞아야 돼지.)

113027 @ 그럼 옛날에는 한장동에 침 놓는 사람 잇엇수광?(그럼 옛날에는 ‘한장동’에 침 놓는 사람 잇엇습니까?)

113027 #1 한장동에 침 놓는 사람 엇어.(‘한장동’에 침 놓는 사람 엇어.)

113027 @ 그럼 정새 헌 사람은 어디 고산까지 가야돼마씨?(그럼 경기 한 사람은 어디 ‘고산’까지 가야돼요?)

113027 #1 그렇지. 침 놓는 사람 잇어난 고산까지 가야주게.(그렇지. 침 놓는 사람 잇으니까 ‘고산’까지 가야지.)

113027 @ 고산에는 그런 사람 잇언마씨?(‘고산’에는 그런 사람 잇엇어요?)

113027 #1 뭔가 그런 거 놓는 사람 그런 사람 잇주게.(뭔가 그런 거 놓는 사람 그런 사람 잇찌.)

113027 @ 아, 잇언마씨. 정새라고 허는 구나예.(아, 잇엇어요. ‘정새’라고 하는군요.)

113027 #1 어.(어.)

113027 @ 그럼 간질이랑 정새, 정새랑은 달라마씨?(그럼 간질이랑 경기, 경기와는 달라요?)

113027 #1 달라. 간질은 다니다가 박아져서 파닥파닥 허는 게 간질이고. 정새는 그 어디 아파서 허는 게 정새고.(달라. 간질은 다니다가 앞으로 넘어져서 파닥파닥 하는 게 간질이고. 경기는 그 어디 아파서 하는 게 경기고.)

113027 @ 정새는 어디 아파가지고 허는 거고?(경기는 어디 아파가지고 하는 거고?)

113027 #1 어. 정새엔 허는 거는.(어. 경기라고 하는 거는.)

113027 @ 예.(예.)

113027 #1 딱딱손이 놀랐다가 허는 건디 간질같이 허는 건 아니주게.(딱딱손이 놀랐다가 하는 건데 간질같이 하는 건 아니지.)

113029 @ 그 동상 걸리면 제주도는 따뜻해부난 잘 안 걸리는데 경 해도 겨울에 눈 많이 내리면 밖에 있으면 동상 걸리잖아예. 그러면 동상 걸리면 어떻 허주마씨?(그 동상 걸리면 제주도는 따뜻해버리니까 잘 안 걸리는데 그렇게 해도 겨울에 눈 많이 내리면 밖에 있으면 동상 걸리잖아요. 그러면 동상 걸리면 어떻게 하지요?)

113029 #1 동상도 옛날은 동상도 엇주만은 지금도 걸리지 않고이. 동상도 그거 약이 엇어.(동상도 옛날은 동상도 없지만 지금도 걸리지 않고. 동상도 그거 약이 없어.)

113029 @ 아.(아.)

113029 #1 동상 걸리는 사람도 엇고.(동상 걸리는 사람도 없고.)

113030 @ 그럼 감기약, 요즘에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잖아예? 옛날에는 뭐 소주에 고춧가루 탕 먹었수광?(그럼 감기약, 요즘에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잖아요? 옛날에는 뭐 소주에 고춧가루 타서 먹었습니까?)

113030 #1 옛날에 뭐 그런 것도 잇엇지만.(옛날에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113030 @ 예.(예.)

113030 #1 뭔가 소주에 고춧가루 탕 남자들은 허주만은 여자들은 하여튼 몸 관리가 최고주게.(뭔가 소주에 고춧가루 타서 남자들은 하지만 여자들은 하여튼 몸 관리가 최고이지.)

113030 @ 예. 그럼 어떻 관리했주마씨? 감기 걸리면은?(예. 그럼 어떻게 관리했지요? 감기 걸리면?)

113030 #1 감기 걸리면?(감기 걸리면?)

113030 @ 예.(예.)

113030 #1 입을 언제나 트지 말고.(입을 언제나 뜨지 말고.)

113030 @ 뭐마씨?(뭐요?)

113030 #1 언제나 입 막양 뎡기고. 몸 뜻게 허고.(언제나 입 막아서 다니고. 몸 따뜻하게 하고.)

113030 @ 입 막젠 허면 요즘에는 마스크 쓰는데 옛날은?(입 막으려고 하면 요즘에는 마스크 쓰는데 옛날은?)

113030 #1 옛날은 수건이주게.(옛날은 수건이지.)

113030 @ 아, 그냥 수건으로?(아, 그냥 수건으로?)

113030 #1 어. 미녕으로 흰 수건으로. 게고 찬 거 먹지 못허게.(어. 무명으로 한 수건으로. 그리고 찬 거 먹지 못하게.)

113030 @ 아, 찬 거 먹지 못하게 허고.(아, 찬 거 먹지 못하게 하고.)

113030 #1 흰죽 썩 먹고. 땀 나불른 좋아.(흰죽 썩서 먹고. 땀 나버리면 좋아.)

113030 @ 아, 땀 나면 좋아마씨?(아, 땀 나면 좋아요?)

113031 @ 그럼 기침 막 많이 날 때는 어떻 허주마씨?(그럼 기침 막 많이 날 때는 어떻게 하지요?)

113031 #1 기침?(기침?)

113031 @ 예. 그거 막 많이 날 때는 따로 약이 엇어마씨?(예. 그거 막 많이 날 때는 따로 약이 없어요?)

113031 #1 지금 지금도 약이 엇어.(지금 지금도 약이 없어.)

113031 @ 예. 약은 엇인디 옛날에 따로 먹었던 거는 엇언마씨?(예. 약은 없는데 옛날에 따로 먹었던 거는 없었어요?)

113031 #1 엇어. 엇어.(없어. 없어.)

113033 @ 그럼 코피 날 때는 어떻 헨마씨? 코피 날 때.(그럼 코피 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코피 날 때.)

113033 #1 코피 날 때? 고단허니까 코피 난다고 허주게.(코피 날 때? 고단하니까 코피 난다고 하지.)

113033 @ 예. 고단허니까 코피 나는데. 그냥 휴지로 막아마씨?(예. 고단하니까 코피 나는데. 그냥 휴지로 막아요?)

113033 #1 속.(속.)

113033 @ 속?(속?)

113033 #1 속을 영 박박 비벼가지고.(속을 이렇게 박박 비벼가지고.)

113033 @ 아, 비벼가지고.(아, 비벼가지고.)

113033 #1 속 냄새가 그것도 약이다.(속 냄새가 그것도 약이다.)

113033 @ 아, 속 냄새?(아, 속 냄새?)

113033 #1 그거 영 박박 비벼가지고 막으면 그 속 그 냄새가 나거든.(그거 이렇게 박박 비벼가지고 막으면 그 속 그 냄새가 나거든.)

113033 @ 예.(예.)

113033 #1 그 냄새가 이 안에 들어가면은.(그 냄새가 이 안에 들어가면.)

113033 @ 예.(예.)

113033 #1 좋아불주게.(좋아버리지.)

113033 @ 아, 경 허민 좋아마씨?(아, 그렇게 하면 좋아요?)

113033 #1 어.(어.)

113034 @ 그럼 침 이런 하얀색 침.(그럼 침 이런 하얀색 침.)

113034 #1 가래?(가래?)

113034 @ 예 가래인데. 제주도말로 가래는 뭐라고 허주마씨?(예 가래인데. 제주도말로 가래는 뭐라고 하지요?)

113034 #1 가래엔 허지.(가래라고 하지.)

113034 @ 게춤?(‘게춤’?)

113034 #1 게춤.(‘게춤’.)

113034 @ 아. 게춤이라고 허지예?(아, ‘게춤’이라고 하지요?)

113034 #1 어. 게춤이엔도 허고.(어. ‘게춤’이라고도 하고.)

113034 @ 예.(예.)

113034 #1 가래 이제는 가래라고 허주 이제는. 게춤이라고 안 허주게.(가래 이
 제는 가래라고 하지 이제는. ‘게춤’이라고 안 하지.)

113034 @ 예. 그럼 게춤 나오면 뭐 먹는 거 잇수광? 막 많이 나오면?(예. 그럼
 가래 나오면 뭐 먹는 거 있습니까? 막 많이 나오면?)

113034 #1 먹는 거 엇어.(먹는 거 없어.)

113035 @ 그럼 이렇게 여기 넓적다리잖아예?(그럼 이렇게 여기 넓적다리잖아
 요?)

113035 #1 어.(어.)

113035 @ 이렇게 넓적다리에 그 넓적다리에 여기에 부어가지고 멍 생기는 거를
 뭐라고 안헤마씨? 가래뚫이라고 허는데 제주도말로는 뭐 늦인돌?(이렇게 넓적다리
 에 그 넓적다리에 여기에 부어가지고 멍 생기는 거를 뭐라고 안 해요? 가래뚫이라
 고 하는데 제주도말로는 뭐 ‘늦인돌’?)

113035 #1 어?(어?)

113035 @ 늦인돌? 안 들어보션마씨?(‘늦인돌’? 안 들어보셨어요?)

113035 #1 그것도 안 들어보고 그런 거 허는 사람도 엇고.(그것도 안 들어보고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없고.)

113036 @ 그럼 변소 간 다음에 설사 하잖아예? 설사.(그럼 변소 간 다음에 설
 사 하잖아요? 설사.)

113036 #1 어. 설사.(어. 설사.)

113036 @ 설세라고는 안 헤마씨?(‘설세’라고는 안 해요?)

113036 #1 설세라고 안 헤. 설사.(‘설세’라고 안 헤. 설사.)

113036 @ 설사 날 때는 뭐 헤야 뉘마씨?(설사 날 때는 뭐 헤야 돼요?)

113036 #1 굶어야 뉘.(굶어야 돼.)

113036 @ 아, 굶어야 뉘마씨?(아, 굶어야 돼요?)

113036 #1 어.(어.)

113036 @ 굶으면 그냥 나아마씨?(굶으면 그냥 나아요?)

113036 #1 그렇지.(그렇지.)

113036 @ 며칠 굶어야 뉘마씨.(며칠 굶어야 돼요?)

113036 #1 하여튼 하루는 굶어야 뉘.(하여튼 하루는 굶어야 돼.)

113036 @ 요즘에는 막 설사하민 약 먹엇인디 옛날에는 약 엇이난.(요즘에는 막
 설사하면 약 먹엇는데 옛날에는 약 없으니까.)

113036 #1 약 엇이난 굶어야 뉘주게. 먹으면 또 설사 나고 허니까.(약 없으니까
 굶어야 뉘지. 먹으면 또 설사 나고 하니까.)

113037 @ 옛날에 지금은 엇일 거 닳은디 옛날에 변에 이렇게 곱이 섞여 나와서

이렇게 병 걸리는 거 잇잖아예?(옛날엔 지금은 없을 거 났는데 옛날에 변에 이렇게
곱이 섞여 나와서 이렇게 병 걸리는 거 잇잖아요?)

113037 #1 어.(어.)

113037 @ 이질? 이질뽕¹⁶¹? 췌움?(이질? ‘이질뽕’? ‘췌움’?)

113037 #1 이질이옴.(이질이라고.)

113037 @ 뒤틀움이라고는 안 들어보셨마씨?(‘뒤틀움’이라고는 안 들어보셨어
요?)

113037 #1 치질, 치질.(치질, 치질.)

113037 @ 치질은 그거 아픈 거고.(치질은 그거 아픈 거고.)

113037 #1 어.(어.)

113037 @ 똥에 이상헌 곱 같은 거 섞영 나오는 게 잇인다.(똥에 이상한 곱 같
은 거 섞여서 나오는 게 잇는데.)

113037 #1 그건 안 들어보고.(그건 안 들어보고.)

113038 @ 그면 뭐 음식 같은 거 먹어가지고 체해서 토하고 설사하는 위장병 그
런 거 알아마씨?(그러면 뭐 음식 같은 거 먹어가지고 체해서 토하고 설사하는 위장
병 그런 거 알아요?)

113038 #1 그계.(그계.)

113038 @ 곱난이?(곱란?)

113038 #1 곱난이병?(곱란?)

113038 @ 예. 곱난이병. 알아마씨?(예. 곱란. 알아요?)

113038 #1 어. 곱난이 걸렸다.(어. 곱란 걸렸다.)

113038 @ 그건 뭇뽕?(그건 무엇입니까?)

113038 #1 죽은 사람 걸렸다고.(죽은 사람 걸렸다고.)

113038 @ 죽은 사람 걸렸다고마씨?(죽은 사람 걸렸다고요?)

113038 #1 곱난이옴 현 게 그거주계. 죽은 사람 걸렸다고.(곱란이라고 한 게 그
거이지. 죽은 사람 걸렸다고.)

113038 @ 그건 어뎡 치료해야 뽕마씨?(그건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113038 #1 치료할 게 옳어.(치료할 게 없어.)

113038 @ 아, 그냥?(아, 그냥?)

113038 #1 내불면 좋아.(내버리면 좋아.)

113038 @ 아, 그냥 내불면 좋아마씨?(아, 그냥 내버리면 좋아요?)

113040 @ 그럼 이렇게 칼에 베이면 피 나잖아예?(그럼 이렇게 칼에 베이면 피
나잖아요?)

113040 #1 어.(어.)

113040 @ 요즘에야 연고도 바르고 반찬고도 바르고 허는디 예전에 칼에 베이면
어뎡 헨마씨?(요즘에야 연고도 바르고 반찬고도 바르고 하는데 예전에 칼에 베이면

161) ‘이질뽕, 췌움, 뒤틀움’은 ‘이질’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어떻게 했어요?)

113040 #1 베이면은 속.(베이면 썩.)

113040 @ 속. 속 발라마씨?(썩. 썩 발라요?)

113040 #1 속을.(썩을.)

113040 @ 예.(예.)

113040 #1 이렇게 허면은 물이 나오주게.(이렇게 하면 물이 나오지.)

113040 @ 예.(예.)

113040 #1 그러면 그거 브르면 좋아.(그러면 그거 바르면 좋아.)

113040 @ 그럼 그 속이 뭐팡?(그럼 그 썩이 무엇입니까?)

113040 #1 속이 밧 이 뭔가 질에도 나고 밧에도 나고 하지만은.(썩이 밧 이 뭔가 길에도 나고 밧에도 나고 하지만.)

113040 @ 예.(예.)

113040 #1 썩갓 잇잖아?(썩갓 잇잖아?)

113040 @ 예.(예.)

113040 #1 그거 닳은 거 잇어.(그거 닳은 거 잇어.)

113040 @ 아, 썩갓 같은 거 그거 행 이렇게 뿡아근앵 허는 거지예?(아, 썩갓 같은 거 그거 해서 이렇게 뿡아서 하는 거지요?)

113040 #1 어. 손으로 이렇게 비병도 허고.(어.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도 하고.)

113040 @ 아, 손으로 비벼가지고?(아, 손으로 비벼가지고?)

113040 #1 손으로 이렇게 비비면 물 나오주게. 물 나오민 그걸 이렇게 행 딱 붙영.(손으로 이렇게 비비면 물 나오지. 물 나오면 그걸 이렇게 해서 딱 붙여서.)

113040 @ 아, 그럼 베인 데 그런 거 바르면 나아마씨?(아, 그럼 베인 데 그런 거 바르면 나아요?)

113040 #1 어.(어.)

113041 @ 그럼 모기 물렸을 때는 간지럽잖아예?(그럼 모기 물렸을 때는 간지럽잖아요?)

113041 #1 어.(어.)

113041 @ 그때는 그냥 된마씨? 침 바르지는 았안마씨?(그때는 그냥 뿔어요? 침 바르지는 았았어요?)

113041 #1 그것에는 약이 엇어.(그것에는 약이 없어.)

113041 @ 경 해도 아까 속 같은 거처럼 바르는 거 엇수광?(그렇게 해도 아까 썩 같은 거처럼 바르는 거 없었습니까?)

113041 #1 옛날에 그런 게 엇어. 그건 속 안 들어.(옛날에 그런 게 없어. 그건 썩 안 들어.)

113041 @ 아, 그건 속 안 들어? 그럼 모기는 지금이 많아마씨? 옛날이 많아마씨?(아, 그건 썩 안 들어? 그럼 모기는 지금이 많아요? 옛날이 많아요?)

113041 #1 옛날이 많았주게.(옛날이 많았지.)

113041 @ 아, 옛날이 많안마씨? 그럼 옛날에 고생 많이 헛겔다예?(아, 옛날이 많았어요? 그럼 옛날에 고생 많이 헛겔군요?)

113041 #1 옛날에는 각 도랑마다 물이 잇어부난.(옛날에는 각 도랑마다 물이 잇어버리니까.)

113042 @ 그럼 뱀은 이 동네 잇엇수광? 뱀?(그럼 뱀은 이 동네 잇엇습니까? 뱀?)

113042 #1 뱀 트멍에 보여.(뱀 틈에 보여.)

113042 @ 아, 트멍에 보여? 그럼 뱀한테 물린 적은 잇어마씨?(아, 틈에 보여? 그럼 뱀한테 물린 적은 없엇어요?)

113042 #1 잇어.(없어.)

113042 @ 그럼 뱀한테 물리면 어떻 헛주마씨?(그럼 뱀한테 물리면 어떻게 헛지요?)

113042 #1 뱀한테 물리면 따로 약이 잇어.(뱀한테 물리면 따로 약이 없어.)

113042 @ 약이 잇어마씨? 그럼 바로 죽어마씨? 아니면?(약이 없어요? 그럼 바로 죽어요? 아니면?)

113042 #1 옛날부터 뱀에 물려 약이 엇다고 허여.(옛날부터 뱀에 물려 약이 없다고 해.)

113042 @ 옛날에 뱀 많앗구나예. 요즘에는 뱀 거의 잇잖아예?(옛날에 뱀 많았군요. 요즘에는 뱀 거의 없잖아요?)

113042 #1 옛날도이.(옛날도.)

113042 @ 예.(예.)

113042 #1 병원은 잇어도.(병원은 없어도.)

113042 @ 예.(예.)

113042 #1 의사는 잇엇으니까.(의사는 잇엇으니까.)

113042 @ 아, 의사는 잇엇으니까.(아, 의사는 잇엇으니까.)

113042 #1 계난 뱀한테 물리면 즉시 의사한테 강 피 뽑아야주게.(그러니까 뱀한테 물리면 즉시 의사한테 가서 피 뽑아야지.)

113043 @ 그럼 벌한테도 쏘이잖아예?(그럼 벌한테도 쏘이잖아요?)

113043 #1 어?(어?)

113043 @ 벌초 가면 이렇게 벌한테 쏘이기도 하잖아예? 그럼 벌한테 쏘이면 어떻 허주마씨?(벌초 가면 이렇게 벌한테 쏘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벌한테 쏘이면 어떻게 하지요?)

113043 #1 벌한테 물려도 약이 잇어.(벌한테 물려도 약이 없어.)

113043 @ 것도 약 잇어마씨?(것도 약 없어요?)

113043 #1 어.(어.)

113044 @ 그럼 산에 가면 옷나무 많이 잇잖아예?(그럼 산에 가면 옷나무 많이 잇잖아요?)

113044 #1 어, 옷나무.(어, 옷나무.)

113044 @ 막 이렇게 굽히면 옷 오르잖아예. 그러면 어떻 헤마씨?(막 이렇게 굽히면 옷 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13044 #1 그것도 약이 따로 있어.(그것도 약이 따로 없어.)

113045 @ 그럼 어디 부딪혀서 멍이 들면 어떻 헤마씨?(그럼 어디 부딪혀서 멍이 들면 어떻게 해요?)

113045 #1 부딪혀서 멍이 들면은?(부딪혀서 멍이 들면?)

113045 @ 예.(예.)

113045 #1 별다른 게 뭐 생지왕이엔 험 게 있어. 생지왕.(별다른 게 뭐 생지왕이라고 한 게 있어. 생지왕.)

113045 @ 생지왕? 그게 뭐짱?(생지왕? 그게 무엇입니까?)

113045 #1 그게 있어. 지금도 한장에 있는데. 술 담양 떡국 허는 거.(그게 있어. 지금도 '한장'에 있는데. 술 담아서 먹고 하는 거.)

113045 @ 아, 술 담양 먹고 허는 거.(아, 술 담아서 먹고 하는 거.)

113045 #1 어.(어.)

113045 @ 생지왕?(생지왕?)

113045 #1 생지왕. 그거 멍든 데 좋주게.(생지왕. 그거 멍든 데 좋지.)

113045 @ 멍든 곳에 그거 바르는 거짱? 먹는 거짱?(멍든 곳에 그거 바르는 겁니까? 먹는 겁니까?)

113045 #1 그거 뺏아근엥 허주게.(그거 뺏아서 하지.)

113045 @ 그거 허면 좋아마씨?(그거 하면 좋아요?)

113045 #1 그거 허면 피가 생기는 거니까. 까맣게 생기면 그거 바르면 좋주게.(그거 하면 피가 생기는 거니까. 까맣게 생기면 그거 바르면 좋지.)

113046 @ 그 이거는 엇일 거 닳은디예. 말 더듬는 사람한테 뭐 따로 먹이거나 그런 거 엇언마씨?(그 이거는 없을 거 닳은데. 말 더듬는 사람한테 뭐 따로 먹이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113046 #1 엇어.(없어.)

113048 @ 그럼 이렇게 걷다가 발목 삐잖아예? 그럼 통통 붓잖아예?(그럼 이렇게 걷다가 발목 삐잖아요? 그럼 통통 붓잖아요?)

113048 #1 췌는 디 가야주게. 그것도 의사가 잇었으니까. 침 맞고.(죄는 데 가야지. 그것도 의사가 있었으니까. 침 맞고.)

113048 @ 삼촌 어렸을 때도 의사도 침 놓는 사람 잇언마씨?(삼촌 어렸을 때도 의사도 침 놓는 사람 있었어요?)

113048 #1 뭔가이 병원은 엇어도.(뭔가이 병원은 없어도.)

113048 @ 예.(예.)

113048 #1 병원은 엇어도 의사는 잇엇주게. 웨 그러냐면 침 놓고.(병원은 없어도 의사는 있었지. 왜 그러냐면 침 놓고.)

113048 @ 예.(예.)

113048 #1 약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은 약 처방도 해주고.(약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약 처방도 해주고.)

113048 @ 따로 집에서 허는 건 엇언마씨? 발목 빼었을 때.(따로 집에서 하는 건 없었어요? 발목 빼었을 때.)

113048 #1 엇어.(없어.)

113049 @ 그럼 귀에 물 들어갔을 때 잇잖아예? 바다에 강 귀에 물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터는 거 말고 뭐 허는 것 엇언마씨?(그럼 귀에 물 들어갔을 때 잇잖아요? 바다에 가서 귀에 물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터는 거 말고 뭐 하는 것 없었어요?)

113049 #1 엇엇주게.(없었지.)

113049 @ 그럼 물 안 나올 때는 어떻 헤마씨?(그럼 물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113049 #1 안 나올 때는?(안 나올 때는?)

113049 @ 예.(예.)

113049 #1 그 뜻인 물로 이렇게 허면 나와.(그 따뜻한 물로 이렇게 하면 나와.)

113049 @ 뜻인 물로? 차가운 물로 허면?(따뜻한 물로? 차가운 물로 하면?)

113049 #1 바닷물 뜻인 물로 행 영 허민 나와.(바닷물 따뜻한 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나와.)

113050 @ 그럼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군대가면 많이 생기는 건데 무좀 같은 거 생기잖아예?(그럼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군대가면 많이 생기는 건데 무좀 같은 거 생기잖아요?)

113050 #1 무좀 같은 거 약이 엇어.(무좀 같은 거 약이 없어.)

113050 @ 삼촌 걸린 적 엇어마씨?(삼촌 걸린 적 없어요?)

113050 #1 지금은 약이 잇주만은 옛날은 무좀에 약이 엇어.(지금은 약이 있지만 옛날은 무좀에 약이 없어.)

113050 @ 그럼 무좀 나면 깨끗이 씻는 거밖에?(그럼 무좀 나면 깨끗이 씻는 거밖에?)

113050 #1 그거 하여튼 양말도 신지 말고 해야주게.(그거 하여튼 양말도 신지 말고 해야지.)

113051 @ 습진 알아마씨? 습진? 그 피부병인데 빨갱게 붓거나 우둘투둘하게 부르트고, 물집이나 딱지 생기거든마씨.(습진 알아요? 습진? 그 피부병인데 빨갱게 붓거나 우둘투둘하게 부르트고, 물집이나 딱지 생기거든요.)

113051 #1 그거 때가 되면 들어가.(그거 때가 되면 들어가.)

14. 경험담, 속담, 금기어 듣기

114001 @ 죽을 뻔 했던 일 있어마씨?(죽을 뻔 했던 일 있어요?)

114001 #1 그런 일은 었어.(그런 일은 없어.)

114001 @ 그럼 삼촌 이거말양 막 아팠을 적은 었언마씨?(그럼 삼촌 이거말고 막 아팠을 적은 없었어?)

114001 #1 아플 적이야 뭐 옛날은 옛날은 이. 구신이라고 허는 게 있어. 이룬데 막 나곡.(아플 적이야 뭐 옛날은 옛날은 이. 홍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룬데 막 나고.)

114001 @ 예.(예.)

114001 #1 불룩불룩 나오는 건디. 그거 해야 어른이라고 허는디.(불룩불룩 나오는 건데. 그거 해야 어른이라고 했지.)

114001 @ 옛날 지금부터 사시면서 할아버지 그 좀 막 많이 다친 적 있어마씨? 몸. 다친 적 있어마씨?(옛날 지금부터 사시면서 할아버지 그 좀 막 많이 다친 적 있어요? 몸. 다친 적 있어요?)

114001 #1 다리.(다리.)

114001 @ 죽을 뻔한 적은 었지예?(죽을 뻔한 적은 없지요?)

114001 #1 그건 었고.(그건 없고.)

114001 @ 그건 었고. 그럼 크게 다친 적은 었어마씨?(그건 없고. 그럼 크게 다친 적은 없어요?)

114001 #1 크게 다친 적이 잘못헿 텅기다가 정운기. 촌에는 정운기 많으니까. (크게 다친 적이 잘못해서 다니다가 경운기. 촌에는 경운기 많으니까.)

114001 @ 예.(예.)

114001 #1 그것에 다치는 사람이 많주게.(그것에 다치는 사람이 많지.)

114001 @ 삼촌도 경운기 헿 다친 적 있어마씨?(삼촌도 경운기 해서 다친 적 있어요?)

114001 #1 어. 나 다쳐났어.(어. 나 다쳤었어.)

114001 @ 아, 언제마씨?(아, 언제요?)

114001 #1 헌 이삼 년 뻐어.(한 이삼 년 뻐어.)

114001 @ 아, 얼마 안 뻐구나예. 어디 다리? 어떻 허당?(아, 얼마 안 뻐군요. 어디 다리? 어떻게 하다가?)

114001 #1 차에 부딪헿.(차에 부딪혀서.)

114001 @ 아, 차에. 삼촌 경운기 운전허다가?(아, 차에. 삼촌 경운기 운전하다가?)

114001 #1 차 일로 오고 난 영 굽이 꺾을 때 그 때.(차 이리로 오고 난 이렇게 굽이 꺾을 때 그 때.)

114001 @ 아, 차가 박아 붙언마씨? 그럼 병원에 입원헿수광?(아, 차가 박아 버렸어요? 그럼 병원에 입원헿습니까?)

114001 #1 입원은, 입원은 안 하고. 그냥.(입원은, 입원은 안 하고. 그냥.)

114001 @ 그럼 그거보다 그 더 젊으셨을 때는 따로 다친 적은 엇어마씨?(그럼 그거보다 그 더 젊으셨을 때는 따로 다친 적은 없어요?)

114001 #1 없었지.(없었지.)

114001 @ 다리 불편하잖아예?(다리 불편하잖아요?)

114001 #1 어.(어.)

114001 @ 그건 어떻 허당 다친마씨?(그건 어떻게 하다가 다쳤어요?)

114001 #1 이거는.(이거는.)

114001 @ 예.(예.)

114001 #1 내가 일 너무 많이 해부난.(내가 일 너무 많이 해버리니까.)

114001 @ 아, 일 너무 많이 허니까?(아, 일 너무 많이 하니까?)

114001 #1 어. 너무 부러 먹었던. 병원에 가니까.(어. 너무 부러 먹었다. 병원에 가니까.)

114001 @ 너무 부러 먹으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럼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서 사람 죽은 거나 이렇게 사고나 돌아가시거나 그런 거 본 적은 엇어마씨?(너무 부러 먹으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럼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서 사람 죽은 거나 이렇게 사고로 돌아가시거나 그런 거 본 적은 없어요?)

114001 #1 응?(응?)

114001 @ 사고로 옆에 사람들이 돌아가신 거 본 적 잇어마씨?(사고로 옆에 사람들이 돌아가신 거 본 적 있어요?)

114001 #1 옆에 사고로?(옆에 사고로?)

114001 @ 예. 뭐 차 사고나 아무거나 사고 같은 거.(예. 뭐 차 사고나 아무거나 사고 같은 거.)

114001 #1 그런 건 촌에 벨로 엇어. 사고 나면 즉시 뭔가 이 실어 가니까. 그 옛날에는 길에서 죽는 것이 잇엇주게. 눈 와서 눈에 뭍혀가지고 술 한 잔 먹어가지고 질에서 좀 자당 얼어근엥 죽어불곡. 그런 사고는 잇엇지만은.(그런 건 촌에 벨로 엇어. 사고 나면 즉시 뭔가 이 실어 가니까. 그 옛날에는 길에서 죽는 것이 잇엇지. 눈 와서 눈에 막혀가지고 술 한 잔 먹어가지고 길에서 좀 자다가 얼어서 죽어버리고. 그런 사고는 잇엇지만.)

114001 @ 예.(예.)

114001 #1 요즘은 뭐 다치면 전화 연락하면 차로 오니까 죽는 사람 엇어.(요즘은 뭐 다치면 전화 연락하면 차로 오니까 죽는 사람 없어.)

114001 @ 옛날에도 일일구로 불렀지예? 다치면.(옛날에도 일일구로 불렀지요? 다치면.)

114001 #1 그렇지. 아, 옛날에는 일일구 없엇어.(그렇지. 아, 옛날에는 일일구 없엇어.)

114001 @ 그럼 어떻 헤마씨?(그럼 어떻게 해요?)

114001 #1 어떻 허기는 그냥 집에 강. 또 들에서 죽은 사람은 집 안에 안 들여 놓거든.(어떻게 하기는 그냥 집에 가서. 또 들에서 죽은 사람은 집 안에 안 들여놓거든.)

114001 @ 그럼 집 안에 안 들여놔마씨?(그럼 집 안에 안 들여놔요?)

114001 #1 어. 나쁘다고. 게민 뭔가 밧에다 천막 쳐가지고.(어. 나쁘다고. 그러면 뭔가 밧에다 천막 쳐가지고.)

114001 @ 예.(예.)

114001 #1 죽은 사람을 거기 놔근엔 뭐 허주게.(죽은 사람을 거기 놔서 뭐 하지.)

114001 @ 아, 죽은 사람을 밖에 놔 해마씨? 그러면 장도 밖에서 그렇게?(아, 죽은 사람을 밖에 놔서 해요? 그러면 장도 밖에서 그렇게?)

114001 #1 어. 죽은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고. 집에서 뭔가 일포니 뭐니 다 허주게.(어. 죽은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고. 집에서 뭔가 일포니 뭐니 다 하지.)

114001 @ 아, 그러면 요즘에는 막 병 걸리고 이렇게 사고로도 많이 죽잖아예?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로. 그러면 옛날에는 촌에는 교통사고 같은 건 없었고?(아, 그러면 요즘에는 막 병 걸리고 이렇게 사고로도 많이 죽잖아요?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로. 그러면 옛날에는 촌에는 교통사고 같은 거는 없었고?)

114001 #1 옛날에는.(옛날에는.)

114001 @ 예.(예.)

114001 #1 교통사고 없었어. 죽으면 그냥 겨울 때면 그냥.(교통사고 없었어. 죽으면 그냥 겨울 때면 그냥.)

114001 @ 예.(예.)

114001 #1 일찍도 얘기했주만은.(일찍도 얘기했지만.)

114001 @ 예.(예.)

114001 #1 어디 웨방 강 오다가 술 먹어가지고.(어디 외방 가서 오다가 술 먹어가지고.)

114001 @ 웨방. 웨방마씨?(외방. 외방이요?)

114001 #1 어.(어.)

114001 @ 웨방은 뭐팡?(외방은 무엇입니까?)

114001 #1 웨방이엔 현 거?(외방이라고 한 거?)

114001 @ 예.(예.)

114001 #1 여기서 뭔가 어디 시에쫘이나.(여기서 뭔가 어디 시에쫘이나.)

114001 @ 예.(예.)

114001 #1 한림쫘이나 가면은 웨방이엔 허거든. 옛날에는. 거기 강 오다가.(‘한림’쫘이나 가면 외방이라고 하거든. 옛날에는. 거기 가서 오다가.)

114001 @ 예.(예.)

114001 #1 옛날 걸어서 다녔거든 제주시나 뭐나.(옛날 걸어서 다녔거든 제주시

나 뭐냐.)

114001 @ 예.(예.)

114001 #1 경 행 땡기당 오다가 옛날은 이 길이 저런 길이 아니었거든. 흙길.
(그렇게 해서 다니다가 오다가 옛날은 이 길이 저런 길이 아니었거든. 흙길.)

114001 @ 아.(아.)

114001 #1 비오면 바로 다리 막 빠져가지고 걸어 땡기는데. 경 행 오다가 눈 묻어볼민 술 먹영 오다가 앓앗당 가주게 현 게 술 먹영 자불어게.(비오면 바로 다리 막 빠져가지고 걸어 다니는데. 그렇게 해서 오다가 눈 쌓이면 술 먹어서 오다가 앓았다가 가지 한 게 술 먹어서 자버려.)

114001 @ 동사허는 거지예?(동사하는 거지요?)

114001 #1 게난 거기서 눈 묻으면 죽어불주게.(그러니까 거기서 눈 쌓이면 죽어버리지.)

114001 @ 그럼 옛날에는 주로 그런 일 때문에 많이 돌아가셨겠다예?(그럼 옛날에는 주로 그런 일 때문에 많이 돌아가셨겠군요?)

114001 #1 어.(어.)

114002 @ 그럼 옛날에 막 그 마을에 귀신 같은 거 나타났다. 귀신 얘기 같은 거 아는 거 잇수광? 귀신.(그럼 옛날에 막 그 마을에 귀신 같은 거 나타났다. 귀신 얘기 같은 거 아는 거 있습니까? 귀신.)

114002 #1 귀신이 여기서 촌에서 뭐 잇다고 볼 수 잇주게.(귀신이 여기서 촌에서 뭐 잇다고 볼 수 있지.)

114002 @ 아.(아.)

114002 #1 웨 그러냐면.(왜 그러냐면.)

114002 @ 예.(예.)

114002 #1 좃무덤이라고 허주게. 죽은 애들 묻는 데를.(‘좃무덤’이라고 하지. 죽은 애들 묻는 데를.)

114002 @ 예.(예.)

114002 #1 그냥 한쪽 구석에 좃무덤이라고 해가지고 죽으면 거기밖기 못 묻주게.(그냥 한쪽 구석에 ‘좃무덤’이라고 해가지고 죽으면 거기밖에 못 묻지.)

114002 @ 무슨 무덤마씨?(무슨 무덤이요?)

114002 #1 좃무덤.(‘좃무덤’.)

114002 @ 좃무덤.(‘좃무덤’.)

114002 #1 아기 아기들 어린 애들 죽은 사람 혼 뭔가 결혼 안 한 사람들 죽은 열 살 정도 애들 죽으면 문딱 한쪽으로 묻어놔어. 옛날에는.(아기 아기들 어린 애들 죽은 사람 한 뭔가 결혼 안 한 사람들 죽은 열 살 정도 애들 죽으면 전부 한쪽으로 묻었었어. 옛날에는.)

114002 @ 예.(예.)

114002 #1 그거 보고 좃무덤이라고 허주게.(그거 보고 ‘좃무덤’이라고 하지.)

114002 @ 아, 그걸 보고 좃무덤이라고 해마씨?(아, 그걸 보고 ‘좃무덤’이라고 해요?)

114002 #1 어.(어.)

114002 @ 그건 처음 들어봤수다. 거기에 귀신이 많이 나와마씨?(그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거기에 귀신이 많이 나와요?)

114002 #1 거기서.(거기서.)

114002 @ 예.(예.)

114002 #1 밤이면 으실으실 행 혈 적에는.(밤이면 으슬으슬 해서 할 적에는.)

114002 @ 예.(예.)

114002 #1 거기를 건너가면 아기 혼드는 소리.(거기를 건너가면 아기 혼드는 소리.)

114002 @ 아기 혼드는 소리? 그게 무슨 소리짱?(아기 혼드는 소리?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114002 #1 거 아기 그 제주도에서나 어디서나 뭔가 그 대에 바구니 영 한 것에 녹져가지고 이렇게 흔들영 한다.(거 아기 그 제주도에서나 어디서나 뭔가 그 대에 바구니 이렇게 한 것에 눅혀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한다.)

114002 @ 예.(예.)

114002 #1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할망이 나와가지고 한다고 해.(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한다고 해.)

114002 @ 아, 그런 귀신이 있다고 해마씨?(아, 그런 귀신이 있다고 해요?)

114002 #1 게고 이 헛불¹⁶².(그리고 이 ‘헛불’.)

114002 @ 헛불.예. 그게 뭐짱?(‘헛불’. 예. 그게 무엇입니까?)

114002 #1 도깨비라고 허는 거주게. 헛불.(도깨비라고 하는 거지. ‘헛불’.)

114002 @ 예. 그거 좀 곱아 줘서. 헛불.(예. 그거 좀 얘기해 주십시오. ‘헛불’.)

114002 #1 그게 헛불이다.(그게 ‘헛불’인데.)

114002 @ 예.(예.)

114002 #1 저 수월봉에서 불이 커지면은.(저 ‘수월봉’에서 불이 켜지면.)

114002 @ 예.(예.)

114002 #1 저 뭔가 당오름도 가고.(저 뭔가 ‘당오름’도 가고.)

114002 @ 예.(예.)

114002 #1 저 영 고산 천지 그 으스스한 데는 다 날아다니명 붙어. 저 불이 헛불이. 그걸 보고 도깨비라고 허주게.(저 이렇게 ‘고산’ 천지 그 으스스한 데는 다 날아다니면서 붙어. 저 불이 ‘헛불’이. 그걸 보고 도깨비라고 하지.)

114002 @ 아. 그것도 본 적은 잇수짱? 아니면 얘기만 들언마씨?(아. 그것도 본 적은 있습니까? 아니면 얘기만 들었어요?)

114002 #1 그거 본 적 잇주게.(그거 본 적 있지.)

162) ‘헛불’은 도깨비불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14002 @ 언제 판마씨?(언제 봤어요?)

114002 #1 그거는 내가 한 열다섯.(그거는 내가 한 열다섯.)

114002 @ 그럼 칠십 년 전마씨?(그럼 칠십 년 전이요?)

114002 #1 어.(어.)

114002 @ 그럼 그거 얘기해 줘서.(그럼 그거 얘기해 주십시오.)

114002 #1 그거 뭐 얘기할 게 뭐 있어? 그거 여기서 여기 낭에 붙었다가.(그거 뭐 얘기할 게 뭐 있어? 그거 여기서 여기 나무에 붙었다가.)

114002 @ 예.(예.)

114002 #1 또 저쪽 으스스한 데만 돌아다니명 붙주게. 또 막 붙으면 여러 개 해서 짝 갈라정.(또 저쪽 으스스한 데만 돌아다니면서 붙지. 또 막 붙으면 여러 개 해서 짝 갈라져서.)

114002 @ 예.(예.)

114002 #1 갈라져근엔 또 온 곳으로 도망가붙어.(갈라져서 또 온 곳으로 도망가 버려.)

114002 @ 아 문딱 도망가붙어?(아 전부 도망가버려?)

114002 #1 그게 도체비주게.(그게 도깨비지.)

114002 @ 그럼 그거 만나면 무서워서 집에 들어왕 뭐 허는 거 엇언마씨?(그럼 그거 만나면 무서워서 집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 없었어요?)

114002 #1 또 헛것이엔 헛 것도 잊주게.(또 헛것이라고 한 것도 있지.)

114002 @ 헛것? 그건 뭐짱?(헛것? 그건 무엇입니까?)

114002 #1 헛것이엔 헛 게 사람 닮아도.(헛것이라고 한 게 사람 닮아도.)

114002 @ 예.(예.)

114002 #1 긴 거라. 긴 거. 사람이 아니주게.(긴 거라. 긴 거. 사람이 아니지.)

114002 @ 아, 사람이 아니라.(아, 사람이 아니라.)

114002 #1 그거 보고 헛것이라 허주게.(그거 보고 헛것이라 하지.)

114002 @ 그건 귀신이랑 다른 거짱?(그건 귀신이랑 다른 겁니까?)

114002 #1 거 귀신이주게.(거 귀신이지.)

114002 @ 것도 본 적 있어마씨? 헛것?(것도 본 적 있어요? 헛것?)

114002 #1 것도 본 적 잊주게.(것도 본 적 있지.)

114002 @ 그건 언제 판마씨?(그건 언제 봤어요?)

114002 #1 그거는 전기 걸기 전에 노상 조금씩 거 나와.(그거는 전기 걸기 전에 노상 조금씩 거 나와.)

114002 @ 아, 그거 전기 오기 전에? 그럼 전기 들어오기 전에는 그럼 밤에는 막 깜깜하겠다예?(아, 그건 전기 오기 전에? 그럼 전기 들어오기 전에 그럼 밤에는 막 깜깜하겠군요?)

114002 #1 깜깜허주게.(깜깜하지.)

114002 @ 초박에 엇고.(초박에 없고.)

114002 #1 어. 초밥끼 잊고.(어. 초밥에 없고.)

114002 @ 예.(예.)

114002 #1 그때는 후라쉬 지금 같은 후라쉬도 없었거든.(그때는 후라쉬 지금 같은 후라쉬도 없었거든.)

114002 @ 전깃불은 언제 들어완마씨? 여기?(전깃불은 언제 들어왔어요? 여기?)

114002 #1 언제사 들어와신지.(언제야 들어왔는지.)

114002 @ 좀 오래됐지예?(좀 오래됐지요?)

114002 #1 오래됐어. 전깃불 잊이든 헛것이 안 나온다고 해도.(오래됐어. 전깃불 있으면 헛것이 안 나온다고 해요.)

114002 @ 예.(예.)

114002 #1 나오는 거라. 그거.(나오는 거라. 그거.)

114002 @ 아, 나와마씨? 혼자 있을 때 봤마씨? 아니면 여러 명 있을 때 봤마씨?(아, 나와요? 혼자 있을 때 봤어요? 아니면 여러 명 있을 때 봤어요?)

114002 #1 그거는 직성이 얇은 사람은 보이고 직성이 뭐 험 사람은 안 보여. 보여도 즉시 사라져버려.(그거는 직성이 얇은 사람은 보이고 직성이 뭐 험 사람은 안 보여. 보여도 즉시 사라져버려.)

114002 @ 직성이 뭐 험 사람마씨?(직성이 뭐 험 사람이요?)

114002 #1 이 옛날에 직성이엔 험 거. 자기 몸에 빛이 잇주게.(이 옛날에 직성이라고 한 거. 자기 몸에 빛이 있지.)

114002 @ 아 그걸 직성이라고 해마씨? 그럼 직성이 잇인 사람은 뭐짱?(아 그걸 직성이라고 해요? 그럼 직성이 잇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114002 #1 직성이 잇는 사람은 직성 세니까.(직성이 잇는 사람은 직성 세니까.)

114002 @ 예.(예.)

114002 #1 조금 덜 보이고 직성 잇인 사람은 밧에 가면 그거 가는 데까지 가. 또 사람 흘러 가는 것도 잇주게.(조금 덜 보이고 직성 없는 사람은 밧에 가면 그거 가는 데까지 가. 또 사람 흘러 가는 것도 있지.)

114002 @ 예.(예.)

114002 #1 사람 흘렁 그 헛것이. 이제는 그런 거 잊어.(사람 흘려서 그 헛것이. 이제는 그런 거 없어.)

114002 @ 요즘에는 헛것이나 헛불 같은 거 본 적 잊어마씨?(요즘에는 헛것이나 ‘헛불’ 같은 거 본 적 없어요?)

114002 #1 요새는 전기가 다 들어오난 그런 거 본 적 잊어.(요새는 전기가 다 들어오니까 그런 거 본 적 없어.)

114002 @ 무사 옛날에는 잇어신디 요즘에는 잊인가마씨?(왜 옛날에는 잇었는데 요즘에는 없을까요?)

114002 #1 어?(어?)

114002 @ 옛날에는 그런 거 잇어신디 무사 요즘에는 잊어져신가마씨?(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는데 왜 요즘에는 없어졌을까요?)

114002 #1 몰라 그건. 요즘에는 없어 그런 거.(몰라 그건. 요즘에는 없어 그런 거.)

114002 @ 그러니까 전깃불 때문에 었어진 것도 아닌데. 요즘에는 본 적 없지 예?(그러니까 전깃불 때문에 었어진 것도 아닌데. 요즘에는 본 적 없지요?)

114002 #1 어.(어.)

114003 @ 그러면 어 그 삼촌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밧에서 과일 같은 거 많이 키워마씨? 어렸을 때도?(그러면 어 그 삼촌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밧에서 과일 같은 거 많이 키워어요? 어렸을 때도?)

114003 #1 여기는 과일 키우는 동네가 아니다.(여기는 과일 키우는 동네가 아니다.)

114003 @ 아, 여기 과일 키우는 동네가 아니구나.(아, 여기 과일 키우는 동네가 아니구나.)

114003 #1 여기 바람 불면은.(여기 바람 불면.)

114003 @ 예.(예.)

114003 #1 사람이 안 보이게끔 흙이 날아오거든.(사람이 안 보이게끔 흙이 날아 오거든.)

114003 @ 아 옛날에는 경 헨마씨?(아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114003 #1 옛날에도 경 허고 지금도 경 허여.(옛날에도 그렇게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해.)

114003 @ 아.(아.)

114003 #1 그거는 변허지 안 헛어. 바람. 지금 집 짓는 사람들이.(그거는 변하지 안 헛어. 바람. 지금 집 짓는 사람들이.)

114003 @ 예.(예.)

114003 #1 아직 브름 맛을 못 보니까 집을 짓는 거지. 여기 마당이고 집이고 바람 불면 다 덮어버리주게.(아직 바람 맛을 못 보니까 집을 짓는 거지. 여기 마당이고 집이고 바람 불면 다 덮어버리지.)

114003 @ 여기 바람이 유명하구나예?(여기 바람이 유명하군요?)

114003 #1 여기 제주도에서 바람이 쨌 쉐 데주게.(여기 제주도에서 바람이 제일 쉌 데지.)

114003 @ 아, 그러니까 제주도가 바람이 쉌 데 여기 한장이나 고산이 바람이 제일 세마씨?(아, 그러니까 제주도가 바람이 쉌 데 여기 '한장'이나 '고산'이 바람이 제일 세요?)

114003 #1 여기가 쉌 세주게.(여기가 제일 세지.)

114003 @ 무사 경 바람이 세마씨?(왜 그렇게 바람이 세요?)

114003 #1 저 바람 하늬바람이라고 해근앵 불면 북서풍이 불면.(저 바람 하늬바람이라고 해서 불면 북서풍이 불면.)

114003 @ 예.(예.)

114003 #1 세주게. 눈 오고 경 허민.(세지. 눈 오고 그렇게 하면.)

114003 @ 그럼 과일 같은 거는 삼촌 어렸을 때도 이렇게 밭에서 키워본 적은?
(그럼 과일 같은 거는 삼촌 어렸을 때도 이렇게 밭에서 키워본 적은?)

114003 #1 그런 건 없고. 지금이야 조금 키우지만 바람 때문에 안 돼주게.(그런 건 없고. 지금이야 조그 키우지만 바람 때문에 안 되지.)

114003 @ 그러면 어렸을 때 과일 서리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겠냐예?(그러면 어렸을 때 과일 서리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겠군요?)

114003 #1 아예 없어. 과일은 생각도 못허여.(아예 없어. 과일은 생각도 못해.)

114003 @ 그럼 서리도 못하고 애들이랑 이렇게 어렸을 때 동네 삼촌 또래 있었지예?(그럼 서리도 못하고 애들이랑 이렇게 어렸을 때 동네 삼촌 또래 있었지요?)

114003 #1 어.(어.)

114003 @ 그럼 또래 만나면 뭐 헨마씨?(그럼 또래 만나면 뭐 했어요?)

114003 #1 어릴 때?(어릴 때?)

114003 @ 예.(예.)

114003 #1 어릴 때 뭐 장난꾸러기들이난 장난밧긔.(어릴 때 뭐 장난꾸러기들이니까 장난밧에.)

114004 @ 어렸을 때 좀 들었던 재미난 얘기 좀 해 줘서.(어렸을 때 좀 들었던 재미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114004 #1 별로 재밌는 얘기도 들은 거 없고. 한결히 놀고 그런 거 었엇주게.
(별로 재밌는 얘기도 들은 거 없고. 한가히 놀고 그런 거 없었지.)

114004 @ 그럼 삼촌 어렸을 때 이렇게 있으면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옛날 얘기 해 준 거 기억나는 거 잇수광?(그럼 삼촌 어렸을 때 이렇게 있으면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옛날 얘기 해 준 거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114004 #1 할아버지 옛날 얘기 허는 거 뭐 별다른 거 었어.(할아버지 옛날 얘기 하는 거 뭐 별다른 거 없어.)

114004 @ 별다른 거 었어도 쎄찮으니까 기억나는 거 하나만 곶아 줘서.(별다른 거 없어도 쎄찮으니까 기억나는 거 하나만 말해 주십시오.)

114004 #1 기억나는 거 무신 뭐. 없어 없어.(기억나는 거 무슨 뭐. 없어 없어.)

114004 @ 그럼 제주도 에 잇는 속담 잇잖아예? 속담.(그럼 제주도에 잇는 속담 잇잖아요? 속담.)

114004 #1 속담?(속담?)

114004 @ 예. 속담 아시는 거 잇어마씨?(예. 속담 아시는 거 잇어요?)

114004 #1 속담이엔 현 게 옛날 말 얘기해 주는 게 속담이지. 무신 별다른 게 었어.(속담이라고 한 게 옛날 말 얘기해 주는 게 속담이지. 무슨 별다른 게 없어.)

114004 @ 그러니까 별다른 게 었인디. 그럼 속담 뭐가 잇어마씨? 속담.(그러니까 별다른 게 없는데. 그럼 속담 뭐가 잇어요? 속담.)

114004 #1 몰라 그런 거.(몰라 그런 거.)
 114004 @ 속담 몰라마씨?(속담 몰라요?)
 114004 #1 어.(어.)
 114004 @ 그러면 뭐 금기어 같은 거 그러니까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아시는 거 있어마씨?(그러면 뭐 금기어 같은 거 그러니까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아시는 거 있어요?)
 114004 #1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 소도리¹⁶³⁾ 하지 마라 이런 거?(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 ‘소도리’ 하지 마라 이런 거?)
 114004 @ 예. 그런 것들 뭐 있어마씨?(예. 그런 것들 뭐 있어요?)
 114004 #1 기억나는 거 벨로 엇다게.(기억나는 거 별로 없다.)
 114004 @ 그 옛날 제주도 속담 중에 셋브름 불민 날 우친다¹⁶⁴⁾ 이런 거 있잖아예?(그 옛날 제주도 속담 중에 동풍 불면 날 ‘우친다’ 이런 거 있잖아요?)
 114004 #1 그렇지.(그렇지.)
 114004 @ 그럼 그건 무슨 말이짱?(그럼 그건 무슨 말입니까?)
 114004 #1 셋브름?(동풍?)
 114004 @ 예.(예.)
 114004 #1 셋브름 불면은.(동풍 불면.)
 114004 @ 예.(예.)
 114004 #1 제주도 전체가 비온다고 허주게.(제주도 전체가 비온다고 하지.)
 114004 @ 아.(아.)
 114004 #1 마바람이나 갈바람이나 또 동서풍 해가지고.(남풍이나 서풍이나 또 동서풍 해가지고.)
 114004 @ 예.(예.)
 114004 #1 그런 바람은 오는 디만 오는 뭇도 잇주게. 비가.(그런 바람은 오는 데만 오는 뭇도 있지. 비가.)
 114004 @ 예.(예.)
 114004 #1 켄디 셋브름이라고 허는 거는 이 여기서 같으면 제주시 쪽으로 바람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은.(그런데 동풍이라고 하는 거는 이 여기서 같으면 제주시 쪽으로 바람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은.)
 114004 @ 예.(예.)
 114004 #1 제주 전체가 비가 온다고 허는 거주게.(제주 전체가 비가 온다고 하는 거지.)
 114004 @ 예. 그런 게 속담이잖아예. 속담.(예. 그런 게 속담이잖아요. 속담.)
 114004 #1 속담이라는 거 잘 몰라.(속담이라는 거 잘 몰라.)
 114004 @ 그럼 셋바람은 물 알로 먼저 분다도 알아마씨? 그런 거 들어본 적 잇

163) ‘소도리’는 남이 한 얘기를 그 사람에게 전하여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표준어로는 ‘말전주’이다.

164) ‘우친다’는 일기가 흐리고 비 따위가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어마씨?(그럼 동풍은 물 아래로 먼저 분다도 알아요?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114004 #1 그런 건 들어본 적 없고.(그런 건 들어본 적 없고.)

114004 @ 그럼 셋브름은 날 우친다는 들어본 적 있고?(그럼 동풍은 날 ‘우친다’는 들어본 적 있고?)

114004 #1 어. 그렇지.(어. 그렇지.)

114004 @ 이런 거 속담 같은 거. 가매기 모른 식게. 이런 거는.(이런 거 속담 같은 거. 까마귀 모른 제사. 이런 거는.)

114004 #1 가매기 모른 식게는 뭔가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강 집에서 식게 허면 제사 끝나면 뭐 엇주게.(까마귀 모른 제사는 뭔가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서 집에서 제사하면 제사 끝나면 뭐 없지.)

114004 @ 잘 알았신게마씨.(잘 알고있네요.)

114004 #1 뭐 ㄹ르당 눈 먼 사위 현다. 이런 건 들어봤마씨?(뭐 고르다가 눈 먼 사위 한다. 이런 건 들어봤어요?)

114004 @ ㄹ르당 눈 먼 사위 현다?(고르다가 눈 먼 사위 한다?)

114004 #1 그건 모르켜.(그건 모르겠다.)

114004 @ 그럼 가시아방 봐도 조롭¹⁶⁵으로 절현다.(그럼 장인 봐도 뒤로 절한다.)

114004 #1 어.(어.)

114004 @ 이걸 들어보셨마씨?(이걸 들어보셨어요?)

114004 #1 어. 바쁘니까.(어. 바쁘니까.)

114004 @ 바쁘니까?(바쁘니까?)

114004 #1 사람이 바쁘니까 가시아방 봐도.(사람이 바쁘니까 장인 봐도.)

114004 @ 예.(예.)

114004 #1 절 할 뭐가 엇이니까. 그냥 허는 거.(절 할 뭐가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

114005 @ 삼촌 그럼 아시는 거 중에 속담이나 금기어 잇잖아예?(삼촌 그럼 아시는 거 중에 속담이나 금기어 잇잖아요?)

114005 #1 어?(어?)

114005 @ 뭐 허지 마라. 뭐 허지 마라 그런 얘기 들은 거 잇이든 얘기헤 줘서.(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런 얘기 들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114005 #1 어.(어.)

114005 @ 뭐 할 때 뭐 허지 마라.(뭐 할 때 뭐 하지 마라.)

114005 #1 그 그거.(그 그거.)

114005 @ 예.(예.)

114005 #1 그런 뭐 할 때 뭐 허지 마라.(그런 뭐 할 때 뭐 하지 마라.)

114005 @ 예.(예.)

165) ‘조롭’은 꿩무니 혹은 뒤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14005 #1 그런거야 벨로 엇주게.(그런 거야 별로 없지.)

114005 @ 엇어마씨?(없어요?)

114005 #1 동티엔 현 거 잊지마는 동티엔 현 거는 자기에 따라가지고.(동티라고 한 거 있지만 동티라고 한 거는 자기에 따라가지고.)

114005 @ 예.(예.)

114005 #1 이제 낭을 끊거나 집 안에서 뭐 허거나 헐 때. 거는 동티라고 해가지고 읍기지 마라고 허지.(이제 나무를 끊거나 집 안에서 뭐 하거나 할 때. 거는 동티라고 해가지고 읍기지 마라고 하지.)

114005 @ 옛날에 어르신들이 마을에서 뭐 허지마라고 허는 거 없어수광?(옛날에 어르신들이 마을에서 뭐 하지마라고 하는 거 없었습니까?)

114005 #1 말 들으면 들인 디 버리라. 그 말을 읍기지 마라고.(말 들으면 들은 데 버리라. 그 말을 읍기지 마라고.)

114006 @ 옛날 사는 거랑 지금 사는 거랑 어떻게 달라전마씨?(옛날 사는 거와 지금 사는 거와 어떻게 달라졌어요?)

114006 #1 옛날 사는 거야 뭐 다른 거야 많주게.(옛날 사는 거야 뭐 다른 거야 많지.)

114006 @ 예. 게니까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곱아줍서.(예.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얘기해 주십시오.)

114006 #1 어.(어.)

114006 @ 옛날이랑 그 지금이랑 어떻 달라마씨?(옛날과 그 지금과 어떻게 달라요?)

114006 #1 옛날이야 학교 다닐라 해도 일곱 여덟 살에 맨발에도 땡기고.(옛날이야 학교 다니려 해도 일곱 여덟 살에 맨발에도 다니고.)

114006 @ 예.(예.)

114006 #1 초신이나 신고 땡기고. 비오면 맨발에 들앙 다니고.(짚신이나 신고 다니고. 비오면 맨발에 달아서 다니고.)

114006 @ 예.(예.)

114006 #1 눈 올 때는 초신에 그냥 조리 그런 거 신고 돌아다니고. 나막, 나막신 신영 땡기고 비오면 게다도 신영 다니고 헛주게. 그랬지 뭐. 벨다른 거 별로 엇어.(눈 올 때는 짚신에 그냥 조리 그런 거 신고 돌아다니고. 나막, 나막신 신고 다니고 비오면 게다도 신어서 다니고 헛지. 그랬지 뭐. 벨다른 거 별로 없어.)

114006 @ 그 육지 갈 때 옛날, 지금은 비행기 잇수게.(그 육지 갈 때 옛날, 지금은 비행기 있습니다.)

114006 #1 응.(응.)

114006 @ 옛날에는 육지 갈 때 서울 갈 때 어떻 갖수광?(옛날에는 육지 갈 때 서울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114006 #1 여기는 제주도에서는 부산으로 주로 갖주게.(여기는 제주도에서는 부

산으로 주로 갔지.)

114006 @ 부산으로?(부산으로?)

114006 #1 어. 부산.(어. 부산.)

114006 @ 뭐 배 탕 갓수광?(뭐 배 타서 갔습니까?)

114006 #1 배타지.(배타지.)

114006 @ 예.(예.)

114006 #1 그 때 왜 그러냐면 옛날도이 그 삼돛, 삼돛배라고 큰 배로 경 허니깐 좀처럼 도시 구경을 못했어. 제주도에서.(그 때 왜 그러냐면 옛날도 그 삼돛, 삼돛배라고 큰 배로 그렇게 하니깐 도시 구경을 못했어. 제주도에서.)

114006 @ 그럼 여기서 제주시, 목 안에 갈 때는 옛날에 어떻 간마씨? 시에 갈 때마씨.(그럼 여기서 제주시, 목 안에 갈 때는 옛날에 어떻게 갔어요? 시에 갈 때요.)

114006 #1 시에 갈 때 걸었어.(시에 갈 때 걸었어.)

114006 @ 아.(아.)

114006 #1 여기서 걸어.(여기서 걸어.)

114006 @ 여기서 제주시까지마씨?(여기서 제주시까지요?)

114006 #1 어. 제주시까지 걸어서 들어가고. 그 때는 할망들은 시 구경하기 힘들었어.(어. 제주시까지 걸어서 들어가고. 그 때는 할머니들은 시 구경하기 힘들었어.)

114006 @ 그럼 여기서 걸어가면 얼마나 걸어야 돼마씨?(그럼 여기서 걸어가면 얼마나 걸어야 돼요?)

114006 #1 여기서 아침에 나가든 열두 시 넘어 들어가.(여기서 아침에 나가면 열두 시 넘어서 들어가.)

114006 @ 열두 시 넘어 들어가마씨?(열두 시 넘어서 들어가요?)

114006 #1 어.(어.)

114006 @ 그럼 네다섯 시간 걸어마씨?(그럼 네다섯 시간 걸어요?)

114006 #1 어.(어.)

114006 @ 걸영 뭐 일 뵙 다시 걸영 완마씨?(걸어서 뭐 일 봐서 다시 걸어서 왔어요?)

114006 #1 어. 이제 삶은 삶이 아니라. 이제 삶은 농사짓는 것도 그렇고 사람 뎅기는 것도 뭐 좀 허민 동네에서 자전거도 탕 뎅기고 오토바이도 탕 뎅기고 또 요디 갈 때는 택시 탕 가고 허는데 뭐.(어. 이제 삶은 삶이 아니라. 이제 삶은 농사짓는 것도 그렇고 사람 다니는 것도 뭐 좀 하면 동네에서 자전거도 타서 다니고 오토바이도 타서 다니고 또 여기 갈 때는 택시 타서 가고 하는데 뭐.)

114006 @ 옛날에는 다리로?(옛날에는 다리로?)

114006 #1 어. 그 옛날에는 어디 가면은 다 다리로. 게니까 멍이 길어야 육십이라. 옛날은.(어. 그 옛날에는 어디 가면은 다 다리로. 그러니까 멍이 길어야 육십이

야. 옛날은.)

114006 @ 아.(아.)

114006 #1 지금은 육십이 한창이다.(지금은 육십이 한창인데.)

114006 @ 예.(예.)

114006 #1 멍이 길어야 육십까지 살았주게.(멍이 길어야 육십까지 살았지.)

연구 참여자

이름	소속과 전공	분야	참여 구분
박찬식	제주학연구센터	역사학	연구 책임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총괄, 제주시 도련1동 표선면 표선리
김미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조천읍 선흘1리
김선희	제주대학교 강사	고전문학(제주무속)	구좌읍 송당리
김승연	박사과정 수료	한국학(제주무속)	성산읍 고성리
허영선	제주대학교 강사	한국학(제주역사)	표선면 표선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남원읍 남원리
최연미	돈을양지책뜨르	국문학	서귀포시 보목동
김성용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안덕면 동광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경면 고산리
안민희	민요패 소리왓	한국학(제주민요)	한림읍 월령리
현혜림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	국어국문학	연구보조

2017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9

발행인 박찬식

발행일 2017년 12월

발행처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이도1동) 3층

전화: (064) 726-5623, 팩스: (064) 747-6140

누리집: www.jst.re.kr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